

## 차례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 . . . .	i
편집자의 말 . . . . .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 . . . .	v
주석:	
마태복음 서론 . . . . .	1
마태복음 1 장 . . . . .	5
마태복음 2 장 . . . . .	15
마태복음 3 장 . . . . .	25
마태복음 4 장 . . . . .	33
마태복음 5 장 . . . . .	44
마태복음 6 장 . . . . .	69
마태복음 7 장 . . . . .	85
마태복음 8 장 . . . . .	95
마태복음 9 장 . . . . .	104
마태복음 10 장 . . . . .	113
마태복음 11 장 . . . . .	128
마태복음 12 장 . . . . .	139
마태복음 13 장 . . . . .	151
마태복음 14 장 . . . . .	165
마태복음 15 장 . . . . .	173
마태복음 16 장 . . . . .	180
마태복음 17 장 . . . . .	190
마태복음 18 장 . . . . .	198
마태복음 19 장 . . . . .	207
마태복음 20 장 . . . . .	221
마태복음 21 장 . . . . .	230
마태복음 22 장 . . . . .	242
마태복음 23 장 . . . . .	251
마태복음 24 장 . . . . .	259
마태복음 25 장 . . . . .	274
마태복음 26 장 . . . . .	281
마태복음 27 장 . . . . .	279
마태복음 28 장 . . . . .	313
부록 1: 시대와 통치자들 . . . . .	318
부록 2: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 . . . .	322
부록 3: 본문비평 . . . . .	329
부록 4: 교리적 선언 . . . . .	332

## 마태복음의 특별주제 목차

하나님의 이름, 1:21 .....	11
헤롯대왕의 가족, 2:1 .....	16
점성가들, 2:1 .....	17
사두개인, 2:4 .....	19
멸망( <i>아폴뤼마</i> ), 2:13 .....	21
나사렛 예수, 2:23 .....	23
회개, 3:2 .....	26
불, 3:12 .....	29
삼위일체, 3:17 .....	31
헬라이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4:1 .....	35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4:2 .....	36
개인적 악, 4:5 .....	38
하나님의 왕국, 4:17 .....	41
의, 5:6 .....	48
마음, 5:8 .....	51
평화와 전쟁, 5:9 .....	51
상과 벌의 정도, 5:12 .....	54
아버지, 5:16 .....	55
아멘, 5:18 .....	57
살인(출 20:13), 5:21 .....	59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5:22 .....	61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5:22 .....	62
간음(출 20:14), 5:27 .....	64
성화, 5:48 .....	68
구제, 6:1 .....	71
외식하는 자, 6:2 .....	72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용어), 6:4 .....	73
신약에서 사용한 “문”의 용법, 6:6 .....	74
금식, 6:16 .....	78
관대한, 신실한( <i>하플로테스</i> ), 6:22-23 .....	79
부, 6:24 .....	80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7:1 .....	87
배교, 7:21 .....	91
하나님의 뜻( <i>셀레마</i> ), 7:21 .....	93
오실 특별하신 분에 대해 사용한 구약의 호칭, 8:20 .....	100
구원, 8:25 .....	101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동사 시제, 10:1	114
귀신을 내어쫓음, 10:1	115
귀신(부정한 영), 10:1	115
사도들의 이름 도표, 10:2	117
이스라엘(이름), 10:6	118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을 받는가?, 10: 22	121
인내, 10:22	121
몸과 영, 10:28	124
시인, 10:32	124
보내다( <i>아포스탈로</i> ), 10:40,41	127
신약의 예언, 11:9	130
히브리 징경, 11:13	133
슬픔의 의식, 11:21	135
성화, 11:28	137
안식일, 12:1	141
예수와 성령, 12:18	144
소망, 12:21	145
성령의 인격, 12:31	146
이 세대와 오는 세대(두 세대), 12:31	147
서기관, 12:38	148
비유의 해석, 13 장의 서론	153
고대 근동에서의 도량형, 13:32	159
“~의 아들,” 13:38	161
열 둘, 14:20	169
인간의 말, 15:19	177
누룩, 16:6	182
교회(에클레시아), 16:18	184
이사야서의 두 도시, 16:19	184
산헤드린, 16:21	186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 17:24	195
영원한, 18:8,9	200
제한이 있으면서도 제한이 없는 기도, 18:19	203
주의 이름, 18:20	204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9:2	209
출 20 장에 대한 설명	212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함, 19:28	218
신자의 유업, 19:29	219
속량하다/구속하다, 20:28	226

영원히(헬라이어 관용어), 21:19	235
모퉁이 돌, 21:42	239
바리새인, 22:15	246
십일조, 23:23	255
쏟았다, 23:25	257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은유인 그늘, 23:37	258
목시문학, 24 장의 서론	260
24:3 에서 제자들이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262
재림, 24:3	263
밥의 복음적 편향, 24:14	265
멸망의 가증한 것, 24:15	266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24:22	267
마흔 두 달, 24:22	268
언제라도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아직은 아닌 재림, 24:27	268
인자, 24:30	269
구름을 타고 오심, 24:30	270
이스라엘이 사용한 별, 24:31	270
그 때, 24:36	272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26:29	287
산헤드린이 밤에 재판한 일의 불법성, 26:57-68.	294
본디오 빌라도, 27:2	299
가룟, 27:5	301
황제의 근위대, 27:27	303
성도, 27:52	307
하나님의 아들, 27:54	307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한 여자들, 27:55	309
부활, 27:63	311
인, 27:66	312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심, 28:9	315
침례(세례), 28:19	317

#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과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과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 단위와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sup>4</sup>).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과 중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세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 편집자의 말

성경 연구 주석 시리즈는 “최초의 기독교 입문서: 마태복음”의 발간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이 시리즈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가 되고 있다. 영어로 쓰여진 주석과 연구 자료들이 매우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 한편 밥 어틀리의 주석은 모든 수준의 성경 학도들을 도울 수 있게 특별히 기획된 주석으로서 성경에 대해 조금 밖에 모르는 새 신자로부터 성경 원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학자에 이르기까지 도울 수 있다. 이 시리즈는 각 장의 주석에 앞서 다섯 개의 본문을 문단별로 서로 대조하여 제시하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단락별 대조를 통하여 성경 저자가 가진 생각의 흐름과 논증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번역본을 따로 다룰 때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문단의 구분과 문학적 단락 자체가 영감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구분은 중요한 해석적 열쇠가 된다.

이 책이 실제로는 두 번째로 출판되었지만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등록이 되었다. 이 책은 복음서를 읽고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도서관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책이 될 것이다. 성경 전체에 대한 어틀리 박사의 주석 시리즈는 궁극적으로 신약을 다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영적인 과정이지만 영적 유익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방법을 요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시리즈의 저자는 각 독자가 본 주석을 해석의 버팀목이 아니라 안내서로서 사용하며 자기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성경과 씨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경 학도들을 “해석의 문지방”으로 이끌어 들여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점은 어틀리 박사의 뛰어난 은사이다. 계속 발간되는 각 책의 연구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직접 맞닥뜨려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험이 풍성해지는 일이 우리의 기대이다.

윌리엄 G. 웰스  
1997년 6월 23일

#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차움,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음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였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건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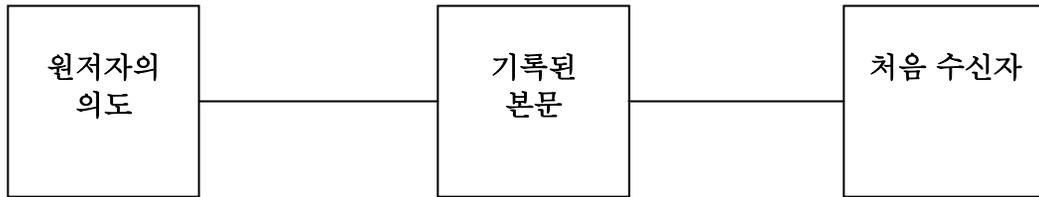
### I. 전제들

- (1)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2)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3)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4)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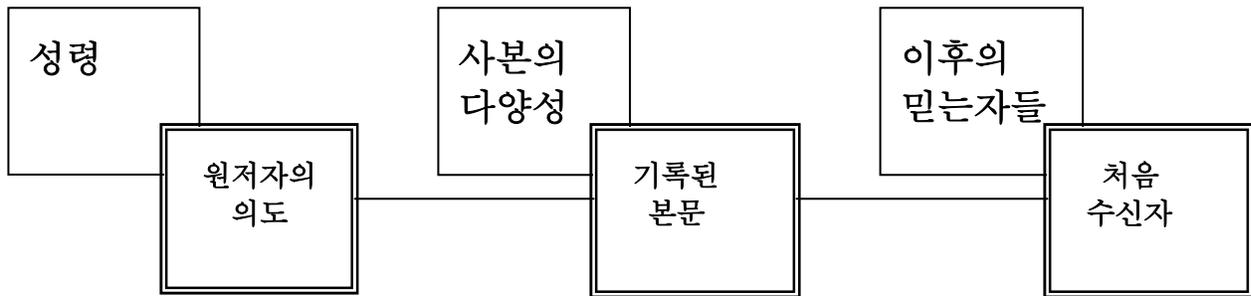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II. 부적절한 방법들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문서 간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 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 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 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 3) 예언서(산문, 시)
    - 4) 법률
  - ㄴ. 신약
    -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 2) 예화(복음서)
    - 3) 편지/서신서
    -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 ㄱ. 저자
  - ㄴ. 날짜
  -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령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마태복음 서론

## 들어가는 말

- 가. 르네상스/종교개혁 이전에는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쓰인 복음서로 여겼다(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 나. 이 책은 처음 2 세기 동안 가장 많이 필사되고 인용된 복음서이며, 교리문답과 초기의 의식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복음서이다.
- 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가장 폭 넓고 가장 조직적인 진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라고 *처음 세 복음서*(19 쪽)에서 말한다.  
이 책이 그러한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새 회심자(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라. 이 책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논리적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구약을 약속/성취의 구조로 보는데 이 점은 사도행전에서 케리그마로 불리는 초대 교회의 설교에서와 같은 면이다. 이 책은 구약을 50 회 이상 인용하고 있으며, 또 구약에 대하여 더 많은 수의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야웨께 대해 사용한 여러 칭호와 유추를 예수께 대해 사용하고 있다.
- 마. 따라서 마태복음의 목적은 복음전도적이며 제자훈련을 위한 것인데, 이는 대 위임(28:19-20)의 두 면을 이룬다.
  1. 이것은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책이다.
  2. 이것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제자훈련하기 위한 책이다.

## 저자

- 가. 비록 이른 시기에 속하는 헬라이어 신약 사본들(주후 200-400 년)에 “마태가 전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책 자체의 저자는 무명으로 되어 있다.
- 나. 초대 교회의 공통된 전통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인 세리(참조, 마 9:9; 10:3) 마태(또한 레위로도 알려짐, 참조, 막 2:14; 눅 5:27,29)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1. 이 책들은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맛소라 본문이나 70 인역의 본문이 아닌 구약의 인용을 나타냄에 있어서 종종 일치하고 있다.
  2. 이 책들은 예수의 말씀을 인용함에 있어서 종종 일반적이지 않은 문법적 구조나 혹은 드물게 사용되는 헬라이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이 책들은 똑같은 헬라이어 단어로 이루어진 구나 문장을 종종 사용한다.
  4. 어떤 부분은 빌려와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공관복음)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초대교회의 공통된 전통은 예수의 제자로서 세리였던 마태(레위)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사도 마태가 저자였다는 내용은 르네상스/종교개혁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의없이 받아들여 졌다.
  2. 1776 년 경에 A. E. 레싱(후에 기셀러가 1818 년에)은 공관(“함께 보았다”)복음의 구전적 발전 단계를 이론화 시켰다. 세 복음서 모두 초기의 구전에 의존했는데 각 저자가 자신의 특정 청중에 맞추도록 변화시키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 ㄱ. 마태복음: 유대인
    - ㄴ. 마가복음: 로마인
    - ㄷ. 누가복음: 이방인각 복음서를 기독교의 다른 중심지와 관련지었다
    - ㄱ. 마태복음: 시리아의 안디옥
    - ㄴ. 마가복음: 이탈리아의 로마
    - ㄷ. 누가복음: 팔레스타인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
    - ㄹ. 요한복음: 소아시아의 에베소

3. 19 세기초에 J. J. 그리스바는 주장하기를 마태와 누가 각각 예수의 삶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마가가 이 두 기록을 중재하기 위하여 간략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4. 20 세기 초에 H. J. 홀츠만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인데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복음서에 Q(독일어의 쾰레 혹은 “자료”)로 불리는 예수의 말씀을 각각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두 문서”설로 불린다(이 견해를 1832 년에 프레드릭 쉐라이에르마허도 주장했다).
5. 후에 B. H. 슈트리터는 “두 문서”설을 발전시켜 “네 문서”설로 발전시키는데, 이 설은 “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Q 문서를 더한 것이다.
6. 공관복음서의 형성에 대한 이상의 이론들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Q” 문서나 “원 누가복음”에 대한 역사적 사본적 증거가 없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떻게 복음서가 발전되었는지 혹은 누가 각 복음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해 정말 모른다(이 점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전기 예언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신앙과 역사의 사료가 영감된 것이고 또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교회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7. 공관복음 사이에 구조나 단어의 유사함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 다른 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목격자의 진술에 있어서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이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삶에 대한 이 세 목격자의 진술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인해 불편함을 갖지 않았다.

상이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서로 다른 청중, 저자의 저작 스타일, 관련된 서로 다른 언어(아람어와 헬라어)로 된 진술에 기인할 것이다.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일과 가르침에 관련된 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정리하고 받아들여 요약함에 있어서 영감받은 저자들, 편집자들, 혹은 편찬자들이 자유를 갖고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피와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3-148 쪽).

- 마.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던 파리아스(주후 130 년)가 전하는 초대교회의 전통으로서 유세비우스의 *역사적 집회서* 3:39:16 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마태가 아람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이 전통을 다음의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헬라어로 된 마태복음이 아람어에서 번역한 특징을 갖지 않고 있다
  2. 헬라어와 관련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참조, 6:16; 21:41; 24:30)
  3. 많은 구약의 인용이 70 인역(LXX)에서 취한 것이지 히브리 맛소라 본문의 것이 아니다
- 10:3 이 마태의 저자됨을 암시할 것이다. 이 절은 그의 이름에 “세리”를 추가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마태는 신약 혹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왜 그렇게 많은 전통이 그의 이름 및 이 첫 번째 사도적 복음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 시기

- 가. 여러 면에서 이 복음서의 저작 시기는 공관복음서와 관련된 문제에 속한다.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어느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에게서 자료를 빌려 온 것인가?

1. 유세비우스(*역사적 집회서* 3:39:15)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기초로 사용했다고 말한다.
2. 어거스틴은 마가를 “중군자”로 부르며 그가 마태복음을 축약한 것으로 말한다.

- 나.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저작시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1. 이 책은 주후 96 년 혹은 115 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 ㄱ. 로마의 클레멘트(주후 96 년)는 고린도인들에게 쓴 자신의 편지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암시를 하였다
  - ㄴ.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주후 110-115 년)는 자신의 편지인 *서미나인에게* 1:1 에서 마 3:15 을 인용하고 있다.
2. 더 어려운 질문은 얼마만큼 일찍 이 책이 기록되었는가이다
  - ㄱ. 사건들이 기록된 시기 이후인 서기 30 년대 중반일 것이다
  - ㄴ. 이 책이 기록될 필요를 느끼고 이를 편집하고 회람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 ㄷ. 24 장은 주후 70 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마태복음의 일부분은 회생제사가 아직 행해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5:23-24; 12:5-7; 17:24-27; 26:60-61). 이것은 주후 70 년 이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
  - ㄹ. 만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바울의 사역기간(주후 48-68 년) 중에 기록된 것이라면 왜 마태는 그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이레니우스는 유세비우스의 *역사적 집회서* 5:8:2 에 기록된 인용을 통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베드로와 바울은 주후 68 년까지 다스렸던 네로의 치세기간 중에 죽임을 당했다.
  - ㅁ. 오늘날 학자들이 가장 이른 시기로 잡는 저작시기는 주후 50 년이다.

- 다. 많은 학자들은 네 복음서가 전통적인 저자들보다는 기독교의 지역적 중심지와 더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마태복음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있던 유대인/이방인 교회의 문제를 고려할 때 그렇다. 아마도 주후 60년 경 혹은 늦어도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 수신자

- 가. 이 복음서의 저자와 저작시기가 불확실하듯이 수신자도 불확실하다. 수신자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진다. 제 1 세기에 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 나. 오리겐은 유세비우스가 *역사적 집회서* 6:25:4 에서 인용한 글에서 이 책이 유대인 신자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한다.

### 구조적 개요

- 가. 이 복음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책 전체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영감을 받은 원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 나. 학자들은 여러 구조를 제시했다
1. 예수께서 행한 지리적 이동
    - ㄱ. 갈릴리
    - ㄴ. 갈릴리 북쪽
    - ㄷ. 비레아와 유대 지역(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
    - ㄹ. 예루살렘에서
  2. 마태복음의 5 주제를 중심한 구조. 이 주제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참조, 7:28; 11:1; 13:53; 19:1; 26:1). 많은 학자들은 이 다섯 강론이 예수를 “새 모세”로 나타내려는 마태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즉 각 강론은 모세오경의 각 책에 비견된다(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ㄱ. 이야기와 강론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갖는다
    - 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참조 4:17; 16:21)라는 반복적 표현으로서 신학적/전기적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복음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1:1-4:16; 4:17-16:20; 16:21-28:20)
    - ㄷ. 마태복음은 “성취”라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구약의 예언적 본문에 대한 강조를 한다(참조, 1:22; 2:15,17,23; 4:14; 8:17; 12:17; 13:35; 21:4; 27:9; 27:35)
- 다. “복음서”는 독특한 문학 장르이다. 이것은 전기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이며 또한 짜임새있는 구조를 갖는 문학의 한 종류이다. 각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그의 가르치심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자신의 청중에게 독특하게 예수를 제시하고 있다. 복음서는 복음전도적 책자였다.

### 독서의 첫 번째 단계(vi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1. 책의 전체 주제
2. 문학의 형식(장르)

### 독서의 두 번째 단계(vi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단번에 그 책을 다시 읽으라. 중심 논제를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그 논제를 설명하라.

1. 첫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2. 두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3. 세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4. 네 번째 문학 단위의 논제
5. 기타

# 마태복음 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께서 왕의 후손이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의 조상 (2-6)
1:1	1:1-17	1:1	1:1	1:1-16
1:2-6a		1:2-6a	1:2-6a	(2-6)
1:6b-11		1:6b-11	1:6b-11	(6b-11)
1:12-16		1:12-16	1:12-16	(12-16)
1:17		1:17	1:17	1:17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	예수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요셉이 예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
1:18-25	1:18-25	1:18-25	1:18-21 1:22-23 1:24-25	1:18-25 (23)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해 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는 다음, 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1-25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마 1:1-17 과 눅 3:23-38 에 나오는 조상들의 계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상이점을 설명하는 주요한 두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마태는 주로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었기에 유대인의 법적 관행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셉의 계보를 기록했다.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썼으며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했다(루터). 두 경우 다 예수님을 다윗과 연결시키는데, 누가는 아담(이방인들을 위해 그가 기록하였기에)에게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2. 마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 받은 유다 왕의 계보(또는 포로기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사람들)를 다루고 있고, 누가는 실제 조상의 계보를 다루고 있다.
- 나. 이 계보는 예수의 지파적 배경을 입증하고 예언의 성취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참조, 창 49:8-12 과 삼하 7 장). 예언의 성취(참조, 1:22; 2:15,17,23; 4:14; 8:17; 12:17; 13:35; 21:4; 27:9,35)는 성경의 조월성과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 다. 17 절은 왜 어떤 조상들은 계보에 빠져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열쇠이다. 저자는 수자의 골격 즉 세 개의 “14 세대”로서 예수의 계보를 다룬다.
- 라. 책의 앞 쪽에 나오는 이 출생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다른 종류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 4 개의 구약 인용(참조, 1:23; 2:6,15,18)이 나온다.
1. 1:23 - 사 7:14 은 예언의 다중적 성취이다. 이사야의 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참조, 15-16 절); 하지만 14 절에서 사용한 히브리 단어는 “처녀”(ἄστῆ라, 참조, BDB 143)가 아니라 “결혼 적령기의 젊은 여자”(אַלמָּ, 참조, BDB 761 II)이다. 나는 예수께서만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으로 믿는다!
  2. 2:6 - 미 5:2 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750 년 전에 이 일을 설명하는 놀랍고도 매우 특별한 예언이다. 예수께서 출생하신 장소는 그가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예언적 예언은 (⌋)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 성경의 영감과 독특성을 확인해 준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예언적 예언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
  3. 2:15 - 호 11:1 와 2:18 - 렘 31:15 은 모두 모형론적 예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 예수의 삶에 일어났고 신약의 저자가 이것을 예언적 사건으로 이해했다.
- 마. 레이몬드 E. 브라운(신약 개론 175 쪽)은 마태의 계보가 갖는 구조와 관련하여 놀라운 설명을 한다.
1. 족장 - 첫 번째 14 이름
  2. 이스라엘의 왕 - 두 번째 14 이름
  3. 알려지지 않은 조상 - 세 번째 14 이름
- 이 족보는 잘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매우 선택적인 목록이다. 왜 이러한 구조를 갖는가는 불확실하다.
1. 문학적 기교(기억을 도움)
  2. 숫자적 상징
    - ⌋. 7 x 2; 누가는 77 명의 조상을 언급함
    - ⌋.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이 갖는 수는 14 를 이름
  3. 잘 알려진 경건한 조상만 언급함
  4. 여자/남자; 이방인/유대인(목적은 갖고 포함시킴)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1

#### <sup>1</sup>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1	
NASB	“메시아이신 예수의 계보 기록”
NKJV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
NRSV	“메시아이신 예수의 계보에 대한 내용”
TEV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 기록이다”
NJB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명부”

족보(참조, 창 5:1 혹은 “대략,” 참조, 창 2:4)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실증한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다. 어떤 문화권에서 족보의 사용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들의 이름이 생략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두 이론이 제시되었다: (1) 요람이 이세벨의 딸인 아탈리야를 아내로 삼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그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는 세 번째 세대까지 전해졌다(참조, 신 5:9) 혹은 (2) 마태복음이 조상을 14 명씩 묶어 3 번으로 나누어 계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7 절). 이들은 가운데 그룹에 속할 것이다.

**1: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왕하 15:1-7 과 대상 3:12 에서 웃시야는 아사리야로 불린다. 그는 경건한 왕이었는데 잘못된 자제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문둥병에 걸렸다.

**1:10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다의 경건한 다섯 왕 가운데 한 명이였다(아사, 여호사밧, 웃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그의 삶은 왕하 18-20 장; 대하 29-32 장; 사 36-39 장에 기록되어 있다.

▣ **“므낫세”**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졌다(참조, 왕하 21:2-7). 그는 가장 긴 기간인 55 년간 재위했다(참조, 왕하 21 장; 대하 33 장).

▣ **“아몬”** 그는 므낫세의 아들이며 요시야의 아버지였다(참조, 왕하 21:18-19, 23-25; 대상 3:14; 대하 33:20-25). 이론 시기의 대문자 헬라어 사본인  $\alpha$ , B<sup>C</sup>, C 에는 “아모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본적 문제는 7 절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 **“요시야”** 유다의 경건한 왕인 요시야는 왕이 될 때 8 세였다(참조, 왕하 22-23 장; 대하 34 장, 35 장).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의로운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의 악한 아들, 악한 아버지의 의로운 아들(참조, 18:5-9, 10-13, 14-18)이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말한다.

**1:11 “여고냐”** 그는 고니야(참조, 램 22:24)와 여호야긴(참조, 왕하 24-25 장)으로도 불렸다. 바벨론 유수 이전에 다윗의 왕위에 앉은 마지막 두 번째 왕으로서 여고냐는 왕위에 오를 때 8 세(참조, 대하 36:9) 혹은 18 세(참조, 왕하 24:8)이었고 단지 3 개월만 다스렸다(참조, 대상 3:16-17; 램 24:1; 29:2). 에스겔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 II 세에 의해 주전 597 년에 포로로 잡혀간 해로부터 예언을 했다(참조, 1:1,2; 8:1; 20:1; 24:1; 26:1; 29:1; 30:20; 31:1; 32:1,17; 33:21; 40:1).

▣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이 일은 느부갓네살 II 세에 의해 일어났다. 바벨론 군대가 여러 번에 걸쳐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주전 605, 597, 586, 582 년. 여러 번에 걸쳐 사로잡혀 갔다.

1.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주전 605 년에 잡혀감
2. 여호야긴, 에스겔, 만 명의 군인과 기능공이 주전 597 년에 잡혀감(참조, 왕상 24:10-17)
3. 남아 있던 많은 수의 사람들(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됨)이 주전 587/586 년에 잡혀감, 왕하 25 장
4. 유다에 대한 마지막 침략과 사로 잡아가는 일은 주전 582 년에 일어났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총독인 그달라와 또 그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지위 높은 호위병들이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행해졌다.

#### 개역개정 1: 12-16

<sup>12</sup>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sup>13</sup>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sup>14</sup>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웃을 낳고 <sup>15</sup>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sup>16</sup>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12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온 유대인 지도자였다. 첫 번째 귀환은 세스바살의 지도하에 이루어 졌다(참조, 스 1:8; 5:14).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다(참조, 스 2-6 장). 대상 3:16-29 에서 그의 아버지는 브다야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스알디엘로 언급된다. 히브리어에서 가족과 관련된 용어들은 유동성이 있어 여러 종류의 친척을 가리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스알디엘은 삼촌이었다. 이 결론은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의 아버지인 브다야가 죽은 후에 그를 입양한 경우로 설명이 된다(참조, 스 3:8; 5:2; 느 12:1; 학 1:1). 이 두 이름은 누가복음의 계보에도 나오는데 훨씬 더 이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3-15** 스룹바벨의 아들 아비훗부터 야곱까지는 구약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름들이다.

**1:14 “사독”** 이 사람은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신실한 제사장을 가리키지 않는다(참조, 삼하 20:25; 대상 16:39).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독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1:16 “마리아의 남편 요셉”** 목록에 나오는 다른 아버지들의 경우 중요하게 사용된 용어인 “낳고”가 빠져 있다! 요셉의 이름이 법적 아버지요 계보의 연결로서 언급되는데, 이것은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요구했고 또 인식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참조, 1:23-25; 눅 1:34-35).

■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NKJV)는 *메시아*(BDB 603, 참조, 삼상 2:10,35; 삼하 22:51; 시 2:2; 18:51; 89:38,51; 132:10,17; 단 9:24,25)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한다. 예수는 야웨의 특별한 종(참조, 사 7:14; 9:1-7; 11:1-5; 52:13-52:12)이요 오실 자로서 의의 새 시대를 이루실 분이셨다(참조, 사 61 장, 65-66 장). 8: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 17**  
 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17 “대” 이것은 역사적으로 완전한 계보가 아니다. 히브리 단어인 “세대”는 모호한 용어로서 할아버지나 혹은 고조 할아버지 혹은 조상을 가리킬 수 있다.

■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4 명의 조상이 세 그룹으로 제시된다: (1)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2) 다윗부터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까지 (3) 포로로 사로잡혀 감에서 예수까지 이다. 세 번째 그룹의 경우 13 명의 이름만 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여호야긴을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에서 각각 계산에 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숫자적 형태로 제시된 목록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다(참조, 대상 1-3 장).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열 네 대로 제시된 족보는 히브리어로 다윗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이 갖는 숫자의 값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달렛*, 4 + *와브*, 6 + *달렛*, 4 = 14).

**개역개정 1: 18-25**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18 “나심” 헬라어 사본에 “시작”[*제네시스*]과 “출생”[*켄네시스*] 사이의 변이가 나타난다. 게네시스가 원래의 단어로 여겨진다(참조, *K*, B, C 사본; UBS<sup>4</sup>는 이것에 B 등급을 주고 있다). 두 용어 다 “출생”을 의미할 수 있지만 처음 단어가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세대, 즉,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의 새 시작,” 참조, 롬 5:12-21). 또한 이 단어는 또한 “태어나다”를 뜻할 수도 있다. 후기의 서기관들이 후기에 기록본과 관련된 이단(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앞의 용어를 “출생”으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바르트 P. 에흐만의 *정통주의에 의한 성경의 변형*, 75-77 쪽).

■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묶는 유대인의 관습으로서 대개 결혼에 앞서 1 년 전에 행해졌다.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계약적으로는 결혼상태로 여겨졌다. 죽음 혹은 이혼만 약혼 관계를 파할 수 있었다.

■  
 NASB “그녀가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NKJV “그녀가 성령의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NRSV “그녀가 성령으로부터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TEV “그녀가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갖고 있었다”  
 NJB “그녀가 성령을 통해 아기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마리아의 성적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을 가리킨다. 이것은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며,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의 다중적 성취이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나 서신서에서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헬라-로마의 신화(올림푸스 산의 신이 종종 인간의 여자들을 취하였고 그들을 통해 자녀를 낳았다)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1:19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당시에 구전으로 전해진 전통에 비추어 의로운 사람임을 뜻한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노아와 욥도 같은 의미에서 의로웠다(참조, 창 6:9; 욥 1:1).

▣ “가만히 꿰고자 하여” 요셉이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1) 법정에서의 공개적인 비난 혹은 (2) 두 증인 앞에서 이혼증서를 기록하여 주는 일(참조, 신명기 24 장). 마리아는 잉태와 관련된 환상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다. 구약의 율법은 성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했다(참조, 신 22:20-21,23-24).

1:20 요셉은 천사로부터 자기와 약혼을 한 아내의 임신에 대해 들었다. 눅 1:26 에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로 밝혀진다(참조, 1:19; 단 8:16; 9:21).

“꿈”(오날)은 마태복음의 처음 2 장에서 5 회 사용된 용어인데(참조, 1:20; 2:12,13,19,22) 27:19 에 가서야 다시 사용되고 신약의 다른 책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주의 사자가” 이 구는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천사(참조, 창 24:7,40; 출 23:20-23; 32:34; 민 22:22; 삿 5:23; 삼상 24:16; 대상 21:15 이하; 숙 1:28)
2. 야웨를 가리키는 용어(참조,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2,4; 13:21; 14:19; 삿 2:1; 6:22-24; 13:3-23; 숙 3:1-2)

마태가 이 구를 종종 사용하지만(참조, 1:20,24; 2:13,19; 28:2) 항상 1 항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행 8:26, 29 를 제외하고는 2 항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8 장에서 “주의 천사”는 성령과 평행을 이룬다.

1:21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히브리어, 여호수아)은 “야웨께서 구원하신다,” “야웨께서 구원을 가져 오신다” 혹은 “야웨는 구원자이시다”(어떤 동사를 삽입해야 한다, 참조, 눅 1:31). 18:20 의 특별주제: 주님의 이름을 보라.

야웨라는 이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이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약속, 언약에 충실하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더불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1)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기 시작하며, 또한 그 특별한 지위와 관련된 죄와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야웨)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의 언약백성(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오직 엘 샤푸라로 알았음을 뜻한다. 야웨라는 이름은 출 3:13-16(특히 14 절)에서 단 한 번 설명된다. 한편, 모세의 글은 어원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를 종종 설명한다(참조, 창 17:5; 27:36; 29:13-35). 이 이름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가져 옴).
  - ㄱ.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다”라는 아랍어 어근에서
  - ㄴ. “불다”라는 아랍어 어근에서 (야웨를 폭풍우의 신으로 나타냄)
  - ㄷ. “말하다”라는 우가릿어(가나안어) 어근에서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 나오는 “유지시키는 분” 혹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사역동사의 분사형을 따라
  - ㅁ. “계시는 분” 혹은 “존재하시는 분”(미래적 의미에서는 “앞으로 계실 분”)이라는 히브리어의 칼형에서
  - ㅂ.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히브리어의 히꺠형에서
  - ㅅ.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을 뜻하는 “살다”(예, 창 3:20)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여기서는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를 가져 “나는 내가 전에 있었던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혹은 “나는 내가 항상 되었던 존재로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참조, J. 와쉬 왓츠, 구약의 구문 개설 67 쪽)
 야웨의 이름은 종종 축약적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 축약적 형태의 이름은 아마도 원래의 형태일 수 있다.
  - (1) 야에, 할렐루-야
  - (2) 야후(이름에서, 이사야)
  - (3) 요(이름에서, 요엘)
3. 후기의 유대교에서 이 언약적 이름은 매우 거룩하게 되어(4 자음으로 된 이름),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에 있는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이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히브리어로 “주인,” “지배자,” “남편,” “주”라는 뜻의 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님)로 이 이름을 대치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야웨라는 이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바로 영어 번역본에서 야웨를 주(LORD)로 표기하는 이유이다.
4. 엘과 같이 야웨라는 이름도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께서 너희의 치료자이시다), 출 15:26
  - ㄷ. 야웨-넛시(야웨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출 17:15
  - ㄹ. 야웨-매갓디스켈(야웨께서는 너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시다), 출 31:13
  - ㅁ. 야웨-살론(야웨께서 평화이시다), 삿 6:24
  - ㅂ. 야웨-쓰바웃(만군의 야웨),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서 사용됨)

- 스. *야웨-로이* (야웨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 (야웨께서 우리의 의이시다), 렘 23:6
- 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신다), 겔 48:35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 (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 이다(라스 삼라 본문)
3. 성경에서 *엘* 은 보통은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합성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방법이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 ㅁ. *엘-베허트* (“언약의 하나님,” BDB 42 & 136), 사 9:46
4. *엘* 은 다음과 동격을 이룬다
  - ㄱ. *야웨*, 시 85:8; 사 42:5
  - ㄴ. *엘로힘*, 창 46:3; 욥 5:8, “나는 *엘* 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엘로힘*)이다”
  - ㄷ. *샤다이*, 창 49:25
  - ㄹ. “시기,” 출 34:14; 신 4:24; 5:9; 6:15
  - ㅁ. “자비,” 신 4:31; 느 9:31
  - ㅂ. “신실하신,” 신 7:9; 32:4
  - ㅅ. “크고 두려우신,” 신 7:21; 10:17; 느 1:5; 9:32; 단 9:4
  - ㅇ. “지식,” 삼상 2:3
  - ㅈ. “나의 견고한 피난처,” 삼하 22:33
  - ㅊ. “나의 신원자,” 삼하 22:48
  - ㅋ. “거룩하신 분,” 사 5:16
  - ㅌ. “힘,” 사 10:21
  - ㅍ. “나의 구원,” 사 12:2
  -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 ㄱ. “깊으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 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알라이르* (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 ㄱ. 벨기세덱,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16
  - ㄷ. 모세, 신 32:8 에서 나라들에 대해 말함
  - ㄹ.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신약의 누가복음은 또한 헬라어로 같은 뜻을 지닌 *히시스토스*를 사용(참조, 1:32,35,76; 6:35; 8:28; 행 7:48; 16:17)

다. *엘로힘* (복수형), 시에서 주로 사용된 *엘로야* (단수형) (BDB 43, KB 52)

1. 이 이름은 구약 이외의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이방의 신들을 말할 수 있다(참조, 출 12:12; 20:3).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신교적 신앙을 가졌다(참조, 수 24:2).

3.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1:6; 시 82:6).
4. **엘로힘**은 다른 영적 존재들(천사, 악령)에게도 사용되었다, 신 32:8(LXX); 시 8:5; 욥 1:6; 38:7.
5. 이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름이다(참조, 창 1:1). 이 이름은 이 이름과 야웨가 함께 사용된 창 2:4 이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보존자, 공급자로 나타낸다(참조, 시 104 편).  
이것은 **엘**의 동의어이다(참조, 신 32:15-19).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 14 편(**엘로힘**)이 시 53 편(**야웨**)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이 이름은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6. 비록 복수형이 이방신들에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호칭은 종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수형 동사**를 가져 유일신적 의미를 나타낸다.
7. 이 용어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용된다.
  - ㄱ. 벨기세텍, 창 14:18-22
  - ㄴ. 발람, 민 24:2
  - ㄷ. 모세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신 32:8
8.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 ㄴ. 이것은 천사들의 모임을 일컬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참조, 왕상 22:19-23; 욥 1:6; 시 82:1; 89:5,7).
  - ㄷ. 이것은 신약의 계시에서 삼위이신 한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 1:1 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창 1:2 에서는 성령의 행하심을 말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대행자였다 (참조, 요 1:3,10; 롬 11:36; 고전 8:6; 골 1:15; 히 1:2; 2:10).

라. 야웨 (BDB 217, KB 394)

1. 이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다! 인간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약속,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신다(참조, 시 103 편).  
이 이름은 창 2:4 에서 엘로힘과 함께 나타난다. 창 1-2 장은 창조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이 아니라 두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 하나님은 우주(물질적)의 창조자이시고 (2) 인류의 특별한 창조자이시다. 창 2:4 은 인간의 특권적인 지위와 창조 목적에 대한 특별한 계시로 시작하며, 또한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반역을 다룬다.
2. 창 4:26 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야웨)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한다. 한편 출 6:3 은 초기에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족장들과 그들의 가족)은 하나님을 오직 **엘 샨다이**로 알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 야웨는 오직 한 번 출 3:13-16 (특히 14 절)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모세의 글은 종종 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조, 창 17:5; 27:36; 29:13-35) 언어유희에 의해 해석된다. 이 이름의 뜻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론이 있다(IDB 제 2 권 409-11 쪽에서 취함):
  - ㄱ. 아라비아 어원, “뜨거운 사랑을 보임”
  - ㄴ. 아라비아 어원, “불어냄”(폭풍의 신으로서 야웨)
  - ㄷ. 우가릿어(가나안어) 어원, “말하다”
  - ㄹ. 페니키아어 비문에서 **원인을 말하는 분사**, “유지시키는 자” 또는 “세우는 자”
  - ㅁ. 히브리어 **갈** 형, “계신 분” 또는 “존재하는 분”(미래적 의미로는 “앞으로 계실 분”)
  - ㅂ. 히브리어 **히팔** 형, “있게 하시는 분”
  - ㅅ. 히브리어 어원인 “살다”(예, 창 3:20)로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분”
  - ㅇ. 출 3:13-16 의 문맥에서 **미완료형**이 **완료형**의 의미로 쓰인 것, “나는 내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그리할 것이다” 또는 “나는 내가 항상 있었듯이 계속 있을 것이다”(참조, 와쉬 왓츠의 **구약 문맥 개설** 67 쪽). 야웨란 이름은 종종 축약적으로 혹은 원래의 형태로서
    - (1) **야**(예, 할렐루-야, BDB 219, 참조, 출 15:2; 17:16; 시 89:9; 104:35)
    - (2) **야후**(이름의 끝 자인 “야,” 예, 이사야)
    - (3) **요**(이름의 첫 자인 “요,” 예, 여호수아 혹은 요엘)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 (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 (야웨는 너의 치료자이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 (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 (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샬롬 (야웨는 평화이다, BDB 217 & 1022), 삿 6:24
  - ㅂ. 야웨-쓰바웃 (만군의 야웨, BDB 217 & 878), 삼상 1:3,11; 4:4; 15:2; 종종 예언서에 쓰임
  - ㅅ. 야웨-로이 (야웨는 나의 목자, BDB 217 & 944, 칼 분사), 시 23:1
  - ㅇ. 야웨-치드케누 (야웨는 우리의 의이다, BDB 217 & 841), 렘 23:6
  - ㅈ. 야웨-삼마 (야웨께서 거기 계시다, BDB 217 & 1027), 겔 48:35

▣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는 세 가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오셨다.

1. 성부를 충분히 드러내시는 일
2. 사람들에게 그들이 따를 모본을 주시는 일
3.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일

창세기 3 장은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쳤다(참조, 롬 8:20-23).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셨다(참조, 막 10:45; 요 1:29; 고후 5:21; 빌 2:6-11; 사 53 장). 창 3:15의 약속은 그 분 안에서 성취되었다!

1:23 마태는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구약 예언의 성취를 주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1. 1:22 - 사 7:14
2. 2:15 - 호 11:1 과 출 4:22-23
3. 2:23 - 아마도 사 11:1
4. 3:15 - “모든 의를 이름”
5. 4:14 - 사 9:1,2
6. 5:17 - “그러나... 이루려고”
7. 8:17 - 사 53:4
8. 12:17 - 사 42:1,2,3,4
9. 13:14 - 사 6:9,10
10. 13:35 - 시 78:2
11. 21:4 - 사 62:11 혹은 숙 9:9
12. 27:9 - 숙 11:12,13

▣

NASB, NKJV,

NJB

NRSV, TEV

JB

“임마누엘”

“엠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BDB 769)이다. 이것은 구약의 본문이 그 당시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사야 7-12 장(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은 궁극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요 1:1; 5:18; 10:33; 14:9-10; 빌 2:6). 한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사 9:6에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을 은유로서 이해했을 것이다. 신약에 와서야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1:24-25 이 절들은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이 참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이 절들은 그 부부가 예수의 출생 후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공인성경은 헬라어 대문자 사본인 C, D\*, K, W를 따라 “그녀의 딸들”이라는 구를 추가하여 다른 자녀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암시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긴 족보가 나오는가?
2. 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가?
3.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시대에 동정녀 출생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가?

# 마태복음 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에루살렘성경 (NJB)
지혜자들의 방문 2:1-6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2:1-6	지혜자들 2:1-6	동방에서 온 방문자들 2:1-2 2:3-4 2:5-6	박사들의 방문 2:1-12 (6)
2:7-12		2:7-12	2:7-8 2:9-11 2:12	
이집트로의 피신 2:13-15	이집트로의 피신 2:13-15	이집트로의 피신과 귀환 2:13-15	이집트로의 피신 2:13 2:14-15a 2:15b	이집트로의 피신, 무죄한 자의 살륙 2:13-15 (15b)
아기들을 살륙함 2:16-18	무죄한 자들을 도륙함 2:16-18	2:16-18	아기들을 죽임 2:16-18	아기들을 살륙함 2:16-18
2:17-18	2:17-18	2:17-18	2:17-18	(18)
이집트에서 돌아옴 2:19-23	이집트에서 돌아옴 2:19-23	2:19-23	2:19-21 2:22-23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2:19-23 (23c)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2:1-6

<sup>1</sup>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sup>2</sup>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sup>3</sup>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sup>4</sup>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sup>5</sup>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sup>6</sup>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2:1 “베들레헴” 이 지명은 “떡 집”을 뜻한다. 이곳은 보아스가 태어난 곳이며, 후에는 다윗 왕의 출생지였다(참조, 룻 1:1; 4:18-22). 이곳은 작은 시골 마을로 300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8 km 되는 곳에 있었다. 이 이름으로 불린 마을이 두 곳 있었다: 한 곳은 유다에(참조, 미 5:2) 또 다른 한 곳은 스블론에 있었다(참조, 수 19:15).

▣ “헤롯 왕” 헤롯대왕은 로마인들이 왕으로 세운 이두매(에돔) 사람으로서 시기심이 많고 편집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인해 마음이 상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 제 2 성전을 확장시켰다. 그는 주전 4 년에 죽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나신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주전 4-6 년 사이일 것이다.

#### 특별주제: 헤롯대왕의 가족

가. 헤롯대왕

1. 유대의 왕(주전 37-4 년), 이두매(에돔에서 온) 사람임, 그는 정치적 술수와 마크 안토니를 지원함을 통해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주전 40 년에 팔레스타인의 많은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로 임명받음
2. 그는 마 2:1-19 과 눅 1:5 에서 언급됨
3. 그의 아들들
  - ㄱ. 헤롯 빌립(시몬 마리암느의 아들)
    - (1) 헤로디아의 남편(주전 4 년 - 주후 34 년)
    - (2) 마 14:3; 막 6:17 에서 언급됨
  - ㄴ. 헤롯 빌립 I 세(시몬 마리암느의 아들)
    - (1) 갈릴리 호수의 북쪽과 서쪽 지역의 분봉왕(주전 4 년 - 주후 34 년)
    - (2) 눅 3:1 에서 언급됨
  - ㄷ. 헤롯 안티파스
    - (1) 갈릴리와 베페아의 분봉왕(주전 4 년 - 주후 39 년)
    - (2) 마 14:1-12; 막 6:14,29; 눅 3:1,19; 9:7-9; 13:31; 23:6-12,15; 행 4:27; 13:1 에서 언급됨
  - ㄹ. 아켈라우스, 헤롯 에스낙
    - (1)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의 통치자(주전 4 년 - 주후 6 년)
    - (2) 마 2:22 에서 언급됨
  - ㅁ. 아리스토틀루스(마리암느의 아들)
    - (1) 헤롯 아그립바 I 세의 아버지로서 언급됨
      - (ㄱ) 유대의 왕(주후 37-44 년)
      - (ㄴ) 행 12:1-24; 23:35 에서 언급됨
        - i 그의 아들은 헤롯 아그립바 II 세였음
          -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주후 50-70 년)
        - ii 그의 딸은 베니게였음
          - 그녀의 형제의 배우자
          - 행 25:13-26:32 에서 언급됨

- iii 그의 딸은 드루실라였음
  - 벨릭스의 아내
  - 행 24:24 에서 언급됨

나. 성경에서 헤롯에 대한 언급

1. 마 14:1 이하; 눅 3:1; 9:7; 13:31; 23:7 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대왕의 아들이었다. 헤롯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은 그의 여러 아들들에게로 나누어졌다. “분봉왕”은 “넷으로 나누어진 부분의 지도자”를 뜻한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져 있으며 줄여서 안티파터로 불린다. 그는 갈릴리와 베뢰아를 다스렸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이두매 출신의 두 번째 통치자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행해졌음을 뜻한다.
2.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리스토틀블루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빌립과 결혼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 인접한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로마에 살았던 또 다른 빌립이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의 사이에서 한 명의 딸을 낳았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헤로디아를 만났고 정치적 야망을 꿈꾸던 그녀에 의해 유혹을 받았다. 그 결과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아의 공주였던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하여 둘이 결혼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편 헤롯 아그립바 I 세(참조, 행 12 장)의 자매이기도 하였다.
3. 우리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 8:5:4 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살로메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2 살에서 17 살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의해 철저히 조정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후에 분봉왕 빌립과 결혼했지만 곧 과부가 되었다.
4. 침례(세례)요한의 목이 잘린 후 약 10 년이 되었을 때에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가서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스도 그녀의 형제 아그립바 I 세 처럼 왕의 호칭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그립바 I 세는 로마에 편지를 보내 안티파스가 비옥한 초생달(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서 로마의 원수인 파르티안스와 공모했다고 알렸다. 황제는 아그립바 I 세의 말을 분명히 믿고 헤롯 안티파스를 그의 아내 헤로디아스와 함께 스페인으로 추방했다.
5. 신약에서 그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 명의 헤롯을 서로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헤롯대왕은 베들레헬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세례)요한을 죽였다; 헤롯 아그립바 I 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헤롯 아그립바 II 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을 들었다.

다. 헤롯대왕의 가족적 배경에 대하여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의 색인을 참조하라.

2:1

NASB

“점성가들”

NKJV, NRSV,

NJB

“지혜자들”

TEV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지혜자는 아마도 메데에서 왔을 것이다. 한편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걸쳐서 지혜자, 모사, 점성가들의 그룹으로 알려졌다. 헤로도투스는 이들을 메데의 제사장들로 부른다(헤로도투스 I, 101). 그들은 종종 바벨론 문학에서 “갈대아인들”로 불린다(참조, 단 2:2-13).

이 본문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조로아스터교 숭배자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일 수 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동쪽에서 온 지혜자(이방인들)의 방문을 포함하는 한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유대인 목자(소외된 유대인들)의 방문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주제: 점성가들**

고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술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그룹이 여러 형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1. 갈대아인들로 불린 메데 출신의 제사장 계급은 별을 연구했다(참조, 단 1:20; 2:2,10,27; 4:7,9; 5:11; 마 2:1,7,16). 헤로도투스는 그들을 “메데의 제사장들”로 부른다. 그들은 별신(즉, 행성, 별들, 은하, 혜성)의 움직임과 별자리에 기초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고 미래를 조정하는 일과 관련을 가졌다.
2. 헬라에는 피타고리안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철학, 수학으로 그들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3.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초자연적인 힘 혹은 자연의 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사람들로 이루어 졌다(참조, 창 41:8,24; 출 7:11,22; 8:7,19; 9:11). 종종 이러한 힘(또는 신들)은 인간에게 대항하는 힘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이러한 힘의 편에 서거나 혹은 지식의 소유자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참조, 주후 3 세기와 4 세기의 마술적인 내용의 파피루스).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ㄱ.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함
- 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조정함
- ㄷ. 미래에 일어날 일과 꿈을 해석함
- ㄹ. 다른 사람, 도시, 국가, 군대 등을 향해 저주를 하거나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음
- 4. 행 8:9,11 에 나오는 마술사들은 비인격체인 자연의 힘 혹은 인격체(귀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5. “참” 마술사가 예식이나 의식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다른 마술사들을 종종 공격했다. 이러한 이들은 협잡꾼 혹은 속이는 자로 불렸다(참조, 행 13:6, 8; 19:13).
- 6.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 이전에 마술사였던 자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값비싼 마술 책(즉, 어떻게 주문을 외우고 의식이나 예식을 행할 것인가를 다룬, 참조, 행 19:19)들을 불태웠다.
- 7. 추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 ㄱ. 수산 게렛, *악마의 몰락*, 포트리스 출판사, 1989
  - ㄴ. 메릴 엉거, *성경의 악마론*, 스크립처 출판사, 1967
  - ㄷ. 헨드릭 벌코프, *그리스도와 능력들*, 헤럴드 출판사, 1977
  - ㄹ. 윌러 윈크, *능력들을 알아보기*, 포트리스 출판사, 1984
  - ㅁ. 클린턴 아놀드, *영적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 베이커, 1997

▣ “동방으로부터” 전통은 그들이 어디서 왔고 몇 명이 왔고 또 그들의 인종과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에 대해 말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2 “유대인의 왕” 이것은 헤롯대왕의 칭호였다. 똑 같은 칭호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기록되어 있었다(참조, 마 27:37). 이 칭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다(참조, 삼상 8:7; 시 10:16; 29:10; 98:6).

▣  
 NASB, NKJV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보았다”  
 NRSV “우리가 그의 별이 떠 오르는 것을 관찰했다”  
 TEV “우리가 그의 별이 동쪽에서 떠오른 것을 보았다”  
 NJB “그의 별이 떠 오를 때 우리가 보았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우리가 동쪽에 있는 동안 그의 별을 보았다” 혹은 (2) “그의 별이 밤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 별이 동쪽에서 떠올라 하늘의 서쪽으로 갔다는 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별이 동쪽에서 떠 올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별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별들의 진행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의 출생 혹은 중요한 사건을 별들의 출현과 관련시켰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셨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찾고 발견하려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 “별”은 민 24:17 에 나오는 예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로다.”

2: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대왕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가 화를 내었을 때 무슨 일을 그가 행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실례는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행한 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많은 바리새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그가 죽을 때 그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죽는 날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 실례는 그의 잔인함을 잘 보여준다.

2:4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이들은 산헤드린을 가리킨다. 이 기구는 유대 국가에서 사법적 종교적 최고 기관이었는데 예루살렘 지역의 70 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기구를 대제사장(사두개인, 2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주재했는데 그 당시에 그는 로마 정부에게 돈을 내고 그 직위를 샀다. 산헤드린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바리새인, 2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장로들”이라는 표현으로 불렸다(참조, 26:57; 27:41; 막 11:27; 14:43,53; 행 4:5). 여러 해 전에 헤롯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많이 잡아다가 나중에 죽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공식적인 산헤드린을 일컫는지는 불확실하다.

## 특별주제: 사두개인

### I. 이 그룹의 기원

- 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름이 사독에게서 왔다고 보는데 사독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었다(참조, 삼하 8:17; 15:24). 후에 솔로몬은 아비야달이 아도니야의 반역을 도운 것을 인해(참조, 왕상 2:26-27) 그를 쫓아내고 사독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참조, 왕상 2:35).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제사장의 계보는 여호수아의 것으로 재확립되었다(참조, 학 1:1). 레위족속은 성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택을 받았다. 후에 이러한 제사장의 가계와 그들의 지지자들은 사독 가족 혹은 사두개인으로 불렸다.
- 나. 주후 9 세기의 랍비적 전통(랍비 나단의 *아봇*)은 사독이 소코(주전 2 세기)의 안티고누스의 제자였다고 말한다. 사독은 “죽음 이후의 상”과 관련하여 자기 스승이 한 유명한 말을 오해하여 사후의 세계를 부인하는 신학을 정립했다. 따라서 그들은 몸의 부활도 부인했다.
- 다. 후기 유대교에서 사두개인들은 보수시안으로 불린다. 비수스 역시 소코의 안티고누스의 한 제자였다. 그는 사독과 비슷한 신학을 발전시켰고, 그도 사후의 삶을 부인했다.
- 라.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은 요한 힐카누스(주전 135-104 년)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용되었는데, 이 기록을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다(참조, *유대 고대사* 13:10:5-6). *유대 고대사* 13:5:9 에서 요세푸스는 “세 학파”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가 있었다고 말한다.
- 마. 한편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주전 175-163 년) 때에 셀루시드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을 헬라화 시키려는 시기에 이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설이 있다. 마카비 반란기 동안 새 제사장제도가 시몬 마카비(주전 142-135 년)와 그의 자손(참조, 마카비상 14:41)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 하스모니안 계열의 새 대제사장들은 귀족정치적인 사두개인들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시기에 하시딤(즉, “분리된 자들,” 참조, 마카비상 2:42; 7:5-23)에서 발전되었다.
- 바. 오늘날에 제기된 이론(즉, T. W. 맨손)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헬라어 용어인 *컨디코이*의 철자에서 왔다. 이 용어는 로마의 권력과 결부한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 설은 왜 어떤 사두개인들은 귀족정치적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 II. 독특한 신앙

- 가. 그들은 하스모니아와 로마의 통치 기간에 살았던 유대인 가운데 보수적인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분파였다.
- 나. 그들은 특별히 성전의 예배, 의전, 의식, 예배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 다. 그들은 기록된 토라(즉, 창세기-신명기)의 권위를 받아들인 반면 구전(즉, 탈무드)을 배격했다.
- 라. 그들은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킨 여러 교리들을 거부했다.
  - 1. 몸의 부활(참조, 마 22:23; 막 12:18; 눅 20:27; 행 4:1-2; 23:8)
  - 2. 영혼의 불멸성(참조, *유대 고대사* 18.1.3-4; *전쟁* 2.8.14)
  - 3. 천사의 세분화된 계급의 존재(참조, 행 23:8)
  - 4. 그들은 “눈에는 눈”(즉, *렉스 탈리오니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육체적 형벌과 사형제도(벌금형 대신에)를 지지했다
- 마. 신학적 논란을 가져온 또 다른 영역은 예전 대 자유의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요세푸스가 언급한 세 그룹의 사람들인
  - 1. 에센파는 일종의 결정론을 받아들였다
  - 2.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강조점을 두었다(참조, *유대 고대사* 13.5.9; *전쟁* 2.8.14)
  - 3. 바리새인들은 앞의 두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했다
- 바. 어떤 면에서 이 두 그룹(즉, 사두개인 - 바리새인)의 갈등은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갈등을 보여준다.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은 사두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땅을 소유한 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들은 귀족들이었지만(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3.10.6; 18.1.4-5; 20.9.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학자였고 일반 백성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긴장은 예루살렘 대 전역에 있는 각 지역의 회당으로 대별되었다.

또 다른 갈등은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조로아스터교를 사두개인들이 거부한 사실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러한 신학의 예로서는 정교하게 발전된 천사론, 야웨와 사탄의 이원론, 사후세계를 강력하게 육체적인 용어로 이해한 점을 들 수 있다. 에센파와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과도한 견해는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야기했다. 사두개인들은 다른 유대 종파의 사람들의 견해를 좌절시키기 위해 오직 모세의 글에 나타난 신학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 III. 정보를 주는 자료

- 1. 요세푸스는 사두개인들에 관한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요세푸스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헌신한 점과 또 그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의 삶의 긍정적인 면을 그리는데 관심을 가진 사실은 그로 하여금 치우친 견해를 갖게 하였다.

- 나. 또 다른 자료는 랍비들의 글이다. 그런데 이 자료도 강한 편견을 분명히 드러낸다.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구전적 전통(즉, 탈무드)의 상관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글도 자기들의 반대자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과장하여(즉, 하찮은 사람, 혹은 책략을 사용하여) 묘사했다.
- 다. 사두개인들이 남긴 글로써 남아 있는 것은 없다. 주후 770 년에 일어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인해 제사장들의 모든 서류나 자료가 파괴되었다.  
그들은 지역적인 안정을 추구했는데, 1 세기의 환경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에 협력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참조, 요 11:48-50).

▣ “물으니”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1) 그가 반복적으로 물은 것 또는 (2) 그가 묻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

2:6 이것은 미 5:2 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맛소라 본문이나 70 인역과 일치하는 인용이 아니다. 이 특별한 예언은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미가는 예수의 출생보다 750 년 정도 앞선 시기에 기록하기를 메시아가 예상치 못하게 작은 마을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험적 증거는 예언의 성취로서, 성경의 독특한 점을 이룬다!

▣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행은 삼하 5:2 에서 가져와 추가시킨 합성적 인용이다.

**개역개정 2: 7-12**

<sup>7</sup>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sup>8</sup>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sup>9</sup>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sup>10</sup>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sup>11</sup>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sup>12</sup>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2:7**

- NASB “그들로부터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확인하고”
- NKJV “그들로부터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 NRSV “그들로부터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배우고”
- TEV “또 그들로부터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확인하고”
- NJB “그가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묻고”

헤롯은 아기의 나이에 관심을 가졌다. 점성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여행을 오는 일이 여러 달 걸렸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시에 적어도 한 살 혹은 두 살이었을 것이다.

**2:9**

- NASB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머물러 있는지라”
- NKJV “그들이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 가다가 어린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와서 머물러 있는지라”
- NRSV “그리고 그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있는지라”
- TEV “그리고 그것이 그들 앞에서 가다가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추는지라”
- NJB “그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던 그 별이 앞으로 가서 아이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서 있는지라”

사전에 갖고 있는 생각이 해석을 좌우한다. 비록 나는 그것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있다. 그 별은 움직였고 또 멈추었다! 이 일이 매우 독특한 경우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보았고 또 이 일의 중대성을 알아 보았다. 이 사람들은 밤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안된다.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이렇듯 자연의 현상과 초자연적인 일이 함께 나타난 점은 이집트 땅에 행해진 재앙과 비슷하다.

그 지혜자들은 목자들이 방문했던 때와 같은 시기에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이 나아온 일(별을 봄)을 말하고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누가복음은 유대인 목자들(천사들의 말을 들음)이 나아온 일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항상 나에게 놀랍다. 신학적 진리는 분명하다—모든 이가 환영받고 있다(이방인, 소외된 유대인)!

**2: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가?**

1. 그들이 찾던 일을 마쳤기에
2. 그 별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했기에
3. 그들이 찾는 일에 영적인 이유가 있었기에(참조, 11 절); 그들은 자기들의 새 왕과 주를 발견했다!

이 문장의 강조적 성격은 3 항의 이유를 지지한다.

2:11 “집” 분명히 출생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2년 정도 까지)이 흘렀을 것이다. 요셉, 마리아, 예수는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 “아기” 이 헬라어 단어(*파이다온*)는 여기서 “갓난 아기”(브레포스, 참조, 눅 1:41,44; 2:12,16)를 뜻하는 일반적 용어가 아니라 “유아”(참조, 눅 2:40; 마 18:2)이다. 목자들과 박사들의 방문 사이에는 긴 간격이 있었다.

▣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에 전통은 세 명의 박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터틀리안은 그들이 사 60:3 에서 언급한 왕들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선물의 의미를 알기 위해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이 선물들이 값비싼 물건들이었고 또 왕이 사용하는 물건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 49:23 혹은 시 72:10-12 의 성취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2:12 “꿈에 . . . 지시하심을 받아”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 것(참조, 1:13,19)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점성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다.

**개역개정 2: 13**

<sup>13</sup>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2:13 “주의 사자” 1:20 의 설명을 보라.

▣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 행한 시도 가운데 그의 어리석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특별주제: 멸망(아폴뤼미)**

이 용어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해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데, 신학적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영원한 심판 대 멸절시김과 같은 혼동을 가져온다. 글자적인 기본의미는 *아포*(~로부터)와 *올뤼미*(파괴하다, 멸망시키다)이다.

이 용어의 상징적인 용례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은 로우와 니다의 *의미적 개념에 기초한 신약헬라어-영어사전* 제 2 권 30 쪽에서 잘 다루고 있다. 이 사전은 이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뜻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멸망시키다(예, 마 10:28; 눅 5:37; 요 10:10; 17:12; 행 5:37; 롬 9:22, 제 1 권 232 쪽에서)
2. 언지 못하다(예, 마 10:42, 제 1 권 566 쪽)
3. 잃다(예, 눅 15:8, 제 1 권 566 쪽)
4. 장소를 모르다(예, 눅 15:4, 제 1 권 330 쪽)
5. 죽다(예, 마 10:39, 제 1 권 266 쪽)

게르하르트 키틀 *신약신학사전* 제 1 권 394 쪽은 4 가지 의미를 열거함으로서 다른 용법을 나타내려고 시도한다.

1. 멸망시키다 혹은 죽이다(예, 마 2:13; 27:20; 막 3:6; 9:22; 눅 6:9; 고전 1:19)
2. 잃다 혹은 손해보다(예, 막 9:41; 눅 15:4,8)
3. 망하다(예, 마 26:52; 막 4:38; 눅 11:51; 13:3,5,33; 15:17; 요 6:12,27; 고전 10:9-10)
4. 잃어버려지다(예 마 5:29-30; 막 2:22; 눅 15:4,6,24,32; 21:18; 행 27:34)

키틀은 이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2 번과 4 번 항목이 이 단어가 공관복음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사용한 용법을 의미하는 한편, 1 번과 3 번 항목은 바울서신과 요한복음에서의 용법과 같이 다음 세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394 쪽).

여기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 서로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이 용어를 광범위한 범위의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이 단어는 이렇듯 넓은 범위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는 로버트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들*(275-277 쪽)을 좋아한다. 그는 이 용어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도덕적으로 멸망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연관시키고 있다. 한편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멸망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멸절됨을 뜻한다고 생각지 않는다(참조, E. 후지 *삼키는 불*). 마 25:46 에서 “영원한”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양쪽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은 둘을 다 경시하는 것이다!

개역개정 2: 14-15

<sup>14</sup>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sup>15</sup>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2:15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 11:1 은 이 예언을 인용해 온 곳이다. 구약에서 “아들”은 이스라엘이나 왕 혹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복수형인 “아들들”은 대개 천사들을 가리킨다.

호 11:1 의 문맥은 출애굽 사건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아들”과 원래 이스라엘을 일컫는 단어와 관련된 언어유희이다. 마태복음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에 기초하여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확한 연대기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집트는 피난처를 제공했다. 아마도 이것은 제 2 의 출애굽이나 구출을 상징한다.

개역개정 2: 16-18

<sup>16</sup>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sup>17</sup>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sup>18</sup>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16 “사내아이를 ...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헬은 작은 마을로서 아마도 매우 적은 수의 아이들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두 살부터 그 아래로”라는 표현은 박사들이 방문하였을 때에 예수의 나이가 영아기가 아닌 유아기에 속함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2:18 “라마” 18 절은 렘 31:15 의 인용이지만 또한 창 48:7 과 관련이 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북쪽의 열 지파와 관련이 있다. 한편 그녀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은 유다와 관련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한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두 집과 관련을 가진다. 라마 성읍(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 km 떨어진 곳)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의 사르곤 II 세에 의해 행해진 북쪽 10 지파를 사로잡아갈 때에 집결지였다. 상징적으로 라헬은 자신의 잃어버려진 자녀들을 위해 다시금 울고 있다.



- NASB “슬퍼함과 큰 애곡”
- NKJV “비탄, 슬퍼함과 큰 애곡”
- NRSV “울부짖음과 큰 비탄”
- TEV “통렬히 슬퍼함의 소리”
- NJB “비탄과 통렬히 슬퍼함”

이것은 야곱이 총애하던 아내인 라헬에 대한 암시이다. 그녀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북쪽의 10 지파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고(통일왕국이 주전 922 년에 분열된 이후) 또 다른 하나는 남쪽의 지파들에 속했다. 그녀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 울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참조, 렘 31:15; 주전 722 년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로잡힘과 주전 586 년에 있는 유다의 사로잡힘). 이 문맥에서 그녀의 슬픔은 헤롯에 의해 베들레헬 지경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

일부 대문자체 헬라어 사본에는 한 동사가 나온다, “슬퍼함”(즉,  $\kappa$ , B, Z 사본); 다른 사본들은 “애곡함”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70 인역의 렘 31:15(즉, C, D, L, W 사본)에 있다. 사본적 변이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여기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이 절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 거의 아무런 차이를 주지 않는다.

개역개정 2: 19-23

<sup>19</sup>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sup>20</sup>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sup>21</sup>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sup>22</sup>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sup>23</sup>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2:19 “주의 사자” 1:20 의 설명을 보라.

2:22 “아켈라오” 아켈라오는 헤롯 가문에 속한 또 다른 잔인한 군주였다. 요셉은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주전 4 년부터 주후 6 년까지 헤롯대왕의 영지 가운데 남쪽 지방(유대, 사마리아, 이두매)을 다스렸다. 그의 잔인함을 인해 로마는 그를 고을지방으로 추방시켰다.

2:23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수께서 자라신 이 동네는 나사렛으로 불린다. 이곳은 구약, 탈무드, 요세푸스의 글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주전 134-104 년에 다스렸던 요한 힐카누스(즉, 하스모니안)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음이 분명하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동네에 있었던 사실은 다윗의 일부 후손이 이곳에 정착했음을 암시한다.

어원론적으로 볼 때 나사렛이란 이름과 메시아의 칭호인 “가지”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히브리어에서 넷제르이다(참조, 사 11:1; 렘 23:5; 33:15; 스 3:8; 5:12; 계 5:5; 22:16).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곧 어떤 선지자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나 혹은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에 대해 예언하지 않았고 오직 기름부음을 받은 한 특별한 다윗 자손의 왕이 오심을 예언했다(즉, 사 7:14; 9:1-7; 11:1-5; 단 2:44; 7:13-14, 또한 8: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이방인의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참조, 요 1:46; 행 24:5, 비록 이것이 예언되었을지라도, 참조 사 9:1) 이러한 용어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왜 예수의 십자가에 있었던 판에 쓴 글에 이 표현을 넣었는가를 설명해 줄 것이다(즉,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헬라어 용어가 여러 개 있다.

#### 1. 신약의 용어

- ㄱ. 나사렛 - 갈릴리의 도시이다(참조, 눅 1:26; 2:4,39,51; 4:16; 행 10:38). 이 도시는 당시의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기의 비문에서는 나온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것은 찬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1:46). 예수의 십자가 위에 있던 죄패에 기록된 이 지명은 유대인들의 경멸을 나타낸다.
- ㄴ. *나자레*노스 - 지형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4:34; 24:19)
- ㄷ. *나조라이오스* - 도시를 가리키지만, 또한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가지”와 관련된 언어 유희일 것이다(넷제르, 참조, 사 4:2; 11:1; 53:2; 렘 23:5; 33:15; 스 3:8; 6:12; 신약에서는 계 22:16). 누가는 18:37 과 행 2:22; 3:6; 4:10; 6:14; 22:8; 24:5; 26:9 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께 대해 사용한다.
- ㄹ. ㄷ항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나지르*는 맹세로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 2. 신약 이외의 곳에서의 역사적 용법. 이 지명은 역사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 ㄱ. 이것은 유대인(기독교 시대 이전)의 이단 단체를 가리켰다(아람어인 *나소라이야*).
- ㄴ. 유대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하였다(참조, 행 24:5,14; 28:22, *노스리*).
- ㄷ. 시리아(아람어를 쓰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교회에서 신자들을 뜻하는 용어였다.
- ㄹ.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재조직되었고 회당과 교회의 공식적인 분리를 선포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를 선언한 예는 *베라쿿* 28b-29a 의 “18 개의 축복”에 있는데, 여기서 신자를 “나사렛 사람들”로 부른다.  
“나사렛인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ㅁ. 순교자 저스틴이 *Dial.* 126.1 에서 이사야서의 넷제르인 예수를 말했다.

#### 3. 저자의 견해

비록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서로 다른 철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용어의 철자가 매우 다양하게 있음에 나는 놀란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인해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는 모른다:

- ㄱ. 메시아적 용어인 “가지”와의 관계 때문에
- ㄴ.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 ㄷ. 당시 갈릴리에 있던 나사렛 도시와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기에
- ㄹ. 이것은 중말론적 의미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즉, 당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습니까?)

이 단어들에 대해 충실한 참고문헌을 갖기 위해서는 코린 브라운(편저)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제 2 권 346 쪽 혹은 레이몬드 E. 브라운의 *출생* 209-213, 223-225 쪽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박사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유대인이었는가?
2. 그 별은 어떤 종류의 별이었는가?
3. 박사들이 방문하였을 때 예수는 몇 살이었는가?
4. 미 5:2-6 은 성경이 초자연적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5. 이 구약 본문의 인용은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가? 왜 그러한가?

# 마태복음 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침례(세례)요한의 설교	침례(세례)요한이 길을 예비함	침례(세례)요한의 활동	침례(세례)요한의 설교	침례(세례)요한의 선포
3:1-6	3:1-12	3:1-6	3:1-3	3:1-12 (3b)
		3:4-6	3:4-6	
3:7-12		3:7-10	3:7-12	
		3:11-12		
예수의 침례(세례)	요한이 예수께 침례(세례)를 주다	예수의 침례(세례)	예수의 침례(세례)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시다
3:13-17	3:13-17	3:13-17	3:13-14	3:13-15
			3:15a	
			3:15b-17	
				3:16-1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3:1-17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마태복음 2 장과 3 장 사이에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 있다. 열두살 때에 일어난 일 이외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신자들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여러가지 추측을 했다. 성경에 속하지 않는 위경의 여러 복음서들은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예수의 청년기 때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성경에서는 이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나. 마 3:1-12 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막 1:3-8; 눅 3:1-17; 요 1:6-8,19-28 이다.

다. 마 3:13-17 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마 1:9-11; 눅 3:21-22; 요 1:31-34 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 1-6

<sup>1</sup>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sup>2</sup>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sup>3</sup>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sup>4</sup>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 <sup>5</sup>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sup>6</sup>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3:1 “그 때에” 이것은 전환을 이루는 관용구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 “요한” 이 이름은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축약형으로서 “야웨께서 은혜로우시다” 혹은 “야웨의 선물”을 뜻한다. 그의 이름이 중요한 까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과 같이 그의 이름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선지자였다.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약 430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 가운데 커다란 영적 흥분을 가져 왔다.

▣ “세례(침례)” 침례(세례)는 1 세기와 2 세기에 유대인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예식이었다.

1.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한 준비(즉, 씻는 예식)
2. 개종자의 자가 침례(세례)

만일 어떤 이방인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3 가지 일을 행해야만 했다:

- (ㄱ) 할례, 남자인 경우에
- (ㄴ) 물에 잠겨서 행하는 자기 침례(세례)를 세 명의 증인 앞에서 행함
- (ㄷ)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림

1 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에센파와 같은 종파에서는 침례(세례)는 매우 일반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이었다. 한편 주류인 유대교에서 요한이 행한 회개의 침례(세례)는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자녀된 자를 겸손하게 하여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예식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구약의 어떤 선례는 의식에 따른 씻음을 나타낸다.

1. 영적으로 깨끗게 됨의 상징(참조, 사 1:16)
2. 제사장들이 행한 정규적인 예식(참조, 출 19:10; 레 15 장)

1 세기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다른 모든 종류의 침례(세례)는 자기가 알아서 행하는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한만이 이 예식을 그가 행하는 일로 선언했다. 요한은 개인의 회개를 나타내는 영적 상태에 대한 영적 평가를 분명히 내렸다(참조, 7-10 절).

▣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는 건조한 사막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목초지를 말한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옷을 입었고(참조, 왕하 1:8) 똑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살았다. 요한은 선지자의 자격을 주장하였다(참조, 슄 13:4). 그의 유목적 삶은 이스라엘의 광야유랑을 닮았는데 이 시기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이상적인 기간이었다.

평행을 이루는 본문을 살펴볼 때 요한이 설교하던 곳은 요단강에서 사해 바로 북쪽에 있는 여리고 근처의 장소였다.

3:2 “회개하라” 이것은 현재 명령으로서 지속적인 명령을 나타낸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다(참조, 눅 13:3). 히브리어에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뜻하는 반면 헬라이어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기꺼이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회개를 요구한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오심과 그의 메시지에 대한 영적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셨다(참조, 4:17; 막 1:15).

#### 특별주제: 회개

회개(믿음과 더불어)는 옛 언약(나감, BDB 636 예, 13:12; 32:12,14; 슈브, BDB 996 예, 왕상 8:47; 겔 14:6; 18:30)과 새 언약의 언약적 요구이다.

1. 침례(세례)요한(마 3:2; 막 1:4; 눅 3:3,8)
2. 예수(마 4:17; 막 1:15; 눅 5:32; 13:3,5; 15:7; 17:3)

3. 베드로(행 2:38; 3:19; 8:22; 11:18; 벧후 3:9)
4. 바울(행 13:24; 17:30; 20:21; 26:20; 롬 2:4; 고후 2:9-10)

그러나 무엇이 회개인가? 이것은 슬퍼함인가? 이것은 죄를 그치는 것인가? 신약에서 이 개념의 여러 함축적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7:8-11 인데, 이 본문은 다르면서도 서로 관계가 있는 3 가지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슬픔”(κρίσις, 참조,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이것은 슬픔이나 변민을 뜻하며 신학적으로는 중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2. “회개”(μετανοέω, 참조, 9,10 절). 이것은 “후에”와 “마음”의 합성어로서 새 마음, 생각하는 면에서의 새로움, 삶과 하나님께 대한 새 자세를 뜻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다.
3. “후회”(μεταμέλομαι, 참조, 8 절[2 회], 10 절). 이것은 “후에”와 “돌봄”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마 27:3 에서 유다에 대해 사용되었고 히 12:16-17 에서 에서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슬퍼함을 뜻한다

회개와 믿음이 언약의 행위로서 요구된다(참조, 막 1:15; 행 2:38,41; 3:16,19; 20:21).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것을 암시하는 몇 본문이 있다(참조, 행 5:31; 11:18; 딤후 2:25).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언약적 응답에 필요한 것으로 이 의미를 나타낸다.

회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서 이 단어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구원받은 자는 새 마음과 심령을 받는다. 그는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산다. “나를 위해 무엇이 이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한다. 회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나 혹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룩하신 분과의 새로운 교제로서 신자가 점차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한다.

▣ “천국이” 유대인들에게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한다. 따라서 그는 둘러서 말하는 “천국”(참조, 4:17)을 사용한다. 한편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용한다(마태복음은 “천국”을 32 회 사용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4 회만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이지 지리적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왕이시다! 4: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NKJV	“가까이 있다”
NRSV	“가까이 왔다”
TEV	“가깝다”
NJB	“매우 가까이 있다”

이것은 완료 시제의 동사로서 앞서 시작된 일의 완성 및 계속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복음서는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강조한다(참조, 4:17; 10:7; 막 1:15; 눅 10:9-11; 11:20; 21:31). “가까이”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지역적으로 가까움 혹은 (2) 시간적으로 가까움(참조, 마 12:28). 이것은 새 시대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겹쳐지는 영역이다.

3: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70 인역의 사 40:3 을 인용한 내용이다. 같은 개념이 사 57:14; 62:10; 말 3:1 에도 나온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보았다(참조, 요 1:23). 이러한 사실은 말 3:1 과 4:5 에서 엘리야에 관해 기록된 예언을 성취한다. 사 복음서 모두 요한의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참조, 막 1:3; 눅 3:4; 요 1:23).

▣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구는 평행을 이루는 시이다. 두 번째 구는 일반적으로 왕의 방문을 준비함에 대한 은유이다. 나사렛 예수를 나타내는 이 인용문이 사 40:3 에서는 이 용어가 야웨를 뜻하는 “주”로 되어 계라는 용어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1. 야웨를 나타내는 구약의 칭호를 예수께 사용함
2. 예수 안에 나타난 구약에서의 야웨의 행하심
3. 야웨와 관련이 있는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께 대해 사용함
4. 하나님과 예수를 문법적으로 한 동사 혹은 한 전치사의 목적어로 취함

“곧게함”은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은유적으로 나타낸다(“옳은,” “의,” “공정한,” “옳게하다”와 비슷함). 죄를 뜻하는 대부분의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는 기준 혹은 “제는 자”로부터 벗어남을 나타낸다.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참조, 레 11:44; 19:2; 마 5:48; 20:7,26; 벧전 1:16).

3:4 왕하 1:8 에 기록되었고 말 4:5 에 드러난 엘리야의 옷과 생활방법과 이절의 내용을 비교하라. 낙타털 옷은 가장 값이 싼 종류였다. 요한은 광야에서의 삶과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메뚜기는 모세의 법에서 먹을 수 있게 허용되었다(참조, 레 11:22). 이 용어는 개아카시아의 열매 혹은 쥐엄나무의 열매를 나타내기도 했다.

3:5 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이해했다(참조, 마 21:26). 이 절은 1 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진 커다란 사모함을 보여준다. 이 절은 분명히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요한이 일으킨 종교적 열정을 시사한다.

3: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다”[호모로게오]라는 헬라어는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공적인 자복과 믿음의 선포 양자를 뜻한다(참조, 행 19:18; 약 5:16). 사람들이 모두 영적으로 새롭게 될 필요를 인식했다. 구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레 5:5; 26:40 에 있다. 고백에 관한 10:32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3: 7-10**

<sup>7</sup>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sup>8</sup>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sup>9</sup>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sup>10</sup>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3: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요한의 진술은 그 강도에 있어서 충격적이다(즉,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 참조, 눅 3:7; 이 표현은 마 12:24; 23:33 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다). 왜 그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는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그가 그들을 사탄의 도구로 보았다
2. 그들이 참된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그가 보았다
3. 그들의 거짓됨을 그가 보았다
4. 그들이 기만적인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들의 태도나 동기와 일치되지 않음을 그가 보았다

이 지도자들이 침례(세례)받기를 고려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그들은 대중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 자기들의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피했을 것이다. 요한은 그들의 숨은 동기를 알아 보았다.

바리새인들의 유래와 그들의 신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2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또한 사두개인들에 대하여는 2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평행을 이루는 말 3:2-3 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오고 있었음은 분명하다(참조, 신명기 27-28 장). 아모스는 이것을 “야웨의 날”로 불렀다(즉, 암 5:18). 이 날은 의의 새 시대 혹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날이다. 여기서 요한은 말라기서의 심판의 주제를 확인해 주고 있다. 요한의 메시지가 말라기서의 경우처럼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것임을 주목하라(참조, 겔 18:33; 램 31:31-34).

**3:8**

NASB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NKJV, NRSV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TEV

“너희가 죄로부터 돌이켰음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라”

NJB

“만일 너희가 회개한다면, 적합한 열매를 맺어라”

구약에서도 믿음은 단순히 의식에 따른 것 혹은 국가적 공동체의 일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참조, 신 10:12,16; 마 7:15-23; 롬 2:28-29).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이었고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믿음과 행함을 포함하는 일이었는데, 이 측면은 지금도 모두 그러하다(참조, 약 2:14-26)!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들의 새 관계를 나타내어야 했다(참조, 7:16-20; 12:33; 눅 6:43-44; 행 26:20). “회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17 의 설명을 보라.

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후손됨에 대한 의존을 하는 내용이 요 8:31 이하에서와 탈무드의 “산헤드린” 10:1 에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공로가 자기들에게 적용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말 3:2 이하와 4:1 은 유대인들이 언약을 범함을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한다(또한 마 8:11-12 의 설명을 보라). 형통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그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참조, 롬 2:28-29).

▣ “**돌들... 자손**” 이것은 “돌들”(에브나야)과 “자손들”(벤야)이라는 두 아람어 단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이다.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다. G. B. 케어드의 책 *성경의 언어와 상상적 표현* 48 쪽을 보라.

3: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을 나타내는 이 주제는 말라기서의 경우와 비슷하다. 사 10:33-34 에 이러한 평행이 나타난다. 예수께서 정말로 메시아였는가에 대해 침례(세례)요한이 의아하게 생각한 한 가지 원인은 예수의 주된 메시지가 요한이 예상하였던 내용인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개역개정 3: 11-12

<sup>11</sup>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sup>12</sup>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3:11

NASB

“나는 그의 신을 치우기에도 적합하지 않노라”

NKJV, NRSV

“그의 신을 들어 옮기는 일에도 나는 적당하지 않노라”

TEV

“나는 그의 신을 드는 일조차도 적합하지 않노라”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이집트 파피루스에 의하면 “방문자의 신발을 벗기고 이를 보관 장소로 옮기는 일” 혹은 (2) “끈을 풀어 버리는 일.” 두 가지 일 다 전통적으로 노예가 하던 일이다. 랍비들의 제자들조차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요구받지 않았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의 뛰어난성에 대해 이해한 바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었다.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단 하나의 전치사와 하나의 관사는 성령과 불을 하나로 연결시켜 이 둘이 평행을 이룸을 나타낸다(사 4:4의 설명을 보라). 한편 눅 3:17에서와 같이 불은 심판을 나타내고 성령은 깨끗케 하심 혹은 정결케 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 둘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킬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중적 침례(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의인이 받는 침례(세례)와 악인이 받는 침례(세례). 한편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오순절 이전의 회심과 오순절 사건 때의 특별한 강림으로 이해한다. 고전 12:13은 성령 “안”에서 성령 “으로” 혹은 성령 “에 의해” 침례(세례)를 베풀시는 분으로 예수를 나타낸다(참조, 막 1:8; 눅 8:16; 요 1:33; 행 1:5; 2:33).

3:12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참조, 사 66:24)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은유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쓰레기 하치장인 *게헨나*(“힌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의 준말)였다(참조, 막 9:48; 마 18:8; 24:41; 유 7 절). 과거에 이스라엘은 게헨나에서 자기 자녀들을 희생으로 드려서(참조, 레 18:21; 20:2-5; 왕상 11:7; 왕하 21:6; 23:10) 가나안인들의 불의 신과 다산의 신을 예배했다(물려에게 행한 일).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이러한 모습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1 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분명했고(랍비들의 가르침) 또 명백했다. 예수께서 심판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를 거부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참조, 눅 3:16-17; 요 3:17-21). 구약에서 이 은유를 나타내는 본문은 이사야 34 장으로서 이것은 예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한다.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스후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스후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은유로써 나타난다

1. 그의 진노가 불타고 있다(참조, 호 8:5; 스후 3:8)
2. 그가 불을 쏟고 있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벴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의 여러 은유적 표현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를 나타낸다.

개역개정 3: 13-17

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 행하신 초기 사역에 대한 연대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유대에서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 복음서의 연대는 예수께서 사역 초기에 유대 지방을 방문하신 것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참조, 요 2:13-4:3).

왜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셨는가는 항상 믿는 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요한의 침례(세례)가 회개의 침례(세례)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참조, 요 8:46; 행 3:14; 롬 8:3; 고후 5:21; 히 4:15; 7:26; 벧전 2:22; 요일 3:5). 다음과 같은 이론이 제기 되었다:

1. 이것은 신자들이 따를 모본이 되었다
2. 이것은 그가 신자들의 필요를 아심을 말한다
3. 이것은 그가 사역을 위해 임명을 받고 갖추어지심을 뜻한다
4. 이것은 그의 구속적인 사역의 상징을 나타낸다
5. 이것은 그가 침례(세례)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인정하셨음을 뜻한다
6. 이것은 그의 죽으심, 장례, 부활을 예언적으로 나타낸다(참조, 롬 6:4; 골 2:12).

그 이유가 어느 것이었는지 간에 이 일은 예수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순간에 메시아가 되셨음을 이 일이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양자설, 참조, 바르트 D. 에르만의 책 *성경적 정통 신앙의 혼탁* 47-118 쪽), 이 일은 예수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3: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것은 **미완료 시제**의 **동사**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침례(세례)받으시려는 것을 왜 요한이 거둬 거둬 말렸는가에 대해 씨름하고 있다. 그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이는 요한이 예수께 대해 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지만 이 견해는 요 1:31,33 과 상충한다
2. 어떤 이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유대인이심을 요한이 인식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되심을 인식한 것은 아니더라고 이해한다
3. 오늘날 근동의 문화에서는 어떤 것이 신실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 말해야만 한다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15 절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된다. 두 절은 14 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한편 침례(세례)는 예수와 요한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으며 또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

3:16

NASB	“예수께서 물에서 곧 나오셨다”
NKJV	“곧 물에서 나오셨다”
NRSV	“그가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TEV	“예수께서 물 밖으로 나오셨다”
NJB	“그가 즉시 물에서 나왔다”

이 절은 물에 잠겨 침례(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세례)가 물에 잠기는 형태의 침례(세례)였음을 증명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이 절은 예수께서 강의 북 쪽으로 걸어 나오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미카엘 마길의 책 *신약의 트랜스라인* 9 쪽 35 항과 36 항을 보라).

▣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은유적 방법이다(참조, 사 22:22; 계 3:7). 하나님만이 하늘을 여실 수 있으시다(참조, 말 3:10; 계 4:1). 하나님은 장님의 눈을 여시며(즉, 9:27-31; 12:22-23; 20:29-34; 한편 사 29:18; 35:5; 42:7,16 을 주목하라) 또 기도에 응답하신다(참조, 7:7,8).

이것은 사 64:1 에서 취한 은유임이 분명하다.

▣ “**보시더니**” 헬라이어 본문은 대명사 “그”만 나타내는데 이 단어는 요한 혹은 예수를 가리킨다. 어떤 고대 대문자 헬라이어 사본들(א<sup>1</sup>, C, D, L, W 사본), 어떤 고대 번역본(벨게이트역과 콥틱역), 초대 교부들(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크리소스토스, 제롬,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은 “하늘이 그에게 열려졌다”는 표현에서 예수께서만 비둘기가 오는 것을 보았다고 나타낸다. 한편 비둘기는 요한에게 참 메시아를 지적하여 나타내는 표였다(참조, 요 1:32).

▣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 이것은 사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막 1:10; 눅 3:22; 요 1:32). 이것은 비둘기 같았는가 아니면 진짜로 비둘기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는 자세히 답하기 어렵다(참조, 눅 3:22). 이것은 사 11:2; 42:1; 48:16; 61:1 과 관련이 있다. 성령의 특별한 모양 자체는 성령께서 예수 위에 임하신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께서 성령을 갖지 않으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특별히 시작하심을 나타낸다.

비둘기라는 상징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1. 이것은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신 창세기 1 장과 관련이 있다
2. 이것은 노아가 방주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낸 창세기 8 장과 관련이 있다
3. 랍비들은 비둘기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참조, 시 68:13; 호 7:11; 11:11; 탈무드 *San.* 95A 및 *Ber.* R. 39; 제 2 에스드라스 5.26)
4. 타스커는 *틴델 신약주석 시리즈*에서 이것이 11 절에 나오는 불과 대조를 이루는 면에서 은유함을 가리킨다고 말한다(참조, 롬 11:22; 마 11:29; 25:40).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구는 여러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된 선지자가 없었던 신구약 중간시대에는 랍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발 쿨*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확인해 주신다고 했다. 또한 이 소리는 1 세기 유대인의 문화에서 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신호였다(참조, 행 10:9-16; 11:7-9; 계 1:10; 4:1; 10:8; 11:12). 이 일은 예수께만 의미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요한과 또 예수의 침례(세례)를 지켜 보았던 군중들에게 의미있는 일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인용은 왕인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 즉 다윗에 대한 강조를 두는 시 2:7 과 고난받는 종의 주제를 갖는 사 42:1 을 함께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의 인용에서 왕인 메시아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과 관련을 가진다.

“내 사랑하는 아들”(또한 17:5 의 설명을 보라)이라는 이 구는 마 4:3,6 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의 기원이 될 것이다. 막 1:11 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는 성부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예수께 하시는 내용이며, 마태복음 3 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한과 군중에게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임을 주목해야 한다. 27:54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16-17 절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와 관련이 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다. 하지만 이 개념은 매우 성경적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유일신 주의, 신 6:4)을 주장하는 내용은 반드시 예수의 신성과 또한 성령의 인격과 더불어 이해해야만 한다. 한 신적 본질이시지만 세 가지 영원한 인격체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세 인격은 종종 같은 본문에서 언급되었다(즉, 마 3:16-17; 28:19; 행 2:33-34; 롬 8:9-10; 고전 12:4-6; 고후 1:21-22; 13:14; 엡 1:3-14; 4:4-6; 딤후 3:4-6; 뱀전 1:2).

####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가. 복음서

- ㄱ.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 ㄴ. 요한복음 14:26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다. 바울

- ㄱ. 롬 1:4-5; 5:1,5; 8:1-4,8-10
- ㄴ. 고전 2:8-10; 12:4-6
- ㄷ. 고후 1:21; 13:14
- ㄹ. 갈 4:4-6
- ㅁ. 엡 1:3-14,17; 2:18; 3:14-17; 4:4-6
- ㅂ. 살전 1:2-5
- ㅅ. 살후 2:13
- ㅇ. 딤후 3:4-6

라. 베드로 - 뱀전 1:2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 ㄱ.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 ㄴ.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나.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나타남

- ㄱ. 창세기 16:7-13; 22:11-15; 31:11,13; 48:15-16

- ㄴ. 출애굽기 3:2,4; 13:21; 14:19
- ㄷ. 사사기 2:1; 6:22-23; 13:3-22
- ㄹ. 스가랴 3:1-2

- 다. 하나님과 성령은 서로 구별됨,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 라.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손)는 서로 구별됨, 시 45:6-7; 110:1; 스가랴 2:8-11; 10:9-12
-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 바. 사 48:16; 61:1 에서는 3 위가 모두 언급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동등하심을 확인함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데 트리니타테*에서 잘 설명된다.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있다. 한편 신약은 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 위격으로 나타나셨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침례(세례)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는가? 왜 그런가?
2. 회개를 정의하라.
3.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구를 사용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를 사용하는가?
4. 이사야서 40 장의 인용은 왜 중요한가(3 절)?
5. 왜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세례)받기를 원했는가? 당시에 침례(세례)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6. 왜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강조했는가?
7. 예수께서는 왜 회개의 침례(세례)를 받으셨는가?
8.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일은 왜 중요한가?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 구약의 두 곳을 말하고 왜 그 내용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라.

# 마태복음 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시험	사탄이 예수를 시험함	예수의 시험	예수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
4:1-11	4:1-11	4:1-4	4:1-3 4:4	4:1-11 (4b)
		4:5-7	4:5-6 4:7	(5b) (6b)
		4:8-11	4:8-9 4:10 4:11	
갈릴리 사역의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활동의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다	갈릴리로 돌아가심
4:12-16	4:12-17	4:12-17	4:12-16	4:12-17 (15-16)
4:17			4:17	
네 아버를 부르심	네 아버를 제자로 부르심		예수께서 네 아버를 부르심	네 명의 첫 제자가 부르심을 받다
4:18-22	4:18-22	4:18-22	4:18-20 4:21-22	4:18-20 4:21-22
대단히 많은 군중에게 대한 사역	대단히 많은 군중을 예수께서 고치시다		선생과 설교가와 병고치시는 자이신 예수	예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
4:23-25	4:23-25	4:23-25	4:23-25	4:23-2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1-25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예수께서 메시아인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난 후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이끄사” 시험을 받게 하신 일은 매우 중요하다(참조, 막 1:12). 시험은 성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밖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를 갖도록 유혹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시험은 죄가 아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 의해 시작되었다. 사탄은 시험을 위한 도구였다(참조, 왕하 22:13-23; 욥 1-2 장; 숙 3 장).
- 나. 이 장에서 이스라엘/그리스도의 모형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중요하다. 예수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일을 성취하신 “이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드러난다(참조, 사 41:8-9; 42:1,19; 43:10). 양쪽 다 “아들”로 불린다(참조, 호 11:1). 이 점은 사 41-52 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바뀜으로 인해 생기는 모호성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70 인역의 사 52:13-15). 이스라엘/그리스도의 이 모형은 롬 5:12-21 에 나오는 아담/그리스도의 모형과 비슷하다.
- 다. 그리스도는 죄를 정말로 지을 수 있으셨는가? 진실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본질을 가지심으로 인한 신비에 속한다. 시험은 실제로 있었다. 인간의 본질을 가지므로 인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범할 수 있으셨다. 이것은 허수아비가 보여주는 쇼가 아니었다. 비록 타락한 본성을 갖지 않으셨지만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시다(참조, 히 4:15; 7:26). 이 면에서 그는 아담과 비슷하다. 우리는 이 같은 인간의 본질을 갯세마네 동산에서 발견한다. 그곳에서 예수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구속적 길을 위해 세 번을 간구하셨다(참조, 26:36-46; 막 14:32-42). 이러한 경향은 마태복음 4 장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받은 각 시험의 본질이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메시아적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대속적인 속죄 이외의 그 어떤 방법도 시험이었다!
- 라. 예수께서는 홀로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말씀하셔야만 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하여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
- 마. 성경이 서양의 역사처럼 연대기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근동의 역사는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었다. 복음서들은 전기가 아니라 복음 전도 책자이며 역사를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각각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책이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신학적 및 문학적 이유에서 자료들을 취사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또 정리했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94-112, 113-134 쪽). 마태가 자신이 쓴 복음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진 경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좋은 예가 있다.
1.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모두 하나의 설교로 묶었는데(5-7 장)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비유도 같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2. 그는 숫자에 대한 경향을 가졌다(참조, NIDOTTE 제 3 권 657 쪽)
    - 가. 삼
      - (1) 세 가지 시험, 4:1-11
      - (2) 유대인들의 행하는 세 가지 의, 6:1-18
      - (3) 세 가지 병고침, 8:1-15
      - (4) 세 번의 “두려워 말라,” 10:26,28,31
      - (5) 삼 일, 12:40
      - (6) 세 질문, 22:15-40
      - (7) 갯세마네에서 성부께 드린 예수의 세 기도, 26:39-44
      - (8) 삼 일만에 성전을 다시 지음, 27:40(5 항)
      - (9) 예수께서 삼 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27:63(5 항과 8 항)

ㄴ. 칠

- (1) 귀신, 12:45
- (2) 빵, 15:34,36
- (3) 바구니, 15:37
- (4) 형제를 용서함, 18:21,22(일곱, 일흔 번씩 일곱 번)
- (5) 일곱 형제, 22:25
- (6) 일곱 가지 화, 23:13,15,16,23,25,27,29

마가복음(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됨)에는 일곱과 관련하여 2 항 3 항 5 항의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마태복음처럼 숫자가 독특한 구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이러한 숫자에 따라 구성하도록 영향을 준 전통이나 경향이 무엇이었던가를 알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허구로 사건을 만들어 제시하거나 내용을 지어내었다는 말이 아니다. 복음서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영감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차이는 이 책들이 목격자적 진술임을 확증한다.

바.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평행 본문은 막 1:12-13 과 눅 4:1-13 에 있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4:1-4**

<sup>1</sup>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sup>2</sup>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sup>3</sup>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은 예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직면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절이다(히 5:8).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일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의 메시아적 능력을 예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3 절과 6 절에 있는 **가정법의 첫 번째 유형**).

▣ “**이끌리어**” 마 1:12 에서 우리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구를 본다. 이 경험은 예수께 필요한 일이었다(참조, 히 5:8).

▣ “**광야**” 이것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초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모세(참조, 출 34:28), 엘리야(참조, 왕상 19:8), 침례(세례)요한이 살았던 것과 같은 환경인 지역이었다(참조, 마 3:1).

▣ “**시험을 받으러**” 헬라어에서 두 용어가 시험 혹은 시련을 나타낸다. 하나는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도키마조]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페이라스모]이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는 멸망시키는 자를 나타낸다(참조, 마 6:13; 약 1:13-14).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종종 시험하신다(참조, 창 22:1; 출 16:4; 20:20; 신 8:2,16; 13:3; 사 2:22; 대하 32:31; 살전 2:4; 벧전 1:7; 4:12-16). 사탄은 멸망시키려고 시험한다!

**특별주제: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고의로 사람을 시험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도키마조, 도키미온, 도키마시아*

이 용어는 금속제련 용어로서 어떤 물질(은유적으로는 사람)의 순수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가리킨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버림(정화)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드러낸다. 이 물리적 과정은 하나님과 혹은 사탄이 사람을 시험함을 가리키는 강력한 속어가 되었다. 받아들여짐을 나타내는 관점에서 불 때 시험은 긍정적 의미만 갖는다.

신약에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ㄱ. 소, 눅 14:19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ㄷ. 우리의 믿음, 약 1:3

ㄹ. 심지어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의 긍정적 결과가 가정된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벧전 1:7). 따라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여 다음의 내용을 입증함을 뜻한다

ㄱ. 가치있음

ㄴ. 좋음

- ㄷ. 진실됨
- ㄹ. 값 있음
- ㅁ. 영예로움

2.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 용어는 잘못을 찾아내거나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께서 받은 유혹과 관련되어 종종 사용된다.

- ㄱ.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도임을 나타낸다(참조, 마 4:1; 16:1; 19:3; 22:18,35; 막 1:13; 눅 4:2; 히 2:18)
- ㄴ. 이 용어(페이라조)는 마 4:3 과 살전 3:5 에서 사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
- ㄷ.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마 4:7; 눅 4:12). 이것은 또한 실패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을 뜻한다(참조, 행 9:20; 20:21; 히 11:29).
- ㄹ. 이것은 신자들이 받는 유혹이나 시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7:5; 10:9,13; 갈 6:1; 살전 3:5; 히 2:18; 약 1:2,13,14; 벧전 4:12; 벧후 2:9).

▣ **“마귀”** 구약에서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제시하는 천사적 존재의 호칭은 사탄(BDB 966) 혹은 비난자이다(참조, 막 1:13). 신약에서 이 존재는 *디아볼로스*(70 인역을 따라) 혹은 마귀로서 중상자, 적대자, 혹은 유혹하는 자를 뜻한다. 구약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였다(참조, 욥 1-2 장; 왕하 22:13-23; 대상 21:1; 숙 3:1,2). 한편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악의 강화가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주요한 원수가 되었다. 악의 발전에 대한 좋은 책인 A. B. 데이빗슨의 *구약신학*(T. and T. 클락 출판사) 300-06 쪽을 보라. 4:5의 특별주제를 보라.

**4:2 “금식하신 후에”** 6:16의 특별주제: 금식을 보라.

▣ **“사십 일을 밤낮으로”** 여기서 마태는 구약의 주제를 또 다시 선택하여 사용한다: (1) 모세가 사십 일을 밤낮으로 시내산 위에 있었다(참조, 출 24:18; 34:28; 신 9:9; 10:10) 또한 (2)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간 있었다(참조, 민 14:26-35). 마태는 예수를 새 율법을 주시는 분과 구원자로 이해했다(즉, 새 출애굽).

“사십”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종종 글자 그대로의(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또한 회화적인(홍수) 기능을 가진다. 히브리인들은 음력을 사용했다. “사십” 일은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은 어떤 긴 기간으로서 달의 공전 주기보다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40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엠 4:4-6)
  - 2. 넷 - 지구 전체(즉, 네 모퉁이, 네 바람)
  - 3. 여섯 - 인간의 불완전성(7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 4.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 ㄱ. 일곱 촛대, 1:13,20; 2:1
    - ㄴ. 일곱 별, 1:16,20; 2:1
    - ㄷ. 일곱 교회, 1:20
    -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 ㅁ. 일곱 등잔, 4:5
    - ㅂ. 일곱 인, 5:1,5
    - ㅅ. 일곱 빨과 일곱 눈, 5:6
    - ㅇ.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 ㅈ. 일곱 나팔, 8:2,6
    - ㅊ. 일곱 우뢰, 10:3,4
    - ㅋ. 칠천, 11:13
    - ㅌ. 일곱 머리, 13:1; 17:3,7,9
    - ㅍ. 일곱 재앙, 15:1,6,8; 21:9
    - ㅎ. 일곱 접시, 15:7
    - ㄱ. 일곱 왕, 17:10
    - ㅊ. 일곱 병, 21:9
- 5. 십 - 완전성

-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 (1) 마 20:24; 25:1,28
  - (2) 막 10:41
  -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2:10, 십일 간의 환란
  - (2) 12:3; 17:3,7,12,16, 열 별
  - (3) 13:1, 열 면류관
- ㄷ. 계시록에서의 10의 배수:
  - (1) 144,000 = 12x12x10, 참조, 7:4; 14:1,3
  - (2) 1,000 = 10x10x10x, 참조, 20:2,3,6
- 6. 열 둘 - 인간의 조직
  - ㄱ. 야곱의 열 두 아들(즉,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창 35:22; 49:28)
  - ㄴ. 열 두 기둥, 출 24:4
  - ㄷ. 대제사장의 예복에 있는 열 두 보석, 출 28:21; 39:14
  - ㄹ. 빵 열 두 덩이, 성소 안에 있는 상에 놓임(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 두 지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나타냄), 레 24:5; 출 25:30
  - ㅁ. 열 두 정탐군, 신 1:23; 수 3:22; 4:2,3,4,8,9,20
  - ㅂ. 열 두 사도, 마 10:1
  - ㅅ.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 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년
      - (ㄴ) 광야에서의 40년
      -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년
    - (4)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이 숫자가 말하는 시간의 길이가 많은 경우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 7. 칠십 -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한 어림 수:
  - ㄱ. 이스라엘, 출 1:5
  - ㄴ. 칠십 장로, 출 24:1,9
  - ㄷ. 종말론적 의미, 단 9:2,24
  - ㄹ. 선교 팀, 눅 10:1,17
  - ㅁ. 용서함(70x7), 마 18:22
- 나. 좋은 참고 자료
  - 1. 존 J. 데이비스, *성경의 수*
  - 2.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용 같고리*

▣ “주리신지라” 금식은 물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을 말한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금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약해지고 지쳐 있으실 때까지 사탄이 기다렸다가 예수께 다가 온 것으로 본다. 다른 이들은 사탄이 금식 기간 내내 왔다고 믿는다. 처음 견해가 문맥상 더 맞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낸다.

4:3 “시험하는 자가”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1 절에서와 같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역할을 대신한다.

▣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이 시험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영역에 대해 행해졌을 것이다. 사탄이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에 땅 위에 있는 왕국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보여준 사실(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아마도 환상을 사용한 시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와 사탄의 직접적인 대면이 있었다.

▣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6 절과 같이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적어도 저자의 관점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을 “~이므로”(“만일”이라는 단어 대신에)로 번역해야 한다. 사탄은 예수의 메시아되심(3:17에 있는 하나님의 확인)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형태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 전체의 해석을 돕는다(참조, 제임스 스튜어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 “명하여 이 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1 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유대 광야에 있던 들들은 분명히 구워놓은 빵같은 모양을 가졌다. 사탄은 예수께서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을 먹임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얻는 목적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분으로 말해진다(참조, 사 58:6-7,10). 시험은 어느 정도 확장되어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오천 명을 먹이신 일(마 14:13-21) 사천 명을 먹이신 일(마 15:29-33)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인간이 얼마나 남용하였고 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남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문제들과 평행을 이룬다. 마태는 모세와 예수께서 평행을 이루심을 보았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행한 많은 일들을 행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탄의 시험은 두 수준에서 행해졌다. 처음의 수준은 메시아가 모세처럼 음식을 주신다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관련이 있다(즉, 요 6 장). 두 번째 수준은 만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면 그가 “말씀하심”을 통해 그의 뜻을 입증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명백하게 이것은 말로써 창조하신 일을 가리킨다(창세기 1 장). 사탄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 모세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라
2. 말로써 기적을 행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라(4b 절에 있는 인용을 주목하라)

4:4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영감된 구약의 인용을 소개하는 전형적이며 관용적인 표현이다(참조, 4,7,10 절). 이번 경우는 70 인역의 신 8:3 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 특별한 인용은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일을 말한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의 모든 대답은 신명기에서 취한 인용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좋아하신 책 가운데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1.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다, 마 4:1-16; 눅 4:1-13
2. 이 책은 산상설교의 배경을 이루는 책이다, 마 5-7 장
3. 예수께서는 신 6:5 을 가장 커다란 계명으로 인용하여 말씀했다, 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4.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 부분(창세기-신명기)을 가장 자주 인용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정경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4:5-7**

<sup>5</sup>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sup>6</sup>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sup>7</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5 “마귀” 헬라어 단어인 *디아볼로스*는 신약에서 37 회 사용되었고 *사탄*은 36 회 사용되었다; 둘 다 고소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그의 일이었다. 시험과 관련하여 마태와 누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가는 *사탄*을 사용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아래의 특별주제: 개인적 악을 보라.

**특별주제: 개인적 악**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에 대항하는 주요한 원수가 아니라, 인간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야웨의 종에 대해 말한다.
2. 하나님께 대항하는 옛 원수의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글에서 페르시아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어서 랍비적 유대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들을 놀랍도록 뚜렷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또 관련된 항목별로 발전시켰다. 만일 누가 악의 문제를 성경신학의 관점(각 책 또는 저자별, 장르별로 연구하고 개요를 구별하는)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상이한 견해들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악에 대해 연구하거나 세계종교에 대한 성경이외의 자료나 동방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신약의 많은 부분이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로마의 강신술로 설명됨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념의 발전을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민속전승이나 서양문학(즉, 단테, 밀톤)이 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계해야 한다. 계시에는 어느 정도 신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 악의 기원에 대해, 악의 목적에 대해 모든 면을 다 알도록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악의 패배를 계시하셨다!

구약에서 사탄 혹은 고발자는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된 것 같다

1. 사람인 고발자(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23,25; 시 109:6)
2. 천사인 고발자(민 22:22-23; 숙 3:1)
3. 악령인 고발자(대상 21:1; 왕상 22:21; 숙 13:2)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 3 장의 뱀이 사탄으로 알려졌다(지혜서 2:23-24; 에녹 2 서 31:3),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해석은 랍비들의 주장이 되었다(참조, *Sot* 9b 와 *Sanh.* 29a). 창 6 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 1 서 54:6 에서 천사로 이해되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 온 것임을 드러내려는 이유에서다. 신약은 이러한 구약의 활동을 천사로 의인화된 악(즉, 사탄)으로 묘사한다(고후 11:3; 계 12:9).

의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찾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한 유일신 사상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겔 7:14; 사 45:7; 암 3:6). 모든 것의 원인은 야웨께로 돌려져 그의 유일하심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43:11; 44:6,8,24; 45:5-6,14,18,21,22).

가능한 자료인 (1) 욥 1-2 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즉, 천사) 중 하나로 나온다 (2) 사 14; 겔 28 장에서는 사탄의 자궁심에 비유된 근동 왕들(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이 나온다(참조, 딤펢전 3:6).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교차되는 느낌을 갖는다. 에스겔은 두로왕을 사탄으로써 표현하고(참조, 겔 28:12-16) 이집트왕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비유함(겔 31 장)으로써 에덴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교만으로 일어난 천사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특별한 정체와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간접적인 본문은 그것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신구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혹은 각각 다른 저자, 다른 책, 다른 장르에서 취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적인 퍼즐의 조각으로 재구성하려는 조직신학적 경향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그의 책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간* 제 2 권의 부록 XIII (748-763 쪽)과 XVI (770-776 쪽)에서 랍비들의 유대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추론적인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랍비들의 저술은 이 부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당의 가르침과 달랐다. 시나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의 중재적인 역할과 반대적 역할에 대한 랍비적인 관념은 야웨와 인간의 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장의 개념을 갖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페르시아의 이원론에는 두 높은 신들인 *아키만*과 *오마자* 즉 선과 악이 나온다. 이 이원론은 유대교에서 야웨와 사탄과의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신약에는 악의 발전에 대하여 점진적인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지만 랍비들의 저술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 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마저도 묵시적 장르로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7,12-13). 비록 사탄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직 야웨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펢전 1:20).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제어해야만 한다. 시험을 하고 악한 힘을 나타내는 존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원 이전과 이후에 각각 영적 전쟁이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 또 그분을 통해서만 승리가 온다. 악은 패배하였고 또 제거될 것이다!

▣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거룩한 성”이라는 이 구는 마태복음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표현이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이다(참조, 27:53; 단 9:24; 느 11:1,18; 계 11:2).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 표현이 구약의 암시임을 즉각적으로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참조, 사 48:2; 52:10; 64:10).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의 것과 누가복음의 것이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불확실하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그 때”), 누가복음의 경우는 점증적인 효과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다시”).

▣

NASB, NKJV,

NRSV

TEV

NJB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를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를 성전 난간에 두고”

“난간” 혹은 “꼭대기”는 “날개”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용어는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성전 외벽의 남동쪽 모서리 끝으로서 기드론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나 (2) 헤롯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안쪽 뜰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였을 것이다.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려할 때(참조, 말 3:1), 아마도 축제 기간에 성전 경내로 뛰어내려 천사들이 그를 받드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보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 전통이 유발했을 것이다.

**4:6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은 또 다른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참조, 3 절). 사탄은 시 91:11-12 을 인용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탄이 이 절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사탄이 “너의 모든 길에서”를 빠트리고 있지만 이 인용은 구약 성경을 사도들이 인용한 것과 같은 면을 갖고 있다. 사탄이 이 절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7 절은 신 6:16 의 인용으로서 이스라엘이 광야 방랑 기간동안 맛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을 가리킨다(참조, 출 17:1-7). 이스라엘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고 기적만을 요구했다. 인용문에 나오는 **대명사**인 “너희”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다(참조, 10 절).

▣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관건은 “시험”의 동기이다(참조, 고전 10:9[민수기 21 장]; 행 5:9; 15:10).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즉, 수 1:56; 사 7:10-13; 말 3:10).

#### 개역개정 4:8-11

<sup>8</sup>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sup>9</sup>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sup>10</sup>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sup>11</sup>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4:8-9** 이 시험은 실제적 사건보다 비전을 뜻한다. 눅 4:5 에 나오는 “순식간에”와 비교하라. 어느 경우에서든 이 시험은 예수께서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직면했던 시험이었다.

9 절에서 사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1) 이것은 사탄이 땅의 모든 나라를 소유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2) 이것은 사탄이 세상의 영화를 제시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하찮은 것으로 돌리고 있음을 암시하는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참조, 요 12:31; 고후 4:4)과 이 세상의 지배자(참조, 엡 2:2; 요일 5:19)로 불리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이것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께 속한다! 사탄의 영향력과 소유권(참조, 눅 4:6) 및 자유의지(참조, 욥 1-2 장; 숙 3 장)의 범위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능력과 악은 만연해 있다(참조, 뱀전 5:8).

**4: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 절은 사탄의 진정한 욕망은 야웨를 대신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신 6:13 을 대략적으로 인용한 내용이다. 이 말은 맛소라 본문(MT)이나 70 인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형태이다. 예수께서는 “~만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셨다. 이 절과 신 6:5 은 하나님께 가슴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헌신할 것을 확증한다.

예수께서 성경을 대략적으로 인용하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암송하도록 격려한다(즉, 시 119:11; 37:31; 40:8). 암송의 목적은 시험이나 시련의 때에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인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핵심을 알고 그대로 살게 하려는데 있다(참조, 엡 6:17).

▣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마 16:23 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이른 시기에 속하는 어떤 헬라이어 사본(C<sup>2</sup>, D, L, Z)은 “사탄아 내 뒤로 가라”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 초기의 서기관들이 이 구를 마 16:23 에서 취하여 넣었음이 분명하다.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4: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눅 4:13 은 “적당한 때가 오기까지”라는 구를 삽입하고 있다. 시험은 단 한번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시험을 또 경험하셨을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광야에서 사탄이 한 말처럼 유혹적이고 매서운 말이었다(참조, 마 16:21-23).

▣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들다”라는 헬라이어 단어는 종종 육신의 음식과 관련이 있다(참조, 마 8:15; 25:44; 27:55; 행 2:6).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신 것을 말하는 왕상 19:6-7 의 사건을 떠올린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성자를 섬겼다. 하나님은 사탄이 공급하리라고 말했던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 천사들의 섬김을 필요로 했는가? 천사들은 수종받은 자를 섬기는 영들이다(참조, 히 2:14). 예수의 생애 동안 천사들이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때에 두 번 도왔는데 이곳과 겟세마네에서였다(참조, Ⓢ<sup>8</sup>, D, L 사본과 별게이트 역의 눅 22:43 본문).

개역개정 4:12-17

<sup>12</sup>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sup>13</sup>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sup>14</sup>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sup>15</sup>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sup>16</sup>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sup>17</sup>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4:12 요한이 잡힌 특별한 이유는 마 14:3-5 에 나온다.

4:13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께서는 성읍의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 거주지를 옮기셨다(참조, 눅 4:16-31). 2:23 의 특별주제: 나사렛 예수를 보라.

▣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곳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이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곳은 전통적으로 그 구약 선지자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안가에 위치했다.

4:13c-16 13 절의 결론적 표현을 인해 이것은 성취된 예언을 이룬다(참조, 사 9:1-2). 메시아가 주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다. 그런데 고대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독특하게 성취되었다(참조, 요 7:41).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앗시리아 침략군에게 제일 먼저 멸망당한 곳이었고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지역이었다.

4:15 “요단 강 저편” 이 관용구는 대개 요단의 동편을 가리킨다(트랜스 요단). 그러나 이곳에서는 요단강의 서쪽을 가리킨다(약속의 땅). 이것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쪽에 서 있는가(또는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의 주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곳이었다(예르네, 70 인역의 사 9:1). 주민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알아 보았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전 세계의 구원을 향해 있었다(즉, 창 3:15; 12:3; 출 19:5-6; 사 2:24; 25:6-9; 요 3:16; 엡 2:11-3:1).

4: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것은 다음의 어느 한 경우에 속할 것이다: (1) 그들의 죄에 대한 언급 (2) 그들의 무지함에 대한 언급 혹은 (3) 그들의 관습이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의 것과 다름을 인한 조롱을 나타낸다.

▣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위험을 나타내는 은유였다(참조, 욥 38:17; 시 23:4; 렘 2:6).

4:17 “이 때부터” 이 구는 마태복음에서 세 번 사용되었다(참조, 4:17; 16:21; 26:16). 이것은 마태가 예수를 나타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 문자적 표시를 두어 전체에 커다란 구분을 짓는 것으로 여겨진다.

▣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와 비슷하다(참조, 3:2). 예수의 입에서 이것은 새로운 의미를 나타냈다. 왕국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이것은 새 시대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나타낸다(로버트 슈타인의 예수의 가르침의 방법과 메시지 75-79 쪽을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 야웨는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상 8:7; 시 10:16; 24:7-9; 29:10; 44:4; 89:18; 95:3 사 43:15; 44:4, 6)과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참조, 시 2:6; 사 9:6-7; 11:1-5)로 여겨졌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 (주전 6-4 년), 하나님의 왕국은 새로운 권세와 구속으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왔다(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7-35). 침례(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참조, 마 3:2; 막 1:15). 예수님은 자신 안에 또 자신의 가르침 안에 왕국이 임재하심을 분명히 가르치셨다(참조, 마 4:17, 23; 9:35; 10:7; 11:11-12; 12:28; 16:19; 막 12:34; 눅 10:9, 11; 11:20; 12:31-32; 16:16; 17:21). 그럼에도 왕국은 미래적이기도 하다(참조, 마 16:28; 24:14; 26:29; 막 9:1; 눅 21:31; 22:16, 18).

공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평행을 이룸을 본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주된 주제로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로서 어느 날 온 땅 위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마 6:10 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구(하늘의 왕국)를 좋아하고,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일반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이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와 마지막 설교, 대부분의 비유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인간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구를 단지 두 번만(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는 것은 놀랍다. 요한의 복음에서 “영생”은 핵심용어로서 은유적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이 이 긴장을 야기한다. 구약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심에—군사적, 재판적, 영광스런 오심—초점을 둔 반면, 신약은 그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와 속 9:9 의 겸손한 왕으로서 처음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대인의 두 세대인 악한 세대와 의의 새 세대가 겹쳐진다. 예수는 지금 신자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대 “아직”의 면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참조, 고든 D.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1-34 쪽).

▣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마 3:2; 4:17; 막 1:15; 6:12; 눅 13:3,5; 행 2:38; 3:19; 20:21). 히브리어에서 이 용어는 행동의 변화(BDB 996)를 뜻하고 헬라어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회개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는 삶으로 바꾸려는 마음을 말한다. 이것은 자아에 둔 우선권과 속박에서 돌이키는 일을 요구한다(참조, 창세기 3 장). 회개는 기본적으로 새 태도, 새 세계관, 새 주인을 뜻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겔 18:21,23,32; 뱀후 3:9).

회개를 뜻하는 여러 헬라어 용어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신약의 본문은 고후 7:8-12 이다.

1. *뤼페*, “슬픔” 혹은 “근심함” 8 절(2 회), 9 절(3 회), 10 절(2 회), 11 절
2. *메타메로마이*, “후에 돌보다,” 8 절(2 회), 9 절
3.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후에 마음을 두다,” 9,10 절

거짓 회개 [*메타메로마이*] (참조, 유다, 마 27:3; 에서, 히 12:16-17) 대 참된 회개 [*메타노에오*] 가 대조된다.

참된 회개는 다음의 내용과 신학적 관련이 있다

1. 새 언약의 조건에 대한 예수의 설교(참조, 마 4:17; 막 1:15; 눅 13:3,5)
2.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의 설교 [*케리그마*] (참조 행 3:16,19; 20:21)
3.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참조, 행 5:31; 11:18; 뱀후 2:25)
4. 멸망(참조, 뱀후 3:9)

회개는 선택이 아니다!

#### 개역개정 4:18-22

<sup>18</sup>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sup>19</sup>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sup>20</sup>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sup>21</sup>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sup>22</sup>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18 “갈릴리 해변” 이 호수의 크기는 약 20 km x 13 km 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네 가지 이름으로 알려졌다.

1. 긴네렛 바다(참조, 민 34:11)
2. 게네사렛 호수(참조, 눅 5:1)
3. 디베랴 바다(참조, 요 6:1; 21:1)
4. 여기서 갈릴리 바다

▣ **“두 형제를... 보시니”** 이 때가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경우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다. 이전의 만남에서 그들이 즉시 나타낸 반응은 요 1:45-51 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요한은 초기에 갈릴리와 유대에서 하신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라. 요한이 나타내는 예수의 연대기는 갈릴리, 유대, 갈릴리,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 **“그물”** 이것은 손으로 던지는 둥그런 모양의 그물을 가리키는데 20 절과 21 절에 나오는 “그물”이라는 단어는 다른 용어로서 배들이 끄는 보다 큰 그물을 가리킨다.

1. 배의 뒤나 배들 사이에서 끄
2. 한쪽 끝은 바닷가에 대고 다른 한 쪽 끝을 배로 당긴 후 반원형으로 끌어 해변으로 가져오는 것.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유대적 배경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랍비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놓은 규정과 과정이 있었다. 이 용어는 그들이 고기를 전문적으로 낚는 현재의 직업과 그들이 증거자요 전도자로서 갖는 새로운 전문직 사이의 언어 유희를 나타낸다.

**개역개정 4:23**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것은 세 가지 특별한 사역과 관련이 있다: (1) 가르치심 (2) 설교하심 (3) 병 고치심. 그들이 3 번째 항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1 항과 2 항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지 못했음은 흥미롭다. 3 항의 내용은 단순히 처음 두 항의 생명력과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병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다(참조, 요 5 장).

**개역개정 4:24-25**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시리아는 로마의 도로서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방을 포함했다. 한편 이 문맥에서 전체 지역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나사렛 출신의 이 병고치는 자의 두루 퍼진 유명세를 나타낸다.

▣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복음서에서 육체적 질병과 귀신들림을 구별하고 있다. 비록 귀신의 힘이 육체적 질병의 증세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 치료방법은 서로 달랐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19: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기록을 통해 병고침이 어떤 때는 개인의 믿음에 근거해서, 또는 병든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인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커다란 믿음이 없이도 일어남을 본다. 육체의 치료가 항상 영적 구원을 나타내고 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참조, 요 9 장).

▣ **“귀신”** 10: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간질하는 자”** 17:15 의 설명을 보라.

**4:25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5 절은 예수께서 널리 유명하게 된 것을 지리적으로 드러낸다(참조, 막 3:7-8; 눅 6:17). 이렇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짐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무리들은 그의 사명을 오해하게 되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 시험받으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2. 마귀는 누구이며 또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이 시험들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이었는가 아니면 환상적인 영역의 시험이었는가?
4. 복음서들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5. 예수께서는 언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들이 이전에 예수를 만나거나 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가?
6. 신약은 귀신들림과 육체적 질병을 서로 구분하는가? 그렇다면 왜 구분하는가?

# 마태복음 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산상설교 5:1-2	산상수훈 5:1-12	산상설교 (5:1-7:27) 5:1-2	산상설교 5:1-2	산상수훈 5:1-12
산상수훈 5:3-12		산상수훈 5:3 5:4 5:5 5:6 5:7 5:8 5:9 5:10 5:11-12	행복 5:3-10	(3-10)
소금과 빛 5:13-16	신자는 소금과 빛이다 5:13-16	제자들의 증거 5:13 5:14-16	소금과 빛 5:13 5:14-16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5:13 5:14-16
율법에 대한 가르침 5:17-20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심 5:17-20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관계 5:17-20	율법에 대한 가르침 5:17-20	율법의 성취 5:17-19
화냄에 대한 가르침 5:21-26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함 5:21-26	율법의 참된 이해에 대한 실례 5:21-26	화냄에 대한 가르침 5:21-24 5:25-26	옛 기준보다 높은 새 기준 5:20 5:21-26
간음에 대한 가르침 5:27-30	간음에 대한 가르침 5:27-30	간음에 대한 가르침 5:27-30	간음에 대한 가르침 5:27-30	간음에 대한 가르침 5:27-30
이혼에 대한 가르침 5:31-32	성스럽게 묶는 결혼 5:31-32	5:31-32	이혼에 대한 가르침 5:31-32	5:31-32

맹세에 대한 가르침	예수께서 맹세를 금하심	맹세에 대한 가르침		맹세에 대한 가르침
5:33-37	5:33-37	5:33-37	5:33-37	5:33-37
원수 갚음에 대한 가르침	십리를 가라		보복에 대한 가르침	
5:38-42	5:38-42	5:38-42	5:38-42	5:38-42
원수에 대한 사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 대한 사랑	
5:43-48	5:43-48	5:43-48	5:43-48	5:43-4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5-7 장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설교는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열두 사도의 임명시 행한 연설”
  2. “기독교 교회의 요약“
  3. “왕국의 대장전”
  4. “왕의 선언”

“산상설교”라는 용어는 어거스틴(주후 354-430 년)이 마태복음에 대한 자신의 라틴어 주석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 이 제목은 주후 1535 년의 카버테일 성경을 통해 영어성경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 나. 마태복음 5-7 장에 있는 “산상설교”는 어쩌면 누가복음 6 장에 있는 “평지에서의 설교”와 같은 것일 수 있다. 내용상의 차이는 복음서 저자들이 목포로하는 청중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마태의 청중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이었고 누가의 경우는 이방인이 청중이었다. 한편 두 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둘이 서로 같은 설교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청중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써 종종 반복된 주제의 일부였을 것이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마태복음 18 장에서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5 장에서는 죄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 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신학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일부를 자유로이 선택하였고 또 그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서로 조합했다.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7-148 쪽을 보라. 각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다—이 책들은 복음전도용 소책자였고 또한 제자훈련을 위한 지침서였다. 마태는 예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주제별 단위로 제시하지만 누가는 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다른 문맥에서 다룬다.

- 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처음 설교이면서(다섯 설교 가운데, 즉, 5-7 장; 10 장; 13 장; 18 장; 24-25 장) 가장 긴 강화에 속하는 이 부분은 매우 유대적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축약적으로 10 계명과 구조적 평행을 이룬다. 각 진술은 핵심있는 격언적 문장으로서 종종 역설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진리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기억을 돕기 위한 방법이다. 주제별로는 험겁게 연결되어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독립적 형태이다.
- 마. 이 가르침은 왕국의 궁극적인 윤리로서 잃어버려진 자로 하여금 잘못을 자각하게 하며 구원받은 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 가르침을 들은 청중은 여러 그룹의 사람이었다: 제자들, 호기심 많은 자들, 회의적인 자들, 종교적 지도층의 사람들. 서로 다른 본문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었다.
- 바. 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자세 또는 “세계관”에 대한 것으로서 믿음과 순종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두게 한다. 이 가르침은 출애굽기 20 장 및 신명기 5 장과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다.
- 사.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로버트 H. 슈타인의 *예수의 가르침의 방법과 메시지*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78, ISBN 0-664-24216-2)이다.
- 아. 이 가르침의 목적은 잃어버려진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을 기대하시는가에 있다. 새 왕국의 윤리는 매우 혁신적이어서 자기 의에 매우 충실한 율법주의자라도 자신이 부적합함을 느낀다. 은혜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며(즉, 사 55:1-3) 성령의 능력은 왕국의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소망이 된다(즉, 사 55:6-7).

### 5:3-12(산상수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산상수훈은 (1) 구원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 혹은 (2) 영적 필요에 대한 인간의 갈급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에 이르는 영적 사다리를 이룬다.
- 나. 산상수훈의 수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어 7, 8, 9 혹은 10 개의 내용이라고 말한다.
- 다. 이것은 독자/청중의 반응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사항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것이다!
- 라. 유용한 세 인용문:
  1. “모든 도덕적 체계는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함으로써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도로이다. 그리스도는 이 목적으로부터 시작하며, 다른 모든 선생들이 최종적인 것으로 삼았던 위치에 자기의 제자들을 즉시로 옮겨 놓으신다... 그들은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는 거저주심으로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와 자비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삶과 시대* 528-529 쪽.
  2. “산상설교는 비현실적인 이상도 아니고 법적 규제로 가득찬 규율도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상 사회에 대한 핵심적 삶의 원리를 진술한 것이다... 이 설교의 많은 내용은 은유적이거나 격언적이어서 글자 그대로 혹은 법적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통해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국제 표준 성경 백과* 제 4 권 2735 쪽.
  3. “기본적 원리들”
    - ㄱ. 신분이 행복의 비밀이다.
    - ㄴ. 의는 내적 삶에 기초한다. 인격은 밖에서 부과된 어떤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을 드러내는 삶이다.
    - ㄷ. 내적 삶은 연합을 나타낸다.
    - ㄹ.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은 사회의 근본적 규범이다.
    - ㅁ. 신분과 삶은 성부와의 교제 안에 또 그 교제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예배와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 ㅂ. 성취는 삶의 최종적 점검기준이 된다.
    - ㅅ. 행위와 삶은 함께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며 인내는 최종적 시험이다.”*국제 표준 성경 백과* 제 4 권 2735 쪽.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5:1-2

<sup>1</sup>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sup>2</sup>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5: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모든 지역에서 온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따랐다. 이 커다란 무리는 4:23-25 과 눅 6:17 에서도 나온다. 아마도 제자들을 포함하여 참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부 공동체로서 예수께 가까이 나아왔고 다른 이들은 주변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참조, 7:28).

▣ “산” 눅 6:17 에서는 이 장소가 평지로 나오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것과 같다. 누가의 역사적 관점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주께서 평지로 내려 오셔서 무리를 맞이하신 후 조금 떨어진 언덕으로 가셔서 모든 자들이 듣고 볼 수 있게 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헬라이어 단어는 언덕을 가리키고 누가복음의 용어는 산지 위의 평평한 장소를 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는 영어 번역 상의 문제일 뿐이다. 한편 두 메시지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마태는 산을 배경으로 하여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일과 평행으로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새로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5:21-48).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의 삶이 모세의 삶과 닮게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여기서, 출 19:3; 24:12). 예수는 율법을 주시는 분이로서 새로 오신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는 모세가 이후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참조, 신 18:14-22). 타락한 인간(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참조, 램 31:31-34; 겔 36:22-38, “새 언약”!).

▣ “**앉으시니**” 이것은 “입을 열어”(2 절)의 경우와 같이 공식적으로 가르치심을 뜻하는 랍비적 관용어이다(26:55; 막 9:35; 눅 4:20; 5:3; 요 8:2). 이 구절은 7:8 에 있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정형적인 마침과 더불어 마태가 한 설교로서 제시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다섯 설교 가운데 가장 처음 것이며 또 가장 긴 내용이다(10, 13, 18, 24-25 장).

▣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설교가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제자들이 이 설교의 대상이었으며 청중이었다. 하지만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위에서 함께 듣고 있었다(참조, 7:28). 예수께서는 아마 한 그룹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그룹에게 말씀했을 것이다.

5:2 “**가르쳐 이르시되**” 이 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1) 그가 가르치기 시작했다 혹은 (2) 그가 여러 다른 경우에 이 내용을 재차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이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모아 제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마태복음 5-7 장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경우 여러 곳에 두루 걸쳐서 나타난다.

**개역개정 5:3**

<sup>3</sup>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5:3 “**복이 있나니**” 이 용어는 “행복한” 혹은 “영예로운”을 뜻한다(참조, 3-11 절). 영어의 “행복한”은 고대 영어 단어인 “생각지도 않던 일”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의 행복은 물질적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내적 기쁨이다.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다. 이것은 **감탄어**(참조, 계 1:3)로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단어와 같은 형태이다(참조, 시 1:1). 이러한 축복은 현재 하나님과 삶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이며 또한 종말론적 소망을 이룬다. 복된 자는 의로운 자이다(참조, 시 119:1-2).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헬라이어 단어로 된 이 문장은 가난함을 나타낸다; 한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나타낸다. 종종 이 단어는 남이 주는 것에 의존해야 하는 거지를 나타낸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암시한다! 마태는 이것이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적절함을 뜻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적합하심과 자신의 부적합함을 인식해야만 한다(참조, 요 15:5; 고후 12:9).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다(참조, 롬 1:18-3:31). 아마도 앞의 몇 가지 내용은 사 61:1-3 을 반영한다. 이것은 오는 새 시대에 메시아가 주실 축복에 대한 예언이다.

▣ “**천국**” “천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서에서 100 회 이상 사용되었다. 눅 6:20 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출 20:7 의 말씀을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에 민감한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참조, 10:14)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다. 두 표현은 동의어적이다. 4: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마음에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데 이 통치는 어느 날 땅 위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치로 드러날 것이다(참조, 마 6:10). 이러한 해석은 마태가 3 절과 10 절에 있는 “~이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4-9 절에서는 “~할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된다.

**개역개정 5:4**

<sup>4</sup>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4 “**애통하다**” 이 단어는 “크게 소리내어 슬퍼함”을 뜻하며, 헬라이어에서 슬퍼함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낸다. 문맥은 우리의 죄를 인해 슬퍼함을 뜻한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결과(3 절)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4 절). 만일 이것과 구약의 사 61:1-3 가 평행을 이룬다면 이 애통은 사회 공동체적 애통을 말할 것이다.

▣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사 12:1; 40:1; 49:13; 51:3,12; 52:9; 66:13 을 보라. 새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이 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자 모두를 위로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참조, 요 3:16).

**개역개정 5:5**

<sup>5</sup>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5:5 “은유” 이것은 문자적으로 “유순한” 혹은 “겸손한”이다. 예수께서는 이 용어를 자신에게 사용하셨다(참조, 마 11:29; 21:5). 이 단어의 유래는 길들은 말처럼 길들여진 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인식함으로써 신자들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게 된다(참조, 뱀전 3:4).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그의 목적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게 되기를 원하신다(그가 목적을 주셨다, 참조, 시 139 편; 고전 12 장).

▣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것은 종종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참조, 시 37:11). 그러나 이것은 온 땅을 말하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참조, 사 11:6-9).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인 *에렛츠*(BDB 75)가 가진 모호함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약속은 또 다시 전세계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개역개정 5:6**

<sup>6</sup>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5:6 “주리고 목마른”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인류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영적 필요를 나타낸다(참조, 요 4:10-15). 이 은유는 왕국의 백성이 하나님께 갖는 지속적인 자세를 나타낸다(참조, 시 42:2; 63:1-5; 사 55:1; 암 8:11-12). 이것은 범죄로 인해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됨을 나타내는 표이다.



NASB, NKJV,

NRSV

“의를 위해”

TEV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

NJB

“바름을 위해”

이 신학적 핵심 용어는 다음을 뜻한다: (1) 선언된(법적으로) 옳은 지위(참조, 로마서 4 장) 혹은 (2) 마태복음이 말하는 왕국 백성의 윤리(참조, 6:1, 회당에서의 용법으로서). 이것은 칭의와 정의, 성화와 성화된 삶의 양면을 다 포함한다! 이것은 다른 단어 나 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서 보듯이 마태복음에 있는 **둘러 말하기**의 한 예이다 (참조, 7-8 절).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다(참조, 창 3 장; 롬 5:12-21).

하나님은 망가진 교제를 고쳐 회복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인간은 이 단절을 회복시킴에 있어 무력하다(참조, 롬 1:18-3:20).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따라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걸작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힘주심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적합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로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이 용어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은 주로 바울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는 헬라어 단어인 “의”를 여러 형태로 100 번 이상 사용하였다.

바울은 잘 교육받은 랍비로서 히브리적 개념인 *שֶׁפֶט*을 나타내기 위해 헬라 문학적 용례에서 단어를 택하지 않고 70 인역에서 사용한 *δικαιοσύνη*를 사용했다. 헬라 저작에서 이 용어는 신과 상류사회의 기대에 들어 맞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이 용어는 항상 언약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야웨는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성품을 닮기 원하셨다. 구속받은 인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움은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다(로마 카톨릭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성국가로서 세속적인 것(사회적 규범)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의”(사회와 관련됨)와 “의”(종교와 관련됨)의 경우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이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성자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간청과 복음으로 이끄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경건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어거스틴의 입장은 종교개혁가들의 강조점인 거저주시는 복음과 로마 카톨릭의 강조점인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 둘 다였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적적 소유격**으로 이해했다(즉,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행위[지위적인 성화])인 반면, 카톨릭은 **주격 소유격**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닮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이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텐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논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시되는 헬라어 단어 그룹을 예시하는 신약성경의 구절들을 보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제시된다)
  - ㄱ. 로마서 3:26
  - ㄴ. 데살로니가 후서 1:5-6
  - ㄷ. 디모데 후서 4:8
  - ㄹ. 요한계시록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 ㄱ. 사도행전 3:14; 7:52; 22:14(메시아의 칭호)
  - ㄴ. 마태복음 27:19
  - ㄷ. 요한일서 2:1,29; 3:7
3.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이다
  - ㄱ. 레위기 19:2
  - ㄴ. 마태복음 5:48(참조, 5:17-20)
4. 의를 제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 ㄱ. 로마서 3:21-31
  - ㄴ. 로마서 4 장
  - ㄷ. 로마서 5:6-11
  - ㄹ. 갈라디아서 3:6-14
  - ㅁ. 하나님께서 주심
    - 1) 로마서 3:24; 6:23
    - 2) 고린도 전서 1:30
    - 3) 에베소서 2:8-9
  - ㅂ. 믿음으로 받음
    - 1) 로마서 1:17; 3:22,26; 4:3,5,13; 9:30; 10:4,6,10
    - 2) 고린도 전서 5:21
  -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 1) 로마서 5:21-31
    - 2) 고린도 후서 5:21
    - 3) 빌립보서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 ㄱ. 마태복음 5:3-48; 7:24-27
- ㄴ. 로마서 2:13; 5:1-5; 6:1-23
- ㄷ. 디모데 전서 6:11
- ㄹ. 디모데 후서 2:22; 3:16
- ㅁ. 요한일서 3:7
- ㅂ. 베드로 전서 2:24
-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ㄱ. 사도행전 17:31
  -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요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 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복음은 진리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점)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로마 카톨릭의 강조점)

위의 것은 모두 진실되며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어느 것이든 하나만을 더 강조하거나 어느 한 쪽을 빠뜨리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 “배부를 짓임이요” 문자적으로 “게걸스럽게 먹다”를 뜻하는 이 용어는 시장에 팔 수 있는 살진 소를 말한다.

#### 개역개정 5:7

<sup>7</sup>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5:7 “공홀히 여기는” 공홀은 하나님을 앎의 결과이지 기초가 아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상황에 자신을 두고 동정심을 갖고 행하는 능력을 말한다(참조, 마 6:12,14-15; 18:21-35; 눅 6:36-38; 약 2:13).

이 산상수훈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앞의 두 항목은 왕국 백성의 영적 필요에 초점을 두지만 그 다음 항목들은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태도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내용이고 또한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다.

▣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것은 미래 수동 직설법으로서 글자대로 번역하면 “공홀을 받게 될 것이다”이다. 이 시제가 나타내는 의미는 (1) 지금 확실함을 나타내는 의미의 미래 시제 혹은 (2) 마지막 심판(종말)시 있을 미래적인 축복과 용서이다. 수동태의 사용은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우회적 표현이다.

#### 개역개정 5:8

<sup>8</sup>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5:8 “마음이 청결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참조, 딤후 1:15). 우선권 또한 똑 같이 중요하다(참조, 히 12:14). 시 24:4 과 73:1 에서 “청결한”은 (1) 전념하는 (2) 초점이 있는 혹은 (3) 깨끗게 된(히 12:14)을 뜻한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뜻의 의식을 나타낸다. 초점이 사람의 지식이나 예식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인 심장에 있음을 주목하라. 구약에서는 인격체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심장”으로 이해했고 헬라의 개념에서는 “마음”으로 보았다.

**특별주제: 마음**

헬라어 *카르디아*는 70 인역과 신약에서 히브리어 *렘*(BDB 523)에 상응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참조, 바우어, 아른트, 긴그리치, 댕커의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 쪽):

1.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삶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 ㄴ. 인간의 영적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후 2:22; 벧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력,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14;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벧후 1:19; 계 18:7; 마음은 고후 3:14-15 과 빌 4:7 에서 생각과 동의어임)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 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일하시는 독특한 영역(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 엡 3:17])
7. 마음은 은유적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7, 신 6:5 의 인용). 생각, 동기, 행동을 말하는 마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낸다. 구약의 몇가지 특이한 용법은 다음과 같다:
  - ㄱ. 창 6:6; 8:21,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 (또한 호세아 11:8-9 를 보라)
  - ㄴ. 신 4:29; 6:5,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 ㄹ. 겔 18:31-32, “새 마음”
  - ㅁ. 겔 36:26, “새 마음” 대 “들로 된 마음”

▣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보게 하신다. 청결함은 영적 눈을 뜨게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었다(참조, 창 16:13; 32:30; 출 20:19; 33:20; 삿 6:22,23; 13:22; 사 6:5). 따라서 이 진술은 아마도 종말론적 상황을 가리킬 것이다.

**개역개정 5:9**

<sup>9</sup>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5:9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합성어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의미하며 그 결과 양자 사이에 평가가 생기게 함을 뜻한다. 한편 이것은 절대 평화주의가 아닌 회개와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를 말한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롬 5:1).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것이다(즉, 창 3 장; 롬 3:9-10; 갈 3:22).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마음가짐이 회복되었다.

**특별주제: 평화와 전쟁**

I. 서론

- 가.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있어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은 평화에 대한 어떤 명확한 본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것을 제시함에 있어서 역설을 나타낸다. 구약은 군사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은 그 갈등을 영적 용어인 빛과 어두움으로 나타낸다.
- 나.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세계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적 믿음은 이러한 갈등이 없는 번영의 황금시기를 추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기대한다.
  1. 사 2:2-4; 11:6-9; 32:15-18; 51:3; 호 2:18; 미 4:3
  2. 성경적 믿음은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다, 사 9:6-7
- 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살 것인가? 이에 대해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발전된 3 가지 유형의 기독교적 반응이 있다.
  1. 평화주의 - 고대에는 드물게 나타났던 생각이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대 사회에 대한 초대 교회의 반응이었다.
  2. 정의로운 전쟁 - 콘스탄틴의 회심(주후 313 년) 이후에 계속되는 야만족들의 침입에 대한 반응으로서 교회는 “기독교 국가”가 군사적으로 행할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대 헬라인들의 입장이었다. 이 견해를 암브로스가 처음으로 주창했고 어거스틴이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3. 십자군 - 이것은 구약의 거룩한 전쟁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것은 중세에 이슬람이 “성지”와 고대 기독교 지역이었던 북 아프리카, 소 아시아, 동로마제국을 점령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행해졌고 또한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4. 세 가지 견해는 모두 기독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의 제도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관점이 발전한 것이다. 각각의 견해는 성경의 어떤 본문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곳은 배제시켰다. 평화주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가졌다. “정의로운 전쟁”은 악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증진시켰다(마틴 루터). 십자군의 입장은 교회가 타락한 세상의 구조를 공격하여 이를 지배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했다.
5. 로랜드 H. 베인톤은 아빙돈 출판사가 출판한 그의 책 *전쟁과 평화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 15 쪽에서 말하기를,

“종교개혁은 세 가지 역사적 입장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종교전쟁을 촉진시켰다: 루터교와 성공회의 정의로운 전쟁을, 개혁교회의 십자군 전쟁을, 재침례파와 후기 웨이커들의 평화주의가 그것이다. 18 세기는 문예부흥의 이상인 인간 평화 사상을 이론적으로와 실제적으로 부활시켰다. 19 세기는 상대적인 평화의 시기였고 전쟁을 없애기 위한 대 격동의 시기였다. 20 세기에는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세 가지 역사적 입장이 재현되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제 1 차 세계대전시 십자군의 태도를 가졌다; 두 전쟁 사이의 시기에는 평화주의가 팽배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시의 분위기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 “평화”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1. 헬라인들은 이것을 사회적 질서와 일치로 여겼다.
2. 로마인들은 이것을 갈등이 없는 상태로서 국가의 힘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다.
3. 히브리들은 평화를 인간이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함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경적 의미를 가졌다(참조, 신 27-28 장). 이것은 번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보호를 포함한 개념이었다.

## II. 성경의 자료

### 가. 구약

1. 거룩한 전쟁은 구약의 기본적 개념이다. 출 20:13 과 신 5:17 에서 “죽이지 말라”는 히브리어에서 계획된 살인(BDB 953)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고, 격노, 혹은 전쟁에 의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야웨는 그의 백성을 대신해 싸우시는 전사로도 나타내신다(참조, 여호수아-사사기, 또한 엘 6:15 에서 암시된 사 59:17).
2. 하나님은 전쟁마저 그릇된 길로 가는 그의 백성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 이스라엘의 앗시리아 포로(주전 722 년); 유다의 신바벨론 포로(주전 586 년).
3. 이러한 군사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구속적인 평화주의로 구분되는 이사야서 53 장의 “고난받는 종”이 기록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 나. 신약

1. 복음서는 군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언급한다. 로마 “백부장”은 거의 모든 경우 고상한 의미에서 말해진다.
2. 믿는 군인들조차 그들의 직업을 버리도록 요구받지 않았다(초대교회).
3. 신약은 정치적 이론이나 행동으로 사회적 악을 다루도록 자세한 지침을 주지않고 영적 구원의 문제로 여긴다. 초점이 육체의 싸움에 있지 않고 영적 전쟁에 있었다. 그 전쟁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사랑과 미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엘 6:10-17).
4. 평화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마음의 자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롬 5:1; 요 14:27)이지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마 5:9 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정치가가 아니라 복음 전파자이다! 다름이 아니라 교제가 교회생활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 특징은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에 대해 나타나야 한다.

■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이 구는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가리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구이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서(참조, 롬 8:28-29; 갈 4:19), 이것은 창세기 3 장에 있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뜻한다. 27:54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10**

<sup>10</sup>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5:10 “박해를 받은 자” 이 단어는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 표현은 외부 사람(즉, 사탄, 악마, 불신자)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며 또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일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예상되는 일이기도 하다(참조, 행 14:22; 롬 5:3-4; 8:17; 빌 1:29; 살전 3:3; 딤후 3:12; 약 1:2-4; 벰전 3:14; 4:12-19; 계 11:7; 13:7). 신자의 경건한 삶의 양식과 증거를 인해 고통이 생김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사 신자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신다(참조, 히 5:8).

이 절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신명기 27-29 장의 언약적 내용을 모든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무조건적(즉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무시함)으로 적용하여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균형을 갖도록 도와 준다(건강, 부와 번영, 고든 피의 *건강과 부를 외치는 복음의 질병*을 보라). 건강, 부, 번영을 약속하는 일은 반드시 신자의 고통을 반복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락하고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셨고 사도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았듯이 모든 시대에서 신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진리를 염두에 둘 때 교회가 환란의 시기를 거칠 가능성이 또한 있다(은밀한 휴거가 아님)!

**개역개정 5:11-12**

<sup>11</sup>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sup>12</sup>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5:11-12 새 문단이 11 절에서 시작된다(참조, NRSV 와 TEV). 이 두 절에 있는 **대명사는 3 인칭에서 2 인칭으로 바뀐다**. 눅 6:22-23 은 더욱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

5:11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두 단어가 우발성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을 나타낸다(참조, 롬 5:3-5; 약 1:2-4; 벰전 4:12-19). 박해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소원하거나 추구할 것(많은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그렇게 했다)은 아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의 표로 문제와 박해를 인식하였다(참조, 욥기, 시 73 편, 하박국은 이 주제를 다룬다). 의인은 참으로 고난을 받는다. 한편 예수께서는 한 걸은 더 나아가셨다. 주를 위해 살고 또 그를 증거하는 사람은 주께서 겪으셨듯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거부와 박해를 받을 것이다(참조, 요 15:20; 행 14:22; 딤후 3:12).



NASB, NKJV,

NRSV

“또 거짓으로 모든 종류의 악을 너희를 거슬러 말한다”

TEV

“또 모든 종류의 악한 거짓말을 너희를 거슬러 말한다”

NJB

“또 모든 종류의 중상을 너희를 거슬러 말한다”

**현재 분사인 “거짓으로”**에 대해 일부 사본은 의심을 갖는다. 이 단어는 서방의 대문자 사본인 D, 디아테사론, 또한 오리겐, 터툴리안, 유세비우스가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서 빠져 있다. 이 단어는 초기 헬라어 대문자 사본인  $\kappa$ , B, C, W 사본과 벌게이트 역과 콥틱 역에 들어 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 식인풍습, 반역, 무신론의 내용으로 비난받았다. 이 모든 비난은 그리스도인의 용어와 예배 의식을 오해함으로써 생긴 것이었다(참조, 벰전 2:12,15; 3:16). USB<sup>4</sup>는 이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에 C 등급(결정하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나로 말미암아” 이것은 10 절과 연결이 된다. 언급하고 있는 박해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참조, 벰전 4:12-16).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두 **현재 명령**이다(참조, 행 5:41; 16:25).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에 적합한 자로 여김을 받고 또 상을 받을 것임을 인해 기쁨이 온다(참조, 롬 8:17). 자기연민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참조, 롬 5:2-5; 약 1:2-4, 한나 헛홀 스미스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보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이 있다.

▣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상과 벌의 정도**

- 가.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반응과 부적절한 반응은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더욱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그 반대 또한 사실이다.
-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 1. 창조세계(참조, 시편 19 편; 로마서 1-2 장)
  - 2. 성경(참조, 시편 19 편, 119 편; 복음서)
- 다. 구약의 증거
  - 1. 상
    - ㄱ. 창 15:1(대개 땅에서의 상급인 땅과 아들)
    - ㄴ. 신 27-28 장(언약을 순종함은 축복을 가져온다)
    - ㄷ. 단 12:3
  - 2. 벌
    - ㄱ. 신 27-28 장(언약을 불순종함은 저주를 가져온다)
- 라. 신약의 증거
  - 1. 상(구원 이후의)
  - 2. 벌
    - ㄱ. 막 12:38-40
    - ㄴ. 눅 10:12; 12:47-48; 19:20-24; 20:47
    - ㄷ. 마 5:22,29,30; 7:19; 10:15,28; 11:22-24; 13:49-50; 18:6; 25:14-30
    - ㄹ. 약 3:1
- 마. 나에게 이에 대한 유일한 유추는 오페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내가 오페라 공연장에 가지 않기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오페라 대본의 구상, 음악, 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복잡한 가를 더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그 공연을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늘이 우리의 컵을 채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땅에서 하는 섬김이 그 컵의 크기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반응은 상과 벌을 가져온다(참조, 마 16:7; 고전 3:8,14; 9:17,18; 갈 6:7; 딤후 4:14). 영적 진리는 이렇다—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둔다! 어떤 이는 더 많이 심어 더 많이 거둔다(참조, 마 13:8,23).
- 바.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의 것이지만(참조, 딤후 4:8), “생명 면류관”이 시련을 통과한 인내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약 1:12; 계 2:10; 3:10-11).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다(참조, 벰전 5:1-4). 바울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 면류관을 가졌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극도로 자신을 제어했다(참조, 고전 9:24-27).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는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복음을 완전히 거저로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주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야 하고 또 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거저로 주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비용을 들여야 함을 말하는 이 역설은 상과 씨뿌림/거둠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모습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이다(참조, 엡 2:8-10).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다(참조, 마 7 장).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멸망으로 이끌지만 구원의 결과 나타나는 경건한 삶은 상을 가져온다.

■ “선지자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감추인 언급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야웨와의 관계 및 야웨를 섬김을 인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그리스도를 섬김을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 5:13**

<sup>13</sup>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고대 세계에서 소금이 지닌 특별한 가치인 (1) 병고침과 깨끗게 함 (2) 음식을 보존함 (3) 음식의 맛을 냄 (4) 매우 건조한 기후에서 인간의 몸에 습기를 유지하게 함 때문에 소금은 중요한 소유물이었다. 소금은 종종 군인들에게 급료로 지불된 물건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잃어버려진 세상에서 그 안에 침투하여 그것을 보존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는 **복수형**으로서 14 절에서와 같이 강조를 나타낸다. 신자들은 소금이다(참조, 막 9:50). 이것은 선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일한 선택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가 이다. 잡물이 들어가 소금이 쓸모없게 될 수 있었다(참조, 눅 14:34-35).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보고 있다.

▣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문자적으로 소금은 그 힘을 잃을 수 없다. 하지만 불순물과 섞여져서 소금이 용해되어 버리면 그 소금은 희석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간증을 잃어버리고 또/또는 자신의 간증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

“맛을 잃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롬 1:27; 고전 1:20).

▣ **“아무 쓸 데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물건을 보존시키거나 맛을 내는 일에 쓸모 없이 된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다. 이것은 단단한 표층을 형성하도록 길바닥이나 지붕 위에 던져졌다. 사해에서 채취한 소금은 많은 불순물이 들어 있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쓸모 없게 된 소금에 대해 익숙히 알았다.

**개역개정 5:14-16**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진리와 병고침을 나타내는 성경의 은유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빛을 사용했다(참조, 요 9:5).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인가?”가 핵심이 아니다. 신자로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참조, 빌 2:15).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빛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삶을 통해 아는 것이다! 13 절에서와 같이 “너희”가 **복수형**이며 또 강조를 나타낸다.

▣ **“동네”** 이것은 일반적 용어로서 (1) 평지에서 본 동네의 위치 혹은 (2) 해에 빛나는 흰색의 석회암을 말한다. 이것을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으로 보려는 사람은 정관사가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려움을 갖는다. 동네는 빛과같이 감추어 있게 의도되지도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도 않는다.

**5:15**

NASB, NKJV “바구니”  
 NRSV “부셀 바구니”(약 35 리터들이)  
 TEV “대접”  
 NJB “통”

이것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로서 곡물을 재는 도구이다.

▣ **“등경”** 고대의 팔레스타인 집에는 작은 등잔을 올려 놓아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도록 벽에서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었다(참조, 막 4:21-22; 눅 8:16-17).

**5:16** 신자들의 생활양식은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를 돌리는 것이어야만 한다(즉, 9 절의 “하나님의 아들들,” 참조, 엡 1:4; 2:8-10). 이 절에서 말하려는 점은 에센파의 경우와 같이 배타적이고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이다. 신자들은 악한 사회와 반드시 관련을 가져야 하지만 그 일부만이 되어서는 안된다(참조, 요 17:15-18).

▣ **“아버지”**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형태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다.

예수께서 야웨를 향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는 그의 가르침이 갖는 특별한 면 가운데 하나이다. 마태는 예수께서 40 번이 넘게 이 호칭을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주제: 아버지**

구약은 친밀한 가족적 은유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한다

1.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야웨**의 “아들”로서 묘사된다(참조, 호 11:1; 말 3:17)
2. 심지어 신명기 앞 부분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유추가 사용된다(신 1:31)
3. 신명기 32 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로 불린다
4. 이 유추는 시 103:13 에 진술되어 있고 시 68:9 에서 발전된다(고아의 아버지)

5. 이 용어의 사용은 예언서에서 일반적이었다(참조, 사 1:2; 63:8;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63:16; 64:8; 렘 3:4,19; 31:9).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의 *πατήρ*로서 “아버지”라고 되어있는 것 중 많은 경우는 아람어의 *אבא*(참조, 14:36)를 반영할 것이다. 가족적인 용어인 “아버지” 또는 “아빠”는 예수님과 성부의 친밀한 관계를 반영한다; 또한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심은 그들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격려하시는 것이다.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는 오직 **야웨**께만 사용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종종 사용하시고 두루 사용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중요한 계시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2. 어느 누구라도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3. 왜 마태와 누가는 같은 설교를 서로 다르게 기록하였는가?
4. 왜 이 진술은 그렇게도 역설적인가?
5. 산상수훈은 서로 어떻게 관련을 갖는가?
6. 산에서 행하신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7. 각 문단의 중심진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적고 또 전체를 요약하라.

### 5:17-48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5:17-20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구전(탈무드)을 거부하셨음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구전은 글로 쓰인 구약을 해석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강력하고 분명한 진술로서 구약을 높이 평가하셨고(즉, 5:17-19) 그 다음에는 자신이 이것의 참된 성취자요 궁극적인 해석자이심을 드러내셨다(즉, 5:21-48). 이 같은 내용은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구를 사용하신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기록된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 온 율법을 중요하게 보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강력한 기독교론적 본문이다.
- 나. 이 부분은 1 세기의 유대교에서 잘못 알고 있던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을 다루고 있다. 전체 설교의 내용인 5-7 장은 겸손한 신자들이 점검할 태도를 말하는 한편 자기 의로 가득찬 율법주의자들의 자만을 꺾었다. 손과 더불어 마음이 죄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예수께서는 간주하셨다. 예수는 외적 사람에 대하여는 물론 내적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죄는 생각의 영역에서 시작한다.
-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갖고 계시는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과 매우 다르다(참조, 사 55:8-9). 신자의 의는 처음에 받은 바 은사 및 계발시킨 그리스도를 닮은 삶, 혹은 법정에서의 법적 지위 및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점진적인 성화를 포함한다. 이 단락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라. 만일 이 절들을 오늘날의 보수적인 기독교적 상황에 대한 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성을 어떻게 보시는 가를 인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17-19

<sup>17</sup>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sup>18</sup>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sup>19</sup>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5:17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으로서 이 문법적 구조는 “결코 시작하지 말라!”를 말한다.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17-20 절의 문맥은 옛 언약이 영감으로 된 것과 영원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율법 수여자인 두 번째 모세로서 행하셨다. 예수 자신이 옛 언약의 성취였다. 새 언약은 규정을 정해 놓은 조항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두 언약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달랐다. 여기서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3 장에서와 같이 사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함에 있어서 옛 언약이 갖는 무능력을 말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랍비들이 소크라테스나 변증법적 해석 방법을 따라 성경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나타난 불완전함과 부적절함을 나타내는데 있다.

예수께서는 사실상 율법의 영역을 외적 행위에서 정신적 생각까지 포함하도록 넓히셨다. 이것은 옛 언약을 통해 참된 의를 얻는 어려움이 철저히 불가능에 속하는 어려움임을 드러낸다(참조, 갈 3:10,21-22). 이 불가능성을 그리스도 자신이 감당하사 회개하는/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전가된 의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힘입게 하셨다(참조, 롬 4:6; 10:4). 인간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이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세 부분(율법, 선지서, 성문서)으로 이루어진 히브리 성경의 두 부분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예수의 이해가 사두개인의 신학보다 바리새인의 신학에 더 가까웠음을 나타낸다. 사두개인들은 토라 혹은 율법(창세기-신명기)만을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NASB, NKJV,

NRSV

“그러나 성취하려고”

TEV

“그러나 그 가르침을 이루려고”

NJB

“완성하려고”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자주 사용된 용어(플레로오)이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완성시키다 혹은 명시된 내용의 완성을 뜻한다(참조, 롬 10:4). 모세의 언약은 새 언약에 의해 성취되었고 충족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3 장에 나타난 주요 진리이다!

5:18 “진실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이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아멘**

**I. 구약**

- 가. “아멘”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 1. “진리”(에메쓰, BDB 49)
  - 2. “진실성”(에문, 에무나)
  - 3. “믿음” 또는 “신실함”
  - 4. “신뢰”(아판, BDB 52)
- 나. 이것의 어원은 사람의 안정된 육체적 자세이다. 이것의 반대는 불안정한, 미끄러지는(참조, 신 28:64-67; 시 40:2; 73:18; 램 23:12) 또는 비틀거리는(참조, 시 73:2) 사람이다. 이 문자적 용법으로부터 신실한, 믿을만한, 충성된, 의지할만한의 뜻을 가지는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졌다(참조, 창 15:6; 합 2:4).
- 다. 특별용법:
  - 1. 기동, 왕하 18:16(딤펢전 3:15)
  - 2. 확신, 출 17:12
  - 3. 견실함, 출 17:12
  - 4. 안정성, 사 33:6; 34:5-7
  - 5. 참, 왕상 10:6; 17:24; 22:16; 잠 12:22
  - 6. 견고한, 대하 20:20; 사 7:9
  - 7. 믿을 수 있는(토라), 시 119:43,142,151,168
- 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다른 두 단어가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 1. 바타(BDB 105), 신뢰
  - 2. 야라(BDB 431), 두려움, 존경, 예배(참조, 창 22:12)
- 마. 신뢰 또는 신뢰감이라는 의미가 신뢰나 신뢰감을 나타내는 예식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참조, 신 27:15-26; 느 8:6; 시 41:13; 70:19; 89:52; 106:48).
- 바. 이 단어의 신학적 열쇠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야웨의 신실하심이다(참조, 출 34:6; 신 32:4; 시 108:4; 115:1; 117:2; 138:2).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야웨와 그의 약속의 언약적 성실하심에 있다. 야웨를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참조, 합 2:4).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인간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록이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인간의 능력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 II. 신약

- 가. 어떤 진술의 신뢰감에 대한 결론적 의식적 확인인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은 신약에서 일반적이다(참조, 고전 14:16; 고후 1:20; 계 1:7; 5:14; 7:12).
- 나. 신약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롬 1:25; 9:5; 11:36; 16:27; 갈 1:5; 6:18; 엡 3:21; 빌 4:20; 살후 3:18; 딤향전 1:17; 6:16; 딤향후 4:18).
- 다. 중요한 진술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분은(요한의 책에서는 종종 중복된다) 오직 예수 한 분 뿐이다(참조, 눅 4:24; 12:37; 18:17,29; 21:32; 23:43).
- 라. 계시록 3:14 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사 65:16 에서 야웨의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 마. 신실함 또는 믿음, 신뢰감 또는 신뢰의 개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또는 *피스티스*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신뢰하다, 믿음, 믿다로 번역되었다.

▣ “천지” 구약에서 이 두 가지 영속적인 실체는 야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되는 두 증인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이 둘은 이 세대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남아 있을 우리의 세상을 나타낸다. 이 진술은 야웨께서 하신 맹세와 비슷하다.

### ▣

NASB	“가장 작은 글자나 획”
NKJV	“일점 또는 한 글자의 점”
NRSV	“한 글자 또는 한 글자의 한 획”
TEV	“한 글자나 한 점”
NJB	“한 점 또는 한 작은 획”

이것은 다음을 가리킨다

1. 히브리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요드*로서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작은 글자인 *이오타*와 평행을 이룸
2. 사각형인 히브리 서체의 장식적 획으로서 현대 서체에서 부수적으로 더하여 넣는 작은 선과 비슷함
3. 비슷한 두 히브리 글자를 서로 구분 짓는 작은 획

요점은 구약의 가장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구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있다. 한편 구약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 ▣

NASB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NKJV	“모든 것이 성취되기까지 결코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NRSV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스쳐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TEV	“모든 것의 끝이 이루기까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NJB	“이것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 단어는 일반적으로 벽과 같은 것을 무러뜨리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단어는 선언한 어떤 내용을 성취함을 뜻하는데, 1:22 에서도 성취의 의미를 나타낸다. 비록 이 용어가 신약의 여러 곳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구약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말하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현 가족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와 같다(참조, 마 9:16-17).

이 성취는 예수의 생애, 죽으심, 부활, 재림, 심판, 영원한 통치를 뜻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구약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사도들은 이것을 모험론적 혹은 기독교론적 의미로 해석했다!

**5:19** 이 절은 오늘날의 해석가나 교사들에 향한 경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얽매인 율법주의, 영적 거만, 분리주의적 교조주의에 대한 거부를 나타낸다. 분명히 예수 자신이 기록된 율법의 일부분을 포함하여 구전적 전통(탈무드)을 거부하셨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1) 신 24:1-4 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개념을 31-32 절(참조, 막 7:15,19-23)에서 거부하셨고 (2) 레위기 11 장에 나오는 음식과 관련되 규례를 막 7:15-23 에서 거부하셨다.

“지극히 작은”과 “큰”은 천국에 어떤 종류의 등급이 있음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인다(참조, 마 20:20-28; 눅 12:47-48; 고전 3:10-15).

개역개정 5:20

<sup>20</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20 이것은 신실한 율법적 종교인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선언이다. 독선적 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해악이다(참조, 사 29:13; 골 2:16-23). 바른 교리(약 2:19)나 종교적 열심(마 7:21-23)이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는 관계에 대한 필요를 대신하지 못한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빌 3:8-9; 롬 10:3-4). 이 절과 48 절은 산상수훈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바리새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신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하여는 22:15 에 있는 특별주제를 참조하라.



NASB

“못하리라”

NKJV

“결단코”

NRSV, NJB

“결코 못하리라”

이것은 두 헬라이어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한 단어는 **직설법**으로 다른 한 단어는 헬라이어의 다른 **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진술을 매우 강조하여 부정하는 방법이다(참조, 5:18,26; 10:23,42; 13:14; 15:6; 16:22,28; 18:3; 23:39; 24:2,21,34,35; 25:9; 26:29,35).

개역개정 5:21-26

<sup>21</sup>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sup>22</sup>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sup>23</sup>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sup>24</sup>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sup>25</sup>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sup>26</sup>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5: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옛 사람들에게” 혹은 “옛 사람들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절의 처음 부분은 십계명에서 취한 내용이지만 두 번째 부분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밝히기가 어렵다. 아마도 랍비학파들의 가르침에서 인용하였을 것이다(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혹은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 이 절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해석을 거부하는 한편 구약의 영감을 확고히 한다.

▣ “살인하다” 이것은 70 인역에서 취한 출 20:13 혹은 신 5:12 의 인용이다. 이것은 **명령법**으로 사용된 **미래 능동 직설법**이다. KJV 는 “죽이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너무 넓은 범위를 나타낸다. NKJV 는 “살인하다”로 되어 있다. 더욱 정확한 번역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비 합법적 살인”일 것이다. 구약에는 미리 계획한 합법적인 살인을 행하는 “피의 복수자”가 나온다(참조, 신명기 19 장; 민수기 35 장; 여호수아 20 장).

특별주제: 살인(출애굽기 20:13)

I. 문맥

- 가. 어떤 계명이 사회적 면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참으로 종교적인 계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계명에 의해 드러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에 그 참된 초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 나. 모든 계명이 믿음 공동체에 대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류가 다양함과 같이 이것의 적용도 광범위하다!

II. 중요한 단어 연구

- 가. “살인”
  - 1. 이것은 생명을 취하다를 가리키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라사*, BDB 953)이다. 구약에서는 46 회만 나온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어떤 히브리어 단어는 100 회 이상 나타난다.
  - 2. 이 용어(*라사*)는 원래의 제한적인 의미와 확대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ㄱ. 이것은 원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생명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고의로 취하는 것으로서, 종종 “친족 구속자” 또는 “고엘”과 관련된다. 이 용법은 법적으로 원수를 갚는

다는 의미에서 고의성을 가진다(참조, 민 35:30-34; 레 24:13-23). 사실상 “눈에는 눈”(참조, 창 9:5-6)의 보복은 보복을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이였다. 후에 도피성(신 4:41; 수 20:3)이 세워져 실수나 걱정으로 언약적 사회구성원을 죽인 언약적 구성원이 피해자의 가족의 진노를 피해 도망할 수 있게 했다.

- 나. 후에 이 용어는 생명을 빼앗는 동기나 태도를 가리켰다. “고의성”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점이 되었다!(참조, 출 21:12-14; 민 35:11, 22; 신 28:24).
  - 다. 이 구분은 이 명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문맥에서 이것은 오직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친족 구속자나 피의 복수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반영하는 후기의 본문인 호 4:2; 램 7:9에서는 이 용어가 살인자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법 자체만 말하지 않고 동기까지 다룬다. 이것은 이웃을 가리킴에서 동료 인간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3. 이 용어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형제도 혹은 전쟁과 관련이 없다.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일이나 거룩한 전쟁(그러나 이 일은 거룩하지 않은 전쟁이다!)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적이 결코 없었다.
  4. 오늘날 우리 문화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계획된 살인”일 것이다.

III. 문맥적 통찰

- 가.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은 두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다. 매우 간단 명료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 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IV. 신약에서의 평행

- 가. 예수님
  1. 예수께서 이 계명을 확장하신 사실(마 5:21-26)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준다.
  2. 예수님은 명백하게 십계를 행동의 영역에서 동기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우리 자신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 이다.”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삶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또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 나. 요한
  1. 요일 3:15에서는 미워함을 살인으로 여기는 개념이 나온다.
  2. 마 5:21 이하에서와 요일 3:15에서 사용된 헬라이어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본질적으로 같다.
  3. 요일 4:19-21의 긍정적 측면을 보라.

V. 적용할 진리

- 가. 비록 계획하지 않고 살인한 자는 피의 복수자를 피해 도피성(참조, 민 35 장; 수 20 장)으로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갇혀 지내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범한 행동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
- 나. 이 절은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인들이 자살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심을 받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여전히 영적 원리를 제시한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하여 주시는 매우 강력한 말씀이다.
- 다. 한편 이 본문은 오늘날 문제가 되는 (1) 사형제도 (2) 전쟁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말을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신은 이 일을 악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에 대한 원리는 이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진리이다.
- 라. 이 본문은 인간 생명의 귀중성과 존엄성에 대하여 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청지기이다. 개인과 공동체에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학대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남용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와 같이 말할 자유가 있고 또 말을 함으로써 구조도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다!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랍비들의 권위는 이전에 자기들의 권위로 가르쳤던 유대 선생들의 말을 인용함에 기초했다(참조, 마 7:28-29; 막 1:22). 예수의 권위는 예수님 자신에 있었다. 그는 구약의 의미를 참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성경의 주시다. “나는”은 강한 강조를 나타내어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 자신” 혹은 “나 자신(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을 가리킨다.

▣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것은 현재 중간대 분사이다. 이 헬라 용어는 마음 속으로 형성한 고착된 노로서 용서하지 않고 오랜 기간 품어 온 노를 가리킨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강렬하게 분노를 한다.

▣ “형제에게” KJV는 “까닭없이”란 말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한 헬라어 사본에 나타나는 변이이다. 이러한 추가는 초기의 헬라어 사본인 P<sup>67</sup>,  $\aleph^*$ , B 및 베게이트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이 추가는 대문자체 사본인  $\aleph^c$ , D, K, L, W, 디아테사론, 초기 시리아역, 콕틱역에 나타난다.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B 등급(거의 확실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추가는 본문에 있는 강한 핵심을 약화시킨다.

이 자리에서 어깨글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은 사용할 수 있는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을 뜻한다; <sup>c</sup>는 후기에 속하는 필사가 가운데 교정을 한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필사자들이 연속적으로 교정을 한 경우에는 1, 2, 3 등으로 나타낸다; P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파피루스 사본을 나타낸다. 대문자 사본은 대문자를 사용하여 표시하는데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은 숫자를 부여한다. 본문비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록 III에서 참조하라.

▣	
NASB	“미련한 놈”
NKJV	“라카”
NRSV	“만일 너희가 모욕을 주면”
TEV	“아무 쓸모 없는 놈”
NJB	“바보”

라카는 “머리가 비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아람어이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호칭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태도 특히 언약 관계에 있는 형제에 대한 소위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 다루려는 것이다.

“미련한 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모로스*는 아람어 단어인 *라카*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한편 예수께서 사용하신 언어유희는 헬라어 단어인 *모로스*가 아니라 히브리 단어인 *모라*(BDB 598)와 우선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 반역함”을 뜻한다(참조, 민 20:10; 신 21:18,20;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 42 쪽을 보라). 예수께서는 23:17에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바리새인들을 일컬으셨다. 우리의 행동 뿐 아니라 우리의 동기, 태도, 목적이 우리의 동료에 대한 죄를 결정짓는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 살인은 생각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참조, 요일 2:9-11; 3:15; 4:20).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미워하는 생각이 살인보다 더 낫다. 하지만 성경의 이 부분은 모든 종류의 독선적인 의와 자신의 선함에서 기인한 교만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절에 나타난 3 중적인 표현은 서기관들의 해석 방법에 대한 풍자적인 언어유희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특별주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어리석음에 대한 언급의 선례가 나온다.

1. *케실* - 지혜문학에서 자기 확신을 뜻함(예, 잠언 17 장, 26 장; 전도서 7 장)
2. *에월* - 주로 지혜문학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정신적 능력을 뜻함(예, 사 29:11; 35:8; 호 9:7)
3. *나발* - 머리가 빈 사람을 뜻함(예, 신 32:6,21; 삼하 3:33; 13:13; 시 14:1; 53:1; 렘 12:11)
4. *사칼* - 멍청한 사람을 뜻함(예, 삼상 26:21; 전 2:19; 10:3,14)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는 3 단어를 사용했다.

1. *아프론*, 눅 11:40; 12:20
2. *아노에토스*, 눅 24:25
3. *모로스*, 마 5:22; 23:17,19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사용하신 가장 강력한 표현은 마 5:22에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서 사용한 *모로스*는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뜻하는 아람어 단어인 *라카*를 반영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구약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1. *아프론*, 고전 15:36; 고후 11:16,19; 12:6,11
2. *모로스*, 고전 3:18; 4:10; 또한 롬 1:22에서는 이와 관련있는 형태의 단어가 사용됨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생각하는 면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로 종종 말해진다! 바울의 풍자적인 언급은 고린도 전후서에 자주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너무나 자신있게 자기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그들은 참된 지식을 보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

▣	
NASB	“불타는 지옥”
NKJV, NJB	“지옥 불”
NRSV	“불의 지옥”
TEV	“지옥의 불”

이것은 *게헨나*에 상응하는 헬라어이다. 다음에 나오는 특별주제의 II. 라항을 보라.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I. 구약

가. 모든 인간은 스올(어원이 불확실함, BDB 1066)에 간다. 지혜서와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대부분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킨다. 구약은 이곳이 그들진 곳이고 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기쁨이 있는 상태는 아닌 곳으로 말한다(참조, 욥 10:21-22; 38:17; 시 107:10,14).

나. 스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불), 신 32:22
2. 심판의 날 이전에 있는 형벌과도 관계가 있다, 시 18:4-5
3.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빔돈*(멸망)과 관계가 있다, 욥 26:6; 시 139:8; 암 9:2
4. “구덩이”(무덤)와 관계가 있다, 시 16:10; 사 14:15; 겔 31:15-17
5. 악한 자는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간다, 민 16:30,33; 시 55:15
6. 종종 큰 입을 가진 동물로서 의인화 된다, 민 16:30; 사 5:14; 14:9; 합 2:5
7. *르파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는 곳, 사 14:9-11

II. 신약

가. 히브리어의 스올은 헬라어로 *하테스*라고 번역된다(보이지 않는 세상)

나. *하테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죽음을 가리킨다, 마 16:18
2.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계 1:18; 6:8; 20:13-14
3. 종종 영원한 형벌의 장소(*게헨나*)로 표현된다, 마 11:23(구약의 인용); 눅 10:15; 16:23-24
4. 종종 무덤으로 표현된다, 눅 16:23

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랍비들)

1.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부분(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이름, 고후 12:4; 계 2:7), 눅 23:43
2.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악한 부분, 뱀후 2:4,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참조, 창 6 장; 예눅 I 서)

라. *게헨나*

1. 구약의 “힌놈의 아들의 굴짜기”(예루살렘의 남쪽)를 나타낸다. 이곳은 페니키아의 불의 신인 *몰렉*(BDB 574)에게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참조, 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장소이다. 이것은 레 18:21; 20:2-5 에서 금지되었다.
2.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방인의 예배장소에서 야웨의 심판 장소로 바꾸었다(참조, 렘 7:32; 19:6-7). 예눅 I 서 90:26-27 과 Sib. 1:103 에서 그곳은 영원한 불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3.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방 숭배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곳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바꾸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의 많은 부분은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왔다(불, 연기, 벌레, 악취. 참조, 막 9:44, 46). 오직 예수님만 *게헨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
4. 예수께서 사용하신 용어인 *게헨나*
  - ㄱ. 불, 마 5:22; 18:9; 막 9:43
  - ㄴ. 영구적인, 막 9:48(마 25:46)
  - ㄷ. 멸망의 장소(영과 육 모두), 마 10:28
  - ㄹ. 스올과 평행된, 마 5:29-30; 18:9
  - ㅁ. 악한 자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특징짓는, 마 23:15
  - ㅂ. 사법적 판결의 결과, 마 23:33; 눅 12:5
  - ㅅ. *게헨나*의 개념은 두 번째 죽음(참조, 계 2:11; 20:6,14) 또는 불의 못(참조, 마 13:42, 50; 계 19:20; 20:10,14-15; 21:8)과 평행을 이룬다. 불의 못을 인간(스올에서)과 악한 천사(*타타루스*에서, 뱀후 2:4; 유 6 절 또는 지옥, 참조, 눅 8:31; 계 9:1-10; 20:1,3)가 영원히 거할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 ㅇ. 이것은 사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을 위한 것이다, 마 25:41

마. 스올, *하테스*, *게헨나*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음 설명이 가능하다

1. 원래 모든 인간은 스올/*하테스*에 갔다

2. 심판의 날 이후에 그곳에서 갖는 그들의 경험(좋고/나쁜)은 심화될 것이지만, 악한 자의 장소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KJV 역이 *하테스*(무덤)를 *케한나*(지옥)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 심판 전에 받는 고통에 대해 언급한 신약 본문은 오직 눅 16:19-31의 비유이다(나사로와 부자). 스올은 또한 현재의 형벌 장소로서 묘사된다(참조, 신 32:22; 시 18:1-5). 그러나 비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

III.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 가. 신약은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고대 관점 중의 하나인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1.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적 생명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2. 인간의 영혼은 육체적 죽음 이전과 이후에 영원하다
  3. 종종 육체적 몸은 감옥으로, 죽음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으로 말해진다
- 나. 신약은 죽음과 부활 사이를 육체가 분리된 상태로 암시한다.
  1.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나누어 말씀하신다, 마 10:28
  2. 아브라함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12:26-27; 눅 16:23
  3.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상에서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 마 17 장
  4.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그들의 새 몸을 먼저 갖게 된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살전 4:13-18
  5.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몸을 가진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전 15:23,52
  6. 믿는 자들은 *하테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고후 5:6,8; 빌 1:23.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 의로운 자를 하늘로 취하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벰전 3:18-22.

IV. 천국

- 가. 이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지구 위의 대기, 창 1:1,8; 사 42:5; 45:18
  2. 하늘의 별, 창 1:14; 신 10:14; 시 148:4; 히 4:14; 7:26
  3. 하나님 보좌의 자리, 신 10:14; 왕상 8:27; 시 148:4; 엡 4:10; 히 9:24(삼층천, 고후 12:2)
- 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마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능력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고전 2:9).
- 다. 천국은 장소일 뿐 아니라 주님과 영의 인격적 교제를 말한다(참조, 고후 5:6,8). 천국은 회복된 에덴동산일 수 있다(창 1-2 장; 계 21-22 장). 땅은 정결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참조, 행 3:21; 롬 8:21; 벰후 3:10). 하나님의 형상(창 1:26-27)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에덴동산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 아니라 은유적일 것이다(계 21:9-27의 크고 네모 반듯한 도시로서의 천국). 고전 15 장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름을 성장한 식물의 씨로서 묘사한다. 고전 2:9(사 64:6 과 65:17에서의 인용)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며 희망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을 것임을 나는 안다(참조, 요일 3:2).

V. 도움이 되는 자료

- 가. 윌리엄 헨드릭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말씀*
- 나. 모리스 롤링스, *죽음의 문 너머*

5:23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것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이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사랑하는 삶의 양식은 종교적 행위에 앞선다! 관계는 예식보다 우선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신다. 사람들은 영원히 있을 존재이다.

5:24 “형제와 화목하고”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명령이다. 인간 관계는 (1)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식(24 절) 혹은 (2) 법정 판결(25 절)보다 더 중요하다.

5:26 “진실로” 5:18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한 푼”은 로마에서 사용한 가장 작은 동전인 *콰드란스*를 말한다(17:24의 특별주제를 보라). 심판은 엄격한 처벌을 가져온다. 자비와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

개역개정 5:27-30

<sup>27</sup>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sup>28</su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sup>29</sup>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sup>30</sup>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5:27 “간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모이큐오이다. 이것은 출 20:14 과 신 5:18 에 기록된 십계명의 인용이다. 70 인역에서 사용한 헬라이어 단어는 포르네이아이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혼외 성관계를 뜻하지만, 동성애 혹은 수간 등 모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구약에서 간음은 결혼한 사람과 관련된 성적 행위였다. 예수께서는 성적 죄를 마음의 태도로 재정의하셨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좋고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긴 기간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성적 표현에 제한을 두셨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범주를 넘어서려고 한다. 추론하여 볼 때 예수의 말씀은 결혼 이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특별주제: 간음 (출애굽기 20:14)

I. 문맥

- 가. 우리 이웃의 생명, 아내, 재산을 존중(참조, 렘 5:8)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이 점은 70 인역에서 같은 명령이 다른 순서로 나타남에서 확인된다.
- 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평행은 이러한 고대의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열쇠로 여겨졌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 라. 이 계명은 또한 우리의 성적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장하심을 뜻한다.
- 마. 제 4 계명이 창 2:1-3 에 기초하듯이, 이 계명은 창 2:24 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II. 단어 연구

- 가. 이 본문에서 주요 용어는 “간음”(나와, BDB 610)이다. 이 용어를 고대 히브리 문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 이 용어는 구약의 문맥에서 “간통”과 구분된다. 간음은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결혼한 자인 경우의 성적 관계를 말한다. “간통”은 두 쪽 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의 성적 관계를 뜻한다(참조, 잠 29:3; 31:3). 이러한 구분은 신약의 헬라이어 용어에서 없어졌다.
  - 2. 성적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왜 결혼한 상태에 대해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매 50 년마다(회년) 모든 땅은 각 지파의 원 주인에게 돌려졌다.
  - 3. 간음은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문화적으로 정죄받았다(참조, 창 12:10 이하; 26:7 이하; 39:9).
  - 4. 간음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죄로 여겨졌다:
    - ㄱ. 이웃 -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 ㄴ. 결혼 - 레위기 18:20
    - ㄷ. 하나님 - 창세기 20:1-13; 26:7-11
  - 5. 이 일은 당사자를 둘 다 사형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 ㄱ. 레위기 20:10
    - ㄴ. 신명기 22:22-24
    - ㄷ. 에스겔 16:40(은유)
    - ㄹ. 강력한 경고가 잠언 1-9 장에 나온다

III. 신약과의 관계

- 가. 예수님은 레위기 19:18 을 옛 계시의 요약으로 사용했다(참조, 눅 10:27). 이 사실은 십계명이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음을 확증한다.
- 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28 에서 그 명령을 강화시킨다. 그는 강조점을 행동보다는 동기에 두셨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영혼의 씨가 자라는 곳으로 보았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가는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잠 23:7). 이 점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 이것은 목적이다!(참조, 갈 2:15-3:29).

IV. 오늘날에 적용하기

- 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동안 신실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추는 결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장 잘 돕는다(말 2:14). 성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이 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돕는다.
- 나. 결혼생활의 안정과 충성된 삶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사회의 건강과 장수하는 삶을 가져오는

주요한 기둥이 된다.

- 다.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었다. 이에 대하여 주신 지침은 인간의 자유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약간의 경건한 지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정해놓으신 한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혜택과 행복을 가져온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더불어 성생활을 남용했지만, 이것은 아직도 사람 안에서 강한 추구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와 안내를 받아야만 하는 영역이다.
- 라. 우리는 성에 대해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여자와 남자)의 거룩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한 결과인 “나”에 대한 집중은 이 영역에서 매우 확연하게 드러난다.

5:28 “마음”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5:29-30 이것은 감성적인 효과를 위한 과장법임이 분명하다! 죄는 위험하며 또 뒤따르는 결과는 영원히 남는다!

5:2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인간은 창세기 3 장의 일로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은 대로의 우리가 아니다.

- NASB “너로 걸려 넘어지게 하다”
- NKJV, NRSV, “너로 죄를 짓게 하다”
- TEV “너의 몰락이 되다”
- NJB

이 용어는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미끼를 놓아 잡아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평행을 이루는 막 9:43-48 및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 예수께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마 18:8-9 을 보라.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유혹의 장소/물건/경우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할 책임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다(즉, 잠 1-9 장; 엡 4:27; 6:10-18; 약 4:7; 뱀전 5:8-9).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사탄이나 이단 혹은 환경을 비난할 수 없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가지고 있다!

■ “없어지고” 이 용어는 29 절과 30 절에 나온다. 2:13 의 특별주제: 아폴루미를 보라.

5:29, 30 “지옥” 영원히 있는 지옥이 있는데 죄는 그 곳에 들어가는 입장표이다! 5: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5:31-32

<sup>31</sup>또 일렸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sup>32</su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5:31 “아내를 버리려거든” 27-32 절과 19:3-12 은 같은 주제를 다룬다. 당신의 문화적 개념을 갖고 이 본문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라! 문맥에서 예수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 다른 방법 즉 (1) 정신적 탐욕 (2)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으로 신실치 못한 일이 아닌 일로 그녀를 버리는 행위(참조, 신 24:1)로써 사람이 간음함을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신다(즉, 5:17-19, 21-48).

- NASB, NKJV, “이혼 증서”
- NRSV “이혼서”
- TEV “해고장”
- NJB

이것은 신 24:1-4 의 인용이다. 모세는 당시 문화에서 아무런 권리도 재산도 가지지 못한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을 행했다. 재혼이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예수께서는 이것의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함을 고려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셨다. 이혼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지만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이다.

- 5:32 NASB, NRSV “행실이 나쁜 이유 외에”
- NKJV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유 외에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TEV  
NJB

“그녀가 신실하지 못했다”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결혼의 이유 외에”

이 “예외 절”은 마태복음에서 독특한 내용이다. 아마도 이 점은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 유대인들이 가진 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권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행실이 나쁨”은 *포르네이아*로서 27 절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 잘못을 가리킨다. 이것은 종종 “간통” 혹은 “신실하지 못함”으로 해석된다. 두 랍비 학파의 해석이 제시되었다: (1) 샴마이 학파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한해서만 이혼을 허용했다(“어떤 외설적 행동,” 신 24:1) (2) 힐렐 학파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을 허용했다(즉,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신 24:1). 이혼은 유대교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용어가 성적 교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에 대한 것으로 본다(참조, 레위기 18 장; 고전 5:1). 한편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가 신 22:13-21 에 나오는 처녀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구약에서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거룩한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수 12-24 장). “회년”은 이러한 면의 한 예다.

▣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부정사이다. 수동태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내를 이혼시키는 행위는 그녀가 죄를 범했든 혹은 그렇지 않았든 간음녀라는 사회의 낙인을 받게 했다. 그녀와 재혼하는 자도 낙인을 받았다. 이것은 재혼이 간음이 됨을 말하는 어떤 교리적 진술이 아니다(참조, A. T. 로벗슨의 *신약의 워드 픽처* 제 1 권 155 쪽).

이혼과 관련된 이 어려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문맥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마 19:1-9 과 막 10:2-12 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교묘한 질문이 그 배경을 이룬다. 문맥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뚱뚱거리 다루는 방법으로써 이혼에 대한 우리의 신학을 형성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주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역개정 5:33-37

<sup>33</sup>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sup>34</sup>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sup>35</sup>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sup>36</sup>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견계 할 수 없음이라 <sup>37</sup>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5:33 “맹세” 이것은 구약의 여러 본문에 대한 암시이다. 이것은 저주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입증하는 일을 의미한다(참조, 마 23:16-22; 약 5:12). 구약에서 맹세 혹은 서약은 (1) 예배(참조, 신 6:15) (2) 법적 진행(참조, 출 20:7; 레 19:12); (3) 어떤 일을 함의 확증(참조, 레 27 장; 민 30:2; 신 23:21-22)을 뜻했다. 예수께서는 마 26:63-64 에서 맹세하였다. 바울은 고후 1:23; 갈 1:20; 빌 1:8; 살전 2:5 에서 맹세했다. 맹세의 또 다른 예는 히 6:16 에 나온다. 맹세를 하지 않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약한 것을 행하지 않음에 있다!

5:34-36 이것은 랍비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맹세에 묶이는 것과 묶이지 않는 것을 발전시켰는가를 보여준다(참조, 23:16-22).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한 맹세가 항상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진술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5:34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께서는 마 26:63-64 에서 맹세를 하고 증언하셨다.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여 자신의 말을 확증하였다(참조, 고후 1:23; 갈 1:20; 빌 1:8; 살후 2:5,10). 핵심은 진실함에 있지 않아 맹세에 있지 않다(참조, 약 5:12).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수께서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셨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계책을 쓸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NASB

“악”

NKJV, NRSV

“악한 자”

TEV, NJB

“악한 자”

이 헬라어의 어형은 중성인 “악” 혹은 남성인 “악한 자”이다(4: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와 같은 애매성이 6:13; 13:19,38; 요 17:15; 살후 3:3; 요일 2:13,14; 3:12; 5:18-19 에 나타난다.

악은 여러 형태를 가진다.

1. 타락한 세상, 창 3 장; 엡 2:2; 약 4:4
2. 개인적 악, 엡 2:2
3. 타락한 개인, 엡 2:3; 약 4:1-2

악은 죽이고 흠치고 멸망시킬 기회를 찾는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의미있고 만족스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개역개정 5:38-42

<sup>38</sup>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sup>39</su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sup>40</sup>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sup>41</sup>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sup>42</sup>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5:38 “눈은 눈으로” 이것은 출 21:24; 레 24:20; 신 19:21 의 암시이다. 이 법은 원래 이혼증서에 대한 규정처럼 개인적 보복을 제한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도였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복수할 것을 허용치 않았고 법정에서 취할 규정이었다. 유대인 재판관들은 종종 돈으로 배상하게 이를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개인이 제한적으로 보복하는 원리는 남아있었다.

5:39-42 이것은 남(외인 및 동족)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윤리로서 주신 일련의 5 가지 예의 하나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내용에 속한다. 이 말씀은 모든 사회나 시대에 주신 융통성없는 규정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말씀이다. 사랑의 긍정적 행동을 취해야 할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믿는 자이다. 교활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자신을 감추거나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된다.

5:39 “악한 자” 문맥에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언약의 형제를 데리고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모욕을 견디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 1 세기의 법적 체도를 가리킬 것이다. 만일 “악”이 37 절과 관련이 있다면 이 단어는 악한 자를 뜻한다. 찰스 B. 윌리엄 역본인 *사람들의 언어로 본 신약*은 3 번 제 견해인 “당신을 상하게 한 자”를 제시한다.

5:40 “속옷... 겹옷” 앞의 단어는 속옷을 말하고 두 번째 단어는 겹옷을 나타낸다. 이것은 과장법에 속한다. 예수께서 나체로 지낼 것을 옹호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출 22:26-27; 신 24:10-13 의 암시이다. 이 부분은 중심진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한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조, 5:16; 뱀전 2:12).

5:41 역사적으로 이것은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였던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억지”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말로서 우편배달자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후에 군대 혹은 정부에 의한 모든 종류의 부역을 뜻하게 되었다. 이것의 한 예가 마 27:32 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행해야 한다.

5:42 이것은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대한 마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참조, 출 22:25; 신 15:7-11; 잠 19:17).

개역개정 5:43-48

<sup>43</sup>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sup>44</su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sup>45</sup>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sup>46</sup>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sup>47</sup>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sup>48</sup>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43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용은 합성된 것이다.

1.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 19:18 의 인용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보셨다. 마 19:18-19 에서는 십계명과 함께 언급된다. 막 12:31 에서 이것은 신 6:4-5 을 이어 두 번째로 큰 계명으로 나오는데 눅 10:25-28 에서도 그러하다.
2.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약의 인용이 아니었고, 오히려 배타적인 종교가인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었다(즉,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센파).

새 왕국의 윤리가 타락한 세계가 갖고 있는 “자아,” “어떤 댓가를 치르러서라도 오직 나만,” “거기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와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참조, 5:20,48)!

5:48 KJV 는 눅 6:27-28 에서 한 구를 취하여 추가시켰다. 그 구는 고대 헬라어 대문자 사본인 **K**, **B** 및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온 초기 사본들에 들어 있지 않다.

44 절에는 두 **현재 명령**인 “사랑하며 기도하라”와 **현재 분사**인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나온다. **현재형**은 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말하는 명령이며 그가 받는 지속적인 박해의 가능성도 나타낸다.

왕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5:45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신자들의 삶은 그들이 속한 가족(하나님의 가족 혹은 사탄의 가족)을 분명히 드러낸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참조, 례 19:2).

5:46-47 신자의 행동은 불신자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절에는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 두 개 있다.

5:46 “상”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6:1,2,4,6). 5:12의 특별주제를 보라.

5:48

NASB “너희는 온전하라”  
 NKJV “너희는 온전하라”  
 NRSV “온전하라”  
 TEV, NJB “너희는 반드시 온전해야 한다”

이것은 례 11:44,45; 19:2; 20:7,26에 대한 암시이다.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 “성숙함” 혹은 “완전히 갖추어진”을 뜻한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됨을 말하는 강력한 문장이다(참조, 신 18:13).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참조, 고후 5:21). 한편 신자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를 위해 애써야만 한다. (1)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임을 뜻하는 구원인 신분적 성화와 (2)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점진적인 성화로 나타나는 신학적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 절을 이 절이 속한 문단의 요약이라고 본다. 만일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방해야 할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에 초점을 가진다.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참조, 롬 4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행 20:23; 26:18  
 롬 15:16  
 고전 1:2-3; 6:11  
 살후 2:13  
 히 2:11; 10:10,14; 13:12  
 벧전 1:1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롬 6:19  
 고후 7:1  
 엡 1:4; 2:10  
 살전 3:13; 4:3-4,7; 5:23  
 딤후 2:15  
 딤후 2:21  
 히 12:14  
 벧전 1:15-16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구약을 재해석하셨는가 아니면 그것을 바꾸셨는가?
2. 17절과 18절에서 “완성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22절)을 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4. 23-24절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행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5. 재혼은 간음인가?
6. 법정에서 선서함은 죄인가?
7. 어떻게 17-20절과 48절이 다른 나머지 절을 이끄는지 설명하라.

# 마태복음 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구제에 대한 가르침 6:1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6:1-4	실제적인 경건에 대한 가르침 6:1	구제에 대한 가르침 6:1	드러내지 않는 구제 6:1-4
6:2-4		6:2-4	6:2-4	
기도에 대한 가르침 6:5-15	모범적인 기도 6:5-15	6:5-6	6:5-6	드러내지 않는 기도 6:5-6
		6:7-8	6:7-13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 6:7-15
		6:9-15	6:14-15	(9-13)
금식에 대한 가르침 6:16-18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 6:16-18	6:16-18	6:16-18	드러내지 않는 금식 6:16-18
하늘의 보화 6:19-21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6:19-21	6:19-21	6:19-21	참된 보화 6:19-21
몸의 빛 6:22-23	몸의 등불 6:22-23	6:22-23	6:22-23	눈, 몸의 등불 6:22-23
하나님과 맘몬 6:24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6:24	6:24	6:24	하나님과 돈 6:24
근심과 걱정 6:25-34	걱정하지 말라 6:25-34	6:25-33	6:25-27 6:28-34	공급하심을 신뢰함 6:25-34
		6: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1-8 절과 16-18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5 장은 하나님의 새 백성의 특성과 참된 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말한다. 6 장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의로움으로 여긴 내용을 다룬다(즉, 구제, 기도, 금식).
- 나. 이것은 매우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신자들이 점검해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룬다. 의로움에 대한 참된 정의에 관해서는 5:20,48 을 보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참조, 고후 5:21). 한편 우리가 갖는 감사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한다.
- 다.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근본적인 헌신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원리로서 제시된다.
- 라. 산상수훈에는 긍정적인 목적과 부정적인 목적이 다 들어 있다.
  1. 자신의 백성들이 성령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가를 보여주시려는 것
  2.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보이시려는 것
 이것은 십계명의 경우 처럼 우리의 죄됨을 드러낸다(참조, 갈 3:15-29). 아무도 이 탐조등을 견뎌낼 수 없다.
- 마. 5 절과 6 절은 기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7 절과 8 절은 이방인들이 기도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6:1-4

<sup>1</sup>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sup>2</sup>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sup>3</sup>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sup>4</sup>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1



NASB, NRSV

“행함을 주의하라”

NKJV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TEV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NJB

“자랑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항상 생각하라”이다. 하나님은 손(행동) 보다 마음(동기)을 먼저 보신다!

▣ “너희 의” 이 본문은 1 세기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고 본 3 가지 종교적 행습을 다룬다: (1) 구제(2-4 절) (2) 기도(5-15 절) (3) 금식(16-18 절). 종교적으로 과시하려는 마음을 주의하라. 우리의 태도, 동기, 목적에 의해 많은 일들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의”는 예수님 당시에 구제를 뜻하였다. 구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유대인들이 매주 드린 헌물이었다.

**특별주제: 구제**

I. 용어 자체

- 가. 이 용어는 유대교에서 발전했다(즉, 칠십인역의 시기).
- 나. 이것은 가난한 자 또는 궁핍한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다. 영어 단어의 “자선”은 헬라어인 *엘레에모쉬네*에서 유래한다.

II. 구약의 개념

- 가. 가난한 자를 돕는 개념은 이른 시기인 오경에 나타난다
  - 1. 전형적 문맥, 신 15:7-11
  - 2. 가난한 자를 위해 추수 때 일부분을 남겨 두는 “이삭 줍기,” 레 19:9; 23:22; 신 24:20
  - 3. “안식년,” 휴경기인 제 7년의 소산물을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함, 출 23:10-11; 레 25:2-7.
- 나. 이 개념은 지혜문학에서 더 발전되었다(선택한 몇 가지 예)
  - 1. 욥기 5:8-16; 29:12-17(24:1-12에서는 사악한 자가 언급됨)
  - 2. 시편 11:7
  - 3. 잠언 11:4; 14:21,31; 16:6; 21:3,13

III. 유대교에서의 발전

- 가. 미쉬나의 첫 부분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지역의 레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룬다.
- 나. 선택한 인용문
  - 1. 집회서[또한 벤 시라의 지혜서로 알려짐] 3:30, “마치 물이 타오르는 불을 끄듯이 구제는 죄를 속죄한다”(NRSV)
  - 2. 집회서 29:12, “구제를 너의 보물창고에 쌓아 놓으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할 것이다”(NRSV)
  - 3. 토비트 4:6-11, “<sup>6</sup> 네가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sup>7</sup>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sup>8</sup> 네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sup>9</sup>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곤경을 당하게 되는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된다. <sup>10</sup>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sup>11</sup>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공동번역)
  - 4. 토비트 12:8-9, “<sup>8</sup>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sup>9</sup>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 다. 마지막 인용인 토비트 12:8-9 은 문제가 커짐을 보여준다. 인간의 행동/인간의 공덕은 죄의 용서와 풍성한 삶 양쪽 모두를 자동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러한 개념은 칠십인역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구제를 가리키는 헬라어 용어(*엘레에모쉬네*)는 후에 의(*디카이오쉬네*)와 동의어가 되었다. 이 단어들은 히브리어의 의(BDB 842,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충성, 참조, 신 6:25; 24:13; 사 1:27; 28:17; 59:16; 단 4:27)를 번역함에 있어서 대치하였다.
- 라. 인간이 동정심을 갖는 행동은 그들이 현재 사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죽어서는 구원을 얻는 목표를 갖게 했다. 행동의 배경에 있는 동기 대신에 행동 자체가 신학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 보신 후에 손으로 행한 일을 심판하신다. 이점을 랍비들이 가르쳤지만 각자 자기 의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다소 놓치게 되었다(참조, 미 6:8).

IV. 신약에서의 반작용

- 가. 이 용어가 사용되는 곳
  - 1. 마 6:1-4
  - 2. 눅 11:41; 12:33
  - 3. 행 3:2-3, 10; 10:2, 4, 31; 24:17
- 나. 예수께서는 그의 산상수훈(참조, 마태복음 5-7 장)에서 의에 대한 전통적 이해(참조, 클레멘트 후서 16:4)를 이루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설교한다:
  - 1. 구제
  - 2. 금식
  - 3. 기도
- 다. 예수의 산상수훈에서(참조, 마 5-7 장).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어야지,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되지 않아야 했다! 겸손 및 드러내지 않음은 적합한 행동이 되게 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된다. 새 마음은 하나님을 본 받는다!

■ “그들 앞에서” 신자가 “사람 앞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몇가지 있다.

1. 너희 빛을 비추어라, 5:16
2.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10:32

■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의(theatrical)라는 영어 단어는 이 헬라어(theamai)에서 온 것으로서 “주의 깊게 보다”를 뜻한다. 2 절에 있는 “외식하는 자”도 연극과 같은 어원을 가진다. 바리새인들은 연극하는 종교인이었다(참조, 5:20).

■ “상” 이 단어는 1,2,5,16 절에 나오는데 “충분히 값을 지불받다”를 뜻한다(참조, 빌 4:18). 성경은 상에 대해 말하는데 신자의 행동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세에 기초하여서이다(즉, 7:21-23). 2 절에 있는 비슷한 구는 “사인한 영수증을 받음”을 뜻하는 관용구이다. 5: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6:2 “구제할 때에” 구제는 매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말한다. 랍비들은 이 일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까지 여겼다(참조, 토비트 12:8-9; 집회서 3:30; 29:11-12).

■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것은 성전에 있던 13 개의 금속으로 된 트럼펫 모양의 돈을 넣는 그릇을 암시하는 것으로 종종 해석되었다(참조, 눅 21:2). 각 용기가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 한편 유대인의 문학에서 이러한 용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역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 조심하라고 외치는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일 것이다.

■ “외식하는 자”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외식하는 자**

이 합성어는 문자적으로 “~을 가지고 판단하다”를 가리킨다. 그 의미는 (1)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말하다 또는 (2) “지나치게 해석하다”를 뜻할 것이다. 문맥에서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 연극함을 나타낸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종교적 예식이나 의식을 행했다(나는 이 점이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구제, 마 6:2
2.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함, 마 6:5
3. 그들은 금식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에 감명받도록 하기 위해 옷차림을 단정치 않게 했다, 마 6:16
4. 그들은 부식재료의 십일조는 드렸으나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놓쳤다, 마 23:23
5. 그들은 그릇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 쪽을 깨끗이했다, 마 23:25(참조, 막 7:1-8)
6.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다, 마 23:29-30
7. 그들은 다른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마 23:13-15
8. 그들은 참된 지혜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교묘한 질문으로써 예수를 함정에 빠트리려 했다, 마 22:15-22
9. 그들은 지옥에서 따로 구별된 자리를 차지한다, 마 24:51
10. 그들은 완전히 부정한 무덤을 회반죽칠을 하였다, 마 23:27(참조, 성경의 상징 사전, 415 쪽)

- NASB “사람에게 영예를 받으려고”
- NKJV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 NRSV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 TEV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게 하려고”
- NJB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참조, 삼상 16:7; 잠 21:2; 눅 16:15; 요 12:43; 행 1:24; 15:8; 롬 8:27; 계 2:23).

- NASB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 NKJV “확실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 NRSV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 TEV “이것을 기억하라”
- JB “너희에게 엄숙히 말한다”
- NJB “진리 안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문자적으로는 “아멘, 아멘”으로서(참조, 2,5,16 절), 전적으로 예수께서 중요한 진술을 말씀하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이다. 구약에서 “아멘”은 충실함, 충성됨,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표현은 “내가 진실된 내용을 말하려고 한다.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의미를 갖는다.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란 단어가 샅 혹은 소득의 의미로서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나온다(제임스 몰튼과 조지 밀리간의 *신약의 어휘* 413 쪽을 보라). 이 단어는 5:12,45; 6:1,25,16 에 나온다.

6:3 이것은 비밀유지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종교적 과시에 경계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6:4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각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개인의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난다. 신자는 그 어떤 것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낸다(참조, 6,18 절). 비밀스러움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참조, 5:16). 종종 돈에 대한 청지기직은 중요한 표식이 된다, 즉 J. C. 페니와 R. G. 레토뉴.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가. 신체의 일부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속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8. 발 - 출 24:10; 겔 43:7
9. 인간의 모양 - 출 24:9-11; 시 47 편; 사 6:1; 겔 1:26
10. 하나님의 천사 -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4,13-21; 14:19; 샷 2:1; 6:22-23; 13:3-22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샷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표현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 나.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관계를 취하여 말씀하신다(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인)
- 다. 비록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육체적 형태로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참조, 출애굽기 20 장; 신명기 5 장)
- 라. 궁극적인 신인동형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만진 바 되셨다(참조, 요일 1:1-3).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참조, 요 1:1-18).

▣ “**값으시리라**” NKJV 의 4,6,18 절은 “공개적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담고 있다. 초기에 속하는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K, L, W 및 크리소스톰이 사용했던 헬라어 사본은 이곳과 6,18 절에 “공개적으로”를 추가하고 있다. 이 단어는 중요한 고대 헬라어 사본인  $\kappa$ , B, D, Z 및 오리겐,키프리안, 제롬,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개역개정 6:5-15**

<sup>5</sup>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sup>6</sup>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값으시리라 <sup>7</sup>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sup>8</sup>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sup>9</sup>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sup>10</sup>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sup>11</sup>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sup>12</sup>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sup>13</sup>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sup>14</sup>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sup>15</sup>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6:5 “그들은 ...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팔을 들고 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했다. 몸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 “**큰 거리 어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루의 세 특별한 시간에 기도했다. 그 가운데 두 번은 오전 9 시와 오후 3 시에 드리는 기도였는데, 그 시간은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종류의 제물(항상 드림)을 드리는 때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정오에도 기도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볼 수 있게 했다.

▣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치다”이다. 신자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빛을 드러내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참조, 2 절; 5:16; 요 12:43; 빌 2:15). 6:2 의 특별주제: 외식하는 자를 보라.

▣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6:6

NASB	“네 골방에 들어가”
NKJV, NRSV	“네 방에 들어가”
TEV	“네 방에 가”
NJB	“너 만의 방에 가”

이것은 중요한 물건을 두는 방을 가리킨다(참조, 눅 12:24). 어원적으로 이 헬라어 단어는 “잠아 내다”를 뜻하는데, 구별된 혹은 구분을 지은 방을 뜻한다(참조, 24:26; 눅 12:3). 이 방은 문이 달린 유일한 방이었을 것이다.

**특별주제: 신약에서 사용한 “문”의 용법**

신약에서 “문”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1. 문자적
  - ㄱ. 집의 문, 마 6:6; 막 1:33; 2:2; 11:7; 골방, 요 20:19,26
  - ㄴ. 성전의 문, 행 3:2; 21:30
  - ㄷ. 감옥의 문, 행 5:19,23; 12:6; 16:26-27

- 르. 무덤의 문, 마 27:60; 28:2; 막 15:46; 16:3
- 口. 양의 문, 요 10:1,2
- 브. 안뜰의 문, 요 18:16; 행 12:13
- 2. 은유적
  - ㄱ. 시간이 압박함, 마 24:33; 막 13:29; 행 5:9; 약 5:9
  - ㄴ. 참된 믿음에 들어가는 데 따르는 제약, 마 7:13-14; 눅 13:24; 계 3:20
  - ㄷ. 구원없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마 25:10; 눅 13:25; 계 3:7
  - 르. 구원없는 믿음의 기회, 행 14:27; 계 3:7
  - 口. 사역의 기회, 고전 16:9; 고후 2:12; 골 4:3; 계 3:8
  - 브. 계시, 계 4:1; 19:11
- 3. 예수님의 호칭, 요 10:7,9

6:7

NASB “의미없는 반복”  
 NKJV “헛된 반복”  
 NRSV “속 빈 말을 늘어놓음”  
 TEV “의미 없는 여러 말”  
 NJB “헛성수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그 의미는 불확실하다. 여러 영어역본이 이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음을 보라! 예수님과 바울은 기도를 반복해서 했다(참조, 마 26:44; 고후 12:8). 아마도 “의미없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성경에서 의식에 따른 기도의 예는 왕상 8:26 과 행 19:34 에 나온다. 기도하는 자가 어떤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

6:8 “너희” 이 문맥에서 나오는 강조형의 인칭대명사는 (1) 7 절의 이방인들과 (2) 5 절의 율법주의적 바리새인들을 대조시킨다.

9-15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 기도문은 키프리아니 주후 250 년에 처음으로 “주기도문”으로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이 기도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으로서 “기도의 모델”로 봄이 더 적합하다.
- 나. 이 기도의 모델은 7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3 가지는 하나님께 관련이 있다. 마지막 4 가지는 개인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다.
- 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계명을 당시에 맞게 재적용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산상수훈도 십계명(10 가지 말)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마태는 예수를 두 번째 모세로 그리고 있다. 바울은 구약에 대한 같은 종류의 유추를 사용하여 예수를 두 번째 아담으로 제시한다(참조, 롬 5:12-21; 고전 15 장; 빌 2:6-11).
- 라. 이 모델 기도문은 명령법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간청을 위한 간구의 명령법의 경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하지 않는다.
- 마. 누가의 책에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짧다. 눅 11:2-4 에 있는데, 마 5-7 장과 평행을 이루는 6 장의 평지에서의 설교에 들어있지 않다. 본문 비평적으로 논란이 되는 마 6:13b 에 있는 송영 부분은 누가복음에 들어 있지 않다.

6:9

NASB, NRSV “그래서 너희는 이 방법으로 기도하라”  
 NKJV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방식으로 기도하라”  
 TEV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기도해야 할 방법이다”  
 NJB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행할 삶의 양식에 대한 명령이다. 이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이다. 기도의 범위와 기도자의 자세가 특정 단어의 사용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 점은 눅 11:2-4 에 있는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수께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 기도를 자주 가르치셨을 것이다.

▣ “우리” 이 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문은 물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 우리는 한 분이신 압마, 성부의 가족이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14-15 절은 더욱 의미있다.

▣ “아버지”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성별 혹은 연대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아버지와 갖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면의 구약적 배경은 신 32:6; 시 103:13; 시 63:16; 말 2:10; 3:17 에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되심은 구약이나 랍비들의 글에서 주요 내용이 아니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인해서 야웨를 “성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참조, 롬 8:15)! 5:16의 특별주제를 보라.

**6:9-10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모두 부정과거 명령법이다. 이 단어들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헬라이어 문장의 첫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의 위치, 시제, 법이 이 내용의 긴급성과 강조를 나타낸다. 이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여야 하는가를 말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세 동사와 모두 관련이 있다.

▣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용어는 “거룩한”(참조, 히 10:29)의 어근에서 왔으며 “존경 받는” 혹은 “많은 존경을 받는”을 뜻한다. 이 동사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헬라이어 문장의 첫 단어로 나온다. 이 동사는 공관복음에서 단지 4회만 나온다(참조, 마 6:9; 23:17,19; 눅 11:2).

**6:9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격을 나타낸다(참조, 겔 36:22; 솔 2:32).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자녀들이 순종함을 인해 이 타락한 세상에 알려진다(참조, 사 29:23).

**6:10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해 하나님을 왕으로 칭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시듯이 주께서 땅에서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이다. 신약은 하나님의 왕국을 (1) 현재적인 실재(참조, 마 4:17; 12:28; 눅 17:21) 및 (2)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 말한다(참조, 마 6:10; 13:2 이하; 눅 11:2; 요 18:36). 이 진술은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금 현재 참 제자들의 삶에 임하시는 통치의 역설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4:17의 특별주제를 보라.

**6:11 “주시옵고”** 처음의 세 간구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를 말하고 이어 나오는 네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기를 간구할 것인가를 말한다.

▣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에 대한 구약의 한 예는 매일 주신 만나이다(참조, 출 16:13-21). 중동에서는 매일 빵을 구웠는데 그날 먹지 않은 것은 해 질 녘에는 말라 버렸다. 오늘의 양식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일용할”**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헬라이어 단어이다. 이것은 다음의 자료에 나온다

1.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준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는 일
2. “오늘 필요한 양식”(“우리의 필요에 따른 양식”)을 뜻한 헬라이어 관용구
3. 틴데일 마태복음 주석(74 쪽)은 “우리에서 필요한 힘을 주사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적 유혹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설명한다.

터틀리안은 이것을 “매일”로 번역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오며 눅 11:3과 평행을 이룬다.

▣ **“양식”** 어떻게 이 “양식”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글자 그대로인 의미의 양식
2. 주님의 만찬(참조, 행 2:46)
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참조, 4:4; 눅 4:4)
4.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참조, 요 6:41,48,51,55)
5. 메시아의 잔치(참조, 눅 14:15)

처음 항이 문맥에 들어 맞는다. 한편 은유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필요를 채우심을 나타낸다.

6:12

NASB, NRSV, NJB “사하여 준 것”  
NKJV, TEV “사한 것”

헬라이어 사본에는 두 번째로 사용된 동사인 “용서하다”의 시제와 관련하여 변이가 나타난다. 부정과거형은,  $\kappa^*$ , B, Z, 별게이트, 페쉬타역에 나타난다. 그 외의 모든 사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이 단어는 “돌려 보내다” 혹은 “없애 버리다”를 뜻하여 용서를 뜻하는 구약의 비유적 표현을 나타낸다.

▣ **“죄(빛)”** 평행을 이루는 눅 11:4에는 “죄”로 되어 있다. 1세기 유대교에서 “빛”(오페이라마타)은 죄(하마르티아스)를 뜻하는 관용어였다. 6:14-15에서는 또 다른 단어인 “잘못”(파라프토마타)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낸다. 죄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하게 한다. 죄에는 댓가가 따른다!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용서하시듯이 그들도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다(참조, 18:35)!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기 시작함에서 찾을 수 있다.

6:13

NASB, NKJV  
NRSV  
TEV  
NJB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련의 시간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옵고”  
“우리를 어려운 시험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두지 마시옵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며 부정을 나타낸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결코 이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절과 약 1:13 을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험”과 “시련”이라는 두 헬라어의 함축적 의미와 관련하여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곳과 약 1:13 에 있는 단어는 멸망시킴[*페이라스모*]의 목적을 갖는 시험을 나타내고, 다른 한 단어는 강하게 함[*도키마조*]의 목적을 갖고 시험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신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시험하시지 않고 강하게 하기 위해 하신다.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마도 이 내용은 당시 정부와 법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26:41; 막 13:8). C. C. 토레이는 *사복음서*(12 쪽과 143 쪽)에서 이것을 “시험을 당해 실패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로 번역한다(참조, 눅 22:40).

■

NASB  
NKJV, NRSV, JB  
TEV, NJB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자에게서”

문법적으로 이 단어가 남성(4:5 의 특별주제를 보라)인지 아니면 중성이지 규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사탄에 대하여 쓰인 같은 단어가 5:37; 13:38; 요 17:15 에 나온다. 이 경우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가 5:37; 6:13; 13:19,38; 요 17:15; 살후 3:3; 요일 2:13,14; 3:12; 5:18-19 에 나온다.

■ 13b 에 있는 송영은 (1) 눅 11:2-4 에 있는 평행구절 (2)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κ*, B, D 사본 (3) 오리겐, 키프리안, 제롬, 어거스틴의 주석에서 빠져 있다. 마태의 헬라어 사본에는 이 송영의 여러 형태가 나온다. 이 송영의 내용은 아마도 초대교회가 예배의식에 주기도문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대상 29:11-13 에서 취하여 추가시킨 내용일 것이다. 이 부분은 원래 있던 내용은 아니다. 벌게이트역에 이 부분이 빠져있기에 로마 천주교는 이 부분을 생략시키고 있다. A. T. 로버트는 *신약의 단어 그람*(55 쪽)에서 “송영은 RV 역의 난외에 있다. 이 부분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헬라어 사본에 없다. 초기의 여러 형태는 다양성이 있어서 AV 에 있는 것보다 더 짧거나 더 길다. 이 송영의 사용은 예식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예배에서 찬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부분은 예수께서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의 원 본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UBS<sup>4</sup> 는 이 부분의 생략에 “A”등급(확실함)을 준다.

6:14-15 14-15 절은 이 모범적인 기도문의 결론 부분이다. 이 두 절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됨을 가르친다(두 개의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 행위는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그 결과이다(참조, 마 5:7; 18:35; 막 11:25; 눅 6:36-37; 약 2:13; 5:9).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언약의 형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가족적 진리를 갖고 살아야만 한다.

6:14 “잘못”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 쪽으로 넘어지다”이다.죄를 가리키는 대다수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기준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이 단어는 어떤 정해 놓은 경계를 의식적으로 넘어감을 의미한다.

개역개정 6:16-18

<sup>16</sup>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sup>17</sup>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sup>18</sup>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16-18 이것은 종교적 과시의 또 다른 예이다. 6:2 의 특별주제: 외식하는 자를 보라.

6:16 “금식” 구약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금식은 7 월 달에 지키는 속죄일(참조, 레 16 장)에 행하는 금식이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여러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금식일을 선언했다(참조, 슄 7:3-5; 8:19).

이에 더하여 랍비들은 금식의 횟수를 더 늘려 일주일에 두 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행하게 했다(눅 18:12); 목요일의 금식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기에 행했고 월요일의 금식은 모세가 그 날 산에서 내려 왔기에 그 날 금식을 행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성을 뽐내려는 방편으로 금식을 사용했다.

### 특별주제: 금식

비록 신약에서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이를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참조, 마 6:16,17; 9:15; 막 2:19; 눅 5:35). 합당한 금식에 대한 내용은 사 58 장에 나와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례를 세우셨다(참조, 마 4:2). 초대 교회도 금식했다(참조, 행 13:2-3; 14:23; 고후 6:5; 11:27). 금식의 동기와 자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금식의 때와 길이와 빈도는 선택적이다. 구약의 금식은 신약의 신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성격은 아니다(참조, 행 15:19-29). 금식은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금식에 대해 초대 교회가 가진 경향은 서기관들로 하여금 “금식”을 여러 본문에 삽입하게 했다(즉, 마 17:21; 막 9:29; 행 10:30; 고전 7:5). 이 논란이 되는 본문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성서공회가 출판한 브루스 메츠거의 *헬라이어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을 참조하라.

▣ “슬픈 기색” 이 용어는 이곳과 눅 24:17 에서만 사용되었다.

▣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6:17** 이것은 6 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진리이다. 문맥은 종교적 과시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 삶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남용(구제, 기도, 금식)을 택하여 정죄하셨는가?
2. 우리가 오늘날 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왜 우리의 자세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가?

### 19-24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가. 이 단락에 나타난 진리는 누가복음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 상황은 다르다.

1.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만 한다(눅 12:33-34)
2. 눈이 몸의 등불이다(눅 11:34-36)
3.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눅 16:13)
4.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위해 공급하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예로서 작용한다(눅 12:22-31).

예수께서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위해 반복해서 가르치셨고 또한 같은 비유를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셨다.

나. 예수께서는 자연을 들어 하나님께 대해 가르치셨다: (1)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2) 인간은 어떤 물건이나 동물보다 더 중요하다.

다. 이 단락을 글자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대조를 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세상에서의 소유는 악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에 둔 잘못된 우선순위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참조, 딤후 6:10).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 따른 필요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낸다(참조, 빌 4:6). 신뢰함이 중요한 핵심을 이룬다.

라. 성경의 이 단락은 세 단위로 나눌 수 있다: (1) 19-21 절 (2) 22-24 절 (3) 25-34 절. 이러한 사실은 연결성이 없는 주제들을 한 곳에 가까이 모아 다룸을 의미하는 랍비들의 표현인 “실에 꿰진 주들”과 비슷하다.

개역개정 6: 19-23

<sup>19</sup>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짐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sup>20</sup>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짐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sup>21</sup>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sup>22</sup>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sup>23</sup>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6:19 “쌓아 두지 말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물을 쌓는 보물쌓기를 멈추라”이다. 20 절에 같은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재원을 통해 공급하려고 시도한다. 이 절의 문법적 구조는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도 유효히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참된 행복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함에 있다(참조, 전 1-2 장; 2:24-25; 3:12,22; 5:18; 8:15; 9:7-9; 빌 4:11-12).

▣ “보물” 고대 세계에서 부는 세 가지 자원을 의미했다: (1) 옷 (2) 먹을 양식 (3) 귀금속 혹은 보석. 이러한 품목은 모두 망가지거나 도둑을 맞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짐은 의류를 공격할 것이다. 녹은 “먹다” 혹은 비유적인 표현인 “먹어 치우다”나 “부식하다”에서 온 어근을 가지며 음식을 먹는 해충에 대해서 사용했다. 도둑질은 값 나가는 금속이나 보석 혹은 다른 두 종류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 가지는 기본적인 취약성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그것을 잃을 수 있다. 물질적인 것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짓된 생각에 대해 눅 12:15 에서 다룬다.

▣ “해하며” 이 단어는 “모양을 망가뜨리다”(6:16) “없어지게 하다”(참조, 6:20; 행 13:41; 약 4:14)를 의미한다.

▣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뚫고 들어 오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파 헤치다”를 의미한다. 당시 많은 집의 벽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도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진흙을 파는 자”라는 합성어에서 왔다.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 된 내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영적 태도와 행동에 대해 말한다. 딤후 6:17-19 은 같은 개념을 아름답게 나타낸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늘 보화를 지키신다(참조, 뱀전 1:4-5).

20 절에 있는 동사는 같은 어근에서 온 명사와 함께 사용되었다(동일 어근 목적어). 문자적으로 이 언어유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 보물쌓기를 하라”이다.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앞 절에서 인칭대명사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단수형으로 바뀐 점은 특별하다. 이 단락에서는 땅의 물건이 덧없음과 영적인 것이 영원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돈과 힘을 사용하는 곳에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한다. 심장(히브리 관용어임)은 사람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우리 자아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6: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여긴 유대인의 관념이 이 진술의 배경을 이룬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 세계에 들어오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다. 생각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행동을 낳으며 행동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

6:22-23 이 두절은 분명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성한 것” 대 “나쁜 것”; “단수” 대 “복수”; “관대함” 대 “인색함”; “건강함” 대 “병듦”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눈이 사용된 이유는 건강한 시력은 하나로 똑똑히 보이게 하지만 약한 시력은 이중이나 흐릿한 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 두 절에는 조건절(“ifs”)이 세 개가 있다. 처음 두 경우는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영적인 진리를 명확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 있다.

마지막 “만일”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경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관대한/신실한(하플로테스)

이 용어(하플로테스)는 두 의미 즉 “관대한”과 “신실한”을 나타낸다. 이것은 시력과 관련이 있는 은유적 표현이다. 구약에서 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동기를 뜻한다.

1. 악한 눈(인색, 참조, 신 15:9; 잠 23:6; 28:22)
2. 선한 눈(관대한, 참조, 잠 22:9)

예수께서는 이 용법을 따르셨다(참조, 마 6:22-23; 20:15). 바울도 이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1. “단순함, 신실함, 깨끗함” (참조, 고후 1:12; 11:3; 엡 6:5; 골 3:22)
2. “후함” (참조, 롬 12:8; 고후 8:2; 9:11,13)

#### 개역개정 6:24

<sup>24</sup>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진술은 세계를 냉혹한 실재로 둔다. 이것은 한 가지만을 선택할 것에 대한 참된 삶의 축소판이다. 인간은 사실 자유롭지 못하다. 두 주인 가운데 한 쪽을 섬긴다(참조, 요일 2:15-17).

▣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것은 평행을 이루는 관계이다. 히브리어에서 “미워하다”와 “사랑하다”는 비교를 말하는 관용어였다(참조, 창 29:30,31,33; 말 1:2-3; 마 21:15; 눅 14:26; 요 12:25; 롬 9:13).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미워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우선순위를 가리킨다.



NASB, NRSV	“너희가 하나님과 부를 섬기지 못하느니라”
NKJV	“너희가 하나님과 부의 신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TEV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NJB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노예가 되지 못하느니라”

“부”라는 용어는 “쌓아 놓다” 혹은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원래 다른 이에게 돈을 투자하여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 단어는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이 단어의 강조점은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는 어떤 물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돈이라는 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시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A. T. 로벗슨은 주장한다. 비록 그의 주장을 최근의 많은 학자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마태복음에 대한 *매일 연구 성경*(252 쪽)에서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는 맘몬이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문자“M”으로 표기되었다고 말한다.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둔 우선순위가 문제이다(참조, 딤후 6:10). 돈으로 인한 비극은 우리가 결코 이것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점과 또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어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록 그것을 잃게 될까봐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소진시킨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부

- I. 구약 전체의 관점
  - 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1. 창 1-2 장
    2. 대상 29:11
    3. 시 24:1; 50:12; 89:11
    4. 사 66:2
  - 나.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산의 청지기이다
    1. 신 8:11-20
    2. 레 19:9-18
    3. 욥 31:16-33
    4. 사 58:6-10
  - 다. 재산은 예배의 일부이다
    1. 두 가지 십일조
      - ㄱ. 신 18:21-29; 신 12:6-7; 14:22-27
      - ㄴ. 신 14:28-29; 26:12-15
    2. 잠 3:9
  - 라. 부는 언약에 충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말해진다
    1. 신 27-28 장
    2. 잠 3:10; 8:20-21; 10:22; 15:6

- 마.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한 경고
  - 1. 잠 21:6
  - 2. 램 5:26-29
  - 3. 호 12:6-8
  - 4. 미 6:9-12
- 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재물은 죄악된 것이 아니다
  - 1. 시 52:7; 62:10; 73:3-9
  - 2. 잠 11:28; 23:4-5; 27:24; 28:20-22
  - 3. 욥 31:24-28

II. 잠언의 독특한 관점

- 가. 부는 개인의 수고의 영역에 따른다
  - 1.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비난 - 잠 6:6-11; 10:4-5,26; 12:24,27; 13:4; 15:19; 18:9; 19:15,24; 20:4,13; 21:25; 22:13; 24:30-34; 26:13-16
  - 2. 열심히 일할 것을 격려함 - 잠 12:11,14; 13:11
- 나. 의로움 대 악함을 말하기 위해 가난함 대 부요함을 언급함 - 잠 10:1 이하; 11:27-28; 13:7; 15:16-17; 28:6,19-20
- 다. 지혜(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을 따라 삶)가 부보다 더 낫다 - 잠 3:13-15; 8:9-11, 18-21; 13:18
- 라. 경고와 충고
  - 1. 경고
    - ㄱ. 이웃이 돈을 빌리는 것의 보증서기를 주의하라(보증인) - 잠 6:1-5; 11:15; 17:18; 20:16; 22:26-27; 27:13
    - ㄴ. 악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일을 주의하라 - 잠 1:19; 10:2,15; 11:1; 13:11; 16:11; 20:10,23; 21:6; 22:16,22; 28:8
    - ㄷ. 빌리는 일을 주의하라 - 잠 22:7
    - ㄹ. 재물의 신속히 사라짐을 주의하라 - 잠 23:4-5
    - ㅁ. 심판의 날에 재물이 도움이 되지 않음 - 잠 11:4
    - ㅂ. 재물은 많은 “친구”를 갖게 함 - 잠 14:20; 19:4
  - 2. 충고
    - ㄱ. 관대할 것을 권고함 - 잠 11:24-26; 14:31; 17:5; 19:17; 22:9,22-23; 23:10-11; 28:27
    - ㄴ. 의가 부요함보다 더 낫다 - 잠 16:8; 28:6,8,20-22
    - ㄷ.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위한 기도 - 잠 30:7-9
    - ㄹ.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 잠 14:31

III. 신약의 관점

- 가. 예수
  - 1. 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를 신뢰하게 하는 독특한 유혹을 가져 온다.
    - ㄱ. 마 6:24; 13:22; 19:23
    - ㄴ. 막 10:23-31
    - ㄷ. 눅 12:15-21,33-34
    - ㄹ. 계 3:17-19
  - 2.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하신다
    - ㄱ. 마 6:19-34
    - ㄴ. 눅 12:29-32
  - 3. 씨뿌리는 것은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영적 및 물질적으로)
    - ㄱ. 막 4:24
    - ㄴ. 눅 6:36-38
    - ㄷ. 마 6:14; 18:35
  - 4. 회개가 부에 영향을 미친다
    - ㄱ. 눅 19:2-10
    - ㄴ. 레 5:16

5. 경제적 착취를 정죄함
    - ㄱ. 마 23:25
    - ㄴ. 막 12:38-40
  6.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 마 25:31-46
- 나. 바울
1. 잠언과 같은 실제적인 관점(수고함)
    - ㄱ. 앰 4:28
    - ㄴ. 살전 4:11-12
    - ㄷ. 살후 3:8,11-12
    - ㄹ. 딤편 5:8
  2. 예수님과 같은 영적 관점(물건들은 덧없이 사라짐, 만족하며 살라)
    - ㄱ. 딤편 6:6-10(만족함)
    - ㄴ. 빌 4:11-12(만족함)
    - ㄷ. 히 13:5(만족함)
    - ㄹ. 딤편 6:17-19(관대할 것, 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
    - ㅁ. 고전 7:30-31(물건들이 바뀔 것임)

#### IV. 결론

- 가. 부에 관한 조직적인 성서신학은 없다.
- 나.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완벽한 본문은 없다. 따라서 여러 본문으로부터 자료를 모아야 한다. 당신의 견해를 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본문을 읽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 다. 지혜자들(현인)이 기록한 잠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장르보다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잠언은 실제적이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른 곳에 있는 성경 본문에 의해 균형이 취해질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여 균형을 취해야 한다(참조, 램 18:18).
- 라.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부에 대한 견해와 실제 행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우리의 유일한 지침이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였는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
- 마. 부의 축재는 반드시 참된 예배와 책임있는 청지기의 삶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참조, 고후 8-9 장).

#### 개역개정 6:25-33

<sup>25</sup>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sup>26</sup>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sup>27</sup>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sup>28</sup>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sup>29</sup>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sup>30</sup>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sup>31</sup>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sup>32</sup>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sup>33</sup>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19-24 과의 논리적 연결을 나타낸다.

▣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또 하나의 **현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 빌 4:6 을 보라. 25 절은 앞 단락에 비추어 불 때 일반적 원리를 말하고 있다. KJV 역의 “걱정하지 말라”는 부적절한 번역인데, 그 이유는 오늘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적합하지 않다고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단정코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참조, 딤편 5:8). 이 본문에서 핵심되는 생각은 “염려”이다(참조, 25,27,28,31,34 절).

▣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육체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과의 더 완전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한 훈련장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돌보시며 또한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6:26,28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 새”와 “들 꽃”이라는 번역이 적합한데, 그 이유는 본문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새나 꽃을 특별히 일컫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인 통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산상설교의 배경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근처에 있는 새 떼나 들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가는 랍비들의 해석학적 논증 방법이었다.

6:26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이것은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의 비교로 나가는 랍비들의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셨고 또 그것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를 가질 수 없다. 동물의 삶을 사람의 삶보다 더 귀하게 보려는 것에 주의하라. 동물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양식으로서 또 인간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동물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다! 복음전도가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창조된 많은 동물계가 멸종되었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동물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이 얼마나 비뚤어진 세계관인가! 동물의 권리를 외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태아들보다 곤충을 더 돌아본다!

한 마디 더 말한다면, 동물애호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음에 감정이 없고 배려 없는 사람에 대해 아주 많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우리처럼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하셨다. 동물은 창세기 1 장의 처음 창조에서 한 부분을 이루었고 또 새 창조에서 한 부분을 이룰 것이다(참조, 사 11:6-9).

6:27  
 NASB “그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NKJV “그의 신장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NRSV “너의 수명에 한 시간이라도 더하라”  
 TEV “좀 더 길게 살라”  
 NJB “그의 수명을 한 자라도 더하라”

문자적으로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인 “규빗”을 말한다. 한 규빗은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그의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길이이다. 이 길이는 대략 45 cm 로서 구약에서 건축시 사용되었다. 한편 성전에서 사용한 왕의 규빗은 53 cm 정도였다. 신약에서는 규빗을 높이 혹은 시간에 대해 사용했다: 높이에 대해 사용한 예는 눅 19:3(또한 70 인역의 겔 13:18)에 나오고 시간에 대해 사용한 예는 요 9:21,23 과 히 11:11 에 나온다. 사람이 자신의 신장을 30 cm 가 넘게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1) 나이에 대한 은유 혹은 (2) 동양적인 과장법(과장)에 속할 것이다.

6:30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공급하신다.

▣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빵을 굽기 위해 마른 풀을 사용하여 작은 화덕에 불을 붙이는 일은 흔히 있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은유였다. 신자들은 아름다운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이다.

▣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8:26; 14:31; 16:8). 예수의 가르침은 신자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부정과거 가정법으로서 “염려하기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의미이다(참조, 빌 4:6).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확보할까에 둔 건강하지 못한 강조는 신자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6:32  
 NASB “이는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  
 NKJV “이는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기 때문이라”  
 NRSV “이는 이 모든 것을 위해 분투하는 자는 바로 이방인들이기 때문이라”  
 TEV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들이라”  
 NJB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두는 자는 바로 이방인들이라”

타락한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물질에 대해 만족함이 없는 욕구를 가진 점이다. 신자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을 필요로 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은 아니다.

6:33  
 NASB, NKJV “그러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NRSV “그러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애쓰라”  
 TEV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  
 NJB “너희 마음을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에 두라”

이것은 **현재 명령**으로서 습관에 대한 명령이다. 이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함을 말한다. “그의 의”라는 구는 이곳에서만 윤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울의 저작에서는 법적(법정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윤리적 의미는 마 5:6,10,20; 6:1; 신 6:25; 사 1:27-28; 단 4:27 에 나온다. 이것은 의롭게 살라는 부르심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을 안 후에는 그의 삶이 선행으로 특징지어짐을 암시한다(참조, 엡 2:10). 지위적으로 전가된 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나타내어야만 한다. 4:17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과 5:6의 특별주제: 의를 보라.

“그의 나라”라는 구는 현재 인간의 가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개념이었다. 그의 나라는 어느 날 성취되어 온 땅 위에 드러날 것이다(참조, 6:10). 이것은 예수의 설교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었다. 이 왕국의 원리는 반드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초기의 헬라이어 사본(⌚ 과 B)에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구인 “하나님의”가 없다(참조, NRSV 와 TEV).

“먼저”라는 용어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성령의 “새 시대”가 갖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신 표현이다.

1. 마 5:24,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의 형제와 화해하라
2. 마 6:33, 개인의 필요나 욕구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3. 마 7:5,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평가하라
4. 마 23:26, 삶 전체를 안팎으로 깨끗이 하라

▣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인생의 육체적 일상적 필요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은 일반적 원리이다. 따라서 왜 이 사람은 혹은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하거나 궁핍한가라는 특별한 질문에 대해 항상 답을 줄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궁핍한 때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자신들의 성격을 개선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진술은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시하는 면에서 잠언의 말씀과 비슷하다. 이러한 내용은 각 사람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 개역개정 6:34

<sup>34</sup>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6:34** 이 절은 생각의 연결 고리를 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락한 세상에서 매일 걷는 삶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이 종종 믿는 자에게도 일어난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신자들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에 붙잡혀 있음을 말할 뿐이다.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속임을 받지 않게 하라. 한나 헛홀 스미스의 책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9-34 절은 어떻게 산상수훈 전체와 연관이 있는가?
2.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던 자들이었는가?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저축통장을 갖고 보험을 들고 은퇴계획을 세우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3.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가? 하늘에 쌓는 보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4. 22-24 절의 영적 진리를 당신 자신의 말과 당신의 경험에서 설명하라.
5. 돈은 악한가?
6. 걱정함은 죄인가(31 절)?
7. 33 절은 의롭게 살라는 가르침인가?
8.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는지 설명하라.

# 마태복음 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다른 이를 판단함	판단하지 말라	예수의 가르침의 실제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례들	다른 이를 판단함	판단하지 말라
7:1-6	7:1-6	7:1-5	7:1-5	7:1-5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지 말라
		7:6	7:6	7:6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효과적인 기도
7:7-12	7:7-12	7:7-11	7:7-11	7:7-11
				황금률
		7:12	7:12	7:12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두 길
7:13-14	7:13-14	7:13-14	7:13-14	7:13-14
열매로 나무를 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나무와 열매	거짓 선지자들
7:15-20	7:15-20	7:15-20	7:15-20	7:15-20
나는 결코 너희를 모른다	나는 결코 너희를 모른다		나는 결코 너희를 모른다	참된 제자
7:21-23	7:21-23	7:21-23	7:21-23	7:21-23
두 기초	반석 위에 지으라		두 건축자	
7:24-27	7:24-27	7:24-27	7:24-25	7:24-27
			7:26-27	
			예수의 권위	군중의 놀람
7:28-29	7:28-29	7:28-29	7:28-29	7:28-2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7:1-29의 배경

- 가. 누가복음에 있는 평행본문은 긍정적인 문장인 “...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로 시작한다(눅 6:36-38, 41-42).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의 경우보다 더 간략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길게 기록되었다.
- 나. 이 장에는 접속사 생략(연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헬라어에서는 매우 드물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1,6,7, 13,15 절. 이 방법은 각 진리를 강조하는 문법 구조이다. 예수님의 설교가 통일적인 주제나 구조적 개요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가정에 속한다. 예수께서는 “실로 쉰 진주들”이라고 불리는 랍비들의 일반적 교수 기법을 따라 서로 관련이 없는 주제를 하나로 연결시켰을 것이다. 비록 어떤 주제가 언뜻 보기에는 주위의 문맥에 잘 연결되지 않는 주제로 보일 지라도 그러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1) 문맥 (2)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평행구절에서의 용법에 비추어 이해함이 가장 좋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정하고 그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전체적 주제 및 조직화된 개요를 갖고 있었다.
- 다. 1-12 절을 다음의 면에서 바로 앞의 문맥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1. 1-5 절은 5:20,48의 위험을 나타낸다
  2. 6 절은 감성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랑의 위험을 나타낸다
  3. 7-11 절은 기도가 신자로 하여금 적합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열쇠가 됨을 말한다
  4. 12 절은 왕국의 모든 백성을 특징짓는 위대한 진리의 요약이다
- 라. 산상수훈의 모든 부분과 같이 이 단락도 삶을 흑백으로 칠하고 있다. 1-5 절과 6 절의 관계에 대한 뛰어난 논의는 윌리엄 헨드릭슨의 마태복음 주석에 있다: “주께서는 자신의 청중에게 남을 판단하기를 삼가도록 말씀하시지만(1-5 절) 그럼에도 판단하라고 말씀하신다(6 절); 외식적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비판적이 될 것을 말씀하신다; 겸손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무 참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360 쪽).
- 마. 이 내용이 복음의 제시가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에서의 윤리적 삶에 대한 가르침임을 기억하라. 세 가지 주요 진리는 다음과 같다
1. 지나친 종교성의 죄
  2. 하나님께 대한 예수의 가르침의 우월성
  3.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및 우리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 바.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직면한 선택과 관련하여 서너 개의 초청과 경고로 끝마친다(7:13-27): (1) 두 길 (2) 두 열매 (3) 두 직업 (4) 두 기초. 이것은 모두 지금 현재의 행동에 기초한 마지막 때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
- 사. 28 절은 마태의 요약적 진술이다. 마태는 예수님의 다섯 설교를 모두 요약적 진술로 끝맺는다. 이 설교들은 마태가 전한 복음서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1. 7:28
  2. 11:1
  3. 13:53
  4. 19:1
  5. 26:1
- 아.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복음이 완전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청중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고 또 그의 제자가 되어 따름이 박해, 거부받음, 죽음을 요구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깨달았던 것은 아니다.

개역개정 1:1

<sup>1</sup>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sup>2</sup>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sup>3</sup>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sup>4</sup>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sup>5</sup>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7:1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이 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전혀 판단해서는 안됨을 입증하는 본문으로써 종종 인용된다. 그러나 5, 6, 15 절; 고전 5:1-12; 요일 4:1-6 은 신자가 서로를 영적으로 평가해야함을 예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우리의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참조, 갈 6:1; 롬 2:1-11; 14:1-23; 약 4:11-12).

▣ “비판” 이 헬라이어 단어는 영어 단어의 “비평”과 어원적으로 같은 배경을 갖는다. 5 절에는 이와 같은 어근을 같은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외식하는”으로 번역되었다. 이 단어는 다른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정도를 넘어 엄격히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죄를 다른 종류의 죄보다 강조함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으려 함을 뜻한다(참조, 삼하 12:1-9).

특별주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두 가지로 다루어야 한다.

1. 신자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도록 권고받는다(참조, 마 7:1-5; 눅 6:37,42; 롬 2:1-11; 약 4:11-12).
2. 신자들은 지도자들을 평가하도록 권고받는다(참조, 마 7:6,15-16; 고전 14:29; 살전 5:21; 딤후전 3:1-13; 요일 4:1-6).

적절한 평가를 위한 기준이 유용할 것이다

1. 평가는 긍정적 인정을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참조, 요일 4:1 - “시험하다”는 인정을 하기 위한 관점을 갖는다)
2. 평가는 겸손함과 온유로써 행해져야 한다(참조, 갈 6:1)
3. 평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4. 평가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지도자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다(참조, 딤후전 3 장).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수동태 동사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구조는 마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두려말하기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참조, 롬 7:1-25; 요일 1:9-2:1). 다른 이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은 어리석은 일로 되는데 이는 이같은 치명적인 경향이 비록 같은 영역은 아닐지라도 모든 신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7:2 2 절의 헬라이어 본문은 리듬이 있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잠언이었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진술을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이 절은 신약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참조, 마 5:7; 6:14-15; 18:35; 막 11:25; 약 2:13; 5:9).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대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은 거저로 아주 용서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적합한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7: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고전 헬라이어 저자들은 “티”를 새집의 자료에 대하여 사용했다. 따라서 이것은 풀잎 조각 처럼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

▣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동양적인 과장법이다. “들보”는 건축용 목재나 들보로 사용된 커다란 나무 조각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영적 진리를 말하기 위해 과장법이라는 문학형식을 종종 사용하셨다(참조, 마 5:29-30; 19:24; 23:24).

7:5 “외식하는 자여” 이 합성어는 연극무대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판단하다”와 “아래서”라는 두 헬라이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행동하는 것과 삶이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눅 18:9).

이러한 종류의 행위에 대한 좋은 실례를 다윗의 삶에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삼하 12:1-9). 예수께서는 자기 의로 가득찬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5:20; 6:2,5,16; 15:1,7; 23:13 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

이 절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신자의 배려가 마땅히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즉 알아잡아보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을 것을 말한다. 갈 6:1 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권면하고 고쳐줌에 있어서 가질 적합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 말한다. 교회는 항상 그 지도자들과 각 구성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권면해야 한다.

### 개역개정 7:6

<sup>6</sup>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부정과거 가정법으로서 “이 행동을 취할 것을 결코 생각하지 말라”의 의미이다.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정경 밖의 책인 *디다케*는 이 절을 침례(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주의 만찬에서 그들을 제외시켰다(*디다케* 9:5 과 *티툴리안*의 *테프레스* 41).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또 (2)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이다. “거룩한 것”에 대하여는 산상수훈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나사렛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개”(참조, 15:26,27) 혹은 “돼지”로 말씀하신 것은 주석가들을 많이 놀라게 했다. 이 두 동물은 주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에서 악하고 혐오스러움을 뜻했다. 이 용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이들은 자기 의로 가득찼던 유대 지도자들 및 팔레스타인에 사는 무정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가리켰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예언적인 내용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군중에 의해 거부당하고 죽음을 뜻할 수 있다. 한편 교회생활을 볼 때 이 용어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윌리엄 핸드릭슨은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예를 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359 쪽)고 설명한다. 이러한 예가 마 10:14 에 기록되었다: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참조, 행 13:51; 18:5-6). 이 말이 빌 3:2-3 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계 22:15 에서 새 하늘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 “진주”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값진 물건이었다.

### 개역개정 7:7-11

<sup>7</sup>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sup>8</sup>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sup>9</sup>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sup>10</sup>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sup>11</sup>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7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명령법으로서 삶의 양식과 습관에 대한 명령이다(참조, 신 4:29; 렘 29:13). 인간의 끈덕짐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성품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하신도록 강요할 수 없다. 동시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하늘 아버지께 어떤 필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예수께서는 겐세마네에서 같은 기도를 세 번 드리셨다(참조, 막 15:36,39,41; 마 26:39,42,44). 바울도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인해 세 번 기도드렸다(참조, 고후 12:8). 그러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간구한 내용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았는가 아니라 우리가 성부와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18:19 에 있는 특별주제: 제한이 없으면서도 제한이 있는 기도를 보라.

7:8-10 끈질김이 중요하다(참조, 눅 18:2-8). 한편 이것은 내키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사와 염려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말로 기도하거나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일은 성부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시게 하지 않는다. 신자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삶이다.

7:9-10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기도의 신비를 제시하셨다. 마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누가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참조, 눅 11:12). 각 예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정의한다(참조, 눅 11:13). 사실 우리의 성부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우리의 적절치 않고 이기적인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예는 모두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여 말씀한다: 돌을 빵으로, 생선을 뱀으로, 달걀을 몸을 튼 흐릿한 전갈로 비교하고 있다.

9 절과 10 절의 질문은 “아니오”라는 답을 암시한다(16 절의 경우에도).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다른 면에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있음을 완곡하게 확인하는 표현이다(참조, 롬 3:9,23). 악한 인간과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 대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유사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눅 11:13 에는 “좋은 것”대신에 “성령”을 말한다. 누가복음에는 관사가 없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의미할 수 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신자가 구원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주장하기 때문이다(참조, 롬 8:8; 갈 3:2,3,5,14). 한편 성령충만은 신자의 의지에 기초하여 반복될 수 있다(참조, 엡 5:18).

**개역개정 7:12**

**<sup>12</sup>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12** 이것은 종종 황금률로 불린다(참조, 눅 6:31). 이 요약적 진술은 신자들이 새 마음을 가진 왕국 백성임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경향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 잠언이 긍정적 의미를 갖게 하실 수 있으시다. 부정적 형태의 내용은 랍비들의 저작에서 알려지고 있다(참조, 토빗 4:15; 탈무드 *b* *샤브* 31a 에 있는 랍비 힐렐의 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이 절은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적절한 강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아는 것 및 평화와 착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동료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뜻하는 좋은 말이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 곧 선과 정의를 행하도록 요구한다.

▣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정경에서 그 중 두 부분의 이름이다. 이 표현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 관용법적 표현의 축약형이다(참조, 5:17).

이것이 구약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이 요약적 진술을 제시하심은 매우 특별하다(참조, 마 22:34-40; 막 12:28-34). 이 말은 1 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참조, 롬 13:9).

**개역개정 7:13-14**

**<sup>13</sup>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sup>14</sup>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7:13** 이 절이 (1) 문에 들어간 다음 길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2) 문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가 (3) 혹은 히브리 평행법의 한 예인가? 문이 먼저 언급된 후 길이 나오는 점은 이 내용이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후 새 왕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생기는 약간의 혼동은 3 중적으로 표현된 성경적 구원과 관련이 있다: (1) 최초의 믿음과 회개 (2) 그리스도를 닮는 삶 (3) 종말론적 완성. 이 비유는 눅 13:23-27 과 평행을 이룬다. 6:6 의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문”의 용법을 보라.

▣ **“좁은 문”** 이러한 잠언적 진리는 전통적으로 “두 길”로 알려졌다(참조, 신 30:15,19; 시 1 편; 잠 4:10-10; 사 1:19-20; 렘 21:8).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기 어렵다: (1) 제자들 (2) 바리새인 혹은 (3) 군중. 전체의 문맥은 이 절이 5:20 및 5:48 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 절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서와 같이 제한시키는 의미에서의 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삶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규정용 사용하시지만(참조, 마 11:29-30), 그 규정들은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절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맥에서 본다면(참조, 6:7,32), 이 내용은 예수를 구원자(문)와 주님(길)으로 모시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13-27 절에서 살펴 보면 종교적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련의 대조가 나온다.

1.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두 길(13-14 절)
2. 종교적 지도자들의 두 유형(15-23 절)
3. 종교적 삶의 두 기초(24-27 절)

어떤 종류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로 부터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한다. 이 절은 “내가” “지금” 사는 삶에 대해 말한다(참조, 사 29:13; 골 2:16-23). 참된 제자는 현재 임하여 있고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놓는다.

▣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은 (1) 삶의 양식에 대한 은유 (2) 교회가 가진 최초의 호칭을 말할 것이다(참조, 행 9:2; 19:9,23; 22:4; 24:14,22; 18:25-26). 이 절은 구원이 문화의 흐름에 잘 들어 맞는 쉬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함을 낳는 삶의 결정적 변화임을 나타낸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얻는 결과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종종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인다(참조, 사 29:13; 마 7:21-23; 골 2:23)!

헬라이어 사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변이가 이 문장에 있다. 이 절의 앞 부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문자체 사본인  $\aleph$ , 몇 고대 라틴 사본, 어떤 별게이트 사본, 사복음대조서, 클레멘트와 유세비우스가 사용했던 헬라이어 본문에서는 “문”이 생략되어 있다. 이 단어는 대문자체 사본인  $\aleph^1$ , B, C, L, W 및 몇 고대 라틴어역, 별게이트, 시리아어, 콥틱 사본들에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단어가 균형을 위해 삽입되었는가” 아니면 “실수로 빠졌는가”의 질문이 생긴다. UBS4 는 긴 본문(즉, 이 단어가 포함된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한편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든 없든 본문의 뜻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 사실은 현존하는 5,300 개의 헬라이어 신약사본에 나타나는 변이의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도 그렇다. 브루스 멧츠거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대한 본문 주석(19 쪽)을 보라.

**7:14** 이 내용은 “쉽게 믿기”를 선호하는 시대에게 필요한 균형을 제공한다! 이 절은 기독교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 박해가 많이 있을 것임을 말한다. 이 절에 있는 “좁은”은 신약의 다른 곳에 나오는 “환란” 혹은 “핍박”과 같은 어근을 가진다. 여기의 강조점은 마 11:29-30에 있는 것과 정반대이다. 이 두 절은 “문”과 “길”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지만(참조, 롬 3:24; 5:15-17; 6:23; 엡 2:8-9),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가져야 할 매우 값진 진주가 된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지불하여야 한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표현은 마 7:13과 눅 13:23-24을 비교하여야 알 수 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구원받는 자보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더 많게 되는가? 또 이 절은 이러한 숫자적인 구분을 하고 있는가? 이다.

**개역개정 7:15-20**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것은 **현재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종종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셨다(참조, 마 24:4,5,11,23-24; 막 13:22).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 내기가 언제나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개 자기들의 메시지 안에 어떤 진리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의 동기를 언제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신 13:1-3; 18:22
2. 딤후 1:16; 요일 4:7-11
3. 요일 4:1-3,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5-20 절은 열매를 통한 점검에 대해 말하고, 21-23 절은 좋아 보이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말한다. “문”과 “길”, 처음의 믿음과 믿음의 삶 둘 다 있어야 한다!

▣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는 양의 뿌리 깊은 원수이다(참조, 마 10:16; 행 20:29).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가진 어려운 점은 그 길에는 거짓 메시지로써 우리를 현혹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뜻한다(참조, 엡 4:14). 대개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특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보인다! 21-23 절은 얼마나 양처럼 보이게 이리가 행동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7: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 이것은 **미래 직설법**이 **현재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또한 20 절을 보라). 이 절의 질문은 예상되는 답으로서 “아니다”를 갖는다(10 절도 같음). “알지니”는 선지자들이 거짓 설교가들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함을 강하게 내포한다. 우리는 그들이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그들의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그들의 열매인가에 대해 질문이 종종 생기지만, 사실상 두 가지 다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열매에 속한다.

1. 그들의 가르침(참조, 신 13:1-3; 18:22; 눅 6:45; 요일 4:1-3)
  2. 그들의 행함(참조, 눅 3:8-14; 6:43-47; 요 15:8-10; 엡 5:9-12 골 1:10; 딤후 1:16; 약 3:17-18; 요일 4:7-11)
-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다음의 내용에 영향을 준다
1. 그들의 참된 자아
  2.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쌍둥이 진리인 절대적으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초청 및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요구를 함께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 둘은 진리이다! 이 점에 대한 좋은 논의는 맨프레드 T. 브로의 **오용되는 성경** 104-116 쪽에 있다.

**7:19** 침례(세례)요한이 같은 내용을 3:10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려진 잠언으로 여긴다.

**개역개정 7:21-23**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능동 분사**이다. 그들은 이 말을 하고 또 했다.

▣ “주여 주여” 랍비들은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이 애정을 나타낸다고 말했다(참조, 창 22:11).

헬라이어 단어인 *κλιος*는 1 세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단순히 (1) “~님” (2) “달인” (3) “주인” (4) “남편”을 뜻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 문맥에서는 보통 YHWH(야웨, 참조, 출 3:14)로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역된다. 이 문맥에서 볼 때 이들은 예수께 대한 신학적 진술을 하지만 주님과 그의 인격적 관계는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다. 예수의 초기 사역에서 이 용어에 포함된 무게있는 신학적 진리를 얼마만큼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베드로 또한 초기에 이 신학적 호칭을 예수께 사용했다(참조, 눅 5:8). 같은 내용이 눅 6:46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사람이 말로 고백함과 순종함을 연결시키신다. 한편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장면은 종말론적이다—이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의 때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 신앙을 버린 것인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특별주제: 배교(아피스테미)**

헬라이어 용어 *아피스테미*는 어원적으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 단어인 “배교”는 이 용어로부터 파생되었고 그 단어의 사용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늘 그렇듯이 문맥이 열쇠이지, 정해놓은 정의가 열쇠는 아니다.

이것은 “~로부터” 또는 “~을 떠나서”의 의미인 전치사 *아포와* “않다,” “서있다,” 또는 “고치다”의 의미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이다. 다음의 사용법을 주목하라(비신학적 용법):

1. 물리적으로 옮기다
  - ㄱ. 성전으로부터, 눅 2:37
  - ㄴ. 집으로부터, 막 13:34
  - ㄷ. 사람으로부터, 막 12:12; 14:50; 행 5:38
  - ㄹ. 모든 것으로부터, 막 19:27,29
2. 정치적으로 옮기다, 행 5:37
3. 이성적으로 옮기다, 행 5:38; 15:38; 19:9; 22:29
4. 법적으로 옮기다(이혼), 신 24:1,3(70 인역)과 신약, 마 5:31; 19:7; 막 10:4; 고전 7:11
5. 빛을 옮기다, 마 18:24
6. 떠남으로 무관심을 보이다, 마 4:20; 22:27; 요 4:28; 16:32
7. 떠나지 않음으로 관심을 보이다, 요 8:29; 14:18
8. 허락하거나 승인하다, 마 13:30; 19:14; 막 14:6; 눅 13:8

신학적 의미에서 동사는 또한 여러 가지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1. 죄의 잘못을 무효로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출 32:32(70 인역); 민 14:19; 욥 42:10 과 신약, 마 6:12, 14-15; 막 11:25-26
2. 죄에서 떠나다, 딤후 2:19
3. 떠남으로 버리다
  - ㄱ. 율법, 마 23:23; 행 21:21
  - ㄴ. 믿음, 겔 20:8(70 인역); 눅 8:13 살후 2:3; 딤후전 4:1; 히 2:13

오늘날 믿는 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한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믿음과 신실함을 나누는 현대의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이 있다.

- I. 구약
  - 가. 열 두(열) 정탐군들의 보고를 들었던 자들, 민 14 장(참조, 히 3:16-19)
  - 나. 고라, 민 16 장
  - 다. 엘리의 아들들, 삼상 2, 4 장
  - 라. 사울, 삼상 11-31 장
  - 마. 거짓 선지자들(예들)
    1. 신 13:1-5; 18:19-22(거짓 선지자임을 아는 방법)
    2. 렘 28 장
    3. 겔 13:1-7
  - 바. 거짓 여 선지자들
    1. 겔 13:17
    2. 느 6:14
  - 사.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예들)
    1. 렘 5:30-31; 8:1-2; 23:1-4
    2. 겔 22:23-31
    3. 미 3:5-12

## II. 신약

가.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포스타시즈*이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재림 전에 악과 거짓된 가르침이 횡횡할 것을 말한다(참조, 24:24; 막 13:22; 행 20:29,30; 살후 2:9-12; 딤후 4:4). 이 헬라어 단어는 눅 8:13에 있는 밭의 비유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참조, 행 20:29-30; 요일 2:19); 진실되지만 미성숙한 신자들을 그들이 유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참조, 히 3:12).

신학적 질문은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이었을까라는 점이다. 지역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참조, 요일 2:18-19). 종종 우리의 신학적, 교파적(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목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절을 인용하는 방법 외에는) 전통은 명확한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준다.

나. 외관상의 믿음

1. 유다, 요 17:12
2. 마술사 시몬, 행 8장
3. 마 7:21-23에서 말하는 사람들
4. 마 13장; 막 4장; 눅 8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5. 요 8:31-59의 유대인들
6. 알렉산더와 후메내오, 딤편, 1:19-20
7. 딤편 6:21에 나오는 사람들
8. 후메내오와 빌레도, 딤후 2:16-18
9. 데마, 딤후 4:10
10. 거짓 선생들, 벵후 2:19-20; 유 12-19
11. 적그리스도들, 요일 2:18-19

다. 열매없는 믿음

1. 고전 3:10-15
2. 벵후 1:8-11

우리의 조직신학(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등)이 정해진 답을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 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주제를 꺼냈다고 나에게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관심은 바른 성경해석학적 과정에 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지, 미리 설정된 신학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자주 고통과 놀라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신학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 아니고 교파적, 문화적, 관계적(부모, 친구, 목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예, 롬 9:6).

▣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은 **미래 직설법**이다. 왕국은 예수님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 용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왕국”과 평행을 이루는 구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는 “하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곡어법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절은 미래를 지향하지만 마 3:2은 현재 지향적이다. 천국은 어느날 온 땅 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마 6:10의 기도의 모범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준다.

▣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이어지는 다음 몇 절의 실제적 초점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는 모습은 그들이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있다. 이러한 점은 23절과 24, 26절의 결론적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진술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참조, 요 6:29,39-40). 이 개인적 관계는 바로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지 못한 영역이었다(참조, 23절).

이러한 변증법적 혹은 역설적 구조는 성경 진리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은 최초의 결단(문)과 계속적인 삶의 양식(길) 둘 다이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뜻(셀레마)**

**요한복음**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참조, 4:34; 5:30; 6:38)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것(참조, 6:39)
- 아들을 믿는 모든 자(참조, 6:29, 40)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응답받는 기도(참조, 9:31; 요일 5:14)

**공관복음**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마 7:21)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참조, 마 12:5; 막 3:35)
- 어떤 것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참조, 마 18:14; 딤후 2:4; 벰후 3:9)
- 갈보리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마 26:42; 눅 22:42)

**바울서신**

- 모든 믿는 자들의 성숙과 봉사(참조, 롬 12:1-2)
-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참조, 1:4)
- 하나님의 뜻은 그의 구속 계획이었다(참조, 엡 1:5,9,11)
- 성령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사는 믿는 자들(참조, 엡 5:17)
-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믿는 자들(참조, 골 1:9)
-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골 4:12)
- 거룩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살전 4:3)
-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는 자들(참조, 살전 5:18)

**베드로 서신**

- 옳은 것을 행하는 믿는 자들(즉,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 따라서 잠잠한 어리석은 자들, 이들은 복음전도의 기회를 제공한다(참조, 벰전 2:15)
- 고통 받는 믿는 자들(참조, 벰전 3:17; 4:19)
-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믿는 자들(참조, 벰전 4:2)

**요한서신**

- 영원히 사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2:17)
-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되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5:14)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헬라이어 질문의 구조는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그 날에”라는 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 날은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부활의 날 혹은 심판의 날로 불린다.

▣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구는 “주님의 권위로” 혹은 “주님의 제자로서”라는 뜻이다. 23 절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이 경건한 일이었음을 주목하라. 그러나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열매는 열매 없는 관계와 똑 같이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와 똑 같은 형태의 기적을 예수님의 참 제자들도 행했는데(참조, 10:1-4) 그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다! 기적을 행함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임을 뜻하지 않는다(참조, 마 24:24; 살후 2:9-10). 종교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일은 비극이다.

▣ “귀신을 쫓아 내며” 10:1의 특별주제: 귀신을 쫓아냄과 10:1의 특별주제: 사탄의 것을 보라.

7: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헬라이어 용어는 공개적으로 “공언하다” 혹은 “인정하다”를 뜻한다(10:32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진술의 의도는 예수께서 심판을 행할 지위와 권위를 갖고 계신 것과 또한 그 심판이 주께 대한 개인의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것은 헬라이어에서 강력한 문법적 구문으로 되어 있다. “알다”는 구약적 배경을 가진 용어로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뜻한다(참조, 창 4:1; 렘 1:5). 22 절에서 언급된 종교적 행위가 이 같은 자기 기만적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두렵다(참조, 고전 13:1-3).

▣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되는 명령을 나타내며, 문자적으로는 “내게서 떠나기를 계속하라!”이다. 따라서 이 명령이 의도하는 바는 “네가 이미 떠났다—계속 그렇게 하라!”이다. 이것은 시 6:8의 암시이다.

▣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듯 분명히 효과적인 사역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개역개정 7:24-25

<sup>24</sup>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sup>25</sup>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sup>26</sup>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sup>27</sup>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7:24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6:47-49)에서 독특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신 6:1 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인 *שמע*의 개념과 비슷하다. 그곳에서는 이 단어가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 들어라”라는 의미이다. 기독교는 (1) 지식 (2) 개인적 응답 (3) 섬기는 삶과 관련을 가진다. 두 건축자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지는 점이 흥미롭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범주에서 이에 응답한 종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처럼 보인다.

7:24-27 이 절들은 마 13 장에 있는 씨 뿌림의 비유에서 말하는 진리와 비슷하다.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핍박과 역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핍박받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높은 일이다(참조, 요 15:20; 16:33; 행 14:22; 롬 8:17; 살전 3:3; 딤후 3:12; 벧전 2:21; 4:12-16).

7:26 두 건축자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말씀을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이에 응답한 종교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처럼 보인다. A. T. 로벗슨은 *신약의 단어 그림*에서 “만일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설교를 듣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했다(63 쪽). 나는 그의 말에 한 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즉, 설교문을) 쓰고 그들에게 전달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위험한 일이다.

개역개정 7:28-29

<sup>28</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sup>29</sup>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7: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주요 단락을 끝맺음하기 위해 여러 번 이 구를 사용했다(참조, 7:28; 11:1; 13:53; 19:1; 26:1). 이러한 결구는 책 전체의 개요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달랐다. 예수께서는 이전의 선생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위에 권위를 두셨다. 예수께서 가지신 이 권위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한 특징이다(참조, 8:9; 9:6,8; 10:1, 21:23-24,27; 28:18). 예수께서는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즉, 새 모세 혹은 율법의 새 수여자)요 최후의 재판장 되심을 주장하셨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인가?
2. 6 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3. 7 절은 인간의 끈기가 기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4. 13 절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움을 뜻하는가? 두 길은 정확히 무엇인가?
5. 당신은 어떻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가?
6. “열매”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7.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없이도 능력있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가?
8.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듣는 것과 행함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9. 그리스도인의 삶에 핍박이 필요한 것인가?

# 마태복음 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  8:1-4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  8:1-4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  (8:1-9:38)  8:1-4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심  8:1-2  8:3-4	피부병 걸린 남자의 병고침  8:1-4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8:5-13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8:5-13	8:5-13	예수께서 로마 장교의 종을 고치시다  8:5-6  8:7  8:8-9  8:10-13b  8:13c	백부장의 종의 병고침  8:5-13
많은 사람을 병고침  8:14-17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  8:14-15  많은 사람이 안식일 해진 후에 고침을 받다  8:16-17	8:14-17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8:14-15  8:16-17	베드로의 장모를 병고침  8:14-15  수많은 병고침  8:16-17 (17b)
예수를 따르고자 한 자들  8:18-22	제자됨의 비용  8:18-22	8:18-22	예수를 따르고자 한 자들  8:18-19  8:20  8:21  8:22	무조건적 헌신  8:18-20  8:21-22
풍랑을 잠잠케 하심  8:23-27	바람과 물결이 예수께 순종하다  8:23-27	8:23-27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다  8:23-27	풍랑을 잠잠케 하심  8:23-27
가다라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8:28-34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  8:28-34	8:28-34	예수께서 귀신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8:28-29  8:30-31  8:32  8:33-34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  8:28-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8:1-34의 배경

가. 8장과 9장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아니라 질병과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10가지 기적이 들어 있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이다. 이러한 기적이 산상설교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적을 행하심은 (1)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2) 종말론적 배경의 실재를 보여주며 (3) 하나님께서 공회히 여기심을 나타낸다.

나. 이 장에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은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나온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다.

1. 나병 환자 - 2,4 절(마 10:8; 11:5; 26:6; 눅 5:12-14; 17:11-14)
2. 이방인(즉, 로마 군대의 장교) - 5-13 절(참조, 막 7:26-30,31-37)
3. 여자 - 14-15 절(참조, 눅 8:2,43-48; 7:36-50; 13:10-12)
4. 귀신 들린자, 16,28 절

이 목록은 쉽게 확장될 수 있다.

1. 어린 아이 - 18:2(새 신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에서); 막 10:13-16; 눅 18:15-17
2. 가난한 자
3. 사마리아인들 - 눅 10:30-37; 17:15-19; 요 4:1-54
4. 세리 - 막 2:15-17; 눅 5:27-32; 15:1 이하; 19:1-10
5. 죄인들(구전으로 전해진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들) - 마 9:10-11; 11:10; 눅 15:2; 18:13; 요 9:16,24,25,31

이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과 이들을 고치신 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참조, 11:5, 이것은 사 35:5-6 과 61:1의 인용이다, 또한 눅 7:22에 있는 평행구절을 주목하라).

다. 시간, 장소 및 다른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이들 사건에 상이점이 있다. 이러한 상이점은 (1) 각 복음서 저자가 영감을 받아 복음전도적이고 문답적 형태로 예수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의 상이함 (2) 목격자적 기록의 진실성을 나타낸다. 우리는 공관복음의 저술과 관련하여 “왜”와 “어떻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이 신뢰할 수 있고, 영감 받은 것이며, 우리의 삶에 대해 권위를 갖는 것임을 확증한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8:1-4

<sup>1</sup>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sup>2</sup>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sup>3</sup>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sup>4</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8: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이 진술과 5:1의 내용은 하나의 문학적 구조를 형성한다. 마태는 5-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이는 예수께서 제 2의 율법 수여자로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 온 것처럼 산에서 내려오신 것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는 새 법을 주신 분이시지 그것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기적을 행하심의 목적은 메시지의 유효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타락한 인간은 영원하고,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것 대신에 일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항상 끌린다!

8: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영어의 “나병”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비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이 고대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명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피부병을 일컫는 단어이다. 레위기 13 장과 14 장은 구약에서 나병을 다루는 실례를 보여준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나아 온 일은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나병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생긴 질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구약적 신학적 근거는 웃시아 왕의 경우이다(대하 26:16-23).

▣ “주여” 이것은 *κυριος*라는 단어이다. 이 호칭은 “~님”과 같은 예의를 나타내는 호칭이었거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신학적 칭호였을 것이다. 문맥을 볼 때 이 호칭의 사용에는 의도성이 있다. 종종 이 문맥의 경우처럼 불분명하다.

▣ “원하시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기적 행하신 일을 이미 들었고,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

8: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구약의 명령에 기초한 당시 문화에 어긋나는 일이었다(참조, 레 13:45-46). 이 일은 예수께서 긍휼하심, 두려움이 없으심,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려는 소원을 가지셨음을 보여 준다(참조, 5:21-48).

▣ “내가 원하노니” 그 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이 일을 원하실지 확신을 갖지 못했다!

8:4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러한 진술은 공관복음에 있는 메시아의 비밀로 종종 불린다(참조, 마 8:4; 9:30; 12:16; 16:20; 17:9; 막 1:44; 3:12; 5:43; 7:36; 8:30; 9:9; 눅 4:41; 5:14; 8:56; 9:21). 이는 예수께서 단순히 병고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참조, 17:9; 막 9:9).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에서 자신에게 응답할 것을 아셨다.

▣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 . .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예수께서 레위기 13-14 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확증하기 위해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참조, 막 1:44; 눅 5:14; 17:14). 사도행전의 앞 부분에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믿었다(참조, 행 6:7).

#### 개역개정 8:5-13

<sup>5</sup>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sup>6</sup>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sup>7</sup>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sup>8</sup>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sup>9</sup>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sup>10</sup>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sup>11</sup>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sup>12</sup>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sup>13</sup>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8:5 “가버나움” 이 도시는 나사렛에서 거부 당하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참조, 4:13). 이곳은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곳에 자기 집이 있었다.

▣ “한 백부장” 유대인 사회에서 나병환자(2 절) 만큼 소외된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장교들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의 사랑을 입증한다. 예수께서 가다라 사람들(8:28, 34), 시로보니게 여인(15:21-28)을 만나 주신 일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눅 7:1-10 에 있는데 같은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다.

8:6 “내 하인” 누가 복음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 커다란 사랑을 가졌다고 기록한다(행 10 장의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하인 소년에게 대해 커다란 사랑을 가졌다고 말한다. 신약 전체에 걸쳐 백부장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

8:7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것은 강조형으로 쓰인 “나”의 용법이다. 8 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려는 전대미문의 일을 설명한다. 즉 주께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엄격히 금기시된 일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려 한다.

8:8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표현을 다음의 사람들이 말했다

1. 침례(세례)요한 - 3:11; 막 1:7; 눅 3:16

2. 로마 백부장 - 8:8; 눅 7:6

신학적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받아 주심을 누리기 전에 자신의 영적 필요(참조, 마 5:3-6)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권위의 의미를 알았다. 그는 어떤 의식이나 마술적인 주문 혹은 예수께서 병고침을 위해 그곳에 계셔야 함도 요구하지 않았다.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자들을 보냈다: (1) 유대인 장로들(참조, 눅 7:3-5) (2) 자신의 친구들(참조, 눅 7:6). 이것은 같은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중요한 점은 이 기록이 맞는냐가 아니라 왜 저자들은 그들이 한 그 방법으로 기록했는가 하는 점이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127-148 쪽)를 보라.

유대와 헬라의 병고치는 자들은 주문을 외우고 마술을 사용하고 특별한 의식을 행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고치셨다. 이 일은 다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1. 예수와 창조주 관계(즉, 창 1 장)
2. 예수의 개인적 권위(참조, 16 절)
3. 예수께서 당시의 병고치는 자들과의 차이점

이것이 바로 요 1:1 에서 로그스(말씀)라는 호칭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적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손을 댄(참조, 8:3) 혹은 말씀하심(참조, 8:8), 귀신 내쫓음(참조, 8:16)을 통해 병을 고치셨다. 그는 권위로 말씀하셨고(참조, 7:28-29), 권위로써 병을 고치셨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 . . .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참조, 1:22; 2:15,17,23; 4:14; 8:17; 12:17; 13:35; 21:4; 22:31; 24:15; 27:9)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예수와 그가 시작하신 새 시대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흥미롭다.

8:10  
 NASB  
 NKJV  
 NRSV  
 TEV  
 JB  
 NJB

“진실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엄숙히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께서 강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었다. 헬라어 저작에서 이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다. “아멘”을 한 번 혹은 두 번 사용함으로써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의 개인적 권위는 물론 진술의 중요성을 더한다.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8:11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됨을 암시한다(참조, 사 25:6-9; 말 1:11; 눅 13:22-30). 이 로마 군인의 믿음은 예수께서 만났던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컸다. 이방인과 가진 이러한 만남은(즉, 마 15:28; 21:32; 막 7:24-30; 눅 10:30-37; 17:11-19)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의 강력한 인정과 더불어서 복음이 모든 이를 위한 것이고 복음에 복음전도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참조, 마 15:28; 22:2-14; 28:18-20; 눅 7:9; 24:47; 행 1:8). 이 어법은 마지막 때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라는 개념에서 온 것이다(참조, 사 25:6-9; 눅 14:15; 계 19:9). 예수께서는 이 족장들이 하늘의 왕국(즉, 새 시대)에서 살아 있음을 말씀한다. 신자들은 물론 이 족장들도 마지막 때의 사건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 절은 사후에 있을 삶의 실재성에 대해 또한 신자가 하나님과 누리고 또 다른 신자들과 가질 교제에 대한 약속이 사실임을 강력히 증거한다.

8: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그들은 단지 인종적이고 율법적이며 의식을 행하는 종교를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았을 뿐이었다(참조, 사 6:9-10; 29:13; 마 15:14). 그들은 자기들의 인종적 배경 및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만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찼다(참조, 마 3:9). 12 절에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많은 자들이 이에 포함될 것이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자들이 이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확증하신다(참조, 21:43; 눅 13:28).

▣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은유적 표현은 마 13:42,50; 22:13; 24:51; 25:30 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에 처하는 무서움을 설명해준다(계 1: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각 남자와 각 여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 그들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한다(참조, 25:31-46). 예수를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처할 음산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구약에서 “이를 갈”은 “격노”를 나타낸다(참조, 욥 16:9; 시 35:16; 37:12; 112:10; 애 2:16). 이것은 행 7:52 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서 이 표현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가져 올 슬픔과 고통을 나타낸다(즉, 계 1:18에서 하나님과의 분리).

개역개정 8:14-17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8:14 “베드로 . . . 그의 장모” 베드로는 결혼했다(참조, 고전 9:5).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결혼이 정상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창 2:24 에서 주신 명령을 인해 결혼은 의무에 속한다고 랍비들은 말했다. 우리는 그의 아내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의 아내는 죽었을 것이다. 복음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

8:16 “저물때” 안식일의 끝이 이르렀다(막 1:32). 그래서 안식일에 병고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의 집 앞에 나아왔다. 안식일은 금요일의 황혼 때에 시작하여 토요일 황혼 때에 끝났다. 이것은 창세기 1:5,8,13,19,23,31 에 있는 창조의 날의 순서를 따른다.

▣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 . .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신약에는 항상 귀신들림과 육체적 질병을 구분하여 말한다. 때때로 귀신이 육체적 문제를 가져오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육체적 질병과 병을 귀신이 일으킨 것으로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 10:1 의 특별주제: 귀신(더러운 영)을 보라.

8:17 이것은 사 53:4 의 인용이지만 맞소라 본문(히브리어)이나 70 인역(헬라이어 번역본)의 것이 아니다. 이곳은 신약에서 이 절을 인용한 유일한 곳이다. 오늘날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 절에 근거하여 육체의 병을 고침이 구속에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절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질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또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나 기도로 반응하기만 하면 저절로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 증거가 없다(참조, 고후 12:8-10; 딤후 4:20).

시 103:3b 또한 이 주제와 관련되어 종종 인용된다. 히브리 시에서 103:3a 절과 3b 절 사이에 평행법이 있다. 이 둘은 영적 용서함을 가리킨다. 구약에서 육체의 질병은 영적 문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즉, 사 1:5-6). 랍비들은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참조, 약 5:14-16).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44-45 쪽)을 보라.

개역개정 8:18-22

18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8:19 “서기관”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탈무드)과 기록된 전통(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였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 지역에서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을 감당했다. 그들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일상생활의 일들에 적용해야 할지를 제시했다. 12:38 의 특별주제: 서기관을 보라. 예수님 당시 그들의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었다(22: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선생님” 이것은 “선생”(디다스칼로스의 호격(디다스칼레)이다. 이 단어는 “선생”(문자적으로 “위대한 사람,” 참조, 요 1:38; 30:16)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을 가리켰다(즉,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임).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다음의 사람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1. 유대인 선생들 - 눅 2:46
2. 침례(세례)요한 - 눅 3:12
3. 예수 - 마 8:19; 9:11; 17:24; 26:25,49; 막 9:5,17,38; 11:21; 눅 10:25; 요 1:49
4. 니고데모 - 요 3:10
5. 바울 - 딤후 2:7; 딤후 1:11
6. 크리스천 선생들 - 행 13:1; 고전 12:28; 엡 4:11; 약 3:1

예수께서는 이 용어/호칭을 자신에게로 한정시키신다(참조, 23:7-12; 막 14:14; 요 3:2; 11:27-28; 13:13-14). 오직 “한” 아버지만 계시며 “한” 선생님만 계시다! 예수님 곧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8: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이 이 문맥에 나온다. 한 사람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기를 원했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멈추어 서서 값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셨다(참조, 20 절). 다른 한 사람은 주를 따르기를 원치않았으나,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우선순위를 인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를 따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다(참조, 21 절). 진리는 종종 양쪽에 있다!

▣ “인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선택하신 호칭이다. 이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히브리 어구였다(참조, 시 8:4; 겔 2:1). 그러나 단 7:13 에서의 용법을 인해 이 단어는 신적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용어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결합시킨다. 랍비들은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 용어에는 국가적 혹은 군사적 어감이 들어 있지 않다.

여기에 다니엘서에 대해 내가 쓴 주석에서 인용한 글이 있다(7:13).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를 뜻하는 아람어 구(“벤 *에노쉬*, BDB 1085 와 1081 의 **연계형**)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시편과 에스겔서에 사용된 히브리어 구(“벤 *아담*”)와 다르다. 두 용어는 욥 25:6; 시 8:4; 90:3; 144:3; 사 13:12 에서 평행으로 사용된다. 아람어와 히브리어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며 그의 인성을 말한다(참조, 8:17; 욥 25:6; 시 8:4; 겔 2:1). 이 용어는 신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사용하는 운송수단이 구름인 까닭이다(참조, 마 24:30; 26:64; 막 13:26; 14:62; 계 1:7; 14:14).

신약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신다. 이 용어는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메시아에 대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이 단어에는 배제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이 단어는 메시아가 완전히 사람이시며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독특하게 나타낸다(참조, 요일 4:1-3). 다니엘이 사용한 용법은 최초로 이 단어의 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경우이다!

예수께서는 세 가지 의미에서 이 구를 자신에게 대해 사용하셨다.

1. 그의 고난과 죽으심(예, 막 8:31; 10:45; 14:21; 눅 9:22,44)
2. 그가 심판자로 오심(예, 마 16:27; 25:31; 요 5:27)
3. 그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영광 중에 그가 오심(예, 마 16:28; 19:28; 막 13:26-27; 14:62)

*유대인 연구 성경*(1657 쪽, 또한 조지 E. 래드의 *신약 신학*, 136-139 쪽)에서 볼 때, 이 본문에 대해 말하는 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전통은 다음과 같다.

1. 이 문맥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참조, 예녹 1 서 46:1; 48:10; 에스라 4 서[에스드라스 2 서] 13 장; b. Sanh. 98a)
2. 이 문맥에 있어서 모든 예언의 내용이 이미 성취 되었다(참조, b. Sanh. 97b)
3. 이 문맥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지 않는다(참조, Gen. Rab. 98:2)
4.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참조, 이븐 에스라와 라쉬)

**특별주제: 오실 특별하신 분에 대해 사용한 구약의 호칭**

가. 선지자 - 신 18:15,18

나. 왕

1. 유다 지파에서, 창 49:10; 시 60:7; 108:8
2. 다윗의 가계에서, 삼하 7 장(이새로 부터, 사 11:1)
3. 이를 말하는 다른 본문, 삼상 2:10; 시 89:3-4; 사 9 장; 11 장; 렘 30:8-9; 겔 37:21-22; 슥 9:9-10

다. 왕/제사장

1. 시 110 편(왕, 1-3 절; 제사장, 4 절)
2. 슥 4:14(두 감람나무, 기름부음 받은 두 사람, 스킵바벨[다윗의 후손]과 여호수아[아론의 후손])

라. 기름부음 받은 자(메시아)

1. 하나님의 왕, 시 2:2; 45:7
2. 성령의 임재, 사 11:2; 61:1
3. 오실 이, 단 9:26
4. 구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으로 덧입히심의 상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다: 왕(참조, 삿 9:8,15; 삼상 2:10; 9:16; 24:10; 삼하 19:21; 23:1; 시 18:50), 제사장(참조, 출 28:41; 레 4:3; 6:22), 제사장(참조, 왕상 19:16)

마. 왕의 아들

1. 시 2:7,12
2.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의 상징이었다(참조, 삼상 8 장)

바. 사람의 아들(단 7:13)

1. 사람, 시 8:4; 겔 2:1
2. 하나님, 단 7:13

사. 구속과 관련된 특별한 호칭

1. 고난받는 종, 사 52:13-53:12
2. 고난받는 목자, 슥 12-14 장
3. 모퉁이 돌, 시 118 편; 사 8:14-15; 28:16
4. 특별한 아기, 사 7:14; 9:6-7; 미 5:2
5. 순, 사 4:2; 11:5; 53:2; 렘 23:5-6; 33:15; 슥 3:8; 6:12

신약은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관해 이렇듯 흠어져 있는 자료를 취하고 발전시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오실 그분이심을 드러낸다(예, 마 16:13-20; 요 11:25-27).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은 이렇듯 광범위한 기능과 호칭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법이었다.

복음서에서 권위를 갖는 인자 및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자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좋은 논의를 위해서는 조지 E. 래드의 *신약 신학* 149-158 쪽을 보라.

8:21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언뜻 볼 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요청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문화에서 사용한 관용적 표현으로서 자기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집에 머물며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회적 의무였다(참조, 왕상 19:20).

8:22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것은 “죽은”과 관련된 언어유희다. 이 표현은 10:39 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생명 및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지상의 가족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개역개정 8:23-27**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8:24

NASB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NKJV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거센 폭풍이 일어났다”  
 NRSV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다”  
 TEV “갑자기 바다에 겁나는 폭풍이 호수를 쳤다”  
 NJB “경고도 없이 폭풍이 호수 위에 일어났다”

갈릴리 바다는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가까이 있는 헤르몬 산과 지중해의 영향을 받았다. 강한 바람이 종종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때에 거세게 물 위로 불었다. 전문적인 어부들도 무서워 할 정도였다.

NIDOTTE 제 3 권 557 쪽에는 *세이스모스*(“폭풍”)에 대하여 흥미로운 설명이 있다.

“*세이스모스*가 사용된 신약의 다른 11 곳에서 이 단어는 모두 지진을 뜻하는데 그것은 항상 신적 개입에 의한 경우였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마 27:54); 부활 시에는 이 단어가 돌을 뒤로 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행 16:26). 지진은 종말론적 표 가운데 하나다(마 24:7; 막 13:8; 눅 21:11; 계 6:12; 8:5; 11:13,19; 16:18).”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폭풍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의 일을 위해 보내신 기회였다

1. 예수를 드러냄
2. 제자들의 믿음을 세움

8:25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은 구약의 용어로서 육체적 구원을 뜻한다(참조, 14:30; 요 12:27; 행 23:24; 27:20,31,34, 43,44; 28:1,4; 약 5:15).

**특별주제: 구원 (구약의 용어)**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욥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체적 영적인 구원의 개념은 욥 2:9-10 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계된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구원은 야웨께서 원래 의도하신대로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의 교체와 교체권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온전성을 뜻한다!

8:26-27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연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권세가 있으심을 보고 그들은 완전히 놀랐다. 시 89:8,9 을 상고할 때 이 일은 예수의 신성을 암시하는 일이었다. 오직 창조주만 자연을 지배하실 수 있다(참조, 시 107:23-32).

개역개정 8:28-34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어 보내 주소서 하니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기를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8:28

NASB, NRSV,

(?) JB

NKJV

TEV

“가다라 지방으로”

“가다라 지방에”

“호수의 다른 쪽에 있는 가다라 지경에”

이 지역의 위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장소는 세 공관복음서와 같이 여러 헬라어 마태복음 사본에서 조금씩 다른 3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명백히 이 장소는 게르사 성읍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런데 가라다 성읍에는 10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성에 속한 약간의 땅이 호수 근처에 있어서 종종 가다라 지방으로 불렸다.

▣ “들이” 마태는 어떤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보통 두 사람을 언급하는 반면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언급한다(참조, 막 5:1; 눅 8:26). 이러한 예로는 예리고의 소경/사라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참조, 마 20:29; 막 10:46; 눅 18:35). 어떤 이들은 추정하기를 두 사람이 언급된 이유는 구약이 법정에서 두 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미 35:30; 신 17:6; 마 18:16).

▣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오직 이곳만 그들이 피하여 있을 수 있는 장소였다. 그 때에 사람들이 관 굴 또는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을 매장지로 사용하였다. 이 장소가 그들이 귀신 들린 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천사에 대한 자세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많이 있다. 우리의 세계에 악한 인격적 힘과 그의 종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퍼져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인 인간 곧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향해지는 인간을 멸망시키려 한다. 4:5의 특별주제: 개인적 악과 10:1의 특별주제: 악령을 보라.

▣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막 5:2-6 과 눅 8:27 을 보라.

8:29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귀신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참조, 약 2:19).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마 4:3; 14:33; 16:16; 27:42,54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들”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2:15); 이스라엘 국가가 “아들”로 불린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들”로 불린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들”로 불린다.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여러 번 예수를 알아 보았다(참조, 막 1:24; 눅 4:34). 예수께서는 그들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다. 귀신들이 예수를 돕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비난받게 될 것이다(12:24). 귀신이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는 일은 이러한 비난에 신빙성을 주게 할 것이다. 27:54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

NASB, NKJV,

NRSV, JB

TEV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적당한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를 벌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인간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려고 정해 놓으신 때가 있음을 알고 있다(참조, 빌 2:10-11; 계 11:15).

8:30 “많은 돼지 떼” 이 돼지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다. 귀신들이 왜 돼지 떼에 들어가려고 원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충분치 않은 정보 때문이다. 이 돼지 떼를 몰사시킨 일은 귀신의 궁극적 목적을 나타낸다-자기들을 따르는 자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이 돼지 떼의 죽음은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예수께 요청하게 했다!

▣ “귀신들” 10:1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내쫓아 보내려 하고 계셨다!

8:34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 분 앞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 몇 마리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었지 귀신들렸던 두 사람이 구속받아 온전케 된 것과 또 그들의 지방에서 복음의 영적 능력에 관심이 없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공관복음은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기록함에 있어서 다른가?
2. 왜 나병환자를 고치신 일이 중요한 사건이었는가(참조, 11:5)?
3. 예수께서는 왜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그들을 보이길 원하셨는가?
4. 예수께서 로마 군인을 위해 행하심에 있어서 매우 일상적이지 않았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5. 11 절과 12 절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6. 누가 또는 무엇이 귀신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7. 17 절은 육체의 병을 고침이 구속의 한 부분이라고 가르치는가?
8.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참조, 겔 2:1; 단 7:13)?

# 마태복음 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중풍병자를 고치심  9:1-8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다  9:1-8	갈릴리에서의 사건들 (계속됨) (8:1-9:38) 9:1  9:2-8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9:1-2  9:3 9:4-6 9:7-8	중풍병자의 병고침  9:1-8
마태를 부르심  9:9-13	세리 마태  9:9-13	9:9  9:10-13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다 9:9a-b 9:9c 9:10-11 9:12-13	마태를 부르심 9:9 죄인들과의 식사 9:10-13
금식에 대한 질문  9:14-17	예수께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다  9:14-17	9:14-17	금식에 대한 질문 9:14 9:15 9:16-17	금식에 대한 토론 9:14-17
회당장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인  9:18-26	생명을 찾은 소녀와 고침받은 여인  9:18-26	9:18-26	관리의 딸과 예수의 겉옷을 만진 여인 9:18 9:19 9:20-21 9:22 9:23-24a 9:24b-26	혈루병 걸렸던 여자의 병고침; 다시 살아난 관리의 딸 9:18-19 9:20-22 9:23-26
두 소경을 고치심  9:27-31	두 소경이 고침을 받다  9:27-31	9:27-31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시다 9:27-31 9:28a-b 9:29-30 9:31	두 소경의 병고침 9:27-31

병어리를 고치심	병어리가 말하다		예수께서 병어리를 고치심	병어리 귀신들린 자의 병고침
9:32-34	9:32-34	9:32-34	9:32-33	9:32-34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9:34	군중의 고통
9:35-38	9:35-38	9:35-38	9:35-38	9:35
				9:36-3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9:1-38의 배경

가. 마태복음은 종종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한 사건들을 종종 압축하여 제시한다. 해석자는 왜 복음서의 각 저자가 어떻게/왜 그들이 그렇게 기록했는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찾으려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받은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알기 원한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0-129 쪽).

나. 이 장은 여러 개의 단위로 나뉘어 진다:

1. 1-8 절, 참조, 막 2:2-12; 눅 5:17-26
2. 9-17 절, 참조, 막 2:14-22; 눅 5:27-38
3. 18-26 절, 참조, 막 5:22-43; 눅 8:41-56
4. 27-31 절,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다
5. 32-34 절,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다
6. 35-38 절, 많은 이들은 이 부분이 12 제자의 파송에 대한 서론으로서 10 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8 장은 질병, 자연, 귀신에 대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낸다. 마태는 여러 다른 환경에서 나타난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보이려고 이 내용을 사용한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9:1

<sup>1</sup>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9:1 문맥상 이 절은 8 절과 연결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사건으로 바꿔주는 절이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거부를 경험하신 후, 가버나움은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었다(참조, 막 2:1; 마 4:13).

개역개정 9:2-8

<sup>2</sup>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sup>3</sup>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sup>4</sup>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sup>5</sup>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sup>6</sup>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sup>7</sup>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sup>8</sup>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2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사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이 막 2:1-22에 있다. 이 일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걷어 내고 예수의 발이 있는 바닥에 그를 내려 놓은 사건이다.

▣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문맥에서 “그들의 믿음”은 병고침을 필요로 하던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기발한 생각과 불굴의 의지를 가졌던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뜻한다.

▣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참조, 22 절)과 현재 수동 직설법이다. 유대인들은 종종 죄와 병을 연결시켜 이해했다(참조, 요 5:14; 9:2; 약 5:15-16). 예수께서 이러한 연결을 분명히 인식하셨음에도 이 둘을 기계적으로 연결 시키기를 거부하신 것으로 보인다(참조, 요 9:3; 눅 13:2-3).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이해를 강하게 나타내는 진술이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즉, 수동태)!

예수께서는 이 남자를 “아이”(αἰ)로 부르신다. 한편 이러한 호칭은 그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였다(참조, 막 10:24; 또한 눅 16:25; 70 인역의 창 43:29).

9:3 “어떤 서기관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당이 성전이 갖던 영예로운 위치의 경쟁자가 되었다. 각 지역에 있던 이 율법 전문가들은 에스라의 전통을 따랐는데 후에 서기관들로 알려졌다(12:38의 특별주제를 보라, 스 7:8,10). 그들은 신학적으로 여러 배경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예수께 대한 순수한 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께 대해 몰래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들은 죄를 용서할 능력을 가졌다는 예수의 주장을 인해 놀랐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만 가지셨다고 그들은 믿었다. 이 문맥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근본적 주장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다(참조 막 2:7); 사실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김으로써 그들이 신성모독을 행한 것이었다!

9: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것이 문맥에서 암시하듯 예수의 초자연적 예지의 한 예인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신약은 예수께서 인간의 성품을 잘 알고 계셨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사용하셨음을 여러 곳에서 나타낸다.

사본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보시고(이돈) - α, C, D, L, W, 고대 라틴어역, 별게이트역, 콥틱역
- 2. 아시고(에이도스) - B, E<sup>C</sup>, 시리아역, 미국역

UBS<sup>4</sup>는 1항에 “B”(거의 확실함) 등급을 준다. 두 번째의 것은 아마도 마 12:25; 눅 6:8; 9:47에서 왔을 것이다. NASB, NKJV, NJB는 2항을 따른다.

9: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이것은 몸의 질병을 고침 받는 것만큼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죄로 인해 죽는 존재에게는 두 가지 일이 다 불가능하다!

9:6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만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애쓰셨다(참조, 요 11:42,45). 예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다. 이러한 병고침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물론 서기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사실 예수께서 병고치신 사역의 대부분은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종 이러한 능력 행함은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웠고 또한 곁에서 지켜보던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

▣ “인자” 이것은 구약에서 취한 형용사 구였다. 이것은 겔 2:1; 시 8:4에서 “사람”의 뜻을 갖는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단 7:13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본문은 이 호칭을 사용하여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분을 말하는 독특한 문맥에 있다.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 명칭은 국수적, 배타적,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중적 본성을 가리고 드러내기에 아주 적절한 이 호칭을 택하셨다(참조, 요일 4:1-6). 이 호칭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즐겨 사용하신 용어이다.

▣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권능”(δυναμις)이라는 용어는 “권리” “능력” 혹은 “권위”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예수의 신성 또는 적어도 그의 메시아직을 강하게 나타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사들처럼 초능력적으로 권능을 받은 군사적/정치적 지도자를 기대했다. 신자들이 메시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신약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서였다(즉, 요 1:1; 5:18; 8:58; 10:30,34-38; 14:9-10; 20:28; 롬 9:5; 빌 2:6-7; 히 1:8; 뱀후 1:1).

▣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부분에 세 동사가 나온다

1. “일어나라”는 부정과거 분사가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
2. “네 침상을 가지고”는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3. “집으로 가라”는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러한 시제의 의미는 “일으킴을 받다”라는 수동태의 일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두 명령은 그 사람에게 병고침을 받은 즉시 행해야 할 일을 나타낸다. 침상을 가지고 가는 일은 그가 구걸하던 모든 것이 끝나 집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이 병고침의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됨에 대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9:8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여기서 헬라어 사본에 나타나는 문제는 “두려워하다”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가장 오래된 가장 좋은 사본에는 “두려워 했다”로 되어 있다(N, A, B, D, W). 후기의 사본은 그 의미를 부르럽게 표현하여 “놀랐다” 혹은 NKJV “몹시 놀랐다”(사본 C, L)로 나타내었다. 어떤 헬라어 사본은 이 구를 빠뜨리고 있다(사본 X). UBS<sup>4</sup>는 처음 것에 “A”등급(확실함)을 준다.

이 무리는 누구라도 이러한 종류의 권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랍비들의 유대교는 전통 및 고대에 랍비들이 가르친 것을 인용하는 것에 얽매어져 있었다. 이 세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들어 본 적이 없는 내용을 예수께서 진리와 권위로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심을 인해 찬양드렸다. 이 일은 “영지주의”로 불린 초대교회의 이단이 의문을 가졌던 예수의 인성을 살짝 드러내는 암시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인기에 대해 시기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신약의 언급과 맥락을 같이 한다.

#### 개역개정 9:9

<sup>9</sup>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9: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9-17 절은 공관복음에서 평행을 이루는 막 2 장과 눅 5 장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다.

▣ “마태라 하는 사람이” 막 2:14 과 눅 5:27 에서 우리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임을 알게 된다. 이 이름은 그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종종 두 이름을 가졌다. 하나는 유대 이름이었고 하나는 헬라 이름으로서 대개 출생시 가졌다. 이 복음서의 저자로 말해지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꼼꼼히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을 인하여서 혹은 세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그를 택하셨을 것이다!

▣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했다. 이곳은 분봉왕 빌립과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 사이에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리아와 유대 사이의 세금을 관할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권리는 헤롯이나 로마 정부로부터 산 것이다. 이 관행은 정해 놓은 세입 이상의 세금은 세금을 걷는 자의 몫이 됨을 종종 의미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은 악명 높게 행해져 이 직업은 악과 착취의 대명사가 되었다. 세리들은 지역에 있는 회당이나 유대인 사회에서 분명히 환영을 받지 못했다.

▣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은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때가 아닐 것이다. 그는 여러 경우에 걸쳐 예수의 가르침을 접했었는데, 와서 전적으로 제자가 되라는 랍비의 공식적인 부르심(현재 능동 명령)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것이다(참조, 4:19,21).

#### 개역개정 9:10-13

<sup>10</sup>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sup>11</sup>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sup>12</sup>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sup>13</sup>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10 이것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마태의 집을 가리킨다.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참조, 눅 19 장) 인생의 의미있는 결단을 한 후에 만찬을 베푸는 일은 흔히 있었다. “악명 높은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제외시킨 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랍비적 유대교의 구전에 따라 확대시켜 놓은 모세의 율법의 자질구레한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가진 자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들이 종사하는 상업이나 직업상 유대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을 것이다(즉, 목자, 가족 무두장이 등).

“자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은 “기대 누웠다”라는 뜻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왼쪽 팔꿈치에 기대어 식사했다. 이집트에서만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했다.

**9: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은 식사 자리에 있었지만 식사에 함께 한 것은 아니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식사 초대를 받은 손님이 아니더라도 와서 벽 앞에 서 있거나 혹은 창을 통해 바라보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맥에서 이미 언급했던 “서기관들”을 분명히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구전(탈무드)을 확증하고 이를 따르기로 헌신한 무리였다. 그들이 예수님 자신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낙인찍힌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와 우정을 나누고 계셨다. 침례(세례)요한이 금욕주의자로 먼저 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했다. 이제 그들은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분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참조, 11:19; 눅 7:34). 그들은 “대식가” “과음하는 자”를 뜻하는 “술고래”로 예수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종교적 보수주의는 아주 자주 추하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면을 보인다. 바리새인들의 기원과 신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22:15의 설명을 보라.

**9: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번 경우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은 것이 아니었다(참조, 4 절). 누군가 예수께 그들이 한 말을 전했다거나 예수 자신이 직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죄없는 자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풍자적 대답이다.

**9: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은 호 6:6의 인용이다(마 12:7도 그러하다). 이 절은 부정과거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라고 말하기 위해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이었다. 13 절은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기록된 내용이다.

▣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공관복음에서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눅 5:32에는 “회개케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더 있다. 마태의 글은 그 말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한 점을 암시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 필요로 하는 두 가지는 회개와 믿음이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고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참조, 눅 13:5). 회개는 기본적으로 자아와 죄로 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길로 향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삶의 양식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것은 변화하려는 소원함이다. 3:2의 특별주제를 보라.

“부르다”(καλεω)라는 동사는 “초청하다”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마 22:2-1-; 눅 14:16-25; 요 2:2; 계 19:9).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언약 개념을 강조한다.

1.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신적 부르심)

2. 인간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맨 처음에 갖고 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믿음, 회개, 순종, 인내)

24:22의 특별주제: 선택/예정과 신학적 균형을 취하여야 할 필요를 보라.

#### 개역개정 9:14-17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전되느니라

**9: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들이 (1) 참으로 관심을 가졌는지 (2) 참으로 혼동을 일으켰는지 (3) 예수님을 속이려는 것이지 확실하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지만 그 잔치에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 19:1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침례(세례)요한의 여러 제자였다.

▣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구약에서 유일한 공식적 금식일은 매년 지킨 *유스 키푸르*(속죄일, 참조, 레 16 장)였다. 한편 랍비들은 매 주의 둘 째와 다섯 째 날도 금식일로 지켰다(참조, 눅 18:12). 한 요일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날이었고 다른 한 요일은 그가 산에서 내려온 날이라는 것에 근거했다. 금식은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헌신도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또한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6:16의 특별주제: 금식을 보라.

헬라어 사본에는 이 절에 있는 “중중”이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문제가 나타난다. 이 단어는 NKJV와 NRSV에 나오는데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눅 5:33에서 명백히 취한 단어이다.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2:28에는 “금식”만 나온다. UBS<sup>4</sup> 위원회는 또 다른 용어인 “많이”를 괄호 안에 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원래 마태복음의 것인지 혹은 후기의 필사자가 누가복음에서 가져와 추가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9:15** 이 질문의 문법적 형태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예상한다.

▣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제자들이 금식하리라고 보셨다. 이 본문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으로 암시한 내용이다. 이 구에서 사용한 *아파이로* (“빼앗기다”)라는 동사는 폭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참조, 막 2:20; 눅 5:35). 예수께서 사용하신 “신랑”의 유비는 메시아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6:16의 특별주제: 금식을 보라.

9:16-17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내용은 사람의 믿음에 따라 융통성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우리는 이 융통성의 성격과 범위에 관하여 조심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것은 구전의 문자적 해석을 취하는 랍비들의 율법주의에 대한 정죄이다. 예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었고 당시의 유대 분리주의자들과도 달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갖는 매일의 역동적인 교제보다도 우리 자신의 전통이나 규율에 더 헌신한다(참조, 사 6:9-10; 29:13). 이 비유는 마 2:19-20과 눅 5:33-39과 평행을 이룬다. 새로운 어떤 것(즉, 복음)이 왔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개역개정 9:18-19**

<sup>18</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sup>19</sup>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9:18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사건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기록이 마 5:22-43과 눅 8:41-56에 나온다. 그 사람은 글자 그대로 “회당장”이었다(참조, 막 5:22; 요 3:1). 이 사람은 바로 회당에서 갖는 정기적인 행사는 물론 회당 건물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공인을 받지도 않았고 또 그 자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랍비인 예수께 공개적으로 달려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행동을 그 답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자기 딸의 상태에 마음을 두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막 5:21 및 눅 8:42과 비교해 본다면 그 때 그의 딸이 죽어가는 시점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죽은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상충이 있음을 보게 된다.

9: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이 남자의 믿음은 (1) 예수의 육체적 임재 (2) 손을 얹는 행위 (3) 기도와 관련이 있다. 11:5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침례(세례)요한에게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을 확증하기 위해 언급했던 증표 가운데 하나였다. 문맥에서는 이 일이 소생시킨 일인지 아니면 혼수상태에서 고침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개역개정 9:20-22**

<sup>20</sup>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sup>21</sup>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sup>22</sup>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9: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막 5:26과 눅 8:43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다. 분명히 그녀는 가진 모든 돈을 의원들에게 다 썼지만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랍비들의 유대교에서 행한 마술적 치료에 대해 탈무드 특히 Shabb, 110 A와 B로부터 약간의 자료를 발견한다. 한 가지 치료 방법은 타조 알이나 흰 나귀의 똥에서 찾은 보리 이삭을 자신의 목에 두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치료 받기 위해 지난 12년 동안 시도한 기괴한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질병은 그녀로 하여금 의식상에 있어서 부정한 자가 되게 했고 또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예배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했다(참조, 레 15:25). 그녀는 또한 긴 기간의 과정을 통해 육체적으로도 지쳐있었을 것이다.

9:21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여인의 믿음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의 약한 믿음까지도 높이 평가하셨다(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 레 15:19 이하에 근거하면 그녀가 랍비를 만짐으로써 예수께서 의식상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율법적으로 바르지 않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의식에 따른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사람에게 더 커다란 비중을 두셨다!

겹옷은 (1) 예수의 겹옷(참조, 요 19:2) 혹은 (2)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쇼울(*탈랏*)로서 예배 때에 머리에 두르는 것을 말할 것이다(참조, 민 15:38-40; 신 22:12; 마 23:5). 후자는 다른 때에는 어깨에 둘러댄다.

9:22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구원받았다”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육체적 구원”을 가리킨다(참조, 약 5:15). 이 여인의 믿음은 비록 약했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예수께서 높이셨다. 신약에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역개정 9:23-26

<sup>23</sup>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sup>24</sup>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sup>25</sup>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sup>26</sup>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9: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랍비적 유대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가난한 경우라도 적어도 2 명의 피리 부는 자들과 한 사람의 곡하는 여자를 고용하는 것이 정해진 장례예식이었다(참조, 렘 9:17; 48:36). 장례식은 공동체적으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는 때였다.

9:24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가 항상 죽음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 문맥에서 이 표현은 오히려 죽음과 대비를 이룬다. 이 잠이 깊은 혼수상태였든지 아니면 죽은 상태였든지 간에 병고침의 기적이 참으로 일어났다.

9: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눅 8:51 은 아이의 부모, 제자들의 핵심 구성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음을 말한다.

▣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막 5:41 에서는 더 자세히 다루어 예수께서 소녀에게 하신 말을 기록한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예수를 의식상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께는 죽은 자의 몸 같은 것이 하등 문제되지 않았다!

9: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신 이유는 아무도 이 기적적인 병고침의 소식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8:4; 9:30; 12:16; 16:20; 17:9; 막 1:44; 3:12; 5:43; 7:36; 8:30; 9:9; 눅 4:41; 5:14; 8:56; 9:21). 그러나 장례식이 성대히 치뤄지고 있었기에 이 소녀가 회복된 소식은 똑똑히 전파되었을 것이다.

개역개정 9:27-31

<sup>27</sup>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하더니 <sup>28</sup>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sup>29</sup>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sup>30</sup>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sup>31</sup>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9:27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기적을 다룸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항상 두 사람을 말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점은 공관복음에서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참조, 마 8:28; 20:30). 그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마태는 구약에서 증인으로써 필요한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추측된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이 구약적 호칭은 마 1:20 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갖는 메시아적 암시는 삼하 7 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참조, 마 1:1; 12:23; 15:22; 20:30; 31:9,15). 이 용어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했는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호칭은 그리스도로 오신 자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의 표식이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 35:5-6 에 근거하여 병을 고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9:28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것은 “*키리오스*”라는 호칭이다. 이 호칭은 “~님”이나 “~씨” 혹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였을 것이다. 비록 이 소경들이 사용한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 어떤 신학적 이해를 암시하지만 이들은 이 말을 일반적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병고침 받은 사실을 널리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예수께서는 그들로 군중에서 떠나가게 한다(참조, 26,30 절; 8:4).

9: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복음서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일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음이 놀랍다. 한편 이들에 대한 병고침은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기 위해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소경이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낸다(참조, 시 146:8; 사 29:18; 35:5; 42:7,16,18; 마 11:5).

개역개정 9:32-34

<sup>32</sup>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sup>33</sup>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sup>34</sup>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9:32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 복음서에서는 귀신들린 것과 육체의 질병을 뚜렷이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막 7:32 과 9:25 에 나온다: 신체적으로 병어린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반면에 귀신들려 병어린 사람에게는 축사를 행하였다. 비록 귀신의 세력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모든 육체의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다. 신약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제 3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러한 실재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며 신약에 나온 이러한 일을 더 자주 보고 있다. 이러한 말은 제 3 세계에는 더 많은 귀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현대의 서구적 세계관은 초자연적 일에 대해 왜곡된 면을 갖고 있다. 10:1 의 특별주제를 보라.

**9:34**

NASB, NKJV,

NRSV

“그가 귀신의 지배자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TEV

“그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준 자는 바로 귀신의 대장이다”

NJB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바로 귀신의 왕자를 통해서다”

“귀신의 왕”은 10:25 에서 언급된 *바알세불*로 불리는 귀신의 대장을 가리킨다. 이 두 명칭이 12:24 에 나온다. 그곳에서 이 이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예수의 능력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단지 자기들의 전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배척할 수 있었던 점이 의아스럽다. 같은 이야기가 마 3:22 과 눅 11:15 에 나온다. 이같은 신성모독이 요 7:20 에서 군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의 실재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이 능력을 악한 자에게 온 것으로 돌린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충분히 대답하셨다. 마 12:22 이하에서는 이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일컫는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커다란 빛을 보았음에도 계속해서 예수께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진 관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 매우 분명히 드러난 복음을 볼 수 없었다. 너희의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참조, 6:23; 고후 4:4).

이 절이 헬라어 사본 D(베자)과 고대 라틴 사본 일부에 들어 있지 않지만, 모든 고대 대문자체 사본에 들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절은 마 12:24 와 눅 11:15 에 나온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 구는 사탄을 가리킨다(참조, 12:24-32; 막 3:22; 눅 11:15).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부정한 자세는 하나님의 빛을 어둡음으로 바꾸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그들 자신을 이끌었다!

**개역개정 9:35-38**

<sup>35</sup>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sup>36</sup>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sup>37</sup>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sup>38</sup>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9:35-38** 이 요약적 진술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4:23 을 가리키는 요약 혹은 (2) 10 장에 나오는 12 제자의 전도에 대한 서론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9:35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첫 설교와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었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비유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통치는 어느날 온 세상에 대한 것으로 절정에 이를 것이다(참조, 마 6:10). 4:17 의 특별주제를 보라.

“복음”(유양겔리온)은 마 4:23 과 9:35 에서 요약적 진술에 들어 있다. 예수께서는 이 용어를 24:14 과 26:13 에서 사용하셨다. 이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예수의 삶, 가르치심,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 구원을 주심을 통털어 일컫는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이 단어는 제 2 세기에 가서야 예수의 삶에 대해 쓰여진 네 책을 가리키기 시작했다(즉, 복음서, 이레니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 **“불쌍히 여기시니”**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셨는지(참조, 14:14; 15:31; 20:34) 아는 것은 위로가 된다. 그들을 향하신 긍휼은 눅 13:34 에서 같은 단어로써 표현되었다.

▣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일반화된 은유였다(참조, 민 27:17; 왕상 22:17; 겔 34:1-16). 이 단어는 때때로 거짓 목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겔 34 장; 스후 11:5). 예수는 선한 목자이시다(참조, 요 10 장; 스후 11:7-14; 13:7-9).

**9:37-38**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면으로 그의 지으신 세상을 이해하신다(참조, 사 55:8-9).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자신의 추수밭으로 보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필요를 느끼는 것이 소명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가게 하신다! 세상을 하나님의 추수밭인 것을 주목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구속함 받기를 원하신다(참조, 요 3:16; 딤후 2:4; 뱀후 3:9).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공관복음이 같은 교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배경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
2. 예수께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3. “인자”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신학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4.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이 왜 중요한가?
5.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6. 병든 여자가 왜 예수의 옷을 만지기 원했는가?
7. 유대인의 장례에 대해 설명하라.
8. 마태복음은 항상 두 소경 혹은 두 천사에 대해 말하는 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에게 대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 육체의 병과 귀신들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10. 34 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가?
11. 37 절과 38 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 마태복음 1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열 둘의 선교	열두 사도	열 둘의 임명과 교훈 (10:1-11:1)	열두 사도	열 둘의 선교
10:1-4	10:1-4	10:1-4	10:1-4	10:1 10:2-5a
열 둘을 임명하심	열 둘을 보내심		열 둘의 선교	
10:5-15	10:5-15	10:5-15	10:5-10 10:11-15	10:5b-10 10:11-16
임박한 핍박	핍박이 임박함		임박한 핍박	선교사들이 핍박받을 것임
10:16-23	10:16-26	10:16-23	10:16-20 10:21-23	10:17-20 10:21-23
10:24-25		10:24-25	10:24-25	10:24-25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예수께서 가르치시다		두려워해야 할 분	공개적이고 두려움 없는 연설
10:26-31	10:27-31	10:26-31	10:26-31	10:26-27 10:28-31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기와 거부하기	
10:32-33	10:32-33	10:32-33	10:32-33	10:32-33
평화가 아니라 검을	그리스도께서 분열을 가져 오신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분열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
10:34-39	10:34-39	10:34-39	10:34-36 10:37-39	10:34-36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기 10:37-39
상	냉수 한 그릇		상	교훈의 결론
10:40-11:1	10:40-42	10:40-11:1	10:40-42	10:40 10:41 10:42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10:1-42 의 배경

- 가. 새로 선택받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9:37-38 에서 미리 암시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후에 70 인의 제자들을 보내셨다(참조, 눅 10:1 이하).
- 나. 이 본문은 막 3:14-16; 6:7-13; 눅 9:16 과 평행을 이룬다. 이러한 종류의 전도여행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 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주신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반복적으로 사용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15, 23, 42 절)로 나타난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0:1

<sup>1</sup>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1 “열 두” 이것은 열 둘이라는 이 숫자가 사용된 처음 경우로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낸다. 14:20 의 특별주제: 숫자 열 둘을 보라.

▣ “제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배우는 자들”이다. 신약은 결단이 아니라 제자됨을 강조한다(참조, 28:19; 행 14:21)! 이러한 신학적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구원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 동사 시제

구원은 산물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마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것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거나 혹은 천국행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성장하는 삶이다. 미국인의 잠언에는 부부가 함께 더 오래 살 수록 그들은 더 많이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 완성된 행동으로서의 구원(부정과거)

- 행 15:11
- 롬 8:24
- 딤후 1:9
- 딤후 3:5
- 롬 13:11(부정과거형이 미래형과 함께 사용됨)

#### 상태로서의 구원(완료)

- 엡 2:5, 8

**계속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현재)**

- 고전 1:18; 15:2
- 고후 2:15
- 뱀전 3:21

**미래에 완성될 구원(동사의 미래시제 또는 문맥)**

- 롬 5:9, 10; 10:9,13
- 고전 3:15; 5:5
- 빌 1:28
- 살전 5:8-9
- 히 1:14; 9:28
- 뱀전 1:5,9

따라서 구원은 최초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참조, 롬 8:29; 갈 3:19; 엡 1:4; 2:10). 이 구원은 어느 날 완성되어 보여질 것이다(참조, 요일 3:2). 이 최종 단계는 영화로 불린다.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최초의 영화—칭의(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음)
2. 점진적 구원—성화(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음)
3. 최종적 구원—영화(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음)

▣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 . .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는 이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써 능력을 주셨다. 그들은 예수의 공식적인 대표자들(즉, 사도)이 되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은 예수의 새 메시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다.

**특별주제: 귀신을 내어쫓음**

귀신을 내어쫓음(축사)은 예수님 당시에 널리 행해졌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예수께서 행하신 축사는 새시대의 증표였다. 랍비들은 마술적 주문을 사용했지만(알프레드 에더샤임, *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대*, 제 2 권 부록 XIII 항 748-763 쪽, XVI 항 770-776 쪽을 보라),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셨다. 오늘날 축사와 귀신들림에 대하여 떠도는 정보 가운데 아주 많은 혼동과 잘못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는 신약성경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음과 관련이 있다. 나는 목회자로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갖기 원했다. 내가 믿고 소개할 수 있는 책 몇 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인의 상담과 마술*, 쿠르트 E. 코흐
2. *오늘날 세계에서 귀신들*, 메릴 F. 엉거
3. *성경적 귀신론*, 메릴 F. 엉거
4. *권세자들과 권능들*, 존 워윅 몽고메리
5. *그리스도와 권세들*, 헨드릭 벌코프
6. *영적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질문*, 클린턴 안톤

축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이러한 주제에 대해 사도들의 서신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나를 놀라게 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며 활동하는 영적 영역(즉, 선과 악)을 포함한다고 나는 믿는다(즉, 엡 1-2 장; 단 10 장; 엡 6:10-18).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계시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경건하고 열매맺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주제들은 계시되지 않았고 발전되지 않았다.

▣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귀신들림과 병에 걸림을 구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귀신이 병을 일으킬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특별주제: 귀신(부정한 영)**

- 가. 고대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힘, 동물, 자연물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생명은 사람과 이런 영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되었다.
- 나. 이와 같은 의인화는 다신교(많은 신들)로 나타났다. 보통 귀신(켄널)은 개별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좀 더 낮은 신 또는 반신반인(중거나 악한)이었다.
  1. 메소포타미아, 혼돈과 투쟁
  2. 이집트, 질서와 기능
  3. 가나안, W. F. 알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다섯 번째 개정판), 67-92 쪽을 보라.

- 다. 구약은 강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 낮은 신, 천사, 또는 귀신의 주제를 다루거나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다(참조, 출 8:10; 9:14; 15:11; 신 4:35,39; 6:4; 33:26; 시 35:10; 71:19; 86:6; 사 46:9; 렘 10:6-7; 미 7:18). 구약은 이방 민족의 거짓 신을 언급하고 그것들의 몇몇 이름을 말한다.
1. *세임*(색마[바커스를 섬기는 반인반수의 숲의 신] 또는 털 많은 귀신, 참조, 레 17: 7; 대하 11:15)
  2. *틸리쓰*(여성, 부추기는 귀신, 참조, 사 34:14)
  3. *마웨트*(지하의 가나안 신에게 사용한 죽음이라는 히브리 용어, *모트*, 참조, 사 28:15,18; 렘 9:21; 그리고 아마도 신 28:22)
  4. *레체프*(재앙, 참조, 신 33:29; 시 78:48; 합 3:9)
  5. *테베르*(전염병, 참조, 시 91:5-6; 합 3:5)
  6. *아사셀*(불확실한 이름이지만 아마도 사막 귀신이거나 장소 이름, 참조, 레 16:8,10,26)(이 예들은 *유다이카 백과사전* 제 5 권의 1523 쪽에서 취한 것이다.)
- 어쨌든 구약에는 이원론주의 개념도 없고 야웨계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천사는 없다. 사탄은 야웨의 종(참조, 욥 1-3 장; 숙 3 장)이지 적이 아니다(참조, A. B. 데이빗슨, *구약신학*, 300-306 쪽).
- 라.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기간(주전 586-538) 동안 발전되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인격화된 이원주의(*마즈다* 또는 *올마즈드*라고 불린 좋고 높은 신과 *아리만*이라고 불린 악한 적수의 신)를 신봉하던 페르시아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가 야웨와 그의 천사, 사탄과 그의 천사 또는 악마 사이의 인격화시킨 이원주의를 수용하게 했다.
- 인격화시킨 악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은 알프레드 에더셰임의 *메시아 예수의 일생과 시간*(제 2 권, 부록 XIII[749-863 쪽]과 XVI[770-776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잘 제시하고 있다. 유대교는 악을 세 가지로 인격화시킨다.
1. 사탄이나 삼마엘
  2.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트저 하라*)
  3. 죽음의 천사
- 에더샤임은 이것을 (1) 고소자 (2) 유혹자 (3) 처벌자라고 특징짓는다(제 2 권 756 쪽).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와 신약에서의 악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 마. 신약(특별히 복음서)은 사람에게와 야웨계 대한 악한 영적 존재의 실제와 방해를 주장한다(유대교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왕국을 반대한다.
- 예수님은 이런 악마적 존재와 마주 대하시고 내쫓으셨으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1) 더러운 영(참조, 눅 4:36; 6:18) 또는 (2) 악한 영(참조, 눅 7:21; 8:2)을 불러 내셨다. 예수님은 병든 것(육체적 그리고 정신적)과 귀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인식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다. 악한 영은 종종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는 표이다.
-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는 놀라우리만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은사 목록에 전혀 없고, 또한 사역자나 믿는 자들의 장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축사의 방법이나 절차도 없다.
- 바. 악은 실재한다; 악은 인격체이다; 악은 현존한다. 이것의 기원이나 목적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성경은 악의 실재를 단언하고 그것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신다; 악은 패배하였고 심판받았으며 피조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 사.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대적해야만 한다(참조, 약 4:7). 악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치할 수는 없지만(참조, 요일 5:18) 그들은 악에게 유혹받을 수 있고 그들의 증거나 영향력은 악에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참조, 엠 6:10-18). 악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드러난 한 부분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재 정의할 권리가 없다(루돌프 발트만의 비신화화); 악을 비인격화(폴 틸리히의 사회적 구조)하거나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말라(시그먼트 프로이트). 이것의 영향력이 퍼져 있지만 이것은 실패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개역개정 10:2-15

<sup>2</sup>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sup>3</sup>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sup>4</sup>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sup>5</sup>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sup>6</sup>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sup>7</sup>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sup>8</sup>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sup>9</sup>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sup>10</sup>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sup>11</sup>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sup>12</sup>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sup>13</sup>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sup>14</sup>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나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sup>15</sup>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0:2 “열두 사도의 이름” “사도”라는 용어(5 절의 설명을 보라)는 사도들의 명단과 관련되어 마태복음의 이곳과 마가복음(3:14) 에서 한 번씩 사용되고 있다. 마가복음 6:30 절에 이 명칭이 한 번 더 나온다. 이 용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된다.

1. 누가복음 6:13; 9:10; 11:49; 17:5; 22:14; 24:10
2. 사도행전
  - ㄱ. 열 둘, 1:2,26; 2:37,42,43; 4:33,35,36,37; 5:2,12,18,29,40; 6:6; 8:1,14,18; 9:27; 11:1; 15:2,4,6,22,23; 16:4
  - ㄴ. 다른 사도들(후기에 사용한 경우)
    - (1) 바울, 14:4,14(열두 사도와 같은 권위)
    - (2) 바나바, 14:14(더 적은 권위)

사도들의 명단은 막 3:16-19; 눅 6:12-16; 행 1:13-14 에 나온다. 이름과 순서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네 명씩 세 그룹으로 말해진다. 베드로는 항상 첫 번째에 가롯 유다는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 소그룹들은 항상 같다. 이러한 그룹의 구분은 아마도 누가 잠간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올 것인가 등을 정해 놓은 순번 체계였을 것이다.

특별주제: 사도들의 이름 도표

	마태복음 10:2-4	마가복음 3:16-19	누가복음 6:14-16	사도행전 1:12-18
<b>제 일 그룹</b>	시몬(베드로) 안드레(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요한(야고보의 형제)	시몬(베드로) 야고보(세베대의 아들) 요한(야고보의 형제) 안드레(베드로의 형제)	시몬(베드로) 안드레(베드로의 형제) 야고보 요한	시몬 요한 야고보 안드레
<b>제 이 그룹</b>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세리)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
<b>제 삼 그룹</b>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가나안인) 유다(가롯)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다대오 시몬(가나안인) 유다(가롯)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시몬(열심당) 유다(야고보의 아들) 유다(가롯)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시몬(열심당) 유다(야고보의 아들)

10:3 “바돌로매” 그는 나다나엘로도 불렸다(참조, 요 1:45-51).

▣ “마태” 그는 레위로도 불렸다(참조, 막 2:14; 눅 5:27).

▣ “다대오” 그는 야고보의 아들 혹은 형제인 유다(참조, 눅 6:16; 행 1:18) 또는 렘배우스(헬라이어 사본인 C<sup>2</sup>, L, W)로도 불렸다.

10:4  
NASB, NJB  
NKJV  
NRSV  
TEV

“열심당 시몬”  
“가나안 족속 시몬”  
“가나안인 시몬”  
“애국자 시몬”

그는 가나안인으로도 불렸는데 이것은 그가 가나에서 온 사람을 뜻할 수 있다(참조, 막 3:18). 한편 헬라이어 본문은 “열심인”이라는 히브리어를 반영한다. 그는 유대인 애국당원이었고 분리주의자였다(참조, 눅 6:15; 행 1:13). 마태와 시몬이 제자의 그룹에 속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셨음을 나타낸다.

▣ “가룟” 이 용어는 유대 기랴 성읍에서 온 사람(히브리어에서) 혹은 암살자의 칼(헬라이어에서)임을 뜻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유대 출신이라면 그는 남쪽 사람이 사도가 된 유일한 경우이다.

▣ “곧 예수를 판 자” 유대를 새로운 각도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흥미로운 책이 있다. 윌리엄 클라슨이 쓴 유대, 예수를 배반한 자인가 예수의 친구인가? (포트리스 출판사, 1996 년). 그러나 이렇게 해석함은 요한복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10:5 “내 보내시며” 이것은 “사도”와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이어이다(아포스텔로는 70 인역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말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심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랍비들의 저작에서는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보내진” 것을 의미한다. 막 6:7 은 예수께서 사도들을 두 명씩 보내셨다고 말한다.

▣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말한 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고 한 내용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배타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한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응답할 모든 기회를 좁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민족이 되었다고 봄으로써 그들을 미워했다. 이 일은 북 이스라엘의 10 지파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로 사로잡혀간 일을 가리킨다. 수 천명의 유대인들이 메데로 추방당했고 수 천의 헬라인들이 이스라엘로 추방되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종교와 사회적 관습의 융합이 이루어졌다(참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예수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이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0:6 “잃어버린 양”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켰던 “양”(참조, 요 10 장)과 그들의 영적 취약성과 그들을 도울 자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잃어버린” (참조 9:36)이 합해진 특별한 구이다. 이 경우 목자가 없는 상황은 더욱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참조, 민 27:17; 왕상 22:17; 시 119:176; 사 53:6; 숙 13:7).

▣ “이스라엘 집의” 이것은 족장들의 자손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1. 야곱의 집(즉, 눅 1:33; 참조, 15:24; 행 2:36; 히 8:8)
2. 유대의 집(즉 히 8:8)
3. 아브라함의 자녀(즉, 마 3:9; 요 8:33,39)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

- I. 이 이름의 뜻은 불확실하다(BDB 975)
  - 가. 엘이 집요하시다
  - 나. 엘이 집요하시게 하자(지시형)
  - 다. 엘이 보존하신다
  - 라. 엘이 만족하시게 하자
  - 마. 엘이 다투신다
  - 바. 하나님과 다투는 자(창 32:28)

II. 구약의 용법

- 가. 야곱의 이름(대신한 자, 발꿈치를 붙잡은 자, BDB 784, 참조, 창 25:26)은 압복 강가에서 영적 존재와 씨름한 후에 바뀌었다(참조, 창 32:22-32; 출 32:13). 종종 히브리 이름은 소리유희를 나타내지 어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참조, 32:28).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예, 창 35:10).
- 나. 이 이름은 그의 열 두 아들을 통칭하는 명칭이 되었다(예, 창 32:32; 49:16; 출 1:7; 4:22; 28:11; 신 3:18; 10:6).
- 다. 이 이름은 출애굽 후에 열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가리켰고(참조, 창 47:27; 출 4:22; 5:2) 그 이후의 나라도 가리켰다(참조, 신 1:1; 18:6; 33:10).
- 라.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지파들이 나뉘었다(참조, 왕상 12 장).
  1. 공식적인 분리 이전에 구분이 시작되었다(예, 삼하 3:10; 5:5; 20:1; 24:9; 왕상 1:35; 4:20)
  2.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 까지 북 지파들을 가리켰다(참조, 왕하 17 장)
- 마. 유대는 일부 경우에만 사용되었다(예, 사 1 장; 미 1:15-16).

- 바. 앗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이 용어는 다시금 야곱의 모든 자손을 가리키는 집합적 이름이 되었다(예, 사 17:7,9; 렘 2:4; 50:17,19).
- 사. 제사장의 반대되는 의미에서 평신도를 가리켰다(참조, 대상 9:2; 스 10:25; 느 11:3).

10:7 “가면서”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가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참조, 28:19).

▣ “전파하여 말하되” 이것은 **현재 명령**이다. 이것은 (1) 12 제자와 70 인이 행한 전도여행 (2)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의 대 위임을 미리 나타낸다.

▣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이었다(참조, 3:2; 4:17; 막 1:15; 눅 10:9,11; 11:20; 21:31).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마음에 지금 이루어짐인데 이 일은 어느 날 온 땅 위에 완성될 것이다(참조, 6:10). 비록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즉, 눅 24:16,31) 이 일은 그리스도(메시아)의 성육신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은 초기에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와 비슷한 내용을 전파했다. 4:17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라.

10:8 “고치며 . . . 살리며 . . . 깨끗하게 하며 . . . 쫓아내되” 이 단어들은 모두 **현재 명령형**이다(참조, 10:1). 그들은 나가서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역을 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메시지가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헬라이어 사본에는 “죽은 자를 살리며”라는 구와 관련하여 여러 번이 나타낸다. 이 점은 (1) 열두 사도가 이 일을 행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거나 (2)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거나 (3) “죽은 자를 살리며”라는 언급없이 마태가 다른 세 **동사**를 사용한 것을 반영한다. 브루스 멧츠거 *헬라이어 신약에 대한 본문 주석* 27-28 쪽을 보라. 이 구는 대문자체 사본인 **א, B, C, D, N** 및 여러 역본에 포함되어 있다.

▣ “나병환자”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였다(참조, 대하 26:16-23).

▣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의 능력은 사탄과 귀신의 능력보다 더 크다(참조, 요일 4:4). “영들”(참조, 8:16)과 “더러운 영들”(참조, 10:1)로 귀신들을 가리킨다. 귀신의 기원에 대하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랍비들은 세상에 있는 악의 기원을 창세기 6 장에서 찾았다(바울은 악이 창세기 3 장의 사건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 참조, 롬 5:12-21). 그들은 창세기 6 장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아들들”(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창세기 1-11 장에 대한 주석의 특별주제를 보라)이 노아의 홍수를 인해 죽을 때에 몸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신약 시대에 다른 이의 육체를 찾아 다니는 귀신들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은 선교사들이 봉급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신자들이 (1) 하나님의 능력으로 (2)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3)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원리가 아니라 특별히 이번 선교여행을 위해 주시는 지침이다(참조, 눅 22:35-36). 마 6:25-34 은 오늘날 상황에 적용할 실제적 내용이다.

10:9 “너희 전대에” 이 단어는 1 세기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동전을 갖고 다녔는가를 보여준다.

10:10 “배낭” 이러한 종류의 가방은 옷을 담기 위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들이 필요로하는 어떤 것도 갖고 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했다.

▣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막 6:8-9 과의 비교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1. “지팡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걸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 혹은 방어용 곤봉
2. 10 절에 있는 두 벌 옷은 “이 외에 더 가져 가지 말라”를 의미한다
3. 눅 22:35-36 은 하나의 조화를 보여준다

복음서는 우리가 각각의 상세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은 신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재원을 의지하라는 내용이다!

▣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께서 아마도 신 25:4 의 진리를 암시하셨을 것이다(참조, 고전 9:6-7,14; 딤후전 5:18). 이 내용은 신 24:14-15 을 가리킨다(참조, 레 19:13). 복음 전파자들을 그들의 청중이 지원해야 한다! 신약에서 헌금을 위한 지침은 구약의 십일조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희생적으로 감사하면서 능력껏 드려야 함을 말한다(참조, 고후 8-9 장). 23:23 의 특별주제: 십일조를 보라.

10:11

NASB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알아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성을 떠나기까지 이 집에 머물라”

NKJV “그 중에 누가 합당한 자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너희가 갈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NRSV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라, 그리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TEV “가서 어떤 자가 너희를 영접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장소를 떠나기까지 그와 함께 머물라”

NJB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와 함께 머물라”

그들이 마을에 갔을 때 (1)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써 누리는 축복을 사모하는 경건한 가정을 찾아야 했고 (2)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자꾸 옮겨가지 말아야 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은 아마도 그들이 설교할 때 처음으로 응답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10:12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한 평화(shalom)를 구하는 인사말을 가리킨다.

10:13 “... 하면 ... 만일 ...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0:14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상징적 행동이었다(참조, 행 13:51; 18:6).

▣ “진실로” 5:18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10:16-20

<sup>16</sup>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sup>17</sup>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sup>18</sup>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sup>19</sup>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sup>20</sup>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0:16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 보냄과 같도다” 양은 허약하고 무력하며 지속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믿음의 새 공동체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었다. 눅 10:3과 요 10장을 보라. 이 표현은 사람을 특징짓기 위해 사용한 네 동물 가운데 처음 동물이다.

▣ “이리 가운데로” 이리는 믿음의 새 공동체를 노략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마 7:15-27; 눅 10:3; 요 10:12; 행 20:29; 뱀후 2장을 보라.

▣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신자들은 반드시 지혜로워야 하지만 순결해야 한다(참조, 롬 16:19). 그들은 될 수 있으면 갈등을 피해야 했지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했다.

10:17 “삼가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참조, 7:15; 16:6,11). 새 시대의 새벽이 되었지만(롬 5-6장) 아직 옛 시대가 남아 있다(롬 7장)! 이것은 두 시대인 “이미”와 “아직”이 겹침(즉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시는 일)으로 인해 일어나는 긴장이다. 12:31의 특별주제를 보라.

▣ “공회” 이것은 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행한 재판을 가리킨다(참조, 23:34).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강화(참조, 막 13:9-13)의 일부 내용이 마 24장이 아니라 이곳에 나타남은 흥미롭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선교적 과제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23절도 그러하다).

▣ “채찍질” 이것은 유대인들이 행한 채찍질로서(참조, 신 25:3), 40에서 하나를 감한 수를 3분의 일은 몸의 앞쪽에 3분의 2는 뒷쪽에 매질했다(참조, 고후 11:24).

▣ “회당에서” 23:34과의 평행을 이루는 점을 보라. 이곳은 예배, 교육, 구제가 행해진 장소였다.

10:18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것은 장차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될 것을 나타낸다(참조,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5절에 나타난 배타적인 편협함이 이 절과 더불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은 매우 중요하다. 고든 피(*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3쪽)는 주장하기를 예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려진 양들을 찾아 오셨기 때문에 5-12절은 새로 세운 12 사도를 파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10-20절은 이보다 훨씬 후기에 대한 교훈(즉, 총독들, 왕들, 이방인들)이라고 본다. 이 점은 예수의 가르침을 초대 교회의 필요에 적합한 내용이 되도록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자료를 “선택하고 재정리하고 수용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의 또 다른 예는 23절에 있는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이다(23절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 **“총독들과 임금들”** 이것은 (1) 예수님 당시의 본디오 빌라도 혹은 (2) 바울의 선교 활동시기인

1. “총독들”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행 23:24) 또는 베스도(행 24:27)를
2. “왕들”은 아그립바 1 세(행 12:1) 혹은 아그립바 2 세(행 25:13)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부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권세자들을 나타낸다.

10:19 이것은 박해의 때에 있을 특별한 조명과 은혜를 말한다(참조, 막 13:11; 눅 21:12). 이 내용은 설교가나 교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선포할 것을 입증하는 본문이 아니다! 이 절과 26 절은 **부정 불변회사**와 함께 쓰인 **부정과거** 가정법으로서 결코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말라 의미이다.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 28-31 절은 **부정 불변회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0:20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성부와 연관되고 있다(참조, 롬 8:11,14). 롬 8:9; 고후 3:17; 갈 4:6; 뱀전 1:11 에서 성령은 성자와 연관된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 사이에 유동성이 있다. 각 위격이 모두 구속의 행위에 참여하신다. 3:17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 개역개정 10:21-22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21 이것은 제자도가 철저한 헌신을 필요로 함을 말한다. 즉 어떠한 가족적 사랑도 뛰어넘는 것이며 또한 가족 간의 갈등도 종종 가져올 수 있다(참조, 34-39 절).

10: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박해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상해야 하는 일이었다(참조, 5:10-12; 요 15:18-21; 16:1-3; 17:14; 행 14:22; 롬 5:3-4; 8:17; 고후 4:16-18; 6:3-10; 11:23-30; 빌 1:29; 살전 3:3; 딤후 3:12; 약 1:2-4; 뱀전 전체).

#### 특별주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을 받는가?

1. 개인의 죄 때문이다(잠정적 심판). 이것은 모든 문제와 나쁜 환경이 다 죄의 결과임을 뜻한다는 말은 아니다(참조, 욥기; 시 73 편; 눅 14:1-5; 느 9 장; 행 5:1-11; 고전 11:29-30; 갈 6:7).
2.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히 5:8).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도 성숙의 과정을 가지셔야 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다(참조, 롬 5:3-4; 8:28-29; 고후 12:7-10; 빌 3:10; 히 12:5-12; 약 1:2-4; 뱀전 1:7).
3. 능력있고 효과적인 증거를 위함이다(참조, 마 5:10-12; 요 15:18-22; 뱀전 2:18-21; 3:13-17).
4. 새 시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상징한다(참조, 마 24:6; 막 13:8).

▣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의 교리(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는 “신자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이다(참조, 24:18; 갈 6:9; 계 2:7,11,17,26; 3:6,12; 21:7). 이 두 가지가 교리적으로 상충될지라도 우리는 양쪽을 다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 교리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와 긴장을 이루며 주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로서는 성경의 진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니라 성운을 이루는 별들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의 전체적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텔로스)은 이 시대의 끝을 가리킨다(참조, 24:6,13,14). “구원을 얻다”는 육신적 구원(구출)을 뜻하는 구약적 의미로 혹은 영적 구원을 뜻하는 신약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특별주제: 인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성경적 교리들은 그것이 전형적으로 동양의 변증법적 쌍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쪽을 선택하고 그 반대 쪽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의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응답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 인내의 주제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분명하게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엡 1:13; 2:5, 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공관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 24-30; 24:13; 막 13:13)
- 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요 8:31; 15:4-10)
- ㄷ.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딤후 3:2)
- ㄹ.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 (2:1; 3:6,14; 4:14; 6:11)
- ㅁ.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장; 계 2:7,17,20; 3:5,12,21;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시작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락한 창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과 공급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읽기 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 쪽)
- 2. 하워드 마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베다니 펠로우쉽, 1969
- 3. 로버트 쉐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 말한다: (1) 열매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것. 문제는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취하고 한정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어거스틴 대 펠라기우스 또한 칼빈 대 알미니우스(중도 펠라기우스적 입장)간에 일어난 역사적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키시는 능력을 확인하는 성경본문(요 10:27-30; 롬 8:31-39; 요일 5:13,18; 벧전 1:3-5) 및 엡 2:5,8 의 **완료 수동 분사**처럼 **동사의 시제**에 근거하여 주장을 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에게 “굳게 붙들다” “지속하다” “계속하다”를 경고하여 말하는 성경 본문(마 10:22; 24:9-13; 막 13:13; 요 15:4-6; 고전 15:2; 갈 6:9; 계 2:7,11,17,26; 3:5,12,21; 21:7)에 근거하여 주장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6 장과 10 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많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배교에 대한 경고로 취했다. 마 13 장과 막 4 장에 있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요 8:31-59 과 같이 분명한 믿음에 대한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고전 1:18; 15:2; 고후 2:15 에서와 같이 **현재 시제**를 인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신학적 체계가 성경해석에 있어서 본문을 오용하여 자기 주장을 입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일반적으로 주된 원리 혹은 주요 본문에 기초하여 신학적 틀을 만들고 그것에 비추어 다른 모든 본문을 평가한다. 어디에서 취한 것이든 간에 이러한 틀의 사용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 틀들은 서구적 논리에서 온 것이지 계시에서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동양의 책이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여겨지는 쪽으로 인한 긴장이 가득한 형태로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긴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러한 긴장을 갖고 살아야 한다. 신약은 신자가 가진 구원의 안전을 말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믿음과 경건한 삶을 요구한다. 기독교는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응답이 따르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의 종교이다. 구원은 산물(천국행 표나 화재 보험증)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것은 결단이요 제자의 삶이다. 이러한 내용이 신약에서 **동사의 모든 시제**를 통해 확인된다:

- 부정과거**(완성된 행위), 행 15:11; 롬 8:24; 딤후 1:9; 딤후 3:5
- 완료**(완성된 행위와 계속되는 결과), 엡 2:5,8
- 현재**(계속되는 행위), 고전 1:18; 15:2; 고후 2:15
- 미래**(미래의 사건이나 어떤 사건들), 롬 5:8,10; 10:9; 고전 3:15; 빌 1:28; 살전 5:8-9; 히 1:14; 9:28

개역개정 10:23

<sup>23</sup>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0:23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막 9:1에서는 평행으로 나타난다. 10:22의 설명과 특별주제를 보라.

▣ “저 동네로 피하라” 신자들은 대결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복음전도가 계속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 “진실로” 5:18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처음에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1. 12 사도가 그들의 선교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신다
3. 교회의 시작(즉, 오순절 사건)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즉, 요 20:19-23의 다락방 사건)
5. 주후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NASB 연구성경, 1382쪽)
6.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권능 가운데 재림하사(즉, 단 7:13-14)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심

23:27의 특별주제: 예수께서 언제라도 오심 대 아직(신약의 역설)을 보라.

**개역개정 10:24-25**

<sup>24</sup>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sup>25</sup>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10:25 “. . . 같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바알세불” 이것은 *바알*과 *세불*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예글론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이었다(참조, 왕하 1:16).

유대인들은 이방인 통치자와 이방인의 신들의 이름의 모음을 변경시켜 그들을 놀렸다. 이 용어는 “집의 주” “파리들의 주” 혹은 “똥의 주”로 번역된다.

두 번째 단어는 유대인의 전통문화에 나오는 주요 귀신인 *세불*로 발음이 된다(참조, 마 12:24; 눅 11:15). 이 점은 왜 NASB와 NRSV가 *바알세불*로 말하고 NKJV와 NIV는 *바알세불*으로 말하는 지를 설명해 준다.

**개역개정 10:26-27**

<sup>26</sup>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sup>27</sup>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10:26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10 절과 같이 부정의 뜻으로 사용된 부정과거 수동(디포) 가정법이 28 절과 31 절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정과거 능동 명령의 기능을 갖는다. 이 절은 심판의 날에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알려지게 될 것을 말한다.

이 절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다 잊으신다는 성경의 약속과 연결시키기 어렵다(참조, 시 103:11-14; 사 1:18; 38:17; 43:25; 44:22; 미 7:19). 아마도 자백하지 않은 죄(신자들의 경우, 참조, 요일 1:7-9)나 용서받지 않은 죄(불신자의 경우)를 가리킬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잊으심”을 인해 즐거워한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참조, 히 9 장)!

신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참조, 28 절; 히 10:31).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이 절이 다음에 나오는 이들의 동기와 행동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1. 전도자가 머물기에 적합지 않은 가정, 13 절
2. 이리, 16 절
3. 악한 자, 17 절
4. 총독들과 왕들, 18 절
5. 형제, 21 절
6. 자식, 21 절
7. 23 절에서 박해하는 자들
8. 26 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
9. 28 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10:27 “집 위에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평평한 지붕이 일반적이었다. 그곳에서 여러 사회적 활동이 행해졌다. 따라서 말한 내용이 공동체에게 들려질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다!

**개역개정 10:28-31**

<sup>28</sup>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sup>29</sup>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sup>30</sup>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sup>31</sup>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0:28 “두려워하지 말라” 26 절의 설명을 보라.

▣ “멸하실 수 있는 이를” 2:13의 특별주제: *아폴루미*를 보라.

▣ “몸과 영혼” 이절은 몸, 혼, 영의 정확한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을 육체적 죽음의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님을 뜻하고 있다.

**특별주제: 몸과 영**

몸과 영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분법이 아니라, 지구와 하나님께 대한 이중적 관계성을 말한다. 히브리 단어인 *네페스*(즉, 영)는 창세기에서 사람과 짐승 양쪽에 대해 쓰였지만, “영”(루아흐)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두 부분(이분법, 참조, 고전 7:34; 히 4:12) 혹은 세 부분(삼분법)으로 된 존재(참조, 살전 5:23)임을 입증하려는 본문이 아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이다(참조, 창 2:7; 고후 7:1). 인간의 존재에 대한 삼분법적 이론, 이분법적 이론, 통일체적 이론에 대하여는 밀라드 J.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제 2 판)의 538-557 쪽과 프랭크 스타크의 *인간 존재의 다양성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보라.

▣ “지옥에” 이것은 히브리 용어인 “*게헨나*”를 말한다. 이곳은 “골짜기”와 “힌놈(의 아들들)”의 합성어였다. 이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골짜기였는데,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산의 신이요 불의 신을 위해(참조, 레 18:21) 자녀들을 제사(몰렉으로 불림) 지냄으로서 섬기던 곳이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다. 예수께서 영원한 벌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 은유는 이곳에 불이 있고 악취가 진동하며 구더기가 들끓는 쓰레기 더미에서 취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 5:22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10:29-30 “참새... 머리털”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알고 계시며 돌보신다(참조, 눅 12:6; 21:18; 벧전 5:7). 이것은 개인에 대한(공동체에 대한 것이 아님) 돌보심의 약속이다.

▣ “한 앗사리온” 이것은 로마의 동전이였다. 한 앗사리온으로 참새를 여러 마리 살 수 있었다.

10:31 “두려워하지 말라” 19 절과 26 절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0:32-33**

<sup>32</sup>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sup>33</sup>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것은 “공적으로 시인함”을 뜻한다(참조, 막 8:38; 눅 12:8-9). 32 절과 33 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평행적 진술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서 사람이 반드시 이를 개인적으로 공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간직할 내용이다.

**특별주제: 시인**

- 가. 헬라어에서는 시인함과 공언함을 표현하기 위해 같은 어근에서 온 두 단어를 사용한다(*호모레게오*와 *엑소모로게*). 야고보서에서는 *호모*(같음), *레고*(말하다), *엑스*(~로 부터)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뜻은 같은 내용을 말하다 또는 동의하다이다. 첨가된 *엑스*는 그것이 공공적으로 선언된 것임을 나타낸다.
- 나.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1. 찬송하다
  2. 동의하다
  3. 선언하다
  4. 인정하다
  5. 고백하다
- 다. 위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찬송하기(하나님)
  2. 죄를 인정하기
-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죄있음을 인간이 자각함에서 이 두 가지가 발전했을 것이다. 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두 쪽을 다 깨닫는 것이 된다.
- 라. 신약성경은 다음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1. 약속하기(참조, 마 14:7; 행 7:17)
  2. 동의를 나타내기(참조, 요 1:20; 눅 22:6; 행 24:14; 히 11:13)
  3. 찬송하기(참조, 마 11:25; 눅 10:21; 롬 14:11; 15:9)
  4. 시인하기
    - ㄱ. 사람을(참조, 마 10:32; 눅 12:8; 요 9:22; 12:42; 롬 10:9; 빌 2:11; 요일 2:23; 계 3:5)
    - ㄴ. 진실을(참조, 행 23:8; 고후 11:13; 요일 4:2)
  5. 공적 선언을 하기(법적 의미가 종교적 확인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됨, 참조, 행 24:14; 딤펴전 6:13)
    - ㄱ.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참조, 딤펴전 6:12; 히 10:23)
    - ㄴ. 죄를 인정하는 경우(참조, 마 3:6; 행 19:18; 히 4:14; 약 5:16; 요일 1:9)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에 대해 사용한 여러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다

1. 너희의—5:16,45; 6:1; 7:11
2. 우리의—6:9
3. 나의—7:21; 10:32,33; 12:50

나는 12:50 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성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거부하는 자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공인받은 랍비가 아닌 북쪽 갈릴리에서 온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야웨를 “아버지”로 일컫는 것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분개하게 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시키는 일은 더더욱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10:33 “시인하다”(호모로게오, 참조, 32 절[2 회])의 반대어는 “부인하다”(알네오마이, 참조 33 절[2 회]; 26:70,72 [앞알네오마이, 26:35,75])이다. 위에 있는 32 절의 특별주제: 시인을 보라.

이 내용은 딤펴후 2:12 과 같이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다. 말(참조, 롬 10:9-13)과 행동으로써 공공적 시인을 함(참조, 마 13:1-23; 25:36-46)이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제 영원과 관련이 있다(참조, 25:46).

#### 개역개정 10:34-36

<sup>34</sup>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sup>35</sup>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sup>36</sup>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10:34 “생각하지 말라” 바바라의 디모테 프리빅의 분석적 헬라이어 신약성경에 의하면 이 동사는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평화의 왕자”(참조, 사 9:6)로 불리는 메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에 반하여 이러한 언급을 하셨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군사적 질서를 이루고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국가적 평화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했다(참조, 눅 12:49-53).

▣ “화평” 이 용어는 “부서진 것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참조, 요 14:24).

▣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전쟁이나 투쟁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교제”나 거부함 중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요 3:17; 눅 12:51-53).

10: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21 절을 보라.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눅 14:26 에는 “아버지를 미워하다”라는 히브리 관용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비교를 뜻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것을 글자대로 이해하는 대신 히브리 관용적 표현을 고려하여 이해해야만 한다(참조, 창 29:31,33; 신 15 장; 말 1:2-3; 요 12:25). 이것은 예수께 대한 헌신이 지상의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며 가장 중요함을 뜻한다.

10:35-36 이것은 미 7:6 의 인용이다. 이 본문은 종말론적 배경에서 종종 인용되었다(참조, 막 13:12; 눅 12:53).

10: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러한 종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한 반응에서 잘 드러난다(참조, 마 16:22).

**개역개정 10:37-39**

<sup>37</sup>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sup>38</sup>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sup>39</sup>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10:37 “...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핵심은 근본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헌신이다. 결심과 달리 제자의 삶은 생애에 걸친 교제와 순종을 말한다!

▣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눅 9:62 의 특별주제를 보라.

10: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으로의 초청을 나타내는 회화적 은유이다. 예수께서는 이에 응하려는 자들이 계산을 하고 임할 것을 요구하신다(참조, 눅 14:25-35).

십자가는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하던 사형방법이었는데, 이것을 로마인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여러 날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주는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처형은 로마인이 아닌 자들의 범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러한 처형을 행한 역사적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안티오크스 4 세인 “에피파네스”가 800 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2. 로마의 장군인 바루스가 폭동을 진압한 후 2000 명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의 대로를 따라 십자가에 처형했다(참조,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7:10:10)
3. 헤롯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왔을 때에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람들이 슬퍼 울게 하려는 계획을 가졌었다

이 은유는 당신의 삶에 따를 어떤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음을 가리킨다(참조, 고후 5:14-15; 갈 2:20; 요일 3:16).

10:39 “목숨 ... 목숨” 이것은 헬라어의 *프쉬케*이다. 이 용어는 종종 “영”[*프뉴마*]의 동의어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개인 혹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이 진술은 예수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리킨다(참조, 마 10:39; 16:25; 막 8:35; 눅 9:24; 17:33; 요 12:25). 구원은 일회적인 결심이 아니며 일회적인 기도 이상의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것(소유, 가족, 명예, 시간, 노력)을 요구한다! 이보다 더 조금 할 수는 없다!

▣ “잃다” 2:13 의 특별주제: *아플루미*를 보라.

**개역개정 10:40-42**

<sup>40</sup>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sup>41</sup>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sup>42</sup>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40,41 “나를 영접하는 자는 ... 선지자 ... 의인” 문맥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예수를 직접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선지자”라는 용어는 신 18:15,18 을 암시한다. “의인”은 행 7:52 에 있는 “의로우신 분”과 같은 말이고 아마도 사해사본에 나오는 “의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암시할 것이다.

예수의 혁신적인 새 메시지는 예수와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향한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와 소망으로 모셔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메시지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함은 성자를 영접하는 것이다(참조, 요 8:19; 16:3; 17:3; 요일 2:23; 4:15; 5:1,10-12; 요이 9 절). 우리는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를 알 수 없고 성부와 사귀는 가질 수 도 없다(참조, 요 14:6-7,8-11).

▣ “보내신”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보내다 (아포스텔로)**

이것은 “보내다”(즉, 아포스텔로)를 뜻하는 헬라어로서 많이 사용된 단어이다. 이 용어는 몇 가지 신학적 용법을 가진다:

1. 랍비들은 부름을 받고 공적 대표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는 “대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참조, 고후 5:20)
2. 복음서는 예수께서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을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마 10:40; 15:24; 막 9:37; 눅 9:48; 특히 요 4:34; 5:24,30,36,37,38; 6:29,38,39,40,57; 7:29; 8:42; 10:36; 11:42; 17:3,8,18,21,23,25; 20:21). 이 단어는 예수께서 신자를 보내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요 17:18; 20:21)
3. 신약은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였다
  - ㄱ. 제자들의 소그룹인 최초의 12 제자(참조, 눅 6:13; 행 1:21-22)
  - ㄴ. 사도들을 도운 이들과 동역자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그룹
    - (1) 바나바(참조, 행 14:4,14)
    - (2)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스(KJV, 유니아, 참조, 롬 16:7)
    - (3) 아볼로(참조, 고전 4:6-9)
    - (4) 주님의 형제 야고보(참조, 갈 1:19)
    - (5) 실바와 디모데(참조, 살전 2:6)
    - (6) 아마도 디도(참조, 고후 8:23)
    - (7)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참조, 빌 2:25)
  - ㄷ.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난 은사(참조, 고전 12:28-29; 엡 4:11)
4. 바울은 그가 쓴 많은 편지에서 이 호칭을 자신에 대해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삼으신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참조, 롬 1:1; 고전 1:1; 고후 1:1; 갈 1:1; 엡 1:1; 골 1:1; 딤후 1:1; 딤후 1:1).

10:42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 주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자”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말한다(참조, 마 18:6).

▣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상”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을 아주 많이 언급한다. 이러한 상은 신자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신자의 순종에 기초한다. 한편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함에 대해서 또 그들이 받은 영적 은사를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상이 있을 것이다! 5: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왜 자신의 사역을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로 제한시키셨는가? 당신은 예외의 경우를 열거할 수 있는가?
2.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다르게 다루는가?
3. 상과 벌에는 다른 등급이 있는가? 상과 벌의 근거는 무엇인가?
4. 23 절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
5.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공공적으로 시인함이 왜 중요한가?
6. 예수께서는 왜 이러한 논쟁을 일으키셨는가?
7.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 마태복음 1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에루살렘성경 (NJB)
침례(세례)요한의 사자  (10:40-11:1)	침례(세례)요한이 사자를 보내다  11:1-19	예수께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이야기들  (11:2-15:50)	침례(세례)요한에게서 온 사자  11:1	침례(세례)자의 질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11:1
11:2-15		11:2-6  11:7-15	11:2-3  11:4-6  11:7-15	11:2-6  11:7-10 (10b)  11:11-15  예수께서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시다
11:16-19		11:16-19	11:16-19	11:16-19 (17)
회개치 않음에 대한 화  11:20-24	회개치 않는 도시에 대한 화  11:20-24	11:20-24	믿지 않는 도시들  11:20-24	호수 인근의 도시에 대한 탄식  11:20  11:21-24
내게 와서 쉬라  11:25-30	예수께서 참 쉬음을 주신다  11:25-30	11:25-27  11:28-30	내게 와서 쉬라  11:25-26  11:27  11:28-30	어리석은 자에게 드러난 복음. 성부와 성자  11:25-27  그리스도의 인자한 지도  11:28-3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11:1-30 에 대한 배경 연구

- 가. 이 장은 종종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야기로 말해진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로 엮는 요소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단일 것이다: “왜 예수의 사역은 외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으로 보이지 않았는가?”
- 나. 침례(세례)요한은 이 장에서 중심인물이다(참조, 요 1:6-8, 19-36). 그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었다(참조, 9 절).
- 다.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 볼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열거했다. 침례(세례)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였다(즉, 사 40:3; 말 3:1; 4:5b). 이 모든 일들은 8 장과 9 장에 기록된 예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이었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1:1

<sup>1</sup>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것은 마태가 그의 책의 대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구이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5 대단위의 끝부분에 나온다(참조, 7:28; 11:1; 13:53; 19:1; 26:1).

▣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예수의 주된 사역이었다(참조, 4:23; 9:35). 병고침은 복음을 확증하고 그의 유효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 병고침 자체가 예수의 중심사역은 아니었다. 병고침은 (1)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2)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며 (3)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참조, 5 절).

#### 개역개정 11:2-6

<sup>2</sup>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sup>3</sup>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sup>5</sup>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sup>6</sup>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1:2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침례(세례)요한은 마케루스에 갇혔다(요세푸스, *유대인 고대사* 18.5.2).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의 성채 가운데 하나였다. 이곳은 사해 동편에 있었다. 헤롯은 자신이 헤롯 빌립의 전처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에 대해 요한이 설교했기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빌립으로부터 그녀를 피어냈다(참조, 요세푸스, *유대인 고대사* 18.5.2).

▣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을 가진 용어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나타낸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기름부음을 받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일을 성취하셨다(참조, 히 1:1-3).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불리기까지 했다(참조, 사 44:28; 45:1).

11: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것은 메시아를 일컫는 호칭이다(참조, 시 118:26; 종종 다음의 본문에서 암시된다, 마 21:9; 23:39; 막 11:9; 눅 13:35; 19:38; 요 6:14; 11:27; 12:13; 히 10:37). 8:20의 특별주제를 보라.

눅 1:15에서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었다. 요한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다:

1.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 용기를 잃었다
2. 존 칼빈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가리켰다고 말한다
3. 그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예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참조, 마 3:7-12)

“다른 이”는 헬라어로 헤테로스로서 고전적 헬라어에서는 “다른 종류의 어떤 이”를 뜻한다. 예수께서 전하신 모든 이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메시아가 전하기를 요한은 기대했다.

**11: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 절은 이사야서의 인용이다. 이 내용이 26:19; 29:18,19; 35:5-6; 61:1 가운데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내용은 메시아의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동정과 그들에 대한 병고침의 사역임을 강조한다.

**11:5 “복음”** 이 명사형(*유앙겔리온*, 바울의 글에서 60 회 이상 사용됨)은 4:23; 9:35; 24:14; 26:13 에 나온다. 이 동사형(*유앙겔리조마이*)은 오직 마태복음의 이곳에서만 나온다(요한복음이 아님). 이 단어는 예수의 메시지인 “좋은 소식”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것은 죄 및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말하는 “나쁜 소식”을 포함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 대한 죄 용서함, 회복,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승리의 좋은 소식은 영적 갈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1:6** 이것은 요한이 믿음이 없음에 대한 부드러운 책망이다. 성경은 인물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 언급한다. 이 점은 성경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라 역사상 있었던 실제 인물들이 가졌던 솔직한 느낌과 실수를 드러낸다!

마태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인 예수는 누구인가를 다루기 위해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

#### 개역개정 11:7-15

<sup>7</sup>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sup>8</sup>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sup>9</sup>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sup>10</sup>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sup>11</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sup>12</sup>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sup>13</sup>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sup>14</sup>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sup>15</sup>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7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삼중적인 평행법을 주목하라. 요한은 엘리야와 같았다; 그는 말 3:1 과 사 40:3 의 예언을 성취했다(참조, 막 1:2-3).

이 내용은 아마도 (1) 요한이 공공적으로 한 질문에서 드러난 그의 의심(즉, 3 절)을 드러내거나 (2) 죄를 비난함(즉,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죄)에서 보여진 요한의 강직성과 도덕적 용기를 드러낼 것이다.

**11:9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최초의 복음 설교가가 아니라,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신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신약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과 같은 일부 사도들은 선지자로 일컬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

- I.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야웨로부터 받은 영감된 계시로 보는 랍비들의 견해와 같지 않다(참조, 행 3:18, 21; 롬 16:26). 선지자들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
  - 가. 모세는 선지자로 불렸다(참조, 신 18:15-21).
  - 나. 역사서(여호수아 - 열왕기서[룻기는 제외])는 “전기 예언서”로 불렸다(참조, 행 3:24).
  -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선지자들은 대체사장의 자리를 대신했다(참조, 이사야 - 말라기[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을 제외하고]).
  - 라. 히브리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언서”이다(참조, 마 5:17; 22:40; 눅 16:16; 24:25,27; 롬 3:21).
- II. 신약에서 이 개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 가. 구약의 선지자와 그들이 전한 영감받은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마 2:23; 5:12; 11:13; 13:14; 롬 1:2)
  - 나. 공동체에 대한 것보다 개인에게 준 메시지를 가리킨다(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11:9; 14:5; 21:26; 눅 1:76)과 예수를 가리킨다(참조, 마 13:57; 21:11,46; 눅 4:24; 7:16; 13:33; 24:19). 예수님을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으로

- 나타내었다(참조, 마 11:9; 12:41; 눅 7:26)
- 라. 신약에서 언급한 다른 선지자들
1.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초기 삶(즉, 마리아의 기억)
    - ㄱ. 엘리사벳(참조, 눅 1:41-42)
    - ㄴ. 사가랴(참조, 눅 1:67-79)
    - ㄷ. 시므온(참조, 눅 2:25-35)
    - ㄹ. 안나(참조, 눅 2:36)
  2. 아이러니한 예고(참조, 가야바, 요 11:51)
- 마. 복음을 전한 사람을 가리킨다(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한 목록은 고전 12:28-29 과 엡 4:11 에 나온다)
- 바.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은사로 언급된다(참조, 마 23:34; 행 13:1; 15:32; 롬 12:6; 고전 12:10,28-29; 13:2; 엡 4:11). 어떤 때는 이 용어는 여자에게 사용되었다(참조, 눅 2:36; 행 2:17; 21:9; 고전 11:4-5)
- 사. 묵시적 책인 계시록을 가리킨다(참조, 계 1:3; 22:7,10,18,19).

### III. 신약의 선지자

- 가.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즉, 성경)과 같은 의미에서 영감받은 계시를 준 것이 아니었다. 행 6:7; 13:8; 14:22; 갈 1:23; 3:23; 6:10; 빌 1:27; 유다서 3, 20 절에서 사용된 “믿음”(즉, 완성된 복음이라는 의미)이라는 표현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가능하다.

이 개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완전한 표현이 사용된 유다서 3 절에 분명하게 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과 관련된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렇듯 “단번에”를 통해 나타난 강조는 신학적으로 영감을 신약 이후에 쓰여진 책이나 성경 이외의 책들에 대하여가 아니라 신약의 기록으로 제한시키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 신약에는 애매하고, 확실치 않고, 불분명한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믿음과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신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에 잘 드러난다.

1.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택하시 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과 생각을 열어 기록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이는 완벽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원과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정도이다(조명)
- 요점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성경 이외에 권위를 갖는 기록, 비전,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합하게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성경 저자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에 반해 진실되고 경건한 신자들은 서로 불일치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의 어떤 저자나 강사도 성경의 저자들이 누렸던 정도의 신적 인도함을 갖지 못한다.

- 나.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다.
1. 미래 사건의 예언(참조, 바울, 행 27:22; 아가보, 행 11:27-28; 21:10-11;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 행 20:23)
  2. 심판을 선언함(참조, 바울, 행 13:11; 28:25-28)
  3. 상징적 행동으로 생동감있게 묘사된 사건(참조, 아가보, 행 21:11)

- 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떤 때는 예언적 방법으로 전했다(참조, 행 11:27-28; 20:23; 21:10-11). 하지만 이 방법은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기본적으로 복음전함을 뜻한다(참조, 14:24, 39).

- 라. 예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각각의 새 상황, 문화, 시대에 적합한 실제적 적용을 하도록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이였다(참조, 고전 14:3).

- 마. 예언은 바울이 세운 초기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졌고(참조, 고전 11:4-5; 12:28,29; 13:29; 14:1,3, 4,5,6,22,24,29,31,32,37,39; 엡 2:20; 3:5; 4:11; 살전 5:20), 디다캐(1 세기 말이나 2 세기 경에 쓰여진 책, 정확한 연대는 불확실함)와 2-3 세기 북 아프리카에서 있던 몬타니즘에서 언급된다.

### IV. 신약의 은사는 그쳐졌는가?

- 가. 이 질문은 답하기 어렵다. 은사의 목적을 정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은사는 초기에 행해진 복음 설교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면 교회가 잃어버려진 세상과 자신에 대한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함이었는가?

- 나. 이 대답을 위해서 교회사를 고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약성경 자체를 살펴볼 것인가? 신약에는 영적은사가 일시적이었다는 언급이 없다.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고전 13:8-13 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오용하는 것이다.

- 다. 나는 교회사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이 권위를 갖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은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된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편 나는 문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어떤 구절은 명백히 다른 문화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예, 거룩한 입맞춤,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 등). 만일 문화가 본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왜 교회사는 안되는가?
- 라. 이것은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어떤 신자들은 은사가 “그쳤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해석적 문체와 같이 이 영역에서도 신자의 생각이 열쇠가 된다. 신앙의 내용이 애매하고 문화적 영향을 나타낸다. 어떤 본문이 문화/역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어떤 본문이 영원한 내용인지는 결정해야 할 어려운 사항이다(참조, 피와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4-19, 68-77 쪽).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롬 14:1-15:13 과 고전 8-10 장에 나오는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각 신자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2. 다른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이해에 따라 걸도록 각 신자가 반드시 서로 허용해야만 한다. 성경의 영역에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
- 마.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자면,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하는 삶이지 완전한 신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명확한 이해나 완전한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과의 사귄다.

11:10 “...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말 3:1 의 인용이다. 이것은 왕의 방문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몹시 흥분되 준비를 나타낸다. 막 1:2-3 은 말 3:1 과 사 40:3 을 합성한 인용이다. 이와 똑 같은 개념이 사 57:14; 62:10 에 나온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오시는 그 분)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모아 제시하고 있다. 이 일은 구약의 많은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취해졌다. 그 내용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개된다.

1.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거나 암시함으로써
  - ㄱ. 선지자, 1:22(이름을 말하지 않음, 사 7:14)
  - ㄴ. 선지자, 2:5(이름을 말하지 않음, 미 5:2)
  - ㄷ. 선지자, 13:35(이름을 말하지 않음, 시 78:2)
  - ㄹ. 선지자, 21:4(이름을 말하지 않음, 사 62:11)
2.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 ㄱ. 사 3:3; 4:14; 12:17; 13:14; 15:7
  - ㄴ. 렘 2:18; 27:9
3. 기록된바(완료 수동), 4:6,10; 11:10; 21:13; 26:24,31
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15:4; 22:31
5. 읽지 아니하였느냐, 19:4; 21:16,42
6. 모세가 말하기를, 22:24
7. 다윗이 성령으로, 22:43

예수의 출생, 삶, 죽음, 부활, 재림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참조, 26:54-56).

11:11 “진실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으로서 믿음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이다(참조, 합 2:4). 이 단어의 어원적 기원은 “견고하다” 혹은 “확실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종종 예수께서 중요한 선언을 하시기 전에 사용한 단어이다.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절은 침례(세례)요한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확인한다(참조, 13:16,17). 어떤 면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시작하신 새 시대(새 언약, 렘 31:31-34; 겔 36:22-38)의 중요성을 예수께서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었다.

11:12

NASB, NKJV,

NRSV

“천국이 침노를 당하며, 폭력적인 자가 힘으로 이것을 빼앗느니라”

TEV

“천국이 격렬한 공격을 받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려고 하느니라”

NJB

“천국이 침노를 당했고 폭력적인 자가 이것을 단번에 빼앗고 있느니라”

이 절이 무엇을 뜻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첫 부분은 (1) 긍정적인 의미로서 천국이 격렬히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2) 부정적 의미로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과 예수의 설교에 대해 격렬히 반대한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부분은 죄인들이 복음에 응답함에 있어서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을 “격렬한”이라는 말을 사용한 언어유희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16:16). 70 인역은 이 동사를 “강력한 초청”으로 사용한다(참조, 창 33:11; 삿 19:7). 4:17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라.

11:1 “모든 선지자와 율법” 히브리 정경은 “율법” “선지자”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이 표현은 구약 전체를 일컫는 신약의 방법이였다(참조, 눅 24:44). 구약은 예수와 복음을 가리켜 나타낸다.

**특별주제: 히브리 정경**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한글 성경은 70 인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1. 토라(모세오경), 창세기 - 신명기
2. 예언서
  - ㄱ.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 열왕기하(룻기는 아님)
  - ㄴ. 후기 예언서, 이사야 - 말라기(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은 아님)
3. 성문서
  - ㄱ. 지혜서, 욥기 - 잠언
  - ㄴ. 포로기 이후의 성문서, 에스라 - 에스더
  - ㄷ. 메길롯(5 책)
    - (1) 룻기(오순절 때 읽음)
    - (2) 전도서(초막절 때 읽음)
    - (3) 애가(유월절 때 읽음)
    - (4) 예레미야 애가(주전 586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며 읽음)
    - (5) 에스더(부림절 때 읽음)
  - ㄹ. 역대상과 역대하
  - ㅁ. 다니엘

11:13 “요한까지니” 이것은 옛 언약이 침례(세례)요한의 설교를 인해 마쳐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갈 3장과 히브리서). 그는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예수 안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이르렀다. 요한은 예수의 선구자였다! 성령의 새 시대와 새 언약과 창 3:15; 12:3의 약속이 이르렀다!

11:14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것은 눅 1:17에서 나타난다. 요 1:20-25에서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임을 부인한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바리새인들이 한 특정의 질문과 관련하여서 한 대답이었다. 요한이 부인한 내용은 자신이 다시 태어난 엘리야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예수께서는 말 3:1과 4:5(참조, 10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요한이 성취했음을 말씀했다.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관용구(현재 분사와 현재 명령)는 성령이 신자들로 깨닫게 돕지 않으면 그들이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사 6:9-10-; 50:5; 마 13:9,43; 막 4:9,23; 눅 8:8; 14:35; 이것은 계 2:7,11,17,29; 3:6,13,22; 13:9와 매우 비슷하다). 한편 이 표현은 각 사람이 듣고 응답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계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듣고 응답하는 인간이 함께 연관된다(즉, 언약).

**개역개정 11:16-19**

<sup>16</sup>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sup>17</sup>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sup>18</sup>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sup>19</sup>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11:16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것은 눅 7:31-32과 평행을 이룬다. 비록 침례(세례)요한이 금욕주의자(즉, 엘리야처럼 광야의 선지자)로서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회 계층과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분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도 거부했다. 이 내용은 유대 지도자들의 변덕스러움 혹은 그들이 기존에 가진 편견을 드러낸다.

11:17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은 예수께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참조, 19 절). 피리는 잔치나 장례식(17b 절)에서 춤추는 것(17a 절)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의 사역을 가리키는 어두운 표현이다(참조, 18 절).

11:18 “귀신이 들렸다” 같은 비난이 9:34 과 12:24 에서 예수께 쏟아졌다(참조, 요 7:20; 8:48-49,52; 10:20). 이것은 요한이 귀신들렸다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이다. 유대인들은 요한이나 예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악한 자에게서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11:19 “인자”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취한 자신의 칭호인데 그것은 이 칭호가 비군사적 비국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참조, 겔 2:1; 시 8:4; 단 7:13). 이렇게 합하여 나타난 두 가지 내용은 신약에서 중요한 진리가 되었다(참조, 요일 4:13).

▣ “떡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행동하셨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한 바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참조, 9:11; 눅 5:30; 7:34; 15:2).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의 성취였다.

종교적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는 교회에 이 같은 영적/신학적 갈등을 가져왔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새 국제 신약 신학 사전** 제 1 권 495 쪽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서에서 예수는 소유, 성적 관계, 음식에 대한 금욕을 명령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에게 금욕을 행할 것을 말씀한 경우를 배제시켜야함을 뜻하지 않는다(참조, 부유한 청년 관리의 이야기, 마 19:21). 바로 이와 같은 본문(참조, 마 11:19; 9:14 이하; 막 2:18 이하; 눅 5:33 이하)에 기초하여 우리가 예수의 기본 입장을 이끌어 낼 수 없듯이 금욕적 윤리에 대한 전체적 유효성에 관한 예수의 뜻을 이러한 본문에 기초하여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금욕은 오직 그것이 예수를 따름에 있어 걸림이 될 때에만 요구되었다”

11:19

NASB, NKJV

“그렇지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NRSV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TEV

“한편 하나님의 지혜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참됨을 나타내느니라”

NJB

“그렇지만 지혜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증명되느니라”

“지혜”에 대한 언급은 의인화된 지혜에 대해 말하는 잠언 8 장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의인화된 지혜이시다. 이 같은 은유적 표현의 경우가 12:42 에 나온다. 예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크신 자이시다(또한 예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주목하라, 12:6; 요나서, 12:41). 예수께서 11:29 에서 말씀하신 “멍에”조차도 지혜자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문구였다.

헬라이어 사본 사이에 변이가 이곳에 나타난다. 그“행한 일”로 인하여는 고대 대문자체 사본인 **N**, B, W 에 나오고 “자녀들”은 바티칸 B<sup>2</sup>의 교정자, C, D, K, L 사본에 나온다. “자녀들”은 눅 7:35 에서 평행되는 내용이며 서기관들이 문장을 일치시키려고 이곳에 추가한 단어로 여겨진다. “행한 일”은 2 절을 가리킨다. UBS<sup>4</sup>는 “행한 일”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같은 진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라”(참조, 마 7:16,20; 12:33)라는 표현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예수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이다. 8-9 장에 있는 예수의 행하심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행동이었다(참조, 사 29:18-19; 35:5-6; 61:1-2).

#### 개역개정 11:20-24

<sup>20</sup>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sup>21</sup>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sup>22</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sup>23</sup>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sup>24</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11:20-24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이것은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나타낸다(참조, 눅 12:48). 예수님 당시의 도시들을 구약 시대의 도시들과 비교하고 있다. 이 도시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가 전하시는 가르침을 들었다.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두로, 시돈, 소돔,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다. 한편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도시들은 그들이 응답해야 할 더욱 커다란 빛을 경험했다. 더 커다란 빛을 받은 자들이 더 많이 응답해야 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된다(참조, 18:7; 23:13,15,16,23,25,27,29; 24:10; 26:24).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세 가지의 일반적 문학적 기교 가운데 하나였다(약속의 선포, 법정 장면, 장례식 만가 혹은 애가). 이 형태는 장례식 만가(애가)를 나타낸다.

▣ “회개하다” 회개는 구원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죄와 자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며, 믿음은 구원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뜻을 합하여 이해할 때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회개는 느낌 이상의 것이다(참조, 고후 7:8-11). 이것은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이어야만 한다. 4:17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1:21,2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불리는데, 거짓된 진술을 제시하는 목적은 여기에 기초한 거짓된 전체를 밝혀 내기 위함이다.

11:21 “고라신” 이것은 예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한정된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행해진 예수의 기적들에 대한 복음서의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서는 서양의 역사책이 아니라 특별한 독자들(즉,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에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신학적 진리를 선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요 20:30-31).

▣ “벧새다” 두 벧새다가 있었다. 하나는 가버나움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 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이다. 23 절의 설명을 보라.

▣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죄악되고 자궁하는 국가 혹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23 절에서 사용한 이 표현은 사 14:13-15 과 겔 28:12-16 과 관련이 있다. 이 두 본문은 사탄의 교만을 나타내기 위한 예로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다.

▣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문맥에서 이곳은 회개를 나타낸다(참조, 욥 3:5-8).

**특별주제: 슬픔의 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자신의 회개와 관련하여 혹은 공동체의 범죄를 인한 슬픔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다.

1. 겹옷을 찢음, 창 37:29,34; 44:13; 사 11:35; 삼하 1:11; 3:31; 왕상 21:27; 욥 1:20
2. 베로 동입, 창 37:34; 삼하 3:31; 왕상 21:27; 렘 48:37
3. 신발을 벗음, 삼하 15:30; 사 20:3
4. 손을 머리에 얹음; 삼하 13:9; 렘 2:37
5. 재를 머리에 뿌림, 수 7:6; 삼상 4:12; 느 9:1
6. 땅에 앉음, 애 2:10; 겔 26:16(땅에 누움, 삼하 12:16); 사 47:1
7. 가슴을 찢, 삼상 25:1; 삼하 11:26; 나 2:7
8. 몸을 뺨, 신 14:1; 렘 16:6; 48:37
9. 금식함, 삼하 1:16,22; 왕상 21:27
10. 애가를 부름, 삼하 1:17; 3:31; 대하 35:25
11. 머리를 밟(머리카락을 잡아 뽑거나 면도함), 렘 48:37
12. 수염을 짧게 깎음, 렘 48:37
13. 머리카락 얼굴을 가림, 삼하 15:30; 19:4

11:22 듣는 자들에게 전해진 빛의 양에 근거하여 상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진다(참조, 눅 12:47,48; 마 10:15). 5: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11: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문법구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이 내용은 사 14:13-14 과 겔 28:2,5-6,17 의 암시로서 바벨론과 두로의 왕들이 가진 교만함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

▣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것은 사 14:15 혹은 겔 26:20; 28:8; 31:14; 32:18,24 의 암시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스올로서 죽은 자의 세계를 가리킨다(참조, 눅 16:23). 랍비들에 의하면 낙원으로 불리는 의로운 곳이 있었고 탈타루스로 불리는 악한 곳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일 수 있다.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처형당한 한 강도에게 눅 23:43 에서 말씀한 내용은 아마도 하데스의 의로운 곳을 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천국에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 시에 그는 하데스(스올)의 의로운 곳에 있던 자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데리고 가셨다. 따라서 바울도 고후 5:8b 에서 말하기를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하데스와 케헨나*의 개념을 합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약에서 두 곳은 구분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5:22 의 특별주제: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불린다(21 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만일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그러나 기적들을 거기서 행하지 않았다)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그들은 남아 있지 않다).”

11:21 “소돔 땅” “땅”이라는 단어는 “도시”를 가리키는 아람어 표현일 것이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 구약 도시가 사해의 남단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개역개정 11:25-27**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11:25 눅 10:21 에서 예수의 이 말씀은 70 인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하신 말씀으로 나타난다. 복음서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되어있을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라!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7-148 쪽을 보라.

▣ “**감사하나이다**” 이 합성어는 이 문맥에서 감사하고 경축하는 것을 공개적 고백의 방법으로 행함을 의미한다(참조, 3:6; 빌 2:11). 70 인역에서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찬송”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번역을 위해 사용되었다. 아람어로는 “공개적인 동의”를 뜻할 것이다.

▣ “**천지의 주재**” 이것은 물질세계의 창조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확인한다. 흥미롭게도 요한(요 1:3,10), 바울(고전 8:6; 골 1:16; 히브리서의 저자(히 1:2; 2:10)는 예수께서 창조시 성부의 대리인이었음을 주장한다.

▣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이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나 세계의 지도층만 하나님께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는 일임을 나타내는 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어린 아이들”은 새 신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마 18:6).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알았지만 예수를 알아 보지 못했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다(참조, 롬 9 장). 사 50:5 은 죄의 결과(사 6:9-10)가 뒤바뀌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11:26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뜻의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눅 10:21).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가지신 자기 이해 및 자신의 사역 초기에 받은 바 자신의 독특한 권세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마 28:18; 요 3:35; 13:3; 엠 1:20-22; 골 1:16-19; 2:10; 벰전 3:22).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진술을 하셨다(즉, 요 10:1-18; 14:1-24). 그는 위대한 선생이나 종교적 현자일 수 없으시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혹은 미치광이든지 혹은 거짓말장이다! 여기에 중간 지대는 없다! 신약이 진실되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거짓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참조, 고전 15:12-19). 당신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 절은 요한복음의 내용과 같다(참조, 3:35; 10:15; 13:3; 17:2). 한편 이같은 진리가 마 28:18 에서 반복되고 있다.

▣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안다”라는 강한 용어가 두 번 사용되어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과 인격적 앎(즉, *επιγνωσκω*)을 나타낸다. 성자 외에는 성부를 알 사람이 없다(참조, 요 1:18; 17:25; 요일 5:1-12).

▣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다른 이는 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하는 본문이 아니다. 28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택하셨음을 나타낸다(참조, 요 3:16; 4:42; 딤후 2:4; 딤후 2:11; 벰후 3:9; 요일 2:1; 4:14). 이 절은 또한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이심을 주장한다(참조, 요 1:1,18; 골 1:15; 히 1:3). 예수는 (1) 성부를 알 수 있게 하며(참조, 요 1:18; 3:11) (2) 성부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참조, 요 10:1-9; 14:6; 행 4:12; 딤후 2:5)!

**개역개정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1:28-30 이 절들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 28 절은 칭의의 교리를 확증하며 29 절은 점진적인 성화를 확증한다.

**특별주제: 성화**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즉시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성화된다고 신약은 단언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 위치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다(롬 4 장). 그들은 의롭고 거룩하다고 선언받았다(하나님의 법적 행위).

신약은 또한 신자가 계속적으로 거룩함과 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기초한 신학적 지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행동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 구원이 은사이자 값진 삶의 양식이듯이 성화도 그러하다.

**최초의 응답**

- 행 20:23; 26:18
- 롬 15:16
- 고전 1:2-3; 6:11
- 살후 2:13
- 히 2:11; 10:10,14; 13:12
- 벧전 1:1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

- 롬 6:19
- 고후 7:1
- 살전 3:13; 4:3-4,7; 5:23
- 딤했 2:15
- 딤후 2:21
- 히 12:14
- 벧전 1:15-16

**11:28 “나 내게로 오라”** “오라”는 부사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 쓰인 경우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혁신적인 새 언약적 메시지에 즉각적인 믿음의 응답을 해야함을 나타낸다. 강조점이 교리적 내용이나 의식에 있지 않고 개인적 관계에 주어짐을 주목하라. 이 같은 진리가 요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난다.

▣ **“수고하고”**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이 절에 있는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 진”은 힘든 고생을 뜻한다. 두 단어는 동의어적이다.

▣ **“무거운 짐 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문화적으로 이 두 용어는 랍비들이 유대교에 짐지운 무거운 의무조항을 나타낸다(참조, 행 15:10). 이같은 내용이 히브리적 관용어인 “멍에”로 표현되었다(참조, 29,30 절; 마 23:4; 눅 11:46). 이것은 또한 은유적으로 유대인의 구전 전통(탈무드)을 나타낸다. 구전의 내용은 너무 부담되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 유대교는 교량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요구조건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요구조건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지도 못한다. 요구조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앎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성품을 세계에 드러낼 의의 백성들을 원하신다. 보통 나는 신약의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회개
2. 믿음
3. 순종
4. 인내

▣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강조를 나타내는 구문이다. 예수께서는 “나, 나 자신이 너희를 쉬므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쉬”는 영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활동하여 유익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회복과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쉬의 개념은 창세기 1 장의 안식일의 쉬므로 거슬러 갈 수 있다. 이 용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좋은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3 장과 4 장을 참고하라.

**11:29 “배우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어원적으로 11:1 에 나오는 단어인 “제자”와 관련이 있다. 신자들은 배우고 성숙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항목들은 헬라 세계에서 덕목으로 여긴 것들이 아니었지만 예수께서는 자세를 중히 여기셨다. 겸손함과 온유함은 하나님의 새 왕국의 표제어가 되었다.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행하여야 할 새 언약에 따른 과제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회개는 첫 번째로 할 일이다. 두 번째 일은 순종과 성숙이다. 세 번째 일은 인내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무거운 짐(참조, 마 23:4; 눅 11:46)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감사와 섬김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다(참조, 요일 5:3).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침례(세례)요한은 예수께서 약속된 분인 오실 메시아이심을 의심했는가?
2. 왜 예수께서는 침례(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새 왕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가?
3. 17 절은 예수님과 침례(세례)요한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4. 형벌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5.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선택받은 일부 사람들만 초청하시는 것인가?
6. “집”과 “명예”를 당시의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 비추어 정의하라.

# 마태복음 1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안식일에 이삭을 뜯기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와 안식일 율법	안식일에 대한 질문	안식일에 이삭을 따기
12:1-8	12:1-8	12:1-8	12:1-2 12:3-8	12:1-8
한 편 손마른 사람	안식일에 병고침		한 편 손마른 사람	한 편 손마른 사람을 고침
12:9-14	12:9-14	12:9-14	12:9-10 12:11-13a 12:13b-14	12:9-14
선택받은 종	내 종을 보라	병고침의 사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야웨의 종 예수
12:15-21 (18-21)	12:15-21	12:15-21	12:15-21	12:15-21 (18-21)
예수와 바알세불	나뉘어진 집은 서지 못함	예수의 능력의 원천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와 바알세불
12:22-32	12:22-30	12:22-32	12:22-23 12:24 12:25-28 12:29 12:30-32	12:22-24  12:25-28 12:29 12:30-32
	용서받을 수 없는 죄 12:31-32			
나무와 그 열매	그 열매로 나무를 앗		나무와 그 열매	말이 마음을 나타냄
12:33-37	12:33-37	12:33-37	12:33-35 12:36-37	12:33-37
표적을 요구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함	표적을 요청함	기적을 요구함	요나의 표적
12:38-42	12:38-42	12:38-42	12:38 12:39-42	12:38-42
더러운 영이 돌아옴	더러운 영이 돌아오다	더러운 영이 돌아옴	악한 영이 돌아옴	더러운 영이 돌아옴
12:43-45	12:43-45	12:43-45	12:43-45	12:43-45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를 부르러 보냄	예수의 참된 가족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	예수의 참된 가족
12:46-50	12:46-50	12:46-50	12:46-48 12:48-50	12:46-5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12:1-50 의 배경 설명

- 가. 12 장은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커지고 있는 반대를 다룬다. 그들의 구전(즉, “탈무드”)을 예수께서 지키지 않음을 인한 이유 때문이다. 구전에는 바벨론 계열의 탈무드와 팔레스타인 계열의 탈무드가 있다.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기에 바벨론 탈무드가 둘 중 더 권위적인 것이 되었다.
- 나. 12 장은 11:28-30 과 관련이 있다. 후자는 구전을 “짐”과 “멍에”로 나타낸다.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실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세세하게 의식적이고 율법적 규정들은 그렇지 않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2:1-8

<sup>1</sup>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sup>2</sup>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sup>3</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sup>4</sup>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sup>5</sup>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sup>6</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sup>7</sup>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sup>8</sup>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12:1 “그 때에” 복음서 저자들은 종종 이처럼(또는 다른 종류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주제나 다른 사건으로 넘어간다. 이 표현이 단순히 시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참조, 11:25; 12:1; 눅 10:21; 13:1; 행 7:20; 12:1; 19:23).

▣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탈무드는 안식일에 2000 보 이상 걷는 거리를 가는 것은 일로 간주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군중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안식일에 예수를 따라 간 것은 흥미롭다. 따라서 그들도 안식일 규정을 범한 죄의식을 가졌다. 바리새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신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22:15 에 있는 설명을 보라.

복음서의 저자들은 새 언약 및 메시아이신 예수의 인성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말하고 행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사건과 어떤 가르침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은 안식일에 일어난 이 일들을 택함으로써 예수께서 어떻게 종교지도자들, 분파들에 속한 자들, 탈무드의 전통과 대면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 전통에 따른 율법주의 및 의식주의와 달랐다(참조, 마 5:21-48).

### ▣ “안식일”

**특별주제: 안식일**

이 용어는 “휴식” 혹은 “활동을 중단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이날은 창조의 제 7 일과 관련이 있다. 그 날 하나님은 초기의 창조를 마치신 후 일을 멈추셨다(참조, 창 2:1-3).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1) 창조를 마치셨으며 이 일이 좋았기 때문이며(참조, 창 1:31) 또한 (2) 사람들에게 예배와 쉼을 위한 정규적인 질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창 1 장에 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에 시작된다.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때까지 공식적인 안식일 기간이다. 이 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특히 16, 20, 31, 35 장)와 레위기(특히 23-26 장)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지킨 규정들의 내용을 그들의 구전적 전통이 다루어 제시하는 것 및 이 규정들을 해석하여 여러 세부 규정을 추가시킨 내용을 지켰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까다로운 규정을 아시면서도 종종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와 사랑이 없음에 대해 그리하신 것이다.

▣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일반적으로 이것은 허용된 일이었다(참조, 신 23:25). 문제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이다(참조, 출 34:21). 다른 공관복음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랍비들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위반을 행한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1) 추수를 함 (2) 추수 이후의 작업 (3)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함 (4) 이 모든 일을 씻지 않은 손으로 행하여 의식을 따르지 않은 점이다.

12:3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의 말씀은 구약이 영감으로 된 사실을 확증한다(참조, 5:17-19). 이 역사적 사건은 사무엘상 21:1 이하에 나온다.

▣ **“하나님의 전”** 4 절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방문했던 회막에 대한 역사적 암시이다(참조, 출 25-30 장). 그러나 이 말은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6 절). 야웨께서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상징적으로 거하셨다. 창세기 1 장은 야웨의 우주적 성전일 수 있다(존 L. Walton의 *잃어버린 창세기 1 장의 세계*를 보라).

▣

- |      |             |
|------|-------------|
| NASB | “거룩한 떡”     |
| NKJV | “보여 드린 떡”   |
| NRSV | “약속의 떡”     |
| TEV  | “하나님께 드린 떡” |
| NJB  | “예물의 떡들”    |

이것은 회막과 후에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상 위에 둔 “진설병” 혹은 “임재의 떡”을 가리킨다(한 개의 무게가 5.5 kg 임). 이 떡은 자기 백성에게 대한 야웨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야웨가 드시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으로서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다(참조, 출 15:12-21). 그 떡은 주마다 전적으로 제사장들이 취한 음식이었다(참조, 레 24:5-9; 출 25:30). 매 주 새로운 열두 덩이를 드렸다. 한편 사무엘상 21 장의 특별한 환경에서 다윗은 그 떡을 먹도록 허락받았다.

12:5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는 일하는 날이었다(참조, 민 28:9-10). “범하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보통으로 다루다”이다. 이 단어는 이곳과 행 24:6 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의 **대명사형**은 딛전 1:9 에 나온다.

1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남성형의 “어떤 사람”(참조, NKJV)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믿을 수 있는 고대 사본에는 중성인 “어떤 것”(참조, NASB, NRSV, TEV, JB)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감추어진 언급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내용일 것이다(참조, 28 절, 41-42 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충격적인 진술이었음이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다음의 것보다 더 크시다:

1. 성전, 마 12:6
2. 요나, 마 12:41
3. 솔로몬, 마 12:42
4. 야곱, 요 4:12
5. 침례(세례)요한, 요 5:36
6. 아브라함, 요 8:53
7. 성경, 마 5:21-48; 막 7:18-19

12:7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의 “사실의 반대”라 불린다. 이 의미는 “만일 너희가 알았더라면(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했다),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너희는 정죄했다)”이다.

▣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호 6:6의 인용이다. 이것은 8세기 선지자의 설교의 한 예로서 마음자세를 의식보다 강조한 내용이다(참조, 미 6:6-8).

이 신학적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가 쓴 호 6:6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동기가 중요하다(참조, 렘 9:24)! 이것은 이 책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8:7; 11:12). “인애”가 4절에도 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참된 언약적 사랑/충성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 개념을 마 9:13; 12:7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사용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그만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옳은 동기를 갖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참조, 삼상 15:22; 사 1:11-13; 렘 7:21-23; 암 5:21-24; 미 6:6-8).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성경의 어려운 말씀(207-208, 294-295쪽)을 보라. 제사제도는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으사 자신과의 교제로 이끄시기 원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한편 이 일이 회개와 믿음이 없는 의식으로 바뀔으로써 이 제도는 하나님과의 참된 인격적 관계를 막는 익살스러운 일로 되었다.”

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참조, 막 2:27). 예수께서는 모세를 재해석하셨으므로 말씀하신다(참조, 5:20-48).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혹은 하나님의 메시아)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놓고 최고의 충성을 드릴 때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 되었다. “인자”라는 호칭에 대하여는 8:20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2:9-14  
<sup>9</sup>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sup>10</sup>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sup>11</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sup>12</sup>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sup>13</sup>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sup>14</sup>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2:10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질문은 구약에서 결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이전에 랍비들이 구약 본문을 해석해놓은 구전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즉, 안식일에 병고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락되었다). 그 강조점이 인간이 정해놓은 규정을 따름에 있었지(참조, 사 29:13) 인간의 필요에 있지 않았다!

▣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에서 우리는 그가 석수장이이며 그의 오른손이 마른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12:11 “양” 이것은 구전 전통이 기쁨 대신에 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양이 사람보다 더 값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참조, 12절; 10:31).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12:12 예수께서는 그의 반대자들과의 대화에서 질문과 답의 형식을 사용하셨다(참조, 9:5; 12:12; 21:25; 제자들에게도, 막 8:17-18).

12: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의논하거늘” 막 3:6에서 우리는 헤롯당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의논을 한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적이었다(정치적 및 종교적으로).

▣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야웨를 지키는 자들로 보았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의식과 안식일을 범하는 혐의로 살인을 기도하고 있음에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놀랍다(참조, 26:4; 눅 6:11; 요 11:53).

개역개정 12:15-21  
<sup>15</sup>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sup>16</sup>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sup>17</sup>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sup>18</sup> 보라 내가 택한 중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sup>19</sup>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2:15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아신 것에 대해 그 출처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1. 들으셔서
2. 인간의 생각을 아셔서
3. 성령의 알게하심을 힘입어서

이 질문은 예수의 독특한 모습인 인간되심과 하나님이심(즉, 성육신)을 인해 답할 수 없다.

▣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 구는 능력과 불쌍히 여기심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곧 모든 이를 돌보셨다.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일(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경우라도)이 자동적으로 영적 회복 혹은 구원을 수반하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

이 절들은 예수의 병고치는 사역이 여러 가지 범위로 행해졌음을 말한다.

1. 때때로 말하기를 “모든” (참조, 마 8:16; 12:15; 눅 4:40; 행 10:38)
2. 때때로 말하기를 각 “종류”를 말하지만 모든 “이”는 아님 (참조, 마 4:23; 9:23)
3. 때때로 말하기를 “모든”이가 아닌 “많은” (참조, 막 1:34; 3:10; 눅 7:21)
4. 예수께서 모두를 고치셨다고 자주 암시함 (참조, 마 14:14; 15:30; 19:2; 21:14)

12: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것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은 일과 관련이 있다(특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기적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해서 일하는 자신의 말씀을 알리라고 부탁하셨다. 복음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이 메시아의 비밀은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8:4; 9:30; 17:9; 막 1:44; 3:12; 5:43; 7:36; 8:30; 9:9; 눅 4:41; 8:56; 9:21). 예수께서는 순회하며 병고치는 또 한 명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12:17 “선지자 이사야” 18-21 절은 사 42:1 이하의 인용이다. 이것은 맛소라 본문이나 70 인역의 본문을 정확히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예수께서 아신 사실을 명백히 나타낸다.

12:18-21 이것은 사 42:1-4 의 인용이다(70 인역의 인용이 아님).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노래이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오실 그분의 특성을 주목하라.

1. 다음과 같이 불림
  - ㄱ. 나(야훼)의 종
  - ㄴ. 내가 택한
  - ㄷ. 나의 사랑하는
  - ㄹ. 내(야훼)가 기뻐하는 자
2. 야훼의 영이 그의 위에 있음
3.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전파하심
4. 그의 성품
  - ㄱ. 다투지 않으심
  - ㄴ. 외치지 않음
  - ㄷ. 그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심
5. 그의 행하심
  - ㄱ.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
  - ㄴ. 꺼져가는 심지를 쪼지 않으심
  - ㄷ. 정의로 승리하심
  - ㄹ. 그분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되심

12:18 “내 종”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 대해 사용된 특별히 명예로운 호칭이었다(참조, 행 3:13).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 사 42:1-9; 49:1-7; 50:4-11; 52:13-53:12 을 인하여 이 호칭은 메시아적 의미를 가졌다. 메시아와 관련된 이런 요소는 사 52:13-53:12 의 “고난받는 종”에서 절정에 이른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능력을 덧입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 사실은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를 설명해준다(침례[세례]요한조차도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참조, 11:3).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항상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이해는 진정 사실이다(참조, 사 41:8; 42:1,19; 43:10; 49:3-6). 그러나 이 노래들은 이상적이며 의로운 한 명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화되었다(참조, 사 52:14[70 인역], 15[70 인역]; 53:1-12).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하여 범함으로써(참조, 레 26 장; 신 27-28 장) 세계에 대한 자신의 사명(참조, 창 12:3; 출 19:5-6)을 행하기를 실패했다(참조, 사 42:19; 53:8). 따라서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이 겪어야 했다. 그래서 야웨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과 신실하심에 초점을 둔 새 언약을 제정하셔야만 했다(참조, 겔 36:22-38).

▣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표현은 예수의 침례(세례) 시와 변화산 사건에서도 사용되었다(참조, 3:17; 17:5). 성부는 성자의 사역을 인해 기뻐하셨다. 이 호칭은 시편 2 편에 있는 왕에 대한 강조점과 이사야 40-53 장에 있는 고난받는 중에 대한 강조점을 함께 나타낸다.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히 10:38).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나타낸 이러한 표현은 신인동형적 묘사라고 불린다. 6: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당신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사 42:1 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을 발견하는가?  
예수와 성령은 신학적으로 하나된 관계를 가지신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예수와 성령**

성령과 예수의 사역 사이에는 유동성이 있다. G. 켈프벨 몰간은 성령의 가장 적합한 이름을 “다른 예수”라고 했다(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구분이 되는 영원한 위격이시다). 다음은 성자와 성령의 사역과 호칭을 비교한 개요이다.

1. 성령은 “예수의 영” 또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불렸다(참조, 롬 8:9; 고후 3:17; 갈 4:6; 벧전 1:11)
2. 두 위격이 같은 단어로 불렸다
  - ㄱ. “진리”
    - 1) 예수(요 14:6)
    - 2) 성령(요 14:17; 16:13)
  - ㄴ. “변호자”
    - 1) 예수(요일 2:1)
    - 2) 성령(요 14:16,26; 15:26; 16:7)
  - ㄷ. “거룩”
    - 1) 예수(눅 1:35; 14:26)
    - 2) 성령(눅 1:35)
3. 두 위격이 다 믿는 자 안에 거한다
  - ㄱ. 예수(마 28:20; 요 14:20,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엡 3:17; 골 1:27)
  - ㄴ. 성령(요 14:16-17; 롬 8:9-11; 고전 3:16; 6:19; 딤후 1:14)
  - ㄷ. 아버지(요 14:23; 고후 6:16)

12:18,21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 . .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왕국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진술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참조, 사 2:1-4; 45:22; 49:6; 60:3; 66:18,23; 엡 2:11-3:13 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보라).

12: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빌라도와 헤롯같은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취하신 자세(참조, 사 53:7)를 설명한다.

12: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것은 (1) 예수께서 온화함으로 죄인들을 대하신 일 혹은 (2) 예수의 왕국이 아주 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 왕국이 땅을 기쁨으로 덮을 것을 나타낸다(참조, 13:3-32).

12:21 “그의 이름을” 18: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바라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바라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서조차 사 42:4 의 인용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세 번 사용되었다(참조, 6:34; 23:8; 24:21). 이 단어는 바울서신에서 19 회 사용되었는데 종말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특별주제: 소망**

바울은 이 용어를 종종 관련된 뜻을 갖는 여러 의미로 사용한다. 종종 이것은 신자의 믿음이 완성될 것과 관계된다(예, 딤후 1:1). 이것은 영광, 영생, 궁극적 구원, 재림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완성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시간적 요소는 미래적이고 또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종종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있다(참조, 고전 13:13; 살전 1:3; 살후 2:16). 바울이 사용하는 용법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재림, 갈 5:5; 엡 1:18; 4:4; 딤후 2:13
2.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딤후 1:1
3.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질 것임, 골 1:22-23; 살전 2:19
4. 소망을 하늘에 쌓다, 골 1:4
5. 복음을 믿음, 골 1:23; 살전 2:19
6. 궁극적 구원, 골 1:5; 살전 4:13; 5:8
7. 하나님의 영광, 롬 5:2; 고후 3:12; 골 1:27
8. 그리스도에 의한 이방인의 구원, 골 1:27
9. 구원의 확신, 살전 5:8
10. 영생, 딤후 1:2; 3:7
11.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롬 5:2-5
12. 모든 피조물의 구속, 롬 8:20-22
13. 양자됨으로 완성됨, 롬 8:23-25
14. 하나님의 칭호, 롬 15:13
15.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 고후 1:7
16.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안내로서의 구약, 롬 15:4

**개역개정 12:22-24**

<sup>22</sup> 그 때에 귀신 들려 논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sup>23</sup>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sup>24</sup>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12:22**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였다(참조, 사 29:18; 35:5; 42:7,16; 마 9:27-31; 12:22; 15:30; 21:14) 이스라엘 자신이 이러한 병고침의 사역을 필요로 했다(참조, 사 6:9-10; 42:18-22). 이것은 그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표적이었다!

**12:23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헬라어에서 이 질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예상하면서도 그 내용이 사실일 수 있음을 풍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삼하 7 장에서 유래한 메시아의 호칭이다. 이 호칭을 마태는 자주 사용했다(참조, 1:1; 9:27; 12:23; 15:22; 20:30-31; 21:9,15; 22:42; 또한 계 3:7; 5:5; 22:16 의 설명을 보라).

**12: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에게로 돌리며 참된 것을 거짓되다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이 능력을 악한 자에게서 온 초능력으로 돌렸다(참조, 마 9:32-34; 막 3:22-30; 눅 11:14-26).

▣ **“바알세불”** 이것은 *세불* 도시의 *바알*(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신의 남신)을 가리킨다(참조, 왕하 1 장). 유대인들은 이 명칭을 약간 바꾸어 “똥의 주” 혹은 “파리의 주”를 뜻하는 *세불의 바알*로 바꾸었다. 이 단어는 고대 사본들에서 다른 철자로 표기되었다. *세불*은 라틴 별게이트역과 페쉬타역에서 사용되었고, *세불*은 모든 헬라어 사본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후기의 유대교에서 *세불*은 귀신의 두목으로 말해진다.

**개역개정 12:25-30**

<sup>25</sup>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sup>26</sup>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sup>27</sup>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sup>28</sup>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sup>29</sup>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sup>30</sup>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12:25-32**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논증을 하셨다(참조, 막 3:23-27; 눅 11:17-22). 네 가지 예가 사용되었다: (1) 25 절 (2) 27 절 (3) 28 절 (4) 29 절).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을 연속으로 사용하셨다. 이 유형의 문장이 여기서는 그들이 거짓됨을 입증한다(26 절과 27 절). 한편 28 절에서 사용한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은 실제에 있어서 사실이다! 문맥, 문맥, 문맥이다!

**12: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사용하신 것인지 혹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셔서 아시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참조, 9:4). 1 절의 설명을 보라.

▣ **“예수”** 가장 오래된 헬라이어 사본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즉, P<sup>21</sup>, **א**, A, B, D, 일부 고대 라틴역, 시리아역, 콥틱 사본들).

**12:27**

NASB, NKJV  
NRSV  
TEV  
NJB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너희의 귀신 쫓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누가 너희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느냐”**  
**“너희의 전문가들은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느냐”**

유대인들(즉, “너희의 아들들”)은 주술적 주문이나 맹세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참조, 막 9:38; 행 19:13). 43-45 절에 기록된 특별한 기록은 귀신을 내어쫓는 유대인들의 축사와 관련이 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에 영적으로 진공상태로 남아 있었다.

**12:28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언급이다. 이 절은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단지 4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1) 이 본문 (2) 19:24 (3) 21:31 (4) 21:43.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메시아이신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로써 성령의 새 시대가 임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셨다! “성취된 종말론”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좋은 설명은 F. F. 브루스의 책 **질문에 대한 답**(198 쪽)을 보라. 4:17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라.

**12:29** 이절은 종종 오늘날의 예배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문맥상 이것은 공동체가 행하는 귀신축출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는 본문이 아니다. 신자들에게 사탄(즉, “강한 자”)을 묶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천사장인 미가엘조차도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을 하지 않았다(참조, 유 9 절). 사도들과 70 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참조, 10:1; 눅 10:17-20). 그러나 이 능력은 교회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비유는 막 3:22-27 과 눅 11:21-23 과 평행을 이룬다.

**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분명하고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참조, 막 9:40; 눅 9:49,50; 11:23). 예수께서 새 시대를 가져오고 계시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분께 응답해야 한다.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개역개정 12:31-32**

<sup>31</sup>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sup>32</sup>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12:31-32** 이것은 성령에 대한 신성모독을 나타내는 내용으로서 종종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불린다. 평행구절인 막 3:28 에서 볼 때 이 문맥에서 사용된 “인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혹은 “인류”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러한 해석은 31 절과 32 절에 있는 평행법의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무지의 죄가 아니라 커다란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죄를 뜻한다.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알기 소원하는 자들과 이러한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다! 이 죄는 큰 빛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죄로서 영적으로 못이 박힌 상태에 달함을 뜻한다. 이것은 히 6:4-6 과 10:26-31 에 언급된 죄와 비슷하다.

**특별주제: 성령의 인격**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즉, 루아흐)은 야웨의 뜻을 성취하는 힘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인격적인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암시가 없다(즉, 구약의 유일신 주의).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의 인격과 인성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

1. 그는 신성모독을 받으실 수 있다(참조, 마 12:31; 막 3:29)
2. 그는 가르치신다(참조, 눅 12:12; 요 14:26)

3. 그는 증거하신다(참조, 요 15:26)
4. 그는 책망하시고 인도하신다(참조, 요 16:7-15)
5. 그는 “그 분”(즉, 호스)으로 불리신다(참조, 엡 1:14)
6. 그는 슬퍼하실 수 있다(참조, 엡 4:30)
7. 그는 소멸되실 수 있다(참조, 살전 5:19)

삼위일체의 본문도 세 위격에 대해 말한다.

1. 마 28:19
2. 고후 13:14
3. 뱀전 1:2

성령은 인간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

1. 행 15:28
2. 롬 8:26
3. 고전 12:11
4. 엡 4:30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서 성령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장(chapter)이다. 예수께서는 항상 성령을 가지셨다. 그의 침례(세례)는 성령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새 장을 이루었다. 누가는 효과적인 사역의 새 장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킨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중심에 계시며, 성령은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가 되시며, 성부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은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신다!

#### ▣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 특별주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한편 그들은 이 미래를 새 날로 보았다(참조, 사 65:17; 66:22).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을 인해 신구약 중간시기에 쓰여진 묵시문학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즉, 에녹 1 서, 에스라 4 서, 바룩 2 서). 이 책들에는 두 세대가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과 오실 메시아(종종 강력한 전사로서)가 주장하시는 다가올 의의 세대와 사탄이 주장하는 현재의 악한 세대이다.

이러한 신학적 영역(종말론)에 사상의 발전이 분명히 나타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점진적 계시”로 말한다. 신약은 두 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새 우주적 실재를 제시한다(즉, 시간적 이중성):

<u>예수</u>	<u>바울</u>	<u>히브리서</u>
마태복음 12:32	로마서 12:2	1:2
마태복음 13:22&29	고전 1:20; 2:6,8; 3:18	6:5
마가복음 10:30	고후 4:4	11:3
누가복음 16:8	갈라디아서 1:4	
누가복음 18:30	엡 1:21; 2:1,7; 6:12	
누가복음 20:34-35	디모데전서 6:17	
	디모데후서 4:10	
	디도서 2:12	

신약의 신학에서 이러한 유대인의 두 세대가 겹쳐지는데, 이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또 간과된 예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성육신은 새 세대가 도래함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단 2:44-45). 그러나 구약은 예수께서 심판자와 정복자로 오심을 말하면서도 또한 그가 처음에 겸손하고 온유한(참조, 스후 9:9) 고난받는 중(참조, 사 53 장; 스후 12:10)으로서 오실 것을 말한다. 구약이 예언하듯이 그는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계 19 장). 이렇듯 두 단계에 걸친 성취는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 임했고(시작됨)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완전히 완성되지 않은)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의미와 아직의 긴장이다!

##### 개역개정 12:33-37

<sup>33</sup>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sup>34</sup>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sup>35</sup>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sup>36</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sup>37</sup>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12:33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람이 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드러낸다. 7:16의 설명을 보라.

12:34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셨다. 이점에 있어서 그는 침례(세례) 요한의 설교를 따르고 계시다(참조, 마 3:7).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이 은유적 표현의 원 소재였을 것이다(참조, 계 12:9; 20:2).

▣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참조, 막 7:17-23).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 말은 마음을 드러낸다(참조, 마 7:11,16,20; 눅 6:44; 약 3:12). 15:19의 특별주제: 인간의 말을 보라.

12:35 “쌓은 것”은 사람의 속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눅 6:45).

12:36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예수께서는 거듭하여 심판과 그에 따른 영원한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다(참조, 마 7장, 25장). 이것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삶과 우선순위와 말은 그들의 영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참조, 37절).

12:37 15:19의 특별주제: 인간의 말을 보라.

**개역개정 12:38-42**

<sup>38</sup>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sup>39</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sup>40</sup>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sup>41</sup>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sup>42</sup>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12:38 “서기관”**

**특별주제: 서기관**

이 칭호는 히브리어에서 “말로 한 메시지” “글로 쓴 문서/칙령”을 뜻하는 명사(BDB 706)에서 왔다. 헬라어로 번역된 “그람마투스”는 문서로 된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이 단어는 다음의 내용을 뜻할 수 있다

- 1. 교육가(눅 8장)
- 2. 정부의 관리(왕하 22:3-13)
- 3. 기록자/비서(대상 24:6; 대하 34:13; 렘 36:22)
- 4. 군대의 장교(참조, 삿 5:14)
- 5. 종교 지도자(에스라 7:6; 느 12:12-13)

신약에서 그들은 종종 바리새인들과 관련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구약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즉, 탈무드)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왔다(참조, 지혜서 39:6). 그러나 그들의 의(즉,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예식에 근거한)는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참조, 마 5:20; 롬 3:19-20; 9:1-5,30-32; 10:1-6; 골 2:20-22).

비록 그들의 일부는 예수께 응답했다(참조, 마 8:19). 하지만 그들은 종종 예수께 적대적인 사람들로 광관복음서에서 묘사된다(요한은 그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8:3은 원래의 본문이 아니다).

- 1.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 일에 대한 갈등, 막 2:16; 마 9:9-13
- 2.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권위의 출처에 대한 갈등, 막 3:22
- 3.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갈등, 마 9:31; 눅 5:21
- 4. 보이는 표적을 구함, 마 12:38
- 5. 손을 씻음(즉, 예식에 따른 씻음)에 대한 갈등, 마 15:1-2; 막 7:1-5
- 6.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때에 군중들이 인정된 일에 대한 갈등, 마 21:15
- 7. 예수께서 그들의 동기를 비난하심(즉, 명예와 뛰어남을 구함), 막 12:38-40
- 8. 예수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소경을 인도한다고 비난하심, 마 23:1-36

그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들 보다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통(참조, 사 29:13; 6:9-10)은 그들을 소경되게 하였다! 빛이 어둡게 되었을 때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가 행하시는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아냄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확신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 어떤 최종적인 표적을 원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마 4:5-7 에 있는 시험과 아주 같은 종류이다. 사실상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표적들을 받아들이지도 또 알아 볼 수도 없었다(즉, 사 6:9-10)!

**12:39 “음란한”** 음란함은 영적으로 신실치 못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었다(참조, 레 20:5; 민 25:1; 호 1:2; 4:10,18; 5:3; 마 16:4; 막 8:38; 약 4:4).

▣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3 일 동안 있었듯이 예수께서는 무덤(하데스)에 3 일 계셨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이 3 일이 24 시간이 세 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들은 저녁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참조, 창 1 장)까지를 하루로 보았다. 그들은 또한 이 하루의 아주 짧은 부분도 만 하루로 여겼다.

예수께서 요나에 대한 암시를 한 점은 요나서의 역사성을 강하게 입증한다. 그가 큰 물고기 안에 있었던 경험을 하나의 유추로서 사용하셨다(참조, 16:4).

**12:40 “밤낮 사흘 동안”** 16:21 의 설명을 보라.

▣ **“땅 속에”** 이것은 죽은 자의 세계인 무덤 혹은 은유적 장소로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있는 곳(참조, 시 139:15-16)인 하데스로 내려감을 가리킨다(참조, 11:23). 이것은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인간의 관찰 및 공통적 설명을 표현한다. 유대인도 우리를 처럼 죽은 자를 땅에 묻었다. 따라서 그들은 땅속에서 “지냈다.” 5:22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그가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시간적 순서가 아닌 신학적 목적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참조, 마 7:21-23 도 훨씬 이후에 이르러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12:41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은 42 절과 더불어 11:20-24 에 관련이 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 남았다. 이 절은 요나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서 살아있음을 뜻한다.

▣ **“회개하였음이거니와”** 3:2 의 특별주제: 회개와 4:17 의 설명을 보라.

▣ **“남방 여왕”** 이것은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왕상 10:1-15).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 증거할 것이다.

▣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명백히 주장한 본문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고대 동방에서 가장 지혜로왔던 사람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고 보셨다(참조, 왕상 3:12; 4:19-34). 12:6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2:43-45**

<sup>43</sup>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sup>44</sup>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sup>45</sup>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12:43 “더러운 귀신”** 10:1 의 특별주제: 귀신(더러운 영들)을 보라.

▣ **“물 없는 곳”** 구약에서 광야는 귀신(즉, 레위기 16 장의 아사셀과 사 13:21; 34:14 에 나오는 사막의 짐승들)이 출몰하는 장소였다.

**12:44-45** 이 본문에는 가능한 의미가 3 가지 있다.

1. 유대인 축사자들은 개인의 믿음 없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 따라서 귀신이 돌아왔다
2.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암시로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했지만 이 일을 야웨께 대한 믿음으로 바꾸지 않고 행함을 나타낸다
3. 이것은 짐레(세례)요한의 설교를 가리킨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했지만 예수는 거부했다

마지막 형편이 현재의 문제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다(참조, 벧후 2:20-22).

## 개역개정 12:46-50

<sup>46</sup>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sup>47</sup>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sup>48</sup>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나 하시고 <sup>49</sup>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sup>50</sup>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12:46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전통적인 방법과 너무나 다르게 일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참조, 막 3:20-21).

**12:47** 이 절은 헬라어 사본인  $\aleph$ , B, L 와 일부 옛 라틴역, 시리아역, 콕틱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절은  $\aleph^c$ , C, D 사본과 별게이트역, 사복음대조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은 막 3:32; 눅 8:20 에도 들어 있다. 서기관들이 이 내용을 이 절에 포함시킴으로서 같은 내용이 3 번 평행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추가로 여겨진다. 이 내용은 NASB, NKJV, NRSV, TEV 역에 포함되어 있다. 세계성서공회의 헬라어 신약 제 4 판의 번역 위원회는 이 내용이 부주의로 인해 본문에서 빠진 것으로 이해한다. 즉 헬라어 본문에서 46 절과 47 절에 있는 두 비슷한 단어(“말하려고”)로 인해 건너 뛰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호모로테류톤). 이 문단에서 이 절은 꼭 필요한 내용을 이룬다.

**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참조, 요 6:39-40).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참조, 롬 8:28-29; 갈 4:19). 7:21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뜻을 보라.

NIDOTTE 제 1 권 488 쪽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1. 사람이 전 생애를 드리는 무조건적인 헌신(참조, 마 10:37; 눅 9:59-62; 14:26-27)
2. 사람이 전생애 걸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무조건적인 헌신(참조, 마 17:24-25; 요 11:16)
3. 예수께 묶여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참조, 마 12:46-50; 막 3:31-35)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일어난 일을 역으로 돌리는 일로서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부르심이다! 이것은 일생에 걸친 또 생애를 포함하는 부르심이다!

▣ **“하늘에 계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5:16,45; 6:1,9; 7:11,21; 10:32-33; ;12:50).

▣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지상에서의 가족적인 끈을 대신한다(막 3:31-35 에 나와 있는 평행구절).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의 형제됨에 기초한 가족이다(참조, 롬 8:15-17).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마 5:17-21 에서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신 반면에 유대인들의 구전적 전통은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셨는가?
2. 예수께서는 12 장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장하시는가?
3.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면하거나 혹은 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인가?
4. 사 42:1-4 은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는가?
5.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알세불로 부른 사실을 정리하여 설명하라.
6. 하데스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7. 43-45 절에 있는 비유를 설명하라.

# 마태복음 1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씨뿌리는 자의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로써 가르치심	씨뿌리는 자의 비유	서론
13:1-9	13:1-9	13:1-9	13:1-3a 13:3b-9	13:1-3a  씨뿌리는 자의 비유 13:3b-9
비유의 목적	비유의 목적		비유의 목적	예수께서 왜 비유로써 말씀하시는가
13:10-17	13:10-17	13:10-17	13:10 13:11-15	13:10-15  (14b-15)
(14b-15)			13:16-17	13:16-17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예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13:18-23	13:18-23	13:18-23	13:18-23	13:18-23
곡식 가운데 있는 잡초의 비유	곡식과 거라지의 비유	곡식 가운데 있는 잡초	잡초의 비유	독보리의 비유
13:24-30	13:24-30	13:24-30	13:24-30	13:24-30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겨자씨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13:31-32	13:31-32	13:31-32	13:31-32	13:31-32
	누룩의 비유	이스트	이스트의 비유	이스트의 비유
13:33	13:33	13:33	13:33	13:33
비유의 사용	예언과 비유		예수의 비유 사용	비유로써만 백성을 가리치심
13:34-35	13:34-35	13:34-35	13:34-35	13:34-35
(35b)				(35b)
잡초의 비유에 대한 설명	거라지의 비유의 설명		예수께서 잡초 비유를 설명하시다	독보리 비유의 설명
13:36-43	13:36-43	13:36-43	13:36	13:36-43

13:37-43				
세 비유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감추어진 보물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감추어진 보물과 진주의 비유
13:44	13:44	13:44	13:44	13:44
	값비싼 진주의 비유	값비싼 진주	진주의 비유	
13:45-46	13:45-46	13:45-46	13:45-46	13:45-46
	그물의 비유	그물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
13:47-50	13:47-52	13:47-50	13:47-50	13:47-50
				결론
13:51-52		13:51-53	13:51a	13:51-52
			13:51b	
			13:52	
나사렛에서 예수를 거부함	나사렛에서 거부받으신 예수	고향에서의 거부	나사렛에서 거부받으신 예수	나사렛 방문
13:53-58	13:53-58		13:53-57a	13:53-58
		13:54-58		
			13:57b-5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13:1-58 의 배경

- 가. 비유의 이해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헌신과 관련이 있었고 또 믿음의 헌신과 관련이 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즉, 막 4:13,40; 6:52; 7:18; 8:17,21,33; 9:10,32).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의 이해는 다음 내용에 의존한다

1. 택하심
  2.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힘
  3. 회개와 믿음에 대한 자원함(즉, 사 6:9-10; 30:6)
- 이 단락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힘주심과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나. 헬라어에서 “비유”는 “나란히 던지다”를 뜻한다. 이것은 보통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이들 복음서들의 유대인 저자들이 “수수께끼” 혹은 “잠언”을 가리키는 지혜문학적 용어인 히브리어의 *משל*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로서 이를 사용하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비유적인 문학 표현은 히브리 시에 나타나는 평행법과 비슷한 관계에 있다.

1. 유사함을 나타내는 비유
2. 대조를 나타내는 비유
3. 진리의 어떤 면을 점증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비유

각 비유가 대조, 유사, 점증적 강조 가운데 어떤 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놓친다면 비유의 사용에 있어서 의도했던 바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 우리는 *משל*이 갖는 놀라운 특성에 비추어 이 내용을 기꺼이 다루고 또 그것에 비추어 결과를 얻으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다. 13 장에서 어떤 비유는 두 번 반복된다. 다른 곳에서 같은 진리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1. 가라지 비유와 저인망 그물 비유
  2.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3.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와 매우 값진 진주의 비유
- 51-52 절이 8 번째 비유일 가능성이 있다.

라. 13 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공관복음서의 다른 책들에 나오는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u>마태복음</u>	<u>마가복음</u>	<u>누가복음</u>
13:1-9,18-23	4:1-9,13-20	8:4-8,11-15
13:6-9	.....	.....
13:24-30,36-43	.....	.....
13:31-32	4:30-32	13:18-19
13:33	.....	13:20-21
13:34	.....	.....
13:44	.....	.....
13:45-46	.....	.....

마. 13 장에 나오는 7 가지 비유 가운데 씨뿌리는 자/흙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양쪽에 나오지만 누룩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을 5-7 장에 있는 하나의 긴 설교로 모았듯이 그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한 문맥으로 모았다.

바. 마태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예수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쉬이도록 구성하였을 것이다(8-12 장).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응답하였지만 다른 이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셨다면 왜 모든 이가 응답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여기에 있는 일련의 비유가 답을 제시한다.

**특별주제: 비유의 해석**

복음서들은 예수의 공생애 사역이 여러 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 복음서 저자들은(성령의 도움을 받은) 구전 문화에 익숙했다. 랍비들은 구전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구전전 방법을 따와서 가르치셨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께서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기록하지 않으셨다. 기억을 돕기 위해 반복적인 교수법과 요약, 예화를 사용하셨다.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억에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비유의 사용은 이러한 교수법에 속한다. 비유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이야기로서 비유를 정의할 수 있다: 이야기는 실제에 대한 거울로서 실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돕는다,” *예수와 복음서 사전*(594 쪽)에서.

“비유는 화자가 일상생활에서 취한 경우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 혹은 이야기이다,”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590 쪽)에서.

예수님 당시에 “비유”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였는가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수수께끼(막 3:23), 지혜로운 말(잠언, 눅 4:23), 짧은 이야기(막 7:15), 신비스러운 격언(“난해한 말”) 같은 종류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인 *משל*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2. 다른 이는 보다 더 제한적으로 이를 정의하여 비유가 짧은 이야기를 뜻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삼분의 일 이상이 비유적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한 주된 장르 가운데 하나이다. 이 비유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두 번째 정의를 취한다면 여러 종류의 짧은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다

1. 단순한 이야기(눅 13:6-9)
2. 복잡한 이야기(눅 15:11-32)
3.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눅 16:1-8; 18:1-8)
4. 모형적/우화적 이야기(마 13:24-30,47-50; 눅 8:4-8,11-15; 10:25-37; 14:16-24; 20:9-19; 요 10 장; 15:1-8)

이렇게 다양한 비유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따라서 해야 한다. 해석의 처음 단계는 성경의 모든 장르에 적용되는 해석학의 일반적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침은:

1. 책 전체 혹은 적어도 문화적인 대단위의 목적을 파악하기
2. 원래의 청중을 확인하기. 종종 같은 비유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 ㄱ. 눅 15 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죄인들을 가리킨다
  - ㄴ. 마 18 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제자들을 가리킨다
3. 비유가 들어 있는 직접적 문맥을 확인하기.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은 종종 비유의 마지막 부분(혹은 비유를 마친 후 바로)에서 핵심을 말한다.
4. 비유가 중심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비유에는 종종 두 명 혹은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 대개는 각 사람이 각각 의도하는 진리, 목적, 핵심(개요)을 나타낸다.
5. 다른 복음서에서 평행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신약과 구약에서 평행되는 내용을 확인한다.

해석의 두 번째 단계는 특별히 비유로 쓰여진 부분과 관련된 원리를 다룬다

1. 비유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라(만일 가능하면 반복해서 들으라). 비유는 구두 전달을 위한 것이지 분석을 위한 기록이 아니다.
2. 대부분의 비유는 오직 하나의 중심 진리만 갖는다. 이 진리는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과 관련이 있다.
3.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종 세부적인 내용은 이야기의 배경을 나타낼 뿐이다.
4. 비유가 실재는 아님을 기억하라. 비유는 삶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종종 과장적 표현으로써 사실(진리)을 나타낸다.
5. 1 세기의 유대인 청중이 이해했을 핵심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변형이나 놀람을 파악하라. 이 내용은 대개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참조, A. 버클리 미켈슨, *성경의 해석*, 221-224 쪽).
6. 모든 비유는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반응은 대개 “하나님의 왕국” 개념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새 왕국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마 21:31; 눅 17:21).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지금 반드시 그분께 응답해야 한다!

왕국은 또한 미래적이다(마 25 장).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예수께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왕국의 비유는 예수 안에서 도래한 새 왕국을 나타낸다. 비유는 제자도에 요구되고 있는 윤리적 근본적 요구에 대해 말한다. 이전의 어떤 것도 쓸 수 없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우며 또한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7. 비유는 종종 요점이나 중심 진리를 표현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해석자는 원래의 문화에서 명백히 전해졌을 중심 진리를 밝히는 문맥적 열쇠를 찾아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종종 논란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유적 진리가 감추어진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예수께서는 종종 비유가 감추인 것임을 말씀했다(참조, 마 13:9-15; 막 4:9-13; 눅 8:8-10; 요 10:6; 16:25). 이 사실은 사 6:9-10 에 있는 예언과 관련이 있다. 청중의 마음이 이해의 정도를 결정짓는다(참조, 마 11:15; 13:9,15,16,43; 막 4:9,23,33-34; 7:16; 8:18; 눅 8:8; 9:44; 14:35).

한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중(막 15:10; 막 7:14), 바리새인들(마 21:45; 막 12:12; 눅 20:19)이 종종 정확히 이해했지만 믿음과 회개로써 적합하게 응답하기를 거부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어떤 면에서 이점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진리이다(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

비유는 진리를 숨기거나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다(마 13:16-17; 16:12; 17:13; 눅 8:10; 10:23-24).

그라트 오스본은 *해석학적 나선* (239 쪽)에서 “비유는 청중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기작’이며 기능이다. . . 비유로 인해 각 그룹의 사람들(지도자들, 대중, 제자들)은 다르게 말씀에 대면했다”고 말한다. 제자들도 종종 예수의 비유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참조, 마 15:16; 막 6:52; 8:17-28,21; 9:32; 눅 9:45; 18:34; 요 12:16).

네 번째 단계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이 단계는 비유의 중심 진리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비유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그게 옳다). 우화적인 해석은 세세한 내용을 진리의 체계 속에 집어 넣는다. 이 해석 방법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 혹은 저자의 의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생각을 제시한다.

한편 예수께서 비유를 해석하신 방법은 우화적 혹은 모형론적 해석에 상당히 근접함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사용하셨다(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 장; 막 4 장; 눅 8 장, 약한 농부의 비유, 마 21 장; 막 12 장; 눅 20 장).

어떤 비유는 여러 개의 주요 진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탕자의 비유이다(눅 15:11-32). 이것은 성부의 사랑과 둘째 아들의 고집스러움 뿐 아니라 형의 태도까지 포함하여 비유의 온전한 의미를 전달한다.

피터 코터렐과 맥스 터너의 *언어학과 성경 해석*에서 인용한 유용한 내용이 있다:

“신약 학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아돌프 주리히이다. 그는 극단적인 우화적 방법으로 비유를 이해하지 않고 그 참된 의미를 꿰뚫는 요소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제레미아스가 분명히 밝혔듯이 ‘그가 비유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환상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해석을 지양하게 한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잘못을 가져왔다.’ 그 잘못은 비유가 한 가지 내용만 전달한다는 점을 고집한 점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다” (308 쪽).

그란트 오스본의 책 *해석학의 나선*에 또 하나의 유용한 내용이 있다:

“나는 비유가 비록 저자의 의도에 의해 조정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우화임을 여러 사실을 통해 확인한다. 비유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은 사실상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나타내며 실제로 비유는 우화에 속한다고 블룸버그(1990)는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는 과장된 것이지만 비유가 ‘한 가지 진리’만을 나타낸다는 주장보다는 진실에 더 가깝다(240 쪽).

비유로써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교리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가?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화적 방법을 남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의 원래 의도 및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었다. 의미는 반드시 저자의 의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수와 복음서 저자들은 영감을 받았지만 해석가들은 그렇지 않다.

한편 비유는 여전히 교리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으로 심하게 남용되어 왔다 버나드 램은 이 점을 지적하여 말한다.

“비유가 교리에 대해 가르치므로 교리적 가르침을 위해 비유를 전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적절치 않다. . .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결론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다른 곳에 나타난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주의 깊게 다루어진 비유는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예시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성경해석학* (285 쪽).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내용에 대한 3 가지 인용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책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비유는 교회에서 계시록 다음으로 잘못 해석되는 고통을 받았다”(135 쪽)
2. J. 로벗슨 맥퀼린의 책 *성경의 이해와 적용*에서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원천이 되어 왔다. 동시에 비유는 교회에서 교리와 실천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혼동의 통로가 되어 왔다”(164 쪽)
3. 그란트 오스본의 책 *해석학의 나선*에서  
“비유는 성경에서 이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분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해석학적으로 가장 남용된 부분의 하나로서. .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이다. 비유가 일상생활의 경험에 기초한 비교 혹은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비유를 통한 의사소통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이야기 자체가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에 현대의 독자는 고대의 청중이 경험했듯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다”(235 쪽).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3:1

<sup>1</sup>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sup>2</sup>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13:1

NASB

“그 날”

NKJV

“같은 날에”

NRSV, TEV, NJB

“같은 날”

이 문맥에서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라 진이를 위한 방법이다. 이 표현이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22:23 과 막 4:35 에 나온다.

▣ “바닷가에 앉으시매” 앉는 것은 랍비들이 가르치기 위해 취한 공식적 자세였다(참조, 2 절; 15:29; 24:3; 26:55; 눅 4:20; 행 13:14). 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섰다(참조, 눅 4:16). 이 자세와 장소는 가르침의 시작을 나타낸다. 바다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원형극장의 기능을 했다.

13:2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모여드는 군중을 인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배를 사용하셨다(참조, 눅 5:1-3; 막 3:9).

**개역개정 13:3-9**

<sup>3</sup>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sup>4</sup>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sup>5</sup>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sup>6</sup>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sup>7</sup>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sup>8</sup>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sup>9</sup>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3:3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비유(3-9 절)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해석하여 주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씨, 씨 뿌리는 자, 땅, 추수는 예수께서 이 비유의 해석을 하심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18-23 절).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우화적 혹은 적어도 모험론적이다. 우화는 본문에서 감추어진 깊은 진리를 찾으려 한다. 우화는 원 저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 또는 당시의 상황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의미를 본문에 밀어 넣는다. 한편 모험론적 해석은 신적 저자 및 신적 계획에 기초하여 성경의 통일성에 강조점을 둔다. 구약에 나타난 공통점은 신약의 진리를 예시한다. 이러한 공통점은 성경 전체를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참조, 롬 15:4; 고전 10:6,11).

13:4-7 “길 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위에” 시골의 농부들은 대개 그들의 집 주위에 있는 밭 전체에서 함께 일했고 또 함께 밭을 갈았다. 이 밭에는 두렁과 흙이 얇은 곳과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이 있었다. 밭 전체에 쟁기질을 했다. 쟁기질해 놓은 이 넓은 밭에 씨를 흩어 뿌렸다.

13: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정확한 수확량이 아니라 결실을 한 점에 초점이 있다. 우리는 씨 뿌림을 구원과 일치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요 8:31 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같은 장의 다음 문맥에서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말한다(즉, 요 8:59). 성경은 최초의 감정적인 반응과 삶이 변화하는 지속적인 제자됨을 구별지어 말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림은 최초의 반응을 가리키고 열매를 맺음은 제자됨을 가리킨다.

13:9 11:15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3:10-17**

<sup>10</sup>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sup>11</sup>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sup>12</sup>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sup>13</sup>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sup>14</sup>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는 것은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sup>15</sup>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sup>16</sup> 그러나 너희 눈은 밝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sup>17</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3:10-13 예수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행하는 믿음의 헌신과 성령의 조명하시는 힘을 필요로 한다. 비유는 응답을 요구한다!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과 듣는 신자의 자유의지가 결합된 것이다. 이 장의 앞에 있는 서론적 설명을 보라.

13:11 “천국의 비밀” 예수께서는 새 시대 및 실재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일컫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참조, 마 5-7 장). 이 비밀은 예수와 그의 새 왕국에 대한 것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가리킨다(참조, 눅 22:22; 행 2:23; 3:18; 4:28; 엡 1:11; 뱀전 1:12). 듣는 자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참조, 13,16-7,19,23 절; 막 4:11-12).

**13:12** 영적 지식을 가졌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알아 보고 그를 인정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가진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참조, 국 12:48). 그들이 가졌던 온전치 못한 지식은 완전한 심판을 가져 온다(뱀후 2:20-22 와 비슷함).

**13:14-15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70 인역(LXX)의 인용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소명과 보내심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다(참조, 사 6:9-10). 이 구약 본문이 요 12:40 과 행 28:25-27 에서도 인용되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행할 때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많은 진리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않는 자들에게는 어두움과 잠잠함이 있을 것이다! 비유는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는 진리를 열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가리울 것이다.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 176-177 쪽을 보라.

▣ **“마음”** 5:8 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13:16** 이것을 막 4:13 과 비교하라.

**13:17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모든 인류에 대한 목적에 대해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뱀전 1:1-10-12).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책임감을 준다!

#### 개역개정 13:18-23

<sup>18</sup>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sup>19</sup>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sup>20</sup>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sup>21</sup>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sup>22</sup>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sup>23</sup>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3:18-23** 이 비유의 해석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해 주신 내용이다.

**13:19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평행을 이루는 막 4:15 에서는 사탄으로 불린다(4:5 의 특별주제를 보라). 고후 4:4 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한다. 이 비유에 악한 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놀랍다(참조, 25, 28, 39 절). 예수께서는 국가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는 악한 자의 실제적 존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서 사람들의 원수가 세 종류로 드러난다: (1) 사탄(참조, 19 절; 엡 2:2) (2) 세계 조직(참조, 22 절; 엡 2:2) (3) 인간의 타락한 성품(참조, 엡 2:3).

**13:20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것은 문맥에서 나타나 있듯이 예수와 그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반응임이 분명하다. 참된 구원은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초기의 회개와 믿음이다. 유형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를 사용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갖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참조, 마 7:21-23; 뱀후 2 장).

**13:21-22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와 삶의 양식이 유효한 고백의 증거이다(참조, 요한 일서와 야고보서). 초기의 반응이 비록 열광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항상 지속적이거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마 7:21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신약은 돌이킨 자에 대해 종종 언급한다.

1. 뿌리가 없다, 마 13:21; 막 4:17; 눅 8:13
2. 시험에 빠지다, 마 24:10
3. 거하지 않다, 요 15:6
4.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딤후 1:9; 6:21; 딤후 2:18
5. 파선하다, 딤후 1:19
6. 믿음에서 떠나다, 딤후 4:1
7. 배교하다, 살후 2:3
8. 믿음에서 떨어지다, 히 3:12

9. 타락하다, 히 6:6

10. 저버리다, 벧후 2:20-22

기독교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다! 이것은 처음의 반응이요(즉, 요 1:12; 롬 4 장) 계속적인 반응이며(야고보서와 요한 일서) 믿음의 결론이다(히브리서 11 장)!

13:22 “재물의 유혹” 6:24 의 특별주제: 부를 보라.

13:23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진실된 회심의 증거로서 초기의 감정적 결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일시적인 순간이 아닌 제자됨의 삶을 중요시 한다.

맨프렛 T. 브라흐는 *성경의 낱용: 성경을 잘못 읽는 결과* (106 쪽)에서 흥미로운 언급을 한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 주신 경고로서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7:15-16). 즉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가진 지고의 가치나 신념은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난다(마 7:17-20; 눅 6:43-45).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는 일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확보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왕국의 자녀이다(마 7:21; 눅 6:46-48). 단지 “천국의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천국 복음의 가장 깊은 의미를 진정 붙잡은 자요(마 13:23) 그것을 받아들인 자며(막 4:20)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굳게 잡은 자들”이다(눅 8:15).”

**개역개정 13:24-30**

<sup>24</sup>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sup>25</sup>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sup>26</sup> 썩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sup>27</sup>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sup>28</sup>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sup>29</sup>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sup>30</sup>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13:24-30 가라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다(참조, 36-43). *새 신약 신학 사전*(NIDNTT) 제 1 권 299 쪽에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단이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은 어거스틴, *신의 도성*; 위클리프, *테 에클레시아*; 루터, *계시에 대한 서론*; 칼빈, *기독교 강요* IV 17; 그외에 많은 저자들의 기록(J. T. 맥닐 편저[1960] 칼빈의 *기독교 강요* II 1022 를 보라)에게서 발견된다.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외식과 속임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실은 딤후 2:19 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가르침을 기억나게 한다. 이 개념은 바울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있어서 교회로 확장되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로서 ‘약속의 자녀들’이다(롬 9:6 이하). 이 사실은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위험에 대한 경고로 인식된다(갈 3:7; 참조, 롬 8:12 이하). 바울은 자신이 버린 바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에 있어야 할 훈련의 필요를 인식했다(고전 10:26-39; 12:12-28). 교회의 구성원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은 히브리서에서 다룬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2:3; 3:7-4:14; 6:1-12; 10:26-39; 12:12-28). 이 내용은 가라지의 비유(마 13:24-43) 및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31-46)와 유다의 경우에서 드러난다(마 10:4; 26:14,25,47 이하; 27:3; 막 14:10,43; 눅 6:16; 22:3,47; 요 13:2; 17:12; 18:22 이하; 행 1:17 이하, 25 절).”

이러한 경고는 안심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결심을 지나치게 확신하여 요구되는 제자의 삶과 인내를 경시하는 것에 대해 균형을 갖게 한다.

13:25 “그 원수” 이것은 문맥에서 다음의 인물을 가리킨다

- 1. 사탄, 눅 10:19
- 2. 거짓 교사, 마 7 장; 벧후 2 장

이 단어는 누구라도 천국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를 일컫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신자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게 할 수 있게 하며(참조, 13,16-17,23 절) 잘못된 것을 거부하게 한다.

▣ “가라지” 가라지(독보리)와 재배용 밀이 서로 다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보기에 매우 비슷해 보인다. 가라지는 어두운 색의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밀은 옅은 갈색의 열매를 맺는다.

13:27 “주여” 이것은 *κωλυοσ*(주님)라는 용어가 겸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용된 경우이다. 사전 혹은 성경 언어 사전이 아니라 문맥, 문맥,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지음을 기억하라. 사전은 한 단어가 어떤 언어/문화의 알려진 글이나 연설에서 사용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13:29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문맥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모든 것을 똑바로 놓으실 것이다. 사탄이 이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는 종교이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즉, 마 7:21-23). 밀과 가라지는 매우 흡사하지만 때가 되면 서로 다름이 나타난다. 많은 이들이 참된 영성(참조, 마 7 장)으로 가장된 종교성(참조, 사 29:13; 골 2:16-23)에 의해 속아 넘어간다!

13:30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어떻게 행하는가가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참조, 42,50 절). 각 사람이 예수께 가진 믿음을 거부한 결과 받는 무섭고 영원한 결과를 강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개역개정 13:31-32**

<sup>31</sup>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sup>32</sup>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13:31-32 31-33 절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서로 평행을 이룬다. 두 비유는 막 4:30-32 과 눅 13:18-19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복음에 응답하는 자들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울 영적 왕국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자들이다.

13:32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NASB 에서 대문자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니엘서(4:11-12)의 인용으로 여겨진다. 겨자씨 한 알이 얼마만큼 크게 될지를 말하는 이 표현은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여기에 사용되었다.



NASB “9 리터”  
 NKJV, NRSV, NJB “단위들”  
 TEV “36 리터”

사톤이라는 헬라이어 용어는 스아라는 히브리 도량형 단위를 번역해놓은 것이다. 이것의 정확한 양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한 분량을 의미했을 것이다(큰 나무에 상응하는 것).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상업적으로 사용한 무게와 양은 고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중요했다. 성경은 유대인이 서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참조, 레 19:35-36; 신 25:13-16; 잠 11:1; 16:11; 20:1). 실제적인 문제는 정직성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표준화 되지 않은 용어와 체계였다. 두 개의 저울 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양에 대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 해석자의 사전 제 4 권 831 쪽을 보라). 또한 이집트의 10 진법(10 을 기초로 하는)은 메소포타미아의 60 진법(6 을 기초로 하는)과 결합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크기”와 “양”은 어느 것도 규격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동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혹은 농부의 용기를 기초로 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오직 어렵짐작이었고 임시적이었다. 무게와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방법은 상호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이다.

**I. 자주 사용된 부피와 관련된 용어**

**가. 마른 것의 양**

1. 호벨(BDB 330, 아마도 “한 마리의 나귀에 실을 수 있는 양,” BDB 331), 예, 레 27:16; 호 3:2
2. 레택(또는 레택, BDB 547, 아마도 호 3:2 에서 암시됨)
3. 에바(BDB 35), 예, 출 16:36; 레 19:36; 겔 45:10-11,13,24
4. 스아(BDB 684), 예, 창 18:6; 삼상 25:18; 왕상 18:32; 왕하 7:1,16,18
5. 오벨(BDB 771 II, 아마도 “곡물 한 단” [벤 곡식 한 단], BDB 771 I), 예, 출 16:16,22,36; 레 23:10-15
6. 잇사론(BDB 798, 에바의 “십분의 일”), 예, 출 29:40; 레 14:21; 민 15:4; 28:5,13
7. 카브(또는 캅, BDB 866), 참조, 왕하 6:25

**나. 액체의 양**

1. 고르(BDB 499), 예, 겔 45:14(이는 또한 마른 것의 부피를 재는 것이었다, 참조, 대하 2:10; 27:5)
2. 바트(BDB 144 II), 예, 왕상 7:26; 대하 2:10; 4:5; 사 5:10; 겔 45:10-11,14
3. 힌(BDB 228), 예, 출 29:40; 레 19:36; 겔 45:24
4. 록(BDB 528), 참조, 레 14:10,12,15,21,24

다. 도표(로렌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01 쪽과 *유대 백과사전*, 제 16 권, 379 쪽에서)

호멜(마른 것) = 고르(액체)	1						
에바(마른 것) = 바트(액체)	10	1					
스아(마른 것)	30	3	1				
힌(액체)	60	6	2	1			
오멜/이사론(마른 것)	100	10	-	-	1		
카브/갑(마른 것)	180	18	6	3	-	1	
룩(액체)	720	72	24	12	-	4	1

II. 자주 사용된 무게의 용어

- 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 무게 단위는 달란트, 세겔, 게라였다.
1. 구약에서 가장 큰 무게의 단위는 달란트이다. 출 38:25-26 에서 1 달란트는 3,000 세겔에 해당한다(즉, “대략적인 무게,” BDB 503).
  2. 세겔(BDB 1053, “무게”)은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본문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것이 진술되지 않았다. 구약은 세겔의 여러 가치를 언급한다.
    - ㄱ. “상업적 표준”(NASB 참조, 창 23:16)
    - ㄴ. “성소의 세겔”(NASB 참조, 출 30:13)
    - ㄷ. “왕의 저울에 의해”(NASB 참조, 삼하 14:26), 또한 엘리판틴 파피루스에서도 “왕의 저울”이라고 불림.
  3. 게라(BDB 176 II)는 1/20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참조, 출 30:13). 이 비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율을 따랐다(우가릿).
  4. 미나(BDB 584)는 50 혹은 60 세겔의 가치이다. 이 용어는 주로 후기에 기록된 구약성경의 본문에 나타난다(예, 겔 45:12; 스 2:69; 느 7:70-71). 가나안에서는 50:1의 비율을 사용한 반면 에스겔서는 60:1의 비율을 사용했다.
  5. 베카(BDB 132, “반 세겔,” 참조, 창 24:22)는 구약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고(참조, 창 24:22; 출 38:26) 1/2 세겔의 가치를 가졌다. 이것의 이름은 “나누다”란 의미이다.

나. 도표

1.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000	50	1			
베카	6,000	100	2	1		
게라	6,000	1,000	20	10	1	
2. 에스겔서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600	60	1			
베카	7,200	120	2	1		
게라	72,000	1,200	20	10	1	

개역개정 13:33

<sup>33</sup>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13:33 “누룩” 구약에서 누룩은 종종 악의 상징이었지만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침투하고 성장함을 분명히 나타내는 상징이다. 한 단어의 어떤 정의나 함축적 의미를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대한 고려없이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문맥이 뜻을 결정짓는다! 16:6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갖다 넣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반죽을 섞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것은 왕국이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3:34-35

<sup>34</sup>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sup>35</sup>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3: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 . .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시 78:2 의 인용이다.

여러 고대 헬라어 사본 및 원래의 **℣** 사본 필사가의 것과 유세비우스와 제롬이 사용한 헬라어 사본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라는 구로 되어 있다. 원래의 본문에는 맛소라 본문에서 시편 78 편의 저자로 말하는 “아삽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헬라어 사본에서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본은 하나도 없다. 초기의 서기관들이 (1) 성전 합창단의 지도자인 이 레위인을 알아 보지 못하여 그의 이름을 “이사야”로 바꾸었거나 혹은 (2) 14-15 절에서 언급한 인용이 어떻게든 계속된다고 보았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영감받은 성경의 모든 기록자를 “선지자들”로 인정했다. 대다수의 헬라어 사본의 본문에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지 않다.

▣ “창세부터” “세상의”라는 이 **소유격** 구는 대문자체 사본인 **℣<sup>1</sup>**, B 및 일부 고대 라틴어 사본과 시리아 사본, 오리겐과 제롬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마 25:34 에서는 이 구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대문자체 사본(즉, **℣<sup>\*</sup>**, **℣<sup>2</sup>**, C, D, L, W 사본)의 지지를 받는다. UBS<sup>4</sup>는 “세상”이 들어 있지만 괄호 안에 놓은 것에 대해 는 것에 “C” 등급(즉, 결정하기 어려움)을 준다.

개역개정 13:36-43

<sup>36</sup>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sup>37</sup>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sup>38</sup>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sup>39</sup>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sup>40</sup>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sup>41</sup>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sup>42</sup>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sup>43</sup>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3:36-43 이것은 24-3 절에 있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다.

13:37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생명과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신 예수 및 그 진리의 내용을 이루는 복음 메시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씨 뿌리는 자)인 동시에 메시지(씨)이다.

13:38 “밭은 세상이요” 이것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열쇠이다. 교회가 밭이 아니라 세상이 밭이다(참조, 47 절). 씨뿌리는 자의 비유만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도 이 비유는 (1)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 혹은 (2) 복음이 전파된 장소(즉, 세상, 참조, 마 28:19; 눅 24:46; 행 1:8)를 가리킨다.

▣ “천국의 아들들 . . . 악한 자의 아들들”

특별주제: “~의 아들”

“아들”(혹은 “~의 자녀”)이라는 용어는 종종 어떤 특징을 갖는 그룹(혹은 개인)을 나타내거나 혹은 어떤 그룹에 그가 속해 있음을 뜻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 그룹의 특징을 나타냄

1. 긍정적
  - ㄱ. 왕국의 아들들, 마 8:12; 13:38
  - ㄴ. 사람의 아들들, 막 3:28; 엡 3:5
  - ㄷ. 빛의 아들들, 눅 16:8; 요 12:36; 엡 5:8; 살전 5:5
  - ㄹ. 부활의 아들들, 눅 20:36
  - ㅁ. 선지자의 아들들, 행 3:25
  - ㅂ. 언약의 아들들, 행 3:25
  - ㅅ. 하나님의 아들들, 요일 3:10
2. 부정적
  - ㄱ. 악한 자의 아들들, 마 13:38; 요 8:44; 요일 3:10
  - ㄴ. 지옥의 아들들, 마 23:15

- ㄷ. 이 세대의 아들들, 눅 16:8; 20:34
    - ㄹ. 악마의 아들들, 행 13:10; 23:6
    - ㅁ. 불순종의 아들들, 엡 2:2; 5:6
  - 나. 개인의 특징을 나타냄
    - 1. 긍정적
      - ㄱ. 위로의 아들(즉, 바나바), 행 4:36
      - ㄴ. 바리새인의 아들(즉, 바옥), 행 23:6
    - 2. 부정적
      - ㄱ. 우뢰의 아들들(즉, 야고보와 요한), 막 3:17
      - ㄴ. 멸망의 아들(즉, 가롯 유다), 요 17:12
      - ㄷ. 파괴의 아들(적 그리스도), 살후 2:3

13:39,40 “세상 끝” 이것은 종말적 배경을 나타낸다. 왕국은 “이미”와 “아직”이며 심판을 나타낸다.

▣ “불” 3:12 의 특별주제를 보라.

13:41 이것은 슥 1:3 의 부분적인 인용이다. 이 절에서 왕국이 “그의 왕국”으로 불림을 주목하라. 여러 곳에서 왕국을 성자에게 연결시켜 말한다(참조, 16:28; 눅 22:30; 23:42; 요 18:36; 딤후 4:1,18). 또한 여러 곳에서 왕국을 성부와 성자에게 연결지어 말한다(참조, 43 절; 엡 5:5; 계 11:15).

성자의 왕국은 일시적 왕국이 아니라(요 18:36) 영원한 왕국이다(참조, 단 7:14; 눅 1:33; 딤후 4:18; 벧후 1:11). 프랭크 스택의 *신약 신학* 164-165 쪽을 보라.

13:42 8:12 의 설명을 보라. 5:22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13:43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은 단 12:3 에 있는 진술과 비슷하다.

▣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바로 지금 그 복음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 이 아리송한 구는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마 11:15; 13:9,43; 막 4:9,23; 눅 8:8; 14:35; 계 2:7,11,29; 3:6,13,22; 13:9). 이 비유들은 즉각적으로 듣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응답하되 지금 바로 응답해야할 긴급성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 개역개정 13:44

<sup>44</sup>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13:44 “천국” 45,47,52 절을 보라. 이 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왕국”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비유이다.

▣ “밭에 감추인 보화” 값있는 물건을 땅에 묻어 두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였다. 은행이 없었다.

▣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제자도의 근본적 성격을 나타낸다. 예수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다! 여기에 역설이 들어 있다: (1) 거저 받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오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거저이다(참조, 롬 3:24; 5:15; 6:23; 엡 2:8-9) 하지만 (2) 이 구원은 제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지불하게 한다(참조, 10:34-39; 13:44,46).

#### 개역개정 13:45-46

<sup>45</sup>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sup>46</sup>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13:45-46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이다.

13:45 “진주” 고대 사회에서 진주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으며 물건의 구매에 있어서 금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

개역개정 13:47-50

<sup>47</sup>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sup>48</sup>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한 것은 내버리느니라 <sup>49</sup>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sup>50</sup>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13:47-50 저인망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비유이다. 이 비유의 의미는 가라지 비유의 경우처럼 마지막 때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구분이 있을 것을 말한다(참조, 마 25:31-46).

13:48 이 절은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 응답한 것에 기초하여 마지막 때에 구별이 있을 것임을 설명한다(참조, 마 25:31-46; 계 20:11-15).

13:49 “세상 끝” 유대인들은 실재를 두 시대로 이해했다: 현재의 악한 시대와 오는 시대(12:31의 특별주제를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으로 새 시대가 오게 할 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다. 신약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심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시대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절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 말한다(참조, 마 25:31-47; 계 20장).

13: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30,42,50 절; 8:12; 25:31 이하를 보라. 예수께서는 종종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다!

개역개정 13:51-52

<sup>51</sup>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sup>52</sup>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13:52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과 기록된 율법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였다(12:38의 특별주제를 보라). 믿는 서기관은 신약에서 예수의 가르치심에 나타난 성취를 보는 것은 물론 구약에서 진리를 꺼내올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 4:23-24; 15:4; 고전 10:6,11; 딤후 3:16). 마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특징지었을 것이다!

개역개정 13:53-58

<sup>53</sup>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sup>54</sup>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sup>55</sup>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sup>56</sup>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sup>57</sup>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sup>58</sup>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3:53 “비유” 이것은 “나란히 던지다”를 뜻하는 헬라이어 합성어이다. 이것은 보통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이들 복음서들의 유대인 저자들이 “수수께끼” 혹은 “잠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인 *משל*에 상응하는 헬라이어 단어로써 이 단어(*פראבל*)를 사용하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משל*이 갖는 놀랄만한 특성에 비추어 주제와 예상했던 결과를 기꺼이 재고하여야만 한다.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두 가지 역설적 이유가 있다: (1) 그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2)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감추어 놓기 위함이었다.

13:54 “고향으로 돌아가사” 비슷한 내용이 눅 4:16-30에 나온다. 주석가들 사이에 이번 방문이 처음 방문이었는가 아니면 두 번째 방문이었는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다.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여러 사건이 나타난다(참조, 요 2:13-22 대 마 21:12-16; 막 11:15-18; 눅 19:45-47). 하지만 학자들은 자신의 서양 문학적 전체를 갖고 이 사건들이 한 가지 사건이었다고 추정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기록은 또 다른 방문을 나타낼 것이다.

▣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는 정규적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관습을 가지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학교에서 구약을 배우셨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된 유대인의 기관으로서 (1) 아이들의 교육 (2)

예배 (3) 유대인 사회에 대한 봉사 (4) 율법의 연구와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포로기 동안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는 일을 그 목적으로 했다.

▣ “그들이 놀라 이르되”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놀라운 통찰력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나타난 권위를 인해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서기관들은 이전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들의 권위에 근거하여 가르쳤는데,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에 근거하여 가르치셨다(참조, 7:28-29).

▣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께서 가지신 능력의 원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훈련받지 못한 일반 청년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악한 자와 연관을 가졌다고까지 말하며 그를 비난했다. 그들이 볼 때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에 대한 공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자란 소년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인신 메시야로 믿는 일이 어렵게 여겨졌다.

13:55,56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두 절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각 질문이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목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돌, 금속,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를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영어의 “건축가”는 이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예수께서 일반적인 소년기를 보냈음을 암시한다(참조, 눅 2:40,52).

13:55 “그 형제들은”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야고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썼다.
2. 요셉, 그는 막 6:3 과 일부 후기 헬라어 사본에서 요세로 불린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3. 시므온,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4. 유다, 그는 유대라고도 불렸으며 신약의 한 책인 유다서를 썼다.

▣ “그 형제들은... 그 누이들은”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나중에 낳은 자녀들(참조, 1:25; 12:46; 막 6:3) 혹은 요셉이 이전의 결혼에서 낳은 자녀일 수 있다(성경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가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 47 쪽과 174 쪽을 보라).

13:57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는 거치는 바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참조, 11:6; 사 8:14; 28:16; 렘 6:21).

▣ “선지자” 이것은 흔히 사용되던 격언이었다. 가깝게 되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다는 뜻이다. 1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13:58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신자들이 하나님(언약)과 관련된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눅 4:28-29 에서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각 비유의 중심 진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말하라. 이 장에는 전체를 하나로 나타내는 주제가 있는가?
2. 거저 누리는 구원과 모든 것을 지불하여야 함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3. 천국처럼 지옥은 성경의 진리인가?
4.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랍비들의 방법과 어떻게 달랐는가?
5.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는가?

# 마태복음 1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침례(세례)요한의 죽음	목베임을 당한 침례(세례)요한	예수를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사건들  (13:53-17:27)  요한의 죽음	침례(세례)요한의 죽음	헤롯과 예수
14:1-12	14:1-12	14:1-12	14:1-2  14:3-5  14:6-7  14:8  14:9-12	14:1-2  목베임을 당한 침례(세례)요한  14:3-12
오천 명을 먹이심	오천 명을 먹이심	오천을 먹이심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심	빵의 첫 번째 기적
14:13-21	14:13-21	14:13-21	14:13-14  14:15  14:16  14:17  14:18-21	14:13-14  14:15-21
물 위를 걸으심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심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그와 함께 걷다
14:22-33	14:22-33	14:22-27  14:28-33	14:22-26  14:27  14:28  14:29-30  14:31  14:32-33	14:22-33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심	많은 이가 그를 만지고 고침을 받음		예수께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게네사렛에서의 병고침
14:34-36	14:34-36	14:34-36	14:34-36	14:34-3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마태복음 14:1-36의 배경 연구

- 가. 마 14:1 이하; 눅 3:1; 9:7; 13:31; 23:7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대왕의 아들이었다. 헤롯대왕의 죽음 이후에 그가 다스리던 왕국은 그의 세 아들에게로 나누어 분배되었다(아켈라오스, 헤롯 안티파스, 필립). “분봉왕”이라는 용어는 “4분의 1의 지도자”라는 의미이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안티파스로 줄여서 불리기도 했다. 그는 갈릴리 지방과 베리아 지역을 다스렸다(주전 4년 - 주후 39년). 이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대부분은 이두메 출신의 두 번째 세대 지도자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행해졌음을 말한다.
- 나.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리스토틀로스의 딸로서 그에게는 조카딸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형제인 필립과 결혼을 했다. 이 필립은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필립이 아니라 로마에 살았던 또 다른 필립이었다. 헤로디아는 필립과의 사이에서 딸을 한 명 낳았다(살로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에 그는 헤로디아스를 만나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다. 헤로디아는 정치적 야망을 가진 여자였다. 따라서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였던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스도 필립과 이혼을 하여 헤롯 안티파스는 그녀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헤롯 아그립바 1세(참조, 행 12장)의 누이이기도 했다.
- 다. 우리는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에 관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그의 책 *유대인 고대사* 18:5:4에서 기록한 것을 본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2살에서 17살 사이였음이 틀림없다. 그녀는 그 모친에 의해 조종을 받았고 이용을 당했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후에 분봉왕 필립과 결혼하였는데 곧 과부가 되었다.
- 라. 침례(세례)요한의 목을 벤지 10년 정도 지난 후에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인 헤로디아스의 부추김으로 로마에 가서 그녀의 형제인 아그립바 1세가 왕의 칭호를 받은 것처럼 그녀에게도 왕의 칭호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때에 아그립바 1세는 로마에 편지를 써서 안티파스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로마와 원수였던 팔시안과 공모했다고 말했다. 황제는 명백히 아그립바 1세의 말을 믿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내 헤로디아스와 함께 스페인으로 추방되었다.
- 마. 신약에 나오는 여러 헤롯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헤롯대왕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세례)요한을 죽였고,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헤롯 아그립바 2세는 바울의 탄원을 들은 일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4:1-5

<sup>1</sup>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sup>2</sup>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sup>3</sup>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sup>4</sup>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sup>5</sup>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14: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태는 1-2 절과 13 절 사이에 침례(세례)요한이 이전에 죽임을 당한 내용을 다룬 삽입구를 넣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13 절에서 들으신 내용은 침례(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께 대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는 죽었던 침례(세례)요한이 살아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4:2 “이는 세례 요한이라” 눅 9:7-9 에 있는 내용을 보라.

▣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은 분명히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러한 신앙은 그로 하여금 침례(세례)요한의 목을 벤 일에 대해 죄책감을 크게 느끼도록 했다. 침례(세례)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어떤 역사적 기록도 있지 않다.

14:3 “전에 헤롯이 . . .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우리는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18.5.2.에서 이 감옥의 이름이 마케루스임을 알게 된다(참조, 마 4:12; 11:2). 이 감옥은 나바티안 제국과의 국경에 인접해 있는 사해의 동남쪽에 있던 매우 높은 난공불락의 성채에 있었다. 흥미롭게도 헤롯은 첫 번째 부인의 아버지 아레타스(참조, 고후 11:32)로 하여금 이 특별한 여름 별장에 오도록 요청하여 그녀를 성공적으로 돌려 보낼 수 있었다. 후에 그녀의 부친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 딸의 남편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접전을 해 그를 완전히 패배시켰다. 만일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 “헤로디아” 미갈 마길의 책 *신약의 길과 교통*은 그녀에 대해 유용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녀는 헤롯대왕의 손녀이며 아리스토틀루스의 딸이요 아그립바 1 세의 누이였다. 2:1 의 설명을 보라. 그녀는 자기의 배다른 형제 헤롯 필립 1 세와 결혼했다. 후에 그녀는 그를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는데 그도 그녀의 배다른 형제였다. 그녀는 안티파스가 주후 39 년에 추방당할 때에 그와 함께 추방되기를 선택했다”(49 쪽).

14: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 요한은 분명히 반복하여 이 비난을 했다. 이러한 비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그의 조카 딸)의 관계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혈연관계 때문이었거나(참조, 레 18:16) 혹은 그들이 각각 불법적으로 이혼을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신 24:1-4). 후자의 경우였을 가능성이 크다.

14: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 . .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것은 9 절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동방 권력자의 정신분열병은 유명했다. 헤롯은 분명히 요한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그가 종종 요한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참조, 막 6:20). 그럼에도 그는 동시에 요한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예수께서는 마 11:7-11 에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옛 언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했다. 11:9 의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을 보라.

#### 개역개정 14:6-12

<sup>6</sup>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sup>7</sup>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sup>8</sup>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sup>9</sup>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sup>10</sup>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sup>11</sup>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sup>12</sup>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4: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이것이 그의 즉위를 기념하는 연례 축제를 뜻할 수 있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자료가 있다.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의 생일을 말한다. 당시에는 이러한 날에 큰 잔치를 벌였다.

▣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살로메의 춤(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18.5.4 를 보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춤추는 여자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나이의 공주가 술취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일은 그들 모두를 몹시 놀라게 했을 것이다. 그녀의 춤은 그 모친이 헤롯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사한 매우 관능적인 춤임을 문맥에서 나타낸다.

14: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시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매우 강력한 “강권”을 나타낸다. 이 점은 이 어린 소녀가 모친의 지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침례(세례)요한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 명확히 계획된 살인을 행함에 있어서도 모친에 의해 조종받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막 6:22-25).

14:9 “왕이 근심하나” 왕은 후회했다—그가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 계획된 살인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맹세를 인함이었다(일반적으로는 “고백”의 의미임, 참조, 눅 22:6). 그는 또한 자기 앞에 있는 술취한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맹세를 깨뜨리기를 난처해 했다(참조, 막 6:26).

14: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우리는 그 어머니가 머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주후 4 세기에 제롬이 최초로 언급한 말에 의하면 그녀는 요한의 혀를 잡아 당기고 핀으로 그것을 꿰었다고 한다.

헬라이어 단어인 “소녀”는 야이로의 딸(참조, 막 5:41-42, 이 본문은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12 살로 말한다)과 살로메에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살로메는 십대였을 것이다.

**개역개정 14:13-14**

<sup>13</sup>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sup>14</sup>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4:13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1 절과 2 절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것은 괄호 안의 내용인 3-12 절을 가리키지 않는다.

▣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막 6:32-44; 눅 9:10-17; 요 6:1-13 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 떠나 가셨다. 기도는 예수께서 일상적으로 행해오신 일로서 그가 직면한 여러 상황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왔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떠나셔야 했다면 신자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는 무리에 대해 힘들어 하시거나 그들에 대해 참지 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그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셨다(참조, 14 절). 이러한 면은 마태복음의 한 주제이다(참조, 9:36; 15:32). 예수께서 지치셨고 또 기도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셨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셨다. 비록 예수께서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위해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병고치는 자로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늘 가지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병고침은 두 가지 사실을 위함이었다: (1) 그것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것과 (2) 그 일이 메시아의 왕국이 갖는 특성과 임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다(참조, 4:23; 8:16; 9:35; 14:14; 15:30; 19:2; 21:14). 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심을 믿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지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지를 나는 모른다. 예수께서 1 세기에 행하신 병고침은 그의 메시지를 확증함에 강조점을 두었음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귀신들의 활동이 매우 빈번히 있었음을 나는 인정한다. 이와 같은 일이 재림을 앞두고 반복될 것이다. 19:2 의 특별주제: 병고침은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보라.

**개역개정 14:15-21**

<sup>15</sup>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sup>16</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sup>17</sup>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sup>18</sup>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sup>19</sup>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sup>20</sup>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sup>21</sup>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14:15 “저녁이 되매” 23 절을 보라. 마태는 이 장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낸다(참조, 23 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른 저녁시간과 늦은 저녁시간으로 시간을 구분했다. 이른 시간은 오후 3 시경을 말하는데 이는 성전에서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은 해가 진 직후의 시간을 가리켰다.

▣ “이 곳은 빈 들이요” 이 관용적 표현은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나 마을에서 떨어져 있음을 말한다.

14:16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참조, 막 6:37).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강조형으로 된 헬라이어 구문이다. 제자들은 놀라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풍랑의 경우처럼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기회였다(참조, 32 절).

14:17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것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참조, 요 6:9). 기적을 믿기 힘들어하는 주석가들(윌리엄 바클레이 및 다른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은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다른 이들도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만큼 음식이 충분하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여 성경 저자가 말하는 명백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단적인 경우이다. 만일 이 사건이 단순히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은 경우라면, 먹고 남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 들인 음식은 어디서 온 것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라 떡이 많아지게 하셨지만 나중에 먹기 위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낭비가 없게 한 점을 주목하라. 떡의 기적은 예수께 기적을 행해 자신의 고평 배를 채우라고 악한 자가 마 4:1-4 에서 시험한 바로 그 내용이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시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시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떡을 주는 왕”으로 예수를 세우기 원했다(참조, 요 6:15).

**14:18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단지 무리를 먹이시기 위함 뿐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점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의 참된 목적이었다. 어려운 자들을 붙잡히 여기심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일은 기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쌍둥이 동기를 이룬다.

이렇게 떡을 베푸신 일은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모세처럼 행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 새 만나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참조, 요 6 장).

**14: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문자적으로 이것은 “잔디 위에 비스듬히 눕게하다”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자세는 식사하는 기본 자세였다. 그들은 100 명씩 50 명씩 그룹으로 앉았다(참조, 막 6:39-40). 그들이 싱싱하고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는 사실은 이 시기가 봄철이었음을 시사한다.

▣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취한 기도의 자세는 눈과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는 형태였다. 그들이 무릎을 꿇는 일은 드물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인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것은 바리새인과 죄인에 대한 비유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리는 가슴도 치면서 기도해야 한다(참조, 눅 18:9-14)!

**14:20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열 둘**

열 둘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조직을 나타내었다

가. 성경 이외에서

1. 황도의 십이궁도
2. 일 년의 열두 달

나. 구약에서(BDB 1040 과 797)

1. 야곱의 아들들(유대인의 지파)
2. 그 반영
  - ㄱ. 제단의 열두 기둥, 출 24:4
  - ㄴ.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열두 보석(각각 지파를 나타냄), 출 28:21
  - ㄷ. 회막에 있는 성소에 둔 떡 열두 덩이, 레 24:5
  - ㄹ. 가나안에 보낸 열두 명의 스파이(한 지파에서 한 명씩), 민 13 장
  - ㅁ. 고라의 반역 때 있던 열두 지팡이(각각 지파를 대표함), 민 17:2
  - ㅂ. 여호수아의 열두 돌, 수 4:3,9,20
  - ㅅ. 솔로몬의 열두 행정 구역, 왕상 4:7
  - ㅇ. 엘리야가 야웨께 쌓은 열두 돌, 왕상 18:31

다. 신약에서

1. 선택된 열두 사도
2. 열두 바구니의 떡(각각 사도를 나타냄), 마 14:20
3. 신약의 제자들이 앉을 열두 보좌(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가리킴), 마 19:28
4. 예수를 구출할 천사의 열두 부대, 마 26:53
5.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한 상징
  - ㄱ.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 4:4
  - ㄴ. 144,000(12 x 12), 7:4; 14:1,3
  - ㄷ. 여자의 면류관에 있는 열두 별, 12:1
  - ㄹ. 열두 문, 열두 천사는 열두 지파를 나타냄, 21:12
  - ㅁ.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 그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됨, 21:14
  - ㅂ. 12,000 스타디온(새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크기), 21:16
  - ㅅ. 벽이 144 규빗임, 21:7
  - ㅇ. 열두 진주 문, 21:21
  - 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과실을 맺는 나무(매달 한 종류 씩), 22:2

14: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일은 따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로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여자와 어린이는 많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전체 수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6,000 명에서 7,000 명이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남자가 여자와 어린이와 따로 먹는 것은 문화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것이다(참조, NASB 연구성경, 1389 쪽의 각주).

**개역개정 14:22-27**

<sup>22</sup>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sup>23</sup>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sup>24</sup>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sup>25</sup>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sup>26</sup>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sup>27</sup>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14:22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 . .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도록 하셨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1. 무리의 부적절한 행동(참조, 막 6:15)
2.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초자연적 기적을 나타내시려고(참조, 막 6:45-51; 요 6:15-21)

▣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들은 기적으로 먹이신 일을 인해 매우 흥분되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시도했다(참조, 요 6:15). 이 기적은 마 4:1-4 에서 악한 자가 했던 시험 곧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따로 가셔서 성부께 기도하며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대화를 할 필요를 가지셨다. 예수께서 행하신 병고침과 이곳에 있는 기적인 많은 수의 사람을 먹이신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 가운데 큰 혼동이 생겼다.

14: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것은 13 절에서도 언급된 바 예수의 원래 의도였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기 위해 혼자 계셨음을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필요로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이 일을 필요로 하겠는가?

14:24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막 6:47 에서는 배가 호수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말한다.

**14:25**

NASB, NKJV, NJB  
 NRSV  
 TEV

“밤 사경에”  
 “이른 새벽에”  
 “새벽 3 시에서 4 시 사이에”

이것은 로마인들이 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적 용어로서 새벽 3 시부터 6 시까지를 뜻한다(참조, 막 13:35). 유대인들은 원래 밤 시간을 세 시간대로 구분했다(참조, 삿 7:19; 애 2:19).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밤을 넷으로 나눈 시간개념을 받아들여 사용했다. 예수께서는 밤 시간의 대부분을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는 물결과 바람을 인하여 파도가 배를 들어 올릴 때에만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다시 한 번 자연에 대해 행하시는 그의 능력을 보이셨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단순히 지나 가시려 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함을 인해 그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들어오셨다.

14:26 “유령이라” 이 말은 그들이 다락방(눅 24:37)에서 한 바로 그 말이었다. 그들은 몹시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두려워하기를 멈추어라”(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이다. 격려를 주는 이 말은 종종 반복되고 있다(참조, 마 14:27; 17:7; 28:19; 막 6:50; 눅 5:10; 12:32; 요 6:20; 계 1:17).

14:27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

1. NASB, “용기를 내라”  
 NKJV, “기분을 좋게 하라”  
 NRSV, “용기를 가져라”  
 TEV, NJB, “용기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다음 사람들에게 하셨다
  - ㄱ. 중풍병자, 9:2
  - ㄴ. 혈루병을 앓던 여인, 9:22
  - ㄷ. 배 안에 있던 제자들, 14:27; 막 6:50
  - ㄹ. 소경, 막 10:49

- ㄱ.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요 16:33
  - ㄴ. 바울, 행 23:11
  - 2. “두려워 말라” – 이것은 **현재 중간태/수동태 디포 명령**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다음 사람들에게 하셨다
    - ㄱ.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마 14:27; 막 6:50; 요 6:20
    - 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눅 5:10
    - ㄷ.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눅 12:32
    - ㄹ. 변화산에서, 마 17:7
    - ㅁ. 무덤에서 여인에게, 마 28:10
    - ㅂ.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행 18:9
    - ㅅ. 바다에서 바울에게, 행 27:24
    - ㅇ. 밧모섬에서 요한에게, 계 1:17
- 천사들이 같은 표현을 다음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 1. 스가랴에게, 눅 1:13
  - 2. 마리아에게, 눅 1:30
  - 3. 목자들에게, 눅 2:10
  - 4.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마 28:5

**개역개정 14:28-33**

<sup>28</sup>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sup>29</sup>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sup>30</sup>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sup>31</sup>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sup>32</sup>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sup>33</sup>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14: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커다란 믿음과 커다란 의심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다.

▣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이신 줄 알아 보았다.

14:30 “바람을 보고” 그가 바람과 물결이 이는 것을 보고 느꼈을 때 그는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구원”이 구약에서 의미하듯이 “육체의 구원”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참조, 약 5:15).

14:31 “믿음이 작은 자여”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6:30; 8:26; 16:8).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 아멘!

14:32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이들의 경배를 받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27:54 의 특별주제를 보라)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잘 이해했고 또 예수의 사역에 나타난 영적 면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불확실하다. 이 사건은 16:16 에서 행해진 완벽한 신학적 고백을 위한 배경을 이룸이 분명하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나타내는 정도(즉, 막 6:52)로는 “메시아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4:3,6; 16:16; 26:63; 27:40,43,54). 눅 27:54 에서는 **관사**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용법이 완전한 신성을 드러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한다. 아마 이러한 설명이 사실일 것이다. 그들의 이해는 점진적이었지 즉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헬라어의 관사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너무 많이 신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개역개정 14:34-36**

<sup>34</sup>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sup>35</sup>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sup>36</sup>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4: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건너가다”에 애매모호함이 있다. 막 6:45 에서는 이 장소가 “물고기의 집”을 뜻하는 벳사이다로 불린다. 벳사이다로 불린 곳이 두 곳 있었거나 아니면 공관복음의 여러 이야기에서 지리에 관련되어 약간의 혼동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에 머무셨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게네사렛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하셨듯이 이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유대인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계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었을 것이다.

14: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13 절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시간을 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다. 그들은 9:20 에 기록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경우처럼 미신적인 믿음을 가졌다—그가 기도할 때 걸치시는 옷자락 끝을 만지기 원했다(참조, 36 절). 예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일 경우라도 그들을 받아 주셨고 또 그들을 도우셨다. 예수께서 가지신 긍휼하심은 유대인이 아닌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사람들까지도 그가 받아주신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3-12 절은 삽입된 단락으로 생각되는가?
2. 당신은 신약에서 언급한 여러 명의 헤롯을 구분할 수 있는가?
3. 왜 헤로디아는 침례(세례)요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가?
4.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5. 예수께서는 마 4:1-4 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거부하신 떡을 만드는 기적을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는 왜 두 번이나 행하셨는가?
6. 베드로와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반응을 한 일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 마태복음 1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기인하는 더러움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전통
15:1-9	15:1-20	15:1-9	15:1-2 15:3-9	15:1-9
(8-9)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8-9)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15:10-20		15:10-20	15:10-11 15:12 15:13-14 15:15 15:16-20	15:10-11 15:12-14 15:15-20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다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다
15:21-28	15:21-28	15:21-28	15:21-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1-28
많은 사람을 고치심	예수께서 큰 무리를 고치시다	병고침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호숫가에서의 병고침
15:29-31	15:29-31	15:29-31	15:29-31	15:29-31
사천 명을 먹이심	사천 명을 먹이심	사천 명을 먹이심	예수께서 사천 명을 먹이시다	떡으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15:32-39	15:32-39	15:32-39	15:32 15:33 15:34a 15:34b 15:35-38 15:39	15:32-39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5:1-11

<sup>1</sup>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sup>2</sup>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sup>3</sup>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sup>4</sup>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sup>5</sup>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sup>6</sup>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sup>7</sup>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sup>8</sup>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sup>9</sup>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sup>10</sup>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sup>11</sup>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1 “바리새인” 그들은 1 세기의 유대교에 있어서 외관상 가장 종교적인 분파였다. 그들은 마카비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들의 호칭은 “분리된 자들”을 의미했다. 예수께서 모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로움 없이 외적으로 율법주의자인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사 29:13). 그들은 후에 탈무드로 편집된 구전 전통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강조하였다. 바리새인들의 기원과 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는 22: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적 법률가로 이루어진 전문적 그룹으로서 기록된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에 대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유대인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만들고 이를 정하는 일에 관계했다. 12:3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기때문에 이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여 왔다. 그들은 놀랍게도 본부에서 파견한 대표자들이었다!

15:2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역만큼 유대교가 엄격하지 않았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미드라쉬*로 불리는 구전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책이었다. *미드라쉬*는 주후 200년에 랍비 유다가 거의 완벽한 형태의 경전으로서 편찬했는데 후에 탈무드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랍비들은 이것이 토라(창세기-신명기)만큼 권위를 갖는다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두로 전해주셨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었다(참조, 신 4:14).

▣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을 씻는 일은 위생상의 목적이 아니라 의식상의 정결을 위함이었다. 구약에서는 식사 때마다 씻도록 요구하지 않았지만 (1) 출 20:19에서 제사장이 씻을 것을 말하는 본문과 (2) 레위기 15장에서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씻을 것을 말하는 본문에 근거하여 그러한 전통이 생겨났다.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 전에 씻는 일이 유대인의 종교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되었다. 초기에 어떤 랍비는 적합하게 씻지않는다고 출교를 당했다! 식사 전에 씻는 일 뿐 아니라 식사 후 및 식사 중 간간히 손을 씻는 일을 종교적인 의식에 따른 의무로 여겼다.

15: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막 7:11 에는 “모세가 일렀으되”로 되어있다. 이것은 구약의 권위 및 구약이 영감으로 된 사실을 예수께서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낸다(참조, 5:17-19).

▣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께서는 십계명의 하나를 인용하셨다(참조, 출 20:12; 신 5:16). “공경하다”는 상업적 용어로서 “마땅한 무게를 주다”라는 의미이다.

▣ 4 절에 있는 구약의 두 번째 인용문은 출 21:17 혹은 레 20:9 의 내용이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언약에 따른 규정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엄한 처벌이 과해졌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였고 또 사회의 기초를 이룬다.

▣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 21:17 과 레 20:1 을 보라.

15:5	
NASB, NRSV	“하나님께 드려졌다”
NKJV	“성전에 봉헌하였다”
TEV	“하나님께 속한다”
NJB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하나님께 한 맹세 혹은 개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고르반* (“선물”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음, 참조, 레 1:2; 22:27; 23:14; 민 7:25) 또는 “하나님께 드림”(참조, 막 7:11)으로 불렀다. 따라서 이러한 맹세는 나이 든 자신의 부모가 그것을 사용하는 일을 법적으로 막았다(비록 다른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15:6	
NASB	“그가 공경할 의무가 없다”
NKJV	“공경해야함에서 해방되어 있다”
TEV	“그들은 공경할 필요가 없다”
NJB	“그가 그의 의무에서 벗어났다”

비록 영어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구는 다음의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1. 강한 이중 부정
2. 질문의 암시
3. 바리새인들/서기관들의 가르침(혹은 그들이 의도했던 내용)의 인용

▣	
NASB	“무효한”
NKJV	“아무 효과 없이”
NRSV	“효력 없는”
NJB	“효과적이지 못한”

이것은 이곳 및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막 7:13, 그리고 갈 3:17 에서만 사용된 매우 강한 헬라어 단어이다. 그들의 동기와 행동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성경의 의도가 바뀌어졌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로 보였지만 타락의 증거가 남아 있었다(즉,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오직 나를 위해서만).

▣ “너희의 전통으로” 이 용어(*파르도시스*)는 여러 의미를 나타내었다.

1. 고전 11:2,23 에서는 복음 진리를 나타냄
2. 마 15:6; 23:1 이하; 막 7:8; 갈 1:14 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을 나타냄
3. 골 2:6-8 에서는 영지주의의 규정을 나타냄
4.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과 전통이 똑 같이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본문으로 이 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 표현은 기록되었거나 말로 전해진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타낸다(참조, 살후 3:6).

15:7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은 연극 용어로서 “~의 아래서 판단하다”를 나타내는데 “마스크 뒤에서 어떤 노릇을 하다”란 의미이다.

15:8-9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것은 70 인역의 사 29:13 본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냄을 강력히 말한다(참조, 롬 4:3-6; 약 2:14-26).

15:8 “덜도다” 이 구는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둠을 뜻한다.

15: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중 앞에서 거부하셨다.

15: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질문과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다(참조, 18,20 절). 한편 막 7:19 은 모든 음식과 관련된 진술을 이에 추가시키고 있다(참조, 행 10 장). 깨끗함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적 깨끗함이 외적 행위를 이끌고 주장한다.

**개역개정 15:12-14**

<sup>12</sup>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립이 된 줄 아시나이까 <sup>13</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sup>14</sup>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12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립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해서는 모습, 그가 구전 전통에 대해 하시는 말씀과 그 암시, 및 레 11 장에 있는 음식 규정을 부정하심을 보고 놀랐다.

▣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이 나타낸다(참조, 5:20; 16:6,11).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참조, 롬 2:17-29).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사 60:21; 61:3 에서 식물에 대한 이 은유를 취하셨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농업적 용어로서 불렸다(참조, 사 5 장; 요 15 장). 이스라엘은 야웨께서 선택하신 포도나무로서 그를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바리새인들의 신학도 실패했다. 불신앙 다음으로 큰 죄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일이다!

15:14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맹인” 이것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의 영적상태를 묘사한다(참조, 23 장 특히 16, 24 절).

**개역개정 15:15-20**

<sup>15</sup>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sup>16</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sup>17</sup>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sup>18</sup>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니라 <sup>19</sup>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sup>20</sup>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15-20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및 그리스도와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을 인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는 책임성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 균형의 필요에 대해 말한다(참조, 롬 14:1-15:13; 고전 8 장; 10:23-33; 딤후 4:4; 딤후 1:15).

15:16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강조를 나타내는 헬라이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제자들도 부활 이전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참조, 눅 24:45; 또한 눅 24:16,31; 행 16:14; 요일 5:20 을 보라).

15:18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논의하여 다룰 내용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하는 대로 행할 내용이다(참조, 마 12:34; 막 7:20). 이 진술을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레위기 11 장의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부정하셨다. 예수께서는 보통 랍비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전 전통을 거부하셨지만 구약은 확증하여 말씀하셨다. 한편 이 경우에서와 이혼에 있어서(참조, 5:31-32; 19:8-9) 그는 구약의 율법을 바꾸셨다. 구약과 랍비들의 전통을 예수께서 재해석한 일에 대해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 부분을 따지려는 것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할 권위와 영감이 있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 오늘날의 해석가들은 영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조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감히 그가 취한 해석학적 방법을 따라서는 안된다!

▣ “마음”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15:19 “음란” “외설물”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이 헬라이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왔다. 이 단어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뜻한다; 결혼 이전의 성행위, 혼인 밖의 성행위, 동성애, 수간, 형사취수제에 따른 책임을 거부하는 일(죽은 형제의 상속자를 낳게 할 목적으로 그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성적 관계를 갖기를 거부하는 일).

구약에서는 혼인한 자의 부정(간음)과 결혼 이전의 난잡한 성행위(음란)를 구분짓고 있다.

▣ “도둑질” “병적 도벽”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이 헬라이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왔다.

▣ “거짓 증언” 이 목록 전체는 십계명을 가리킨다. 비방은 하나님께 대해 거스려 말하는 것을 뜻한다.

## 특별주제: 인간의 말

### I. 잠언에 나타난 서론적 사상

- 가. 언어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즉, 창조는 하신 말씀이 실재(실존)로 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다.
- 나. 인간의 말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드러낸다(잠 18:2; 4:23[20-27]). 언어는 사람을 알아 보는 진정한 척도이다(잠 23:7).
- 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인 사람들에게 의해 이 필요를 충족받는다. 말은 긍정적으로(잠 17:10) 또 부정적으로(잠 12:18)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 라.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잠 18:20-21)—축복하고 고치는 힘(잠 10:11,21)과 저주하고 파괴하는 힘(잠 11:9).
- 마.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은 거둔다(잠 12:14).

### II. 잠언에 나타난 원리들

- 가. 인간의 말이 갖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
  1. 악한 자들의 말(1:11-19; 10:6; 11:9,11; 12:2-6)
  2. 음녀의 말(5:2-5; 6:24-35; 7:5 이하; 9:13-18; 22:14)
  3. 거짓말장이의 말(6:12-15,19; 10:18; 12:17-19,22; 14:5,25; 17:4; 19:5,9,28; 21:28; 24:28; 25:18; 26:23-28)
  4. 어리석은 자의 말(10:10,14; 14:3; 15:14; 18:6-8)
  5. 거짓 증인의 말(6:19; 12:17; 19:5,9,28; 21:28; 24:28; 25:18)
  6. 험담하는 자의 말(6:14,19; 11:13; 16:27-28; 20:19; 25:23; 26:20)
  7. 급히 하는 말(6:1-5; 12:18; 20:25; 29:20)
  8. 아첨하는 말(29:5)
  9. 너무 많은 말(10:14,19,23; 11:13; 13:3,16; 14:23; 15:2; 17:27-28; 18:2; 21:23; 29:20)
  10. 비뚤어진 말(17:20; 19:1)
- 나. 인간의 말이 갖는 고치며 교화하는 긍정적 힘
  1. 의인의 말(10:11,20-21,31-32; 12:14; 13:2; 15:23; 16:13; 18:20)
  2. 분별하는 말(10:13; 11:12)
  3. 지식의 말(15:1,4,7,8; 20:15)
  4. 고치는 말(15:4)
  5. 유순한 대답의 말(15:1,4,18,23; 16:1; 25:15)
  6. 기쁘게 하는 대답(12:25; 15:26,30; 16:24)
  7. 진리의 말(22:17-21)

### III. 구약에서의 형태가 신약에서 계속됨

- 가. 인간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마 12:33-37; 15:1-20; 막 7:2-23).
- 나.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지지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인 사람들에게 의해 이 필요를 충족받는다. 말은 긍정적으로(딤후 3:15-17) 또 부정적으로(약 3:2-12)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 다. 인간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잠 18:20-21)—축복하는 힘(엡 4:29)과 저주하는 힘(약 3:9).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마 12:36-37; 약 3:2-12).
- 라. 우리는 우리가 한 말 (마 12:33-37; 눅 6:39-45)과 우리가 한 행위(마 25:31-46)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거둔다(갈 6:7).

## 개역개정 15:21-28

<sup>21</sup>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sup>22</sup>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sup>23</sup>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sup>24</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sup>25</sup>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sup>26</sup>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sup>27</sup>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sup>28</sup>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15:21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는 페니키아의 해변에 위치했다. 이들이 구약에서는 대부분 바알숭배와 사악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재료를 두로 왕 히람에게서 구해왔고(참조, 왕상 7 장) (2) 엘리야는 이 지역에 사는 과부를 도와주었다(참조, 눅 4:25-26).

**15: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것은 신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된 이름은 나온다(마 10:4; 막 3:18). 막 7:26 에서 그녀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불리는데 오늘날의 레바논 남부에 살았다. 그녀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기사는 8:5-13 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예수의 돌보심을 나타낸다. 29-31 절에 요약되어 있는 병고침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행해진 일이었다(참조, 막 7:31).

▣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것은 분명히 크게 반복해서 낸 외침이었다. 이 **미완료 시제**는 (1) 과거에 일어난 반복적인 행위나 (2) 과거에 시작된 어떤 행동을 뜻한다.

▣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가지신 것은 멀리 또 널리 알려졌다. 유대인이 아닌 이 여자조차도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해주실 것을 느끼고 있었다(참조, 9:27; 17:15). 이 **부정과거 능동 명령**은 명령이 아닌 기도나 간청을 뜻한다.

▣ **“주”** 이것은 (1) “~님” 이라는 일반적 경칭이었거나 (2) “주님”과 “메시아”를 의미하는 신학적 용법 가운데 하나이다. 문맥에서만 그 의미를 규정지을 수 있다. 이 호칭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과 함께 여기서 나타나기에 두 번째 의미가 더 적합하다.

▣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삼하 7 장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호칭이다. 그녀는 유대인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다. 9:27 의 설명을 보라.

▣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들림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금도 일어난다(참조, 마 17:14-18).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나는 귀신들림의 주제를 많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성경의 세계관을 믿으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1) 귀신을 내쫓는 것이 영적 은사의 하나로 열거되지 않는 점 (2) 신약의 어떤 서신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점 (3) 어떻게 이러한 영적 의식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 영감받은 저자가 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한다. 나는 그 실재를 인정하지만 이것을 규명하거나 귀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귀신에 대해 다룬 10:1 의 특별주제를 보라.

**15:23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동사도 미완료 시제**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참조, 9:36; 14:14; 15:32). 24 절에 있는 대답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 돕기를 내키지 않게 여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5:24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께서 다른 이방인들도 도와주셨지만 약속의 땅이라는 지리적 범위 안에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라. 만일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병고침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인해 예수를 배척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란 표현은 유대 민족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참조, 10:6; 9:36).

“목양”의 모습은 민 27:17 에서 시작되고 있다(참조, 슥 10:2). 시 23 편 78:52; 사 40:11; 렘 31:10 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나타낸다. 이 은유적 모습은 미 5:2; 슥 11:4-17; 요 10:1-10 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에스겔 34 장에서는 나쁜 목자들이 선한 목자들과 대조를 이루며 나타난다.

양은 계속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했다. 양들은 힘없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다른 것에 의해 쉽게 피해를 입기 쉬운 짐승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일컫는 것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영적 실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외에는”에 대해 한 마디를 더 말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여러 이방인들을 도와 주셨듯이 이 불쌍한 이방인을 도와 주셨다. 이 점은 전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을 암시한다(참조,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메시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참조, 창 1:26-27). 창세기 3:15 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이방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참조, 창 12:3).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낸다(참조, 출 19:5)!

**15:26 “개들”** 이곳은 신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이 단어가 약칭인 “강아지”(JB, “집 개”)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이 용어의 거친 의미를 줄여 준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불렀다. 이러한 대화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녀의 믿음이 큼을 예수께서 아셨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셨다(참조, 28 절)!

**15:27 “부스러기”** 사람들은 종종 식사 후에 손을 닦아 내기 위해 빵을 사용했다.

15:28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이방인들을 칭찬하셨다(참조, 8:10). 이러한 칭찬은 (1) 이방인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2)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품도록 격려하시기 위함이었다.

▣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 여인이 어떤 주술적인 의식 또는 예수의 육신적 임재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참조, 8:8-9). 예수께서 그녀에게 그 딸이 낳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녀는 그 말씀을 믿었다.

개역개정 15:29-31  
<sup>29</sup>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sup>30</sup>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sup>31</sup>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5:30 “큰 무리가” 이 큰 무리는 호기심을 가진 자, 헌신한 자, 종교 지도자, 병든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 “고쳐 주시니” 이것은 메시아의 표(참조, 11:5)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인다.

개역개정 15:32-38  
<sup>32</sup>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붙잡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sup>33</sup>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sup>34</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sup>35</sup>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sup>36</sup>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sup>37</sup>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sup>38</sup>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15:33 “제자들이 이르되” 5,000 명을 먹이신 사건(참조, 14:13-21)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던 말인가? 이 사건에 나오는 숫자의 차이, 상황의 차이, 광주리 종류의 차이는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을 먹이신 또 한 번의 사건이지 같은 일을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비록 예수의 말씀은 그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로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번에 행하신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 8 장에서 백부장의 가족을 고치신 일, 21-28 절에 기록된 이방인 여인의 아이를 고치신 일 및 29-30 절에 나타난 요약적 진술은 모두 이방인을 위한 일이었다.

개역개정 15:3  
<sup>39</sup>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5:39 “마가단 지경” 이 지명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에는 “달마누다”(막 8:10)로 되어 있는데 그 지명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어떤 헬라어 사본은 마가단을 “성채”를 뜻하는 셈어인 막달라로 바꾸어 말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여행을 왔는가?
2. 전통은 어떤 면에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가?
3.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가능한가?
4.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에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5. 왜 19 절에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평행구절에 있는 목록은 다른가?
6. 왜 예수께서 이 여인을 기꺼이 도우려 하지 않으셨는가? 왜 예수께서 이 일을 내켜하지 않으셨는가? 그가 내켜하지 않으셨는가?
7.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귀신들림이 일어날 수 있는가?

# 마태복음 1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이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표적을 요구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요구함	표적을 요구함	기적을 요구함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함
16:1-4	16:1-4	16:1-4	16:1-4c  16:4d	16:1-4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이스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스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스트
16:5-12	16:5-12	16:5-12	16:5-6  16:7  16:8-11  16:12	16:5-12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선언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선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의 뛰어남
16:13-20	16:13-20	16:13-20	16:13  16:14  16:15  16:16  16:17-19  16:20	16:13-20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다	고난받으심에 대한 첫 번째 예언
16:21-28	16:21-23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  16:24-28	16:21-23  제자도에 대해  16:24-26  16:27-28	16:21  16:22  16:23  16:24-28	16:21-23  예수를 따름의 조건  16:24-26  16:27-28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6:1-4**

<sup>1</sup>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sup>2</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sup>3</sup>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sup>4</sup>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16: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마태는 이 두 그룹의 사람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랍비적 유대교의 지도자 전체를 일컫는다(참조, 3:7; 10:1,6,11,12; 22:34). 바리새인의 기원과 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2:15 에서 참고하고 사두개인들에 대하여는 2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시험하여”** 이 단어(*페이라스모스*)는 “파괴시킬 목적으로 시험하다”라는 의미이다(참조, 6:13; 약 1:13).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은 “하나님”을 돌려서 일컫는 표현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을 보았지만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였다(참조, 12:38-42). 이것은 기적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라고 4:5-6 에서 사탄이 제시했던 시험과 같은 맥락이다.

이 유대 종교인들은 야웨께서 예수께 능력을 덧입히신 증거를 분명히 구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을 “사탄의 일”로 불렀기에 논란의 여지없이 하나님(즉, “하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 표적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가는 분명하지 않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베일에 가리워진 형태로서 장차 일어날 일이었다(즉, 그의 부활).

**16:2b-3** 이 진술은 대부분의 고대 대문자체 헬라이어 사본인 **א, B, X** 및 오리겐이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 제롬에게 알려진 헬라이어 사본들, 페쉬타, 콥틱어에는 나와 있지 않고 대문자체 사본인 C, D, L, W 에 들어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눅 12:54-56 에 나온다. 세계성서공회에서 출간한 헬라이어 신약 제 4 판에 대한 본문비평은 이 두 절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참조, 부르스 멧쯔거의 *헬라이어 신약에 대한 본문비평적 주석*, 41 쪽).

**16:3 “시대의 표적”** “시대”가 **복수형**으로 되어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두 시대를 가리킨다(12:3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들 유대인 종교인들은 일부 기상 현상을 통해 일기를 예측하고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새 시대가 움을 이해할 수도 또 이해하지도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영적인 일을 알아 보지 못함을 인해 책망하셨다(참조, 사 6:9-10). 또 다른 표적/예언이 그들 안에 성취될 것이다!

**16:4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믿음이 없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 은유(참조, 12:39; 약 4:4)의 기원은 구약에서 우상숭배와 다산숭배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거슬러 간다(즉, 램 3:8; 9:2; 23:10; 29:23; 겔 23 장; 호 4:2-3; 말 3:5).

▣ **“요나의 표적”** 그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삼일을 있던 사건을 가리키는 유추로서 예수께서 *하태스*에 그렇게 계실 것을 뜻했다(참조, 벰전 3:19). 예수께서 무덤 안에 단지 36 시간에서 40 시간 정도 계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사용하던 계산법으로는 그것이 3 일로 여겨졌음을 기억하라. 하루의 일부분도 하루로 보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은 환혼 때였다(참조, 창 1 장). 12:39 과 21 절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6:5-12**

<sup>5</sup>제자들이 건넌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sup>6</sup>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sup>7</sup>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sup>8</sup>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sup>9</sup>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sup>10</sup>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sup>11</sup>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sup>12</sup>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16:6, 11 “누룩” 이 단어가 여기서 아람어의 “법적 엄격함”을 가리킬 수 있다(예수님과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음을 기억하라). 두 단어가 아람어로는 비슷하다. 하지만 12 절을 볼 때 이 단어는 “이스트”나 “누룩”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누룩**

“누룩”(꺄뻬)는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부패함의 의미로서 악을 상징
  - ㄱ. 출 12:15; 13:3,7; 23:18; 34:25; 레 2:11; 6:17; 신 16:3
  - ㄴ. 마 16:6,11; 막 8:15; 눅 12:1 갈 5:9; 고전 5:6-8
2. 발효의 의미로서 영향력(악의 상징이 아님)
  - ㄱ. 레 7:13; 23:17; 암 4:5
  - ㄴ. 마 13:33; 눅 13:20-21

오직 문맥에서만 이 단어의 뜻을 규정할 수 있다(이 사실은 모든 단어에 대해서 참이다!).

16: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참조, 3:9; 9:3,21; 16:7-8; 21:25,38).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나 토론을 사용하여 신학적 내용을 말씀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귀로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아신 것인지 불확실하다!

16:8 예수께서는 종종 열두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했다(참조, 6:30; 8:26; 14:31; 16:8).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산 자들이 항상 그의 말씀을 이해했고 또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7-10 절은 괄호 안의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진 거짓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려 했지만(참조, 5:20-48) 제자들은 정신적으로 결길로 빠져 “떡”이 없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16:9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지켜보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 그 주제에 대해 따로 말씀하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도 다른 청중처럼(참조, 마 13:13,14-15[사 6:9-10,19])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즉, 15:17; 16:11; 눅 2:50; 18:34; 요 10:6; 12:16). 예수의 말씀이 매우 독특하였고 또 그들이 자라며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아주 달랐기에(즉,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다(즉, 눅 24:45).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동안에 서서히 일어났지만(즉, 13-28 절) 다음의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1. 부활 이후
2. 다락방 사건(참조, 요 20 장)
3. 요 21 장의 해변가 사건
4. 사도행전 1 장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때

16:12 예수께서 그들을 혹독한 말로 정죄하신 이유는 그들의 율법주의와 사랑의 결핍을 인함이었다! 종교성은 종종 교량이 아니라 장애물이 된다.

**개역개정 16:13-20**

<sup>13</sup>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sup>14</sup>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sup>15</sup>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sup>16</sup>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sup>17</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sup>18</sup>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sup>19</sup>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sup>20</sup>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6:13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3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필립이 다스리던 영토에 속해 있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제자들과만 있기 위해 취한 두 번째 외유였다(참조, 마 15 장).

▣ “인자” 이 구는 구약에 여러 번 나온다. 이것은 인성(시 8:4; 겔 2:1)과 신성(단 7:13)을 나타낸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이 구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국수적 군사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단어였다. 이 표현이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사람이심이 결합된 그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스스로 취하여 사용하신 호칭이었다(참조, 빌 2:6-8; 요일 4:1-3). 8:20의 설명을 보라.

16:14 “세레 요한”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께서 정말로 침례(세레)요한이라고 생각했다(참조, 14:1-2).

▣ “엘리야” 이것은 말 3:1; 4:5의 예언으로서 엘리야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을 말한다. 이 일은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했다.

▣ “예레미야” 랍비들은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느보 산에 숨겼고 새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언약궤를 꺼내어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 “선지자 중의 하나” 이 견해는 예수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같은 이로 나타낸다. 이 견해는 신 18:15-22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참조, 요 2:2). 이러한 종류의 모든 추측은 소생함과 관련이 있다!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다. 그의 성격은 그로 하여금 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진술은 이전에 안드레가 요 1:41에서, 나다나엘이 요 1:49에서, 베드로가 요 6:69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다. 헬라이어 호칭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혹은 “기쁨부음 받은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8:20의 특별주제: 구약에서 특별히 오실 이를 나타내는 호칭들을 보라.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21-23절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메시아직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17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관련을 가진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야웨의 이름을 풀어서 말한 것이다. 그 이름은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다(참조, 출 3:14). 1:21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16:17

NASB

“바요나 시몬”

NKJV

“바-요나 시몬”

NRSV, NJB

“요나의 아들 시몬”

TEV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바요나”라는 아람어는 “요한의 아들”을 뜻한다.

▣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16절)은 인간이 탐구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인한 것이었다. 삼위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는 이 일이 성부께로부터 왔음을 말한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급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이에 응답할 수도 없다(참조, 요 6:44,65; 10:29). 이 사실은 각자가 응답해야함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참조, 요 1:12; 3:16; 롬 10:9-13),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미 시작된 일에 단지 응답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사람은 영적 결단을 시작할 수도 또 이를 할 수도 없다! 19절에 있는 “매다”와 “풀다”라는 동사의 시제도 똑같은 사실을 말한다!

16:18 “베드로” 이 이름은 헬라이어 단어인 “페트로스”로서 남성형 명사이다. 이 단어는 떼어낸 바위를 뜻한다. 그의 삶의 대부분(즉, 22,23절; 막 14장)은 그가 다름아닌 “바위”였음을 보여준다!

▣ “이 반석” 이것은 “페트라”라는 헬라이어 단어로서 여성형 명사이다. 이것은 암반을 뜻한다(참조, 7:24). 이 두 단어(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단어의 성을 인해 문법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한 일을 통해서 볼 때(참조, 18:1,18; 요 20:21), 제자들은 이 말씀이 베드로의 우월성을 뜻한다고 생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의 믿음과 모든 사도의 믿음 사이에 명확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한편 아람어에서는 “케파”(“게바,” 요 1:42; 고전 1:12; 3:22; 9:5; 15:5)라는 한 가지 용어가 “바위”를 뜻하는 두 헬라이어 단어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그의 말씀은 영감을 받은 저자에 의해 헬라이어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추정적인 아람어가 아닌 헬라이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한다.

▣ “교회” “에클레시아”는 70인역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카할, BDB 874, 참조, 신 18:16; 23:2).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정의와 형태를 가지고 매우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대적 본문을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초대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약 백성(즉, 카할)의 연장자로 자신을 이해했다. 그들은 구약 백성의 성취였다. 이 용어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인 것임을 암시한다. 이 단어의 헬라적 배경은 도시에서 갖는 모임을 뜻했다(참조, 행 19:32,39,41). 이 용어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세 번 나온다(참조, 16:8; 18:17[2회]). 마 18:17의 본문은 분명히 후기에 속하는 시대를 뜻한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자주 나타난다.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는 “~로 부터”와 “부르심을 입은”의 두 단어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러 내신 사람들을 뜻한다. 초대교회는 세속적 용법(참조, 행 19:32,39,41)에서 이 용어를 가져와 사용하였는데, 70 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카탈*, BDB 874, 참조, 민 16:3; 20:4).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연속으로서 자신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었고(참조, 롬 2:28-29; 갈 6:16; 뱀전 2:5,9; 계 1:6), 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성취였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마 28:18-20; 눅 24:47; 행 1:8).

이 용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도시에서 가진 세속적 모임, 행 19:32,39,4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백성, 마 16:18 과 에베소서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 교회의 믿는 회중, 마 18:17; 행 5:11(이 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4. 집합적인 이스라엘 백성, 행 7:38, 스테반의 설교에서
5.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행 8:3(유대와 팔레스타인)

▣ “음부의 권세” “문들”은 (1) 죽음의 도시에서 아무도 도망칠 수 없음을 나타내거나 (2) 성문에서 갖는 성읍의 회의 혹은 (3) 교회에 대한 악의 강력한 도전을 뜻할 수 있다. *하테스*는 “보다”를 부정한 의미로서 볼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구약의 “스울”과 같은 의미로서 의인과 악인이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한다. 5:22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 “이기지 못하리라” 이 단어는 “공격하다, 지배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사망과 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거나 붙잡지도 못한다.

16:19 “천국 열쇠” 이것은 출입이라는 말로써 소유함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사 22:22; 계:1:18; 3:7 을 보라. 열쇠는 복음을 전해 이에 응답하도록 초청하는 일을 나타낸다. 하테스와 천국이 도시처럼 문을 갖고 있다는 사상은 이사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은유로서 천국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히 11:10,16; 12:22; 13:4). 또한 요한도 계시록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참조, 계 3:12; 21-22 장).

**특별주제: 이사야서의 두 “도시”**

가. 24-27 장은 한 문학적 단락으로서 사 13-23 장에 나오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 예언의 결론 부분에 위치한다.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영원하며 모든 이를 향한 것이며 구속의 계획을 갖고 있다!

나. 이 단락 전체는 두 도시에 대한 내용이다.

1. 범죄한 가계인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 시도했다(즉, 창 10-11 장).
2. 시온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으로서(즉,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분께 나아와 그를 예배하는 장소였다(참조, 2:2-4; 19:18-25; 히 11:10; 12:22; 13:14; 계 21:1-2).

다. 도시는 민족/국가를 대표한다.

**인간의 도시**

- 1:7,8, 유대의 성읍을 불사름
- 1:21,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 6:11, 유다가 황폐하게 됨
- 14:17,21,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됨
- 14:31, 블레셋의 성읍
- 17:1-3,9, 시리아의 성읍이 파괴됨
- 19:2, 이집트의 성읍이 서로를 멸망시킴
- 22:2,9, 즐거워하던 성 예루살렘이 망한다
- 23, 두로가 망함
- 24:1-25:5, 성읍들이 다 망함
- 25:10-12, 모압과 그 궁전, 성벽이 있는 도시들이 짓밟힘

**하나님의 도시**

- 1:26,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
- 19:18-22,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
- 19:23-25, 이집트와 앗시리아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됨
- 25:6-9, 하나님의 산(즉, 예루살렘)에서의 잔치

26: 5, 난공불락의 성읍, 아마도 모압  
 27:10, 성벽이 있는 도시들이 망함  
 29:1, “아리엘”(예루살렘)  
 33:2,19, 즐거워하는 성읍(예루살렘)  
 48:2, 이름만 거룩한 도시

26:1; 강력한 도시, 예루살렘이 회복됨  
 45:13, 내 도시(참조, 44:23)  
 52:1-6, 거룩한 성읍  
 60:14, 야웨의 성읍  
 62:12, 버리지 아니한 성읍  
 66:6, 환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림

▣ “천국”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차이는 본질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대상에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4:17의 특별주제를 보라.

▣

NASB, NKJV,  
 NRSV, JB  
 TEV

“뭉다... 풀다”  
 “금하다... 허락하다”

이 단어들은 어떤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법적 결정을 내리는 일과 관련된 랍비들의 용어였다. 이 두 **완곡적인** 형태의 동사 시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나는 ~이다”라는 단어의 **미래 직설법이 완료 수동 분사와** 함께 사용된 형태로 되어 있다. 두 단어를 “뭉일 것이다”와 “풀릴 것이다”로 해석해야 한다(참조, 18:18). 이것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땅 위에서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해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라라는 진리를 드러낸다. 이 본문은 인간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간의 결정을 나타낸다(참조, 18:18; 요 20:23).

16: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때에는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정확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다(참조, 8:4; 9:30; 12:16; 17:9).

**개역개정 16:21-23**

<sup>21</sup>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sup>22</sup>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sup>23</sup>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16:21 “할 것을” 이것은 “*테이*”라는 단어로서 어떤 일의 도의적 필요성을 나타낸다(예수께서는 죽으시러 오셨다, 막 8:31; 10:45; 요 3:14,16).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다(참조, 12:15-21; 눅 22:22; 행 2:23; 3:18; 4:28; 10:42; 17:31). 그는 이 사실을 12 살 때에 아셨다(참조, 눅 2:41-49)!

▣ “**많은 고난을 받고**”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참조, 요 1:29)으로 예수를 부름으로써 이 일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이 일은 1 세기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졌던 개념이 아니었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심판과 군사적 승리를 위해 올 것을 강조하여 말했다(참조, 계 19:11-16). 그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초림이 고난받는 종으로써(참조, 사 53 장)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분으로써(참조, 눅 9:5) 오심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창 3:15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27:66의 특별주제: 밥의 개인적 편향을 보라.

예수의 고난에 대한 이 계시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예수께서는 이 일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셔야만 했다(참조, 17:9,12,22-23; 20:18-19).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슬퍼하고 당황하지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 일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선교에 담대히 임하도록 했다(참조,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은 산헤드린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온 70 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다스리는 기관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로마의 정치인들에 의해 부패했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직이 돈을 주고 사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 특별주제: 산헤드린

### I. 자료

- 가. 신약 자체에서
- 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 다. 탈무드의 미쉬나 단락(즉, “산헤드린”에 대한 평론)  
불행하게도 신약과 요세푸스는 랍비들의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후자는 예루살렘에 두 개의 산헤드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하나는 제사장들로 구성되어(즉, 사두개인) 대체사장이 주관하였으며 공공의 일과 사법적 판결을 다루었으며,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것으로서 종교와 전통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랍비들의 저작은 주후 200 년에 속하는 것으로서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일어난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암니아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재건했는데 이것은 후에(즉, 주후 118 년) 갈릴리로 옮겨 갔다.

### II. 용어

이 사법기관을 규명함에 있어서 따르는 문제는 이것이 여러 다른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한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 이 사법기관을 일컫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 가. *케루시아* - “상원” 혹은 “회의.”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사용되던 가장 오래된 용어이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2.3.3 과 마카비 2 서 11:27). 누가는 행 5:21 에서 이 용어를 “산헤드린”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참조, 마카비 1 서 12:35).
- 나. *쉬네테리온* - “산헤드린.” 이것은 *쉬*(함께)과 *헤드라*(자리)의 합성어이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헬라어 단어를 반영한다. 마카비 시대 말엽에 이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 사법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여졌다(참조, 마 26:59; 막 15:1; 눅 22:66; 요 11:47; 행 5:27).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이외에 있던 지역의 사법기관을 가리킬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참조, 마 5:22; 10:17).
- 다. *프레스바이테리온* - “장로들의 회의”(참조, 눅 22:66). 이것은 구약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을 뜻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 법정을 가리키게 되었다(참조, 행 22:5).
- 라. *볼레* - “회의”라는 이 용어를 요세푸스가 여러 종류의 사법기관을 일컫기 위해 사용했다(즉, *유대전쟁사* 2.16.2; 5.4.2. 그러나 신약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1) 로마의 원로원 (2) 로마의 지방 법원 (3)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 (4) 유대인의 지방 법정.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가 산헤드린의 구성원임을 말한다(즉, *볼류테스*, “자문관”을 뜻함, 참조, 막 15:43; 눅 23:50).

### III. 역사적 발전

원래 에스라가 대회당을 포로기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말해진다(참조, 아 6:1 에 대한 탈굴).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산헤드린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가. 미쉬나(즉, 탈무드)는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 두 개의 주요 법정이 있었다고 기록한다(참조, Sanh. 7:1).
  1. 하나는 70 인(혹은 71 인)으로 구성되었다(*Sand.* 1:6 은 모세가 처음 산헤드린을 민 11 장에서 세웠다고까지 주장한다[참조, 민 11:16-25]).
  2. 다른 하나는 23 인으로 구성되었다(그러나 이것은 지역에 있던 회당에서 열린 법정을 의미할 것이다).
  3. 어떤 유대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23 인으로 구성된 세 산헤드린이 있었다고 믿는다. 세 기관이 함께 모일 때 두 지도자를 포함해서 71 명으로 구성된 “대 산헤드린”을 이루었다(즉, *나시와 압 뽀 단*).
    - ㄱ. 하나는 제사장들(즉, 사두개인들)
    - ㄴ. 하나는 법률가들(즉, 바리새인들)
    - ㄷ. 하나는 귀족들(즉, 장로들)
- 나. 포로기 이후에 있어서 돌아온 다윗 계열의 자손은 스룹바벨이었고 아론 계열의 자손은 여호수아였다. 스룹바벨이 죽고 난 후에는 다윗의 씨가 이어지지 않았기에 사법적 권한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참조, 마카비 1 서 12:6)과 지역의 장로들(참조, 느 2:16; 5:7)에게로 이어졌다.
- 다. 제사장들이 사법 결정에 대해 가진 이러한 역할은 헬라시대에 기록된 디오도루스 40:3:4-5 에 나타난다.
- 라. 제사장들이 정부에 대해 가진 이러한 역할은 셀루시드 시기까지 이어졌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2.138-142 에서 안티오쿠스를 “대왕” 3 세(주전 223-187 년)로 일컫는다.
- 마.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3.10.5-6; 13.15.5 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가진 권력은 마카비 시대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바. 로마 시대에 시리아의 총독(즉, 주전 57-55 년에 다스린 가브니우스)이 다섯 개의 지역 “산헤드린”을 세웠는데(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4.5.4; *유대 전쟁사* 1.8.5) 이것을 로마가 후에 무효화 시켰다(즉 주전 47 년에).
- 사. 산헤드린은 헤롯에게 정치적 대립을 했는데(즉, *유대 고대사* 14.9.3-5), 헤롯은 주전 37 년에 이들에게 보복을 가해 대법정의 구성원 대부분을 죽였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4.9.4; 15.1.2).

- 아. 요세푸스(참조, *유대 고대사* 20.200.251)는 로마의 행정 장관들(즉, 주전 6-66) 치하에서 산헤드린이 다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참조, 막 14:55). 신약에는 산헤드린이 대제사장 가족의 지도 아래서 법정 판결을 행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1. 예수의 재판(참조, 막 14:53-15:1; 요 18:12-23,28-32)
  2. 베드로와 요한(참조, 행 4:3-6)
  3. 바울(참조, 행 22:25-30)
- 자. 유대인들이 주후 66년에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 로마는 주후 70년에 유대인 사회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산헤드린은 영구적으로 해산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암니아에서 유대인의 종교 생활(행정적 면이나 정치적 면이 아님)을 위한 최고 법정 기구(즉, *뵘 댕*)가 재건되도록 했다.

IV. 구성원

- 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최고 법정 기구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는 내용은 대하 19:8-11에 있다. 이것은 (1) 레위인들 (2) 제사장들 (3) 가족의 지도자(즉, 장로들, 참조, 마카비 1서 14:20; 마카비 2서 4:44) 들로 구성되었다.
- 나. 마카비 시대에 이것은 (1) 사두개파인 제사장 가족 (2) 지역의 귀족들(참조, 마카비 1서 7:33; 11:23; 14:28)이 주류를 이루었다. 마카비 시대의 후기에는 “서기관들”(모세의 법의 법률가들, 대개는 바리새인들이)이 추가되었는데 알렉산더 안네우스의 아내 살로메(주전 76-67년)에 의해서 된 일이다. 그녀는 바리새인들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라고까지 말해진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1.5.2).
- 다. 예수님 당시에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다
  1. 대제사장의 가족들
  2. 부유한 지역민들
  3. 서기관들(참조, 11:27; 눅 19:47)

V. 참고 자료

- 가. *예수와 복음서 사전*, IVP, 728-732 쪽
- 나. *존더반 성경 그림 백과*, 제 5 권 268-273 쪽
- 다. *새 샤프-헤르츨 종교 지식 백과*, 제 10 권 203-204 쪽
- 라. *해석가의 성경 사전*, 제 4 권 214-218 쪽
- 마. *유대 백과*, 제 14 권 836-839 쪽

▣ “제삼일에” 예수께서는 여러 번 이 시간적 요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12:40; 16:4), 이것은 선지자 요나와 관련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메시아적 표적으로서 사용하신 경우였다. 바울은 고전 15:4에서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임을 나타낸다. 두 가능성은 호 6:2과 온 1:16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요나서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한편 이것은 만 72시간을 뜻하지 않고 대략 36-40시간을 나타낸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부분도 만 하루로 계산했다. 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오후 6시 이전에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것은 하루로 계산되었다. 예수는 안식일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하데스에 줄곧 머무셨다. 그 후 주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어느 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 나셨다(27:63의 특별주제: 부활을 보라). 따라서 이 기간은 유대인에게는 3일에 해당된다.

16: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의미를 가진 여러 문맥에서 “꾸짖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참조, 8:26; 12:10; 16:20).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 가진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대치시켜 버리려는 일이었다.

▣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당신에게 공훈을 베푸소서”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이다. 이 문장은 강조를 위해 **이중으로 부정불변화사**를 사용했다.

16:23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베드로는 방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했는데 지금은 사탄으로부터 은 유혹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겪은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으로서 십자가를 우회할 것을 가리킨다(참조, 마 4:1-11). 이 문맥에서 베드로는 사탄의 대변인이 되었다!

▣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미끼를 둔 울무를 뜻한다.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장애물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16:24-27

<sup>24</sup>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sup>25</sup>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sup>26</sup>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sup>27</sup>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6:24 “제자들에게” 이것은 “배우는 자”를 뜻한다. 예수와 강조점은 처음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되는 깊은 제자도에 있었다(참조, 28:19).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원한다고 여기셨다.

▣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명령이다. 결정적인 행동이 따라야만 한다. 신자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자기 중심적 삶(창세기 3 장에 있는 타락의 결과)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이 개념은 회개와 비슷하다.

16:24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과 같은 강조가 막 8:35; 눅 9:24; 요 12:25 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의 결정적 행동이 요구된다. 정죄를 받은 죄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십자가형을 받는 장소까지 횡단목을 날라야 했다(참조, 요 12:24). 이것은 이 문맥에서 고통스런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자아가 죽음을 뜻한다(참조, 요 12:24; 고후 5:13-14; 갈 2:20; 요일 3:16).

▣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앞의 두 문장은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부정과거 명령)이고 이 문장은 삶의 습관에 대한 내용이다. 교제(랍비의 제자가 됨)는 1 세기의 유대적 상황에서 독특한 요구사항이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듯이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듯이 그들도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쏟아 부음으로 행해야 했다(참조, 딤후 2:2; 요일 3:16). 예수께서는 교제를 철저하게 지속시켜야함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다(참조, 마 10:37-39; 막 8:38-39; 눅 9:23-27; 14:25-27; 17:33; 요 12:25).

16:25 새 시대는 현재의 악하고 자기중심적 세대와 다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 형성된 전통을 인간은 나타낸다(참조, 마 7 장과 13 장). 바르게 사는 것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지 못하고(참조, 엡 2:8-9), 죄의 고백과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즉, 16:16). 바르게 사는 삶은 이 변화(전환)가 일어난 것의 증거가 된다!

“목숨”(ψυχή)이라는 용어는 지구 상에서 있는 생명을 뜻하는 네페스(BDB 659)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이끌어 가는 삶(즉, 인간)을 가리킨다. 새 시대는 혁신적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옛 시대는 자신에게로 모든 것을 갖고 오는 삶으로 특징지어지지만(참조, 창 3 장) 새 시대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범죄로 인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이 손상을 받았다. 구원은 그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교제(즉, 창조의 목적)를 회복시킨다! 자기 중심적 생각이 섬김으로 바뀌고, 죄가 성화로 바뀌고, 나만을 위한 삶이 사역의 마음으로 바뀌고, 나에게 더 많이가 나는 더 조금 그렇지만 주님은 더 많이로 바뀐다!

16:26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박탈당하게 된다.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중심적 삶은 죽음으로 마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는 삶은 영원한 삶으로 결과를 낳는다(참조, 막 8:34-38). 신자들은 육신적 삶과 영적 삶에 있어서 받은 바 은사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6:27 “인자가 . . .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재림을 가리킨다(참조, 마 10:23; 24:3,27,37,39; 26:64; 행 1:11; 고전 15:23; 살전 1:10; 4:16; 살후 1:7,10; 2:1,8; 약 5:7-8; 벧후 1:16; 3:4,12; 요일 2:28; 계 1:7). 하늘의 천사들이 성부 및 성자의 천사들이 됨을 주목하라.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으는 자요 그들을 구분짓는 자로서 나온다(참조, 13:39-41,49; 24:31).

▣ “아버지의 영광으로” 구약에서 “영광”(카보드)을 말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원래 상업적 용어(저울의 양쪽을 가리킴)로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다. 무거운 것이 값있고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 종종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나다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사용했다(참조, 출 15:16;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한 분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빛은 매우 빛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참조, 램 1:14;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라는 용어는 약간 애매모호함을 가진 용어이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완전하심”을 가리킬 수 있다 (3)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뜻할 수 있다. 인간은 그 형상을 따라 지음심을 입었지만(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함을 인해 이것이 손상을 받았다(참조, 창 3:1-22). 이 단어는 야웨께서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출 16:7,10; 레 9:23; 민 14:10).

▣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시 62:12 혹은 잠 24:12의 암시이다. 행한 것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욥 34:11; 시 28:4; 잠 24:12; 전 12:14; 렘 17:10; 32:19; 마 16:27; 25:31-3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벰전 1:17; 계 2:23; 20:12; 22:12에 나타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충성됨이 어떠한가를 드러낸다! 요한일서와 야고보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 믿음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가르친다. 열매가 없으면 뿌리가 없음을 뜻한다!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께서(참조, 요 3:16-21)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계 19 장)!

**개역개정 16:28**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6:28 이것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절이다. 문맥상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께서 죽으신지 40년 이상 지난 후에 기록한 마태는 이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은 다음을 뜻할 것이다

1. 예수의 승천
2. 예수 안에서 이미 임한 왕국
3. 파루시아 혹은 재림
4.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입히신 일
5. 로마 장군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한 일
6.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막 9:1 과 9:2의 근접성을 주목하라)

17 장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6항의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 4:17의 특별주제인 하나님의 왕국과 5:3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을 보라.

▣ “진실로” 5:1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죽기 전에” 이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삼상 15:32).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13-20 절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그렇게도 중요한가?
2. 제자들은 베드로의 우월성을 알아 보았는가?
3. 예수께서 “교회”란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나타내시는가? (18 절)
4. 18 절은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뜻하는가 아니면 소극적인 공격을 뜻하는가?
5. 왕국의 열쇠는 무엇을 말하는가? (19 절)
6.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 말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7.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을 계시하셨을 때에 왜 멈칫거렸는가?
8.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9. 당신은 28 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마태복음 1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께서 변화하심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하심	변화하심	변화하심	변화하심
17:1-8	17:1-13	17:1-8	17:1-4 17:5	17:1-8
17:9-13		엘리아에 대한 예언 17:9-13	17:6-8 17:9 17:10 17:11-12 17:13	엘리아에 대한 질문 17:9-13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소년이 고침을 받다	고침을 받은 간질병 소년	예수께서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시다	귀신들려 간질병 걸린 자
17:14-20	17:14-21	17:14-20	17:14-16 17:17-18 17:19 17:20-21	17:14-18 17:19-20
17:21		17:21		17:21(포함되지 않음)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시다	두 번째 미리 말씀하신 고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다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언
17:22-23	17:22-23	17:22-23	17:22-23b 17:23c	17:22-23
성전세의 지불	베드로와 그의 주께서 그들의 세를 지불하다	성전세를 위한 돈에 대하여	성전세의 지불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불한 성전세
17:24-27	17:24-27	17:24-27	17:24 17:25a 17:25b 17:26a 17:26b-27	17:24-2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27 절에 대한 간략한 개요**

- 가. 변화산 사건, 1-13 절(참조, 마 17:1-11; 막 9:2-13; 눅 9:28-36; 벧후 1:16-18)
- 나.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심, 14-23 절(참조, 막 9:14-29; 눅 9:37-42)
- 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한 성전세, 24-27 절(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옴)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7:1-8**

<sup>1</sup>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sup>2</sup>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sup>3</sup>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sup>4</sup>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sup>5</sup>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sup>6</sup>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sup>7</sup>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sup>8</sup>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17:1 “**엿새 후에**”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9 장의 본문에는 6 일로 되어 있지만 눅 9:28 에는 제 팔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일 주일을 나타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기예 그렇게 커다란 차이를 이루지 않는다.

☐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 사람들은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예수께서 편애하심을 뜻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적절히 행했고 더 잘 배우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참조, 2:13; 4:5; 12:45). 야고보는 일찌기 죽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10:2 의 도표를 보라.

☐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는 모세가 출 19:24; 24:1 에서 산에 올라간 일과 예수께서 변화하신 일의 의도적으로 명확히 대비시킨다. 네 가지 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1. 두 쪽 다 산에 올라갔다
2.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참조, 출 24:16)
3. 모세의 얼굴이 빛났고(참조, 출 34:29) 예수의 몸 전체가 빛났다
4. 모세 주위에 있던 자들이 두려워했듯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이것이 어떤 산이었는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장소는 다블 산인데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떤이는 이 산이 헤르몬 산이었다고 말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더욱 가능성이 있는 산으로는 미론 산으로서 이 산은 약속의 땅의 지경에 위치하는 가장 높은 산이다. 또한 이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위치했다.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것은 헬라의 “후”(μετα)와 “형태”(μορφη)의 합성어이다. 영어 성경의 “변형”이라는 단어는 라틴 벌게이트역에서 유래하였다. 영어에서 변형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헬라의 합성어에서 온 것이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예수의 영원한 신적 성품이 그의 인간적 존재로 뚫고 나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단어는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롬 12:2; 고후 3:18).

우리는 눅 9:28 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사건은 이 산으로 오래 걸어 온 후의 시간인 밤에 일어났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때 피곤하고 졸려왔을 것이다. 이 사건은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일과 평행을 어느 정도 이룬다.

▣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이것도 마태복음이 예수를 새 모세로 제시하려고 말하는 부분이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있었다(참조, 출 34:29-35).

이것을 대등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1. 모세의 얼굴 빛이 희미해졌다
2. 모세는 희미해짐을 감추었다
3.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참조, 5:17-48)

▣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흰색은 하늘, 천상의 존재, 영광스럽게 된 성자들과 관련이 있는 독특한 색이다.

1. 예수의 변화산 사건
2. 예수의 무덤에 있던 천사들, 마 28:3
3. 예수의 승천시 나타난 천사들, 행 1:8
4. 보좌 주위의 천사들(문자적으로는 “장로들”), 4:4
5. 천사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 계 19:14
6.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 계 3:4-5,18; 6:11; 7:9,13

17:3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들이 왜 모세와 엘리야였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들이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나타낸다고 어떤 이는 말한다. 그들 둘 다 종말론적 인물이었다. 모세는 신 18 장에서 또 엘리야는 말 4 장에서 언급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 다 옛 질서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새 질서를 시작하시는 예수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한 독특한 의상이나 그들의 대화를 통하여 혹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언의 말씀 하심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경험도 제자들에게 그러했고(참조, 5 절) 또 예수께도 격려가 되었다.

한 마디를 더 한다면 이 일은 구약의 신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는 사후세계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

17: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베드로는 중간에 끼어 들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이 점은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준다.

▣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머무시다”(조건절의 제 1 유형). 이 일이 참 놀랍고 영적입니다”이다. 어떤 면에서 이 제안은 마 4 장에 있는 시험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예수께 십자가를 회피할 다른 길을 제시한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다음의 이유에서일 것이다-곧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 주시는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예정되어 있는 죽음(참조, 막 10:45)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참조, 16:22-23). 문학적으로 같은 문맥(참조, 마 19:16-17)에서 예수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다시 말씀하신다(참조, 17:9-13,22-23).

17:5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 빛난 구름은 구약에 나오는 영광의 구름인 *셰키나*와 관련이 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였다. 이 구름은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한 번 나타났다(참조, 마 3:17). 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뵈후 1:17-18 에서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랍비들이 가졌던 개념인 *בלקול*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다. 후자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신구약 중간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그들을 덮으며”라는 표현은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내용(눅 1:35)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어근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누가복음에 있는 평행 본문은 시 2:7(내 아들)과 사 42:1(내가 택한 자, 참조, 눅 9:35)의 내용을 합해 놓은 표현이다. 시편 2 편은 다윗 계보의 왕과 관련된 시편이며 이사야 42 장은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의 시작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완전한 신성이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과 결합되어 있음을 본다(참조, 막 9:28; 눅 9 28:36). 이것은 창 3:15 의 예언을 반영한다.

▣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신 18:15,18-19 과 시 42:1 의 내용을 암시한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말은 그가 가지신 본질과 사명에 대한 신학적 이해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신 18:20 의 설명을 보라)!

17:6 “제자들이 듣고 있되 심히 두려워하니” 성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 죽음을 가져온다고 믿었다(참조, 출 33:20-23; 삿 6:22-23; 13:22; 요 1:18; 6:46; 골 1:15; 딤후 6:16; 요일 4:12). 하나님의 목소리는 일찌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몹시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참조, 출 19:16) 이 사도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마태가 법을 주시는 두 번째 분으로 또는 두 번째 모세로 예수를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참조, 신 18:15).

17: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은 잠들었다(참조, 눅 9:32). 이것은 아마도 밤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의 영광이 밤 하늘의 배경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게 비취었을 것이다. 손을 대심은 예수께서 그들을 돌보심을 나타낸다.

▣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둘 다 명령문이다. 이 내용은 바로 그 당시에 대한 내용이다.

1. 우리는 이 산에 머물 수 없다(부정 명령)
2.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이 일을 인해 두려워 말라(현재 명령)

이 경험은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행동을 취할 것을, 또 할 일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낼 것을 촉구한다!

**개역개정 17:9-13**

<sup>9</sup>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sup>10</sup>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sup>11</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sup>12</sup>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sup>13</sup>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17:9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메시아의 비밀을 말한다(참조, 8:4; 9:30; 12:16; 16:20; 막 1:44; 3:12; 5:47; 7:36; 8:30; 9:9; 눅 4:41; 5:14; 8:56; 9:21). “말하다”는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 부정과거 능동 명령의 의미로서 사용된 경우이다. 눅 9:30 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해 병고치는 자로 알려지는 것의 문제성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도 아셨다. 예수께서 9 절에서 언급하시듯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예수께서는 이 일을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말씀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지도 또 그 의미를 이해한 것 같지도 않았다) 이번 대면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가 오게 됨을 말한다.

9 절은 또한 이것이 예수의 고난받으심을 가리킴을 암시한다(참조, 16:21 이하). 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이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시도한 일은 그것이 사탄이 행한 또 하나의 속임수였음을 보여준다.

17:10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은 말 3:1 과 4:5 의 예언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주신 답변에 관해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와서 침례(세례)요한의 사역에 나타났다고 특별히 선언하셨다(참조, 마 11:10,14; 막 9:11-13; 눅 1:17). 한편 요한복음(1:20-25)에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그가 엘리야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명백히 그 사실을 부인했다. 겉으로 모순되게 보이는 이 일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요한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엘리야가 아님을 말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요한이 상징적으로 엘리야가 감당한 준비 사역을 이루었다는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양쪽 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방법으로 사역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침례(세례)요한을 보고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마음 속에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다(눅 1:17).

17:12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16:21; 17:9,12,22-23; 20:18-19).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을 때에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낯선 내용이었기에 그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개역개정 17:14-18**

<sup>14</sup>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sup>15</sup>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sup>16</sup>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sup>17</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sup>18</sup>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17: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κυριος)라는 호칭은 “님” 혹은 “씨”(문자적으로는 *키리에*)를 뜻할 수 있지만 어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이 본문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이 사람의 간청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간청한대로 불쌍히 여기실까(부정과거 능동 명령)? 이것은 메시아가 불쌍히 여기실 것(참조, 사 35:2-6; 61:1-2)으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가의 질문이다. 예수의 능력과 불쌍히 여기심(참조, 9:27; 15:22; 막 10:47,48; 눅 17:13)은 유대 지도자들이 구하던 “표적”이었다!

- ▣ NASB, JB “그가 미쳐서”
- NKJV, NRSV, TEV “그가 간질로”
- NJB “그가 발광하여”

막 9:18-20 에는 이 질병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간질”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정신병” 혹은 “미친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귀신에 의해 일어나는 특별한 종류의 질병이었다(참조, 18 절). 신약에서는 종종 육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귀신들림과 신체의 질병 자체(참조, 4:24)를 구분하여 사용했다. 이것은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었다.

17:16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다. 왜냐하면 10:1,8 에서 그들이 이러한 권능을 위임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경우에 실패한 정확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기도의 문제로 나타났다. 그 아이의 부친과 예수님과 의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은 막 9:21-24 에 기록되어 있다.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것은 신 32:5,20 의 암시이다.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즉, 마태복음 4 장, 누가복음 4 장) 신명기의 말씀을 세 번 인용하셨다. 예수께서는 신명기를 잘 아셨고 또 이 책을 사랑하셨음이 틀림없다.

본문과 관련하여 갖는 질문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이다.

1. 제자들(참조, 19-20 절)
2. 그 사람/무리/그 세대
3. 유대인 지도자들
4. 보편적 의미에서 범죄한 인류

“세대”가 종종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흥미롭다(참조, 출 1:6; 신 1:35; 32:5; 시 12:7).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주목하라.

1. 악하고 음란한, 마 12:39
2. 믿음이 없고 패역한, 마 17:17
3. 음란하고 죄 많은, 막 8:38
4. 믿지않고 신실하지 않은, 막 9:19
5. 사악한, 눅 11:29
6. 패역한, 행 2:40
7.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빌 2:15

17:18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 더 자세한 회화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막 9:26 을 보라. 각 복음서의 저자는 자신이 가진 독특한 목적과 대상으로 하는 청중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각 복음서를 먼저 이해한 후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3-134 쪽).

**개역개정 17:19-21**

<sup>19</sup>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sup>20</sup>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sup>21</sup>(없음)

17:19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는 20 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답하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거듭하여 말씀하신 내용이다(참조, 6:30; 8:26; 14:31; 16:8). 사도들은 위대한 성자들이 아니었다. 위대한 성자는 결코 없다!

17:20

NASB  
NKJV  
NRSV  
TEV  
NJB

“너희 믿음이 작음”  
“너희의 불신앙”  
“너희의 작은 믿음”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너희가 너무 작은 믿음을 가졌다”

Ⓝ 와 A 사본을 포함한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는 “작은 믿음”(올리에 피스티스)으로 되어 있다. 한편 C, D, L, W 사본을 포함한 다른 사본에는 “불신”(아피스티스)으로 되어 있다. 전자의 용어가 더 드물게 사용된 것이기에 원래 본문의 단어일 것이다. UBS<sup>4</sup>는 전자에 “A”등급을 주고 있다.

▣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겨자씨는 유대인들에 알려진 가장 작은 씨였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믿음 자체가 갖는 능력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참조, 히 11:1). 21:21 에서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을 뜻한다. 이것은 **조건문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셨다. 산을 옮긴다는 개념은 커다란 문제를 가리키는 잠언적 표현이다. 이것은 사 40:4; 49:11; 54:10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께서 지난 밤에 변화하셨던 그 산을 일컫는 것이라고 어떤 이는 생각한다.

17:21 21 절은 시내 사본(N)이나 바티칸 사본(B)의 헬라이어 본문에 들어 있지 않다. 이절은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막 9:29에서 초기의 필사자들이 가져와 삽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마가복음에서는 원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을 배제시킨 것에 “A”등급을 준다.

**개역개정 17:22-23**

<sup>22</sup>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sup>23</sup>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17:22

NASB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NKJV “그들이 갈릴리에 머물 때에”  
 NRSV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TEV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에 온 때에”  
 JB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있던 한 날”

헬라이어 사본에는 이 부분에 대해 변이가 있다. 고대 사본인 N, B 와 오리젠이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에는 “모두 함께 왔다”로 되어 있지만 C, D, L, W 사본에는 “거한”으로 되어 있다. 이른 시기의 서기관들이 처음 단어를 오해하여 이것을 보다 친근한 형태의 본문으로 바꾸었다. 제자들이 세 명씩 네 그룹으로 구성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머물면서 순차에 따라 자기의 가족을 잠시 방문하기 위해 다녀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절은 제자들과 예수께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고 있음을 말한다.

17:22-23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선지자적 통찰력을 나타내 보이셨다(참조, 16:21 이하; 17:9,12; 요 10:11,15,17,18).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나려고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기 시작하셨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넘기우시게 됨을 알게 된다(즉, 로마인, 참조, 20:19).

17:23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9:32)과 누가복음(9:45) 모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질문을 하기도 두려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헤드린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해하였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크게 놀랐던 점은 기가 막힌다(참조, 눅 24:36-38).

**개역개정 17:24-27**

<sup>24</sup>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sup>25</sup>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sup>26</sup>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sup>27</sup>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7:24

NASB “두 드라크마의 세”  
 NKJV, NRSV, TEV “성전세”  
 NJB “반 세겔”

이것은 20 세에서 50 세에 속하는 유대인 남자가 해마다 자원하여 내는 반 세겔을 가리킨다. 이 돈은 성전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세금은 3 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계절적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예수께서는 이 세금을 밀리고 있는 것이었다. 랍비들에 의하면 이 세금은 모세가 출 30:11-16 에서 회막을 위해 취한 일에 근거했다. 비록 이것이 자원해서 내는 세금에 속하였지만, 정통적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매우 중요한 의무 사항으로 받아들였다. 물고기 입에서 발견한 동전은 베드로와 예수의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특별주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

- I. 동전
  - 가. 케르마 - 작은 금액(참조, 요 2:15)
  - 나. 칼코스 - 작은 금액(참조, 마 10:9; 막 12:41)
  - 다. 앗사리온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16 의 가치(참조, 마 10:29)
  - 라. 코드란테스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64 의 가치(참조, 마 5:26)
  - 마. 렘톤 - 로마의 동전으로서 한 테나리온의 1/128 의 가치(참조, 마 막 12:42; 눅 21:2)
  - 바. 콰드란스/화팅 - 로마의 동전으로서 작은 금액

II. 은화

- 가. 알구로스(“은화”)–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주화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짐(참조, 마 10:9; 26:15)
- 나. 테나리온 – 로마의 은화로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참조, 마 18:28; 막 6:37)
- 다. 드라크마 – 헬라의 은화로서 한 테나리온의 가치(참조, 눅 15:9)
- 라. 더 드라크마 – 두 드라크마는 유대인의 돈인 1/2 세겔에 해당되었다(참조, 마 17:24)
- 마. 스타테르 – 4 테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은화(참조, 마 17:27)

III. 금화 – 크루소스(“금화”)– 가장 값진 주화(참조, 마 10:9)

IV. 금속의 무게에 대한 일반적 용어

- 가. 드나 – 라틴어의 미나, 100 테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속의 무게(참조, 눅 19:13)
- 나. 달란트 – 헬라의 무게 단위(참조, 마 18:24; 25:15,16,20,24,25,28)
  - 1. 은으로는 6,000 테나리온의 가치
  - 2. 금으로는 180,000 테나리온의 가치
- 다. 세겔 – 구약에서 유대인이 은의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함(참조, 창 23:15; 37:28; 출 21:32)
  - 1. 썸 – 2/3 세겔
  - 2. 베카 – 1/2 세겔
  - 3. 케라 – 1/20 세겔큰 단위
  - 1. 마네 – 50 세겔
  - 2. 키크알 – 3,000 세겔

17:25-27 이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인해 세금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계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세금을 지불하신 것임을 보여준다(참조, 3:15). 예수께서는 당시의 유대 문화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다.

17:25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통해 알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예지적 능력을 사용하신 것인가? 이 질문은 복음서에서 거듭 거듭 제기된다!

▣ “관세와 국세” 이 문단에는 세 종류의 세금이 언급되고 있다.

- 1. 유대인의 세금(두 드라크마, 24 절)
- 2. 지방세(관세, 25 절)
- 3. 인두세(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 참조, 22:17)

17:26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진술이다. 예수께서는 참 왕으로서 다윗 계보에 따른 이상적 왕이시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왕의 자녀들로서 세를 내지 않는 자들이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즉, 성전세를 내는 모든 유대인)을 자녀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7:27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메시아적 능력을 사용했다고 비평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의 기적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 이 사건에서 예수는 자연에 대한 그의 능력 및 자신의 예지를 보여주셨다. 이 일은 장차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례자적 삶을 사는데 있어서 만나게 될 어려운 시기에 그를 돕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모든 공관복음서(세 복음서)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2. 왜 한 복음서의 내용이 때로는 세세한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타나는가?
3. 왜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중심 그룹을 따로 두셨는가?
4. 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변화하신 산에 나타났는가?
5. 시편 2편과 이사야 42 장을 함께 다룬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6. 17 장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16 장의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7. 왜 “인자”라는 구가 예수께 적합한가?
8. 침례(세례)요한은 환생한 것인가?
9. 믿음은 귀신을 내어쫓음 및 병고침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10. 귀신은 무엇인가? 이들은 아직 우리의 세계에 있는가?
11. 20 절에서 “산”은 눈에 보이는 물체를 임의로 처리함을 뜻하는가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가?
12. 예수께서 자신이 배신을 당할 일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도, 왜 제자들에게 이 일들은 놀랍기만 한 일이었는가?

# 마태복음 1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에루살렘성경 (NJB)
왕국에서 가장 큰 자	누가 가장 큰가?	겸손과 용서에 대한 말씀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가?
18:1-5	18:1-5	18:1-5	18:2-5	18:1-4
죄의 유혹	예수께서 실족케 함을 경고하시다	지옥에 대한 경고	죄의 유혹	다른 이를 실족하게 함
18:6-9	18:6-9	18:6-7 18:8-9	18:6-7 18:8-9	18:5-7 18:8-9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	잃은 양의 비유	18:10-14 18:11(포함되지 않음)
18:10-14	18:10-14	18:10-14	18:10-11 18:12-14	잃은 양 18:12-14
죄를 범한 형제	죄 범한 형제의 처리	따르는 자 사이의 규율	죄를 범한 형제	형제들의 교정
18:15-17	18:15-20	18:15-20	18:15-17 금지과 허락	18:15-17
18:18-20				함께 하는 기도 18:19-20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용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상처받음을 용서함
18:21-35	18:21-35	18:21-22	18:22-27	18:21-22
		18:23-25	18:23-25 18:28-34	용서하지 않는 빚진 자의 비유 18:23-25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가. 이 문맥은 어린 아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어린 아이라는 표현은 새로 믿은 어른에게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이 문맥은 잃어버려진 자들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고, 신자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다. 15-19 절에 나타난 바 교회에서의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참조, 롬 14:1-15:13; 고전 8 장; 10:23-33).
- 라. 21-35 절에 있는 비유는 신자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나 새 신자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에 기초하여 행할 것을 말씀한다.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8:1-6**

<sup>1</sup>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sup>2</sup>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sup>3</sup>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sup>4</sup>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sup>5</sup>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sup>6</sup>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8:1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것은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나타낸다!

▣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은 계속되는 모든 내용의 배경을 이룬다. 막 9:33-34; 눅 9:46-48 을 보라. 이 질문은 제자들이 여전히 왕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장 크다고 제자들이 여기지 않았던 점도 말한다!

18:2 “한 어린 아이를” 막 9:33 은 이 아이가 베드로의 자녀였음을 암시한다.

▣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가 돌이켜” “돌이키다”는 회심의 경험을 뜻하는 말로서 사람의 안에서 일어난 회개가 외적으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나타남을 가리킨다(NRSV, NJB). 요 12:40 에서는 이 단어가 “회개”(히브리어의 *שׁוּב*, BDB 996)에 대해 말하는 사 6:10 본문의 번역으로서 나타난다. 4 절에서 “겸손함”이 “돌이키다”와 평행이 됨을 주목하라.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순전히 신뢰하고 의존한다. 그들은 배우려 하고 또 권위에 대해 순종적이다(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함).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다. 부정과거 시제는 결단을 내리는 행위를 암시하고 가정법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및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수동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다(참조, 요 6:44,65).

▣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으로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라는 의미이다. 왕국에 들어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또한 주목하라!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를 신뢰하는 일은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응답하는 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

18:3,4,6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 . . 어린 아이와 . . .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이 진술은 어린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 믿어 천진난만하고 미성숙한 어른을 가리킨다.

18:3, 4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문맥에서 이것은 (1) 사람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오는가 (2)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말한다.

18:5 이것은 10:40 에 나타난 강조점과 비슷하다. 마 10:40; 25:35-45; 눅 10:16; 행 9:4; 고전 8:12 도 참고하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셨다!

18:6 “나으리라” 죽음은 매우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 번에 끝나는 일이다. 하지만 심판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참조, 25:31-46).

벤허 2:20-22 에도 “나으리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 “연자 땃들이” 이것은 곡식을 분쇄하기 위해서 동물이 끌어 당겨 돌리는 큰 돌로서 위쪽에 놓인 부분을 가리킨다.

▣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유대인들은 여러 사막 민족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두려워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매우 무서운 형태의 육체적 죽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죽음이 새 신자들로 범죄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말한다(참조, 8-10 절; 롬 14 장). 5:12 의 특별주제: 상과 벌의 등급을 보라.

**개역개정 18:7**

<sup>7</sup>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8:7 “세상에 화가 있도다 . . .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한 장례식 만가라는 문학적 형식을 이용한 경우이다(참조, 11:21; 18:7; 23:13,15,16,23,25,27,29; 24:19; 26:24; 눅 17:1-2). 새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는 영원토록 결과가 따른다!

▣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이와 똑같은 명사(스칸달론, 참조, 눅 17:1)가 16:23 에서 베드로의 진술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잡기 위해 미끼를 놓은 덫을 당김을 뜻한다(참조, 70 인역의 암 3:5). 새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과 교묘한 수에 쉽게 걸려들 수 있다(유대인 선생들과 후에 있는 거짓 크리스천 선생들, 참조, 7:15-27; 딤후전 4:1-5; 딤후 2:14-26; 3:1-9; 벤허 2 장).

이 단어의 동사형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다(참조, 5:29,30; 11:6; 13:21,57; 15:12; 17:27; 18:6,8,9; 24:10; 26:31,33). 문제와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개역개정 18:8-9**

<sup>8</sup>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sup>9</sup>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18:8-9 “만일 . .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 이루어진 두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자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 충격적인 가정적 진술은 개인이 범하는 죄의 심각성 및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인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준다(참조, 6,7 절).

18:8,9 “찍어 내버리라 . . . 빼어 내버리라”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취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 및 죄의 결과가 갖는 심가성을 나타낸다(참조, 마 5:29-30).

▣ “영원한 불”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영원한**

로버트 B. 거들스톤은 그의 책 *구약의 동의어*에서 “영원한”이란 단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아이오 니오스라는 형용사는 신약에서 40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영생과 관련을 갖고 사용되는데, 영생은 부분적으로는 현재 누리는 선물이고 부분적으로는 미래적인 약속이다. 이것은 또한 롬 16:26 에서 하나님의 한계없는 존재하심을 말하고, 히 9:12; 13:20 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한계없는 효력을 가짐을 뜻하며, 롬 16:25; 딤후 1:9; 딤후 1:2 에서는 이전의 세대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마 18:8; 25:41; 유 7 절에서 영원한 불을, 마 25:46 에서는 영원한 벌을, 마 3:29; 히 6:2 에서는 영원한 심판 혹은 징죄를, 살후 1:9 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킨다. 이 성경구절에서 이 단어는 최종성을 뜻하는데, 이러한 심판이 실행될 때는 유예기간으로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의 기회를 회복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또 영원히 지나가버리게 됨을 분명히 나타낸다. 영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하여, 인간의 수명이 존재하는 나머지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불신의 도덕적 무게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조금만 알 뿐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빼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원한 형벌의 교리를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충실히 붙어 있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18-319 쪽).

18:9 “지옥 불에” 케헨나는 두 히브리 단어에서 온 말이다: *케*는 “골짜기”를 뜻하고 *헨*는 “힌놈의 아들들”을 뜻한다(참조, 왕하 13:10; 대하 28:3; 33:6; 렘 7:31). 이곳은 예루살렘 외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아이들을 제물로 드려서 페니키아인의 불의 신을 섬기던 곳이다(이러한 행위는 *몰렉*으로 불렸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다. 5:22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 예수님 자신이 이 장소를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지옥을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만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약 3:6 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절이다. 한편 우리는 예수께서 과장적인 진술(과장법)을 사용하여 가르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맥은 그를 따르는 자들인 신자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사랑을 함으로써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원하신다(참조, 마 5:22).

**개역개정 18:10-11**

<sup>10</sup>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sup>11</sup> (없음)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전체 단락(즉, 9,10-11 절)이 똑같은 진리를 나타낸다.

▣ “그들의 천사들이”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각각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시 91:11; 행 12:15; 히 1:14). 이것은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이 위에 기초하여 어떤 교리를 세우기에는 매우 작은 성경적 증거이다. 시 24:7 도 같은 진리를 공동체의 개념에서 말한다.

18:11 이 절은 고대 헬라어 사본인 **κ**, **B**, **L** 및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에는 없다. 이 내용은 시리아역과 콥틱역에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본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은 눅 19:10 에서 초기에 속하는 필사자가 취하여 덧붙인 내용이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개역개정 18:12-14**

<sup>12</sup>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sup>13</sup>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sup>14</sup>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8:12-14 “양 백 마리” 이 비유는 문맥에서 신앙을 버렸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자를 가리킨다. 신자들은 서로 돕고 서로를 회복시켜야 한다(참조, 갈 6:1-3). 눅 15:4-7 에서는 똑같은 비유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이 점은 예수께서 같은 비유를 서로 다른 청중에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음을 나타낸다.

18:1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18:14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7: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이 구와 관련이 있는 여러 특별주제가 있다.

1. 멸망(아폴뤼미), 2:13 에서
2. 배교(아피스타미), 7:21 에서
3. 인내, 10:22 에서

**개역개정 18:15-18**

<sup>15</sup>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sup>16</sup>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sup>17</sup>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sup>18</sup>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15-17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이 두 명령에 이어 나타난다.

1. 가라, 현재 능동 명령
2. 책망하라, 부정과거 능동 명령(마태복음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옴, 한편 요 3:20; 8:46; 16:8 과 바울이 쓴 엡 5:11; 딤편 5:20 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회중 안에 나타난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이다. 이것은 이후의 교회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 단계를 주목하라.

1. 범죄한 사람에게 가라(15 절)
2. 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다시 가라
3. 그 일을 교회 전체에 말하라
4. 교제를 끊으라

이러한 지침은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이다 (참조, 눅 17:3; 갈 6:1-2). 교회에서 행하는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구속함이 항상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지체의 명성과 지체 간의 화목도 범죄한 성도의 건강(영적 및 신체적)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18: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문단은 교회의 징계를 1-14 절에 비추어서 다룬다. 이것은 일련의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 되어 있다(15 절-2 회, 16 절, 17 절-2 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죄를 범하거든” 이곳에 헬라어 사본의 변이가 나타난다. 가장 오래되고 전 책이 다 들어 있는 헬라어 신약의 대문자체 사본인  $\aleph$ , B 에는 “죄를 범하거든”의 다음에 “너희에게 대해”라는 구가 없다. 후자의 구는 대문자체 사본인 D, L, W 및 벌게이트역, 아르메니안 역에 나와 있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을 괄호 안에 넣고 있으며, 이 부분을 포함한 것에 “C”등급을 준다.

▣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구는 약 5:15,19-20 과 평행을 이룬다.

18:16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신 19:15 의 인용이다. 구약은 법정에서의 소송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다(참조, 민 35:30; 신 17:6).

18:17 “교회” *에클레시아*의 기원에 대하여는 16:18 의 설명을 보라. 신자들의 그룹이 자기들의 구성원을 징계하는 것은 후기에 대한 암시로 여겨진다. 예수께서 하신 여러 진술은 그의 사역 초기에 들어 맞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교회가 장차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었다. 나중까지 산 마태는 오순절 이후에서야 예수께서 일찌기 이전에 하신 말씀(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온전히 기억할 수 있었다.

“교회”라는 용어는 복음서에서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번 나온다. 이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 점은 누가가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세리의 일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었다(참조, 5:46; 9:10-11; 11:19).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 사용한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18:18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16:19 에와 같이) 열 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 “매면... 풀면” 이 단어들은 “금하다”와 “허락하다”를 나타내는 단어일 것이다. 이 두 단어는 율법을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판결을 가리키는 랍비적 용어였다. 16:19 의 설명을 보라. 요 20:23 에서 이 용어들은 또한 죄의 용서를 가리키는데, 그 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우회적인 완료 수동 분사들은 이미 언급된 내용을 돌려서 말하는 방법이었다. 이 본문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인간이 주도권을 가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게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참조, 마 16:19-20; 요 20:23). 교회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대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항상 구속적으로 되어야 한다(참조, 갈 6:1-10).

**개역개정 18:19-20**

<sup>19</sup>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sup>20</sup>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19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문맥상 이 약속은 교회가 행하는 징계 및 우리가 다른 신자들을 대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18:19 18 절에서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의해 드러남을 뜻하는 18 절의 문맥에서 이 절을 이해해야만 한다. 신자들은 어떤 영적 환경에서만 응답을 약속받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일일 것이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역설적인 면을 제시한다. 어떤 본문은 응답에 대한 약속과 그 영역에 있어서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참조, 마 18:19; 요 14:13-14; 15:7,16; 16:23). 또 어떤 본문은 기도가 다음의 요소에 의해 제한을 받음을 말한다

1. 우리의 끈기(참조, 마 7:7-8; 눅 11:5-13; 18:1-8)
2. 우리의 태도(참조, 마 21:22; 막 11:23-24; 눅 18:9-14; 약 1:6-7; 4:1-10)
3. 하나님의 뜻(참조, 요일 3:22; 5:14-15)

신학적으로 볼 때 신자들은 다음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신다
2. 가장 큰 선물은 응답이 아니라 성부와의 교제이다
3.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4.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한편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신비”가 남아있다. 이 신비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자신을 제한시키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진리로 가장 잘 요약된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특별주제: 제한이 없으면서도 제한이 있는 기도**

가. 공판복음

1. 신자들이 기도에 인내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마태복음) 혹은 “그의 성령”(누가복음)을 주실 것이다(마 7:7-11; 눅 11:5-13).
2. 교회의 징계에 대한 문맥에서 신자들(두 명)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요청받는다(마 18:19)
3. 유대교에 대한 판단의 문맥에서 신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것을 요청받는다(마 21:22; 막 11:23-24)
4. 두 비유의 문맥에서(1-8 절, 불의한 재판관 및 9-14 절, 바리새인과 죄인) 신자들에게 경건치 않은 재판관과 자기 의로 가득찬 바리새인과 다르게 행할 것이 요청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를 들으신다(눅 18:1-14)

나. 요한의 글

1. 예수께서 고치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문맥에서 바리새인들의 참 소경됨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기도는(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응답되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요 9:31).
2.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에서
  - ㄱ. 14:12-14—믿음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1) 신자의 기도
    -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
    - 3) 성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함
    - 4) 계명을 지킴(15 절)
  - ㄴ. 15:7-10—신자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1) 예수 안에 거함
    - 2)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함
    - 3) 성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함
    - 4) 많은 열매를 맺음
    - 5) 계명을 지킴(10 절)



개역개정 18:21-22

<sup>21</sup>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sup>2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18:22

NASB, NKJV, TEV “일곱 번을 일흔 번”  
NRSV, NJB “일흔 일곱 번”

베드로는 일곱 번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관대함을 보이려고 했다(참조, 눅 17:4)!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세 번을 최대한의 수로 제시한다(참조, 암 1:3,6; 2:6). 예수께서는 새로운 은유적 표현인 7 x70 (또는 77)을 사용하여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자에게 491 번째에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듯이 (참조, 35 절) 언약 관계에 있는 형제는 언약적 관계에 있는 다른 형제를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함(참조, 눅 17:4)을 뜻한다.

개역개정 18:23-35

<sup>23</sup>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sup>24</sup>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sup>25</sup>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sup>26</sup> 그 종이 없으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sup>27</sup>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sup>28</sup>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sup>29</sup> 그 동료가 없으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sup>30</sup>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sup>31</sup>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sup>32</sup>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sup>33</sup>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sup>34</sup>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sup>35</sup>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8:23 “어떤 임금”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다. 아람어(예수께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다)에서 이 단어는 “한 왕의 신하”를 뜻할 수 있다.

18:24 “만 달란트” 이것은 엄청난 액수이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매년 600 달란트였다. 이 비유는 동양적인 표현으로서 의도적인 과장(과장법)에 속한다. 예수께서는 종종 이러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자신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나타내셨다. 17:24의 특별주제를 보라.

18:25 빚을 인해 사람들이(그들의 가족과 더불어) 팔리기도 했다(참조, 레 25:39; 왕하 4:1; 느 5:5; 사 50:1). 왕의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었다!

18:26,29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것은 26 절과 29 절에 나온 바로 그 말이다. 이것은 이 비유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30 절에서 그는 이 말로써 간청하는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18:34 “옥졸들” 아람어에서 이 단어는 “간수”를 가리킨다.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용서를 받음은 용서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5:7; 6:14-15; 7:1-2; 10:8; 눅 6:36; 골 3:13; 약 2:13; 5:9).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한편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신다. 비유는 모든 신학적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도 없고 또 대답하지도 않는다!

▣ “마음” 5:8의 특별주제를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본문은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가?
2. 본문에서 우리의 개인적 죄가 갖는 근본적 모습을 말하기 위한 예로써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3. 12-14 절에 있는 비유는 눅 15:4-7의 내용과 똑같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4. 23-25 절에 있는 비유는 용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마태복음 1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이혼에 대한 가르침	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다	이혼에 관한 질문
19:1-2	19:1-10	19:1-2	19:1-2	19:1-2
19:3-12		19:3-9	19:3 19:4-6 19:7 19:8-9	19:3-6 19:7-9
		19:10-12	19:10	금욕 19:10-12
	예수께서 금욕에 대해 가르치시다		19:11-12	
축복받은 어린 아이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심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예수와 어린 아이들
19:13-15	19:13-15	19:13-15	19:13-14 19:15	19:13-15
젊은 부자	예수께서 젊은 부자에게 충고하시다	젊은 부자	젊은 부자	젊은 부자
19:16-22	19:16-22	19:16-22	19:16 19:17 19:17a 19:18b-10 19:20 19:21 19:22	19:16-22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			부유함의 위험
19:23-30	19:23-30	19:23-26 19:27-30	19:23-24 19:25 19:26 19:27 19:28-30	19:23-26 포기함에 따른 상 19:27-29 19:3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이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함으로써 논란을 야기시켜 예수께서 자신의 추종자들로 받는 인기를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참조, 막 10:2-12).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상황적 국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르치신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다.
- 나. 마 5:31-32; 막 10:1-12; 눅 16:18; 고전 7:12-14 는 이혼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본문이다. 이 본문은 모세의 글로부터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룬다.
- 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논란이 되는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다음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당신 자신이 속한 문화와 시대에 의해 너무 강하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
  2. 당신 자신의 실존적 상황이나 경험에 의해 너무 강하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
  3. 당신이 가진 전제(교리주의)에 의해 너무 강하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
  4. 모든 상황에 들어 맞는 융통성 없고 교리적 규정을 세우지 않도록 하라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19:1-2

<sup>1</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sup>2</sup>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19: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구는 분명히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을 구성함에 있어서 본문에 사용한 표시였다(참조, 7:28; 11:1; 13:53; 26:1).

▣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시기는 베레아 사역기라고 종종 불린다. 이 내용은 19-20 장에 나온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 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 갔다.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여리고에서 요단을 다시 건너왔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교도인 자라고 믿었다. 이 일은 사르곤 2 세에 의해 북쪽의 10 지파가 주전 722 년에 앗시리아로 사로잡혀 갔고 그 땅에는 이교도들이 와서 재정착함에서 온 결과였다.

19:2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호기심을 인해 따르는 자들이었을 수도 있다.

▣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은 자신의 메시지를 입증하고, 미래에 있을 천국의 축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음을 보실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고 계신다!

**특별주제: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 병고침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2. 이 일이 의도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해 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3. 이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말 3:6), 병을 고쳐주심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신다.
5.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 있다.  
ㄱ. 바울, 고후 12:7-10  
ㄴ. 드로비모, 딤후 4:20
6. 죄와 질병은 랍비들의 견해와 야고보서에서 서로 결부되어 있다(참조, 요 9:2; 약 5:13-18).
7. 병고침은 새 언약의 보증이 아니다. 이것은 사 53 장과 시 103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죄와 관련이 없다.
8. 왜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에 있어서 커다란 신비함이 있다.
9. 병고침을 받는 일이 모든 세대에 있었지만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많이 있을 것이다.

**개역개정 19:3-9**

<sup>3</sup>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sup>5</sup>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sup>6</sup>그러나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sup>7</sup>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sup>8</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sup>9</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9:3 바리새인의 기원과 그들의 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22: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용어(πειραζο)는 “떨망시킬 의도로 시험하다”를 뜻하는 말로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4:1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어떠한 배경의 생각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신학적 토론이 아니다!

- ▣
- |      |                    |
|------|--------------------|
| NASB | “어떤 이유라도 있지만 하면”   |
| NKJV | “어떤 이유에서라도”        |
| NRSV | “어떤 원인에서라도”        |
| TEV  | “그가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도” |
| NJB  | “어떤 구실에서라도”        |

막 10:2에서는 질문의 내용이 이혼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혼의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되어 있다. 보수적인 삼마이 학파의 랍비들은 신 24:1에서 “어떤 성추행적인 행동”이라는 구를 이혼의 이유로 보았고,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의 랍비들은 “그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보았다. 따라서 전자의 학파는 간음 및 여러 금지된 성행위를 이혼의 사유로 말했고 후자의 경우는 어떤 이유라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후에 힐렐 학파에 속하는 랍비 야키바는 만일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사람을 찾는다면 자기 부인과 이혼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를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1.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일부를 통해(유대교 안의 여러 분파들)
2.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침례[세례]요한은 헤롯이 이혼하고 재혼한 일을 정죄했다)

19:4 “지으신” 이 분사(κτιρασ)는 대문자체 사본인 B에 있지만 동사인 “지으시고”(ποιεσας)는  $\aleph$ , C, D, L, W, Z 사본에 나타난다. 이것은 70 인역의 창 1:27을 따른다. 한편 UBS<sup>4</sup>는 앞의 것이 원래의 것이라고 본다(즉, “B”등급으로서 “거의 확실함”).

19:5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책을 읽었을 것을 기대하셨다(참조, 12:3; 19:4; 21:16; 22:31). 성경 지식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성경을 “읽을 것”을 기대하신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 무효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교단적 전통을 따르려고 어떤 본문을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하고 또 그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다른 모든 본문을 무시함에서 행해지고 있다!

▣ “본래” 이 인용은 창 1:27 과 5:2 의 인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을 나타낸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며 일부일처제(참조, 창 2:23-24)와 영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참조, 6 절).

19:5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것은 창 2:24 의 인용이다. 부모가 함께 언급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또한 결혼으로 인해 핵가족이 근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았다. 이 내용은 각 세대가 각각 우선권과 독립성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단수형이 복수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창 2:24; 신 6:4; 겔 27:17 에서 볼 수 있다. 사랑은 각자를 하나로 융합시킨다!

19:6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완료된 행위를 나타낸다. “누가”가 아니라 “~한 것”을 언급함으로써 결혼의 성립을 강조한다. “한 몸이니”는 “멍에를 함께 지다”를 뜻한다.

19:7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것은 신 24:1-4 에 나온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 모세는 아내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곤경에 동정심을 가졌다. 이혼증서는 (1) 여러 날 걸리는 일이었다고 (2)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게 했으며 (3) 결혼지참금을 돌려주도록 요구했을 것이고 (4) 재혼을 뜻했다.

예수께서 모세의 말을 거부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거부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는 면에서 내게 크게 부담이 된다. 예수께서 여기서 이것을 밝히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러한 점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모든 생애 동안 나는 성경이 나의 삶과 행동을 인도하도록 살았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이것의 일부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은 나의 걸음을 멈추고 나로 하여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단단히 붙어 있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또 그가 영감을 주신 사도들이 해석한 내용을 따라서 구약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주이시다(참조, 마 5:17-48)!

- 19:9 NASB “나쁜 행실 외에”
- NKJV “성적으로 나쁜 행실 외에”
- NRSV “정숙지 못한 이유 외에”
- TEV “그녀의 신실하지 못함이 아니라면”
- JB “나는 간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 NJB “나는 불법적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포르노/이아로서 영어의 pornography(외설물)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사통(결혼 전의 성행위), 간음(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성행위), 혹은 짐승과의 성행위나 동성애(금지된 성행위)같은 부적절한 성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유대인 남자에게만 혼인 중에 이혼할 권리를 가졌다. 이방인 독자를 위해 쓰여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참조, 막 10:12).

▣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현재 수동(디포) 직설법이다(참조, 막 10:11-12). 본문의 번이가 이 절에 나타나는데 마 5:32 의 내용을 필사가들이 가리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5:32 에 있는 동사의 시체가 이 본문의 이해를 돕는다. 5:32 의 번역은 “그녀로 간음자가 되게 한다”로 되어야 한다. 이 수동태는 마 19:9 의 헬라어 사본 B, C\* 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 문화에서 이혼한 여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곧 그녀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간음한 여자라 불리게 됨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F. F. 브루스는 그의 책 질문에 대한 답(55 쪽)에서 오늘날과 관련이 있는 이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제자 가운데 일부가 시도했듯이 그가 다스리심에 기반하여 새로운 법률체계를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안식일에 대해 하신 말씀이 그가 결혼에 관한 법에 대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일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혼”에 관한 어틀리 박사의 육성테이프를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어렵고 논란이 되는 본문들”이란 부분에서 들으라.

**개역개정 19:10-12**

<sup>10</sup>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sup>11</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sup>12</sup>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19:10 “제자들이 이르되...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의 진술은 그들에게 충격적이 내용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그들의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생각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이다). 이것은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이혼이 빈번이 행해지는 시대에서 건강하고 경건한 결혼 생활은 잃어버려진 사람들에게 매우 힘있는 증거가 된다.

19:10-11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며(참조, 창 1:28; 9:17) 독신생활은 경건한 선택사항이다(참조, 고전 7:7,17). 신자의 기도하며 구하는 삶은 그/그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 만일 사람이 독신으로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참조, 고전 7:32).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독신을 경건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여러 면에서 당시의 문화에 대해 도전하고 계신다.

1. 모든 것을 누리는 남편의 권위
2. 부부가 부부로 있어야 하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
3. 독신이 경건한 생활에 속함

19:12 예수께서는 여러 종류의 독신 생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1. 그렇게 태어난 경우
  - ㄱ. 선천적 결함
  - ㄴ. 개인의 성향
2. 강압에 의한 거세(환관들, 즉, 스 2:3;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행 8:27)
3. 개인이 사역의 목적을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비록 일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육체적 거세를 자신에게 행했지만-예, 오리겐-나는 이 항목이 거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2 절이 어떠한 구조를 갖는지 주목하라

1. 11 절, 모든 남자가 독신으로 살 수는 없다
2. 12c 절,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 13-15 절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13-15 절은 막 10:13-31 및 눅 18:15-30 과 평행을 이룬다.
- 나. 신약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과 갖는 영적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다. 마 18 장은 어린 아이들의 영적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예로 들어 새 신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다.

#### 개역개정 19:13-15

<sup>13</sup>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sup>14</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sup>15</sup> 그들에게 안수하시니 거기를 떠나시니라

19:13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는 일반 사람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 여자들, 아이들의 친구가 되셨다.

▣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이였다. 이 일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출생에 의해 이스라엘 회중의 구성원이 이미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19:14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예수께서 원하고 계심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 문법 구조는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 어린 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 혹은 (2)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 낮다고 스스로 여기거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18:2-4).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신약은 어른들을 향해 기록되었다!

#### 개역개정 19:16-22

<sup>16</sup>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sup>17</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sup>18</sup>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sup>19</sup>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sup>20</sup>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sup>21</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sup>22</sup>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19: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20 절에서 우리는 그가 젊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22 절에서는 그가 부자였던 것을 알게 되며 눅 18:18 에서 우리는 그가 관원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참조, 막 10:17-22).

▣ “선생님이여” 이 호칭은 막 10:17 과 눅 18:18 에서 “선한 선생님이여”와 평행을 이룬다. 더 좋은 대문자체 사본들(즉, **N**, B, D, L)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있다(UBS<sup>4</sup>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A”등급인 “확실함”을 준다).

▣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유대 남자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개념인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졌다. 그 내용은 모세의 율법과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사는 것에 기초한 의로운 행동을 뜻했다(참조, 눅 10:25; 롬 9:30-33). 그는 영생을 자신의 종교적 행위의 결과로서 이해했다.

▣ “영생” 이것은 오는 세대에서 누리는 생명(조예)을 뜻하는 구약적 개념이었다(참조, 단 12:2). 이 용어는 새 생명의 질적 측면과 그 길이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이 한 가지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

1. 영생을 얻다, 16 절
2. 생명에 들어 가다, 17 절
3. 온전하게 되다, 21 절
4. 천국에 들어 가다, 23,24 절
5. 구원을 얻다, 25 절
6. 영생을 상속하다, 29 절

19:17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께서는 그에게 선함이 부족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선함의 기준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 절을 예수의 신성 혹은 그가 죄 없음을 약화시키는 증거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이 문맥은 이 사람이 예수를 유혹하거나 그를 울무에 걸리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은 부정과거 명령이다(네슬 헬라이어 본문에서는 현재 능동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5 장에 있는 십계명을 분명히 가르킨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의 핵심을 이루었다.

19:18-19 이것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일부 계명들로서 사람이 언약적 동료와 갖는 관계에 대해 다룬다.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과 70 인역에 있는 목록이 다소 다르다. 5:21; 5:27; 15:4 의 특별주제 및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출애굽기 20 장에 대한 설명

#### 출애굽기 20:13, 살인

##### I. 문맥

- 가. 사회적 면에 대한 계명일지라도 참으로 종교적인 계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한 계명에 의해 드러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참된 초점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나. 모든 계명이 믿음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한 것은 원래부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드러낸다. 이것의 적용은 인류의 다양성과 같이 광범위하다!

##### II. 중요한 단어 연구

- 가. “살인”
  1. 이것은 생명을 취하다를 가리키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라사)이다. 구약에서는 46 회만 나온다.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는
    - ㄱ. 하락, 165 회 사용됨
    - ㄴ. 해밀, 201 회 사용됨
  2. 이 용어(라사)는 원래의 제한적인 의미와 확대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 ㄱ. 이것은 원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생명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서, 종종 “친족 구속자” 또는 “고알”과 관련된다. 이 용법은 법적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고의성을 가진다(참조, 민 35:30-34; 레 24:13-23). 사실상 “눈에는 눈”(참조, 창 9:5-6)의 보복은 보복을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후에 도피성(신 4:41; 수 20:3)이 세워져 실수나 걱정으로 언약적 사회구성원을 죽인 언약의 구성원이 피해자 가족의 진노를 피해 도망할 수 있게 했다.
  - ㄴ. 후에 이 용어는 생명을 빼앗는 일의 동기나 태도를 가리켰다. “고의성”은 가장 중요한 점이 되었다! (참조, 출 21:12-14; 민 35:11,22; 신 28:24).
  - ㄷ. 이러한 구분은 이 명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문맥에서 오직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것은 친족 구속자나 피의 복수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십계명을 말하는 후기의 본문인 호 4:2; 렘 7:9 에서 이 용어는 살인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법 자체만 말하지 않고 동기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이웃을 가리키는 말에서 동료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
3. 이 용어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형제도나 전쟁과 관련이 없다.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이나 거룩한 전쟁(그러나 이 일은 거룩하지 않은 전쟁이다!)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적이 결코 없다
4. 오늘날 우리 문화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계획된 살인”일 것이다.

### III. 문맥적 통찰

- 다.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은 두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다. 이 계명들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 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 IV. 신약에서의 평행

- 다. 예수님
  - 3. 예수께서 이 계명을 확장하신 사실(참조, 마 5:21-26)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준다.
  - 4. 예수님은 십계명을 행동의 영역에서 동기의 영역으로 명백하게 옮겨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우리 자신이다! “사람은 자신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이다.”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중요한 부분이다.
- 라. 요한
  - 1. 요일 3:15, 미워함을 살인으로 여기는 개념이 여기에 나온다.
  - 2. 마 5:21 이하에서와 요일 3:15 에서 사용된 헬라이어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본질적으로 같다.
  - 3. 요일 4:19-21 의 긍정적 측면을 보라.

### V. 적용할 진리

- 가. 비록 계획하지 않고 살인한 자는 피의 복수자를 피해 도피성(참조, 민 35 장; 수 20 장)으로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갇혀서 지내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범한 행동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
- 나. 이 절은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인들이 자살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주권 및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심을 받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에 관하여 여전히 영적 원리를 제시한다.
- 다. 한편 이 본문은 오늘날 문제가 되는 (1) 사형제도나 (2) 전쟁에 대해 어떤 결정적인 말을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신은 이 일들을 악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참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이다.
- 라. 이 본문은 인간 생명의 귀중성과 존엄성에 대하여 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청지기이다. 개인 및 공동체에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학대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남용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와 같이 말할 자유가 있고 또 말을 함으로써 구조도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형체를 지키는 자들이다!

### 출애굽기 20:14, 간음

#### I. 문맥

- 가. 우리 이웃의 생명, 아내, 재산을 존중(참조, 렘 5:8)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70 인역에서는 같은 명령들이지만 다른 순서로 나타난다.
- 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평행은 이러한 고대의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다. 부모에 대한 존경이 안정적 사회를 만드는 열쇠로 여겨졌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라. 이 계명은 또한 우리의 성적 생활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장하심을 뜻한다.

마. 제 4 계명이 창 2:1-3 에 기초하듯이, 이 계명은 창 2:24 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 II. 단어 연구

나. 이 본문에서 주요 용어는 “간통”이다. 이 용어를 고대 히브리 문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이 용어는 구약의 문맥에서 “사통”과 구분된다. 간통은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결혼한 자인 경우의 성적 관계를 말한다. “사통”은 두 쪽 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의 성적 관계를 뜻한다(참조, 잠 29:3; 31:3). 이러한 구분은 신약 헬라어의 용어에서 없어졌다.
2. 성적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왜 결혼한 상태에 대해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매 50 년마다(회년) 모든 땅은 각 지파의 원 주인에게 돌려졌다.
3. 간통은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문화적으로 정죄받았다(참조, 창 12:10 이하; 26:7 이하; 39:9).
4. 간통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죄로 여겨졌다:
  - ㄱ. 이웃 -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 ㄴ. 결혼 - 레위기 18:20
  - ㄷ. 하나님 - 창세기 20:1-13; 26:7-11
5. 이것은 당사자를 둘 다 사형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 ㄱ. 레위기 20:10
  - ㄴ. 신명기 22:22-24
  - ㄷ. 에스겔 16:40(은유)
  - ㄹ. 강력한 경고가 잠언 1-9 장에 나온다

## III. 신약과의 관계

다. 예수님은 레위기 19:18 을 옛 계시의 요약으로 사용했다(참조, 눅 10:27). 이 사실은 십계명이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음을 확증한다.

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28 에서 그 명령을 강화시킨다. 그는 강조점을 행동보다는 동기에 두셨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영혼의 씨가 자라는 곳으로 보았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가는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잠 23:7). 이 점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 이것은 목적이다!(참조, 갈 2:15-3:29).

## IV. 오늘날에 적용하기

- 마.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동안 신실한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유추는 결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언약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장 잘 돕는다(말 2:14). 성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이 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돕는다.
- 바. 결혼생활의 안정과 충성된 삶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사회의 건강과 장수하는 삶을 가져오는 주요한 기둥이 된다.
- 사. 인간의 성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었다. 이에 대하여 주신 지침은 인간의 자유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약간의 경건한 지침을 주기 위함이었다. 정해 놓으신 한계는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혜택과 행복을 가져온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더불어 성생활을 남용했지만, 이것은 아직도 사람 안에서 강한 추구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와 안내를 받아야만 하는 영역이다.
- 아. 우리는 성에 대해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여자와 남자)의 거룩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한 결과인 “나”에 대한 집중은 이 영역에서 매우 확연하다.

## 출애굽기 20:15, 도독질

### I. 일반적 사항

- 가. 십계명에 있는 다른 모든 조항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속적 면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언약적 동료를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일이다(참조, 요일 4:20-21; 2:7-11).
- 나. 이 계명은 언약 공동체의 교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적 교제의 내용은 혼동에 빠져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인데, 이러한 일은 바로 성경의 목적이다.
- 다. 다른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들이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우리의 타락한 욕구는 이러한 금지를 하는 배경이 된다(참조, 시 50:10-12).

### II. 단어와 구의 연구

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단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십계명의 뒷부분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다.

- 나. 이 금지의 목적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을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앞에 나오는 두 계명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문맥임.
  2. 적용할 수 있는 평행적 내용이 바로 전후(출 21:16)에도 있고 또한 떨어진 곳(신 24:7)에서도 나타남. 또한 창세기 37 장을 보라.
- 다. 한편 짧은 형태의 문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이것은 영감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
  2. 이것은 금지의 범위를 넓힌다
  3.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도둑질과 관련하여 전후 문맥에 있다 - 출애굽기 22:1 이하
  4. 예수님은 분명히 흠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인용하신다(참조, 마 19:18).
- 라. 도둑질은 고대의 여러 법전에서도 다루어지는데, 대개는 그 형벌로서 사형, 신체의 절단, 또는 30 배의 손해배상을 선언하였다.
- 마. 이 진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몇 평행 구절이 있다:
  1. 레위기 19:1-18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 ㄱ. 우리가 사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성부의 가족적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참조, 18 절).
    - ㄴ. 하여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삶은 적합한 동기를 가짐으로 가능하다(참조, 17 절).
    - ㄷ.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동정하는 일(9-10, 13 절)은 우리의 이웃을 착취하지 않는 일만큼(11 절) 중요하다.
  2. 야모스 8:4-7 - 하나님은 착취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3. 미가 6:6-8 -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합당한 동기를 찾으신다. 왜 우리가 흠치지 말아야 하는가가 관심사이다!
  4. 출 22:1 이하 - 오늘날 우리가 강도짓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빠트리는 진리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죄는 항상 값을 치루어야 한다!

### III. 적용할 진리

- 가. C. S. 루이스의 아내인 조이 데이빗맨은 십계명에 대하여 좋은 책을 썼다. 그녀는 이 계명을 “너희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해서 안된다”라고 번역했다. 이 점은 분명히 계명의 범위를 소유에 대한 것 이상으로 확대시킨다. 그녀는 “재산은 죄이거나 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도둑질하는 것도 새 마음에 의해서 해결된다, 엡 4:28. “가지려고만 하는” 옛 성품이 “나누어 주는” 새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놀랍다!
- 다. 우리가 언약의 동역자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경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 진리는 십계명의 배경을 이룬다.
- 라. 현대인은 여러 방법으로 흠치고 있다!

#### 토의할 질문

1. 현대인은 어떻게 흠치는가?
2. 보상하는 것은 회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이 절은 재산에 대한 자본주의적 견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출애굽기 20:17, 탐내다

#### I. 서론

- 가. 십계명의 마지막 다섯 계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제 6, 7, 8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외적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2. 제 9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말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3. 제 10 계명은 언약적 동반자에게 생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금한다.
- 나. 탐하는 행위는 탐내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이웃보다 탐내는 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이 계명이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 다. 많은 이들이 이 계명을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없고 오직 고대 이스라엘의 법 규정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본다. 이렇듯 생각의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개념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면의 생각이 악한 행위의 원천이 된다고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참조, 잠 23:7; 약 1:14-15). 이 절도 행동을 낳는 생각과 연결이 되고 있다. 여러 본문은 “탐내는 것”에 뒤따르는 행동과 관련을 짓는다(참조, 신 7:25; 수 7:21; 미 2:2).
- 라. 만일 강조점이 처음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계명에 중요성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 처음 계명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이중 강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나타난다,

## II. 단어와 구의 연구

- 가. 출애굽기 20:17 과 신명기 5:21 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1.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집” 혹은 남자의 재산이라는 큰 개념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신명기 5 장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진 목록으로서 따로 다루어 진다.
  2. 출애굽기 20 장의 본문에는 “손에 넣기를 욕망하다”를 뜻하는 “탐내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5 장에는 “탐내다”와 더불어 “욕망하다”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온다. “탐내다”는 갖기 원하는 물건을 획득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욕망하다”는 태도에만 초점을 둔다.
  3. 또한 출애굽기 20 장은 광야 방랑 기간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록된 것이어서 소유하는 목록에 “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신명기 5 장에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같은 명령을 재 진술하고 있다.
- 나. “탐하다”는 중립적 용어이다. 이것은 좋은 물건을 갖기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9:10; 고전 12:31).
- 다. 부적합한 욕망은 사탄,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가 타락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이다. 바울은 로마서 7:7-8 에서 탐심과 관련된 자신의 갈등으로 고민했다. 탐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며 신뢰의 상실이다.
- 라. 신약의 여러 구절은 탐심에 대해 말한다:
1. 인간의 문제는 불만족과 탐욕에 있다(참조, 눅 12:15; 딤후전 6:8-10).
  2. 탐심은 인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참조, 막 7:17-23; 고전 5:10; 엡 5:5; 골 3:5).

## III. 적용할 진리

- 가. 탐하는 욕망과 불만족에 대한 답은 다음에 나온다:
1. 사랑 - 롬 13:8-10
  2. 만족 - 히 13:5; 빌 4:11-13(또한 나눔, 빌 4:14)
- 나. 계명은 “멈추라”라고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 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
1. 역대상 28:9
  2. 잠언 20:27
  3. 시편 139:1, 23
  4. 예레미야 17:10
  5. 로마서 8:27
  6. 요한계시록 8:27
- 라.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때 죄가 된다. 물건은 궁극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있다! 탐내는 것은 암암리에 언약적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 토의할 질문

1. 무엇이 탐하는 것인가?
2. 왜 현대인은 탐하는가?
3.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것인가?
4.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5. 왜 출애굽기 20:17 에 있는 계명은 신명기 5:21 에 있는 계명과 약간 다른가?

**19:18 “살인”** 흠정역(KJV)과 예루살렘 성경(JB)은 이 동사를 “죽이다”(kill)로 번역하여 “합법적이지 않은 고의적 살인”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잘못 번역하고 있다. NKJV 는 “죽이다”(murder)로 번역하였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눈에는 눈”의 법은 피의 복수자로 하여금 자기 가족의 구성원을 죽인 사람에게 대해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참조, 민 35:12; 신 19:6,12; 수 20:1-9). 이 법은 반목이나 제한이 없는 보복을 막을 수 있게 했다. 5:21 의 특별주제를 보라.

**19:20 “그 청년이”** 예수님 당시에 40 세 이전의 남자는 젊은이로 불리었다. 눅 18:18 은 이 사람을 “지도자”로 불려서 그가 어떤 지방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였거나 지방 시의회 의 지도자였음을 시사한다.

▣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빌 3:6 에서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이것은 롬 3:23 과 모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 마 5:20-48 에서 말씀하신 바 유대인들이 구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율법의 조항을 실행하는 것을 의라고 여겼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당시의 사회나 문화에서 요구하는 모든 종교적 의무 사항을 이행했다고 느꼈다.

■ NKJV 는 “나의 소년기부터”라는 말을 더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막 10:20 과 대문자체 사본인 C, W 및 기타 여러 사본에 나온다. 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율법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헌신할 때(즉, *발 미즈바*로서 13 세의 소년과 *발 미즈바*로서 12 세의 소녀)에 이르기까지는 그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여겼다.

■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평온이 없음을 나타낸다. 모세의 모든 율법과 그것을 해석해 놓은 조항을 지키며 살면서도 그는 허전함을 여전히 느꼈다.

19:21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의 견지에서 진실인 것을 말한다.

■ NASB “온전하고자”  
NKJV, NRSV,  
TEV, NJB “완전하고자”

이 단어는 “가득 찬,” 성숙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추어진”( *텔로시*에서)을 뜻한다. 이 단어는 죄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 “가서 네 소유를 팔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믿음을 나타낸다(참조, 눅 14:33).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와 관계된 경우였다. 이 사람의 소유가 그를 소유해 버렸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요구조건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근본적이고 최고의 헌신을 뜻한다!

여러 개의 명령이 연속해서 사용되었다

1. 가서, 현재 능동 명령
2. 팔아, 부정과거 능동 명령
3. 주라, 부정과거 능동 명령
4. 와서,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써 사용된 부사
5. 따르라, 현재 능동 명령

이 명령들(즉, 4 항과 5 항)은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은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핵심 그룹의 일원이 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다!

■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고전 13:1-3 에서 우리는 자세가 그 열쇠임을 알게 된다!

■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마 6:19-20 의 설명을 보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진 우선순위의 구조를 아셨고 따라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요구하신 것이었다. 그의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우선순위가 문제였다(참조, 딤후 6:10).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인적 헌신이 요구됨을 보라(참조, 마 10:34-39).

19:22 “그 청년이 . . .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천국의 기준을 낮출 수 없으셨다. 성경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1)그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찾아 왔고 (2) 그가 사람을 제대로 찾아 왔으며 (3) 그가 바른 질문을 하였고 (4)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음에도(막 10:21) 그가 가버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개역개정 19:23-26

<sup>23</sup>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sup>24</sup>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sup>25</sup>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sup>26</sup>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sup>27</sup>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19:23 “진실로” 5:18 의 특별주제를 보라.

19:24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문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의 내용인가 아니면 회화적인 진술인가? 예루살렘에는 낙타가 무릎을 꿇고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없었다! 이것은 동양의 과장적인 표현으로서 부자가 구원을 받는 일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26 절). 예수께서는 이 부유하고 젊은 지도자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는 구약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로 보였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 부유함과 소유는 저주가 될 수 있다(또한 종종 그렇다)!

■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6:24 의 특별주제: 부를 보라.

▣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은 마태복음에 아주 드물게 사용된 표현이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참조, 출 20:7; 신 5:11).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에서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19: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지만 악인은 일시적으로 벌하신다고 구약은 가르쳤다(참조, 신 27-28 장). 욥기, 시 73 편, 렘 12:1-4 은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 반박한다. 종종 의인이 고통을 받으며 악인이 번창한다. 부와 지위와 건강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9:26 이 말씀은 구약으로 거슬러 간다(즉, 창 18:14; 욥 42:2; 렘 32:17,27). 이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야웨의 능력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참조, 욥 42:2; 눅 1:37)!

**개역개정 19:27-30**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27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제자들이 여전히 땅의 왕국에서 자신들이 받을 어떤 특별한 상을 기대하고 있었다(참조, 20:21,24).

19:28 “인자” 마 8: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최초의 12 사도를 가리킴이 틀림없다(참조, 눅 22:30). 한편 29 절은 풍성한 축복과 영생의 혜택을 모든 신자들에게로 확대하고 있다(참조, 마 20:16; 막 10:31; 눅 13:30).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는 이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1. 새 이스라엘인 교회(참조, 롬 2:28,29; 갈 6:16; 벰전 2:5,9; 계 1:6)
2.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

이 절에서 열두 제자가 예수의 영광과 다스림에 함께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같은 절들에서 종말론적 성격에 대해 말하는 어떤 이론을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 14:20 의 특별주제: 열 둘이라는 숫자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함**

그리스도와 다스린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리는 더 커다란 신학적 주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라는 구약의 개념의 연장이다(참조, 삼상 8:7).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참조, 창 49:10)인 이새의 후손(참조, 삼하 7 장)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메시야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인 기둥을 이룬다. 왕국이 그 분 안에서 전적으로 도래했다(참조, 마 10:7; 11:12; 12:28; 막 1:15; 눅 10:9,11; 11:20; 16:16; 17:20-21).

한편 왕국은 미래적이기도 하다(종말론적). 왕국이 나타났지만 최종적인 단계의 것은 아니었다(참조, 마 6:10; 8:11; 16:28; 22:1-14; 26:29; 눅 9:27; 11:2; 13:29; 14:10-24; 22:16,18). 예수님은 처음엔 고난받는 종(참조, 사 52:13-53:12)으로서 겸손하게(참조, 눅 9:9) 오셨지만 그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마 2:2; 21:5; 27:11-14). “다스림”의 개념은 참으로 이러한 “왕국”신학의 일부분을 이룬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왕국을 주셨다(눅 12:32 을 보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에는 고려할 여러 측면이 있고 이에 따른 질문을 제기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왕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구절은 “다스림”을 말하는 것인가(참조, 마 5:3, 10; 눅 12:32)?
2. 예수님께서 1 세기의 유대적 배경에서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한 내용인가(참조, 마 19:28; 눅 22:28-30)?
3. 위의 경우와 대조되거나 혹은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가(참조, 롬 5:17; 고전 4:8)?
4. 고난은 어떻게 다스림과 관계가 있는가(참조, 롬 8:17; 딤후전 2:11-12; 벰전 4:13; 계 1:9)?
5.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다
  - ㄱ. 지상의, 5:10
  - ㄴ. 천년왕국의, 20:5, 6
  - ㄷ. 영원한, 2:26; 3:21; 22:5; 단 7:14,18,27



NASB, NKJV  
NRSV  
TEV  
NJB

“다시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때에”  
“새 시대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될 때에”

이 단어의 뜻은 “다시 태어나다”이다. 필로는 홍수 후에 다시 나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 헬라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일이 자신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을 인해 놀랐다.

처음의 창조가 손상을 입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의 재창조도 오염되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루시는 새 시작은 순전하며 이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참조, 사 9:6-7; 11:1-10; 미 5:2-5a; 계 21-22 장).

19:29

NASB  
NKJV, NRSV  
TEV  
NJB

“상당히 여러 배를”  
“백배를”  
“백배를 더”  
“백배만큼”

헬라어 사본의 변이가 이곳에 나타난다. “백배”라는 용어는 대문자체 사본인 **א, C, D** 에 나타나지만 “여러 배”는 B 와 C 사본에 나타난다. 처음 것은 막 10:29 을 따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눅 18:30 의 것을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가족, 소유,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 몰두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께 대한 헌신으로 대체해야 한다(참조, 마 10:34-39; 눅 12:51-53).

의의 새 시대가 농업적인 과장법으로 설명되고 있다(구약에서와 같이). 성경은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 명백하지 않게 말한다.

1. 새롭게 된 에덴 동산
2. 농업적인 풍요
3. 아름다운 도시
4. 영적인 새 영역

이 본문이 드러내는 바는 예수께 대한 개인의 믿음이 앞으로 있을 천국의 축복을 지금 보장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드리는 어떤 희생도 주목을 못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삶”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희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후에 풍요롭게 되기 위해 지금 희생을 드리라고 말하는 신학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된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예수의 진술은 다음의 면을 갖는다

1. 과장적임
2. 제자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이해에 대한 말씀임
3.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수반되는 근본적이고도 사심없는 결단을 보임!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장적이고 구약의 농업적 은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갖는 영적 성격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신자들이 오직 이 다음에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물질을 거부한다는 점(“잠시 후에 가질 공중에 있는 떡을 말하는 기독교”)은 나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그들을 격려하시고자 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하게 취할 본문은 아니다! 사후세계는 지옥과 천국 둘 다 베일에 가리워져 있다. 이 둘을 설명하기 위해 지상의 은유가 사용되었지만 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현재 소경되었기 때문이다(즉,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고전 13:9-12).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기독교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왕국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 특별주제: 신자의 유업

성경은 신자에게 여러 유업이 있음을 말한다(참조, 행 20:32; 26:18; 엡 1:4; 골 1:12; 3:24). 이것은 그들이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가족적 관계를 인함이다(참조, 히 1:2). 그들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함께 상속받는다(참조, 롬 8:17; 갈 4:7)

- 왕국(참조, 마 25:34; 고전 6:9-10; 15:50; 엡 5:5)
- 영생(참조, 마 19:29; 히 9:15)
- 하나님의 약속(참조, 히 6:12)
-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참조, 뱀전 1:4-5)

19:30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대로 되지 않는다(참조, 마 20:16; 막 10:31; 눅 13:30).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참조, 사 55:8-11).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은 영접받을 것이지만 부유하고 특권을 가진 자들은 거부받을 것이다(즉, 마 8:10-12). 성경적 믿음은 피조물에게 예상치 못한 역전을 일으킨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혼은 항상 죄인가?
2.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성경의 어떤 원리를 옹호하셨는가?
3.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혼에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재혼을 허용하였는가? 오늘날은 어떠한가?
4. 독신 생활은 결혼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인가?
5.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말하라.
6. 13-15 절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
7. 예수께서는 왜 17 절에서 “선하심”을 주장하지 않으셨는가? 이 사실은 예수의 신성이나 그의 죄 없으심에 대한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8. 이 사람은 참으로 모든 계명을 지켰는가? 그는 죄없는 사람이었는가? (20 절)
9. 모든 부유함은 악한 것인가?
10. 그 부유한 사람이 거부를 받음에 대하여 제자들은 왜 몹시 놀랐는가?

# 마태복음 2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포도원 일꾼들 20:1-16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20:1-16	포도원의 노동자들 20:1-16	포도원 일꾼들 20:1-7 20:8-15 20:16	포도원 노동자들의 비유 20:1-16
세 번째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다 20:17-19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언하시다 20:17-19	세 번째 예언하신 고난 20:17-19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세 번째 말씀하시다 20:17-19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예언 20:17-19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20:20-28	살로메가 호의를 구하다 20:20-28	야고보와 요한이 명예를 구하다 20:20-23	한 어머니의 요청 20:20 20:21a 20:21b 20:22a,b 20:22c 20:23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을 하다 20:20-23
20:24-28	20:24-28	20:24-28	20:24-28	20:24-28
두 소경을 고치심 20:29-34	두 소경이 시력을 회복하다 20:29-34	여리고의 두 소경 20:29-34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시다 20:29-34 20:31 20:32 20:33 20:34	여리고의 두 소경 20:29-3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13 장의 서론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역사적 문맥과 문학적 문맥을 고려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의 비유에 대한 역사적 문맥은 마 19:30 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것은 마 20:16 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평행은 고려 중인 이 비유가 우선적으로 부와 보상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더 커다란 문학적 문맥은 18:1 과 20:20-21,24 에서 나타나는 바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관심을 가진 내용이다.
- 나. 많은 이들이 이 비유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데, 신약 전체의 문맥(또는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의)에서 본다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맥에서 본다면 이 비유는 제자들 스스로의 관계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참조, 사 55:8-11; 마 5-7 장). 하나님의 새 왕국(참조, 램 31:31-34; 겔 36:22-38)은 전적으로 은혜에 기초한 것이지만 인간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활동적인 제자의 삶을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알잡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구원과 의로운 삶의 기초가 됨을 말한다(참조, 엡 2:8-10).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사함의 동기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참조, 롬 3:21-24; 6:23; 엡 2:8-9).
- 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 체계를 이루기 위해 비유로부터 세세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비유의 중심적 진리와 문맥을 파악함이 훨씬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열쇠는 예상치 못하거나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진술을 발견하는데 있다.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20:1-7

<sup>1</sup>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sup>2</sup>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sup>3</sup>또 제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sup>4</sup>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sup>5</sup>제육시와 제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sup>6</sup>제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서 있느냐 <sup>7</sup>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20:1 “천국은 마치” 이 비유는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 보상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시는 영적 보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이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다. “천국”은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 사역에 있어서 중심 주제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서 다스리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느 날 온 땅 위에 완성될 것이다(참조, 6:10). 하나님의 왕국이 갖는 미래적 현재의 특성은 그 기원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심으로 인한 긴장요 역설인 “이미”와 “아직”에 유래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면이 나타난다.

▣ “집 주인” 이것은 “집”과 “주인”( *테스포테스* )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라는 히브리 구를 해석해 놓은 표현이다. 마태는 이 호칭을 여러 번 사용했다(참조, 10:25; 13:27,52; 20:1,11; 21:33; 24:43).

이 문맥에서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서 은혜로 하심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집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마 10:24-25 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귀신의 우두머리 혹은 사탄)으로 불렀다.

그란트 오스본은 *해석학적 나선*(244 쪽)에서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비유에서 왕, 아버지, 집 주인, 고용자, 아버지, 재판관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전체 그림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게 용서를 주시는 분인 동시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 .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며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은 은혜로 특징지어지지만 그 은혜는 청중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촉구한다.”

▣ “포도원” 많은 이들이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구약에서 포도원이 종종 이스라엘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지만(참조, 사 5 장; 램 2:21; 12:10; 시 80:8-13),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항상 그러한 뜻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단지 비유의 배경을 이루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주요한 상징적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이 처음 그룹의 노동자들은 하루의 품삯을 정하여 일을 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데나리온”이라는 용어는 번역된 다른 모든 종류의 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그 자체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 금액을 1 세기의 어떤 군인이나 농업 노동자 한 명이 하루의 품삯으로 받는 돈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훨씬 더 좋다. 이 금액은 팔레스타인에서 한 가족이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들을 사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20:3

NASB, NKJV, NJB “대략 제 삼시에”  
NRSV, TEV “대략 9 시에”

이 비유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3, 5, 6 절)은 오전 6 시에 하루가 시작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로마 시간을 따라서). 그러므로 이 시각은 오전 9 시였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6 시로 보았다(즉, 창 1:5).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였는가이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그 시기가 포도 수확의 절정기였고 또한 안식일이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포도가 상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포도를 거두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20:6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비록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비판적인 뜻으로 들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은 점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은 단순히 일찌기 고용되지 못한 어떤 노동자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들이 게으르거나 일에 무관심한 노동자들이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그들은 그 날 일거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참조, 7 절).

개역개정 20:8-16

<sup>8</sup>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sup>9</sup>제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sup>10</sup>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sup>11</sup>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sup>12</sup>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sup>13</sup>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sup>14</sup>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네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sup>15</sup>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sup>16</sup>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20:8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기를 노동자들이 그 날의 일을 마친 후에 임금을 지불받아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참조, 레 19:13; 신 24:15; 말 3:5). 노동자들이 다시 일하러 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종종 임금을 그 다음날까지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20: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처음에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보다 더 짧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약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참조, 2 절). 이 비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더 많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한 것을 우리는 11 절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다 얻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일거리를 갖게 됨을 인해 가졌던 감사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일 더위에 수고하였기에 더 많은 삯을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대었다. 이 비유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받는 영적인 보상에 대해 충격적인 내용을 시사한다(참조, 19:30; 20:16).

20:13-15 주인은 세 가지 수사적 질문으로써 대답을 했다.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할 자유를 갖고 있는데(참조, 롬 9 장), 자신은 은혜롭게 행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20:15 이 절은 신학적으로 이 비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실 권리를 가지신다(즉, 롬 9-10 장). 하나님은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은혜를 따라 행하시기를 선택하신다(참조, 롬 11 장). 그 어느 누가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눅 15:11-32 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신학적인 평행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에게 기분 상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는가?

■

NASB, NRSV “혹은 내가 관대하므로 네 눈이 부러워하느냐”  
NKJV “혹은 내가 선하므로 네 눈이 악하게 되느냐”  
TEV “혹은 내가 관대하므로 네가 시기하느냐”  
NJB “내가 관대하다고 왜 부러워하느냐”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한 “악한 눈”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이다(참조, 신 15:9; 삼상 18:9). 이 문맥에서 이것은 시기 혹은 부러워함을 뜻한다(참조, 막 7:22). 6:2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0:16

NASB

NKJV

NRSV

TEV

JB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왜냐하면 많은 이가 부름을 받았으며 일부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다.”

“참으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KJV 역에서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왜냐하면 많은 이가 부름을 받았으며 일부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는 NASB, NKJV, TEV, JB 역에서 빠져 있다. 이 내용은 마 22:14 에서 가져와 추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헬라이어 사본인, **Ⓝ**, B, L, Z 사본에는 없다. UBS<sup>4</sup> 는 이 내용이 없는 것에 “A”등급(즉, 확실함)을 준다.

19:30 과 20:16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은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다. 이 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 천국에서 모든 신자가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긴장은 거저 받는 구원과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긴장이다.
2.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들보다 더 큰 상이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참조, 눅 13:30).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지침은 무엇인가? (피와 스투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35-148 쪽을 보라).
2. 이 비유의 문학적 문맥은 무엇인가?
3.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상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4. 당신은 탕자의 비유(눅 15 장)에 나오는 형과 이 비유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 20:17-18 에 대한 문맥적 통찰

가. 이 부분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은 막 10:32 이하의 본문으로서, 제자들에게 자세와 행동에 대한 장을 제공한다.

나. 이 이야기로부터 볼 때 제자들이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내용은 아마도 19:28 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과 관련을 가진다.

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이기도 하다(참조, 마 16:21; 17:9,22-23). 예수께서는 자신이 왜 오셨는가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역사를 주관하셨다(참조, 요 10:17-18)!

###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0:1

<sup>17</sup>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sup>18</sup>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sup>19</sup>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20: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막 10:32 은 예수께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제자들보다 앞서 걷고 계셨다고 말한다.

20:18 “인자” 마 8:2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은 산헤드린에 대한 언급이다. 이 기관은 예루살렘에 있는 70인의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이 기관을 말하는 긴 이름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참조, 16:21)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 한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점령한 로마의 관리에 의해 허용된 매우 제한된 권위만 행사했다.

16:21의 특별주제: 산헤드린을 보라.

20:19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것은 로마 정부에 의해 예수께서 받으실 굴욕과 학대를 가리킨다. 군인들은 배타적인 유대 민족에 대해 가진 적대감을 예수께 향해 풀었다.

“넘겨 주다”(פראדידומ)라는 동사는 예수께서 재판받기 위해 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그룹에게로 넘겨지심을 종종 가리킨다:

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마 20:18
2. 사람들에게, 마 17:22
3. 이방인들(에쓰다)에게, 마 20:19
4. 빌라도에게, 마 27:2
5. 십자가에 못 박힘을 위해, 마 26:2

예수께서 마 10:24-25에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신자들도 역시 “넘겨질 것이다”(참조, 10:17; 24:9; 눅 21:12).

▣ **“십자가에 못 박다”** 이 처형 방법의 잔혹함은 대중 앞에서 당하는 굴욕과 고통 뿐 아니라 신 21:23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죄있는 인류를 위해 “저주 받으신 자”가 되었다(레 26장; 신 27-28장; 갈 3:13; 골 2:14)!

▣ **“제 삼일에”** 고전 15:4에서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한편 우리가 구약을 살펴볼 때 “삼일”에 대한 암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이는 호 6:2을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확실하다. 마 12:38-40을 인해 많은 이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이에 대한 암시로 말한다(참조, 요 1:17). 후자가 가장 적합한 본문이라고 여겨진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 중 한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만 하루로 계산했다.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황혼으로 봄을 기억하라(참조, 창 1:5). 따라서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6시 이전에 장사된 날을 하루로 계산하였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안식일)은 둘째 날이었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 해뜨기 전까지가 제 삼일이었다. 16:21의 설명을 보라.

▣ **“살아나리라”** 부활(27:63의 특별주제를 보라)은 일반적으로 예수의 삶과 사역과 죽음을 인정하신 성부의 의지적 행위로 언급된다. 한편 요 10:17-18에서 예수는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였다. 롬 8:11은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구속의 행위와 관련하여 삼위일체의 각 위께서 참여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개역개정 20:20-23**

<sup>20</sup>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sup>21</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sup>22</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sup>23</sup>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0:20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는 막 10:35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이 요청을 하였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마 27:56을 막 15:40 및 요 19:25과 비교하여 본다면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예수의 모친의 자매였음을 알게 된다.

▣ **“절하며”**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의 꿈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호의를 사려고 한다(참조, 욥 1:9-11)!

▣ **“무엇을 구하니”** 마가는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소서”라고 기록한다. 이 내용은 마치 미성숙한 아이가 하는 요구와 같다.

20:21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려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뿐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참조, 눅 18:34).

20: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21 절에 있는 “너”는 단수형으로서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22 절에 있는 “너희”는 복수형으로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다.

▣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이라는 용어는 우가릿 문학에서 운명을 뜻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용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살면서 경험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75:8; 사 51:17-23; 렘 25:15-28; 49:12; 51:7; 애 4:21-22; 겔 22:31-34; 합 2:16; 숙 12:2; 계 14:10; 16:19; 17:4; 18:6). 한편 이것은 드물긴 하지만 축복을 나타내는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다(참조, 시 16:5; 23:5; 116:13; 렘 16:7).

흠정역(KJV)에 추가된 내용인 예수의 침례(세례)에 대한 부분은 원래의 헬라어 본문에도 없고 고대 라틴역, 시리아역, 콥틱역에도 없다. 이것은 막 10:38 과 눅 12:50 에서 가져온 내용으로서 후기의 필사자들이 마태복음에 삽입시킨 내용이다. 이와 같은 일이 23 절에도 나타나고 있다. UBS<sup>4</sup>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에 “A”등급(확실함)을 준다.

20:23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된 사람이다(참조, 행 12:2). 요한은 오래 살아 후에 로마 정부에 의해 밧모 섬(계 1:9)으로 유배를 갔었고, 노령으로 인해 에베소에서 죽었다(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KJV 역은 “그리고 내가 받은 침례(세례)의 침례(세례)로 침례(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시키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막 10:39 에서 취한 부분이다. 필사자들은 복음서들이 서로 평행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졌다!

▣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곳은 예수께서 성부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성부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참조, 고전 15:27-28).

#### 개역개정 20:24-28

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들이 분히 여기는 까닭은 자기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결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분노하였는데 이는 그들도 은밀히 같은 요청을 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20:26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크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것을 정죄하시지 않았다. 예수께 사람이 헌신함에 의거하여 그것의 참된 한도를 정의하셨다. 예수의 왕국에서는 지도자가 됨은 종이 됨을 뜻한다(참조, 23:11; 막 9:35; 10:43)! 신자는 섬기도록 구원받은 것이다! 신자들은 죄의 종노릇함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참조, 롬 6 장)!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에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실제적 진리가 있다(참조, 막 10:45; 눅 19:10). 예수께서는 자신이 (1) 성부를 드러내고 (2) 사람들에게 그들이 따를 모본을 보이고(즉, 이타적인 섬김) (3) 대속적인 죽으심으로써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적 위대함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은 섬김이다—이것은 때로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궁극적인 섬김을 요구한다(참조, 요 15:13; 고후 5:14-15; 요일 3:16).

▣ “대속물” 이 용어(뤼트론)는 신약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되었는데(이곳과 막 10:45),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여 노예나 전쟁 포로의 자유를 사는 것을 뜻한다. 70 인역에서는 코페르(BDB 497 I)의 번역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코페르는 죄를 덮기 위해 생명을 지불함을 의미한다(즉, 민 35:31,32).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는 신자들을 위해 해 주셨다. 그 값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화해시키기 위해 지불된 것이다(참조, 사 53 장; 고후 5:21).

####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있다:

1. 가알(BDB 145, I),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크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 또는 친척(참조, 룻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것의 문화적 측면은 신학적으로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램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관계된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1. 필요, 숙박, 상실, 감금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 ㄴ. 개인의(참조, 욥 19:25-27; 33:28)
3. 반드시 어떤 사람이 중재자로서 또 후원자로서 행동해야만 한다. *가알*에서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다(즉, *고엘*, BDB 145).
4. 야웨는 종종 자신을 가족과 관계된 단어로 묘사하셨다:
  - ㄱ. 아버지
  - ㄴ. 남편
  - ㄷ. 가까운 친척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확보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 II. 신약

가.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벨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약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빚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생각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힘있는 단어이다.
  - ㄴ. *뤼트류*,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벧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라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폴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 (3) 에베소서 1:14; 4:30
    - (4) 히브리서 9:15
  - 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
    - (1) 로마서 3:24
    - (2) 고린도전서 1:30
    - (3) 에베소서 1:7
    - (4) 골로새서 1:14

5. *안틸리트론*(참조, 딤전 2:6). 이것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농임을 받음과 관계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딤 2:14 에서와 같이). “모든 자”를 위해 죽으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제물이었다 (참조, 요 1:29; 3:16-17; 4:42; 딤전 2:4; 4:10; 딤 2:11; 뱀후 3:9; 요일 2:2; 4:14).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 대한 인간의 속박은 구약의 모세 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에게 죽음의 집행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는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죄로부터 사신 바 되었다(참조, 롬 6 장).
3.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셨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4.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이 포함된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우리의 부활체는 주님의 몸과 같을 것이다(참조, 요일 3:2).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한편으로 여러 특별한 차원의 특성을 가졌다. 고전 15:12-19 와 고전 15:35-38 에 나타난 역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육체적 땅의 몸이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적 몸이 있다. 예수께서는 둘 다 가지셨다!

▣ “**많은 사람의**” 이것은 사 53:11-12 의 암시이다. “많은”이라는 용어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한다. 람비들과 콤파 공동체는 “많은”을 믿음의 공동체 혹은 선택받은 자들에 대하여 사용했다. 사 53:6c 를 53:11d 및 12e 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모든”과 “많은” 사이에 나타나는 중요한 언어유희를 발견하다. 바울이 사용한 이와 같은 종류의 언어유희가 롬 5:17-19 에 나타난다. 18 절과 19 절은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모든”과 “많은”은 동의어적이다. 이것은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 NIDOTTE 제 1 권 96-97 쪽에 있는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20:29-34

<sup>29</sup>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sup>30</sup> 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sup>31</sup>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sup>32</sup>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sup>33</sup>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sup>34</sup>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0:29-34 이것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므로써 그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또 다른 사건이었다. 또 한 번 마태복음에서는 특징적으로 두 소경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말한다(막 10:46-52 과 눅 18:35-43 은 한 명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다).

20:29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10:46-52)에서는 예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면서라고 설명하는데 누가복음(18:35-43)에서는 예수께서 성에 들어오실 때에 일어난 일로 말하는 점이 흥미롭다. 두 여리고인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가 있었다. 따라서 두 기록이 다 정확하다.

20:30 “**맹인 두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구약의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이었다(참조, 사 29:18; 35:5; 42:7,16,18).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갓다 버려야 할” 사람들로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참조, 20:31).

▣ “**다윗의 자손이여**” 9:27 의 설명을 보라.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참조, 1:1; 9:27; 12:23; 15:22; 20:30; 21:9,15; 22:42,45).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는가?
2. 구약의 어디에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관련하여 제 삼일을 언급하고 있는가?
3.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은 예수와 어떤 친척관계인가?
4. 왜 28 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가?
5. “모든”과 “많은”이 어떻게 같은 내용에 대한 것임을 설명하라.

# 마태복음 2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21:1-11 (5) (9b)	승리의 입성 21:1-11	종려주일 21:1-11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21:1-3 21:4-5 21:6-9 21:10 21:11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21:1-9 (5) (9a) 21:10-11
성전의 청결 21:12-13 21:14-17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다 21:12-17	성전 청결 21:12-13 21:14-17	예수께서 성전에 가시다 21:12-13 21:14-15 21:16a 21:16b 21:17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의 추방 21:12-17  (16b)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21:18-22	무화과 나무 21:18-19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교훈 21:20-22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21:18-22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21:18-19  21:20 21:21-22	마른 무화과 나무, 믿음과 기도 21:18-22
의문이 제기된 예수님의 권위 21:23-27	의문이 제기된 예수님의 권위 21:23-27	예수님의 권위 21:23-27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 21:23 21:24-25a 21:25b-27a 21:27b	예수님의 권위가 의문시되다 21:23-27
두 아들의 비유 21:28-32	두 아들의 비유 21:28-32	21:28-32	두 아들의 비유 21:28-31a 21:31b 21:31c-32	두 아들의 비유 21:28-32
포도원과 농부에 대한 비유 21:33-44  (42b) 21:45-46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21:33-46	포도원의 비유 21:33-41  21:42-44 21:45-46	포도원 농부의 비유 21:33-39 21:40 21:41 21:42 21:43-44 21:45-46	악한 농부의 비유 21:33-44  (42) 21:45-4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21:1-17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승리의 입성은 중대한 예언적 활동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성전청결과 더불어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이 두 사건은 다음의 성경구절에서 평행을 이룬다.
1. 승리의 입성, 막 11:1-10, 눅 19:29-44, 요 12:12-19
  2. 성전의 청결, 막 11:15-18; 눅 19:45-47
- 나. 성전 청결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다. 예수께서 눅 9:9 의 예언을 분명하게 성취하셨고 군중의 외침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할렐시(즉, 찬송시, 시 113-118 편)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매년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 시편을 사용한 사실이 이 사건의 독특성이다. 종교지도자들이 대경실색하는 모습에서 이 독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 다. 12-17 절에 기록된 성전 청결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청결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 청결은 요 2:13-16 에 기록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두 번의 청결을 한 번의 것으로 끼워넣는 문자적 비평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연대순으로 통일되게 배열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나는 두 번의 성전 청결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이 한 번은 예수의 초기 사역에 다른 한 번은 거의 마지막 사역에서 행하셨음을 암시하는 두 기록의 차이점 때문이다. 이 사건은(지도자들의 거부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와 함께)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증오심을 설명한다.
- 라. 성전 청결은 여러 신학적 목적을 가졌다.
1. 예수님의 권위와 왕되심을 주장하기 위해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행동으로서(주후 70 년에 대한 암시)
  3. 성전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참조, 마 28:19; 눅 24:46-47; 행 1:8)
  4.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음으로 결말되어질 절정에서 예수님과 유대지도자들이 대면하도록 하기 위해(참조, 막 10:45)
  5.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으로 여기고 신뢰했지만(참조, 렘 7 장),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의 메시아/왕(예수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6. 다음의 내용을 거부하는 비유의 장을 준비하기 위해
    - ㄱ. 이스라엘
    - ㄴ. 이스라엘의 지도력

개역개정 21:1-11

<sup>1</sup>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벧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sup>2</sup>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sup>3</sup>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sup>4</sup>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sup>5</sup>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sup>6</sup>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sup>7</sup>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sup>8</sup>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sup>9</sup>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sup>10</sup>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sup>11</sup>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21:1 “벧바게” 이 이름은 “무화과나무의 집”을 의미한다. 이곳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긴 산등성이 위의 마을로서 감람 산으로 알려졌다.

▣ “감람 산” 예수의 생애에서 마지막 주간의 밤을 이곳에서 보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나사로와 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는 예수께서 감람 산(아마도 겐세마네 동산의 특정한 지역)에 머무셨다고 말한다. 진실은 아마도 두 가지 경우가 결합된 내용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참조, 요 12:1-10).

21:2-3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 지식이나 사전 준비에 대한 기술 중 하나이다. 신약에는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있다. 문맥한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위한 만남으로 보여진다.

21:2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 요 12:14 에서는 나귀를 언급하였지만 나귀 새끼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귀 새끼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귀가 갖는 상징적 특성 때문이다. 나귀는 왕이 타는 것이었다(즉, 삼하 18:9). 왕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자신의 나귀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시고 오는 사실에 대한 5 절의 언급은 속 9:9 의 예언의 성취로서 사 62:11 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후기에 속하는 몇 헬라어 사본은 “선지자” 앞에 “스가랴”를 집어 넣었고 벌게이트역과 콥트역의 일부 판은 “이사야”를 삽입하고 있다. 나귀는 왕실의 상징이었고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었다.

21: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

21:5 이것은 사 62:11 과 속 9:9 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21: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들의 겹옷을 두 짐승 위에 얹은 행동은 오늘날 퍼레이드 할 때 사용하는 축제의 안장과 매우 흡사하다. 비록 헬라어 본문에 약간의 모호함이 있지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음이 분명하다. 헬라어 본문에서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은 겹옷들을 나타낸다.

21:8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이것은 왕의 퍼레이드의 또 다른 면으로서 귀한 방문자를 위해 “붉은 양탄자를 까는” 현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역사상 (1) 예후에 대하여, 왕하 9:13 (2) 시몬 마카비우스에 대하여, 마카비상 13:51 과 마카비하 10:7 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이루어졌다.

▣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비록 이러한 상징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초막절(참조, 23:13-20) 기간 동안 행해졌지만 그 때 사용한 가지들은 이 절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 절에서 사용된 가지들은 좀 더 작았고 오늘날 결혼식에서 신부가 걸어가기 전에 흩뿌리는 장미 꽃잎에 비견될 수 있다. (1) 짐승 위에 겹옷을 얹고 (2) 길 위에 겹옷을 펴고 (3) 길에 나뭇가지를 펴던 세 가지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시는 왕 즉, 다윗 혈통의 왕(메시아)으로 찬미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이르되”라는 용어는 **미완료형 시제**로 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 118:26-27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이것은 할렐시(찬송시, 참조, 시 113-118 편)로 알려진 유월절 찬송의 한 부분이었다. 이 찬송은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향해 그 길에서 매년 사용되었지만 이번 해에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독특한 기대가 있었다. 이 절들은 예수께 독특하게 적용되었다! 예수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NASB, NKJV,  
NRSV, NJB  
TEV

“호산나”  
“~에게 찬송하라”

이 용어는 아람어의 관용어인 “~께 왕의 위엄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호산나”(BDB 446, 참조, 시 118:25)인데 일반적인 인사말로 사용한 말이다. 원래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처음의 사용은 예수님께 대한 것이고 두 번째(시 118:26; 10 절) 것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함을 뜻한다.

▣ “가장 높은 곳에서” 이것은 하늘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완곡어법**(에둘러 말함)이었다.

▣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의 호칭이다(참조, 마 9:27; 12:23; 15:22; 20:30,31; 22:42). 이것은 보좌에 다윗 혈통의 자손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삼하 7 장을 암시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참조, 창 49:10; 시 60:7; 108:8).

▣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은 “왕이신 분이여”를 더하여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한다.

21: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들었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이 사실이다(참조, 11 절). 그러나 예수님은 한 명의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예언으로 말씀되어진 메시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에 따라오는 사건은 영적인 눈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점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눅 19:41-44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내용을 삽입한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23:37-39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영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고르고 채택하고 요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서는 연대순으로 배열된 서양의 역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를 가르치기 위한 신학적 소책자이다.

21:11 “무리가 이르되 . . . 선지자 예수라 하나라”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인식은 신 18:15-19에 있는 메시아적 예언과 관계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거리낌없이 인정했다(참조, 눅 7:16; 24:19; 요 4:19; 6:14; 7:40; 9:17). 이 문맥은 또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단언하였다. 11:19의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을 보라.

**개역개정 21:12-13**

<sup>12</sup>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sup>13</sup>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고” 이것은 두 번째 성전 청결이다(참조, 요 2:15).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이 특별한 노점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권위자들에게 이 권리를 샀다. 처음에 그들은 희생할 동물과 성전에서 요구하는 적당한 타입의 돈(세겔)을 가져올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온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이 노점을 설치했다. 이 노점상들은 부당한 가격을 요구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물을 가져오면 제사장 검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물의 흠을 찾아내어 그가 높게 인상된 가격이 매겨진 노점 운영자로부터 동물을 사도록 만들었다.

성전에서는 오직 세겔만 받았다(참조, 출 30:13). 두로의 세겔 외에는 어떤 세겔도 유대에서 통용하지 않았다. 순례자들은 이 화폐로 바꾸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치루어야만 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참조, 레 1:14; 5:7,11; 12:8; 14:22; 눅 2:24) 대제사장은 이것마저도 엄청난 가격을 매겨놓았다.

이 사실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한 종교적 착취에 대하여 예수께서 화를 내신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화내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것이다(참조, 엡 4:26).

21:13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살고 파는 모든 행위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야웨께 예배 드리려고 민족들이 나아오기 위한 장소였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 56:7의 인용이고 램 7:11의 암시이다.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참조, 11:17)에서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구절을 첨가하였다. 유대인에게 쓴 마태복음은 이와같은 일반적인 강조점을 제외시킨 반면 로마인에게 쓴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 개역개정 21:14-17

<sup>14</sup>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sup>15</sup>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sup>16</sup>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sup>17</sup>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21: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4 절과 15 절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내용으로서, 이것은 후기사역에서조차도 예수께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 바로 성전 주변에서 애쓰고 계셨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증거였다.

1. 맹인을 보게 하다(참조, 사 29:18; 42:7,16)
2. 저는 자를 돕다(참조, 사 40:11; 미 4:6; 습 3:19)
3. 램 31:8 과 사 35:5-6 에 같은 증거가 동시에 있음

만일 그들이 단순하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동정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21: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20:18 의 특별주제를 보라)의 일반적인 구성원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참조, 23 절; 16:21)를 포함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이런 호칭은 지도자들을 일컫는 한 방법이었다.

▣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명히 어린이들(예수께서 12 살 때 하셨던 것 처럼, 참조, 눅 2:43)은 하루 전날 예수께 할렐시(찬송시)를 부르는 것을 들었고 일찌기 바리새인들을 대경실색하게 한 그 후렴을 반복하고 있었다.

**21: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눅 19:39 에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일에 대해 불평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 호칭의 사용을 받아들였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강한 진술이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의 반어법과 풍자법을 사용하셨다(참조, 12:3; 19:4; 21:42; 22:31). 여기서 예수님은 시 8:2 을 인용하셨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어른들이 그 내용을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어린이들(젖먹이들, 아마도 3 살까지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들)이 진실을 말함을 나타내는 시편이다.

**21: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요 12:1-10 에서 볼 때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여러 날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보내셨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승리의 입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2.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 왜 중요한가?
3. 시 118:26-27 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이번 해의 환형 퍼레이드가 갖는 독특한 점은 무엇이었나?
4.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께서 왜 그리도 황당해 하셨는가?
5.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1:18-46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21 장은 승리의 입성으로 시작하여 세 개로 이루어진 두 번째 비유로 끝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
- 나. 이 내용이 예수께서 (1) 유대 민족 (2) 유대의 지도자들 또는 (3) 둘 다를 거부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 다. 12-17 절에서의 성전 청결은 거부의 행동이셨다. 18-22 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도 거부의 행동이셨다. 28-32 절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거부의 비유였다. 33-46 절의 악한 농부의 비유도 거부의 비유였다. 22:1-4 에 나오는 왕의 결혼잔치의 비유도 거부의 비유였다.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이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가 아니면 예수께서 매우 거부하셨던 랍비들의 유대교만을 특별히 일컫는가 하는 점이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1:18-19**  
<sup>18</sup>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sup>19</sup>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1: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마가복음에서 있는 사건의 순서는 약간 다르다(참조, 막 11:12-14, 20-21).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2 마일 떨어진 베다니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이다(참조, 11:12).

21: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여행자가 걸음을 멈추고 과일 나무나 들에서 열매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었다(참조, 신 23:24-25).

▣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막 11:13 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를 첨가한다. 이 사실은 이 행동이 유대 지도자 또는 유대 민족을 거부함에 대한 예언적 행동임을 나타낸다. 외부적으로 그들은 번창하였고 영적이며 종교적으로 보였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참조, 골 2:21-23; 딤후 3:5; 사 29:13).

▣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 단어의 뜻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쓴 구약 주석에서 따온 “언제나” 또는 “영원히”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울람(영원히)**  
 히브리 용어인 울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오직 몇 가지 예이다.

-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렘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욥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1) 지구, 시 78:69; 104:5; 전 1:4
    - (2) 하늘, 시 148:6
  - ㄹ. 하나님의 존재하심
    - (1) 창 21:33
    - (2) 출 15:18
    - (3) 신 32:40

- (4) 시 93:2
- (5) 사 40:28
- (6) 램 10:10
- (7) 단 12:7
- ㄱ.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램 32:40; 50:5
- ㄴ. 다윗과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 ㄷ.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 ㄹ.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 (2) 레 6:18,22; 7:34; 10:15; 24:9
  - (3) 민 18:8,11,19
  - (4) 시 119:89,160
- ㅈ. 하나님의 약속
  - (1) 삼하 7:13,16,25; 22:51
  - (2) 왕상 9:5
  - (3) 시 18:50
  - (4) 사 40:8
- ㅊ.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땅
  - (1) 창 13:15; 17:18; 48:4
  - (2) 출 32:13
  - (3) 대상 16:17
- ㅋ. 언약적 절기
  - (1) 출 12:14,17,24
  - (2) 레 23:14,21,41
  - (3) 민 10:8
- ㅌ.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 (1) 왕상 8:13
  - (2) 시 61:7-8; 77:8; 90:2; 103:17; 145:13
  - (3) 사 26:4; 45:17
  - (4) 단 9:24
- ㅍ. 시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
  -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 (5) 찬양하라, 시 61:7; 89:1
-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3.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

- ㄱ. 시 41:13(하나님을 송축함)
- ㄴ. 시 90:2(하나님 자신)
- ㄷ. 시 103:17(여호와와 인자하심)

문맥이 이 용어가 갖는 의미의 한계를 결정지음을 기억하라. 영원한 언약과 약속은 조건적이다(즉, 램 7 장). 이렇게 매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시간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이나 당신의 신약적 조직신학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대하려는 것을 주의하라. 신약은 구약의 약속을 보편화한다.

▣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막 11:20 은 무화과 나무가 다음 날 아침에 말랐다고 기록한다. 이것과 관계된 비유가 눅 13:6-9 에 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자랑삼아 드러내는 종교적 과시주의 및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들에게 지독하게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기 위한 객관적인 교훈이었다.

**개역개정 21:20-22**

<sup>20</sup>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sup>21</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sup>22</sup>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1:21 “진실로” 5:18 의 설명과 특별주제를 보라.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새 시대는 현재의 악한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중대하다(참조, 17:20; 약 1:6-8). 이 시대는 하나님, 그의 말씀, 그의 아들을 믿고/신뢰하는 시대이다! 이 절의 내용은 각 믿는 자들의 뜻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과 관계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했다! 실패에 대한 결과가 따랐다! 이 사건은 이 장의 앞 부분에 있는 성전 청결과 신학적 평행을 이룬다.

▣ “이 산” 이것은 명확하게 보였을 감람 산을 말한다.

▣ “바다” 이것은 사해를 의미하며 역시 감람 산에서 보인다. 구약에서 산이 낮아지고 계곡이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신 야웨께 이방인이 가까이 나아옴과 관련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 문맥을 믿음을 통한 기적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행동으로 억압해 온 이방인(즉, 이방인의 뜰은 상인들의 노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접근함을 말하는 관용어로서 해석해야 한다. 이 문맥을 연속되는 거부의 하나로 보아야만 한다(12-17 절; 28-32 절; 33-46 절; 22:1-14).

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 인간의 조건적 반응과 연결된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명확한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 서구화된 사람들이 성경의 역설을 다루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다. 응답받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믿음이 결합되어야만 한다(마 18:19; 요 14:13-14; 15:7,16; 16:23; 요일 3:22; 5:14-15 과 마 7:7-8; 눅 11:5-13; 18:1-8; 18:9-14; 막 11:23-24; 약 1:6-7; 4:3 을 비교해 보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녀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한다. 18:19 의 기도에 대한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1:23-27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나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21:23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15 절에서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불린 것을 주목하라. 이 세 무리가 산헤드린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임명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유대 지도자를 대표하였다.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다(참조, 21:28; 26:3,47; 27:1).

☐ “예수께서 . . . 가르치실새” 예수께서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참조, 행 3:11; 5:12)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유대 지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셨다.

☐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이런 일”은 성전 청결(참조, 12-16 절), 구전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 또는 예수님의 공적인 기적을 가리킬 수 있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의 출처를 공격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강력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다(참조, 12:24; 막 3:22; 눅 11:15; 요 7:20; 8:48,52; 10:20-21).

21:24-27 이 논쟁은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국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진퇴양난”속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 개월 동안 노력해왔다. 지금 예수는 그들의 전략을 뒤집으셨다.

21:24,25,26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21:26 “선지자” 11:19 의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을 보라.

개역개정 21:28-32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21:28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고대 헬라어 사본들에서 두 아들이 하는 반응의 순서가 다양하다. 이 비유와 23-27 절의 관계에서 아들들이 반응하는 순서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이 비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21:31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진술이었다. 이것은 마 5:20; 8:11-12; 19:24-25,30 과 20:16 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참으로 충격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명백하게 그들을 거부하여 말씀하시고 죄인들과 일반 사람들(그리고 이방인을 의미하는)을 환영하심을 인식했다.

마태는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기를 두려워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33; 12:28; 21:31 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마태가 사용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듣고 있는 유대인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21: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예수님과 요한은 두 가지의 접근을 나타낸다. 요한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왔는데 거부받았다(24-26 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는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으로 비난받으셨다(참조, 마 11:19; 눅 7:34). 둘 다 거부받았다!

“도”라는 용어는 믿음의 삶의 양식(즉, 출 32:8; 신 8:6; 10:12; 11:22,28)을 말하는 구약의 관용어이다. 이것은 교회(그 도)에 대하여 맨 처음 사용된 호칭이었다(참조, 행 9:2; 19:9,23; 22:4; 24:22).

▣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었으며” 이 비유적 설명 뒤에 있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개역개정 21:33-41**

<sup>33</sup>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sup>34</sup>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sup>35</sup>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sup>36</sup>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sup>37</sup>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sup>38</sup>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나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sup>39</sup>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sup>40</sup>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sup>41</sup>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21: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는 막 12:1-12; 눅 20:9-19 과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거부하심을 말하는 가장 강력한 비유이다!

▣ “... 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것은 사 5 장과 명백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포도원은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했다. 이 비유가 세 가지 중 가장 우화적이다.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아들은 메시아를 의미한다(이 장에 있는 각각의 비유에 아들이 있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주목하라).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현재의 문맥에서 새로운 소작인은 그 땅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큰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킨다(참조, 마 28:18-20; 눅 24:46; 행 1:8).

21:41 군중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문장에는 “그 악한 자들(카쿠스)을 진멸(카쿠스)하고”로 번역된 내용에 단어유비가 있다.

**개역개정 21:42-44**

<sup>42</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sup>43</sup>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sup>44</sup>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21:42 “너희가 성경에...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 118:22-23 에서 인용하였다. 원래 이것은 이방인에 의해 거부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거부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일반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역설적인가!

▣ “돌” 구약에서 “돌”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었다(참조, 시 18 편). 사 28:16 에서 이것은 오직 하나의 확실한 기초석으로서 메시아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단 2:34,44-45 에서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되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확실하고 튼튼한 기초석이 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적인 심판이 되실 것이다! 부활의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모퉁이 돌**

- I. 구약의 용법
  - 가.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좋은 기초를 이루는 물질인 돌이라는 개념은 야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시 18:1).
  - 나. 이것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발전되었다(참조, 창 49:24; 시 118:22; 사 28:16).
  - 다. 이것은 메시아에 의한 야웨의 심판을 나타내었다(참조, 사 8:14; 단 2:34-35; 44-45).
  - 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은유로 발전했다.
    - 1. 처음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안전하며 또한 그 위에 놓이는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모퉁이 돌”로 불렸다

2. 이것은 또한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얽은 돌을 가리킬 수도 있다(참조, 슄 4:7; 엠 2:20, 21). 이것은 히브리어 *로쉬*(즉, 머리)에서 온 “머릿돌”로 불린다.
3. 이것은 “열쇠 돌”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며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딘다.

## II. 신약의 용법

- 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118 편에서 여러 번 인용했다(참조, 마 21:41-46; 막 12:10-11; 눅 20:17)
- 나. 바울은 시 118 편을 야웨께서 믿음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과 연결한다(참조, 롬 9:33)
- 다. 바울은 “머릿돌”의 개념을 엠 2:20-22 에서 그리스도께 대해 사용한다
- 라. 베드로는 이 개념을 뱌전 2:1-10 에서 예수께 대해 사용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고 신자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즉, 신자들은 성전(참조, 고전 6:19)으로서 그 위에 지어졌다(예수는 새 성전이다, 참조, 막 14:58; 마 12:6; 요 2:19-20).

## III. 신학적 진술

- 가. 야웨는 다윗/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다.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킨다면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참조, 왕상 9:1-9)!
- 나. 랍비들의 유대교는 형식과 의식을 강조했지만 믿음의 개인적 측면은 소홀히 했다(이 말은 전체가 다 그랬다는 말은 아니다; 경건한 랍비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과 매일 인격적이고 경건한 교제를 하기 바라신다 (참조, 창 1:26-27). 눅 20:17-18 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
- 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개인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쇠이다.
- 라.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존재에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케 됨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목적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새 성전)를 따라 지어진/형성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
- 마. 예수는 우리 믿음의 기초시며 우리 믿음의 머릿돌(즉,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럼에도 그는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그를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21:43 “백성이 받으리라”** 이 구절과 마 22:1-14 에 있는 비유는 연결된 세 가지의 비유가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부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믿게 한다. 이것은 적어도 랍비적 유다주의에 대한 거부였다.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민족들”이었다.

**21:44** NASB 와 NRSV 는 44 절을 본문에 포함시켰지만 RSV, TEV, JB 는 이것을 각주에만 기록하였다. 이 절은 눅 20:18 과 비슷하며 RSV, JB 및 TEV 번역 위원회는 이것이 필경자에 의해 마태복음에 옮겨졌다고 생각한다. UBS<sup>4</sup> 는 이것에 “C”등급을 준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헬라어 본문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또한 많은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에 포함되었다:  $\alpha$ , B, C, K, L, W, & Z 와 또한 크리소스토ム, 시릴, 제롬,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미국인 번역본들. 사실상 이것을 생략한 가장 이른 시기의 헬라어 사본은 6 세기의 사본인 D(♣)사본이다. 이것은 포함되어야만 하는 내용이다.

### 개역개정 21:45-46

<sup>45</sup>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sup>46</sup>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얹어댈라

**21: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다. 얼마나 무서운 아이러니인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다!

**21:46 “선지자”** 11: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세 가지의 비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2. 예수께서 랍비적 유대주의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부하셨는가? 왜 거부하셨는가?
3. 세금 징수원, 창녀와 같은 비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경건하고 보수적이며 성경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잃어버려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참조, 마 5:20,48)
4. 예수님께서 거부하심을 말씀하는 진술과 시 118:22-23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라.
5. 43-46 절은 8:11-12, 19:30; 20:16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마태복음 2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혼인 잔치의 비유 22:1-14	혼인 잔치의 비유 22:1-14	혼인 잔치 22:1-10 22:11-14	혼인 잔치의 비유 22:1-10 22:11-13	혼인 잔치의 비유 22:1-14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22:15-22	바리새인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22:15-22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22:15-22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질문 22:15-17 22:18-19a 22:19b-20 0.43125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 22:15-22
부활에 관한 질문 22:23-33	사두개인들: 부활에 관하여는 어떠하니까? 22:23-33	부활에 관한 질문 22:23-28 22:29-33	죽음에서의 부활에 관한 질문 22:23-28 22:29-32	죽은 자의 부활 22:23-33
큰 계명 22:34-40	서기관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것이니까? 22:34-40	대위임 22:34-40	큰 계명 22:34-36 22:37-40	모든 것 중 가장 큰 계명 22:34-40
다윗의 자손에 관한 질문 22:41-46	예수님: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22:41-46	다윗의 자손 22:41-46	메시아에 관한 질문 22:41-42b 22:42c 22:43-45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22:41-46
-44				-44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22:1-14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 가장 마지막 내용이다(참조, 21:23). 이 비유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 랍비적 유대주의, 또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표시였던 예수님의 성전 청결(참조, 21:12-17)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참조, 21:18-22)하는 문맥에서 발견된다.
- 나 이 비유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그들이 누구를 말하며 누구에게 적용되는 내용인가이다.
1. 유대의 지도자 대 보통 유대 사람(참조, 21:31)
  2. 유대인 대 이방인(참조, 21:41,43; 22:3-5,8,9,10)
  3. 회개하지 않고 냉담한 사람들 대 회개한 겸손한 사람들
- 다. 1-14 절에는 아마도 두 가지의 비유가 있다. 왜냐하면
1. 원문에서 1 절은 비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타난다.
  2. 1-10 절과 11-14 절 사이에 특별히 결혼 예복과 관계된 내적, 문맥적인 연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또한, 1-14 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1. 왕임이 틀림없다
  2. 왕의 종들이 틀림없다
  3. 7 절은 아마도 복음서 저자 자신일 것이다.
  4. 14 절은 아마도 예수 자신의 설명일 것이다
- 마. 문자적인 문맥에서 세 가지 비유는 아마도 다음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1.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세례)요한에 대한 거부이다.
  2.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에 대한 거부이다.
  3.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이다.
- 바. 아마도 1-10 절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함당치 않고 분수에 지나친 은혜를 나타내는 반면, 11-13 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비유는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리를 세울 수는 없지만 같은 진리가 었 2:8-10 에 반영된다. 우리는 노력의  댓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다.
- 사. 이 비유는 여러 면에서 눅 14:16-24 과 비슷하다.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여러 다른 문맥에서 같은 가르침의 이야기를 사용하셨다.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들은 영감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고르고, 결합하고, 요약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을 뿐이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을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에서 설교”(참조, 눅 6 장)와 비교해 보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개역개정 22:1-10

<sup>1</sup>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sup>2</sup>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sup>3</sup>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sup>4</sup>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sup>5</sup>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sup>6</sup>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sup>7</sup>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sup>8</sup>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sup>9</sup>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sup>10</sup>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22:1 “비유로”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음을 주목하라

1. 마태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결합시켰다
2. 예수님은 다른 진리를 표현하시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때에 사용하셨다
3. 예수님은 단지 우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계셨다(참조, 막 4:10-12)

22:2 “천국” 이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사역에서 계속되는 주제이다(4:1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당면한 현실이었고 미래의 소망이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날 온 지구에 성취될 것으로 현재 사람들 마음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이다.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이다. 유대인에게 쓰고 있는 마태는 하나님 이름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자제하고 있다.

▣ “자기 아들... 어떤 임금” 비록 비유를 우화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지 않지만, 여기서의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 21:28-22:14에 있는 세 개의 모든 비유에서 “아들”이 이야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 비유에서 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혼인 잔치는 메시아의 연회로 암시된다(참조, 마 8:11; 눅 13:29; 14:15; 22:16; 계 19:9,17).

22:3 “그 청한 사람들” 이것은 문자적으로 “불려진 사람을 불러라”였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번의 초대가 주어지는 것이 관습이었다: 처음의 초대와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또 알리는 통지.

▣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것은 반복적인 거부를 나타내는 미완료형 시제이다.

22:4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 용어는 매일있는 두 번의 식사 중 첫 번째의 것을 가리킨다(참조, 눅 14:12).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오전(오전 9시-12시)의 식사와 황혼 때(오후 3시-6시)의 식사가 있었다. 이 식사는 여러 날 계속될 잔치의 시작이었다.

22: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이것은 왕의 초대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로 쉽고 분명하게 전이된다.

▣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이것은 눅 14:18-19과 비슷하다. 그들의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냉담한 것이 심각한 잘못이다.

22:6 이 절의 폭력은 충격적이다. 혼인 잔치의 초대를 거부하는 반응에서 이러한 종류의 반발로 사람들은 놀란다. 중동 지역에서 왕의 초대에 거부하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는 무례함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앞에 나오는 비유(참조, 21:35)와 관계된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기교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다;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거부한다(즉, 다소의 사울).

22:7 왕에 대한 반발은 어울리지 않게 보인다. 왕의 초대에 대한 거부는 실제로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어떤 주석가들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나중에 황제가 된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역사적 파괴와 7절이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에 이것을 첨가했다고 단언한다. 나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다루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마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경향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다. 비록 나는 복음서 저자들이 영감 아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르고, 채택하고, 재조정하고 요약한 것에 동의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전혀 하시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냈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22:8 이것 역시 눅 14:21-23과 비슷하다.

22:9 왕은 아들의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했다. 반드시 와야 할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다. 문맥과 15 절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가리켜 말하고 계신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2:10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계속되는 질문은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다.” 문맥상 이들은 배척당한 가난한 유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다.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용어는 장로들의 구전(즉, 15:2)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그들의 자발성과 능력을 가리킬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댓가 없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누가 응답할 것인가?

#### 개역개정 22:11-14

<sup>11</sup>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sup>12</sup>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sup>13</sup>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sup>14</sup>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22:11 “예복”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주석가들은 9-10 절 그리고 11 절 사이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9-10 절에서 연회의 준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는데 11 절에서는 그것을 요구한다. 어느정도 제한된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주인이 특별한 연회 예복을 공급했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거절했거나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12 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처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2:13 앞에 있는 6 절과 7 절처럼 13 절은 충격적인 진술이다. 아마도 이 모든 절은 동양적인 과대 진술(과장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참조, 6-7 절)하고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거절(참조, 13 절)한 범죄에 합당하다.

▣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마태복음에서 일반적으로 종종 사용하는 관용구였다(참조, 8:12; 13:42,50; 22:13; 24:51; 25:30). 이것은 종말론적 상태(참조, 24:51)이며 또한 현실적인 상태(참조, 눅 16:19-31)임을 의미한다.

22:14 이것은 해석상 어려운 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절이 11-13 절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2-10 절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 절은 모든 이에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즉, 요 1:12; 3:16; 딤후 2:4; 4:10; 딤후 2:11; 뱀후 3:9).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합당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 성령이 간청하심으로 전달하시는(참조, 요 6:44,65) 예수님의 복음에 인간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참조, 막 1:15; 행 3:16,19; 20:21).

이 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참조, 행 3:26; 롬 1:16; 2:9).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즉, 롬 9-11 장). 전체 문맥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가 뒤바뀔 것(참조, 19:30; 20:16)이라는 진리를 표현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비유가 21 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2. 1-14 절에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3. 3-5 절에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4. 10 절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5. 6,7,13 절에 나타난 그렇게 격렬한 폭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6. 14 절이 1-14 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역개정 22:15-22

<sup>15</sup>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sup>16</sup>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sup>17</sup>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sup>18</sup>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sup>19</sup>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sup>20</sup>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sup>21</sup>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sup>22</sup>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22:15 “바리새인”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바리새인

- I. 이 단어는 다음중 하나의 기원을 가졌다:
  - 가. “분리한.” 이 그룹은 마카비안 기간 동안 발전되었다. (이 생각이 가장 넓게 받아들여진다).
  - 나. “나누다.” 이것은 같은 히브리어 어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해석가를 의미한다고 말한다(참조, 딤후 2:15).
  - 다. “페르시아 의.” 이것은 같은 아람어 어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바리새파의 어떤 교리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매우 공통적이다.
- II. 그들은 마카비안 기간 동안 “*하시담*”(경건한 사람들)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에세네파와 같은 그룹들은 안티오쿠스 IV 에피파네스에 반대한 반헬라주의에서 나왔다. 그 바리새인들은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에서 처음 언급된다.
- III. 그들의 중요한 교리들.
  - 가. 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 이것은 예녹 I서와 같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 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사두개인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바리새인의 교리의 많은 부분은 사두개인들의 것과 신학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 다. 지상에서의 삶에 기초한 신체를 가진 후세의 삶, 이것에는 상과 벌이 연관된다(참조, 단 12:2).
  - 라. 구약과 구전 전통(탈무드)에 둔 권위, 그들은 랍비(보수적인 삼마이 학파, 자유적인 힐렐 학파)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랍비들의 해석은 보수적이고 자유적인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랍비들 사이의 대화에 기초를 둔다. 성경의 의미에 대한 구두로 된 토론은 결국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와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들은 모세가 이와 같은 구전 해석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믿었다. 이러한 토론의 역사적 시작은 에스라와 “대 회당”(후에 산헤드린이라 불려짐)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다.
  - 마. 잘 발전된 천사론, 이것은 선하고 악한 영적 존재를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문학에서 발전되었다.

▣ “**상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짰던 수많은 시간과 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태는 이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12:14; 22:15; 26:4; 27:1,7; 28:12).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임수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 심지어 헤롯 당원들과 의논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두 쪽 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위협을 느꼈다. 미움은 이상한 “동료”를 만든다!

22:16 “**헤롯 당원들**” 2:1의 특별주제를 보라.

▣ “**선생님이여**” 종교 지도자의 그룹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 아첨을 하고 있다(참조, 15 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라.

1. 우리는 당신이 참되신 것을 안다
2. 우리는 당신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안다
3. 우리는 당신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것을 안다
4. 우리는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안다(문자적으로 “얼굴을 들어 올리지 않다”)

만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말로 이 진술들을 믿었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겠는가?

**22:17 “옳으니이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구전을 따르는 것을 의미했다(즉, “장로들의 전통,” 15:2). 예수님은 “어떤 것/또는”이라는 질문을 “둘 다/그리고”라는 질문으로 바꾸신다(참조, 21 절).

▣ **“세금”** 이것은 황제에게 직접 갔던 로마의 세금이었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속주에 살고 있는 14-65 살의 모든 남자와 12-65 살의 모든 여자에게서 징수되었다.

**22:18 “시험”** 이 헬라어 단어는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1의 특별주제를 보라.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 세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의 대답은 로마의 권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유대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 것이다.

▣ **“의식하는 자”** 이것은 합성어로서 “~아래서 판단하다”를 의미했다(참조, 6:2,5,16; 7:5; 15:7; 16:3; 23:13,15,25,26,27,29; 24:51). 이것은 실제의 삶이나 느낌이 다름에도 이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2: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돈은 “테나리온”이었다. 이것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다. 앞면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글과 함께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었다. 뒷면에는 티베리우스가 왕좌에 앉아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주후 14-37 년에 로마제국을 통치했다. 주화는 누가 정부를 통치하는가를 상징했다. 17:24의 특별주제: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한 동전들을 보라.

**22:21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바치라”** 성경은 믿는 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정부가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가 어떤 종류든지 그 정부 당국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한다(참조, 롬 13:1 이하; 딤후 3:1; 벧전 2:13). 예수님께서 17 절에 있는 단어 “바치라(pay)”를 21 절에서 “바쳐서 돌려주라(pay back)”로 바꾸신다.

▣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 정부가 세워졌지만, 마치 정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에 대한 충성을 정부가 요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궁극적인 권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궁극적인 권위를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와 정부를 나누려는 현대의 정치적 이론의 기초를 주의해야만 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서양 역사가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당신은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에 있던 모든 종교적 정치적 그룹의 이름을 말하고 이를 정의할 수 있는가?
2. 왜 이 그룹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애썼는가?
3. 21 절의 예수님의 진술이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2:23-33

<sup>23</sup>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sup>24</sup>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sup>25</sup>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 주고 <sup>26</sup>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sup>27</sup>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sup>28</sup>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sup>29</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sup>30</sup>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sup>31</sup>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sup>32</sup>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sup>33</sup>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22:23 “사두개인들” 2:4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 질문 역시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논쟁의 쟁점이 되는 주제를 피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유대인의 대중으로부터 이간시키려 했음을 의미했다.

22:24 “모세가 일렀으되” 이것은 신 25:5-6 의 인용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이것은 “역연혼”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참조, 신 25:5-6; 룻 4:1-2). 이 용어는 “법적 형제(시숙)”라는 라틴어에서 왔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중요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졌다(참조, 창 12:1-3).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지파별로 제비뽑기에 의해 땅을 나누어 주셨다. 남자의 후손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가 받은 땅에 대하여 질문이 생긴다. 유대인들은 과부된 여자가 가능하다면 가까운 친척의 남자를 통해 아이를 갖음으로 죽은 남편의 소유가 그 아이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 아이는 죽은 형제의 아이로 여겨졌다(참조, 민 27 장과 룻 4 장).

22:25 “칠 형제”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정말 신학적 지식을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비난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을 나타낸다!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혼동시키고 당황케 하는데 이 신학적 논쟁을 여러 차례 사용해 왔었다.

22:29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진술은 종교 지도자들을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참조, 21:42)! 그러나 예수님이 지식을 알려 주기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은 불확실하다.

22:30 “부활 때에는” 예수께서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에 지지하시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셨다(참조, 단 12:1-2 또는 아마도 욥 14:7-15; 19:25-27).

▣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진리였다. 이것은 성(sexuality)이 단지 시간적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었지만(참조, 창 1:28; 9:17) 영원한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되는 놀라운 육체적 교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더욱 친밀하게 나눌 교제로 대체될 것을 의미할 것이다.

▣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은 천사들이 성적인 면을 갖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천사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을 재생산하지 않는다. 많은 주석가들은 창 6:1-4 이 천사들의 성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절을 사용하지만, 유 6 절과 아마도 뵤전 3:19-20 에서 오히려 옥(타타루스는 사악한 자들을 위한 지옥의 한 부분의 이름이었다)에 가두어진 천사들의 어떤 특별한 그룹을 언급하고 있다.

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리고 족장들의 하나님이셨고 아직도 그러함을 역설하시기 위해 출 3:6 의 현재 시제를 말하는 히브리 동사 “나는 ~이다(I AM)”를 가지고 예수님은 랍비적 단어유회를 사용하셨다.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세오경(창세기-신명기)의 본문을 사용하셨다.

22:33 그들은 예수께서 랍비적 전통을 인용하지 않고 구약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참조, 7:28; 13:54).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셨다(참조, 5:21-48).

개역개정 22:34-40  
34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2:35 “한 율법사” 마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어디에서도 이 용어를 “변호사”라고 사용한 적이 결코 없다. 이 용어는 눅 10:25 를 복사한 필경자에 의해 동질화되었을 것이다. 누가는 이 용어를 종종 사용했다(참조, 7:30; 10:25; 11:45,46,52; 14:3).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막 12:28 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어는 거의 모든 헬라어 사본에 현존한다. 유대의 종교 율법사 제도는 바벨론 포로 기간동안 발전했다. 에스라가 이 그룹의 대표였다(참조, 스 7:10). 여러 면에서 이 율법사들은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기록된 법과 입으로 전해진 법(탈무드)에 관계된 실제적인 질문에 답을 주어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 “예수를 시험하여” “유혹하다,” “시도하다,” “시험하다,” “시험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 동사(페이라제)는 “과피를 목적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을 내포한다(4:1의 특별주제를 보라, 참조, 4:1; 16:1; 19:3; 22:18,35; 또한 6:13; 26:41의 명사).

22:36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랍비는 모세의 기록(창세기-신명기)에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과 365개의 부정적 계명 즉, 전체 613개의 율법이 있음을 단언했다.

22:37-38 가장 큰 계명은 신 6:5에 진술되었다.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과 예수님의 인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본질은 같다. 이 절은 사람의 본질을 돌로 나누거나(참조, 히 4:12) 썩으로 나누어서(참조, 살전 5:23)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됨으로 사람을 다루는 점에 있다(참조, 창 2:7; 고전 15:45):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며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땅의 동물(포유류)이기 때문에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음식, 물, 공기, 모든 것을 이 행성에 의존하듯이 인간 또한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또한 하나님 그리고 영의 영역과 관계를 갖는 영적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본질의 다른 등급에서 신학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절의 핵심은 세번 반복된 “모든” 것에 있는 것이지 “마음,” “목숨,” “뜻”을 따로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언의 인용으로써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서로 연결시키셨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다. 야웨는 지금 삼위의 일체로서 드러나신다. 한 분이심이 재정의 되고 있다! 신약의 신자들은 유일신을 확실히 주장하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갖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약의 저자들은 시 110:1의 의미ಗೆ 이에 대조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참조, 고전 8:6; 엡 4:5; 빌 2:11). 분명히 여기에 비밀이 있다! 3:17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22:39 둘째 계명은 서기관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는 자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간을 미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참조, 요일 2:9,11; 3:15; 4:20). 이것은 레 19:18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22:40 예수님은 구약에 통합된 중심이 있음을 단언하셨다(즉, 언약적 사랑, 참조, 7:12; 막 12:31; 롬 13:8-10; 갈 5:14). 구약의 두 가지 계명은 분명히 신약의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닮음으로서 표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4:7-21).

#### 개역개정 22:41-46

<sup>41</sup>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sup>42</sup>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sup>43</sup>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sup>44</sup>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sup>45</sup>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sup>46</sup>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2:41-42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께 여러 질문을 하였고, 이제 예수께서 그들의 영적 이해의 부족함을 나타내기 위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다(참조, 21:24-27).

22: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다루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아들”을 받아들여셨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메시아의 일반적인 칭호였다(참조, 9:27; 12:23; 15:22; 20:30; 21:9,15).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되심을 명확히 주장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육신이 아닌 사사들과 같은 신적 권능을 지닌 자를 기대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와 메시아의 신적 계보를 보이기 위해 시 110편(참조, 44절)을 사용하셨다.

22:44 시 110편을 메시아에 대한 본문으로 사용하신 것이 26:64에서 발견된다. 시 110:1의 히브리어 본문은 야웨(LORD)와 아도나이(Lord) 용어의 유희였다. 야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도나이는 메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14 절에 있는 비유에서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2. 당신은 13 절에 있는 난폭한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15-22 절이 교회와 정부의 분리에 대한 현대의 문제를 말하는가?
4.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에 있던 정치적 종교적 그룹의 목록을 나열하고 설명하라.
5.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노력하였는가? (15 절)

# 마태복음 2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	예수께서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과 자만
23:1-12	23:1-36	23:1-12	23:1-12	23:1-7 23:8-12
23:13		23:13-15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을 비난하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일곱 가지의 징벌
23:14			23:13	23:13
23:15			23:14	23:14(없음)
23:16-22		23:16-22	23:15	23:15
23:23-24		23:23-24	23:16-22	23:16-22
23:25-26		23:25-26	23:23-24	23:23-24
23:27-28		23:27-28	23:25-26	23:25-26
			23:27-28	23:27-28
23:29-36		23:29-36	예수께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예언하시다	
			23:29-36	23:29-32
				그들의 죄와 다가오는 형벌
				23: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슬퍼하시다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의 사랑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23:37-39	23:37-39	23:37-39	23:37-39	23:37-39 (39b)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권력자 사이에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 나. 예수께서 자주 그들에게 접근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민족주의적인 개념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질문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그들의 질문은 주로 두 논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 랍비적 학파인 힐렐(자유적)과 샴마이(보수적)학파 사이에 관한, 또는 (2)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그룹이든지 그들 가운데 한 그룹과 멀어지기를 원했다.
- 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참조, 요 2:15 과 마 21:12-17)은 이 갈등을 증대시켰다.
- 라. 이스라엘의 상징(참조, 마 21:18-22)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와 거부에 관계된 두 가지 비유(참조, 마 21:28-46)는 예수께서 이들과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었다.
- 마. 이 장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거부하심에 있어서 최고점을 이룬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거부하신 것인지 또는 단순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거부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 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평과 평행을 이루는 성경구절은 막 12:38-40; 눅 11:39-54; 20:45-47 이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가운데 가장 혹독한 말씀을 하셨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3:1-12

<sup>1</sup>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2</sup>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sup>3</sup>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sup>4</sup>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sup>5</sup>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sup>6</sup>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sup>7</sup>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sup>8</sup>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sup>9</sup>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sup>10</sup>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sup>11</sup>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sup>12</sup>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23:1 “예수께서 무리 . . .에게 말씀하여”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공적인 비난이었다. 비록 뒤따르는 말씀이 모든 바리새인들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취한 특징적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23:2 “서기관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록된 법(구약성경)과 입으로 전해지는 법(탈무드)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각 지역에서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그들은 각 지역의 레위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구약의 기능을 대신했다. 12:38의 특별주제를 보라.

▣ “바리새인들” 이들은 마카비 시대에 형성된 헌신적 유대인의 무리였다. 그들은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과 구전을 중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였다. 모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의 기원과 신학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위해 22:15의 특별주제를 보라.

▣ “모세의 자리” 이것은 지역에 있는 회당이나 유대인의 모임에서 가르치는 위치를 말한다.

23:3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께서 두 명령을 하신다.

1. “행하라,” 부정과거 능동 명령
2. “지켜라,” 현재 능동 명령

만일 그들이 율법에 있는 진리를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선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생활양식과 태도는 그들의 인격을 드러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7:15-23 에 묘사된 거짓 교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참조, 7:24-27)를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참조, 사 6:9-10; 29:13)에 따라 행동했다!

**23:4 “무거운 짐을 묶어”** 이것은 가족에게 과부하의 또는 적당치 않은 짐을 부리는 것을 가리키는 문화적 은유이다(참조, 11:28-30). 종교적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갖지 않았다(참조, 눅 11:46; 행 15:10).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지킬 수 없었다(참조, 롬 2:17-24).

헬라이어 사본은 이 절에 있어서 변이를 보인다. “옮기기 어려운”이 원래의 것인지 아니면 눅 11:46 에서 동화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23:5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들은 종교적인 전시자들이었다(참조, 마 6:2,5,16).

▣

NASB

“그들이 그들의 경문을 넓게 하다”

NKJV, NRSV

“그들이 그들의 경문을 넓게 만들다”

TEV

“성경 구절을 적어 그들의 이마와 팔에 맨 것의 띠를 보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주목하라”

JB

“더 넓은 경문을 맨”

NJB

“더 넓은 머리띠를 맨”

검은 가죽 상자에는 출 13:3-16, 신 6:4-9, 또는 신 11:13-21 의 구약 본문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바로 눈 위의 이마에 찼다. 이 행위는 출 13:9; 신 6:8 과 11:18 절을 지나치게 글자 그대로 이해한 것이었다. 이 본문들은 믿는 자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의 이마 위에 검은 상자를 두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

NASB

“그들 옷의 술을 길게하다”

NKJV

“그들 옷의 가장자리를 넓게 하다”

NRSV

“그들의 긴 술 장식”

TEV

“그들의 망토의 술이 얼마나 긴가!”

JB

“더 긴 술”

이것은 그들의 예복이나 어깨에 걸치는 옷 위의 푸른 색 장식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토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였다(참조, 민 15:38; 신 22:12).

**23:6** 20:20-28 에서 이것은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에서 같은 유혹과 연결되었다.

**23:7 “랍비”** 아람어로 이것은 명예를 주는 호칭이었다(“나의 선생님”). 이런 호칭(랍비, 아버지, 지도자)이 비평을 받는 이유는 1 세기의 유대교에서 이것이 자랑이나 교만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도자들은 이런 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공인 본문을 따르고 있는 NKJV 는 “랍비”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다. 이것은 (1) 장엄함을 더하거나 (2) 애정을 나타내는(참조, 37 절) 문화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헬라이어 본문(별게이트처럼 K 와 B)들은 이것을 오직 한 번만 사용한다.

**23:8-10**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주목하라. 예수님(그리고 마태)은 유일신 주의에 모순이 있다고 보시지 않았다. 22:37-38 의 둘째 단락을 보라.

1. 너희 선생은 하나요(성부 혹은 성자를 말할 것이다, 22:36)
2.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두 번)
3.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23:8 “너희는 다 형제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등하다(즉, 창 1:26-27). 그러므로 우리는 등급이나 호칭에 주의해야만 한다! 신약성경에 “성직자”나 “평신도”사이에 구별이 없다. 또한 그외의 다른 구별이 없었다. 롬 3:22; 고전 12:12-13; 갈 3:28; 골 3:11 을 주목하라.

**23: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20:25-28 과 막 10:42-44 에서도 토론하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진술인가! 이것은 세상의 태도와 두드러지게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참된 큰 자의 표시이다.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것은 성경의 계속되는 주제이다(참조, 욕 22:29; 잠 29:23; 눅 14:11; 18:14; 약 4:6; 벧전 5:5).

**개역개정 23:13-14**

**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없음)**

**23:13 “화 있을진저”** 이 본문(13-36 절)은 “일곱 화”로 알려져 있다. 마태는 종종 일곱을 사용하여 그의 복음을 구성했다. 화는 축복의 반대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평행을 이루는 부분에 누가는 복에 네 가지 “화”를 첨가했다(참조, 5:3-11 대 눅 6:20-26). 구약에서 “화”라는 용어는 예언적 “만가”나 “애가”의 시작 부분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장례 음악처럼 구성되었다(즉, 히브리어의 장단이나 운율, 시의 강조된 행).

▣ **“외식하는”** 이 “~아래서 판단하다”는 헬라어 합성어였다. 이것은 가면을 쓰고 극이나 연극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연극적인 용어였다. 이것은 6:2,5,16; 7:5; 15:7; 16:3; 22:18 에서 이미 사용되었고 또한 24:51 에서도 사용된다.

▣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것은 “천국 열쇠”와 같은 용법이다(참조, 16:19; 계 1:18; 3:7).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임을 갖게 하는가! 현대의 세속적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 삶, 우선순위를 통하여 현대교회가 제시하는 예수님을 예수께서 더 많이 거부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행한 일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이 있는가?

이것은 충격적이고 슬픈 진술이다(반어적 표현)

1. 종교지도자들 자신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다. (참조, 5:20)
2. 종교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빗나가게 인도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되는 것을 막았다(참조, 15:14; 23:16,24; 24:24; 롬 2:19)

▣ **“들어가다”** 이 동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적 왕국에 속하는 것을 나타낸다(즉, 렘 31:31-34 의 새 언약).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5:20; 7:21; 18:3; 19:23-24; 23:13 을 보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즉, 요 1:12; 10:7-18; 14:6; 롬 10:9-13).

**23:14** 이 절은 헬라어 대문자체 A, B, D, L 사본이나 대부분의 번역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마태복음 본문은 아닐 것이다. 막 12:40 이나 눅 20:47 을 복사하여 여기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몇몇 후기 헬라어 사본에서는 14 절이 13 절 앞에 있으며 또 다른 사본에는 14 절이 13 절 뒤에 있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은 이 절을 제외시킨 것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개역개정 23:15**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15 “외식하는”** 6: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 종류의 유대인 개종자가 있었다: (1) 할례받고 스스로 침례(세례)를 받고 희생을 드리던 자들—그들은 “문의 개종자”라고 불렸다 (2) 정기적으로 회당에 참석했던 자들—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불렸다.

▣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진술이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에 대해 불쾌해 하셨다! 이것은 5:20 에 있는 예수님의 진술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문화적 기대에 대한 중대한 반전이다.

▣ **“지옥” 케헨나** 라는 이 용어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 “골짜기”와 “힌놈”에서 왔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정남쪽 도벳 골짜기에서 페니키아인이 섬기던 다산의 불의 신에게 어린아이를 희생물[몰렉](참조, 왕하 16:3; 17:17; 21:6; 대하 28:3; 33:6)로 드리며 섬긴 곳이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지상의 은유로 사용하셨다.

이 용어는 약 3:6 을 제외하고는 오직 예수께서만 사용하셨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는 무서운 결과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지 않았다(참조, 25:46).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영원한 결별이 실제함을 확인하셨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다. 지옥은 사람에게 비극일 뿐 아니라 결코 치료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생긴 아물지 않는 상처이기도 하다! 5:22 의 특별주제: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를 보라.

**개역개정 23:16-22**

<sup>16</sup>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sup>17</sup>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sup>18</sup>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sup>19</sup>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sup>20</sup>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यो <sup>21</sup>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यो <sup>22</sup> 또 하들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16 “눈 먼 인도자” 이것은 종교 지도자를 풍자하는 은유이다(참조, 15:14; 23:16,24).

23:16-22 “~으로 맹세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맹세의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광범위한 체계를 발전시켰다(참조, 5:33-37; 약 5:12). 이것은 종교적 모양의 거짓말을 허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참조, 레 19:12; 신 23:21).

▣ “어리석은” 5:22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3:23-24**

<sup>23</sup>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sup>24</sup>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23 “외식하는” 6:2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그들의 율법주의(참조, 레 27:30-33; 신 14:22-29)를 따라 아주 적은 향료에 이르기까지 10 퍼센트를 정확하게 재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은 정의, 사랑, 충성을 무시했다. 신약에서 여기 말고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신약에서 드림에 대한 중심은 퍼센트에 있지 않다(참조, 고후 8-9 장)!

신약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새로운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는 것(기독교 탈무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뻐했음이 틀림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에서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그러나 신약에서 재확인하고 있지 않은 옛 언약의 규칙을 이끌어 내어 특별히 제약이 일어난다거나 번영을 약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교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특별주제: 십일조**

이것은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십일조의 언급이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이 자잘한 일까지 흠을 잡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약이 십일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일반적인 드림(어떤 것이든지)에 대한 신약의 지침은 십일조를 훨씬 능가하는 내용으로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일 단지 구약의 지식만 가진 유대인이 10-30 퍼센트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다면(구약에는 십일조에 대한 둘 혹은 세 가지의 명령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시간을 들여 십일조에 대하여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

신약의 신자들은 기독교가 새로운 율법의 준행을 요구하는 것(기독교 탈무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신약에서 재확인하지 않은(참조, 행 15 장) 옛 언약의 규칙을 이끌어 내어 특별히 제약이 일어난다거나 번영을 약속한다(참조, 말 3 장)고 주장(현대 설교자들에 의해)하는 내용으로 교리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다음은 프랭크 스태그가 이것에 대해 한 말이다, *신약 신학* 292-293 쪽.

“신약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드림의 은혜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신약에서 십일조를 오직 세 번 언급한다: (1) 심지어 정원의 소출에 대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한다는 비평에서(마 23:23; 눅 11:42) (2) 자기는 매주 2번씩 금식했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렸다고 ‘자신에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교만을 폭로하는 본문에서(눅 18:12) (3) 벨기세택의 높음을, 그러므로 레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높음을 주장하는 본문에서(히 7:6-9)이다.

“예수께서 성전 체계의 일부분으로 십일조 하는 것을 인정하셨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또한 원리와

행함을 위한 성전과 회당의 일반적인 관습을 지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르는 자들에게 성전 예식의 어떤 부분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셨다는 지적은 없다. 십일조는 대부분 농산물이었다. 먼저 십일조를 한 사람이 성전에서 먹었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었다. 구약에서 진술된 십일조는 동물 희생의 체계 위에 세워진 종교적 제도에서만 실행될 수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가 드림을 위한 적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임을 발견한다.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율법적 체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행복한 내용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신약에서 십일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근거있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 지켜야 할 의식으로 인식된 것이지(마 23:23; 눅 11:42) 그리스도인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관점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오늘날의 십일조는 유대인의 희생체계에 속한 고대의 의식적 관습과 희미하게 닮았을 뿐이다.”

폴 스테그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십일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할 의무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를 확일적으로 강요함에서가 아니라 각 신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이는 신자가 구약의 관습을 좇아 행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십일조가 구약의 관습과 관계가 있다면 이는 기껏해야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전과 제사장 조직 및 사회적 종교적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부과되었던 것과 매우 희미한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 주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유대교에서 의무조항으로 부과했던 십일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와 신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매우 빈번히 십일조를 특징짓는 강제성, 율법주의, 돈 벌이의 동기, 거래의 이유에서 행해지는 십일조는 신약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체계에서는 많은 부분을 십일조를 드린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십일조는 반드시 은혜를 따라 구속받은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십일조는 드리는 것이 효과있다’라는 주장은 단지 세상의 실용적인 생각이 주는 유혹을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이 “효과있다”라고 말해진다. 만일 신약 신학의 맥락에서 십일조를 드리고자 한다면, 십일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22:24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부주의해서 불결한 곤충을 삼키지 않으려고 옷감으로 마실 물을 걸렀지만, 사랑이 없는 그들의 율법주의의 실체는 회화적으로 묘사할 때 그들이 불결한 낙타를 삼키는 자들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람어의 하루살이인 “갈까”와 낙타인 “갈라” 사이의 언어유희였다. 이것은 동양적인 과장법이다. 예수께서 과장법으로 종종 낙타를 사용하셨다(참조, 19:24; 막 10:25; 눅 18:25).

#### 개역개정 23:25-28

<sup>25</sup>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sup>26</sup> 눈 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걸도 깨끗하리라 <sup>27</sup>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sup>28</sup>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3:25 “외식하는” 6:2의 특별주제를 보라.

▣ “잔의 . . . 겉은 깨끗이 하되” 그들은 의식적인 정결에는 매우 신경을 썼지만 그들의 태도와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참조, 사 29:13). 그들은 안에서부터 더러웠다(즉, 마음, 참조, 막 7:15,20). 의의 새로운 기준(즉, 새 언약, 참조, 렘 31:31-34; 겔 36:22-38)은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고 갈보리에서 치루시고 부활의 주일에 확인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다!

23:27 “회칠한 무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행해 온 순례자들이 실수로 무덤을 만져서 칠일 동안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또한 그 일로 인해 절기에 참석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기가 있기 전에 무덤에 흰색을 칠했을 것이다(참조, 민 19:16; 31:19). 새롭게 색칠된 무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신앙심이 깊은 체하는 것과 흡사했다.

#### 개역개정 23:29-33

<sup>29</sup>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sup>30</sup>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sup>31</sup>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도 <sup>32</sup>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sup>33</sup>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23:29 “외식하는” 6:2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위해 큰 무덤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참조, 34-35 절). 구약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여기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23:30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거짓된 약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거짓된 결과가 나온다.

23:33 “뺨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대로(“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예수께서 항상 온순하시고 부드러운 것은 아니었다(참조, 3:7; 12:34).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교적 외식은 예수님의 가장 엄한 비난을 자초했다—아직도 그렇다!

▣ “지옥” 5:22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3:34-36

<sup>34</sup>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sup>35</sup>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sup>36</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23:34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예수께서 “내가”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라)은 하나님의 택하신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을 계속하신다(참조, 21:34-36; 23:37).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로 작정했다(참조, 사 6:9-13; 29:13; 렘 5:20-29)! 11:9의 특별주제: 신약의 예언을 보라.

▣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에 대한 이 예언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극적으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종종 타락한 인간 및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항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적대행위를 받았다.

23:35 “흘린 ... 피”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쏟았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체오**는 “붓다”를 의미한다. 강조된 형태인 **액체오**는 두 가지의 발전된 의미를 가진다.

- 1. 흘려진 순결한 피, 마 23:35; 행 22:20
- 2. 드러진 희생, 마 26:28; 막 14:24; 눅 22:20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갈보리에서 합쳐진다(참조, 콜린 브라운 편, *신약신학의 새 국제 사전*(제 2 권, 853-855 쪽).

▣ “아벨” 창 4:8 이하를 보라.

▣ “스가라” 여기의 스가라가 어떤 선지자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이름으로 알려진 유일한 순교자는 대하 24:2-22에서 발견되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본문과 다르다. 그러나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눅 11:51은 헬라이어 K 사본에 있는 마태복음이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생략한다.

포로시대 이후의 선지자 스가라는 이 이름을 가졌지만 이 본문의 설명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의 다른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아벨은 구약의 첫 번째 순교자였고 대하 24장에 언급된 스가라는 맨 마지막 순교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히브리 정경의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이다.

23:36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한가지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낸다(참조, 10:23; 23:36; 24:34). 예수님은 최종적인 하나님이 대언자였다. 지도자들과 일반적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단지 심판이 있을 뿐이었다. 성령의 새 시대가 왔다!

### 개역개정 23:37-39

<sup>37</sup>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sup>38</sup>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sup>39</sup>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7:37-39 예수님은 분명히 감정이 격하셨다(참조, 눅 13:34,35). 예수님과 성부께서는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었다(사 29:13). 오직 심판만이 언약의 친밀함에 대한 필요를 재개할 수 있었다!

문제는 언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이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바로 전이었는가 아니면 이것이 종말론적 입성을 의미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슥 12:10의 예언이 어느날 실현될 것이다! 롬 9-11 장의 내용인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에덴 동산의 교제를 회복시킬 것이다(참조, 창 3:15).

23:37 “모으려” 이 동사는 또한 마지막 때에 택한 자를 모으는 것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3:12; 13:20,47; 24:31).

▣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야웨와 예수께서 종종 여성적인 은유로써 하나님의 사역과 자세를 표현하셨다(참조, 창 1:2; 출 19:5; 신 32:11; 사 49:15; 66; 9-13).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성(sexes)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은 양쪽 성(sexes)의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

### 특별주제: 보호와 돌봄을 나타내는 은유인 그들

고대근동에서 “그들”에 대한 관용어는 일반적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주목하라.

1. 보호에 관한 관용어, 사 16:3; 30:2-3; 애 4:20
2. “손 그들”에 대한 관용어, 시 121:5; 사 49:2; 51:16
3. “지붕의 그들”에 대한 관용어, 창 19:8
4. “하나님의 특별한 구름”에 대한 관용어, 참조, 출 13:21-22; 14:19,20,24; 사 4:6; 25:4-5; 32:1-2
5. “날개의 그들”에 대한 관용어, 시 17:8; 36:7; 57:1; 61:4; 63:7; 91:1,4(비슷한 은유, 신 32:10-11; 룻 2:12; 사 31:5; 마 23:37; 눅 13:34)
6. “나무의 그들”에 대한 관용어, 삿 9:15; 겔 17:23; 31:6,17; 단 4:12; 호 14:7

23:38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램 22:5의 암시이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또는 다른 미래의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언약이 대체되었다! 이 새 언약은 인종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둔 믿음과 충성심에 기초한다(참조, 램 31:31-34).

23:39 “너희는 . . . 할 때까지” 이것은 승리의 입성(참조, 마 21:9)에서 사용된 내용인 시 118:26-27을 가리킨다. 이것은 유대인이 그들을 찢은 자에게 어느 날 돌아올 것이라는 슥 12:10의 놀라운 메시아적 예언과 비슷하다(롬 9-11 장)! 모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왜 그렇게도 비평적이셨는가?
2.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하여야 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 자세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가?
4. 십일조는 신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원리인가?
5.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부하셨는가?

# 마태복음 2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이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언된 성전의 파괴	예수께서 성전이 파괴됨을 예언하시다	예언된 성전의 파괴	예수께서 성전이 파괴됨을 말씀하시다	서론
24:1-2	24:1-2	24:1-2	24:1-2	24:1-3
재난의 시작	때의 징조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	슬픔의 시작
24:3-14	24:3-14	24:3-8	24:3	
			24:4-8	24:4-8
		24:9-14	24:9-14	24:9-13
				24:14
큰 환난	큰 환난		끔찍한 공포	예루살렘의 큰 환난
24:15-28	24:15-28	24:15-28	24:15-22	24:15-22
			24:23-25	24:23-25
			24:26-27	인자의 오심
			24:28	24:26-28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	이 오심의 우주적 중요성
24:29-31	24:29-31	24:29-31	24:29-31	24:29-31
무화과 나무의 교훈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오시는 때
24:32-35	24:32-35	24:32-35	24:32-35	24:32-36
알려지지 않은 날과 때	아무도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		아무도 그 날과 때를 모른다	깨어 있으라
24:36-44	24:36-44	24:36-44	24:36-44	
				24:37-41
				24:42-44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	양심적인 종의 비유
24:45-51	24:45-51	24:45-51	24:45-51	24:45-5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24:1-36 에 대한 문맥적 통찰(막 13:1-37 과 평행을 이룸)**

- 가. 막 13 장에 대해 내가 한 주해적 설명은 내가 쓴 마가복음과 베드로전후서 주석에서 좀 더 완벽하게 다루어 졌다. 당신은 나의 모든 주석을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볼 수 있다.
- 나.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은 여러 질문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참조, 마 24:3).
1.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인가?
  2. 메시아가 다시오실 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3. 이 시대의 끝은 언제인가?
- 다.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의 문학 형태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언어(다음에 나오는 특별주제를 보라)와 예언적 언어가 결합된 형태로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또한 상당히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 라. 신약의 여러 본문(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17 장과 21 장, 데살로니가전후서, 계시록)이 재림을 다루고 있다. 이 본문들은 다음 내용을 강조한다
1. 사건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일반적인 때를 알 수 있지만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3. 그 사건은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것이다
  4.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만 한다
- 마. 두 가지 즉 (1) 언제라도 일어날 재림(참조, 24:27,44)과 (2)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역설적인 긴장이 있다.
- 바. 신약은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술한다:
1.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참조, 24:14; 막 13:10)
  2. 큰 배교(참조, 24:10-13,21; 딤후 4:1; 딤후 3:1 이하; 살후 2:3)
  3.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참조, 단 7:23-26; 9:24-27; 살후 2:3)
  4. 막는 것/막는 자의 옮겨짐(참조, 살후 2:6-7)
  5. 유대인의 회복(슌 12:10; 롬 11 장)
- 사. 37-44 절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눅 17:26-37 에서 다른 공관복음과 부분적 평행을 이룬다.

**특별주제: 묵시 문학**

(이 특별 주제는 내가 쓴 요한계시록에서 가져 왔다)

계시록은 독특한 유대적 문학 장르인 묵시로 되어 있다. 이 장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것을 나타내는 긴장이 가득한 시기를 다루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장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강하게 나타냄(유일신론과 결정론)
2. 선과 악,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대결(이원론)
3. 암호를 이루는 단어의 사용(일반적으로 구약의 묵시문학 또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묵시문학에서)
4. 색, 숫자, 짐승 때로 짐승들/사람들로 표현
5. 천사들이 환상과 꿈을 중개함, 대개는 천사적 존재의 중개를 통해
6. 마지막 때(새 시대)에 대한 주된 강조

7.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실재가 아니라 잘 알려진 상징들을 사용함
8. 이 장르의 몇 가지 예를 다음의 책에서 볼 수 있다
  - ㄱ. 구약
    - (1) 이사야24-27장, 56-66장
    - (2) 에스겔 37-48장
    - (3) 다니엘 7-12장
    - (4) 요엘2:28-3:21
    - (5) 스가랴 1-6장, 12-14장
  - ㄴ. 신약
    - (1)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전서15장(어떤 면에서)
    - (2) 데살로니가 후서(대부분)
    - (3) 요한계시록(4-22장)
  - ㄷ. 정경 이외의 책(D. S. 럽셀의 책, *유대인의 묵시적 방법과 메시지*, 37-38쪽에서 취함)
    - (1) 에녹1서, 에녹 2서(에녹의 비밀)
    - (2) 주빌리의 책
    - (3) 시빌린의 예언 III, IV, V
    - (4) 열 두 족장의 증거
    - (5) 솔로몬의 시편
    - (6) 모세의 승귀
    - (7) 이사야의 순교
    - (8) 모세의 묵시(아담과 이브의 삶)
    - (9) 아브라함의 묵시
    - (10) 아브라함의 증거
    - (11) 에스드라 II서(에스드라 IV)
    - (12) 바룩 II, III서
9. 이 장르에는 이원적 개념이 나타난다. 이 장르는 이원론, 대조, 혹은 둘 사이의 긴장(요한의 글에서 매우 자주 나타남)으로써 실재를 이해한다:
  - ㄱ. 하늘 - 땅
  - ㄴ. 악한 시대(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 - 의의 새 시대(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천사들)
  - ㄷ. 현재의 상태 - 앞으로의 상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룬다. 하지만 그가 두 번 오심은 현재의 이원론을 가져 왔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4:1-2

<sup>1</sup>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sup>2</sup>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4:1 “성전” 이것은 성전의 전체 구역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이다(히에론, 참조, 막 13:1). 예수께서는 마 21:23 이후부터 그곳에서 가르치셨다. 성전 건물 자체(나오스, 참조, 막 15:38)는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의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었다(참조, 램 7 장).

▣ “건물들” 이것은 흰색의 광택나는 석회석에 금테를 두른 것이다. 헤롯대왕은 이 건물을 46년 이상 걸쳐 완성했다(참조, 요 2:20). 이 사업은 이두메 사람(에돔)이 유대인을 통치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유대인을 달래는 수단이었다.

24:2 “돌” 요세푸스는 헤롯대왕이 광택나는 석회석 혹은 그 석회암의 원산지를 뜻하는 *메제*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이 기초석과 벽을 이루는 이러한 돌들은 11m x 3.5m x 5.5m 규모의 큰 돌이었다(그러므로 이 돌 하나의 부피는 대략 210m<sup>3</sup>가 될 것이다).

▣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강한 문법 구조인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말한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말문을 막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요세푸스는 성전이 있던 모리아 산(참조, 미 3:12; 렘 26:18)에서 땅을 경작할 수 있을 만큼 주후 70년에 로마군이 이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한다.

**개역개정 24:3**

<sup>3</sup>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4:3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 산의 동쪽 능선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전 구역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라고 기록한다(참조, 1 절과 3 절).

▣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막 13:4 과 눅 21:7 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있지만 마 24:3 에는 확장된 질문들이 나타난다. 제자들이 알기 원했던 여러가지 사건들은 (1) 성전의 파괴 (2) 재림 (3) 세상의 끝이었다. 제자들은 아마도 세 가지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여기서 사용된 “임하심”(참조, 마 24:3,27,37,39; 고전 15:23; 살전 2:19; 3:13; 4:15; 5:23; 살후 2:1,8; 약 5:7,8; 벧후 1:16; 3:4,12; 요일 2:28)은 *파루시아*이다.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마 24:3 에서 제자들이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 57 쪽)

- 가. 거짓 선지자나 큰 재난을 마지막 때로 생각하도록 미혹받는 것에 대한 경고
  - 1. 마 24:4-8
  - 2. 막 13:5-8
  - 3. 눅 21:8-11
- 나. 핍박에 대한 예언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
  - 1. 마 24:9-14
  - 2. 막 13:9-13
  - 3. 눅 21:12-19
- 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거민들이 흠어짐과 관계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 1. 마 24:15-28
  - 2. 막 13:14-23
  - 3. 눅 21:20-24
- 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묘사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 1. 마 24:29-31
  - 2. 막 13:24-27
  - 3. 눅 21:25-28
- 마. 예루살렘을 파괴로 이끌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
  - 1. 마 24:32-35
  - 2. 막 13:28-31
  - 3. 눅 21:29-33
- 바.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
  - 1. 마 24:36-44
  - 2. 막 13:32-37
  - 3. 눅 21:34-36

### 특별주제: 재림

이것은 문자적으로 “파루시아까지”로서 “임재”를 뜻하며 왕의 방문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재림을 뜻하는 신약의 다른 용어들은 (1) *에피파네이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출현” (2) *아포칼립스* “베일을 벗김” (3) “주님의 날” 및 이와 비슷한 구이다.

신약 전체는 구약의 세계관으로 쓰였으며 다음을 주장한다

1. 현재의 악한 반역의 시대
2. 오는 의의 새 시대
3. 이것은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약간 수정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에 대한 신학적 가정이 요구된다. 군사적이고 민족주의에 초점(이스라엘)을 둔 메시아의 임하심 대신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오심은 나사렛 예수의 수태와 태어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이였다. 예수께서는 군사적이고 재판관적인 모습이 아닌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또한 수 9:9의 나귀 새끼(전쟁의 말이나 왕의 노새가 아닌)를 타신 겸손한 분이셨다.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 메시아 시대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아직 멀리 있는 일이다. 구약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거나 또는 분명치 않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메시아께서 두 번 오심을 인해 겹쳐져 바로 이러한 긴장이 생긴다. 두 번 오심은 사실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야웨의 헌신을 강조한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선지자들의 설교, 특별히 이사야서와 요나서).

대부분의 예언이 첫 번째 오심을 가리켰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참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165-166 쪽)).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가 영광스럽게 오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바라던 의의 새 시대가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참조, 마 6:10). 구약의 계시는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야웨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심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지만 그 개념이 신약 전체의 세계관이며 골격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다.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도 실패할 수도 없다!

### 개역개정 24:4-8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sup>5</sup>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sup>6</sup>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sup>7</sup>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sup>8</sup>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24:4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부정의 분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진행되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를 갖는다. 많은 거짓 징조와 “앞선 징조”가 있었고 또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진술은 자주 반복되었다(참조, 막 13:5,9,33). 이 영역에 있어서 많은 신학적 혼동이 있다. 교회가 일치된 종말론을 가졌던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각 세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를 성경의 예언에 강제로 맞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날짜를 말하려고 함으로써 그들은 모두 잘못 되었다. 문제의 일부분은 믿는 자들이 순간 순간 재림에 대한 기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한편 모든 예언은 핍박받는 추종자들이 사는 마지막 세대를 위해 기록되었다. 당신이 알지 못함을 인해 즐거워하라!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것은 거짓 메시아를 가리킨다(참조, 11,23-24 절; 막 13:6).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를 암시할 수 있다: (1) 요일 2:18의 적 그리스도 (2) 살후 2장의 “불법의 사람” (3) 계 13:1-10의 바다의 짐승.

▣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참조, 11,24 절; 요일 2:18).

▣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거짓 메시아들의 설득력 및 타락한 인간의 영적 공허함을 나타낸다(참조, 마 24:11,23-26). 이것은 또한 새 신자들의 순진함과/또는 육적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3:1-3; 골 2:16-23; 히 5:11-14).

24:6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진행되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6,7 절), 기근(7 절), 지진(7 절), 거짓 메시아(5 절)는 끝의 징조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미 있었던 징조이다(참조, 8 절).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나타남은 끝의 징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임을 나타내는 징조이다.

24:8

NASB, NRSV

“산고의”

NKJV

“슬픔의”

TEV

“출산의 첫 번째 고통”

NJB

“출산의 고통”

이것은 새 시대의 “출산의 고통”을 의미한다(참조, 사 13:8; 26:17; 66:7; 미 4:9-10; 막 13:8). 이것은 의의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악이 극대화될 것으로 본 유대인의 믿음을 가리킨다. 유대인은 두 시대가 있을 것을 믿었다(12:31의 특별주제를 보라); 하나님께 대한 죄와 반역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악한 시대와 “올 시대”이다. 새 시대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의와 충성을 드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비록 유대인의 관점이 어떤 점에서는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두 시대가 겹쳐지는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개역개정 24:9-14**

<sup>9</sup>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sup>10</sup>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sup>11</sup>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sup>12</sup>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sup>13</sup>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sup>14</sup>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9 “그 때에” 이 용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 번 사용된다(참조, 24:9,10,14,16,21,23,30,40; 25:1,7,31,34,37,41,44,45). 떠오르는 질문은

1. 단순히 다음 말로 들어가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인가?
2. 이 용어는 일시적인 연속을 가리키는가?
3. 이 용어는 문맥의 연속성을 가리키는가(히브리어에서 *와우* 연속과 같은)?

▣ 막 13:9 은 이 점에서 좀 더 특별하다. “공회와 회당”은 마 24:9 에 없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을 나타낸다(참조, 뱀전 4:12-16). “매질하는” 또는 문자적으로 “생채기 내는”: 유대인은 서른 아홉대의 매질을 했다--13 대는 앞 쪽에 26 대는 등 쪽에(참조, 신 25:1-3; 고후 11:24) 매질 했다.

▣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할 것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다(참조, 10:22; 21:35-36; 23:37; 막 13:13; 눅 21:17; 요 15:18,19; 요일 3:13). 복음에 대한 반대의 정도가 놀랍다(참조, 엠 6:10-18).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미래시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을 뜻한다(참조, 14 절).

▣ “내 이름 때문에” 믿는 자 자신의 악함이나 법의 위반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참조, 마 5:10-16; 막 13:9; 뱀전 4:12-16).

24:10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핍박과 영적 기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실족”할 것이다 (문자적으로 “발부리가 걸리게 되다,” 참조, 11:6). 이것은 13:21 의 땅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이다(참조, 막 4:17; 8:13). 그들은 요 15:6 에서 말하는 “거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요일 2:18-19 에서 말하는 교제를 떠난 자들이다. 그들은 히브리서와 뱀후 2:20-22 에서 묘사된 자들이다. 7:21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24:10-11 이것은 조직적인 반대를 의미한다(참조, 막 13:12). 가족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분열될 것이다(참조, 마 10:35-37).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자들이 마치 불신자처럼 행동할 것이다(참조, 딤후 3:2-3).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것은 무서운 관점이다.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다(참조, 마 7:15-23). 믿는 자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복음을 부여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참조, 뱀후 2 장; 요일 2:18-19; 계 13 장).

24:12 꺾박은 거짓된 자(참조, 마 13:20-22)나 약한 자(참조, 딤후 6:9-10)의 영적 특성을 실제로 드러낼 것이다.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미래 수동 직설법(구원 참조, 마 10:22. 10:22의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를 보라)에 부정과거 능동 분사(견디다)가 뒤따르는 형태이다. 이것은 인내의 교리로서(계 2:2,11,12,26; 3:5,12,21) 믿는 자의 안전에 대한 교리와 더불어 변증법적 긴장 안에서 이를 이해해야 한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구약적 의미와 영원한 영적 구원을 말하는 신약적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견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삶의 증거이다(인내에 관한 10:22의 특별주제를 꼭 읽어 보라).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10-12절과 반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24:14 “천국 복음” 이것은 이미 4:23; 9:35에서 언급했다. 이것은 “복음”과 동의어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다.

▣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것은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의 목적이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만”이라는 정책으로부터의 큰 변화를 말한다. 이것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 중의 하나이다. 이 구절을 특별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각 족속 혹은 각 인종적인 그룹을 말하는가? 아니면 바울 시대의 로마 세계에 있던 각 사람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두 번째 것이 가능한 답일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라는 구는 문자적으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별주제: 밤의 복음적 편향**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19-20,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다(참조, 엠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러한 사전 이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갖고 있는 색채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는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를 말씀하려고 애를 쓰셨다(참조, 사 42:6; 49:6; 51:4; 52:10; 60:1-3).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파괴에서 재림(참조, 살후 3장)까지 긴 시간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노력하셨다. 우리는 (1) 언제라도 일어날 재림(참조, 24:27,44)과 (2) 역사에서 반드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사이에 있는 긴장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은 재림의 시간에 대한 신약에서의 실제적인 긴장이다: 곧 또는 지연되는 재림.

이 예언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관련됨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 관점(과거주의)에서 내가 읽은 가장 좋은 책은 존 브레이의 *재 방문한 마태복음 24장*이다. 이것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날짜이다. 모든 증거는 한겨울로 모아진다. 과거주의 관점이 정당화 되려면 주후 7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야만 했다.

**개역개정 24:15-28**

<sup>15</sup>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sup>16</sup>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sup>17</sup>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sup>18</sup>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 <sup>19</sup>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sup>20</sup>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sup>21</sup>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sup>22</sup>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sup>23</sup>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sup>24</sup>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sup>25</sup>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sup>26</sup>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서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sup>27</sup>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sup>28</sup>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4:15  
 NASB, NKJV  
 NRSV  
 TEV  
 NJB

“멸망의 가증한 것”  
 “멸망적인 신성모독”  
 “무서운 공포”  
 “소름끼치도록 가증한 것”

“멸망”이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 9:27, 11:31, 12:11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원래 주전 168 년의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단 8:9-14; 마카비아스 I 서 1:54). 또한 단 7:7-8 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참조, 살후 2:4). 눅 21:20 은 이 내용이 주후 70 년에 타이투스의 군대가 온 것에 대한 것임을 말한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때를 뜻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 다른 일들이 서로 관계 있음을 보이는 여러 성경 구절 중 한 예이다. 이것은 다중 성취의 예언이라고 불린다. 종종 이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석하기 어렵다. 뒤를 돌아다 볼 때 이 모형론은 분명히 나타난다. 다니엘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나의 주석을 보기 바란다.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특별주제: 멸망의 가증한 것**

M. R. 빈첸트는 가증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했다: “같은 어족의 동사인 *브레뤼사마이*는 음식에 대한 메스꺼움과 혐오를 느낀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나타낸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나타낸다. 대하 15:8; 렘 13:27; 겔 11:21; 단 9:27; 11:31 을 보라. 이것은 우상과 동등한 것으로 사용된다(참조, 왕상 11:17; 신 7:26; 왕하 23:13). 이것은 하나님과 명백하게 불화상태에 있는 어떤 것; 불결한 짐승을 먹는 것, 레 11:11; 신 14:3; 일반적으로 우상숭배의 모든 형식을 나타낸다. 신약은 말의 사용과 관련된 이러한 도덕적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눅 16:15 와 계 17:4,5; 21:27 을 비교하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심미적인 혐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것은 아마도 타이투스의 지휘 아래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깃발과 상징을 가지고 성전 구역을 차지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요세푸스는 로마인들이 성전을 불태운 후에 그들의 상징들을 가지고 와서 동쪽 문에 그것을 설치하고 거기서 희생을 드리며 타이투스가 황제가 된 것을 환호하며 그를 선포했다고 말한다” (*신약의 단어연구*, 74-75 쪽).

“멸망”이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을 의미한다. 단 9:27, 11:31, 12:11 에서 이 구가 사용되었다.

1. 이것은 원래 주전 167 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올림푸스 신전을 설치했던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단 8:9-14; 마카비상 1:54).
2. 이것은 또한 단 7:7-8 에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참조, 살후 2:4).
3. 눅 21:20 에서 이것은 주후 70 년에 로마 장관(나중에 황제) 타이투스의 군대가 옴과 관계가 있다. 그는 이방신들에게 헌신한 군대의 깃발을 성전에서 가까운 동쪽 문에 설치하고 그것에 희생을 드렸다. 믿는 자들이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예루살렘 자체를 포위한 것을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은 여러 다른 일들이 서로 관계 있음을 보이는 여러 성경 구절 중 한 예이다. 이것은 다중 성취의 예언이라고 불린다. 종종 이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석하기 어렵다. 뒤를 돌아다 볼 때 이 모형론은 분명히 나타난다.

■  
 NASB, NKJV,  
 NRSV  
 TEV  
 NJB

“거룩한 곳에 섬”  
 “그것은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거룩한 곳에 세우다”

헬라이어 분사인 “섬”은 남성형이 아니라 중성형이다. 이것은 “것(it)”으로 번역되어야만 한다. 이 “것(it)”은 주후 70 년에 타이투스가 이끄는 로마군대를 가리킨다. “거룩한 장소”는 성전의 중심 성소의 첫 부분을 가리켰다. 타이투스는 성전의 이 장소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대표하는 로마의 깃발을 설치했다.

■  
 NASB, NRSV  
 NJB  
 NKJV  
 TEV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이해하도록 할진저)”  
 “(읽는 자에 주는 참고사항: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라)”

이것은 마태가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주는 설명이었다. 고대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읽었다.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했다. 그것은 단 9:27, 11:31, 12:11 에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특별한 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초대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주후 4 세기 경)는 로마의 군인이 나타나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페레아에 있는 펠라 도시로 도망을 갔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24: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들의 지붕이 평평했다. 지붕은 무더운 계절에 사회적인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이 지붕으로 예루살렘을 횡단할 수 있었다고 말해지곤 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집들은 성읍의 벽과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군대가 오는 것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도망가야만 했다.

24:18 “겂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 이것은 잠자는 도구로 사용하던 겂옷을 의미한다. 그들은 즉시 도망가야만 했고 심지어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아야 했다.

24:19 “아이 벤 자들과 젓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막 13:17 을 보라. 이것은 오직 예루살렘의 파괴만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문제의 연관성을 물었다: 예루살렘의 파괴,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 이 질문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주제별로 절을 쉽게 나눌 수가 없다.

24: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 . .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구절은 임신한 여인이 빠르게 도망갈 수 없는 어려움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 오늘날 여인들이 임신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다. 유대인에게 쓴 마태복음은 막 13:18 에는 없는 “안식일에”를 첨가한다. 유대인 신자들은 안식일에 도망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절과 관계하여 두 가지 내용에 주의가 끌린다.

1.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셨다.
2. 믿는 자들의 기도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4:21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구약의 많은 절과 비슷한 히브리 관용구이다 (참조, 출 10:14; 11:6; 램 30:7; 단 12:1; 욥 2:2).

24:22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세비우스가 말한대로 도망을 갔다면 이것은 택함받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이다(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참조, 롬 9-11 장). 24 절과 31 절에 있는 “선택”이라는 용어의 사용 때문에 이것은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 같다. “선택”에 대한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 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는 엡 1:4 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나타내신다. 우리는 교리적 진리들의 변증법적(역설적) 쌍이 형성하는 긴장을 제거해서는 결코 안된다:

1.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2.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3. 원죄 대 의지적 죄
4.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5.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6.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7. 하나님의 초월성 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8.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하나님 대 성경에서 알려진 하나님
9. 현재의 하나님의 왕국 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10.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 대 인간이 언약을 따라 가져야 하는 응답으로서의 회개
11.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12.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을 정하시는 분이로서)을 인간에게 요청되는 최초의 회개와 믿음 및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과 하나로 묶는다. 역설적 진리의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느라 다른 한 쪽을 약화시키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의 내용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감하지”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마흔 두 달**

마흔 두 달의 숫자는 꺾박의 기간에 대한 예언적 특징이다. 바깥 뜰을 짓밟은 것은 역사상 여러 시기에 걸쳐서 불신자들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이게 됨을 뜻하는 표현이다—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주후 70 년의 로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마흔 두 달, 또는 이것과 동등한 것,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었다. 다니엘서가 이것의 출처로 보인다.

1. 단 7:25; 12:7 은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1277 일을 말한다(“때”는 일년으로 예상된다)
2. 단 8:14 은 2300 주야를 말한다
3. 단 12:11 은 1290 일을 말한다
4. 단 12:12 은 1335 일을 말한다. 비슷한 구가 요한계시록 12:6(1260 일)과 13:5(42 달)에 있다.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다양성은 숫자의 상징적인 특성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흔 두 달의 근접한 수는 꺾박의 기간에 대한 상징적 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과 반은 일곱의 반이므로 이것은 꺾박의 전체 기간이 감해진 것을 의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마 24:22; 막 13:20; 눅 21:24). 꺾박은 심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정된다.

**24:23,26** 메시아가 오시는 사실은 비밀로 되거나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선택된 어떤 무리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질 것이다. 성경적으로 “비밀스런 휴거”는 없다. 24:40-41 의 설명을 보라.

**24:23,26 “만일(if)”** 이것은 두 개의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

**24:24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들은 기적을 보일 것이다(참조, 7:21-23).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항상 주의하라(참조, 출 7:11-12,22; 신 13:1-3; 살후 2:9-12; 계 13:13; 16:14; 20:20).

**24: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눅 17:24 을 보라. 막 13 장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것은 임하심이 눈에 보임을 의미한다. 신약은 믿는 자들의 휴거가 비밀스럽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참조, 24:40-41).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신자와 산 신자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공중은 마귀와 사탄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참조, 엡 2:2). 믿는 자는 사탄의 왕국의 한 가운데서 그 왕국이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특별주제: 언제라도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아직은 아닌 재림 (신약의 역설)**

- 가.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은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적 통찰을 반영한다.
- 나.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은 여러 질문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매우 어렵다.
  1.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2.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징조는 무엇인가?
  3.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참조, 마 24:3)?
- 다. 신약의 종말론적 본문에 대한 문학 형태는 묵시 문학과 예언적 언어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상징적이다.
- 라. 신약의 여러 본문(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17, 21 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계시록)은 재림에 대해 다룬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1. 사건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 우리는 일반적인 때를 알 수 있지만 사건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3. 그 사건은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것이다
  4. 우리는 기도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만 한다

- 마. 두 가지 일 곧 (1) 언제라도 일어날 재림(참조, 24:27,44)과 (2)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역설적인 긴장이 있다.
- 바. 신약은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진술한다:
  1.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참조, 24:14; 막 13:10)
  2. 큰 배교(참조, 24:10-13,21; 딤후전 4:1; 딤후 3:1 이하; 살후 2:3)
  3.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참조, 단 7:23-26; 9:24-27; 살후 2:3)
  4. 막는 것/막는 자의 옮겨짐(참조, 살후 2:6-7)
  5. 유대인의 회복(슌 12:10; 롬 11 장)
- 사. 눅 17:26-37 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다. 마 24:37-44 에 있는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의 내용과 부분적 평행을 이룬다.

24: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것은 막 13 장에 없지만 눅 17:37 에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욥 39:30 에서 온 잠언적인 진술이었다. 만일 이것이 시 2 편에 있는 마지막 때의 전쟁을 가리키는 숨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료는 겔 17:20 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핍박과 죽음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개역개정 24:29-31**

<sup>29</sup>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sup>30</sup>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sup>31</sup>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4:29 “그러나(but)” 이것은 문맥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강한 반의적 접속사이다. 모든 영어 번역본의 단락이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주목하라.

▣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구약의 묵시적 언어이다(참조, 사 13:10; 34:4; 겔 32:7-8; 욥 2:10,31; 3:15; 암 8:9).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자연에 대변동이 있을 것이다(참조, 벘후 3:7,10,11,12; 계 6:12-14).

▣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묵시적 언어의 연속으로 주의 임하실 때 자연의 이변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또는 역사에 영향을 줄 천사의 권능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단 10 장; 엡 6:12; 골 2:15; 계 12:4).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것이 사 60:1-3 과 연결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의 “징조”는 영광의 쉼기나 구름의 빛일 것이다. 땅의 빛은 쇠하고 하나님께 빛(참조, 창 1:3)인 참 새벽별이 빛을 낼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시 8:4; 겔 2:1)과 신성(단 7:13)은 “인자”라는 용어으로써 강조된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이동 수단으로 나타난다. 행 1:9 과 살전 4:17 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구름을 사용하셨다. 이 징조는 동쪽 하늘이 “열릴” 때 하늘의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말할 것이다.

**특별주제: 인자(단 7:13 의 나의 주석에서 따온 내용임)**

아람어 구(“벤 예노쉬,” BDB 1085 와 1081)인 “인자”는 시편과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히브리어 구(“벤 야담”)와 다르다. 욥 25:6; 시 8:4; 90:3; 144:3; 사 13:12 에서 두 개의 구 모두가 평행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인성과 연결된다(참조, 8:17; 욥 25:6; 시 8:4; 겔 2:1).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름은 신성을 의미(참조, 마 24:30; 26:64; 막 13:26; 14:62; 계 1:7; 14:14)하며 아람어와 히브리어 구인 “인자”는 인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구를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다. 이것은 랍비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 구는 배타성 혹은 민족적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구는 메시아를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독특하게 나타낸다(참조, 요일 4:1-3). 이러한 신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책이 다니엘서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로 이 용어를 자신에게 대해 사용하셨다.

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예, 막 8:31; 10:45; 14:21; 눅 9:22,44)

2.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오심(예, 마 16:27; 25:31; 요 5:27)  
 3.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가 영광 중에 오심(예, 마 16:28; 19:28; 막 13:26-27; 14:62)  
 유대인 연구 성경 1657 쪽(또한 조지 E. 라드의 *신약신학* 136-139 쪽을 보라)에는 이 본문에 대한 후기에 속하는 유대적 전통의 목록이 있다.

1. 이 문맥은 메시아를 나타낸다(참조, 에녹 I 서 46:1; 48:10; 에스라 4 서[에스드라서 2 서] 13 장; b. Sanh. 98a)
2. 이 문맥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다(참조, b. Sanh. 97a)
3. 이 문맥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창세기 Rab. 98:2)
4.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참조, 이븐 에스라와 라쉬)

▣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것은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오심을 의미한다. 온 세상이 불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갑자기 인식하게 될 것이다.

▣ “구름을 타고”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구름을 타고 오심**

이 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매우 중대한 종말론적 표시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세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영광의 *쉐키나* 구름(참조, 출 13:21; 16:10; 민 11:25)
2.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 위해(참조, 출 33:20; 사 6:5)
3. 하나님의 이동수단으로써(참조, 사 19:1)

단 7:13 에서 구름은 인간이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30 번 이상 암시 된다. 메시아와 하늘의 구름이 연관된 같은 내용을 마 24:31; 막 13:26; 눅 21:27; 14:62; 행 1:9,11; 살전 4:17 에서 볼 수 있다.

▣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재림 사이의 철저한 대조를 보여준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기대한 바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이었다. 16:27 에 있는 “영광”에 대한 설명을 보라.

24:31 “(그의) 천사들을” 막 13:27, 8:38, 살후 1:7 을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천사들로 불려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 “큰 나팔소리와 함께”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안식일과 절기를 나타내기 위해 불었던 양의 왼쪽 뿔로 만든 쇼파르를 의미할 것이다. 사 27:13 에 마지막 날과 연관되어 나팔소리가 언급된다(참조, 고전 15:52; 살전 4:16).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히브리어에는 뿔/나팔과 관련된 단어가 4 개 있다.

1. “수양의 뿔” (BDB 901) - 소리를 내는 도구로 뿔, 참조, 수 6:5. 같은 단어가 창 22:13 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한 뿔이 걸려 있던 양에 대해 사용되었다.
2. “나팔” (BDB 1051) - 들 양(야생 염소)을 말하는 앓시리아 단어이다. 이것은 출 19:16,19 에 있는 시내산/호렙산에서 사용되었다; 1 항과 2 항은 수 6:5 에서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배와 전투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다(즉, 여리고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참조, 6:4).
3. “수양의 뿔” (BDB 385) - 수양을 말하는 페니키아어(참조, 6:4,6,8,13). 이것은 또한 희년을 나타냈다(참조, 레 25:13,28,40,50,52,54; 27:17,18,23,24).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다. 미쉬나[RH 3.2]는 소의 뿔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양, 염소, 또는 영양)
4. “나팔” (BDB 348) - 아마도 “내뿔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똑바른 뿔(동물의 뿔처럼 굽지 않은 것)를 뜻한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 ㄱ. 예배 의식에(참조, 민 10:2,8,10)
  - ㄴ. 군사적 목적에(참조, 민 10:9; 31:6; 호 5:8; 스 3:10; 느 12:35,41)
  - ㄷ. 왕의 용도로(참조, 왕하 11:4)

이러한 금속 뿔은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서 나타난다; 또한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 *유대 고대사* 3.12.6 에서 설명한다.

▣ “그의 택하신 자들을 . . . 모으리라” 이것은 포로에서 회복됨을 뜻하는 구약의 비유적 묘사(즉, 신 30:4)로서 여기서는 종말론적 모임을 나타낸다(참조, 13:40-43, 47-49). 마지막 때에 있을 특별한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는 불확실하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죽으면 곧 그리스도와 같이 있게 된다고 가르쳤다(참조, 고후 5:6-8). 살전 4:13 이하는 지구에 남겨진 우리 몸의 물질적인 부분은 주가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합쳐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의 날 사이에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다.

▣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예수를 따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사방의 4 라는 숫자는 세계에 대한 상징이다. 이것은 세계의 네 모퉁이(사 11:12; 계 7:1), 하늘의 네 방위(단 7:2; 속 2:6), 하늘의 네 끝을 의미한다(렘 49:36). 4:2 의 특별주제: 성경의 상징적인 수를 보라.

**개역개정 24:32-35**

<sup>32</sup>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sup>33</sup>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sup>34</sup>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sup>35</sup>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4:32 “무화과나무” 이 비유는 막 13:28-32 과 눅 21:29-33 과 평행을 이룬다. 이 교훈적 본문에서 무화과나무는 분명히 마 21:18-20 과 막 11:12-14 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확한 종말적 시간은 알 수 없다하더라도 믿는 자들이 대략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무화가 나무는 일찍 잎사귀가 나왔고 모든 사람은 그것으로 봄이 끝남을 알았다.

24:32-33 “너희가 안다” 마지막 세대가 이르면 성경의 예언적 본문은 그 날의 역사와 정확히 들어 맞을 것이다. 이 지식은 마지막 핏박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으로 성경을 강제로 끼워맞추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는 잘못 되었다!

24:33 “인자(He)” 이 남성형 인칭 대명사는 헬라이어 본문에 없다. 이것은 “그것(it)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14 절).

▣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것은 (1) 예루살렘의 파괴 (2) 변화(참조, 막 9:1; 마 16:27) 또는 (3) 재림을 나타내는 여러 특별한 징조 중의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24:34 이 절은 주후 70 년 타이투스의 통치 아래 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의미했다. 예수께서는 24:3 의 질문들을 합치셨다: (1) 성전의 파괴 (2)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시 (3) 세상의 끝.

이것은 또한 10:23; 16:28; 24:34 과 연결이 가능하고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예상하신다고 결론 짓는다. 하지만 몇십 년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연된 재림”의 주제를 인식했다.

24:35 이것은 예수님 자기 이해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진술인가! 이것은 확실히 5:17-19 또는 사 40:8; 55:11 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다(즉, 골 1:15).

**개역개정 24:36-41**

<sup>36</sup>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sup>37</sup>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sup>38</sup>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sup>39</sup>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sup>40</sup>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를 당할 것이요 <sup>41</sup>두 여자가 밧줄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둬를 당할 것이니라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때”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강력한 절이다.

몇몇 고대 헬라이어 대문자체  $\aleph^a$ , K. L. W 사본은 마 24:36 에 “아들도 모르고”라는 구를 넣지 않았다. 이 구는 대부분의 번역본에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구가  $\aleph$ , B, D 사본, 통관 복음서, 이레니우스, 오리겐, 크리소스토에게 알려져 있던 헬라이어 사본, 제롬이 사용했던 오래된 라틴어 사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통 서기관에 의해 수정된 본문 중의 하나일 것이다(성경에 대한 정통파의 부패, 바르트 D. 에르만, 91-92 쪽,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93 년판을 보라).

**특별주제: 그 때**

“때”라는 용어는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 때의 의미로(참조, 마 8:13; 눅 7:21; 요 11:9)
2. 시험과 시련의 때에 관한 은유로(참조, 마 10:19; 막 13:11; 눅 12:12)
3.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 대한 은유로(참조, 요 2:4; 4:23)
4. 심판의 때에 대한 은유로(즉, 재림, 참조, 마 24:36,44; 25:13; 막 13:32; 요 5:25,28)
5.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은유로(참조, 마 26:45; 막 14:35,41; 요 7:30; 8:20; 12:23,27; 13:1; 16:32; 17:1)

24:37 “입함” 24:3의 특별주제를 보라.

▣ “노아의 때와 같이 . . . 그러하리라” 이것은 일상적인 삶이 옛날처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구이다(참조, 38 절).

24:39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음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있음을 말한다.

24:40-41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멧들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밀스런 휴가와 연관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문맥상 기대하지 못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어떤 이는 복을 받고 다른 이는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무리가 복을 받을 지는 확실치 않다. “데려감”이나 “버려둠”은 홍수 후에 살아 남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가(31 절)? 복받은 어떤 사람과 심판받은 어떤 사람에 대한 구약의 예는 노아의 홍수이다(참조, 39 절). 누가복음에서는 구약의 예로써 소돔을 들었다(참조, 눅 17:29). 실제로 27 절은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주님의 오심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이 믿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비밀스런 휴가가 있을 것을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1) 언제라도 오실 주님의 재림과 (2) 어떤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신약 기록의 변증법적 긴장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일 뿐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있어서 돌연함과 예기치 않음이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여러 예를 말씀해 주셨다.

1. 노아의 홍수, 37-38 절
2. 밤에 오는 도둑, 43 절
3. 주인의 돌아옴, 45-46 절
4. 더디오는 신랑, 25:5-6
5. 아마도 27 절에서의 “번개”

믿는 자들이 할 유일한 선택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일이다(참조, 44 절; 25:13,13)!

**개역개정 24:42-44**

<sup>42</sup>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sup>43</sup>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sup>44</sup>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42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비유는 눅 12:39-40 과 평행을 이룬다. 준비하고 있으라(참조, 43,44 절)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참조, 39,47,49,50 절; 25:5,13)에 대한 강조는 이 장에서 계속되는 주제이다. 그 때의 불확실함은 각 세대의 믿는 자들이 계속적인 준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24:4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으로서 “사실과 반대됨”이라고 불려진다. 거짓된 진술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도 역시 거짓이다.

24:44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구는 현재(디포) 명령(참조, 막 13:5,9,23)이다. 이것은 언제 또는 어떻게에 관한 추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핵심적 내용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곧 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점은 지금이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 “때에” 27:36의 특별주제: 그 때를 보라.

**개역개정 24:45-51**

<sup>45</sup>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sup>46</sup>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sup>47</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sup>48</sup>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sup>49</sup>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sup>50</sup>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sup>51</sup>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4:45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관계된 비유로 본다(참조, 눅 12:40-48). 문맥상 이것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계속적인 대면으로 보아야 한다.

24:46 믿는 자는 능동적이며 준비되고 또한 충성스러운 자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참조, 눅 12:37-38; 약 1:12; 계 16:15). 언제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4:47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 13:12,25:29 과 눅 19:17 을 보라.

24:2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문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 “마음” 5:8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것은 재림이 지연되는 개념을 나타낸다(참조, 마 25:5; 살후 2 장; 뱀후 3:4).

24:50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마 24:27,44; 25:6,13 을 보라. 이것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심을 나타낸다.

24:51 “엄히 때리고” 이것이 은유적인지 아니면 문자적인지는 불확실하다(참조, 삼하 12:31; 히 11:37). 이것은 심판에 대한 구약적 묘사이다.

▣ “외식하는 자가 받는” 눅 12:46 에 있는 본문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으로 되어 있다. 마태는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고 여러번 말했다. 6:2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슬피 울며” 이것과 다음의 것(이를 갈리라)는 심판에 대한 은유이다. 슬피 우는 것은 큰 슬픔의 표시이다(참조, 25:30).

▣ “이를 갈리라” 이것은 억울함과 고통을 나타낸다(참조, 8:12; 13:42,50; 22:13; 25:30).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의 기본 목적은 무엇인가?
2. 4-7 절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가?
3. 다니엘의 예언(7:23-28; 9:24-27; 11:26-29)은 이 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예수께서 왜 24 절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5.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있는가?
6.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곧있을 것인가, 더디오시는가, 아니면 알 수 없는가?
7. 예수께서 어떻게 그 때를 모르실 수 있는가(36 절)?
8. 45-51 절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9.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가? 왜?

# 마태복음 2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열 처녀의 비유 25:1-13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 25:1-13	지혜로운 신부들과 어리석은 신부들의 비유 25:1-13	열 소녀의 비유 25:1-5 25:6-12 25:13	열명의 결혼 참석자에 대한 비유 25:1-13
달란트 비유 25:14-30	달란트 비유 25:14-30	달란트 비유 25:14-30	세 종의 비유 25:14-18 25:19-30	달란트 비유 25:14-30
민족들의 심판 25:31-40 25:41-46	인자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5:31-46	큰 심판 25:31-46	최종 심판 25:31-40 25:41-46	마지막 심판 25:31-46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문학적인 문맥에 주목하라. 여기서의 문맥은 마 24-25 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오심과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심지어 핍박 중에서도)는 경고를 다루고 있다.
- 나. 비유의 해석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해 13 장의 서론을 보라.
- 다. 각각의 비유에 대한 중심되는 진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라(참조, 마 24:24-51; 25:1-13; 25:14-30). 비유는 매일의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마 13:10-17). 예상에 빗나가거나 놀라운 것을 항상 찾아보라!
- 라. 37-44 절은 마가복음에 없다. 이 절들은 공관복음서인 눅 17:26-37 과 부분적인 평행을 이룬다.

개역개정 25:1-13

<sup>1</sup>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sup>2</sup>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sup>3</sup>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sup>4</sup>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sup>5</sup>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sup>6</sup>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sup>7</sup>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sup>8</sup>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sup>9</sup>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sup>10</sup>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sup>11</sup>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sup>12</sup>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sup>13</sup>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5:1 “천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날 온 땅의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될 것이다(참조, 마 6:10). 4:17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열” 24:1의 특별주제:성경에서의 상징적인 수를 보라.

▣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비유(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한)의 문화적 배경은 1 세기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결혼풍습과 관계된다(제임스 프리먼의 *성경의 방식과 풍습*). 약 1년간의 약혼 후 신랑의 집에서 있을 칠일 간의 잔치를 위해 신랑은 정해진 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은 히브리 풍습과 관계된 여러 헬라어 사본이 있다. 가장 좋고 오래된 헬라어 본문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이다.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크리소스톰, 제롬,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헬라어 본문과 마찬가지로 베제 헬라어 사본(D)과 라틴어, 시리아어, 콕트어,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은 “그리고 신부”를 첨가한다. 이것은 언제 그녀가 결혼잔치에 함께 하는 때를 의미할 것이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은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25:5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더디오심을 의미할 것이다. 마 24:14 과 43-44 절 또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재림 사이가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연은 초대교회를 놀라게 했지만 이 개념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속에 암시되었다(참조, 살후 2 장). 비유는 중요한 목적을 지닌 문학적 표현이다. 세세한 내용에 근거하여 교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 “다 졸며 잘새” 이 행위를 비난하는 의미는 없다. 이것은 단지 준비에 대한 비유의 강조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25:9 각 사람은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것을 준비해야만 한다!

25:10 “문은 닫힌지라” 눅 13:25 은 이 비유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연관시키지만 이 문맥은 재림에 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영감된 진도자들이 다른 환경과 다른 목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한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3-134 쪽). 6:6의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문”의 사용을 보라.

25:11 “주여 주여” 반복적인 사용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시도였지만(참조, 6:46) 그들은 주님과 관계성이 없었다(참조, 마 7:21,22). 이 예에 나타난 충격적인 부분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비슷하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참조, 13 장, 흠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 롬 9:6 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겉모습을 가진 모든 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참조, 벧후 2:20-22; 요일 2:18-19 과 아마도 히브리서의 몇몇 경고[즉, 2:1-4; 3:7-13; 4:1-13; 5:11-6:12; 10:26-39; 12:14-17]). 7:21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25:12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의 부족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24:50-51; 25:29-30; 25:41-44 과 평행을 이룬다.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구원의 다른 면과 균형을 취해야만 한다.

1. 이것은 결단이고 공공적인 고백이다(즉,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
2. 이것은 제자도이고 공공적인 거룩한 삶의 태도이다(예수님처럼 사는 것)
3. 이것은 풍부한 성경적 이해이다(즉, 예수님께 대한 진리를 받아들임)

성숙을 위해 위의 세 가지 모두 필요하다.

“알다”라는 용어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뜻하는 구약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다(참조, 창 4:1; 렘 1:5). 기독교는 히브리적인 감각(개인적 관계)과 헬라적 감각(지식)의 결합이다. 복음은 예수님, 삶의 태도, 그의 메시지이다!

25:13  
NASB  
NKJV  
NRSV  
TEV  
NJB

“그런즉, 경계하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너희는 인자가 오는 날도 모르고 그 때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도 모르고 그 때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즉, 지켜보라, 너희는 그 날이나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도 그 때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이 비유의 목적이다. 24:40-41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날은 알려지지 않았다(참조, 24:36,42,50; 막 13:32). 믿는 자는 예수님의 확실하지만 돌연한 재림(참조, 24:36)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만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다양성이 사본에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24:44에 있는 “인자가 오는”을 필사자가 첨가한 것이다. 이 부가적인 구는 라틴어, 시리아어, 콕터어, 아르메니아어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고대 헬라이어 P<sup>35</sup>,  $\kappa$ , A, B, C\*, D, L, W, X, Y 사본에 없다. 이것은 분명히 원래의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이 아니다. 가장 짧은 본문에 UBS<sup>4</sup>는 “A”등급(확실함)을 준다.

▣ “그 때” 24:36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25:14-18

<sup>14</sup>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sup>15</sup>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sup>16</sup>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sup>17</sup>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sup>18</sup>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5: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이 비유는 눅 19:11-27과 평행을 이룬다. “바로”가 15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헬라이어 사본의 다른 점이 있다: (1) 이것이 종의 주인을 묘사하는가 아니면 (2) 종을 묘사하는가? 비록 이 점에 있어서 헬라이어 본문에 다양성이 있지만 문맥과 “바로”에 대한 마태복음의 용법은 (2)항을 지지한다.

▣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과 같다. 한 데나리온은 군인과 노동자의 하루 급여였다. RSV의 각주는 “노동자의 급여로 ‘15년보다 좀 더 많은’ 것”이라고 말한다. 17:24의 특별주제를 보라.

▣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것은 성경의 한 원리이다(참조, 마 13:8; 고후 8:3,11).

개역개정 25:19-23

<sup>19</sup>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sup>20</sup>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sup>21</sup>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sup>22</sup>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sup>23</sup>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5:21-23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착한 청지기의 삶이(양이 아니라) 주제였다. 5:12의 특별주제: 상과 벌을 보라.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복되는 이 구는 왕국에 들어감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는 가족을 위한 봉사이다. 그 즐거움은 교제이다.

개역개정 25:24-25

<sup>24</sup>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sup>25</sup>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5:24-25 이 종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특성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있다. 비유의 세부사항을 우화적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신약의 비유에는 비교를 위한 비유와 대조를 위한 비유가 있다.

개역개정 25:26-28

<sup>26</sup>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sup>27</sup>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sup>28</sup>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5:27 “이자” 이 용어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에서 나온 관용구였다. 이자에 관한 구약의 지침은 신 23:19-20 에서 발견된다. 유대인은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개역개정 25:29-30

<sup>29</sup>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sup>30</sup>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5: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마 13:12; 막 4:25; 눅 8:18; 19:26 을 보라. 본문에 “더(more)”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가 확실히 내포되어 있다.

25: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서양의 독자들은 동양적 과장법과 은유적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참조, 8:12; 13:42,50; 22:13; 24:51). 이 비유는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구원에 지속적인 책임에 대한 필요를 나타낸다. 고백은 삶의 태도에서 확인된다. 열매가 없다면—뿌리도 없는 것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25:1-30 절에 있는 이 모든 비유의 중심 진리는 무엇인가?
2. 이 비유들은 큰 문맥인 24 장, 25 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복음서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르고 채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설명하라.

25:31-46 에 대한 문맥적 통찰

- 가. 인간의 죄의 영원하고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다. 최종적인 심판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그분 한 분 뿐이셨다.
- 나. 이 본문은 16:27 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심판의 날과 명확히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계 20:11-15 이다.
- 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습은 유대인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초림과 비슷하다.
- 라. 성경은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지만 종종 심판하실 분을 다르게 나타낸다.
  1. 하나님의 심판(참조, 롬 14:2; 뱀전 1:17)
  2. 그리스도의 심판(참조, 요 5:22,27; 마 16:27; 행 10:42; 고후 5:10; 딤후 4:1)
  3.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참조, 행 17:31; 롬 2:16)

개역개정 25:31-33

<sup>31</sup>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sup>32</sup>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sup>33</sup>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5:31 “인자” 구약에서 이 용어는 시 8:4 과 겔 2:1 처럼 단순히 어떤 인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단 7:13 에서는 “인자”로 불리는 사람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고—하나님의 이동 방법—그에게 영원한 왕국이 주어진다. “인자”라는 호칭은 랍비적 유대교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개념이 포함된 이 용어를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셨다. 이 용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상,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단 7:13 에서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 인자는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참조, 마 25:31; 살전 4:13-18).

▣ “자기 영광으로” 16:27 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보라.

▣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천사는 모으는 일과 나누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계된다(참조, 16:27; 막 8:38; 살후 1:7; 유 14 절; 단 7:10).

▣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주와 왕으로서뿐 아니라 심판자로서(참조, 19:28)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참조, 시 110:1).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일시적인 면(참조, 요 3:18)과 종말적인 면을 갖는다. 조만간 심판은 영원히 완성될 것이다.

25: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으로서 비유가 아니라 극적 제시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모든 질문을 이 본문이 다루지는 않고 있다. 모든 민족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뜻하는지 아니면 산 자만을 뜻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해 한다.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참조, 계 5 장) 복음이 보편적으로 퍼짐을 의미했다. 이것이 창 3:15, 12:3, 출 19:4-6 의 목표이다.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민족들을 향하여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이었다!

누가 “염소”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그들은 (1) 복음을 거부한 자인가 아니면 (2) 겉으로만 고백한 자인가? 두 무리 모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참조, 마 7:21-23). 이 심판은 복음에 대하여 최소한 겉으로만 반응했던 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은 흠의 비유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참조, 마 13 장).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한 압박감과 다른 신자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참조, 요일 2:9,11; 3:15; 4:7-21)은 거짓된 고백을 분명히 구분지을 것이다(참조, 마 13:21,22; 용일 2:19).

▣ “각각 구분하기를” 곡식과 가라지(참조, 마 13:24-30,36-43)가 서로 비슷하여 심판의 날까지는 나눌 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과 염소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다. 또한 오직 두 종류만 있음을 주목하라.

▣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같은 하나님은 구약의 은유에서 일반적이다(참조, 시 23 장). 겔 34 장에서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와 목자장 되시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목자”가 사용되었다. 숙 11:4-14; 요 10 장에서 같은 어원이 예수님께 사용된다.

25:33 “그 오른쪽에” 이것은 성경에서 탁월하고 영광스러우며 능력있고 권위있는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의인화된 구이다.

개역개정 25:34-40

<sup>34</sup>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sup>35</sup>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sup>36</sup>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sup>37</sup>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sup>38</sup>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sup>39</sup>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sup>40</sup>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25:34 “**임금**” 예수님은 종종 오실 왕으로서 불리셨다(참조, 계 17:14; 19:16). 이 용어가 예수께 사용될 때 이 용어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분으로서 야웨께서도 왕으로서 일컬어지신다(참조, 신 10:17; 딤후 6:15). 이 칭호의 전이적인 용법은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한 일반적인 기교였다.

▣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것은 **완료형 수동 분사**이다. 그들은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활동적인 분이시다.

▣ “**상속받으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믿는 자의 심판(참조, 고후 5:10)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참조, 딤후 2:14; 요일 1:7)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영적 은사의 사용과 우리의 헌신적 삶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참조, 고전 3:10-15). 19:29의 특별주제: 믿는 자의 유업을 보라.

▣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신약은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하신 일을 묘사하기 위해 이 구를 여러 번 사용했다(참조, 요 17:24; 엡 1:4,11; 뱀전 1:19-20; 계 13:8).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 1:1 이전에 구원을 위해 활동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다!

25:35-39 우리의 착한 행실과 사랑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한 우리 믿음의 시작을 드러내고 또 이를 확인해준다(참조, 엡 2:8-9,10; 딤후 2:21; 3:17; 딤후 3:1; 히 13:21).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참조, 약 2:14-26).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께 선한 일을 함과 관련이 있다(참조, 사 58:6-7).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한다(참조, 딤후 2:14).

25:40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형제**”라는 용어는 이웃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믿는 자가 돌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행 9:4, 22:7, 26:14, 고전 8:12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주는 사람도 같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 자신의 사역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즉, 타락한 인간이 그들의 창조주와 교제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 줌, 참조, 20:28; 막 10:45; 요일 3:16).

**개역개정 25:41-46**

<sup>41</sup>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sup>42</sup>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sup>43</sup>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sup>44</sup>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sup>45</sup>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sup>46</sup>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 . . 나를 떠나**” 지옥의 가장 나쁜 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리됨에 있다(참조, 마 7:23; 눅 13:27).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생활양식에 의해 그들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 문법 구조는 이 문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결과를 말한다. 행동은 외부 사람에 의해 드러난다.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영구적인 눈멀과 영구적인 거부로 끝난다! 이러한 거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써 그 자체를 드러낸다(42-43 절).

▣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역한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다. 사탄에게는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었다(단 8:10과 계 12:4에서 아마도 이것을 암시). 마 25 장에는 지옥에 대한 어두움의 은유(30 절)와 불(41 절)의 은유가 섞여 있다. 지옥의 끔찍함과 고통은 이제까지의 인간의 어휘와 정해진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성경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생생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은유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바깥 쪽의 쓰레기 처리장(“**개울**”)로 불린 힌놈의 골짜기에서 온 것이다. 예수님은 자주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참조, 사 33:14; 66:24; 마 3:10,12; 5:22; 7:19; 13:40,42,50; 18:8,9; 유 7 절; 계 14:10; 19:20; 20:10,14,15; 21:8). 18:18의 특별주제: 영원을 보라.

25:4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자적으로 이것은 “**아멘**”으로서 “**확정하는**”이라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단어, 개념, 가르침이 실제이며 그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한 용어이다. 예수님은 독특하게 이 표현을 어두에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종종 더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두 번 사용하셨다. 5:1의 특별주제를 보라.

25: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천국을 묘사하는 단어인 ‘영원히 계속되는’[아이오노스] 이 동일하게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참조, 18:8; 19:16; 막 3:29; 9:48; 10:17; 눅 18:18; 유 7 절; 계 20:10; 또한 “영원한 심판”과 함께 살후 1:9 과 히 6:2 에서 사용된다). 단 12:2; 요 5:29; 행 24:15 은 의로운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모두 나타낸다. 요세푸스는 바리새인이 모든 “영혼”의 불멸을 믿었는데(참조, *유대 고대사* 18.1.3) 의로운 자는 새 몸으로 부활하지는 악한 자는 영벌에 처함을 그들이 믿었다고 진술한다(참조, *유대인의 전쟁* 2.8.14). 영원함과 최종성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를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긴박성을 제공한다.

영원한 지옥은 반역한 인간의 비극일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도 비극이다! 하나님은 창조 사건의 절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참조, 창 1:26-27). 인간에게 선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피조물의 상당수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옥은 결코 치료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속에 생긴 아물지 않는 쓰라린 상처이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지옥이 어떻게 어두움이면서 불이 될 수 있을까?
2. 이 본문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한 착한 행실로 인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가?
3. 이 본문의 중심 진리가 무엇인지 당신 자신의 말로 해보라.
4. 그리스도인은 심판 받을 것인가?
5.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무엇을 지불하시고 계신가?

# 마태복음 2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26:1-5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26:1-5	예수를 죽으심 26:1-2 26:3-5	예수께 대한 음모 26:1-2 26:3-5	예수께 향한 공모 26:1-2 26:3-5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26:6-13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26:6-13	26:6-13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부음을 받으심 26:6-9 26:10-13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26:6-13
유다가 예수를 넘기려고 동의함 26:14-16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동의함 26:14-16	26:14-16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로 동의함 26:14-16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다 26:14-16
제자들과의 유월절 26:17-25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가지시다 26:17-30	최후의 만찬 26:17-19 26:20-25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다 26:17 26:18 26:19 26:20-21 26:22 26:23-24 26:25a,b 26:25c	유월절 만찬의 준비 26:17-19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심 26:20-25
성만찬의 규례 26:26-29		26:26-29	주의 만찬 26:26 26:27-29	성례전의 규례 26:26-29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심 26:31-35	예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26:31-35	갯세마네 26:30	26:30 26:31-32 26:33 26:34 26:35a 26:35b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심 26:30-35

겻세마네에서의 기도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께서 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겻세마네
26:36-46	26:36-46	26:36-46	26:36-38	26:36-37
				26:38-46
			26:39	
			26:40-41	
			26:42-43	
			26:44-46	
배신과 예수의 체포	배신과 겻세마네에서의 체포		예수의 체포	체포
26:47-56	26:47-56	26:47-56	26:47-48	26:47-56
			26:49	
			26:50a	
			26:50b-54	
			26:55-56a	
			26:56b	
법정에 서신 예수	예수께서 산헤드린 앞에 서시다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	법정에 서신 예수	산헤드린 앞에 서신 예수
26:57-68	26:57-68	26:57-68	26:57-61	26:57-58
				26:59-66
			26:62-63	
			26:64	
			26:65-66a	
			26:66b	
			26:67-68	26:67-68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슬피 울다		베드로가 부인하다	베드로의 부인
26:69-75	26:69-75	26:69-75	26:69	26:69-75
			26:70-71	
			26:72	
			26:73	
			26:74a	
			26:74b-75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26:1-2

<sup>1</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sup>2</sup>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26: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24-25 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 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이 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마쳐짐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시이다(참조, 7:28; 11:1; 13:53; 19:1; 26:1).

26:2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주님의 만찬이 있었던 정확한 날짜에 대하여 많은 혼동이 있다. 이것은 예수의 사역 기간 중 마지막 주에 있는 순회 사역과 관련이 있다. 주님의 만찬은 명백히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상징이다(참조, 요 1:29). 공관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유월절 음식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이 그 전날 행해졌음을 말한다. 대제사장직을 로마인 점령자에게서 샀으므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러 분파가 공식적 축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한 약간의 증거가 있다(즉, 사해 사본의 에센파는 태양력을 사용하여 하루 일찍 유월절을 지켰다).

요한은 만찬이 하루 일찍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께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의 신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날짜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예수께서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도 예수의 생애에 대한 신학적 제시를 위해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기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제시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영감을 받아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적합하게 하고 배열을 조정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인자” 마 8:24-30의 설명을 보라.

▣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참조, 마 16:21; 17:9,12, 22-23; 20:18-19; 27:63). 이 예언은 고난 받으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다. 예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일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참조, 막 10:45; 요 10:11,15,18). 그는 항상 모든 때와 사건을 주관하고 계셨다.

▣ “십자가” 이것은 페니키아 사람들 혹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반역과 범죄를 단절시키기 위해 대중 앞에서의 행한 고문의 형태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한 형태로 바꾸었다(즉, 여러 날 생존시키는 방법).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을 당하지 않았다. 이 형은 대중 앞에서의 때리는 일과 십자가에 못박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십자가의 모양은 영어의 대문자 “T” 혹은 소문자체 “t” 또는 “X”형이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십자가 형을 받는 경우에는 교수형도 함께 행해졌다. 최종적인 죽음의 요인은 질식이었다. 정죄받은 사람은 숨을 쉬기 위해 못박힌 그의 발 위에 체중을 의지해야만 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빨리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요 19:32).

### 개역개정 26:3-5

<sup>3</sup>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sup>4</sup>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sup>5</sup>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26:3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은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짧은 형태의 명칭이었다. 20:18의 특별주제를 보라.

▣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것은 가야바의 중심 법정으로서 아마도 안나스의 저택을 뜻할 것이다.

▣ **“가야바”** 가야바는 로마에 돈을 내고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었다(주후 18-36년). 그는 주후 6-15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다. 이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정치적이고 물질적 부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 점에서 관해서 모든 사두개인들을 혹은 산헤드린을 이들과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26:4 **“예수를 흥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은 예수의 사역 초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했으나 일반 대중이 그와 함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참조, 마 12:14; 막 14:1; 눅 22:2; 요 5:18; 7:1,19,25; 8:37,40; 11:53). 그들은 예수께서 누리시는 인기로 인해 시기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26:5 **“명절에는”** 유월절은 무교병의 축제와 함께 행해져 8일 간의 축제를 이루었다(참조, 출 12장과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3.10.5).

▣ **“민란이 날까 하노니”** 많은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와 디아스포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유월절은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지켜야 할 절기였다(참조, 레 23:2,4,17,44; 민 29:39). 매해 참석해야 할 세 절기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수가 보통 때의 3배가 되었다. 로마는 축제 기간에 군인의 수를 항상 더 늘렸다(참조, 27:24).

#### 개역개정 26:6-13

<sup>6</sup>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sup>7</sup>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sup>8</sup>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sup>9</sup>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sup>10</sup>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up>11</sup>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sup>12</sup>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sup>13</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26:6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음식을 접대했는데(참조, 요 12:1 이하), 자기들의 집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참조, 막 14:3). 이들이 모두 작은 마을인 베다니 출신이므로 어떤 면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시몬은 이전에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람임이 분명하다(그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26:7 **“한 여자가”** 요 12:3은 이 사람이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라고 말한다. 이 기사를 눅 7:37-39에 나오는 창녀가 행한 일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이것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흰/노란 색의 돌로된 병이었다. 그 안에는 “나드” 혹은 “감송향”으로 불리는 인도의 식물에서 채취한 내용물이 들어 있었다(참조, 아 1:12; 4:13-14; 막 14:3; 요 12:3). 이것은 매우 비싼 향유로서 마리아가 결혼선물로 받은 물건이었을 것이다.

▣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 12:3에서는 그녀가 나드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한다. 이 유리병이 350g 혹은 로마인의 1 파운드의 용량이었기에 예수의 몸 전체를 바르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유리병을 한 번 연 후에는 그것을 다시 밀봉할 수가 없었다.

26: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요 12:4에서는 가룟 유다가 분개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26:9 **“비싼 값에”** 비싼 값은 300 데나리온을 가리킨다(참조, 요 12:5).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금액이었다.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했을 것이다(참조, 요 12:6).

26:10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명사인 “일”과 동사(“하였느니라”)가 같은 어근에서 왔다. 이것은 이 진술에 대한 강조 혹은 관용적 용법을 나타낸다(참조, 요 3:21; 6:28; 9:4; 행 13:41; 고전 16:10).

26: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냉담함을 나타내는 진술이 아니라 예수께서 임재하심이 특별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26:12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제자였다. 아마도 그녀는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 향유는 장사지내기 전에 죽은 자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요 19:40).

26:13 **“온 천하에”** 예수께서는 그의 복음(이 용어로서 마태는 4:23; 9:5에서 예수께서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용어를 24:14; 26:13에서 사용하신다)이 모든 곳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참조, 마 24:9,14,32; 28:19-20). 이것은 온 세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이다(특히 이사야서에서, 즉, 2:1-4; 42:6; 49:6; 51:4-5; 56:7)!

개역개정 26:14-16

<sup>14</sup>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sup>15</sup>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sup>16</sup>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26:14 “가롯” 이 단어와 관련하여 여러 이론이 있다(이 단어는 여러 헬라어 사본에서 조금씩 다른 철자로 되어 있다). 이 단어는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유다의 성읍인 케리옷의 사람
2. 갈릴리의 성읍인 카르탄의 사람
3. 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죽 부대
4. “목 졸라 죽이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5. 암살자의 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만일 1 항이 맞다면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한 유대 사람이었다. 만일 5 항이 맞다면 그는 시몬처럼 열십당원 이었다.

유다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책이 최근에 출판되었다. 그 책은 *유다, 예수의 배신자인가 친구인가?*로서 윌리엄 클라센이 썼고 1996 년에 포트레스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내가 이 책에 대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 책이 요한복음에서 유다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참조, 요 12:6). 유다의 비극은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현대의 이론은 그가 예수로 하여금 유대인이 기대했던 군사적 메시아가 되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요한복음은 그가 도둑이었음을 밝힌다.

▣ “은 삼십” 이것은 수 11:12-13 의 성취이다(참조, 마 27:9-10). 예수께서는 버림을 받은 목자였다. 이 금액은 구약에서 뿔에 들이받혀 죽은 노예에 대한 보상금이였다(참조, 출 21:32). 스가라서 9-14 장은 예수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으로써 여러 번 인용된 부분이다.

1. 마 21:4-5 은 수 9:9 을 인용하였다
2. 마 24:35 은 수 12:10 을 인용하였다
3. 마 26:15 은 수 11:12-13 을 인용하였다
4. 마 26:31 은 수 13:7 을 인용하였다
5. 마 27:9-10 은 수 11:12-13 을 인용하였다

개역개정 26:17-19

<sup>17</sup>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sup>18</sup>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sup>19</sup>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6:17 “무교절의 첫날에” 마지막 주간의 일의 시간적 순서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종종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과 요한복음(13:1; 19:14,31,42)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팔일 간의 축제는 두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다. 유월절은 그 가운데 처음 안식일이였다(참조, 레 23:4-8; 신 16:8).

▣ “제자들이” 눅 22:8 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제자들로 언급한다.

▣ “유월절” 유월절 음식을 니산월 15 일 오후 6 시에 먹었다. 유대인들이 음력을 사용했기에 이 날은 해마다 달라졌다(참조, 20 절).

26:18 “아무에게 가서” 눅 22:10 은 그가 “물 항아리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일은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

NASB, NRSV,

NJB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NKJV

“내 때가 가까이에 왔으니”

TEV

“내 때가 왔으니”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거부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힐 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신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였다(참조, 요 2:4; 7:6,8,30; 8:20; 12:23; 13:1; 17:1).

▣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요한 마가의 집으로 본다. 그는

1. 바나바의 사촌(골 4:10)
2. 선교의 조력자(12:25; 13:5,13; 15:37,39)
3. 베드로의 기억을 기록한 마가복음(벧전 5:13)의 필사자였다.

이 장소는 또한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행 1:5; 2:1) 다락방(참조, 행 1:13; 12:12)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개역개정 26:20-25

<sup>20</sup>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sup>21</sup>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sup>22</sup>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sup>23</sup>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sup>24</sup>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sup>25</sup>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20 “앉으셨더니” 이 당시에는 이집트에서만 상과 의자를 사용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은 상을 앞에 두고 왼쪽 팔꿈치에 기대어 누웠고 발은 뒤쪽으로 향하게 했다(참조, 막 14:18). 이러한 자세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분기 쉽게 했다(참조, 요 12:3).

26:21 “팔리라” 이것은 “넘겨 주다”(파라디도미)를 뜻하는 헬라어 용어이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배신하다”로 번역되었지만 이것만 뜻하는 단어는 아니다. 이 단어는 다음의 내용을 의미할 수 있다

1. 신뢰함을 뜻하는 긍정적 의미(참조, 마 11:27)
2. 회복하다 혹은 명령하다(참조, 행 14:26; 15:40)
3. 어떤 사람을 권세자에게 넘겨줌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로서
4. 어떤 사람을 사탄의 손에 두다(참조, 고전 5:5; 딤후 1:20)
5.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자신의 우상숭배에 내버려 두심(참조, 행 7:42)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이 동사의 뜻을 문맥에서 규정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6:22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각 제자가 이 질문을 드렸다. 헬라어의 문법에서 이 구문은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있다. 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가진 혼동을 나타낸다.

26:23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동양에서는 주인을 배반하는 일을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참조, 시 41:9). 유다는 영예로운 자리인 예수의 왼편에 앉았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도우려고 하셨다!

▣ “그릇” 이것은 전통적인 유월절 소스인 견과류, 건포도, 대추, 무화과, 식초가 담긴 그릇이었다.

26:24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만 하시는지를 아셨다(참조, 요 13:1).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인류에게 따를 본을 보여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참조, 막 10:45; 행 2:23-24; 고후 5:21). 그의 생애는 구약의 예언에 계시되어 있었다(참조, 31,54,56 절; 11:10; 21:42).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문장이다. 유다의 배신은 필요한 일이었고 또 예언된 일로서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택과 자유 의지 사이의 신비를 나타낸다!

26:25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사용한 “주님”이 아니라 “랍비”(즉, 나의 선생님)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26:26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유다를 도우려고 하셨다. 이 관용적 표현은 26:64 과 27:11 에서 사용되었다.

#### 개역개정 26:26-29

<sup>26</sup>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sup>27</sup>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sup>28</sup>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sup>29</sup>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26 “그들이 먹을 때에” 이 내용이 암시하고 있는 *새깎* 음식의 초점은 식사 후에 마시는 세 번째 축복의 잔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출애굽 때의 구원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원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는 유월절 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취하여 새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마태는 예수를 두 번째 모세 곧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종종 나타내고 있다. 예수께서는 죄로부터의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신다.

▣ “떡” 이것은 유월절 식사 때 사용하는 넓적하고 부풀리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을 가리킨다(참조, 출 12 장).

26:26-28 “이것은 . . .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의 만찬에 대한 처음 기록은 바울이 쓴 고전 11:17-34 에 있다.

공관복음서들은 신약의 일부 서신이 기록된 다음에 쓰여졌다. 공관복음이 기록된 정확한 시기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책들은 교회에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었다(참조, 윌리엄 L. 블레빈스의 책, *신약의 탄생*, 개인 출판사 간행, 카슨-뉴먼 대학).

26:28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출 24:8 에 대한 암시이다. 고대 대문자체 헬라어 사본의 일부는 언약 앞에 “새”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다: 사본 A, C, D, W. 이 첨가는 램 31:31-34 을 반영한다. 한편 다른 많은 좋은 고대 사본(P<sup>37</sup>, *א*, A, B, L)에서는 이러한 첨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눅 22:20 과 같은 본문으로 만들려는 시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막 14:24 에 빠져 있다. UBS<sup>4</sup> 는 이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것은 사 53:11-12 의 암시이다. 23:35 의 특별주제: 다 쏟으심을 보라. 사 53:11,12 에 있는 “많은”과 사 53:6 에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롬 5:17-19 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5:18 의 “모든 사람”은 5:19 의 “많은 사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참조, 요 3:16); 잠재적인 면에서 모든 이가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새 언약의 시작(참조, 램 31:31-34) 및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뜻한다(“야웨께서 구원하신다,” 참조, 마 1:21).

26:29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것은 메시아가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만찬을 가리킨다(참조, 8:11; 눅 13:28-31; 말 1:11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종종 예수와 교회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 언급되었다(참조, 엡 5:23-29; 계 19:7). 4:17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라.

**특별주제: 술과 술취함에 대한 성경적 입장**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BDB 406)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 어근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어원은 불확실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 9:21; 출 29:40; 민 15:5,10 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BDB 440)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는 즙을 짜낸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특징적인 구절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분명히 알코올 음료를 말한다(“달콤한 술,” BDB 779, 예, 율 1:5; 사 49:26).
4. *새카* - 이것은 “독주”(BDB 1016)를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를 가리킨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야인*과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티로쉬*와 같은 뜻의 헬라어이다(참조, 막 2:22).
3. *클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아시스*)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이다.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04:14-15; 전 9:7; 호 2:8-9; 율 2:19,24; 암 9:13; 습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장).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를 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을 나타내었다(암 9:13; 욥 3:18; 숙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집회서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후전 5:23).
5.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후전 3:3,8; 딤후 1:7; 2:3; 벰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을 깊이 배우어야 한다(마 24:49; 눅 12: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벰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중요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에서는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장; 롬 14 장).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의 여부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질의 창조에 있어서 악한 것은 없다(참조, 막 7:18-23; 롬 14:14,20; 고전 10:25-26; 딤후전 4:4; 딤후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 가. 발효는 포도가 으개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부터 바로 시작된다.
- 나.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이 포도주를 십일조로 드리기에 적당하다(마 아세로쓰 1:7)고 유대의 전통은 말했다.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렀다.
-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고 보았다(엔후요쓰 6:1).
- 마. 포도주의 양금(오래된 포도주) 위에 있었던 포도주를 상품으로 여겼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야 했다.
-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숙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반드시 물로 묽게 해야만 했다.
- 사. 최근 100 년 동안에서야 평균적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의 사용으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 가. 당신의 경험, 신학, 성경적인 해석이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짊어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 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적 자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 라. 만약 우리가 완전한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개역개정 26:30

<sup>30</sup>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26:30 “찬미하고” 이 찬송은 시 113-118 편 혹은 146-150 편 가운데 하나나 혹은 몇 편을 가리킬 것이다. 이 시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축제가 마쳐질 때 사용하던 본문이었다. 한편 이 찬송이 대 할렐시(참조, 시 136 편)를 가리킬 수도 있다.

개역개정 26:31-35

<sup>31</sup>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흠어지리라 하였느니라 <sup>32</sup>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sup>33</sup>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sup>34</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sup>35</sup>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26:31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진술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필요로 하시는 때에 그들이 예수를 버릴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참조, 26:56). 요한만 예수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따랐다. 나머지는 다 도망쳤다!

▣ “기록된 바” 이것은 속 13:7 의 인용이다. 스가라서의 처음 8 장은 계시록에서 자주 인용되었고 나머지 6 장은 복음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점이 흥미롭다. 목자를 치시는 분은 바로 야웨이시다(참조, 사 53:6,10; 롬 8:32).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인함이었다(참조, 행 2:23; 3:18; 4:28; 13:29). 24:14 의 특별주제: 밤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 “양” 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동물적 은유가 되었다.

1. 마 7:15(거짓 양)
2. 마 9:36; 26:3; 막 14:27(흠어진 양 때)
3. 마 10:6; 15:24(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4. 마 10:16; 눅 10:3(이리 속에 있는 양들)
5. 마 18:12; 눅 15:6(비유)
6. 마 25:32-33(양과 염소의 심판)
7. 막 6:34(목자없는 양)
8. 요 10:1-18(선한 목자이신 예수)
9. 요 21:16-17(베드로야 내 어린 양과 양을 먹여라)
10. 뵤전 2:25(사 53:6,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양)

26:32 “내가 살아난 후에” 27:6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부활 후에 있을 모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참조, 마 26:32; 28:7,10,16-20; 고전 15:6; 요 21 장). 이것은 제자들을 크게 격려하는 내용이었지만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26:33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베드로의 허풍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을 부인하는 내용인 마 16:22-23 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다.

26: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으로서 “원래는 “굳게 되다”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후에는 “나는 동의한다” 혹은 “나는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셨다. 5: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닭 울기 전에” 이 일은 밤 12 시와 새벽 3 시 사이에 일어났다. 이 수탉은 로마 사람들의 닭이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성에 닭을 키우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인들이 사용한 트럼펫 신호가 “수탉의 울음”으로 불렸는데 이 소리가 새벽 3 시에 경계가 끝날 때에 울렸다는 것은 약간 의심스럽다. 어쨌든 이것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2. 사 복음서에 나타난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3.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는가? 그가 무엇을 했는가? 왜 그가 그 일을 했는가?
4. 주의 만찬이 가진 중요성은 무엇인가?
5. 왜 유다는 주의 만찬에 참여했는가?
6.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일에 대한 예언이 왜 기록되었는가?

**26:36-75 에 대한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6:36-38**

<sup>36</sup>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sup>37</sup>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sup>38</sup>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26: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겔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곳”을 뜻한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이 소유한 정원으로서 예루살렘의 바로 외곽에 있는 감람산에 위치했다. 도시 안에 정원을 갖는 일은 법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름으로써 도시가 의식상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동산에 아주 자주 오셨음이 확실하다. 예수께서는 고난 주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야영을 하셨을 것이다. 유다는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26: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막 14:33 과 요 4:21 에서 우리는 다른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음을 안다.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 핵심 그룹을 이루는 지도자들이었다(참조, 17:1; 막 5:37).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은 여러 특별한 사건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일은 특별한 훈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시기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왜 예수께서 핵심 그룹을 따로 만드셨는지에 대하여는 불확실하다. 열 두 제자의 목록은 항상 세 명으로 구성된 네 그룹이었다. 그 그룹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그룹의 운영은 제자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자기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단어들은 헬라어에서 강한 의미를 갖는 용어들이다(참조, 막 14:33). 우리는 이 동산에서 지금 매우 거룩한 곳에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있음을 우리가 본다.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자신의 부활 을 목격할 제자들에게 알려 주셔야만 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유혹을 받는 자들과 갈보리 사건의 고뇌와 값을 이해하려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26:38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구약의 관용어로서(참조, 시 42:5; 욥 1:9) 죄인된 인간의 구속에 대한 심각한 강렬함을 나타낸다. 평행을 이루는 본문인 눅 22:43-44 에서는 한 천사가 예수께 수종 들고 또 예수의 땀 방울이 피처럼 떨어졌다고 기록한다. 악한 자에 대한 승리는 바로 이 동산에서 성취되었다. 마 4 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이 교활함과 마 16:22 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이 그 자신은 예수를 도우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아주 파괴적이었음을 이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다.

**개역개정 26:39-41**

<sup>39</sup>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sup>40</sup>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sup>41</sup>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26: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겔세마네 동산에서 바위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림은 감동적이지만 부정확한 묘사이다. 이 절의 헬라어 본문은 그가 고통과 번민으로 인해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순간에는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신 것이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민하시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어떤 이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 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은 제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매 순간 성부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실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려는 순간에 계셨다. 성자로 번민하게 했던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일 및 모든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의 짐을 그가 감당하심을 인함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이러한 커다란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파괴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문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개 들어 있다. 마가복음의 평행구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아람어인 “아바”를 사용하셨음을 본다. 이 용어는 가족 관계에서 누리는 친밀함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보통 “아빠”로 번역되고 있다. 바로 몇 시간 후면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바뀌게 된다(참조, 27:46).

“만일 할 만하시거든”(조건절의 제 1 유형)이 마가복음의 평행구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와 함께 나온다(참조, 막 14:36). 35 절과 42 절 사이에 나타나는 작은 차이 및 복음서들의 미묘한 차이는 44 절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같은 기도 내용을 세 번 하신 것임을 드러낸다.

“잔”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였다(참조, 시 75:8; 사 51:17,22; 렘 25:15,16,27,28).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심판의 잔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했다(참조, 고후 5:21; 갈 3:13).

▣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대명사인 “나”와 “당신”은 헬라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위치에 있다. 이것은 42 절에 나타난 조건절의 제 1 유형과 제 3 유형이 합쳐진 것으로서 성자께서 하신 기도의 의도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은 구해주실 것을 간구하셨지만, 그 가슴은 대속의 구속으로써 성부의 뜻을 성취하기로 정하셨다(참조, 막 10:45).

26: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눅 22:45 에 있는 “그들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이란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바 그의 죽으심과 또 그들이 다 흩어질 것이란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번에 겪으시는 가장 큰 위기를 앞에 두고 인간적인 교제와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셨음에도 예수께서는 이 순간을 홀로 맞닥뜨려야 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이 일을 감당하셨다!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현재 명령들로 되어 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다! 유희는 계속해서 있는 실재이다(참조, 마 4:11; 눅 4:13; 롬 7 장).

“시험”이 이 문맥에서 무엇을 가르키는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일
2.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일, 56 절
3. 베드로의 부인, 69-75 절
4.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시련(참조, 마 5:10-12; 요 9:22; 16:2)

“시험”(πειρασμος)이라는 용어는 “파괴할 목적으로 유혹하거나 시험함”을 뜻한다(4:1의 특별주제를 보라, 참조, 마 6:13; 눅 11:4; 약 1:13). 이 단어는 종종 시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도키마조)와 대조를 이룬다. 도키마조는 “강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유혹”을 나타낸다. 한편 이러한 함축적 의미가 항상 모든 경우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시며, 오직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자랄 기회를 주신다(참조, 창 22:1; 출 16:4; 20:20; 신 8:2,16; 막 4 장; 눅 4 장; 히 5:8).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참조, 고전 10:13).

▣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을 우리가 가진 약한 점과 더불어 완전히 아시는 예수께서 하신 독백이다(참조, 히 4:15). 우리를 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참조, 롬 5:8)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참조, 롬 8:34; 히 7:25; 9:24; 요일 2:1). 할렐루야!

#### 개역개정 26:42-46

<sup>42</sup>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sup>43</sup>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sup>44</sup>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sup>45</sup>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sup>46</sup>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26:42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과 조건절의 제 3 유형의 합성이다. 이 문장은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으며 자신이 염려하는 바를 성부께 말씀드릴 수 있음을 아셨다는 점을 나타낸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나 혼동을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유익하다.

**26:44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께서 세 번 기도하셨다. 이 일은 바울이 자기 육신에 있는 가시를 제거여 주시기를 위해 바울이 세 번 기도한 일과 비슷하다(고후 12:8). 히브리어에서는 삼중으로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나타낸다(참조, 사 6:3; 렘 7:4). 우리는 우리가 간구할 내용을 가지고 어느 때에라도 또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어느 때에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26:45

NASB, NKJV, TEV “너희가 여전히 자고 쉬느냐”  
NRSV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느냐”  
NJB “너희가 이제는 자고 쉼 수 있느니라”

이 헬라어의 관용적 표현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질문인가? 이것은 반대로 하는 표현인가? 이것은 진술인가? 이것은 명령인가? 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음에도, 예수께서 승리를 거두셨으며 그가 이제 일어나셔서 밤중에 행해질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에는 채찍질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가 되셨음은 분명하다.

▣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는 복음서 전체(특히 요한복음에서, 참조, 12:23; 13:1,32; 17:1)에서 바로 이 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었다(참조, 막 14:35,41). 24:36의 특별주제: 때를 보라.

▣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은 16:21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다.

개역개정 26:47-50

<sup>47</sup>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sup>48</sup>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sup>49</sup>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sup>50</sup>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26:47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의 동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가 49 절에서 예수께 한 입맞춤은 (1) 이 사람이 잡을 사람이라는 신호를 군인들에게 보낸 것(참조, 48 절)이거나 (2) 그가 무력으로 예수의 손을 붙잡았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말일 것이다(참조, 27:4). 다른 복음서들의 본문에서는 그가 강도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였다고 말한다(참조, 요 12:6).

눅 22:52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무리의 구성을 알 수 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검을 지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체포할 때에 산헤드린의 대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참조, 47,51 절).

26:48 **“입맞추는”** 이것은 랍비들 사이에서 행한 존경과 인사의 표였다. 유다는 49 절에서 예수님을 “랍비”(“나의 선생님”)로 부른다.

26:50

NASB “친구여 네가 행하려고 온 일을 행하라”  
NKJV “친구여 네가 왜 왔느냐”  
NRSV “친구여 네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  
TEV “친구여 그것을 빨리 하라”  
NJB “내 친구여 네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

이 헬라어의 관용적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 말은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1. 질문(NKJV)
2. 책망(TEV)
3. “네가 행하려고 온 일을 하라”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NASB, NRSV, JB)

영어 표준 번역(ASV)과 윌리엄의 번역은 이것이 아이러니 혹은 의도적으로 절제된 표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흄정역과 RSV는 이것을 질문 곧 감추어진 아리러니로 이해한다. “친구”라는 단어의 사용은 유다에게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거나(참조, 26:23) 혹은 비꼬는 표현이었을 것이다(참조, 20:13; 22:12).

개역개정 26:51-54

<sup>51</sup>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sup>52</sup>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sup>53</sup>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sup>54</sup>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26:51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요 18:10 과 눅 22:50-51 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종은 말고였음을 안다. 예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눅 22:36-38).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정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오해했다. 베드로는 지금 주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마음이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매우 이상한 일에 직면한 그는 칼 두 자루 가운데 하나를 빼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다시 한 번 부적절하고 즉흥적인 그의 개성을 보여준다.

26:52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사용하던 잠언이었다(참조, 계 13:10). 이 말씀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에 명확히 나타난 특징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이 말씀은 성경의 잠언과 비슷하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같이 체포되었음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검을 가진 도둑과 강도들로 보였을 것이다! 2:13 의 특별주제: *아풀뿔리*를 보라.

26:53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다(참조, 요 13:1). 예수께서는 성부께서 가지신 군대에 대해 아셨지만, 이제 죽기로 결심하셨다(참조, 요 10:17-18)!

▣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로마의 한 군단은 6,000 명의 군사로 이루어 졌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수 천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기도 했다. 14:20 의 특별주제: 열 둘이라는 숫자를 보라.

26:54, 56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일 54 절에 있는 이 표현이 56 절에 나오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일어남을 뜻하는 일반적 진술이 된다(참조, 눅 22:22; 행 2:23; 3:18; 4:28). 우리는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과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를 따른 것을 안다(참조, 58 절). 따라서 이것은 사 53:6 을 가리키는 일반적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이 일들이 성부께서 가지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을 아셨다.

이 내용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언하신 고난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처음 예언은 16:21-28 에 있음). 그 예언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또 거부당하심에 대한 내용이다(즉, 창 3:15; 시 22 편; 시 53 편; 스 9 장과 12 장).

개역개정 26:55-56

<sup>55</sup>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sup>56</sup>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6:55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참조, 마 12:14; 요 11:53). 그들은 순례자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진 무리와 함께 예수께서 있지 않으신 때에 그를 체포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 NASB, NKJV “강도”  
JB “도둑”

이 용어는 강포하고 무법한 사람을 뜻한다(참조, 눅 10:30). 이 단어는 후에 요세푸스가 바나바와 같은 폭동 선동자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27:16-17).

개역개정 26:57-58

<sup>57</sup>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sup>58</sup>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26: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요 18:12 에서 우리는 그가 안나스의 집에 먼저 끌려가셨음을 안다. 그는 대제사장의 배후에 있던 실세였다. 분명히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 산헤드린의 회원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미 거기에 모여 있었다. 대제사장과 함께 쓰인 “서기관과 장로들”이란 표현은 산헤드린을 일컫는 긴 이름이었다.

**특별주제: 산헤드린의 밤에 재판한 일의 불법성, 마 26:57-68**

- 가. 사형 판결을 위한 법정을 밤에 열 수 없었다.
- 나. 사형 판결과 그 집행을 같은 날에 행할 수 없었다.
- 다. 축제일이나 축제일 전날에 어떤 재판도 행할 수 없었다.
- 라. 이 날 아침은 특별히 성구함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도록 정해진 시간이었다(참조, 신 6:8; 11:18).
- 마. 이 날 아침은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시간이었다(참조, 출 23:15).

**개역개정 26:59-64**

<sup>59</sup>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sup>60</sup>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sup>61</sup>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sup>62</sup>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나 하되 <sup>63</sup>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sup>64</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26:59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죄목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두 명의 증인을 그들이 찾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약의 법적 절차는 정죄받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 두 명의 증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산헤드린은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신빙성있는 두 증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60-61 절). 마지막으로 그들은 비슷한 두 증인을 찾아냈다(참조, 막 14:59). 그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참조, 요 2:19).

밤에 행해진 이 재판에는 여러 가지의 불법적 요소가 나타난다(26:57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로마의 보복으로부터 나라 전체를 구할 수 있을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26:61** 비록 예수께서 이러한 진술을 자주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것은 요 2:19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주후 70년에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시킬 일과 자신의 새로운 부활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참조, 16:21; 17:23; 20:19). 그것은 야웨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새로운 초점을 이루게 되었다. 제사제도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대체되었다(참조, 히브리서). 받아들여짐 및 예배에 두었던 큰 중요성이 바뀌었다! 예수께서 새 성전이시며(참조, 요 2:19-21) 그를 따르는 자들도 성전이 되었다(참조, 고전 3:16-17; 고후 6:19).

**26: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것은 재판의 후반부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마 27:12,14의 기록과 같이 사실이다. 이 일은 사 53:7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다.

▣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를 통해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부과하게 하는 일은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야웨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직면하여 침묵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야웨”라는 이름은 출 3:14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히브리어에서 “있다”라는 동사에서 온 이름이다. 이 뜻은 “항상 계시며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한다(참조, 16:16).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약의 이름이었다.

이 지도자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하신 가르침과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주장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동일시 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예수께서 구적으로 내려온 전통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를 거짓 메시아 가운데 한 명으로 보았다.

26:64

NASB  
NKJV  
NRSV  
TEV  
JB  
NJB

“네 자신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대로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듯이”  
“그 말은 네 자신의 말이니라”  
“그것을 말하는 자는 바로 너니라”

이것은 마 26:25에 있는 것과 같이 긍정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것은 약간 모호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렇다, 나는 메시아이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다(참조, 막 14:62).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 보이셨다. 권능(즉, 야웨)의 우편에

앞아 계심은 시 110:1 에 대한 암시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심은 단 7:13 에 대한 암시이다(참조, 막 13:26; 마 24:30; 계 1:7). 예수께서는 구약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시오 또 하나님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주장(즉,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심)이 자신에게 신성모독에 의한 사형을 가져올 것을 아셨다.

**개역개정 26:65-66**

<sup>65</sup>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sup>66</sup> 너희 생각은 어떠하나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26: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것은 신성모독을 인해 심령이 매우 어지럽게 됨을 나타내는 표시였다(참조, 행 14:14). 레 24:15 에 의하면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다. 만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가 아니시라면 신 13:1-3 과 18:22 에 근거하여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 중간 지대는 여기에 없었다. 예수께서 자신이 주장하시대로 그 분이시든지 혹은 마땅히 죽어야 할 신성모독자든지 둘 중의 하나였다(참조, 죠스 맥도웰, *평결을 요구하는 증거*).

**개역개정 26:67-68**

<sup>67</sup>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sup>68</sup>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26:67-68 이러한 폭행을 산헤드린의 일원이 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부하들이 행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막 14:65 은 그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치고는 누가 그를 때렸는지를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사 53:3 의 성취일 것이다.

**개역개정 26:69-75**

<sup>69</sup>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sup>70</sup>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sup>71</sup>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sup>72</sup>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sup>73</sup>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sup>74</sup>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sup>75</sup>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6:69-73 복음서마다 세 번 부인한 일의 정확한 순서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다. 베드로가 점점 강하게 세 번 예수를 부인한 점에 있어서 모든 복음서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 일에 대한 역사적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서가 이 일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26:71 “갈릴리 사람 예수와”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26:72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헬라이어 단어는 경멸을 암시하는 진술이다.

26:73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말에 나타나는 악센트와 아람어의 후음을 발음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해 갈릴리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것은 다시금 경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 거짓말을 확증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은 비극이다. 만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라면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 베드로는 커다란 사랑, 용서, 예언의 말씀, 기적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분을 분노를 나타내며 맹세함으로써 세 번이나 부인했다. 만일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와 유다의 유일한 차이점은 유다는 예수께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은 로마인의 닭이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닭이 땅을 더럽힌다고 여겨서 예루살렘에서 닭을 키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26:34 의 설명을 보라).

눅 22:61 에 의해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을 알게 된다. 이 점은 안나스와 가야마가 같은 집에서 살았고 예수께서는 뜰을 통해 베드로를 보셨음을 뜻하거나 예수께서 두 사람의 집 사이로 이송되면서 그를 보셨음을 의미한다.

26:75 “이에 베드로가 . . .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함을 통해 그 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한편 예수를 자신의 말과 삶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인한 모든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예수께 믿음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참조, 요 21 장).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께서 왜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에 가셨는가?
2. 무엇이 동산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거의 죽으실 정도로 고민하시게 했는가?
3. 예수께서 이렇게 세 번 반복하여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참으로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4.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왜 그렇게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는가?
5. 예수께서는 왜 64 절에 기록된 내용을 분명히 밝히셔서 자신이 정죄받게 하셨는가?
6.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서에 있어서 왜 복음서의 기록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 마태복음 2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이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오심	예수께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시다
27:1-2	27:1-2	27:1-2	27:1-2	27:1-2
유다의 죽음	유다가 자신의 목을 매다		유다의 죽음	유다의 죽음
27:3-10	27:3-10	27:3-10	27:3-4a 27:4b 27:5 27:6-8 27:9-10	27:3-10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빌라도를 대면하시다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하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27:11-14	27:11-14	27:11-14	27:11-11a 27:11b-12 27:13 27:14	27:11-14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심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심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심	
27:15-26	27:15-26	27:15-23	27:15-18 27:19 27:20-21a 27:21b 27:22a 27:22b 27:23a 27:23b	27:15-18 27:19 27:20-26
		27:24-26	27:24 27:25 27:26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십자가에 달리심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놀리다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다
27:27-31	27:27-31	27:27-31	27:27-31	27:27-31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십자가에 달리신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27:32-44	27:32-44	27:32-37	27:32-34 27:35-38	27:32-36 27:37-38
		27:38-44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조롱을 받으시다
			27:39-40 27:41-43 27:44	27:39-44
예수의 죽으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27:45-56	27:45-56	27:45-54	27:45-46 27:47-48 27:49 27:50 27:51-53 27:54	27:45-50 27:51-54
		27:55-56	27:55-56	27:55-56
예수를 장사지냄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예수		예수를 장사지냄	장사지냄
27:57-61	27:57-61	27:57-61	27:57-61	27:57-61
무덤을 지키는 자	빌라도가 경비를 세우다		무덤을 지키는 자	무덤을 지키는 자
27:62-66	27:62-66	27:62-66	27:62-66 27:65 27:66	27:62-66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개역개정 27:1-2

<sup>1</sup>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sup>2</sup>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27:1 “새벽에” 로마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재판 법정을 열었는데 그 이유는 더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시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이 시각은 대략 오전 6 시경이었을 것이다.

▣ “모든 대제사장과” 복수형으로 된 이 단어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산 안나스 가문의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그의 아들들과 사위가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 “함께 의논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신성모독으로 정죄받은 26:64 에 있는 예수의 진술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일이었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주를 받게 하기를 원했다(참조, 신 21:23). 따라서 그들은 죄명을 갖고 와서 로마인들이 이를 집행하도록 공모해야만 했다. 그들이 예수께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주장했다는 죄명을 사용하여서 그를 로마에 대해 정치적으로 위협을 주는 인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였다.

27:2 “결박하여” 이러한 재판의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를 결박하였는데 그 이유는 (1)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결박을 풀게 될 것을 그들이 두려워 했고 (2) 결박이 예수를 비천하게 하는 한 방법이었으며 (3) 이것이 일반적으로 죄수를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 “총독 빌라도에게” 이 일은 성전 옆에 있는 로마 사람들의 건축물인 안토니오 요새에서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 일은 헤롯의 궁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로마의 관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들은 이 건물을 사용하였다. 로마는 유대인의 축제기간에는 폭동에 대비하여 가이사라로부터 바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참조, 27:24). 빌라도는 주후 26-36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 역사의 기록은 그를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온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1. 이방인에 의해 죽임을 당함에 대해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2. 당시 산헤드린은 사형시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신성모독죄였기에 반드시 돌로 침을 당해야 했다. 바로 이 일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 장에서 스테반에게 행하였는데,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예수께 신 21:23 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메시아인척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저주”(참조, 갈 3:13; 골 2:14)를 받으신 것이다!

헬라이어 사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변이가 나타난다. 고대의 여러 좋은 사본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폰티우스로 나타난다(참조, A, C, W 사본 및 별게이트 역). 이 이름은 눅 3:1; 행 4:27; 딤후전 6:13 에도 나타나고 있다. 초대 교회의 글에서 두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 이름은 사본 **N**, B 및 막 15:1; 눅 23:1 에는 들어 있지 않다.

특별주제: 본디오 빌라도

I. 출신

- 가. 태어난 장소와 때는 알려지지 않음
- 나. 기병대 출신(로마 사회의 중상층)
- 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음
- 라. 이전의 행정관으로서의 지위(여러 직임을 그가 맡았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II. 그의 성격

- 가. 두 가지의 다른 관점
  1. 필로(레가티오와 가이움, 299-305)와 요세푸스(유대고대사 18.3.1 과 유대전쟁사 2.9.2-4)는 그를 잔인하고 동정심이 없는 독재자로 묘사했다.
  2. 신약(복음서들, 사도행전)은 그를 나약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로마 총독으로 표현했다
- 나. 바울 바네트(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발생, 143-148 쪽)는 이 두 관점에 관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을 한다.
  1. 빌라도는 주후 26 년 친유대주의자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참조, 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160-161), 티베리우스의 반유대파 고문관인 세자누스에 의해 임명되었다
  2. 티베리우스는 집정관으로서 황제의 배후에 있었고 유대인을 미워했던 L. 아엘리우스 세자누스에 의해 정치적인 손해를 입었다(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159-160).

3. 빌라도는 세자누스의 보호를 받았고 그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했다:
  - ㄱ. 다른 총독들이 하지 못했던 로마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옮겨 줌(주후 26 년). 로마 신들의 상장은 유대인을 격노하게 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3.1; *유대전쟁사* 2.9.2-4).
  - ㄴ. 로마인들이 숭배한 형상들을 새긴 동전을 찍어냄(주후 29-31 년). 요세푸스는 그가 유대인의 법과 관습을 의도적으로 전복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4.1-2).
  - ㄷ. 예루살렘에 도수관을 건설하기 위해 성전의 보물을 취함(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8.3.2; *유대전쟁사* 2.9.3).
  - ㄹ.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게함(참조, 눅 13:12).
  - ㅁ. 주후 31 년에 예루살렘 안으로 로마인의 방패를 가져옴. 헤롯대왕의 아들은 빌라도에게 그것을 치워달라고 간청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로 그것들을 옮기도록 명령하였다(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299-305).
  - ㅂ.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잃어버린 종교적인 신성한 물건들을 찾고 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라심 산에서 죽게함(주후 36/37 년). 이일은 빌라도의 상관(시리아의 장관 비텔리우스)으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어 로마로 보내게 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4.1-2).
4. 세자누스는 주후 31 년에 처형되었고 티베리우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ㄱ-ㄴ항까지는 빌라도가 세자누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행했을 것이다. ㅁ과 ㅂ항은 티베리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시도한 것이지만, 불리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5. 친유대적 황제가 복위하여 유대인에게 친절히 하라는 공식적인 서신이 티베리우스로부터 총독에게 보내어졌다((필로, *레가티오와 가이움*, 160-161). 예루살렘의 유대지도자들이 티베리우스와의 관계에서 빌라도가 가진 정치적 취약성을 이용하였고 또 그를 조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였음이 명백하다. 바네트의 이러한 견해는 빌라도에 대한 두 관점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 III. 그의 운명

- 가. 그는 소환되어 티베리우스가 죽은 직후 로마에 도착했다(주후 37 년).
- 나. 그는 다시 임명되지 않았다.
- 다. 그 이후의 그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개역개정 27:3-10

<sup>3</sup>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sup>4</sup>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랴 하거늘 <sup>5</sup>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sup>6</sup>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둬서 옮겨 놓지 마라 하고 <sup>7</sup>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sup>8</sup>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발을 피발이라 일컫느니라 <sup>9</sup>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sup>10</sup>토기장이의 발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27: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구는 모호한 선행 대명사인 그와 관련이 있다. 윌리암스와 빌립스의 신약역은 그를 유다로 번역하였지만 다른 현대 번역본에서는 모두 이 대명사가 예수를 뜻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NASB에서는 “그”(He)로 번역하였다. NIV, TEV, JB, NRSV에서는 대명사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 번역하였다.

▣ “스스로 뉘우쳐” “뉘우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 단어는 마 3:2 에서 사용되었는데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뜻한다. 이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후에 슬퍼하다”를 뜻하며 아무런 실제적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마 21:29; 고후 7:8). 신약에서 이 두 용어의 의미를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은 고후 7:8-10 이다. 3:2 의 특별주제: 회개를 보라.

▣ “은 삼십을” 이것은 슥 11:12 의 암시이다. 이것은 짐승에 받혀서 죽은 노예에 대한 금액이었다(참조, 26:15; 출 21:32).

27:4 “무죄한 피를”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 부분에 변이가 나타난다. 본 주석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는 모든 영어 번역본에서는 “무죄한”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대 대문자체 사본인 B에서는 원래 “무죄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기의 필사자가 마 23:35 에서 “의로운”을 취하여 삽입했다. 이것을 벌게이트 역과 사복음 대조서가 따랐다. 70 인역은 두

형용사를 명사인 “피”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했다: 70 인역에서는 “무죄한”이 14 번 “의로운”이 4 번 나타난다. UBS<sup>4</sup>는 “무죄한”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27:5 “성소에” 이 헬라이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와 구별되어져 사용된 용어로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핵심적 부분을 일컫는다(참조, 요 2:9).

▣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은 자살이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다. 구약에는 여러 곳에서 자살에 대해 언급한다: 삿 9:54; 16:30; 삼상 31:4,5; 삼하 17:23; 왕상 16:18.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한 본문이 없다. 유다의 잃어버려짐을 인친 것은 그의 한 자살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행 1:8 에 기록된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의 기록과 상치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뒷받침한다. 유다는 분명히 절벽 위에서 목을 매었고 후에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의 몸이 떨어져 배가 갈라졌을 것이다.

#### 특별주제: 가룻

이 단어의 어원은 약간 불명확하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1. *케리웃*, 유다의 성읍(참조, 수 15:25)
2. *카르탄*, 갈릴리의 성읍(참조, 수 21:32)
3. *카로이테스*,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 있는 대추 야자 숲
4. *스코테아*, 앞 치마 혹은 가죽 가방(참조, 요 13:29)
5. *아스카라*, 교살하다(히브리어), 마 27:5 에서
6. 암살자의 칼(헬라이어), 이 뜻은 그가 시몬처럼 열심당이었음을 말한다(참조, 눅 6:15)

27:6 “이것은 핏값이라” 그들은 예수를 배반한 것에 대해 돈을 줄 때에는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음에 있어서는 불편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27:7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이것은 아마도 토기를 만드는 흙을 채굴하는 장소로서 그 재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아 가격이 짠 땅이었을 것이다. 이 내용은 렘 18-19 장의 암시일 것이다. 제롬의 시대(주후 4 세기)부터 이 장소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힌놈의 계곡이었다고 말해졌다.

27:8 “피발” 이것은 행 1:19 에 나오는 *하켈다마*라는 아람어를 번역한 것이다. 제롬의 별게이트 역에서는 이 절에 아람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27:9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은 숙 11:12-13 의 직접 인용이다. 렘 18:1-9 도 토기장이에 대하여 말하며 렘 32:7-9 은 발을 사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점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1. 어거스틴, 베자, 루터, 카일은 마태가 실수로 예레미야의 이름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2. 페쉬타, 5 세기의 시리아 역본, 디아테사론은 본문에서 선지자의 이름을 삭제했다
3.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필사가가 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4. 제롬과 에발트는 이 내용이 외경에 들어 있는 것을 예레미야서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 메데는 예레미야가 스가라서 9-11 장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6. 라이트푸트와 스코필드는 예레미야서가 “선지서”로 불리는 부분에서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그 부분에 속한 모든 책을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 칼빈은 어떤 실수가 본문에 스며들었다고 주장했다
8. F. F. 브루스와 JB 역의 각주는 이것이 스가라사와 예레미야서에서 함께 인용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6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 개역개정 27:11-14

<sup>11</sup>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sup>12</sup>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sup>13</sup>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sup>14</sup>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27:11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빌라도를 우려하게 하는 정치적 문제였다.

27:11  
 NASB, NKJV “네가 말한 대로이다”  
 NRSV “네가 그렇게 말한다”  
 TEV “그래서 네가 말한다”  
 NJB “그것을 말한 자는 바로 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참조, 요 18:33-37)을 통해 예수님의 왕국은 땅에 속한 왕국이 아님을 드러낸다.

27:12 “고발을 당하되” 눅 23:2 을 보라.

▣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사 53:7 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이나 헤롯의 앞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개역개정 27:15-18**

<sup>15</sup>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sup>16</sup>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sup>17</sup>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sup>18</sup>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27:15 “명절이 되면” 이것은 유월절을 가리킨다. 유월절은 20 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일년에 세 차례 참석해야 하는 세 명절의 하나였다(참조, 레 23 장).

▣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것에 대하여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20.9.3 외에는 다른 어떤 역사적 자료가 없다.

27:16, 17 “바라바” 후기에 속하는 어떤 번역본에서는 “예수 바라바”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으로 전해진 내용일 뿐 본문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성서공회에서 간행한 브루스 멧츠거의 *헬라이어 신약에 대한 본문 주석*(67-68 쪽)을 보라.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혹은 탐비의 아들을 뜻한다. 그는 예수께서 징죄받으신 죄목인 반역죄를 행한 사람이었다.

27: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방면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었다.

**개역개정 27:19-23**

<sup>19</sup>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sup>20</sup>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sup>21</sup>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sup>22</sup>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sup>23</sup>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7:19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해 이야기를 했음이 틀림없다. 그녀는 예수께 대하여 메시아를 뜻하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녀가 그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놀라운 사실은 이교도 여인이 알아본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은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참조, 마 27:54; 요 1:11).

27:20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13 의 특별주제: *아폴뤼미*를 보라.

27:23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있으시다고 생각지 않았다. 이 본문(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재판도)은 기독교가 로마의 통치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음을 초대 교회가 보여 주는 본문이었다.

▣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 미완료 시제의 문장은 “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혹은 “그들이 소리를 계속해서 질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무리는 승리의 입성에 참여했던 순례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라바의 친구들로서 그의 풀려나게 할 목적으로 모인자들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무리가 산헤드린이 모아 놓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개역개정 27:24-26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27:24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이 열광적인 순례자들로 넘쳤기에 항상 민란의 가능성이 있었다. 로마는 항상 축제 기간 동안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는 병력을 추가로 안토니오 성채에 배치시켰다.

▣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것은 로마인의 관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이었다(참조, 신 21:6-7; 시 26:6; 73:13).

27:25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구약에서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죄에 대한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엄숙한 맹세였다(참조, 출 20:5-6; 삼하 3:29).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였다! 이일은 주후 70 년에 성취되었다.

27:26 “채찍질하고” 이것은 매우 혹독한 형벌이었다!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종종 죽었다. 이 일은 항상 십자가 형을 집행하기 전에 행해졌다. 요 19:1,12 에 의하면 빌라도가 사람들로부터 예수께 대한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 이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서에서는 이 잔인한 채찍질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1. 프라켄류, 마 27:26; 막 15:15, NASB 는 이 단어를 “채찍질”로 번역함
2. 테로, 눅 22:63, NASB 는 이 단어를 “때림”으로 번역함
3. 마스티구, 요 19:1, NASB 는 이 단어를 “채찍질”로 번역함(참조, 마 20:19; 막 10:34; 눅 18:33)

십자가형을 집행하기에 앞서 항상 이 잔인한 채찍질을 행했다. 가혹한 채찍질을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손을 묶어 땅 위에 있는 말뚝에 매어 놓았다. 그 다음에는 가죽 끈에 돌, 금속, 뼈 등을 9 개의 줄 끝에 꼬아 넣은 채찍으로 등 위에 내리쳤다. 기록에 의하면 이 끈들은

1. 죄수의 눈을 멀게도 하고
2. 갈비뼈가 드러나게도 하고
3. 맞아서 이가 빠져나오게도 하였다

두 명의 군인이 서로 다른 편에 서서 내리쳤는데 채찍질의 수에는 한계가 없었다.

개역개정 27:27-31

27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29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7:27

NASB, NKJV, NJB “프라이토리엄”  
NRSV, TEV “총독의 관정”

이것은 안토니오 성채나 헤롯의 궁전에 위치하였는데,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의 거처가 되었다. 어떤 이는 이곳이 군인들의 막사가 있던 장소라고 추측한다.

특별주제: 황제의 근위대

원래 프리토리안이라는 용어는 로마 장군의 막사(프라에톨)를 가리킨다. 하지만 로마의 정복기 이후에는 이 단어가 정치/군사 행정관의 본부나 그들이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는 행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마 27:27; 요 18:28,33; 19:9; 행 23:35).

한편 1 세기의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 특별히 황제의 근위대를 이루는 관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러한 엘리트 군인들의 단체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후에 티베리우스가 로마에서 최종적으로 집중하여 그들을 키웠다. 그들은

1. 백부장으로만 구성되었고
2. 보수를 두 배로 받았으며
3. 특권을 누렸고
4. 아주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황제를 위해 하는 일은 항상 존경을 받았다.

콘스탄틴 시대에 가서야 엘리트들로 구성되었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조직을 해체시킬 수 있었다.

▣ “은 군대를” 이들은 대략 600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매 번 일부만 당번이었다.

27:28 “홍포를” 이 단어는 옷감을 진한 붉은 빛으로 염색하는데 사용한 곤충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왔다. 막 15:17 와 요 19:2 에는 “자춧빛”으로 말한다. 이것은 아마도 색이 바랜 로마 장교의 붉은 겂옷이었을 것이다. 자춧빛은 왕을 나타내는 색이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았다(가시로 된 스테반의 면류관도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 고대인들은 오늘날과 같이 세세하게 색의 이름을 구별하여 말하지 않았다.

27:29-30 군인들은 유대 백성에 대한 적개심을 예수께 쏟아 부었다. 그들은 예수를 왕처럼 만들고 모욕했다. “가시관”은 (1) 예수께서 왕이라는 주장에 대한 모욕 (2) 창 3:18 의 저주(참조, 갈 3:13)를 암시할 것이다. 가시는 복음을 거부함의 상징이었다(참조, 히 6:8).

**개역개정 27: 32**

**<sup>32</sup>나가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27:32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었다. 그가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었거나 개종자였음을 뜻한다. 예루살렘에는 구레네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다(참조, 행 6:9). 그의 인종적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아마도 그는 흠어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 “억지로 지워” 이것은 마 5:41 에 사용된 페르시아 단어이다. 정복자들의 군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도록 시킬 권리를 가졌다.

▣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것이 골고다로 운반한 십자가의 가로 막대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였는지는 불확실하다. 십자가의 모양은 대문자 “T,” 소문자 “t,” “X” 혹은 여러 사람을 묶을 수 있는 발판(scaffolding)이었을 것이다.

**개역개정 27:33-34**

**<sup>33</sup>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sup>34</sup>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27:33 “골고다” 이 히브리 단어는 “해골”을 뜻했다.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왔다. 이 용어는 어떤 해골이 아니라 낮은 민둥산을 가리켰다.

27:34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강한 음료를 정죄받은 죄수들에게 마시게 주어 그들로 고통을 경감시키게 했다고 말한다(참조, 막 15:23, 여기서 “쓸개”는 “물약”을 의미함). 이것은 시 69:21 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리킬 것이다.

▣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완전한 금육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다(26:29 의 특별주제를 보라). 예수께서는 후에 군인들이 마시는 값싼 포도주를 받아들였다(참조, 48 절).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나 감각을 무디게 할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계신 것이었다.

**개역개정 27:35-37**

**<sup>35</sup>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sup>36</sup>거기 앉아 지키더라 <sup>37</sup>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27:3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복음서들은 예수의 죽으심에 있어서 신체적 면에만 주목하지 않고 있다(참조, 시 22:16). 이러한 형태의 사형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것을 헬라와 로마 사람들이 이어 받아 사용한 방법이었다. 십자가형은 몹시 고통스러운 죽음을 여러 날에 걸쳐 맛보게 했다. 이것을 행한 목적은 사람을 비굴하게 하며 공포를 조성하여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억제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글이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 제 1 권 1040-42 쪽에 나온다.

▣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것은 시 22:18 절에 대한 암시이다. 예수께서는 별거 벗기움을 당하셨다. 아마도 허리 부분만 옷으로 두르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

공인 본문의 사본은 시 22:18의 인용문인 요 19:24에서 취하여 온 여러 구를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삽입구들은 마태복음에 원래 속한 부분은 아니다. 삽입된 구들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Σ, A, B, D, L, W**에 없으며 라틴어과 시리아어에도 없다.

“제비를 뽑다”는 신약에서 이곳에서처럼 게임에서 갖는 기회를 나타내거나, 행 1:26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우림과 둠뎀의 사용과 비견된다.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아는 것이 사라졌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방법의 사용을 계속 옹호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서 기드온의 양털을 들 수 있다(참조, 사 6:36-40).

**27:37 “죄패를”** 요 19:20에서 우리는 그 죄패가 세 가지 언어(아람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된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분노케 하려고 고의로 이렇게 죄명을 기록하였다. 죄패에 기록된 내용은 사 복음서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 마태복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 마가복음: “유대인의 왕” (참조, 막 15:26)
- 누가복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참조, 눅 23:38)
- 요한복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참조, 요 19:19)

**개역개정 27:38-44**

<sup>38</sup>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sup>39</sup>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sup>40</sup>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sup>41</sup>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sup>42</sup>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sup>43</sup>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sup>44</sup>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27:38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것은 사 53:12의 암시이다. 요세푸스는 “강도”라는 표현을 바라바와같은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27: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것은 시 22:7에 대한 암시이다. 골고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길 가까이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십자가형의 목적은 범죄와 반란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27:40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 문장**으로서 화자가 요점을 말하기 위해 사실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마 4:3). 이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주장하시는 바를 의심하지 않았다!

**27:41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것은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긴 명칭이었다.

**27: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것은 시 22:8의 인용이다. 다윗의 이 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7:44** 마태복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열심당원이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모욕했다고 말하지만 눅 23:39은 두 죄수 가운데 한 명만 예수께 대해 욕을 했다고 전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는 내용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함께 분노하고 모욕했지만 한 명이 부드럽게 되고 회개한 것이다.

**개역개정 27:45-54**

<sup>45</sup>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sup>46</sup>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sup>47</sup>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sup>48</sup>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sup>49</sup>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sup>50</sup>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sup>51</sup>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sup>52</sup>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sup>53</sup>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sup>54</sup>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27:45 “계육시로부터 . . . 계구시까지”** 이것은 로마인의 시간을 나타낸다(즉, 정오부터 오후 3 시까지). 복음서(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어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로마인의 시간은 아침에 동틀 때에 시작하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에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시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어둠이”** 어두움은 이집트에 임했던 재앙 가운데 하나로서,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임할 언약적 저주를 상징했다(참조, 출 10:21 이하; 신 28:29; 율 2:10; 암 8:9).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돌아서신 것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일이 바로 예수께서 아주 힘들어 하신 내용이었다.

**27:46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시 22:1의 내용을 인용하셨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막 15:34)은 표현이 서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마태는 아람어만을 사용하는 그의 독자들을 위해 이 말을 번역하고 있다. 47 절에서 살펴 볼 때 십자가 처형을 보기 위해 모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 22:1에 나오는 처음 단어들이다. 이 내용을 인용하십시오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은 자들이 이 시편 전체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셨다. 이 일은 범죄한 사람들이 경험할 가장 큰 최종적 경험이 될 것이다(참조, 갈 3:13; 고후 5:21). 한편 이 시편은 야웨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27:47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였다(참조, 말 4:5). 예수께서 아람어로 “엘로이”(참조, 막 15:34)는 아마도 선지자의 이름인 “엘리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27:48**

NASB, NKJV, NRSV “신 포도주”  
TEV “싼 포도주”  
NJB “식초”

이것은 군인들이 마셨던 값싼 포도주였다. 군인들이 동정심에서 이 포도주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길게 느끼기 위한 목적에서 한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입이 아주 말라있어 말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참조, 시 22:15) 그것을 조금 마시셨다. 이 일은 시 69:21의 성취일 것이다.

**27:49** 이곳에 요 19:34에서 가져 온 또 다른 첨가가 나타난다. 이것은 고대 헬라이어 대문자체 사본인 A, D, K, 오리겐, 제롬, 어거스틴이 사용한 헬라이어 본문에는 들어 있지 않고, **ⲛ**, B, C, L 사본에 들어 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어느 것이 원래의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1) 첨가된 이 내용이 요한복음과의 동화로 보이며 (2) 이것이 시간적 순서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3) 여러 좋은 사본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기 전에 창에 찔리신 것인가? UBS<sup>4</sup>는 짧은 본문에 “B”등급(거의 확실함)을 준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예수께서는 아직 죽지 않으셨다!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요 19:30; 시 22:15; 눅 23:46; 시 31:5 을 서로 비교하여 보라.

**27:51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으로서 안쪽 휘장으로 불린다(참조, 출 26:31-35).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위로부터 찢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로막던 장벽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음과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27:52 “무덤들이 열리며”** 이것은 지진으로 인해 일어났다(참조, 54 절). 정확히 언제 그 사람들의 생명이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53 절). 그러나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왜에 대하여 모호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

▣ **“성도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 특별주제: 성도

이것은 야웨께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어떤 사람, 물건, 장소를 구별한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진 히브리어의 *카도쉬*(BDB 871)와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신성한 자”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야웨는 그의 본질(스스로 영원히 계신 영)과 성품(도덕적으로 완전하심)에 의해 인간과 구별되신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신다. 그는 초월적인 분이시며 홀로 거룩하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타락(창 3 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관계적이며 도덕적인 장벽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양심있는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참조, 레 11:44; 19:2; 20:7,26; 21:8). 야웨를 믿음으로써 그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들의 언약적 지위를 인해 거룩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참조, 마 5:48).

이러한 거룩한 삶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든다.

1.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됨
2.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음

믿는 자들은 “성도”(하기오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1) 거룩하신 자(성부)의 뜻 (2) 성자(예수님)의 사역 (3)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신약은 항상 성도를 **복수형**으로 지칭한다(단 한 번의 예외인 빌 4:12 에서조차도 문맥상 그것은 **복수형**이다). 구원받는 것은 가족, 몸, 건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 믿음은 개인적인 영접으로 출발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적 교제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 성장, 행복을 위해 각각 은사를 받는다(참조, 고전 12:7). 우리는 섬김을 위해 구원받았다! 거룩함은 가족의 특성을 이룬다!

▣ “**자던 성도의 몸이**” 잠은 구약에서 죽음을 미화하여 한 말이다(즉,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자주 사용됨). 이것은 “영혼이 잠을 잠”을 주장하는 이론을 뒤바침하는 본문이 아니다. 성경을 처음 청중/독자들에게 의미했던 바를 따라서 이해해야만 한다.

27:54

NASB, NKJV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도다**”

NRSV

“**참으로 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TEV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도다**”

JB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에 **관사**가 없다. 이 군인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해 분명히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인정했다. 한편 이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눅 23:47 에서는 예수께서 “의로운 자” 혹은 “무죄한 자”이심을 그가 선언한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이 로마 군인이 보고 있음은 아이러니이다(참조, 19 절; 요 1:11).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이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친밀한 교제가 다시금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이곳에 관사에 빠져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예수께서 바로 그 아들이 아님을 의미하지 않는다(참조, 마 4:3,6; 14:33; 27:43; 눅 4:3,9). 이 사람은 마음이 강박한 로마 군인이었다. 그는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이미 보았던 사람이다(참조, 마 27:54).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룬 본문”인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라틴어 단어가 나오는 한편 매우 적은 수의 구약 인용이 나온다. 유대인의 관습과 아랍어 표현을 번역하고 설명한다. 여기서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 반란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행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함께 처형을 받고 있는 죄수들까지 예수를 조롱했지만 로마 백부장은 예수께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그를 경외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있는 제시이다!

###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아들” 또는 “내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신 용어인 “인자”는 단 7:13-14 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음의 특별한 네 그룹을 지칭할 수 있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욥 1:6; 2:1)
2.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2:7; 89:26-27)
3. 이스라엘 나라 전체(참조, 출 4:22-23; 신 14:1; 호 11:1; 말 2:10)
4.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참조, 시, 82:6)

예수님과 관련된 용법은 바로 두 번째 경우이다. 이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삼하 7 장; 시 2 편, 89 편과 관련이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종말론적 왕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는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메시아적 의미를 나타낸다(예수와 복음서 사전 770 쪽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한 유대인의 두 묵시적 저작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 호칭을 나타낸다(참조, 에스드라스 상 7:28; 13:32,37,52; 14:9 과 에녹 1 서 105:2).

이 호칭이 예수께 대해 사용될 때 그것의 신약적 배경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그의 선재하심(참조, 요 1:1-18)
2. 그의 독특한(동정녀) 출생(참조, 마 1:23; 눅 1:31-35)
3. 그의 침례[세례](참조, 마 3:17; 막 1:11; 눅 3:22. 하늘에서의 소리는 시 2 편의 왕의 지위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로 연결한다)
4.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참조, 마 4:1-11; 막 1:12,13; 눅 4:1-13.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유혹받았다).
5.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귀신들(참조, 막 1:23-25; 눅 4:31-37; 막 3:11-12)
  - ㄴ. 불신자들(참조, 마 27:43; 막 14:61; 요 19:7)
6. 제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 ㄱ. 마 14:33; 16:16
  - ㄴ. 요 1:34,49; 6:69; 11:27
7. 예수님 자신의 확인
  - ㄱ. 마 11:25-27
  - ㄴ. 요 10:36
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적 은유의 사용
  - ㄱ.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심
    - 1) 막 14:36
    - 2) 롬 8:15
    - 3) 갈 4:6
  - ㄴ. 자신의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파테르)를 종종 사용하심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과 구약의 약속 및 그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여자를 취하여 그 결과 “타이탄” 혹은 “거인”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교도적 배경을 인하여 이 칭호의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 개역개정 27:55-56

<sup>55</sup>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sup>56</sup>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27:55 “많은 여자” 막 15:40 에는 이와 평행을 이루는 목록이 나온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와 더불어 함께 여행을 일행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제적으로도 지원했을 것이다.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행한 대상인 다른 여자들의 필요를 채웠을 것이다.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한 여자들**

마 27:55-56

막 15:40-41

눅 8:2; 23:49

요 19:75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야고보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안나  
(헤롯의 청지기)  
수산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

**나의 마가복음 15:40-41 주석에서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여러 여인들이 재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도왔다(즉, 요리, 빨래 등, 참조, 41 절; 마 27:55; 눅 8:3).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티베리아스에서 약 5 km 북쪽에 위치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마리아는 예수를 따랐다(참조, 눅 8:2). 그녀는 억울하게 창녀로 불리웠는데 그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마 27:56 에서 그녀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불린다. 마 28:1 에서 그녀는 “다른 마리아”로 불린다. 우리가 갖는 질문은 그녀가 누구와 결혼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다. 요 19:25 에서 볼 때 그녀는 글로바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녀의 아들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로 불린다(참조, 마 10:3; 막 3:18; 눅 6:15).

“살로메” 이 여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 그 두 아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그룹에 속했다. 그녀는 세베대의 아내였다(참조, 마 27:56; 막 15:40; 16:1-2).

**나의 요한복음 19:25 주석에서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세 사람의 이름인지 혹은 네 사람의 이름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네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린 두 자매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는 막 15:40 과 마 27:56 에서 이름이 나온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께서는 사촌간이었다. 제 2 세기의 전통에 의하면(헤게실푸스)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여인으로서 예수께서 부활 후에 자신을 드러내신 처음 사람이었다(참조, 20:1-2,11-18; 막 16:1; 눅 24:1-10).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산헤드린 이 빌라도에게 갔는가? 왜 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는가?
2. 유다가 한 회개는 베드로가 한 회개와 어떻게 다른가?
3. 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려고 했는가?
4.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왜 그렇게 많은 구약의 암시를 말하는가?
5.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왜 하늘이 어둡게 되었는가? 왜 예수께서는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는가?
6. 예수의 죽으심에 이어 나타난 표적을 모두 말하라. 그 표적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단어와 구의 연구 (이 문단은 27:57-28:20)

(이 복음서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은 막 15:42-16:8; 눅 23:50-24:12; 요 19:30-20:10)

**개역개정 27:57-61**

<sup>57</sup>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sup>58</sup>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sup>59</sup>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sup>60</sup>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sup>61</sup>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27:57 “저물었을 때에” 이 구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 혹은 황혼 때에 가까운 시각을 나타낸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저녁이 있었다. 처음 저녁 시간은 오후 3 시였고 두 번째 저녁 시간은 새 날의 시작인 오후 6 시였다.

▣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많은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 말한다.

1. 그는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다(참조, 마 27:57)
2.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써 매우 존경을 받는 자였다(참조, 막 15:43)
3.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참조, 눅 23:50)
4.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다(참조, 요 19:38)

27:57-58 다음의 여러 이유에서 볼 때 이것은 요셉이 행한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1.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반관죄로 정죄받은 그 사람과 같은 편에 있음을 밝혔다
2. 그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식상의 부정을 감당하려고 했다
3. 이러한 행동은 그로 산헤드린에서 축출당하게 했음이 분명하다

27:59 요셉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오후 6 시 이전에 예수의 시신을 위해 준비하려고 서둘렀음이 분명하다.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 이 일은 오후 6 시 이전에 행해졌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상관없이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던 삼 일 가운데 하루로 계산이 되었다.

27: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이것은 사 53:9 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다.

27:61 “막달라 마리아” 마 27:55-56 에서 세 여인의 이름에 대한 도표를 보라.

**개역개정 27:62-66**

<sup>62</sup>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sup>63</sup>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sup>64</sup>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sup>65</sup>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sup>66</sup>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27:62-66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이다(참조, 28:2-4,11-15).

27: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공판과 법정에서 있었기에 의식상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예수 및 예수의 능력과 예언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준다.

▣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다음의 점에서 볼 때 이 내용은 아주 아이러니하다: (1) 그들이 모두 모였다 (2) 이 때는 유월절의 안식일이었다 (3)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었다 (4) 비록 그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부활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었다!

27:63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퀴리애*(번역하면 “님”)로 부른 반면에 주 예수님을 “속이던 자”로 부르고 있음은 아이러니이다.



NASB, NKJV “그 속이는 자”  
 NRSV, JB “사칭자”  
 TEV “그 거짓말장이”

이 단어(*플라노스*)는 문자적으로는 “방랑자”를 가리킨다. 같은 어원에서 온 영어 단어인 “행성”은 천체의 빛이 “떠도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 별자리의 기본적인 형태를 따르지 않는 행성의 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실수 혹은 거짓말장이를 나타내었다.



NASB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NKJV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리라”  
 NRSV, NJB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TEV “내가 사흘 후에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문자적으로는 “사흘 후에 내가 일어나게 된다”이다. 이것은 현재 수동이다.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한 것을 문맥을 통해 알게 된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예언을 알았고(참조, 12:40; 16:4) 그 내용을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부활을 인해 놀랐다—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특별주제: 부활**

가. 부활의 증거

1. 50 일 후에 있는 오순절에 행한 설교에서 베드로는 부활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참조, 행 2 장). 부활이 일어난 이 지역에 살던 수 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2. 제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낙담(그들은 부활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에서 순교를 받는 정도로까지 담대하게 되었다.

나. 부활의 중요성

1. 예수께서 그가 주장하셨던 바와 같은 분이심을 드러낸다(참조, 마 12:38-40 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함)
2. 예수의 삶, 가르침, 대속적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증한다! (참조, 롬 4:25)
3.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나타낸다(즉, 몸의 부활, 참조, 고전 15 장)

다. 예수께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있다

1. 마 12:38-40; 16:21; 17:8,22,23; 20:18-19; 26:32; 27:63
2. 막 8:31; 9:1-10,31; 14:28,58
3. 눅 9:22-27
4. 요 2:19-22; 12:34; 14-16 장

라. 참고 자료

1. 조쉬 맥도웰의 *평결을 요구하는 증거*
2. 프랭크 모리슨의 *누가 돌을 옮겼는가?*
3. *존더반 그림 성경백과*, “부활,” 예수의 부활”
4. *벌코프의 조직신학*, 346 쪽과 720 쪽

27:65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것은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기를 유대인 대표에게 허락함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즉,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이다).

▣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가서”는 현재 능동 명령을 부정과거 중간태(디포) 명령이 뒤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약간의 풍자가 들어 있다(즉, “네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아는대로”). 이 제사장인 이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친구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편의를 함께 갈망했다.

28: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갔음을 가리킨다. 이 지도자들은 무덤을 봉하는 일 및 그 무덤을 든든히 지키는 일을 확실하게 해 놓기를 원했다! 그들의 대표자들은 무덤을 봉하는 일까지 직접 나서서 했을 것이다!

## 특별주제: 인

인은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고대의 방법이였다

1. 진리(참조, 요 3:33)
2. 주인입(참조, 요 6:27; 딤후 2:19; 계 7:2-3)
3. 안전 또는 보호(참조, 창 4:15; 마 27:66; 롬 15:28; 고후 1:22; 앵 1:13; 4:30)
4. 이것은 또한 선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에 대한 표식일 것이다(참조, 롬 4:11; 고전 9:2).

이 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탄의 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탄의 백성을 구별짓는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란”(즉, 슬랍시스)은 항상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나타내고, 진노/노(즉, 오르케 또는 투모스)는 항상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돌이키기 위함이다. 심판의 이러한 긍정적 목적은 신 27-28 장에 있는 언약의 저주/축복에서 나타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구는 야웨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언어유희이다(참조, 출 3:14; 시 42:2; 84:2; 마 16:16). 이와 같은 언어 유희가 “주께서 살아계시듯이”라는 성경의 맹세에서 자주 사용된다.

▣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것은 공적인 봉인이다. 이것은 무덤의 둥근 돌과 무덤의 벽이 만나는 곳에 왁스로 두 개의 점을 만들어 그 위에 로마의 직인을 찍고 또 그 사이를 끈으로 이어 놓은 것을 말한다.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밤 중에 있는 재판에 참여했는가?
2. 왜 빌라도는 시신을 처리하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3. 선지자들이 이 일과 관련하여 한 예언을 열거하라.
4. 사도들의 그룹을 따라가며 섬겼던 여인들이 감당했던 역할은 어떤 일들이었는가?
5. 64 절의 아이러니와 65 절에 나타난 풍자적 표현에 대해 설명하라.

# 마태복음 2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 <sup>4</sup> )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부활	그가 일어나셨다	첫 부활절	부활	빈 무덤: 천사의 말
28:1-8	28:1-8	28:1-10	28:1-4 28:5-7 28:8	28:1-8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심
	28:9-10		28:9-10	28:9-10
경비병의 보고	군인들이 너물을 받다	경비병을 매수하다	경비병의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취한 조심스러운 행동
28:11-15	28:11-15	28:11-15	28:11-14 28:15	28:11-15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	대위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위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갈릴리에서 나타나심: 세계선교
28:16-20	28:16-20	28:16-20	28:16-20	28:16-20

###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28:1-7

<sup>1</sup>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sup>2</sup>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sup>3</sup>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회거를 <sup>4</sup>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sup>5</sup>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sup>6</sup>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sup>7</sup>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28: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헬라이어 구는 토요일의 해가 진 시각을 나타낸다(참조, 별게이트역에는 “안식일 저녁에”로 되어 있다). 마가복음에서 사용한 헬라이어 표현은 일요일에 해가 뜬 시각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특히 부활을 전후하여)에 대하여는 많은 혼란이 있다. “새벽”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사실은 이것이 로마인의 시간을 따른 것인지 유대인의 시간을 따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복음서에서는 두 종류의 시간이 함께 사용되었다.

▣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 16:1 과 눅 24:10 은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요 20:1 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말한다.

28: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다. 어떻게 돌이 움직여졌는가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나란히 하고 있다. 두 번의 지진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1) 한 지진은 마 27:54 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일어났고 (2) 다른 한 지진은 무덤의 돌을 치워 예수의 제자들이 빈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1:20 의 설명인 “주의 천사”를 보라.

28: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것은 천사가 순결의 상징인 흰 아마포로 된 옷을 입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눅 24:4 와 요 20:12 에서는 두 천사로 말한다. 천사가 한 명이었는가 아니면 두 명이었는가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복음서 간에 자주 나타나는 차이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대개 “두” 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1)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린 자(막 5:1; 눅 8:26)와 귀신 들린 두 사람(마 8:28) (2) 한 소경(막 10:46; 눅 18:36)과 두 소경(마 20:30).

28:5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10 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이 자연의 영역에 일어날 때 언급되는 내용이다.

1. 예수님의 말씀. 마 14:27; 17:7; 28:10; 막 6:50; 눅 5:10; 12:32; 요 6:20; 계 1:17
2. 천사가 한 말. 마 28:5; 눅 1:13,30; 2:10

28:6 “그가 ... 살아나셨느니라” 문맥에서 이것은 성부께서 두 가지 커다란 일과 관련하여 성자의 가르침과 사역을 받으셨고 승인하셨음을 나타낸다.

1.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2. 예수께서 성부의 우편에 올라가심

막 10:37b 의 특별주제를 보라.

28:7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께서는 전에 그들에게 자신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참조, 26:32; 28:7,10; 고전 15:6). 이 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방법이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다(참조, 28:18-20; 눅 24:46-47; 행 1:8).

#### 개역개정 28:8-10

<sup>8</sup>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sup>9</sup>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sup>10</sup>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8:8 두려움과 커다란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의 상태였다. 영적 영역의 일이 육체의 영역에 나타날 때 그것은 두려움을 일으켰다(두려움은 그쳤지만[참조, 10 절] 큰 기쁨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금 “큰 기쁨”을 가져왔고 또 계속해서 그러한 기쁨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였다!

28:9

NASB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셨다”

NKJV

“기뻐하라”

NRSV, NJB

“인사하시거늘”

TEV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예수께서 자주 사용하신 인사말이였다. 이것은 “기뻐하다”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

**특별주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심**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하게 하셨다.

1.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마 28:9
2. 열 한 제자들에게, 마 28:16
3. 시몬에게, 눅 24:34
4. 두 사람에게, 눅 24:15
5. 제자들에게, 눅 24:36
6.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 20:15
7. 열 제자에게, 요 20:17
8. 열 한 제자에게, 요 20:26
9. 일곱 제자에게, 요 21:1
10. 게바(베드로)에게, 고전 15:5
11. 열 두(사도)에게, 고전 15:5
12. 500 여 형제들에게, 고전 15:6(마 28:16-17)
13. 야고보(예수님의 땅의 가족)에게, 고전 15:7
14. 모든 사도들에게, 고전 15:7
15. 바울에게, 고전 15:8(행 9 장)

이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

▣ “여자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특별히 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한편 마태복음은 두 여인이라고 말한다.

▣ “그 발을 붙잡고” 요 20:17 은 마리아만 예수의 발을 붙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동양에서 복종과 존경, 예배를 나타내는 행위였다.

28:10 “내 형제들에게” 이것은 두려움으로 가득찬 이 제자들을 일컫는 이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가(참조, 12:15)!

**개역개정 28:11-15**

<sup>11</sup>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sup>12</sup>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sup>13</sup>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sup>14</sup>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sup>15</sup>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28:11 로마 경비병들이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이 사실은 놀랍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마태에게 말했을 것이다!

28:12 “그들이 ...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을 말하는 이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유대 지도자들(즉, 산헤드린)은 예수를 해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행하려고 했다. 그들은

1. 배신자를 사용하여 예수를 찾아 내고 또 그를 체포했다
2.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밤중에 재판을 열었다
3. 예수께 죄를 씌우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사용했다
4. 그후에는 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다

28:13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한편 이 기록은 로마 경비병들의 보고, 여자들 제자들의 증인을 통해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28:14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다가 잠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일이었다.

28:15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기억하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 순교자 저스틴(주후 114-115 년)이 저술한 *트리포와의 대화*(즉, 108)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몸이 도둑맞지 않도록 조치했던 자들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로마인들이었다.

개역개정 28:16-20

<sup>16</sup>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sup>17</sup>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sup>18</sup>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sup>19</sup>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sup>20</sup>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8: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찌기(참조, 26:32; 27:7,10) 자신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승천 산이 아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일은 부활하신지 40 일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서 일어났다(참조, 눅 24:50-51; 행 1:4-11).

28:17

NASB “그러나 어떤 이는 의심하더라”  
NKJV, NRSV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심하더라”  
TEV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의심하였더라”  
NJB “어떠 이는 머뭇거렸더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세 번 예수를 만났던 12 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고전 15:6 에서 언급한 바 많은 수의 추종자들(500 여 명)을 가리킬 것이다. 예수께서 멀리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로 분명히 걸어 오셨다. 부활 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몇 가지 신체적 차이점을 갖고 계셨다(참조, 요 20:14; 21:4; 눅 24:13,31).

이 일의 중요성은 대위임을 사도들이나 다락방에 있던 120 명의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경우에 주신 내용이였다:

1. 부활하신 저녁 다락방에서(참조, 눅 24:46-47; 요 20:21)
2.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참조, 마 28 장)
3.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참조, 행 1:8)

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참조, 마 11:27; 눅 10:22; 요 3:35; 13:3; 엡 1:20-22; 골 1:16-19; 2:10; 뱀전 3:22)! 예수께서는 메시아셨든지 거짓말장이셨다. 그의 부활은 그의 주장을 확증한다!

28:19 “가서”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분사가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것은 “너희가 가면서”라고 번역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이 단어를 부정과거 명령이 아닌 현재 명령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참조, 뱀전 3:15 과 골 4:2-6). 이것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것은 커다란 위임이지 커다란 선택사항이 아니다.

▣ “제자로 삼아”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제자”는 “배우는 자”를 뜻한다. 성경은 결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한다. 복음전도의 핵심은 제자도에 있다. 한편 제자도는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순종과 인내로써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는 일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 “모든 민족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 말씀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단 7:14 의 내용을 반영한다(참조, 계 5 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순서(참조, 10:5-6)의 역이다. 이 문단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모든”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24:14 의 특별주제: 밥의 복음적 편향을 보라.

▣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가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것은 “가르쳐”와 균형을 이룬다(20 절). 교회가 존재하는 두 목적은 복음전도와 제자삼음을 위함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 두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도 또 분리되어서도 안된다!

### 특별주제: 침례(세례)

쿠티스 보간의 *사도행전* 28 쪽에 흥미로운 각주가 있다.

“헬라어에서 ‘침례(세례)받다’는 3 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고, ‘회개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2 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다. 보다 직접적인 2 인칭 명령이 아닌 보다 덜 직접적인 3 인칭으로 ‘침례(세례)받다’를 표현한 점은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점은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3:2)과 예수님(참조, 4:17)의 설교에서 강조점을 드러낸다. 회개는 영적 열쇠이고 침례(세례)는 이러한 영적 변화의 외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신약에는 침례(세례)받지 않은 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침례(세례)는 바로 믿음의 공적 고백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적 표현의 방법이었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회개를 언급하고 있지만 침례(세례)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3:19; 눅 24:17). 침례(세례)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본이었다(참조, 마 3:13-18). 예수님은 침례(세례)를 명하셨다(참조, 마 28:19).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세례)가 필요한가 하는 현대인의 질문은 신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모든 신자가 침례(세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성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구원은 믿음의 영역이지, 특정한 장소, 특정한 표현, 특정한 예식의 영역이 아니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한 삼중적 표현은 사 42:1 을 반영한다. “이름으로”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일체를 나타낸다(참조, 마 3:16-17; 요 14:26; 행 2:32-33,38-39; 롬 1:4-5; 5:1,5; 8:1-4,8-10; 고전 12:4-6; 고후 1:21; 13:14; 갈 4:4-6; 엡 1:3-14,17; 2:18; 3:14-17; 4:4-6; 살전 1:2-5; 살후 2:13; 딤후 3:4-6; 뱀전 1:2; 유 20-21 절). 3:17 의 특별주제인 삼위일체와 12:31 의 특별주제인 성령의 인격을 보라.

행 2:38 에 나오는 침례(세례) 예식의 표현인 “예수의 이름으로”는 대위임에 나오는 이 형태를 배제하지 못한다. 구원은 일련의 여러 행위로서 시작과 계속성을 포함한다: 회개, 믿음, 순종, 인내. 이것은 예식상의 표현이나 성례전적 절차의 진행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로서 매일 이루어지고 또 성장을 가져오는 관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나타난 목적이었고 또 목적이다.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가 명령**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단순히 예수께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에 대한 순종임을 주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
2. 그리스도를 닮은 삶
3. 교리적 이해에 있어서 자라감

▣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항상 각 신자의 삶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이 오셨고(참조, 1:23) 함께 거하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성자께서 내주하심 사이에 참으로 유동성이 있다(참조, 롬 8:9-10; 고후 3:17; 갈 4:6; 빌 1:19; 골 1:27). 요 14:23 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신자들의 삶에 내주하신다. 사실상 하나님의 본질의 세 위격이 모두 구속과 관련된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대위임에 “모든”이 네 번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 분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유대인이 가진 두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재림 혹은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2:31 의 특별주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보라.

###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부활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왜 사 복음서에 서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2. 하나님은 왜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그 둥근 돌을 옮기셨는가?
3. 그 여인들은 왜 무덤에 찾아 갔는가? 몇 번이나? 몇 명의 여인들이?
4. 예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만나셨는가?
5. 대위임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 교회 전체에 주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부록 1

## 신구약 중간시대 기간의 팔레스타인과 관련이 있는 통치자들의 연대 도표

### 메대-페르시아

고레스 II 세	.....	주전 538-529 년
캄비세스 II 세	.....	529-522
다리우스 I 세(히스타스페스)	.....	522-486
크세르크세스 I 세	.....	485-465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 세(룽기마누스)	.....	464-424
크세르크세스 II 세(몇 개월만 통치함)	.....	424-423
다리우스 II 세 (노터스)	.....	423-404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 세 (르네몽)	.....	404-359
아르타크세르크세스 III 세 (오커스)	.....	359-338
다리우스 III 세 (코도마누스)	.....	338-331

### 톨레미 제국 (이집트)

톨레미 I 세 (소테르 I 세)	.....	311-283/2
톨레미 II 세 (필라델포스)	.....	285-246
톨레미 III 세 (유에게테스 I 세)	.....	246-221
톨레미 IV 세 (필로파톨)	.....	221-203
톨레미 V 세 (에피파네스)	.....	203-181/0
톨레미 VI 세 (필로메톨)	.....	181/0-145
톨레미 VII 세 (유에게테스 II 세, 휘스콘)	.....	145-116
톨레미 VIII 세 (소테르 II 세, 라티로스)	.....	116-108/9 & 88-89
톨레미 IX 세 (알렉산더 I 세)	.....	108/7-88
톨레미 X 세 (알렉산더 II 세)	.....	80
톨레미 XI 세 (아우레테스)	.....	80-51
톨레미 XII 세 & 클레오파트라 VII 세	.....	51-48
톨레미 XIII 세 & 클레오파트라 VII 세	.....	51-48
톨레미 XI 세 (아우레테스)	.....	47-44
톨레미 XIV 세 (시저) & 클레오파트라 VII 세	.....	44-30

### 셀류시드 제국

셀류쿠스 I 세 (니카톨)	.....	311-281/0
안티오쿠스 I 세 (소테르)	.....	280-262/1
안티오쿠스 II 세 (테오스)	.....	261/0-247/6
셀류쿠스 II 세 (칼리니코스)	.....	246/5-226/5
셀류쿠스 III 세 (세라우누스)	.....	225/4-223
안티오쿠스 III 세 (대왕)	.....	223-187
셀류쿠스 IV 세 (필로파톨)	.....	187-175
안티오쿠스 IV 세 (에피파테스)	.....	175-163
안티오쿠스 V 세 (유파톨)	.....	163-162
데메트리우스 I 세 (소테르)	.....	162-150
알렉산더 발라스	.....	150-145
데메트리우스 II 세 (니카톨)	.....	145-139/8
안티오쿠스 VI 세 (에피파테스)	.....	145-142/1

트리톤. . . . .	142/1-138
안티오쿠스 VII 세 (유에르게테스, 시데테스) . . . . .	139/8-129
데메트리우스 II 세 (니카톨) . . . . .	129-126/5
안티오쿠스 VIII 세 (그리포스) . . . . .	125-96
안티오쿠스 IX 세 (키지케노스) . . . . .	115-95
(그 후 30 년 간 왕위를 주장하는 적수들로 인한 혼란이 있었음)	

### 하스모니안 왕조

유다 마카비. . . . .	166/5-160
요나단 (대제사장) . . . . .	160-59-142/1
시몬 (대제사장) . . . . .	142/1-135/4
요한 힐카누스 I 세 (대제사장, 왕) . . . . .	134/3-104/3
아리스토틀루스 I 세 (대제사장, 왕) . . . . .	103/2
알렉산더 안나우스 (대제사장, 왕) . . . . .	102/1-76/5
알렉산더 살로메 . . . . .	75/4-67/6
힐카누스 II 세 (대제사장, 왕) . . . . .	75/4-66/5 & 63/40
아리스토틀루스 II 세 (대제사장, 왕) . . . . .	66/5-63
안태고누스 (대제사장, 왕) . . . . .	40-37
헤롯대왕 . . . . .	37-4

### 주전 4 년부터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유대 땅을 다스린 통치자들

아켈라우스 . . . . .	주전 4 년-주후 6 년
-----------------	---------------

### 로마 총독들

코포니우스 . . . . .	6-9
마르쿠스 암비불루스 . . . . .	대략 9-12
안누스 루푸스 . . . . .	대략 12-15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 . . . .	15-26
폰티우스 빌라도 . . . . .	26-36
마르셀루스 . . . . .	36
마물루스 . . . . .	37
메렌니우스 카피토 . . . . .	?-41
헤롯 아그립바 I 세 . . . . .	41-44
쿠스피우스 파두스 . . . . .	44-?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 . . . .	? . . . . ?
쿠마누스 . . . . .	?48-52
펠릭스 . . . . .	52-?60
폴시우스 . . . . .	?60-62
알비누스 . . . . .	63-65
겟시우스 플로루스 . . . . .	64-

### 신구약 중간 시대 (주전 400-5 년)

- 가. 페르시아의 지배 (주전 539/538-332 년)
- 나. 헬라의 지배 (주전 322-167 년)

1. 알렉산더 대제(주전 332-323 년)는 그의 아버지인 마세돈의 필립을 이어 주전 336 년에 왕이 되었다.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제국은 그의 장군들이 나누어 다스렸다—그 중 두 명에게 우리가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톨레미와 셀류시드
2. 톨레미의 지배(주전 232-198 년). 톨레미와 그가 시작한 왕조는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림
  - ㄱ. 톨레미 I 세 (“소테르,” 주전 323-285 년)는 파포스에 있는 섬에 등대를 세움
  - ㄴ. 톨레미 II 세 (“필라델푸스,” 주전 285-245 년)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도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여러 도시를 세우거나 재건했다: 아스돗, 아스켈론, 가자, 옴바, 게젤, 스트라토의 망대, 시돈, 톨레마이스, 사마리아, 오늘날의 사이토폴리스인 벤산
  - ㄷ. 톨레미 V 세(아이)는 주전 198 년에 셀류시드에게 팔레스타인을 빼앗김
3. 셀류시드의 지배(주전 198-167 년)
 

셀류쿠스 I 세 (“니카토르,” 주전 281 년)

안티오쿠스 I 세(셀류쿠스의 아들, 주전 281-261 년)

안티오쿠스 II 세(톨레미 II 세의 딸인 베르니스와 결혼함, 주전 261-246 년)

안티오쿠스 III 세(셀류쿠스 III 세의 형제, 주전 223-187 년)

셀류쿠스 II 세(주전 246-226 년)

셀류쿠스 III 세(주전 226-223 년)

안티오쿠스 III 세 (“안티오쿠스 대왕”으로 불림)는 톨레미에게서 팔레스타인을 빼앗음.

유대인 대제사장과 시몬 II(그의 가족은 종종 오나이드로 불림)는 헬라화 되는 것에 대항하여 싸웠다. 또 다른 유대인 가족인 토비아드는 헬라화를 지지했다.

“경건한 자들”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핫시딤들은 헬라화되는 것을 한탄했고 이를 거부했다.

로마는 주전 188 년에 안티오쿠스를 이기고 그에게 중한 세금을 부과시켰다.

셀류쿠스 IV 세—주전 187-175 년

안티오쿠스 IV 세—주전 175-163 년, “에피파네스”(셀류쿠스 IV 세의 형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III 을 면직시키고 그의 형제로서 헬라화된 유대인인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핫시딤들은 강력하게 그에게 반대했다. 그는 후에 야손 대신에 메네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메네라우스의 도움을 입어 그는 성전에서 금 1800 달란트를 탈취했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면서 유대인들이 봉기했다. 안티오쿠스는 성전에배를 금지시켰고 성경을 파괴시켰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제우스를 예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성전에 세웠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다.

다. 마카비의 지배 혹은 히브리인의 독립 시기—주전 167-63 년

1. 맛타티아스—모던의 제사장, 다섯 아들의 아버지—그의 가족은 맛타티아스의 조상인 하스몬의 이름에서 취하여 하스모니안으로 불렸다.
2. 유다—“마카비우스” 혹은 “함메르”로 불림
 

셀류시드에 대항하여 게릴라 전으로써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가져 왔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주후 165 년 혹은 164 년의 12 월 25 일에 성전을 재봉헌했다(하누카 혹은 빛의 축제); 오니아스 IV 세(면직된 합법적 유대인 대제사장의 아들)는 이집트의 네온토폴리스에 유대인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똑 같은 예식을 거행했다. 이 제사장 가계는 230 년간 지속되었다.
3. 요나단은 유다를 계승했다—주전 160-143 년
4. 시몬은 요나단의 사후인 주전 143 년 혹은 142 년에 권력을 가졌고 정치적 독립을 셀류시드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는 대제사장을 세습직으로 만들었는데, 주전 134 년 혹은 135 년에 자신의 사위에게 암살당했다.
5. 요한 힐카누스(시몬의 아들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주전 135-105 년). 그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역사에 등장했다.
6. 아리스토틀루스 I 세—주전 105-104 년. 일년 동안 요한의 아들이 자신을 “왕”으로 불렀다. 그는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7. 알렉산더 얀내우스, 주전 104-103 년—주전 78-77 년 혹은 76 년
 

아리스토틀루스의 이복 형제. 그는 과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한 후에 왕과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안티파터를 이두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 때가 마카비 왕국의 세력과 위대함에 있어서 전성기였다.

8. 살로메 알렉산드라—9 년 동안 여왕으로서 다스림. 그녀의 아들인 힐카누스 II(바리새인이었음)를 대체사장으로 또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틀루스 II(사두개인이었음)를 군대장관으로 삼았다. 이 일은 그들 사이의 내전을 야기시켰다. 이두매의 안티파터와 페트라에 위치한 나바티아의 왕 아르타스는 힐카누스 II 를 지지했다.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가 주전 63 년에 다마스커스에 이르렀을 때 힐카누스와 아리스토틀루스 II 둘 다 그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라. 로마의 지배—주전 63 년

1. 폼페이—그는 힐카누스 II 를 지지했고 안티파터를 고문관으로 삼았다.
2. 줄리우스 시저—그는 안티파터에게 큰 권력을 주어 그를 유대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삼았는데 안티파스는 자기의 두 아들인 헤롯과 파셀을 각각 갈릴리와 유대를 다스리는 군대 행정관으로 삼았다.
3. 마크 안토니는 주전 41 년에 헤롯과 파셀을 “분봉왕”으로 세워 그들이 함께 유대를 다스리게 했다.
4. 팔티아가 침입하여 주전 40-39 년에 유대를 지배했고, 대체사장이 왕으로서 다스렸다. 파셀은 자살을 하였으나 헤롯은 로마로 도망쳤다. 안토니와 옥타비우스의 도움을 받아 원로원에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았다.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수중에 넣기까지 2-3 년에 걸친 전쟁을 치루었다. 옥타비우스와 안토니(또한 클레오파트라)가 주전 31 년 악티움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인 후 옥타비우스가 로마 세계의 지배자로 떠올랐을 때에 헤롯은 자신에 대한 그로부터의 지원을 공고히 했다.
5. 헤롯의 지배—주전 37-4 년: 이론적으로 로마와 동맹한 독립국의 왕이었다.
  - ㄱ. 이두매 사람(혹은 에돔인)
  - ㄴ. 그는 하스모니아의 지배를 종식시켰다—그래서 그는 하스모니아의 공주인 마리안네와 결혼했다. 살인자, 음모가, 기타 아래의 항목과 같은 내용
  - ㄷ. 그의 영토를 상당히 넓혔다
  - ㄹ. 위대한 건축가
    - (1)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
    - (2) 성전건축을 주전 20 년 혹은 19 년에 시작하여 이것은 주후 64 년에 완성됨
    - (3) 아우구스투스를 존경하여 사마리아를 재건하여 세바스테로 명명함
    - (4) 같은 이유에서 읍바 북동쪽에 있는 안티파트리스를 건축함
    - (5) 같은 이유에서 여리고 북쪽에 있는 파셀리스를 건축함
    - (6) 마케루스와 마사다와 같은 성채를 건축함
  - ㅁ. 그의 가문에서 나온 통치자:
    - (1) 아켈라오스—주전 4 년-주후 6 년. 그는 유대를 다스렸지만 폐위되었고 총독제가 그의 지위를 대신하였다(참조, 마 2:20-22)
    - (2) 헤롯 안티파스—그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림; 침례(세례)요한을 처형함. 주후 22 년에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도시인 티베리우스를 건축함. 주후 70 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 (3) 분봉왕 필립—그는 팔레스타인의 북동쪽 지역을 다스렸다. 수도인 파니온을 재건했다. (그는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니다). 가이사랴가 그의 수도였기에 가이사랴 필립비로 불린다. 벤사이다를 재건하여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딸인 율리아를 존경하는 이름인 벤사이다 율리우스로 불렸다.

## 부록 2

###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주전 336-323)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하여 800 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였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 2 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퍼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오므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 I. 시제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엡 2:5, 8)
3. 현재-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4.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었 2:5 과 8 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 II. 태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ῥητορ*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δι*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ἔν*과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에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유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 III. 법(혹은 “모드”)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회구법).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범중 유일하게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 지도” “였을 지도” “할 지도” “했을 지도”로 표현된다.

라. 회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회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 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눅 1:38; 20:16; 행 8:20; 살전 3:11 에 있다.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 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들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 가. 프리백,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 가. 구문적으로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어를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 나. 여기에 몇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니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 ㄱ. *에피, 에페이테, 호포테, 호스, 호테, 호탄*(주어) - “언제”
    -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 ㄷ. *호탄, 에판*(주어) - “언제나”
    - ㄹ. *헤오스, 아크리, 매크리*(주어) - “까지”

- ㄱ. *프리브* (부정사) - “이전에”
- ㄴ.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 2. 논리적 접속사
  - ㄱ. 목적
    - (1) *히나*(주어), *호포스* (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 (2) *호스태*(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 (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 (1) *호스태*(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2) *히나*(주어) - “그 결과”
    - (3) *아라* - “그래서”
  - ㄷ. 원인 또는 이유
    - (1) *가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 (3) *에페이*, *에페이테*, *호스* - “때문에”
    - (4) *디아*(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 ㄹ. 추론의
    - (1) *아라*, *포이눈*, *호스태* - “그래서”
    -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 (3) *운*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 (4) *토이눈* - “따라서”
  - ㅁ. 부사적 또는 대조
    -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 (2) *에*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 (3) *카이* - “그러나”
    - (4) *멘토이*, *운* - “그러나”
    -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 (6) *운* - “그렇지만”
  - ㅂ. 비교
    - (1) *호스*, *카소스*(비교절을 이끔)
    - (2) *카타*(합성어에서), *카소*, *카소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 (4) *호스태*(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 (5) *에* - “보다”
  - ㅅ. 계속 또는 시리즈
    - (1) *테* - “그리고,” “지금”
    - (2) *카이* - “그리고”
    - (3) *테이* - “그리고”
    - (4) *히나*, *운* - “그래서”
    - (5) *운* - “그 때”(요한복음에서)
- 3. 강조적 용법
  -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 ㄷ. *가르* -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 ㄹ. *테* - “정말”
  - ㅁ. *에안* - “조차”
  -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 ㅅ. *멘토이* - “정말”
  - ㅇ. *운* - “정말,” “결단코”

## VII. 조건절

-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는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갈 1:10).
-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벵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 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 VIII. 금지

-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mu\lambda\lambda$  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 나.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mu\lambda\lambda$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 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답후 1:8).
-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 XI. 관사

-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제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를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에 초점이 있다.
-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경우들

-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 롬 6:10(2 회).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여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 ㄱ. 연결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보충어
  - ㄴ. 타동사에서
    - (1) 동사
    - (2) 주어
    - (3) 목적어
    - (4) 간접 목적어
    - (5) 전치사 구
  - ㄷ. 명사 구에서
    - (1) 명사
    - (2) 수식어
    - (3) 전치사 구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1. 동사의 여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잇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 ㄴ. 요 14:1(새 주제)
  - ㄷ. 롬 (:1(새 단락)
  -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 ㄴ. 둘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 ㄷ. 수사법
    -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 (3) 의인화(고전 15:55).
    - (4) 모순(갈 5:12).
    - (5) 시적 본문(빌 2:6-11).
    -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 ㄱ) “교회”
  - 1) “교회”(엡 3:21)
  - 2) “부르심”(엡 4:1, 4)
  -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 ㄴ) “자유로운”
  - 1) “자유한 여인”(갈 4:31)
  - 2) “자유”(갈 5:1)
  - 3) “자유한”(갈 5:1)
- ㄷ.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눅 14:36; 요 12:25; 롬 9:13).
  -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에서 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 6. 아우토스의 특별용법
  -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 마. 헬라이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이어/한국어 행간 성경.
  -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S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엄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 개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 ㄱ. 1901년판 *미국표준역*
    -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리아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구절이 있다.

# 부록 3

## 본문비평

이 주제는 본 주석에 나오는 본문비평적 용어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요를 사용할 것이다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 나. 신약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으로 불리는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II.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 가. 구약

1. 맛소라본문(MT) - 히브리 자음 본문은 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에 의해 고정되었다. 모음 부호, 악센트, 난외주, 삽표, 본문비평 각주는 6 세기에 첨가되기 시작했고 9 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일은 맛소라로 알려진 유대인 학자의 가족에 의해 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본문의 형태는 미쉬나, 탈무드, 탈군, 페쉬타, 벌게이트의 것과 같은 종류였다.
2. 칠십인역(LXX) - 전통은 70 명의 유대학자들이 프톨레미 2 세(주전 285-246)의 후원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 일 동안 번역을 하여 마쳤다고 말한다. 이 번역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와 있다. 칠십인역은 자주 랍비 아퀴바의 본문(MT)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다.
3. 사해사본(DSS) - 사해사본은 주전의 로마시대(주전 200-주후 70)에 “에세네파”로 불리는 유대교 분리주의파에 의해 쓰여졌다. 사해주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은 맛소라사본과 칠십인역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보인다.
4. 어떻게 이들 본문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 ㄱ. 칠십인역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칠십인역의 사 52:14, “많은 이가 그를 보고 놀라게 되듯이.”
    - (2) 맛소라본문의 사 52:14, “많은 이가 너를 인해 당황하게 되듯이.”
    - (3) 사 52:15 에서 칠십인역의 대명사적 차이는 확인된다
      - ㄱ) 칠십인역,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 ㄴ) 맛소라본문,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를 홀을 것이다”
  - ㄴ. 사해사본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 사 21:8 의 사해사본, “그 때 보는 자가 외쳤다, 내가 파수대위에 섰다.”
    - (2) 사 21:8 의 맛소라본문, “그리고 나는 외치기를 사자! 내 주여, 나는 낮에 ... 계속해서 파수대 위에 서 있습니다.”
  - ㄷ.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이 사 53:11 을 명확하게 한다
    - (1) 칠십인역과 사해사본, “그의 영혼이 구로한 후에 그는 빛을 보게 된가, 그는 만족하게 된다”
    - (2) 맛소라본문, “그는 보게 된다. ... 그의 영혼의 구로, 그는 만족하게 된다.”

#### 나. 신약

1. 5,300 개가 넘는 헬라이어 신약성경 사본의 전체나 일부분이 현존한다. 85 개 정도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268 개는 전체가 대문자로(인설)로 된 사본이다. 후기인 9 세기 경부터 흘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헬라이어 사본이 기록된 형태의 숫자는 약 2,700 개이다. 우리는 또한 성구집이라 불리는 예베에 쓰인 대략 2,100 개의 성경 필사본의 목록을 갖고 있다.
2. 신약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대략 85 개의 헬라이어 사본이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사본은 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3-4 세기의 것이다. 어떤 사본도 신약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적은 변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급하게 쓰여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변이를 갖는다.
3. 시내사본은 히브리 자음 **א**(אלעף) 혹은 (01)로 알려져 있는데, 티센도르프에 의해 시내산에 인는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것이며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4. “A” 혹은 (02)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 세기의 헬라이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5. “B” 혹은 (03)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4 세기 중엽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이어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6. “C” 혹은 (04)로 알려진 에프라미 사본은 5 세기의 사본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7. “D” 혹은 (05)로 알려진 베자 사본은 5-6 세기의 사본이다. 이것은 중요한 “서방 본문”이다. 이것은 많은 첨가를 갖고 있고 흠정역본의 기초가 되는 주요 헬라이어 사본이다.
8. 신약의 사본들은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으로 대별되며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함께 갖는다.
  - ㄱ.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
    - (1) P<sup>75</sup>, P<sup>66</sup>(주후 200 경), 복음서
    - (2) P<sup>46</sup>(주후 225 경), 바울서신
    - (3) P<sup>72</sup>(주후 225 경), 베드로서 유다서
    - (4) B 사본으로 불리는 바티칸 사본(주후 325 경), 구약과 신약 전체
    - (5) 오리겐은 이 본문그룹을 인용한다
    - (6) 이 그룹에 속한 다른 사본들은 **8**, C, L, W, 33
  - ㄴ. 북 아프리카의 서방 본문
    - (1) 북 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 사이프리아의 인용과 고대 라틴역
    - (2) 이레니우스의 인용
    - (3) 타티안의 인용과 고대 시리아역
    - (4) 베자 사본(D)은 이 그룹에 속한다
  - ㄷ.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비잔틴 본문
    - (1) 이 본문 그룹에 속한 사본은 5,300 사본의 80%에 이른다
    - (2) 시리아 안디옥의 교부인 캅바도시안, 크리소스톰, 테오오렛의 인용
    - (3) C 사본, 복음서만
    - (4) E 사본(8 세기), 신약 전체
  - ㄹ. 네 번째로 가능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 본문”이다
    - (1) 이것은 주로 마가복음에만 있다
    - (2) P<sup>45</sup> 와 W 가 이에 속한다.

##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의 이론과 문제점

### 가. 어떻게 변이가 생겼는가

1. 부주의 혹은 실수(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됨)
  - ㄱ. 손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두 비슷한 단어의 두 번째 단어로 눈이 옮겨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것(비슷한 단어 탈락)
    - (1) 중복되는 글자나 구를 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것(중자탈락)
    - (2) 헬라이어 본문의 구나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중복오사)
  - ㄴ. 귀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틀리는 것. 종종 철자의 오류는 헬라이어의 비슷한 소리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 ㄷ. 이른 시기의 헬라이어 본문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마침표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고 단어사이의 구분도 없었다.
2. 고의적
  - ㄱ. 필사자의 본문에서 문법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
  - ㄴ. 다른 귀절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에 만들어진 변화(병행귀절의 조화)
  - ㄷ. 차이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을 하나로 길게 조합하는데서 만들어진 변화(합성)
  - ㄹ.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본문을 고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변화(참조, 고전 11:27; 요일 5:7-8)
  - ㅁ. 이전의 서기관이 난외에 기록한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자료를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으로 생각하여 생기는 변화(참조, 요 5:4)

### 나. 본문비평의 기본 원리(본문에 상이점이 있을 때 원래의 본문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지침)

1. 가장 이상하거나 문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3. 다른 것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을 때, 가장 오래된 본문이 역사적으로 원본에 더 근접하기에 더 무게가 있다.
4. 지역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5. 요일 5:7-8의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으로 주요한 논제를 다룬 시기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 교리적 색채가 약한 본문이 더 선호되는 본문이다.
6. 다른 본문에 있는 상이점들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7. 이러한 어려운 차이점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용을 두 가지 소개하면
- ㄱ. J. 해롤드 그린리의 책, 신약의 본문비평 개론, 68 쪽:  
 “어떤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되는 본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학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감받은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정통이고 교리적으로 강하기 위해 그가 가져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다.
  - ㄴ. W. A. 크리스웰은 *버밍햄 뉴스*의 그렉 개리슨에게 그(크리스웰)는 “적어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해지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번역가들을 거친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나는 본문비평을 대단히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마지막 절반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단지 조제되어졌다...당신이 그 사본들을 고찰해 볼 때, 마가의 책의 결론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군가 그것을 첨가했다...”  
 남침례교단의 주요 순회전도자도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베테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 요 5 에서도 명백히 “삽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의 자살(참조, 마 27 과 행 1)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크리스웰은 덧붙이기를 “본문비평은 놀라운 과학 자체이다. 이것은 단명하지 않는다, 부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중심적이다...”

### III. 사본의 문제(본문비평)

- 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 1. R. H. 해리슨의 *성경적 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 2. 브루스 메츠거의 *신약성경의 본문: 전송, 개악, 회복*
  - 3. J. H. 그린리의 *신약본문비평 개론*

# 부록 4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물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워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